

사진으로 보는 2008년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행정

지식재산부국 코리아 특허청이 함께 합니다.

제20대 고정식 특허청장 취임식(5. 1)



6 2009 지식재산백서



◀ 좌측

2008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5. 8~10)
2008 학생발명체험마당(5. 10)
제43회 발명의 날 기념식(5. 19)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창립총회(5. 27)

우측 ▶

한국지식재산협의회 창립총회(6. 4)
대전현충원 참배(6. 5)
한-덴마크 특허청장 회담(6. 11)
콜센터 300만콜 돌파 행사(6. 12)
보훈병원 방문(6. 17)



8 2009 지식재산백서



2008년 상반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6. 26)

특허청장-민간연구
기관장 간담회(7. 9)

제21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7. 30~8. 3)



한-호주 특허청장 회담(8. 1)
베트남 특허청장 방문(8. 28)
구세군 대전 혜생원 방문(8.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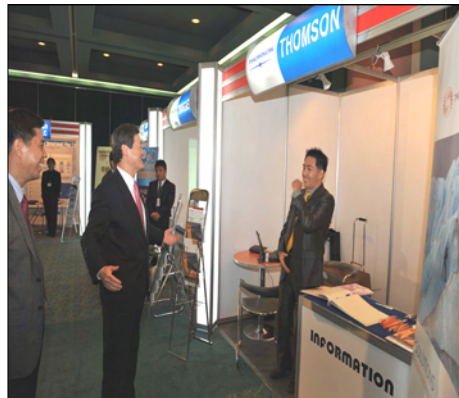
선행기술 노하우 경진대회(9. 10)
대전중리시장 방문(9. 12)
WIPO총회 기조연설(9. 22)
한-미 특허청 MOU 체결(9. 23)



한·미·일·EU·중 지재권 선진 5개국(IP5) 특허청장 회의(10. 27~28)



12 2009 지식재산백서



특허가죽 체육대회(10. 16)
계룡산 등반(11. 16)
국제특허정보 컨퍼런스(11. 11)
특허청-KOTRA MOU 체결(11. 17)





반도체 설계대전 시상식(12. 8)
발명특허·상표·디자인 대전(12. 11)
종무식(12. 31)





지식재산부족국 코리아
특허신청이 함께 합니다.

목차

2009 지식재산백서

C·O·N·T·E·N·T·S



제1편 제2기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지식재산 정책 개관

제1장 지식재산 분야 국내외 동향과 정책 추진방향	42
제1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동향	42
1. 개 관	42
2. 국내동향과 지식재산 정책 추진방향	43
제2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방안	46
1. 지식재산 분야 국제동향	46
2. 대응방안	52
제2장 새로운 특허행정발전 전략체계 수립	55
제1절 특허청 비전과 미션	55
제2절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및 관리과제	57
1.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58
2. 세계를 선도하는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59
3.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강화	60
4.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61
5. 지식재산권의 보호기반 강화	62
6. 고객 및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 구현	63
제3절 2008년의 주요성과	64
1.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64

2. 세계를 선도하는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65
3.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강화	66
4.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68
5. 지식재산권의 보호기반 강화	69
6. 고객 및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 구현	71



제2편 세계최고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제공

제1장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74
제1절 특허·실용신안분야	74
1.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제고	74
2. 고품질 특허심사지원	83
3. 특허심사 국제협력 강화	88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93
1.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제고	93
2. 상표·디자인심사 지원	99
3. 상표·디자인심사 인프라 지원	103
제3절 심판 분야	107
1. 심판품질 제고	107
제4절 심사평가제도 운영	114
1. 심사평가제도의 운영	114
2. 심사평가규정 및 지침서 개정	116
3. 심사품질의 합리적 측정과 관리	118
4. 심사관 및 심판관 사기양양	120
제5절 방식심사	124
1. 신속·정확·고객지향의 방식심사	124

제2장 심사·심판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125
제1절 심사·심판인력에 대한 교육강화	125
1. 실무중심의 전문교육과정	125
2. 특허청 상시학습 지원센터 (KIPO 아카데미) 구축·운영	127
3. WIPO 및 해외 지재권 교육기관과의 협력강화	131
제3장 고객지향적인 지식재산권 제도 구축·운영	137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137
1. 고객 맞춤형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추진	137
2. 한·미 FTA 합의사항 반영을 위한 특허법령 개정 추진	141
3.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 도입	148
4.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 개정	152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156
1. 고객맞춤형 상표법 개정 추진	156
2. 고객맞춤형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157
3. 한·미 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159
제3절 심판 분야	161
1. 구술심리 장소 다변화	161
2. 고객맞춤형 심판제도 도입	162



제3편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제1장 특허넷 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 서비스 품질제고	166
제1절 미래형 특허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166
1.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166
2. 미래형 검색시스템 구축	169

제2절 특허정보 시스템 개선 및 운영	172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운영	172
2. 업무활용 중심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175
제3절 특허정보 DB 구축	180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180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183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185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187
5. 공보 발간 및 보급	190
제4절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	193
1. 특허넷 시스템 기반인프라 향상	193
2. 사용자지원 고객만족도 향상	195
3. 정보보호체계 강화	197
제2장 글로벌 특허정보화 선도	200
제1절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200
1.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활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	202
3. 국제기구와의 정보화 협력사업 확대	206
제2절 한국형 특허정보화 시스템의 해외 확산	210
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210
2.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214



제4편 지식재산의 창출기반강화

제1장 국가 R&D 전략 선도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촉진	220
제1절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추진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220
1.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개요	220
2.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지원 사업	222
3.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229
4. 국가 R&D 특허성과관리	237
5.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	242
제2절 특허정보 활용 인프라 확대	245
1. 고객지향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운영	245
제2장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249
제1절 기초·원천특허 창출기반 조성	249
1. 대학 중점연구분야의 특허정보 분석 지원 확대	249
2. 직무발명제도 정착 촉진	252
3. 국유특허권의 활용촉진	260
제2절 지식재산 관리역량 제고	265
1. 특허전문가 파견 확대	265
2. 지식재산관리역량 진단 및 컨설팅	269
제3절 지재권 정책강화기반 조성	273
1. 지식재산정책 연구 강화	273
2. 지식재산정책 연구 인프라 구축	276

제3장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281

제1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종합인프라 구축 281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281
2. 특허정보종합컨설팅 285
3. 지역 지재권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299
4.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303
5. 비영어권 브랜드개발 지원사업 306
6.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310

제2절 상표·디자인 정보 활용 확산 319

1. 디자인맵 개발 및 분석사업 319
2. 상표트랜드 분석사업 325

제4장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331

제1절 발명진흥행사 개최 331

1. 제43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331
2. 세계여성발명대회 등 여성발명 진흥 334
3. 발명특허·상표·디자인 대전 및 서울국제발명전 개최 340

제2절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체계 고도화 342

1.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342
2. 개방혁신을 위한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추진 352
3.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360
4. 변리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363
5. 지식재산 인력 양성 기반 확충 367
6. 지식재산 경영노하우 공유확산을 위한 KINPA 설립·운영 지원 371

제3절 미래의 전문인력 양성 내실화 374

1. 학생발명교육 종합지원체계 구축 374
2. 발명교육센터 교육운영 내실화 388



제5편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제1장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의 효과성 제고	392
제1절 특허기술사업화 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	392
1.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392
2. 국제출원비용지원을 통한 권리화 지원	395
제2절 우수특허제품의 판로지원 강화	398
1. 특허제품 e-market place 운영	398
2.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400
제2장 특허기술 평가 및 거래활성화	402
제1절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 구축	402
1. 특허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402
제2절 수요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 시스템 구축	407
1. 온·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	407
2.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413
3. 수요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 기반 구축	421



제6편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제1장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426
제1절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426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426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428
3.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430
4. 민관 공동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	432
제2절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433
1. 해외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	433
2. 해외 지식재산 침해 현황	434
3.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운영	436
제3절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	438
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	438
2. 국내 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	442
3.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443
제4절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445
1. 특허법률구조사업 추진	445
2.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운영	447
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내실화	449
제2장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반 강화	452
제1절 주요국과의 지재권 협력 강화 및 확대	452
1.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활동의 강화	452
2. 주요국과의 양자협력 강화	455
3. 지재권 양자협력 대상 국가의 다변화	458
4.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기반 강화	460
제2절 지재권분야 통상협상 대응	465
1. 기 체결된 FTA 협상 및 이행 현황	465
2. 주요 FTA 협상 참여 현황 및 전망	467
3. 신규 FTA 협상 대비 사전준비 강화	470
제3절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자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	475
1. 지재권분야 다자협상에서 능동적 대응	475
2. 적극적인 對개도국 원조를 통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482

제3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488
제1절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488
1. 우리나라 영업비밀제도의 연혁	488
2. 영업비밀제도 제도 정비 및 홍보 강화	490
제2절 반도체 설계재산 기술 인프라 구축	491
1. 반도체배치설계권 보호	491
2. 반도체설계재산 진흥	496
3. 향후계획	513



제7편 고객 및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

제1장 고객중심의 서비스 체제 구축·운영	516
제1절 고객지향의 민원서비스 제공	516
1. 고객감동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516
2. 고객과 함께하는 민원·제도 개선	517
3. 고객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519
4.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520
제2절 고객감동 전자민원서비스	523
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523
2.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531
제2장 기업형 책임경영 시스템 정착	534
제1절 전략 중심의 조직 운영	534
1. 특허청의 전략체계	534
2. 전략 중심의 실행력 제고	537

제2절 성과주의 문화 내재화	539
1. 특허청 성과관리 제도 개요	539
2. 성과주의 문화 정착	541
제3절 변화관리 추진	543
1. 제안활동 활성화	543
2. 6시그마 경영의 효율화	550
3. 핵심가치 내재화	554



제8편 출원, 심사·심판, 등록분야 동향 및 전망

제1장 국내출원 분야 동향 및 전망	560
---------------------------	-----

제1절 산업재산권 전반	560
1.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560
2. 외국인 출원현황	561
3. 법인 및 개인 출원현황	562
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563
5. 대리인 유무별 출원현황	564
6.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EPO)의 특허출원 현황	565
7. 우리나라의 주요국(미국, 일본, EPO, 중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	566
제2절 권리별·산업부문별 출원	567
1.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567
2. 디자인등록출원	568
3. 상표등록출원	569
제3절 내·외국인별 출원	570
1. 내국인 출원현황	570
2. 외국인 출원현황	572

제4절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	574
1. 공공기관 특허출원현황	574
2. 대학 특허출원현황	575
 제2장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분야 동향	577
제1절 세계 PCT 국제출원	577
1. 2008년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577
2. 세계 PCT 국제출원 향후 전망	579
제2절 한국특허청 PCT 국제출원	580
1.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현황 및 전망	580
2.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현황 및 전망	586
3. PCT를 통한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동향	589
제3절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591
1. 2008년 세계 국제상표출원 현황	591
2. 2008년 국내 본국관청 국제상표출원 현황	594
3. 2008년 국내 지정국관청 현황	596
4. 2009년 국제상표출원 전망	598
 제3장 등 록	600
제1절 산업재산권 전반	600
1. 2008년 산업재산권 동향	600
2. 2008년도 등록 현황	601
제2절 연 차 등 록	610
제3절 존속권리 현황	611
제4절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612

제4장 심 사	613
제1절 총 괄	613
제2절 특허 및 실용신안	615
제3절 상표 및 디자인	619
1. 상표등록출원 심사	619
2.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620
제5장 심 판	622
제1절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622
제2절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628
제3절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629



1. 역대 청장	632
2. 기구정원 · 예산현황	633
3. 특허청 소관법령 현황	636
4. 2008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 홍보활동	637

표목차

2009 지식재산백서



〈표 II-1-1〉 심사관 승급 기준	77
〈표 II-1-2〉 심사파트제 운영 현황	79
〈표 II-1-3〉 최근 5년간 협의심사 현황	81
〈표 II-1-4〉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현황	83
〈표 II-1-5〉 선행기술조사사업 추진실적	84
〈표 II-1-6〉 국제특허분류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85
〈표 II-1-7〉 심사관 신기술 교육사업 추진실적	86
〈표 II-1-8〉 전통지식 DB 구축사업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87
〈표 II-1-9〉 국제기관(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현황	88
〈표 II-1-10〉 PCT 국제조사 의뢰 현황	89
〈표 II-1-11〉 우리나라의 PCT 국제조사 서비스 제공 국가	89
〈표 II-1-12〉 특허심사 교류 프로그램 기술분야 현황	92
〈표 II-1-13〉 상표 및 디자인 심사품질 향상 추진체계	93
〈표 II-1-14〉 상표 지정상품 포괄명칭 인정범위 확대현황	94
〈표 II-1-15〉 상표 및 디자인 심사관 심사역량 강화교육 현황	95
〈표 II-1-16〉 상표 및 디자인제도연구회 운영 실적	96
〈표 II-1-17〉 2008년도 상표 및 디자인 심사노하우경진대회 개최 현황	96
〈표 II-1-18〉 T&D-EXCEL Plan 추진현황	97
〈표 II-1-19〉 상표 및 디자인 심사평가제도 개선현황	97
〈표 II-1-20〉 2008년도 상표 및 디자인 거절결정 적합률 현황	98
〈표 II-1-21〉 2008년도 상표 및 디자인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8
〈표 II-1-22〉 포괄명칭인정목록의 상품류별 현황	101
〈표 II-1-23〉 포괄명칭관련 가거절통지건수(국제상표) 현황	103
〈표 II-1-24〉 형태분류 전후 심사자료 비교(휴대용 전화기 H3-301의 경우)	105
〈표 II-1-25〉 디자인 심사자료 보유현황(2008.12월 현재)	106
〈표 II-1-26〉 주요국의 심사평가제도 운용현황	114
〈표 II-1-27〉 2008년도 우수 심사·심판부서 포상 실적	121
〈표 II-1-28〉 2008년도 검색 우수부서 포상 실적	122

〈표 II-1-29〉 2008년도 우수 심사·심판관 포상 실적	122
〈표 II-1-30〉 2008년도 검색 우수심사관 및 우수조사관 포상 실적	122
〈표 II-1-31〉 2008년도 우수지도 심사과장 포상 실적	123
〈표 II-2-1〉 KIPO 아카데미 (http://www.kipoacademy.net)	130
〈표 II-2-2〉 특허청 상시학습센터 콘텐츠 제공현황 (21개 과정, '08.12)	130
〈표 II-2-3〉 2009년 WIPO 여름학교 개최 일정	133
〈표 II-2-4〉 2008년 외국인 과정 교육훈련 운영 결과	134
〈표 II-2-5〉 2009년 외국인 과정 교육훈련 계획	136
〈표 II-3-1〉 연도별 보정각하결정 건수	138
〈표 II-3-2〉 사유별 보정각하결정 현황(2007년)	138
〈표 II-3-3〉 연도별 심사전치 특허결정건수	139
〈표 II-3-4〉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관련 한·미 FTA 합의사항 요약	142
〈표 III-1-1〉 '08년 완료된 주요 추진 사항	167
〈표 III-1-2〉 '09년 주요 개선예정 사항	168
〈표 III-1-3〉 검색시스템 구성 현황	169
〈표 III-1-4〉 검색시스템 고도화 추진 경과	170
〈표 III-1-5〉 지식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	176
〈표 III-1-6〉 연도별 지식등록 및 조회 현황	179
〈표 III-1-7〉 특·실 검색 DB 구축현황	181
〈표 III-1-8〉 디자인 검색 DB 구축현황	182
〈표 III-1-9〉 상표 검색 DB 구축현황	182
〈표 III-1-10〉 '08년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서면서류 전자화 실적	184
〈표 III-1-11〉 2008년도 데이터관리센터 처리 현황	186
〈표 III-1-12〉 한국특허영문초록 DB구축 현황	188
〈표 III-1-13〉 한국특허영문초록 CD-ROM 국내외 배포기관	189
〈표 III-1-14〉 한국특허영문초록 검색회수(3년간)	190
〈표 III-1-15〉 2008년도 공보 발간 건수	191
〈표 III-1-16〉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	191
〈표 III-1-17〉 주요 서버별 업무집중시간대 CPU 사용률 개선 현황	194
〈표 III-1-18〉 연도별 사용자지원 현황	196
〈표 III-2-1〉 주요국 특허청과의 향후 계획	206
〈표 III-2-2〉 정보화 기술표준을 위한 향후 계획	217

〈표 IV-1-1〉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지원 사업 개념	224
〈표 IV-1-2〉 지재권의 눈으로 바라본 R&D 연계 전략	224
〈표 IV-1-3〉 특허전략 추진단 구성(4대 분야별 특허전략위원회 구성·운영)	225
〈표 IV-1-4〉 기술획득전략 수립 Process(실행방안)	226
〈표 IV-1-5〉 특허청이 개발한 지재권 중심 기술획득전략 방법론의 유용성 평가	227
〈표 IV-1-6〉 시범 사업성과(도출된 R&D 과제수)	228
〈표 IV-1-7〉 '09년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과제	228
〈표 IV-1-8〉 '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중간기획 시 특허동향조사 지원 현황	232
〈표 IV-1-9〉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단계평가 시 선행특허조사	234
〈표 IV-1-10〉 '03년부터 특허성과 분석에 따른 DB 구축 현황	238
〈표 IV-1-11〉 '08년 상담실적 내용별 분류	242
〈표 IV-1-12〉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제공정보 현황	247
〈표 IV-1-13〉 연도별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사용자 현황	248
〈표 IV-2-1〉 연구개발비 및 박사급 연구인력 현황('07년)	249
〈표 IV-2-2〉 특허출원건수 및 점유율('03~'07년)	250
〈표 IV-2-3〉 최근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추이	253
〈표 IV-2-4〉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 추이	253
〈표 IV-2-5〉 직무발명 보상실시율	257
〈표 IV-2-6〉 직무발명 보상 유형별 실시율	258
〈표 IV-2-7〉 개정 직무발명제도 인지정도	259
〈표 IV-2-8〉 연도별 국유특허권 보유 현황	261
〈표 IV-2-9〉 연도별 국유특허권 실시현황	262
〈표 IV-2-10〉 국유특허 등록·처분보상금 지급현황	263
〈표 IV-2-11〉 기술이전율 현황	265
〈표 IV-2-12〉 기술료수입 현황	266
〈표 IV-2-13〉 특허관리어드바이저 파견대학	267
〈표 IV-2-14〉 특허관리어드바이저 파견 성과	268
〈표 IV-2-15〉 지식재산관리역량 평가 항목	270
〈표 IV-2-16〉 지식재산관리역량 평가 절차	271
〈표 IV-2-17〉 주요 대학·공공(연) 특허관리역량 점수(평균)	272
〈표 IV-2-18〉 정책연구용역 추진절차 및 운영	274

〈표 IV-2-19〉 '08년 지식재산정책연구용역 주제	275
〈표 IV-2-20〉 Global IP Trend주요 뉴스	277
〈표 IV-2-21〉 포럼 리스트	278
〈표 IV-3-1〉 운영주체별 사업수행기관	283
〈표 IV-3-2〉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현황	284
〈표 IV-3-3〉 연도별 진단실적	285
〈표 IV-3-4〉 2008년 특허정보종합컨설팅	286
〈표 IV-3-5〉 2008년 맞춤형 PM컨설팅 센터별 추진 현황	289
〈표 IV-3-6〉 '08 특허 스타기업 현황	296
〈표 IV-3-7〉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현황	300
〈표 IV-3-8〉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현황	301
〈표 IV-3-9〉 '08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 지역특산물	305
〈표 IV-3-10〉 '08년 지역브랜드 컨설팅 대상 지자체 현황	306
〈표 IV-3-11〉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현황	308
〈표 IV-3-12〉 '08년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 반응	309
〈표 IV-3-13〉 분석대상 및 분석 건수	326
〈표 IV-4-1〉 여성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335
〈표 IV-4-2〉 여성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335
〈표 IV-4-3〉 대한민국발명특허·상표·디자인대전 및 서울국제발명전 성과내용 요약 ..	341
〈표 IV-4-4〉 대학 특허교육 지원현황	343
〈표 IV-4-5〉 '08년 1학기 학부 및 대학원 강좌개설 운영지원 현황	344
〈표 IV-4-6〉 '08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강좌개설 운영지원 현황	345
〈표 IV-4-7〉 대학생 디자인등록출원 건수	347
〈표 IV-4-8〉 참여기업 및 공모디자인품목	350
〈표 IV-4-9〉 출품현황 및 수상	351
〈표 IV-4-10〉 경진부문별 서면심사기준	354
〈표 IV-4-11〉 경진부문별 최종심사기준	354
〈표 IV-4-12〉 발표심사기준	355
〈표 IV-4-13〉 '08년 시상내역	355
〈표 IV-4-14〉 '08년 세부추진일정	356
〈표 IV-4-15〉 21개 참여기업현황	356
〈표 IV-4-16〉 부문별 수상현황	357

〈표 IV-4-17〉 산업분야별 문제출제 현황	358
〈표 IV-4-18〉 주요 수상자 현황	359
〈표 IV-4-19〉 대학별 수상현황	359
〈표 IV-4-20〉 단계별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안)	362
〈표 IV-4-21〉 T3 프로그램 운영 현황	368
〈표 IV-4-22〉 T3 교육 과정 개요	368
〈표 IV-4-23〉 발명교실 이용자 현황	376
〈표 IV-4-24〉 발명교실 이용자 현황	377
〈표 IV-4-25〉 발명교실 운영비 지원현황	377
〈표 IV-4-26〉 발명교실 현대화 선정기준	377
〈표 IV-4-27〉 발명교실 현대화 지원현황	377
〈표 IV-4-28〉 시·도 교육청별 발명교실 현황	378
〈표 IV-4-29〉 연도별 발명교실 설치현황	379
〈표 IV-4-30〉 사이버발명교육연수원 수료현황	380
〈표 IV-4-31〉 2008년 사이버발명교육연수원 과정운영 현황	380
〈표 IV-4-32〉 2008년 발명교육연구회 활성화 지원사업 리스트	381
〈표 IV-4-33〉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	383
〈표 IV-4-34〉 발명장학생 연도별 선발인원	384
〈표 IV-4-35〉 발명장학생 선발기준	384
〈표 IV-4-36〉 발명교육센터 교육과정 현황	389
〈표 V-1-1〉 최근 5년간 시작품 제작 지원실적	393
〈표 V-1-2〉 최근 3년간 지원된 시작품의 사업화 실적	393
〈표 V-1-3〉 국제출원비용 지원실적 세부현황	396
〈표 V-1-4〉 국제출원비용 지원건의 등록률현황	397
〈표 V-1-5〉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실적	399
〈표 V-1-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실적	400
〈표 V-2-1〉 최근 8년간 평가비용 지원실적	404
〈표 V-2-2〉 '08년 기술금융연계 평가 지원실적	405
〈표 V-2-3〉 최근 5년간 발명의 평가결과 활용율	405
〈표 V-2-4〉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현황	406
〈표 V-2-5〉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DB 구축현황	409
〈표 V-2-6〉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	411
〈표 V-2-7〉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411

〈표 V-2-8〉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DB 구축현황	415
〈표 V-2-9〉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	418
〈표 V-2-10〉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418
〈표 VI-1-1〉 위조상품 단속 및 조치내역	427
〈표 VI-1-2〉 주요 품목별 단속실적	427
〈표 VI-1-3〉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실적	428
〈표 VI-1-4〉 유형별 포상금 지급현황('08. 1~12)	429
〈표 VI-1-5〉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교육실적	432
〈표 VI-1-6〉 연도별 · 지역별 피침해 현황(2000~2008)	435
〈표 VI-1-7〉 권리별 피침해 현황(2000~2008)	435
〈표 VI-1-8〉 2008년도 지식재산권 침해유형	436
〈표 VI-1-9〉 2008년 우리기업 및 외국기업과 국제특허분쟁 해소현황	439
〈표 VI-1-10〉 외국기업과의 기술분야별 특허소송건수(2000~2008)	440
〈표 VI-1-11〉 상대국가별 특허분쟁 건수(2000~2008)	441
〈표 VI-1-12〉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 실적	446
〈표 VI-1-13〉 지원대상자별 지원 실적	446
〈표 VI-1-14〉 상담유형별 상담실적	448
〈표 VI-1-15〉 상담민원인별 상담실적	448
〈표 VI-1-16〉 최근 10년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현황	450
〈표 VI-2-1〉 IP5 10대 기반 프로젝트	453
〈표 VI-2-2〉 2008년도 양자회의 합의실적	457
〈표 VI-2-3〉 연도별 FTA 체결 건수	465
〈표 VI-2-4〉 한-중 FTA 공식협상 일정	471
〈표 VI-2-5〉 한-호주 FTA 공식협상 일정	472
〈표 VI-2-6〉 한-뉴질랜드 FTA 공식협상 일정	472
〈표 VI-2-7〉 한-메르코수르 공식협상 일정	473
〈표 VI-2-8〉 한-러시아 FTA 공식협상	473
〈표 VI-2-9〉 한-페루 FTA 공식협상	474
〈표 VI-2-10〉 한-터키 FTA 공식협상	474
〈표 VI-2-11〉 제4차 한국신탁기금사업 결과 ('07.7~'08.6)	485
〈표 VI-2-12〉 제5차 한국신탁기금사업 추진 계획 ('08. 7~'09. 6)	486
〈표 VI-3-1〉 연도별 내 · 외국인별 설정등록현황	494

〈표 VI-3-2〉 국가별 설정등록 현황	494
〈표 VI-3-3〉 기관별 설정등록현황	495
〈표 VI-3-4〉 기술별 설정등록현황	496
〈표 VI-3-5〉 제1분류별 설정등록현황	496
〈표 VI-3-6〉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개최현황	498
〈표 VI-3-7〉 해외 반도체설계재산 유통 관련기관 현황	501
〈표 VI-3-8〉 성과목표 및 달성실적	502
〈표 VI-3-9〉 창출촉진시스템구축 사업현황	506
〈표 VI-3-10〉 사업과제 및 개발기관	507
〈표 VI-3-11〉 연차별 사업추진 목표	512
〈표 VII-1-1〉 특허고객만족도 추이(2004~2008년)	519
〈표 VII-1-2〉 전자지불서비스 이용현황(2008년)	521
〈표 VII-1-3〉 '03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524
〈표 VII-1-4〉 '04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525
〈표 VII-1-5〉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대상	526
〈표 VII-1-6〉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단계별 개통시기	526
〈표 VII-1-7〉 '06년도 주요 추진내용	527
〈표 VII-1-8〉 '07년도 주요 추진 내용	528
〈표 VII-1-9〉 '08년 주요 추진내용	530
〈표 VII-1-10〉 '09년 주요 개선예정 사항	531
〈표 VII-1-11〉 홈페이지(특허路)를 통한 웹 출원 현황('05.11~'08.12)	532
〈표 VII-2-1〉 제1차 창의정책 경진대회	547
〈표 VII-2-2〉 2008년도 6시그마 수행 과제	553
〈표 VII-2-3〉 고객 최우선 관련 주요사례	556
〈표 VII-2-4〉 도전과 창의 관련 주요사례	556
〈표 VII-2-5〉 신뢰와 존중 관련 주요사례	557
〈표 VIII-1-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현황	560
〈표 VIII-1-2〉 내·외국인별 출원현황	562
〈표 VIII-1-3〉 법인·개인별 출원현황	563
〈표 VIII-1-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564
〈표 VIII-1-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564
〈표 VIII-1-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	565

〈표 VIII-1-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566
〈표 VIII-1-8〉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현황	567
〈표 VIII-1-9〉 산업부문별 디자인등록 출원현황	568
〈표 VIII-1-10〉 NICE분류별 상표등록 출원현황	569
〈표 VIII-1-11〉 내국인 지역별 출원현황	570
〈표 VIII-1-12〉 2008년도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현황	571
〈표 VIII-1-13〉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현황	572
〈표 VIII-1-14〉 외국인10대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	573
〈표 VIII-1-15〉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	574
〈표 VIII-1-16〉 공공기관 다출원 순위	575
〈표 VIII-1-17〉 대학 특허출원 현황	575
〈표 VIII-1-18〉 대학 다출원 순위	576
〈표 VIII-2-1〉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건수	580
〈표 VIII-2-2〉 국내 다출원 법인(기업)별 PCT 국제출원 현황	582
〈표 VIII-2-3〉 개인 대 법인의 PCT 국제출원 현황	583
〈표 VIII-2-4〉 2008년 기술 분야별 PCT 국제출원 현황	583
〈표 VIII-2-5〉 매체별 PCT 국제출원 현황	584
〈표 VIII-2-6〉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585
〈표 VIII-2-7〉 PCT 국제조사용사본 접수 현황	587
〈표 VIII-2-8〉 PCT 국제예비심사 청구 현황	587
〈표 VIII-2-9〉 PCT 국제조사기관 지정 현황	588
〈표 VIII-2-10〉 외국인의 PCT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 건수	589
〈표 VIII-2-11〉 2008년도 세계 10대 多 국제등록권리자 및 多 국제출원인	594
〈표 VIII-2-12〉 연도별 우리나라의 국제상표 전자출원 현황	595
〈표 VIII-2-13〉 2008년도 우리나라 10대 국제상표 다출원인 현황	596
〈표 VIII-2-14〉 2008년도 우리나라 지정 10대 국제상표 다출원인	598
〈표 VIII-2-15〉 연도별 내국인의 국제상표출원 건수	598
〈표 VIII-2-16〉 연도별 외국인의 국제상표 한국지정 건수	599
〈표 VIII-3-1〉 최근 5년간 설정등록현황	601
〈표 VIII-3-2〉 2008년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설정등록현황	602
〈표 VIII-3-3〉 2008년 물품군별 디자인 등록현황	603
〈표 VIII-3-4〉 2008년 부문별 상표 등록현황	603

〈표 VIII-3-5〉 2008년 개인·법인별 등록현황	604
〈표 VIII-3-6〉 최근 5년간 개인·법인별 등록현황	605
〈표 VIII-3-7〉 2008년 대리인 유무별 등록현황	605
〈표 VIII-3-8〉 최근 5년간 내·외국인 등록현황	606
〈표 VIII-3-9〉 2008년 시·도별 등록현황	607
〈표 VIII-3-10〉 2008년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현황	608
〈표 VIII-3-11〉 2008년 국내 다등록 업체 현황	609
〈표 VIII-3-12〉 최근 5년간 권리별 연차등록현황	610
〈표 VIII-3-13〉 2008년 현재 존속권리 현황	611
〈표 VIII-3-14〉 2008년 현재 국가별 국제상표(마드리드) 등록현황	612
〈표 VIII-4-1〉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614
〈표 VIII-4-2〉 특허 1차심사처리 현황	615
〈표 VIII-4-3〉 특허 심사종결처리 현황	616
〈표 VIII-4-4〉 실용신안 1차심사처리 현황	617
〈표 VIII-4-5〉 실용신안 심사종결처리 현황	617
〈표 VIII-4-6〉 구 실용신안(선등록 제도) 심사 현황	618
〈표 VIII-4-7〉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현황	618
〈표 VIII-4-8〉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619
〈표 VIII-4-9〉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620
〈표 VIII-4-10〉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620
〈표 VIII-4-11〉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621
〈표 VIII-5-1〉 심판청구 현황	622
〈표 VIII-5-2〉 심판처리 현황	623
〈표 VIII-5-3〉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	624
〈표 VIII-5-4〉 내국인·외국인간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625
〈표 VIII-5-5〉 국내기업·외국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626
〈표 VIII-5-6〉 중소기업·대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627
〈표 VIII-5-7〉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	627
〈표 VIII-5-8〉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628
〈표 VIII-5-9〉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629

그림목차

2009 지식재산백서



〈그림 I-1-1〉 특허행정 발전 전략체계	54
〈그림 I-1-2〉 전략목표 I 체계도	58
〈그림 I-1-3〉 전략목표 II 체계도	59
〈그림 I-1-4〉 전략목표 III 체계도	60
〈그림 I-1-5〉 전략목표 IV 체계도	61
〈그림 I-1-6〉 전략목표 V 체계도	62
〈그림 I-1-7〉 전략목표 VI 체계도	63
〈그림 II-1-1〉 심사품질개혁방안 목표 및 세부 추진 과제	76
〈그림 II-1-2〉 특허심사하이웨이의 개요	90
〈그림 II-1-3〉 디자인 심사자료 형태분류 정비사업 현황	104
〈그림 II-1-4〉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수집 정비현황	104
〈그림 II-1-5〉 법원근무결과 발표회 전경	109
〈그림 II-1-6〉 심판이력카드 조회화면	110
〈그림 II-1-7〉 쟁점별 상표판례 검색 사례	111
〈그림 II-2-1〉 WIPO 파트너 기관 인증서	131
〈그림 II-2-2〉 제1회 여름학교 참가자 소감문	132
〈그림 II-2-3〉 제1회 WIPO 여름학교 사진	133
〈그림 II-2-4〉 KOICA 한·싱 과정 자료 사진	134
〈그림 II-3-1〉 특허권 존속기간에 관한 개념도	143
〈그림 II-3-2〉 불실시에 따른 특허권 취소 절차 흐름도	146
〈그림 II-3-3〉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 개요도	149
〈그림 II-3-4〉 심판처리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62
〈그림 II-3-5〉 맞춤형 심판프로세스 개요	163
〈그림 III-1-1〉 특허넷시스템 내부구성도	194
〈그림 IV-1-1〉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지원 사업 체계도	223
〈그림 IV-1-2〉 '08년 지재권 획득전략 시범사업	225
〈그림 IV-1-3〉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방법론	226
〈그림 IV-1-4〉 연구기획 시 특허동향조사 추진 체계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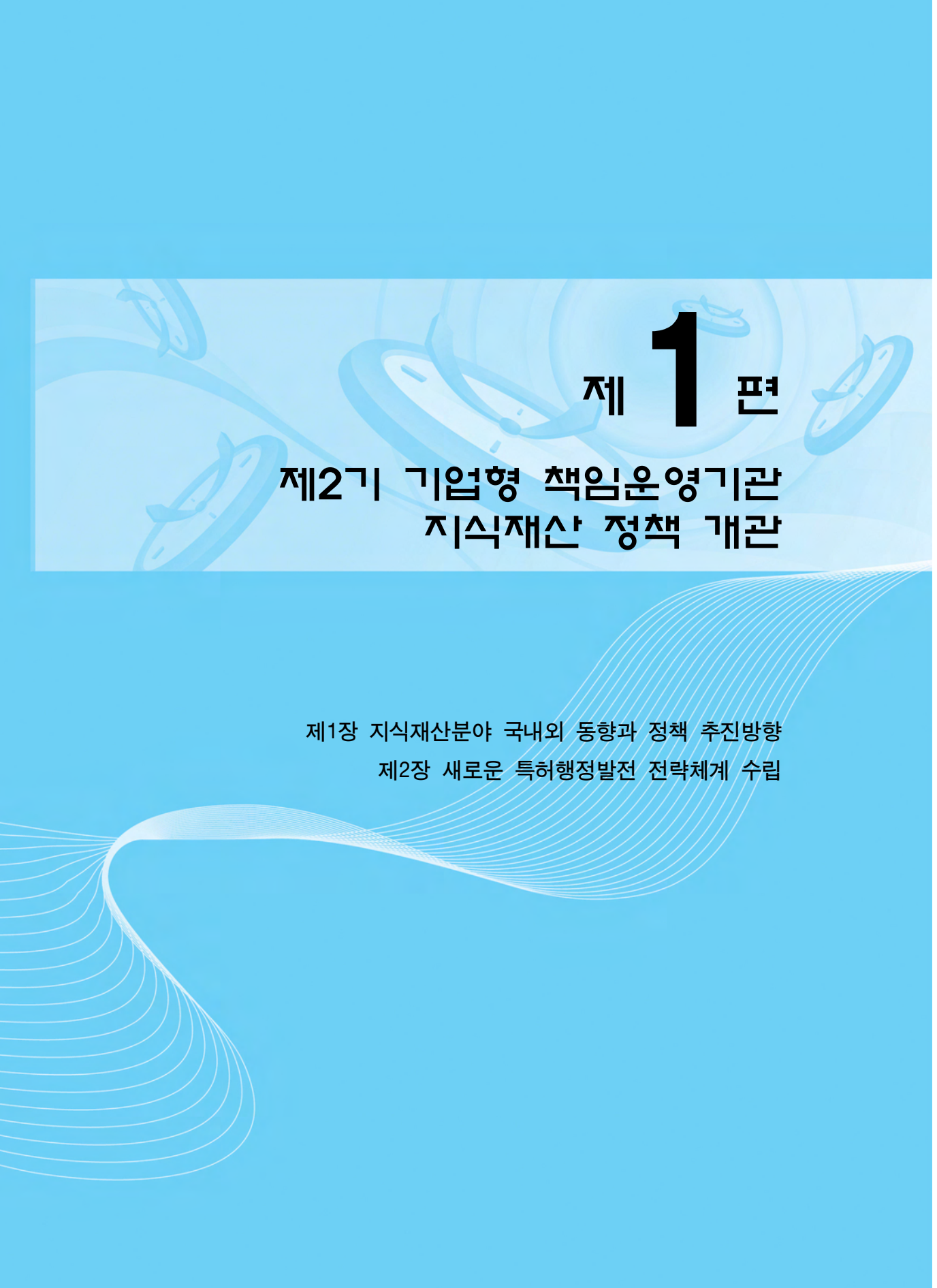
〈그림 IV-1-5〉 과제선정/단계평가 시 선행특허조사 추진 체계	233
〈그림 IV-1-6〉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예산절감 및 경제적 편익 효과	235
〈그림 IV-1-7〉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235
〈그림 IV-1-8〉 선정과제에 대한 회피설계 추진 체계	236
〈그림 IV-1-9〉 특허성과 입력·등록시스템 구축 前後 비교	241
〈그림 IV-2-1〉 유망특허기술 발굴 및 사업화	252
〈그림 IV-2-2〉 직무발명제도 메카니즘	254
〈그림 IV-2-3〉 충남지식재산센터(5.27)	255
〈그림 IV-2-4〉 연구담당자교류회(9.25)	255
〈그림 IV-2-5〉 직무발명 보상 규정 보유·활용 비율	257
〈그림 IV-2-6〉 특허전략전문가 파견사업 개요	268
〈그림 IV-2-7〉 Global IP Trend 2008 표지 및 Global IP Trend 계통도	277
〈그림 IV-2-8〉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사진	279
〈그림 IV-2-9〉 지식재산정보서비스(IPis) 홈페이지	280
〈그림 IV-3-1〉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분포현황	283
〈그림 IV-3-2〉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추진 단계	287
〈그림 IV-3-3〉 특허스타기업육성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295
〈그림 IV-3-4〉 '08년 지자체 브랜드 컨설팅 감사편지	305
〈그림 IV-3-5〉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개요	311
〈그림 IV-3-6〉 지식재산경영 포털 사이트	312
〈그림 IV-3-7〉 특허관리 S/W 실행 화면(예)	313
〈그림 IV-3-8〉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만족도	314
〈그림 IV-3-9〉 중소기업 CEO의 감사편지	314
〈그림 IV-3-10〉 지식재산전담인력 및 직무발명보상 비율 변화	315
〈그림 IV-3-11〉 사업추진 목표 및 추진방향	316
〈그림 IV-3-12〉 디자인 참증자료현황 (특허청 통계자료, 2009년 2월 25일 기준)	319
〈그림 IV-3-13〉 디자인 맵 기능별 개발예 ; 메인페이지, 통계분석, 트렌드분석 ..	321
〈그림 IV-3-14〉 디자인 맵 기능별 개발예 ; 이미지 맵, 포지셔닝 맵, 카페	321
〈그림 IV-3-15〉 2006년 디자인 맵 Workshop, 2006년 4월 21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회의장	322
〈그림 IV-3-16〉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산업군별 통계분석	323

〈그림 IV-3-17〉 2006년 디자인 맵 사업 설명회, 2006년 8월 25일, 리츠칼튼호텔 그랜드볼룸	324
〈그림 IV-3-18〉 2007년 디자인 맵 사업 완료보고회, 2007년 12월 12일,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324
〈그림 IV-3-19〉 2008년 디자인 맵 사업 완료보고회, 2008년 12월 4일,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324
〈그림 IV-3-20〉 식음료서비스업의 연도별 상표출원 및 등록추이	326
〈그림 IV-3-21〉 식음료서비스업의 상위 출원인 출원 및 등록 추이	327
〈그림 IV-3-22〉 식음료서비스업의 국가별 등록분포	327
〈그림 IV-3-23〉 식음료서비스업의 구성요소별 출원 및 등록	328
〈그림 IV-3-24〉 식음료서비스업의 구성요소별 등록 및 거절 예1	328
〈그림 IV-3-25〉 식음료서비스업의 구성요소별 등록 및 거절 예2	329
〈그림 IV-3-26〉 식음료서비스업의 구성요소별 등록 및 거절 예3	329
〈그림 IV-4-1〉 발명대왕 시상식	332
〈그림 IV-4-2〉 발명의 날 기념식 치사	333
〈그림 IV-4-3〉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34
〈그림 IV-4-4〉 발명특허 · 상표 · 디자인대전 및 서울국제발명전 개막식	341
〈그림 IV-4-5〉 발명특허 · 상표 · 디자인대전 및 서울국제발명전 시상식	341
〈그림 IV-4-6〉 2008년도 대학생 디자인 권리와 설명회 (4월, 동서대학교 디자인학과)	348
〈그림 IV-4-7〉 2008년도 디자인권 공모전 대상작“듀오백코리아 의자디자인 및 전시포스터	350
〈그림 IV-4-8〉 변리사 실무수습 개념도('07년 시험 합격자 예시)	364
〈그림 IV-4-9〉 실무수습 변리사 설문조사 결과('08.4)	364
〈그림 IV-4-10〉 개선된 변리사 실무수습 개념도	366
〈그림 IV-4-11〉 IP 전문인력 종합정보시스템 메인화면	369
〈그림 IV-4-12〉 고급분석기능 활용 예	370
〈그림 V-1-1〉 지역별 순회 사업설명회 모습(부산광역시)	394
〈그림 V-1-2〉 최근 5년간 시작품 신청 및 지원건수 추이	395
〈그림 V-2-1〉 인터넷특허기술장터 홈페이지	414
〈그림 VI-1-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문광고	451
〈그림 VI-2-1〉 5개국 특허청장 공식 합의문 서명식('08.10)	455

〈그림 VI-2-2〉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Action Plan	463
〈그림 VI-2-3〉 우리나라 ODA의 연도별 추이 및 ODA/GNI 비율	483
〈그림 VI-3-1〉 연도별 설정등록현황	493
〈그림 VI-3-2〉 반도체설계재산유통센터 D/B시스템 모델	503
〈그림 VI-3-3〉 핵심 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시스템	505
〈그림 VI-3-4〉 Core-A 임베디드 프로세서 구조도	508
〈그림 VI-3-5〉 Core-A용 온칩버스 구조	508
〈그림 VII-2-1〉 제안 총괄관리 프로세스	544
〈그림 VII-2-2〉 상시제안 우수사례 1	545
〈그림 VII-2-3〉 상시제안 우수사례 2	546
〈그림 VII-2-4〉 수요자 중심의 3-Track 심사처리방안	547
〈그림 VII-2-5〉 청내 모든 영역의 정책어젠다 공론화	547
〈그림 VII-2-6〉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548
〈그림 VII-2-7〉 중장기 전략 및 실행에 대한 연속공모	549
〈그림 VII-2-8〉 창의제안 인큐베이팅 시스템	549
〈그림 VII-2-9〉 2008년 6시그마 과제선정 개요	551
〈그림 VII-2-10〉 특허청 맞춤형 6시그마 방법론 DREAM 개요	552
〈그림 VIII-1-1〉 최근 5년간 출원추이	561
〈그림 VIII-1-2〉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추이	565
〈그림 VIII-2-1〉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578
〈그림 VIII-2-2〉 2008년 세계 PCT 다출원국 순위	578
〈그림 VIII-2-3〉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현황	581
〈그림 VIII-2-4〉 외국인의 PCT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 현황	589
〈그림 VIII-2-5〉 연도별 세계 국제상표출원 현황	591
〈그림 VIII-2-6〉 2008년도 10대 다출원국	592
〈그림 VIII-2-7〉 연도별 세계 국제등록 현황	592
〈그림 VIII-2-8〉 2008년도 세계 10대 지정국 현황	593
〈그림 VIII-2-9〉 연도별 우리나라의 국제상표 출원현황	594
〈그림 VIII-2-10〉 2008년도 내국인의 국제상표 10대 지정국 현황	595
〈그림 VIII-2-11〉 연도별 외국인의 우리나라 지정 국제상표등록출원 현황	597
〈그림 VIII-2-12〉 2008년도 연도별 외국인의 우리나라 지정 국제상표 현황	597

지식재산부족 코리아
특허청이 함께 합니다





제 1 편

제2기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지식재산 정책 개관

제1장 지식재산분야 국내외 동향과 정책 추진방향

제2장 새로운 특허행정발전 전략체계 수립

지식재산 분야 국내외 동향과 정책 추진방향

제1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동향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 농업사무관 김준경

1. 개 관

토지·자본 등 유형자산이 경쟁력의 원천이었던 산업사회는 정보와 지식에 근거한 기술력, 브랜드, 디자인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제조업보다 지식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존 산업도 지식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고 신기술 등 지식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무형자산 중 권리화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극대화 추구로 국가간·기업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총성없는 전쟁시대가 도래한다고 일컬어질 정도가 되었다. 보호무역의 주요 수단이 반덤핑 제소에서 특허침해를 근거로 한 수출입금지 등 강력한 국경조치로 변화하고 있고, 표준경쟁에서 승리한 국가와 기업은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시장을 독점하나 패배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군소기업으로 전략하는 실정에 이른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세계화에 따라 인력, 정보, 자본 등 주요 생산요소의 국제적인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FTA 체결 등으로 국제무역이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가간·기업간 제품 및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각

국가 및 기업은 경쟁력우위에 있는 요소에만 집중하고 그 외에는 국제시장에서 조달하는 새로운 글로벌 전략(Value-Networked Economy)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간·기술간 다양한 융합현상이 신규산업의 형성 및 발전의 주요 특징으로 부각됨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은 국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 국내동향과 지식재산 정책 추진방향

우리나라는 제조업 위주의 고도성장을 통해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를 갖추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최근 선진국의 기술력과 개도국의 원가경쟁력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동향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분야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08년 산업재산권 전체 출원건수는 368,565건으로 전년(380,203건) 대비 3.1% 감소하고 기술혁신 및 지식창출과 관련되는 특허출원은 167,904건으로 전년(172,469건)대비 2.6% 감소하였으나 출원건수는 2005년 이후 세계 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08년 PCT 국제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출원건수는 전년(7,061건)대비 12.0% 증가한 7,908건으로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단위 : 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특허	166,189	172,469	167,904
실용신안	32,908	21,084	17,226
상표	122,384	132,288	127,139
디자인	51,039	54,362	56,296
계	372,520	380,203	368,565

《PCT 국제특허출원 추이》

(단위 : 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미 국	50,941	54,086	53,521
일 본	27,033	27,744	28,744
독 일	16,732	17,818	18,428
한 국	5,944	7,061	7,908
프랑스	6,242	6,568	6,867

한편, 美·日·EU의 특허 3극에서 韓·美·日·EU·中의 5개국 협력체제¹⁾로 지적권 국제질서가 재편되면서 상호간의 심사결과 상호 활용을 위한 심사품질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日, 中, 獨, 濠와의 공동선행기술조사사업 실시, 韓-日, 韓-美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추진 등 우리 심사결과를 타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특허심사의 국제적 공조가 강화됨으로써 세계가 우리의 특허심사를 주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2008년 심사·심판 품질 쇄신전략(EXCEL Plan : Examination & trial excellence Plan)을 수립하고 심사·심판 인프라 최적화, 심사·심판품질 고도화, 품질관리 효율화 등 3개 분야 39개 과제를 추진하여 심사·심판 품질강화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심사품질 제고 노력의 결과로 특허심사처리 기간은 12.1개월('08년)로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신속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외국기업들이 PCT 국제출원에 대해 한국 특허청에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건수는 735건('06)에서 2,853건('07), 11,657건('08)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특허심사 역량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듯 출원은 세계 4위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우리 특허청에 대한 심사품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조선,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 제조업의 생산성은 '06년 기준으로 선진국(미국=100기준)의 47%에 불과하고, 기술무역수지는 2005년 이후 매년 29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전세계 유효특허의 8.8%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기통신분야 표준화기구인 ITU에 등록된 표준특허는 2.3%에 불과한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원천특허의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 시장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세계 시장을 주도할 상품을 예측하여 이와 연계된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선점을 지원해야 하고 표준특허의 부족으로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큰 IT 분

1) 전 세계 특허출원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한, 미, 일, 유럽연합(EU),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특허협력 체제

야를 중심으로 표준특허의 창출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강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

특허청은 제품을 부품결합체로만 보던 시각에 특허복합체라는 관점을 추가로 접목시켜 앞으로 세계 시장을 이끌어 나갈 원천·핵심특허에 관한 지재권 포트폴리오와 이를 구현할 기술획득 전략을 제공하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사업을 조선, STT-MRAM, 디스플레이 소재, 임베디드 SW 4개 분야에 대해 시범 추진하였고 산업계에 분야별 핵심특허, 지재권 포트폴리오 및 이를 구성하는 개별특허 획득전략, 지재권 획득 측면에서의 R&D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한 적시지원과 사후관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특허정보 제공사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첨단부품소재 R&D 전략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최적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갑(甲) 같은 을(乙)”로 기업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식재산의 보호 분야에서도 해외진출 기업의 특허분쟁 가능성 분석, 주요국 최신 특허분쟁 속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특허분쟁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쟁 발생 후에는 심판·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국제특허분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진출기업의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IP-Desk를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서 운영하였으며 지자체, 검·경 등과 협력하여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단체 등과 함께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의 보호정도는 세계 37위 수준이고,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의 2008년도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기업 10곳 중 3곳이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지식재산 보호분야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제2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방안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기술서기관 김일규

1. 지식재산 분야 국제동향

가.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 : 지식기반경제

20세기 정치중심의 국제질서 체계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지식기반산업을 위주로 한 경제중심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1950~70년대에 정치적 체제경쟁에 따른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초우월적 지위를 향유해오던 선진국들이 80년대부터 중·후진국들이 경제적으로 약진함에 따라 경제적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기존의 자본과 노동위주의 경제체제를 기술개발과 지식중심의 지식기반경제로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를 추진하게 된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WTO의 설립이라는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또한 큰 몫을 담당하였다.

경제중심의 국제질서 체제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부의 창출과 경제 성장의 원천이 천연자원, 노동, 자본 등 물질 자원에서 과학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으로 그 무게중심이 급격히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시장 독점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과 기술개발, 그리고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간 지식재산 선점 경쟁은 WIPO, WTO, APEC 등 다자무대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각국은 자국 우위의 국제 지재권 규범을 창출하기 위해 매진하

고 있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각 지역 그룹별 이해대립도 날이 갈수록 첨예해 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 경제 질서의 광범위한 자유화 추세도 더욱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재권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지재권 진흥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미국, 일본 및 EU 선진국들이 국제특허(PCT)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들은 지식재산 정책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국가전략으로 인식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효과적 활용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개도국 또한 지식재산 전략이 없이는 자국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창출, 활용을 위한 자국 시스템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문제는 현재 중요한 국가간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통상압력의 핵심적 수단으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이 국제통상 마찰의 “핫이슈”로 등장함과 동시에 각종 FTA에서도 지재권이 독립적인 협상 분야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보호와 후발주자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을 위해 무역정책과 연계하여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부터 STOP(Strategy Targeting Organized Pirac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최근 미 무역위원회 제소건수에 있어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제소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08년 전체 제소건수 39건 중 37건이 지재권 관련 제소). 일본 역시 2002년 관세정률법을 개정하여 자국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자국내 수입 및 통관금지 조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나. 지식재산환경의 변화

이와 같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출원이 배증하는 소요기간이 급속히 단축되고 있으며 [(‘60)95만건→(‘82)184만건→(‘93)279만건→(‘96)585만건],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대상과 범위 또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고 비기술적인 BM(비즈니스 모델)이 특허대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지리적표시, 전통지식, 공중보건, 민간전승물(folklore) 등도 새로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허출원의 증가는 심사체계의 누적으로 이어져, 주요국은 심사관 증원 등 개별적 노력과 함께 이를 국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간 심사협력(Work-sharing)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는 현재 지재권 국제사회에 핵심화두로 대두되어 논의되고 있다. 2006년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가 제안되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등 전 세계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지식재산 Top 5 국가간 심사협력 체제인 IP5 협력체제가 정식 출범하여 5개국간 심사협력을 확대하고 5개국간 심사 환경을 표준화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기 시작한 80년대 이후 지재권에 대한 권리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국가간, 기업간, 개인간 지재권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핵심기술 보유업체들의 특허공세가 강화되고 있어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하여 특허침해소송 패소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한 선발업체들이 특허풀(Pool)을 형성하여 후발기업의 사업진출을 사실상 봉쇄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지재권 분쟁 증가와 더불어 특허침해에 대한 국제적 감시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해외출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권리화된 해외특허를 바탕으로 현지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EU의 경우 한국상의회 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침해대책을 강구 중이며, 미국무역대표부는 각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다각도의 외교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재권을 통상협상의 주요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다. 주요국 동향 및 우리나라 현황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지식재산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 행정체제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먼저, 미국은 1999년 9월 국무부, 상무부, 미국특허청 등 총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가지식재산권법집행조정위원회’(NIPLECC :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Enforcement Coordination Council)를 설치하여 각 정부부처와 민간부문간 지재권 협력·조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0월에는 동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지식재산집행조정관으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지식재산 정책을 범국가 차원에 관리·조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특허청 주관으로 매 5년마다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2002년 21세기 전략계획(21st Century Strategic Plan)’을 수립한데 이어 2006년에 이를 계승하는 ‘5개년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07-2012)’을 수립·발표하였다.

미국정부는 이와 같이 안으로는 “21세기 전략계획”에 기초한 특허행정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불법복제 방지를 통한 자국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법무부, 세관, 국토안보부, 특허청 등 지재권 관련 정부조직들을 망라하여 「STOP(Strategic Targeting Organized Pirac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에서 자국 지재권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이 공동 대응해 나가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친지식재산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 등 국가적 어젠더 해결에 있어서도 IP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친지식재산 정책을 통해 녹색성장 및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일본 역시 소위 ‘잃어버린 10년’의 극복 방안으로 지적재산 입국을 선택하여,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및 인재육성 등 4개 분야의 50여개 주요 정책을 담은 ‘지적재산 전략대강’ (知的財産 戰略大綱)을 2002년 발표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실에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수상)’를 설치('03년)하여 관계부처 시책들을 종합·조정하고 지식재산 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나가는 핵심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일본의 거의 모든 지식재산에 관련된 결정과 방향을 정하고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모방품·해적판 대책을 일본 외교상의 중요시책으로 정하여, 외무성 내에 ‘지적재산권 침해 대책실’을 설치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해외공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관세정률법을 개정하여 '03년 4월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특허권 침해물품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신청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내외에서의 자국 지재권 보호에 노력중이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간의 통합적이고 전략적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성장하는 유럽을 위한 의제” 차원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 이사회 내의 경쟁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EU 공동체 지식재산 시스템 정비를 위한 모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를 통한 회원국간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수준을 비교 관리해 나가면서, 제6차 중장기 혁신계획(FP6, '02~'06)에서 IPR Guideline을 제정하고 있고, EU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자들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998년부터 IPR Helpdesk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역시 친지식재산 방향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어, 영국의 경우 특허청의 업무영역에 저작권 업무를 통합하여 영국특허청을 영국지재권청(UKIPO)로 확대 개편('07.4)하였으며, 프랑스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직역을 통합하는 지식재산 대리제도 개편방향을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은 우이 부총리가 '04년 1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 추진'을 지시, 각계의 논의를 거쳐 중국 '국가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를 '05년 1월 설립하였다. 위원회는 국무원 소속 23개 부처의 주요책임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있고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위원장인 우이 부총리가 지재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위원회 활동을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 위원회는 설치 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대내적으로 자국의 지재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WIPO, WTO, 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자국에 유리하도록 지재권 규범의 통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은 국가 전체차원에서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기획하고,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특히, 1998년까지는 미국 등 선진국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요구에 대한 수동적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개별부처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만 추진되어 왔다.

1998년 이후 특허청, 산자부 등 일부 부처중심으로 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8년에 “특허법원”이 설립되고, 2000년에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에 특허법의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개정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제특허분쟁 및 모방품 침해의 급격한 증가 등이 주요 현안이 되어 2004년을 전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범정부 협의체에서 지식재산정책이 서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 대응방안

이와 같은 지재권 분야의 국제동향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본다면 먼저, 지재권 분야의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지재권 국제 규범 형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요 국가들이 지식재산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등과 함께 지식재산의 개발과 진흥을 위한 장기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 범정부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과 같이 지식재산 정책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국가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2001년)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조성과 성과제고에 노력하여 왔으나,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면서 국가 지식재산 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산재되어 있는 정부 역량을 통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집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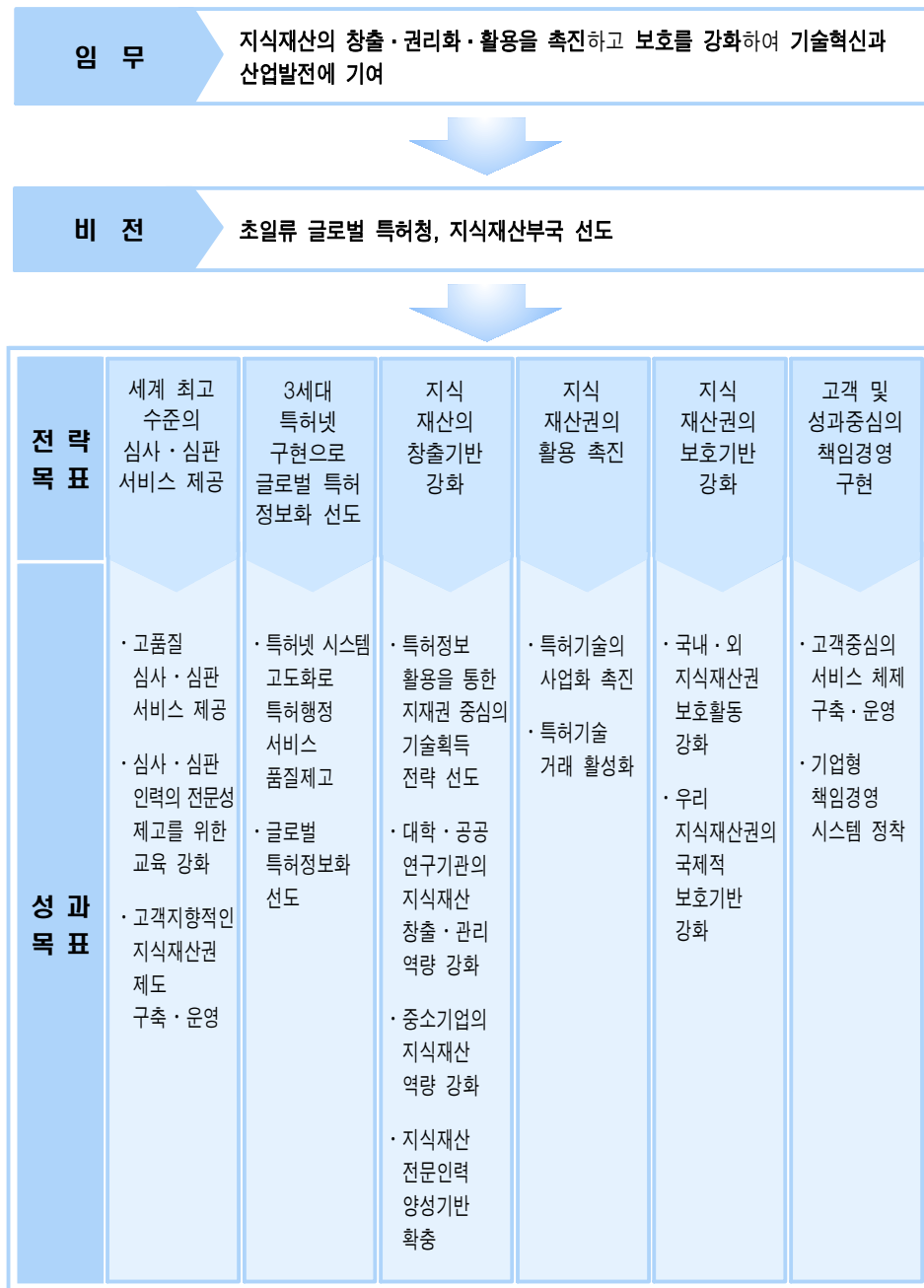
또한, 국가지식재산 전략계획 수립 및 집행결과 평가, 지식재산정책 총괄기획·조정을 위한 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미국의 “21세기 전략계획” 등과 같은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년도별 추진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범부처적 조정·관리를 위한 지식재산 행정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지식재산전략을 기획하고, 각 부처별 추진 실태를 점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PCT 제도,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와 같은 국가간 심사협력제도의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허법 조약(PLT), 특허실체법 조약(SPLT)와 같은 국제적 지재권 제도 통일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적 지재권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의 보호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침해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조직(KOTRA 해외지사, 국제기구 파견자, 공공연구기관의 해외분소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1-1-1〉 특허행정 발전 전략체계



2

CHAPTER

제1편 제2기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지식재산 정책 개관

새로운 특허행정발전 전략체계 수립

제1절 특허청 비전과 미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 농업사무관 김준경

각 국은 지식재산권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보고 있으며 지재권 분야의 국가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80년대부터 親특허정책 (Pro-patent)을 추구하고 있고, 2008년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의 우선화 (Pro-IP) 법’을 입법하고 지재권 집행 및 단속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신설하였다. 또한 일본은 2003년 3월 ‘知的財産立國 實現’을 비전으로 하여 ‘지적재산전략대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하여 지재권 위반사항에 대한 통관조치·조사를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산업환경 부문을 분석해보면, 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전자 분야는 기술의 융·복합화가 심화되고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업간 연계전략이 중요시됨에 따라 특허기술동향의 신속한 정보분석 역량의 강화와 지식공유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기계·부품 분야는 국내 특허기술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핵심·원천특허 확보 및 원활한 선진기술의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전·도입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에 장기적 투자가 필요로 하는 화학·생명공학 분야는 장기간 투자를 통해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우리나라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국내출원건수와 국제특허출원건수는 각각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어 양적 규모에서 세계적 수준에 진입해 있고, 1999년 12월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 10월에는 미국·일본 등에 이어 우리나라 특허 문헌을 국제특허심사 필수자료로 채택할 정도로 국제 지식재산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정책·산업동향을 고려할 때, 특허청이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재권 창출·활용 기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지식재산 관리 주무부처(chief knowledge officer)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초일류 글로벌 특허청, 지식재산부국 선도”라는 비전을 수립하였다.

제2절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및 관리과제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 농업사무관 김준경

특허청은 ‘초일류 글로벌 특허청, 지식재산부국 선도’라는 비전과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라는 임무를 바탕으로 고객관점, 프로세스관점, 자원관점, 학습 및 혁신관점을 고려하여 실행가능한 최적의 전략목표 6개와 이에 따른 17개의 성과목표, 54개의 관리과제를 발굴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식재산의 창출**과 관련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을 강화한다는 전략목표 하에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선도,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관리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기반 확충이라는 4개의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지식재산의 권리화** 분야는 세계 최고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략목표하에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사·심판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며 고객 지향적인 지식재산권 제도를 구축·운영한다는 3개의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지식재산의 활용** 분야는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이라는 전략목표 하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특허기술거래 활성화라는 2개의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지식재산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기반 강화라는 전략목표 하에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및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반 강화라는 2개의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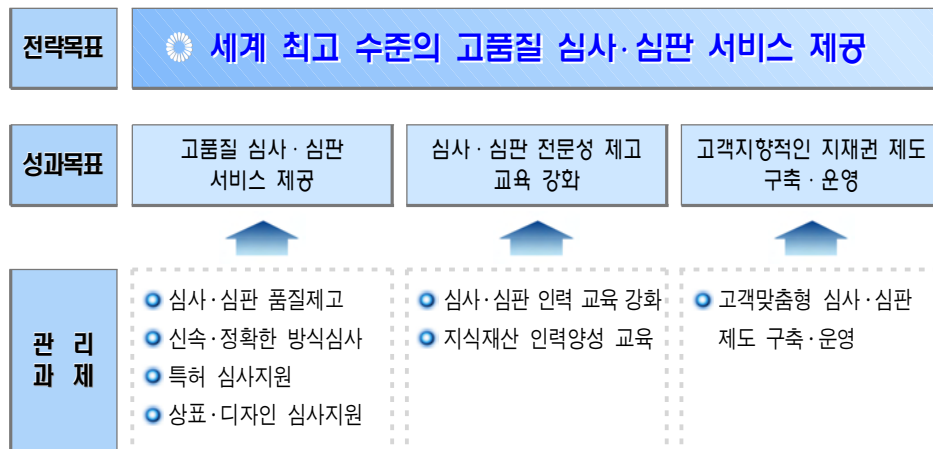
한편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보호라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3세대 특허넷 구현으로 글로벌 특허정보화 선도 및 고객 및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 구현**이라는 전략목표가 설정되었고, 이에 대해 특허넷 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 및 글로벌 특허정보화 선도라는 2개의 정책목표와 고객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운영 및 기업형 책임경영시스템 정착이라는 2개의 정책목표가 각각 마련되었다.

1.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이 국가 및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아래와 같은 노력을 통해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지재권 분쟁을 감소시켜 활기찬 시장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첫째, 심사·심판 처리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적정 심사·심판 물량 산정, 특허심사 하이웨이²⁾ 등 국가간 협력 프로그램 추진, 방식심사 처리기간 목표제 운영 등을 통해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수준별·단계별 전문 교육과정 개설, 사이버 교육 활성화, WIPO(국제지식재산권기구)와의 공동 교육 콘텐츠 운영 등 심사·심판 전문성 제고 교육을 강화하였다. 셋째, 특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특허·실용신안에 대해 재심사 청구 제도³⁾를 도입하는 등 고객지향적인 지식재산권 제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1-1-2〉 전략목표 I 체계도



2) 특허심사하이웨이 : 두 나라에 특허가 동시 출원된 경우 먼저 출원된 나라에서 등록되면 이를 활용하여 상대국에서 간편한 절차로 특허심사를 빨리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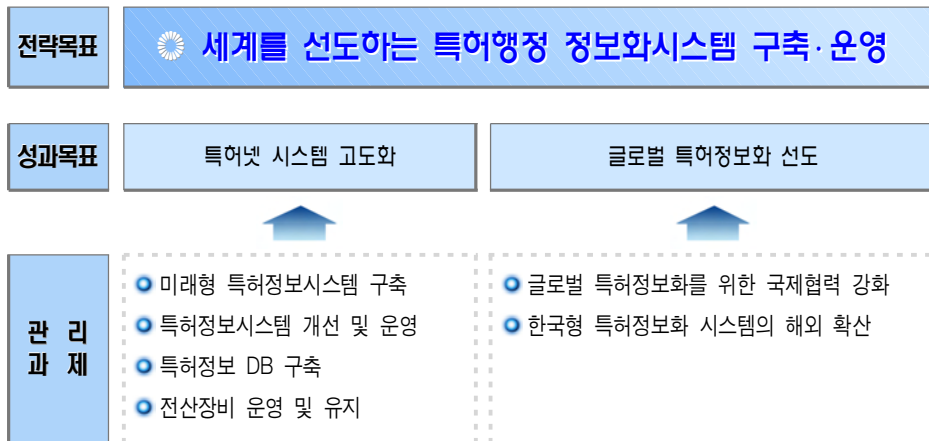
3) 재심사 청구제도 : 거절결정 후 별도의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세계를 선도하는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1999년 특허넷 시스템이 개통되어 전자출원시대가 시작된 이후 특허고객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요구와 IT 기술의 급격한 변화 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허넷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였고, 국제적으로는 특허넷시스템을 해외로 확산하고 WIPO(국제지식재산권기구)와의 협력사업 추진으로 특허정보화 시스템의 국제표준을 주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우선, 반도체 배체설계권 심사·등록업무의 온라인화, 우체국 전자우편서비스와 연계한 각종 통지서 발송업무 자동화, 출원·심사 오류체크(Fool-Proof) 기능 강화 등 특허행정의 내부 효율화를 위한 사무처리시스템을 개선하였고, 29가지에 달하는 6시그마 업무프로세스 개선사항⁴⁾을 특허넷 시스템에 반영하여 특허넷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특허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였다. 또한, 미국·유럽·일본 등과의 심사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인도네시아 등 주요 전략국가에 특허넷시스템 보급 추진, WIPO 및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과의 정보화 공동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하고자 하였다.

〈그림 1-1-3〉 전략목표 II 체계도



4) 심사노하우 공유, 심사물량 예측, 법령개정 일정관리 등 6시그마 기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업무프로세스 개선 과제를 의미

3.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강화

우리나라는 2007년 특허출원 세계 4위 등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핵심 원천기술 부족으로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29억 달러에 달하는 등 질적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아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은 과제의 추진을 통해 4가지 성과목표를 추진함으로써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창출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첫번째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가 R&D 전략을 선도하기 위해 특허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둘째, 기초·원천 특허의 확보를 위해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역량을 강화하며, 셋째 지식재산 창출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하고,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1-4〉 전략목표 III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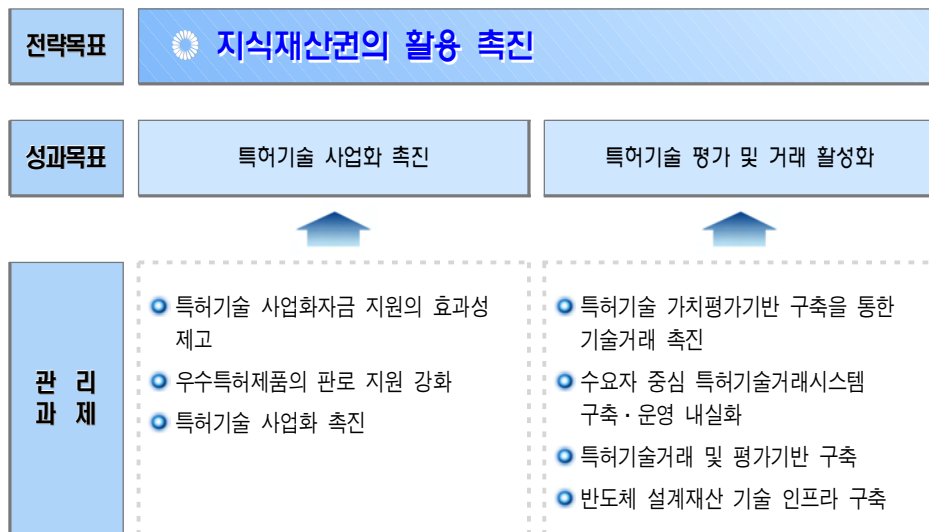


4.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이전·거래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나 아직 우리나라의 특허기술사업화율은 43.9%('07년), 특허기술이전율은 12.4%('07년)로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등으로 구성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특허담보 대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간 기술금융제도의 정착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우수특허제품 전자상거래 시스템(e-Marketplace) 운영으로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강화하는 등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정책을 내실화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기술가치평가비용 지원·미활용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평가 실시 및 결과 제공 등을 통해 특허기술 가치평가기반을 마련하고,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종합정보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반도체 설계재산의 보호·유통을 통해 신지식재산권의 활용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허기술 평가 및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그림 1-1-5〉 전략목표 IV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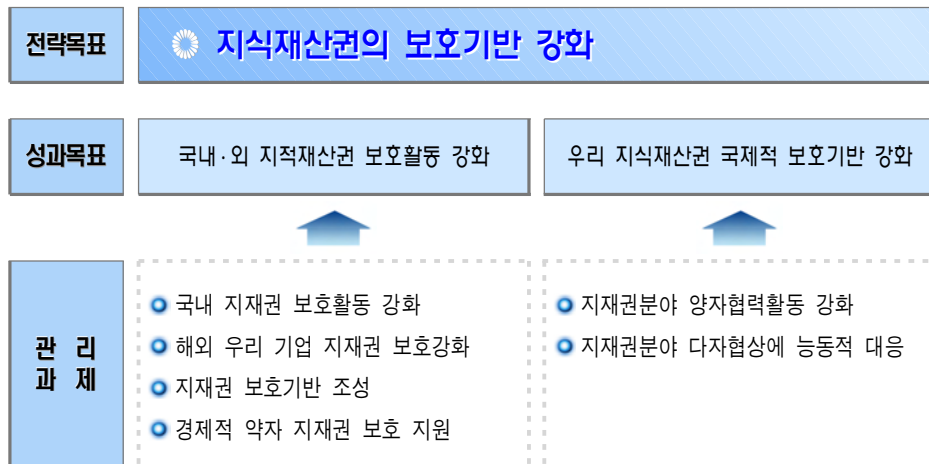


5. 지식재산권의 보호기반 강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가신인도 제고, 지속적인 기술혁신 및 고유 브랜드 개발을 유인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주요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위조상품 단속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위조상품의 제조·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해외에서는 우리 기업 및 제품의 국제적 신인도 상승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FTA 협상 및 국제 지식재산권기구(WIPO) 등을 중심으로 지재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규범 형성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청은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조상품 제조·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재권 침해가 빈발하는 국가에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한 IP-DESK 설치, 해외 지재권 보호설명회 개최,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의 보급 등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국가별 FTA 지재권 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등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1-1-6〉 전략목표 V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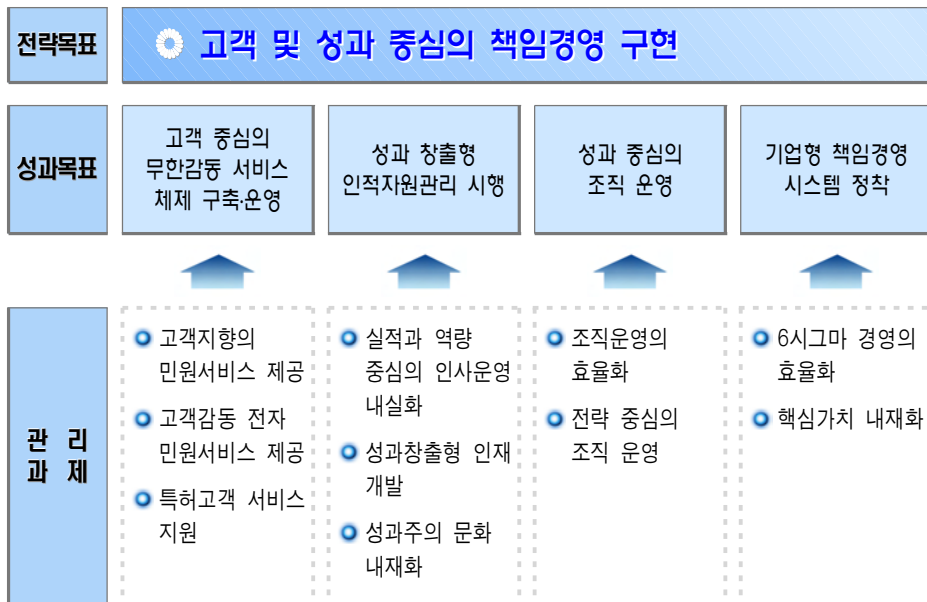


6. 고객 및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 구현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은 업무 프로세스 및 고객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고객 및 성과 중심의 책임운업을 구현함으로써 비전달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서비스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납부 방법의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고객감동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실행 및 성과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시행하며, 기업형 책임경영 지원을 위한 전략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실용적·효율적인 업무개선과 서비스 품질 제고로 고객을 섬기는 책임경영시스템 정착을 통해 고객 및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1-1-7〉 전략목표 VI 체계도



제3절 2008년의 주요성과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 농업사무관 김준경

1.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2008년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전체 출원건수는 369천건으로 전년(380천건) 대비 3.1% 감소하고, 기술혁신 및 지식창출과 관련되는 특허출원은 168천건으로 전년(172천건)대비 2.6% 감소하였다. 하지만 주요선진국에 대한 해외 특허출원은 활발히 이루어져 2008년 PCT 국제특허출원은 79백건으로 전년(70백건) 대비 12.0% 증가하여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을 유지하였다.

산업재산권 출원에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심사품질 쇄신전략(EXCEL Plan : Examination excellence Plan)을 수립하고 심사 인프라 최적화, 심사품질 고도화, 품질관리 효율화 등 3개 분야 39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또한, 일률적인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 대신 빠른심사(심판), 보통심사(심판), 늦은심사(심판) 중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심사처리시점을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3트랙 심사·심판처리제도를 시행하여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이러한 심사품질 제고 노력의 결과로 '08년 특허심사처리기간은 12.1개월로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신속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외국기업들이 PCT 국제출원에 대해 한국 특허청에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건수는 대폭 증가하여 특허심사 역량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지식재산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심사·심판인력의 능력향상을 위한 수준별·단계별 전문교육을 강화하였고, WIPO와 협력하여 “WIPO Summer School on IP in Korea”를 운영하는 등 IP 분야의 국제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2. 세계를 선도하는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특허청은 출원·심사·등록·심판 및 공보발간 등 특허행정 전 분야를 전산화한 특허넷시스템을 1999년부터 개통하여 운영한 이래 언제 어디서나 특허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는 차세대 특허행정시스템인 특허넷 II의 개발을 2005년 11월 마무리하였다. 2008년에는 세계적 수준의 특허넷시스템을 발판으로 정보화 국제협력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야 선진 5개국(IP5: 韓·美·日·EU·中)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하였고, 정보화 국제협력 사업을 통하여 특허행정효율화 및 민원인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

우선 6시그마 업무프로세스와 법제도 개선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특허넷에 반영하여 특허업무 효율 및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고품질 심사·심판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오류예방을 위한 심사 정합성체크기능 도입, 상표심사점검표 개선, ECLA(유럽특허분류)검색서비스 제공, 단계(STEP)별 검색서비스 기능을 도입하여 업무효율 및 심사품질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내부적으로는 공동협업방식의 위키피디아(wikipedia)형 지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고품질 지식창출 및 지식활용을 활성화하였다.

한편, 한-일, 한-미, 한-EU간 우선권증명서류의 교환을 전자적으로 완전자동화하고 주요국과 특허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일, 한-미간 심사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국제협력 통합인적 DB를 구축을 통해 심사품질제고 및 업무부담 경감을 도모하였으며 이러한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 및 심사정보공유를 통해 연간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2009년 1월부터 세계에서 9번째로 한국어가 PCT 국제공개어로 사용되게 됨에 따라 WIPO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PCT 전자출원시스템 등 정보화 기반시스템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대학(원)·기업을 대상으로 e-러닝 콘텐츠를 활용한 영문 지재권 과정을 개발하여 13개 대학(원)·기업 등에서 총 29개 과

정에 2,330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상기 과제는 2008년 9월 중앙부처 공무원 우수 제안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3.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강화

특허청은 국가 R&D 전략을 선도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정보 활용 시책을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사업은 우선 제품이나 기술을 그와 연계된 특허권의 집합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적의 특허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08년에는 초고유가 시대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선분야의 에너지 저감 기술, 차세대 메모리로 부상 중인 STT-MRAM, 대일무역 역조품목인 디스플레이 소재, 유저인터페이스 등 임베디드 SW의 4개 분야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09년에는 녹색성장분야와 신성장 동력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18개 과제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특허관련 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대학생이 그 해답을 제시하는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를 공학한림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산·학 연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추진하였다. 이 대회에는 국내 굴지의 21개 기업이 상금지원(234백만원), 취업가점 부여 등을 통해 참여하고, 특허전략 수립부문 및 선행기술조사부문에 68개 대학 2,050팀, 학생 2,794명, 지도교수 340명이 참가하였다.

민간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확산을 위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대표기업 67개사('09.3월 현재 82개사)가 모인 한국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를 창립하고 8개 분과위 29회, 추계 워크숍(9.26~27), 콘퍼런스(11.12) 등을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적 이슈 조기 대응 및 지식재산 민간단체 활동의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지식재산협의회(JIPA)를 방문하는 등(8.27~29)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경영 노하우 공유를 촉진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재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했거나 예정인 중소기업이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5개 중소기업에 대해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권리화 및 관리전략을 제공하였고, 지자체의 브랜드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16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순회 지재권포럼을 개최하여 지재권 인식제고 및 제도홍보 사업을 수행하였고 전담인력이 총 84개(상반기 43개, 하반기 41개)의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심층 컨설팅을 통해 지식재산경영 실천전략을 제안하고, 중소기업 CEO들의 도움 요청시 전담인력이 48시간 이내 방문하는 고객감동 컨설팅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반도체용 세정 기술 등 12개 기술분야에 대해 국제특허분쟁 지도 및 특허맵을 작성하고,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일본·독일·영국·중국과의 특허침해소송 현황을 분석·정리한 국가별 특허분쟁지도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의류·식음료서비스업·미가공품 3개 품목에 대한 상표 분석을 통해 상표 출원·등록의 최신 동향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디자인 개발비용 절감 및 시장상황 및 디자인 동향 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디자인 개발정보 제공을 위해 17개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맵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상표·디자인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였다.

발명영재양성추진계획('08~'12)에 따라 발명영재 교육을 위한 체험형·문제해결형 초등 및 중등 교수·학습자료와 발명영재 선발도구를 개발하고,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발명영재학급으로 지정된 51개 발명교실에 128백만원 추가 지원(발명영재학급당 2.5백만원)하였으며,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발명영재학급으로 지정된 51개 발명교실에 128백만원 추가 지원(발명영재학급당 2.5백만원)하는 등 발명영재양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09년부터는 창의적인 소수의 차세대 영재기업인을 발굴하기 위해 KAIST, POSTEC과 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빌게이츠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자금지원 규모를 3,848억원('07년)에서 4,617억원('08년)으로 확대하고,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기술보증기금), 특허담보부 대출(한국산업은행) 실시 및 민간금융기관(우리은행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특허담보 자금지원을 765억원('07년)에서 1,103억원('08년)으로 확대하여 특허권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였다.

특허기술 시작품제작 지원사업은 건당 지원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하고 기술의 우수성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내실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허제품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e-마켓플레이스는 (사)벤처산업협회, 전국상인연합회, 디앤샵 등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강화함으로써 우수특허상품의 유통인프라 확충 및 거래매출 증대에 기여하였다.

개인, 중소기업이 기술평가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등록권리의 기술적 우수성과 사업화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합리적인 사업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이전거래용 평가의 경우 수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이전을 포함한 기술사업화 촉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관리용 선별평가 및 기술이전사업화용 가치평가를 실시하여(848건에 대해 평가수수료 525백만원 지원) 공공기관의 특허관리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였다.

국유특허의 관리 강화와 활용률 제고를 위해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국유특허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국유특허 100건에 대해 30백만원의 평가수수료를 지원하고 국공립대학의 기부희망 특허목록을 접수하여 특허가치평가를 통하여 기부채납 대상 특허 선정 후 민간기술거래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IP-MART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수요자 인터뷰 도입, 수요·공급기술의 사전 매칭 강화 등 수요자 중심으로 특허기술거래기반을 강화하고, 유통상담관을 통한 기술이전 상담의 활성화, 우수 특허기

술정보 제공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특허기술거래 체결실적이 52건('07년)에서 72건('08년)으로 138.5% 증가하였다.

5. 지식재산권의 보호기반 강화

특허청은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정부주도의 홍보에서 탈피하고 소비자 계층과 밀착된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보호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사이버 기자단 운영 및 소비자시민모임·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소비자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재권 침해가 용이한 인터넷포털의 배너 및 퀴즈이벤트를 활용하여 위조상품에 대한 국민인식도를 높였으며, '지재권보호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외국기업인에게 국내 지식재산보호정책 및 주요 활동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지자체, 검·경, 방통위 등 지재권 집행기관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를 강력히 단속하였다. 지자체와의 정기단속 실시 외에 침해발품목(자동차부품류·의약품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검·경과 실시하여 1,181건(시정권고 1,147건, 입건 34건)을 단속하였고, 위조상품신고센터에 접수된 위조상품거래 사이트(인터넷 쇼핑몰 등)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사이트 차단 조치를 시행하여 97,751점을 적발하고 123사이트를 폐쇄하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적발건수는 276%, 폐쇄건수는 256%가 증가한 것이다.

해외의 지재권보호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우리 기업 지재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중국에 특허주재관을 파견하여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재권 피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태국, 베트남에 IP-DESK 신설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지재권보호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지 IP 지원강화를 위해 특허청-KOTRA간 MOU를 체결하여 지재권 출원지원, 침해조사 지원,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소송대응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업의 경영리스크 감소를 위한 지재권보험 도입 요청에 따라 민간보험사와 연계하여 지재권 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Patent troll에 의한 특허소송 증가에 따라 주요 트롤기업에 대한 분석 및 특허분쟁 빈발 기술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허분쟁예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중국진출기업의 요청에 따라 중국 금화시 공상행정관리국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재권집행역량강화를 위한 ‘위조상품설명회’를 개최하였다.

’08년 10월에는 특허 3극이라고 일컫는 미국, 일본, EU 체제에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IP5 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하고 5개국이 협력하여 추진할 10개 기반 프로젝트를 채택함으로써 선진 5개국 특허청(IP5, 한·미·일·중·유럽)간 협력체제 구축을 주도하고 국제 지재권 이슈해결을 위한 Leader group을 특허 3극에서 5개국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미·일·유럽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 획득 시간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간 심사공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하여 국제적 심사협력(Worksharing) 체제 출범 및 지재권 분야 중심국가로 도약함으로써 우리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다. 이는 ’08년도 창의·실용 우수사례 경진대회(행정효율성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주요국과의 전략적 양자 협력 강화를 통해 덴마크와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확대, 미국과 SHARE(Strategic Handling of Applications for Rapid Examination) 프로젝트 실시에 합의하였으며, 러시아·우즈베크·페루·남아공 등과의 양자협력 다변화를 추진하여 범정부차원의 자원·에너지 외교 지원 강화 및 국제 협력 저변 확대를 도모하였고, 한-EU FTA, 한-멕시코 FTA 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지리적 표시(GI), 특허, 상표, 집행 등 지재권 분야에서 국익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중국 주재관 신설, 지재권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및 침해예방 활동을 강화하였다.

한편, 저개발국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IP 지원사업을 WIPO 총회에서 제안하여 WIPO와의 공동사업으로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 발굴·보급가능하게 됨

으로써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국가브랜드를 제고하였고, 특허제도 표준화를 논의하는 선진국 그룹(B+)에 가입하여, 선진국 그룹과의 특허정책 공조 강화 및 아국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규범 형성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6. 고객 및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 구현

특허청은 특허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 등록관련 민원서식에 서명제도 도입, 등록원부의 형식 개선 등 고객 참여를 통해 발굴된 제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특허행정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강력한 특허권 창출을 유도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특허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특허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즉,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고객의 특허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설정·연차등록료는 인하하고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심사청구료·PCT 국제조사료 등은 인상하였다.

별도의 전자출원 S/W 설치 없이 웹 화면 상에서 직접 출원할 수 있는 웹 서식작성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출원서류의 지속적인 오류 발생에 따라 출원서 작성시 오류가 발생한 출원인이 콜센터 상담원과 출원 및 오류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화면방식의 1:1 상담 시스템인 “출원 Expert System” 마련을 통해 출원서류 오류율 감소를 유도하였으며, 출원·등록·심사·심판·서비스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고객 평가 및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고객중심의 무한감동 서비스 체제를 구축·운영하고자 하였다.

2008년에는 특·실 심사점수 체계 개선방안, IPC 세분화 분류체계 마련 등 19개의 6시그마 개선과제를 수행하여 특허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고 핵심가치인 “고객최우선, 도전과 창의, 신뢰와 존중”의 내재화 운동을 전개하여 새 정부의 실천규범인 “창조적 실용주의”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기업형 책임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지식재산부족 코리아
특허청이 함께 합니다



제 2 편

세계최고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제공

제1장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제2장 심사·심판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제3장 고객지향적인 지식재산권 제도 구축·운영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제1절 특허·실용신안분야

1.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제고

심사품질담당관실 기술서기관 이숙주,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환경사무관 이경열

가. 추진배경

최근 미국, 일본, 유럽 중심의 기존 지재권분야 국제질서가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5국 체제로 재편되고 있고 세계적 기업들이 우리청에 PCT 국제특허출원의 심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2007년 2,853건에서 2008년 11,657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제사회가 우리 특허청의 심사품질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 다출원기업인 삼성전자의 특허출원건수가 2007년 11,490건에서 2008년 7,294건으로 36.5% 감소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특허전략도 양에서 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8년 6월 특허청이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발명가 등 총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91.4%가 특허심사품질 향상에 특허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특허심사품질 향상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한 해였다.

특허청은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2008년 제2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출범과 함께 “빠른 심사에서 고품질 심사로” 특허심사정책방향을 전환하면서 심사품질제고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심사를 제공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특허’를 창출해 내기 위한 전략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심사품질개혁방안(EXCEL Plan) 수립·추진

특허심사품질향상을 통한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 ‘심사인프라 최적화’, ‘심사품질 고도화’, ‘품질관리 효율화’ 등 3개 분야, 39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전사적 심사품질개혁방안(EXCEL Plan : **Ex**amination **Exc**ellence **Pl**an)을 새롭게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심사 인프라의 최적화를 위해 합리적인 심사물량, 선행기술 검색 환경 개선 및 심사제도 개선과 관련된 12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그 추진성과로는 적정 심사물량 산정과 유연한 산포관리를 통해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기술분야별 심사난이도에 검색난이도를 추가하는 방안 등 심사노력도에 상응하는 점수체계로 개편하였다. 또한 특허와 비특허문헌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원클릭 통합 검색시스템 구축 및 통지서 작성 간소화 및 유형별 표준 작성 사례집 발간을 추진 중에 있다.

심사품질 고도화를 위해 심사역량강화, 품질제고, 심사 실무강화와 관련된 12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그 추진성과로는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심사관을 재배치하고 융·복합기술 출원건에 대한 심사품질제고를 위해 복합기술심사 1, 2, 3팀을 신설하였다. 기술 분야별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심사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심사과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우수 신규심사관에게는 심사관 등급의 승급기간을 단축하였다.

품질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심사품질지수 발굴, 심사품질책임제, 심사평가의 신뢰성 확보 등과 관련된 15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심사국·과별 심사품질 책임제를 실시하고 심사품질지표 발굴을 통해 품질관리를 효율화하였으며 심사 우수사례를 받은 심사관에 대하여는 성과평가에서 상위 20% 이내로 평가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결과와 성과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그림 II-1-1〉 심사품질개혁방안 목표 및 세부 추진 과제



2)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및 개선

가) 심사관등급제

심사관 등급제는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관을 심사경력과 심사능력에 따라 수석심사관,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심사관의 4단계로 등급화한 것이다. 심사관 등급별로 의사결정권을 차등 위임하는 심사관 등급제는 200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심사관 승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승급절차를 규정화하여 2005년 9월 「심사관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08년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개정하였다.

심사관 승급시 승급심사 전 1년간 심사품질담당관의 심사평가에서 심사흡결률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고 심사품질담당관의 심사평가결과와 타심사과(팀)장의 심사

평가결과를 합산한 심사합결률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심사관은 승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수석심사관은 심사경력 9년 이상으로 심판관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책임심사관은 심사경력 7년 이상으로 중견심사관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선임심사관은 심사경력이 4년 이상으로 PCT 심사기초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승급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승급절차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의 추천과 특허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허청 승급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승급자를 확정하고 있다.

〈표 II-1-1〉 심사관 승급 기준

구분	경력	승급제한 요건	교육이수
수석심사관	심사경력 9년이상	승급심사전 1년간	심사사례연구(II)(필수), 심판관, 심결·판례연구, 특허소송사례, 심결·판례심화 과정 중 2개
책임심사관	심사경력 7년이상	심사품질담당관실의 심사평가 결과 심사합결률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고, 심사품질담당관실의 심사평가 결과와 타심사과(팀)장의 심사평가결과를 합산한 심사합결률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심사관은 승급 제외	심사사례연구(II)(필수), 중견심사관, 소송수행실무, 외국의 지재권제도, 심판관, PCT심사심화 과정 중 2개
선임심사관	심사경력 4년이상		심사사례연구(I)(필수), PCT심사기초, 선행기술조사, 지식재산권관련법, 중견심사관, STN정보검색 과정 중 2개

심사관 등급별로 위임된 심사관련 의사결정권은 수석 심사관에게는 최종처분 이외의 심사관련 통지사항을 심사과(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심사관에게는 의견제출통지 등의 결재권을 위임하고 선임심사관에게는 심사관 명의의 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지시 등의 결재권을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사내용의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등 위임하여 심사과(팀)장의 결재를 생략함으로써 우려되는 심사관의 일관성 저하문제는 심사파트제를 활용하여 보완하고 있다.

2008년 11월 개정된 내용으로는 우수 신입심사관 등에 대한 조기 승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심사국에서 우수 신입심사관을 선발하여 보좌·공동심사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한 경우에는 최대 1년의 기간 내에서 단축기간만큼 조기 승급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등급재조정자에 대해서는 등급재조정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 승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심사관 등급현황은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수석심사관이 45명으로 7.7%, 책임심사관이 49명으로 8.4%, 선임심사관이 131명으로 22.5%, 심사관은 358명으로 61.4%를 차지하고 있다.

나) 심사파트제

심사관 증가에 따른 심사과(팀)장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유사기술분야에 대한 심사관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며 심사업무경험의 효과적인 전수를 통해 심사품질과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분야별로 7명 내외의 심사관을 그룹화하여 운영하는 심사파트제를 2000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였고, 2005년 심사과장의 결재권을 심사파트장에 위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심사국별 심사파트는 각 심사과(팀)내 3개의 심사파트를 두어 특허심사분야에 총 90개의 심사파트(기계금속건설심사국 27개, 화학생명공학심사국 24개, 전기전자심사국 18개, 정보통신심사국 21개)를 운영하고 있다.

심사파트장은 선임심사관 이상인 서기관 또는 책임심사관으로서 심사능력이 우수하고 리더십이 탁월한 자 중에서 심사국장이 임명하며 심사과(팀)내 3개 심사파트 중 1개는 심사과(팀)장이 심사파트장을 겸하고 있다. 심사파트장은 심사과(팀)장을 대신하여 심사업무결재를 수행하고 있고 소관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요건의 판단에 대한 연구 및 토론, 심사파트별 학습프로그램에 의한 학습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사파트제의 운영은 심사파트별 학습활동을 통해 심사노하우를 공유하여 심사오류를 방지하는 등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표 II-1-2〉 심사파트제 운영 현황

심사국	심사과	심사파트
기계금속건설	일반기계	일반기계, 공작기계, 산업기계
	자동차	자동차프레임, 자동차샤시, 자동차부품
	운반기계	운반기계, 물류시스템, 수송시스템
	원동기계	엔진, 연소장치, 동력장치
	정밀기계	계측기계, 광학기계, 시험기계
	공조기계	유체기계, 공기조화, 냉동기계
	금속	합금, 가공, 처리·조작
	건설기술	주거환경, 건축구조, 수자원환경
	복합기술	전동제어, 가공제어, 추진제어
화학생명	생명공학	유전공학, 생물공정, 의료·위생
	화학소재	유기화학, 고분자화학, 고분자응용
	정밀화학	정밀화학공정, 정밀화학제품, 정밀화학소재
	환경에너지	대기, 수질·폐기물, 에너지·자원
	약품화학	천연물의약, 제제·화장품, 합성의약
	섬유생활용품	섬유가공, 섬유소재, 생활용품
	식품생물자원	식품보전기술, 식품제조기술, 생물자원
	복합기술2	화학공정, 무기화합물, 세라믹스
전기전자	전기	전기제어, 전기에너지, 전기소자
	전자	전자응용, 전자회로, 인쇄회로
	반도체	반도체집적공정, 반도체배선증착, 반도체패터닝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시스템, 비즈니스시스템, 금융시스템
	유비쿼터스	무인인식, 센서네트워크, 디지털홈
	복합기술3	전자소자, 의료기기, 반도체패키지
정보통신	통신	통신단말, 통신회로, 통신시스템
	정보	디지털기록재생, 광자기기록, 메모리회로
	영상기기	영상구동, 영상소자, PDP
	컴퓨터	컴퓨터시스템, 메모리/인터페이스, 무선시스템
	디스플레이	액정구동회로, 액정화상처리, OLED
	디지털방송	DTV, 화상처리, 방송장비
	네트워크	스위칭네트워크, 통신프로토콜, 무선전송

다) 심사업무관리카드

심사관간 심사업무 노하우 공유를 위해 도입되었던 기존 심사노하우집, 업무인수 인계카드, 지식관리카드를 통합하여 심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고 자료를 게재할 수 있도록 개인별 공간인 심사업무관리카드를 2007년 12월에 구축 운영하고 있다. 심사업무관리카드는 심사관간 심사업무 노하우에 대한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여 후임심사관이 심사업무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고 심사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로 활용되어 심사품질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심사업무관리카드는 심사업무와 관련된 담당 기술분야 개요, 출원동향, 주요 통계, 선행기술검색 노하우, 주요 선행기술문헌 목록, 업무 참고자료 등 타심사관과 공유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각종 규정, 실무지침서 등에 기록되지 않은 실무에서 직접 체득한 지식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심사실무 중심의 심사 노하우 지식공유 시스템이 되고 있다.

라) 심사보고서

대규모 심사인력 충원 등으로 인하여 심사품질을 향상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 때문에 2005년 1월부터 도입하였다. 2005년 2월부터 3개월간 서면 작성으로 시범 운영하며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특허넷Ⅱ 개발사업의 세부과제로 병행 추진하여 전산화를 완료한 후, 2006년 1월부터는 외부의 선행기술조사결과물이 있는 건에 제한하여 운영하였고 2007년부터는 모든 종결처리 건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였다.

또한, 심사과(팀)장 또는 심사 파트장 등 관리자가 심사관의 충실한 서치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서치전략, 기법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08년 10월부터 심사보고서에 ‘검색이력란’을 신설하고, 심사착수시 특허결정건 또는 기재불비로만 의견제출통지되는 건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검색이력을 기재하도록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심사보고서에 게재되는 선행기술문헌 개수도 미국출원시 정보개시의무로 인해 모든 선행기술자료를 미국 특허청에 번역·제출해야 하는 상당한 비용과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제한(총 4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 협의심사제도

메카트로닉스, 바이오닉스 등 복합기술출원의 정확한 심사를 위해 관련 기술분야를 전공한 심사관간의 심사협의를 제도화하여 2000년 3월부터 시행하였고 2001년 6월 협의심사를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협의심사는 주심사관이 협의심사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관련기술분야 부심사관을 선정한 후, 주심사관 및 부심사관이 관련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그리고 주심사관 및 부심사관이 공동명의로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최근 융·복합기술 관련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협의심사건수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으나, 2008년에는 특허·실용신안 1차 처리건수 감소로 인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표 II-1-3〉 최근 5년간 협의심사 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345건	1,599건	2,683건	2,977건	2,705건

2008년 12월에는 협의심사 기준 정비를 위해 부분류가 기재된 심사건으로 협의심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해당 부분류에 대한 전문가 DB를 기술분야별 이전담당자 및 현 담당자, 전공자 및 사회 경력자로 구축·제공하여 협의심사관의 선정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협의심사결정시 파트장의 확인과정도 생략하여 협의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심사의 구체적인 내역을 심사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운영을 내실화하였다.

바) 선행기술검색노하우 경진대회

기술분야별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서치 노하우·전략·기법 등을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행기술검색노하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심사국·과별 자체 경진대회를 거쳐 선정된 8개 사례를 발표하고 효율성, 유용성, 충실성, 성과 및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내·외부 심사위원 13명의 현장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또한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의 서치 노하우도 함께 공유하는 등 심사품질과 직결되는 선행기술검색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별로 구축된 선행기술검색 노하우 등을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전사적 심사품질개혁방안의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빠른 심사에서 고품질 심사로” 특허심사정책방향의 패러다임 전환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39개 세부과제 중 22개 과제의 추진을 완료하는 등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체질개선에 성공하였다.

향후 출원단계에서의 출원의 품질제고를 위한 지원시스템,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사용자 지향의 선행검색시스템, 품질관리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심사품질 지표 관리시스템 등의구축이 완료되면 출원에서 최종결정까지 일련의 심사과정에서 심사품질이 향상되어 강한 특허 창출에 한층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관 등급제, 심사파트제, 심사업무관리카드, 심사보고서, 협의심사제도 및 선행기술검색노하우 경진대회 등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운영중인 제도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관 등급제는 수석·책임심사관 등 우수한 경력심사관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 심사파트제는 심사파트원이 결재단계에서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한 수준인 7명 내외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심사파트를 신설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개인별로 구축되어 있는 심사업무관리카드는 심사파트의 기술단위별로 통합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심사관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심사보고서도 심사관별 체크리스트 기능뿐만 아니라 심사과(팀)장 및 심사파트장 등 관리자들이 결재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작성에 따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심사제도에 대해서는 협의심사 건수의 추이 및 협의심사 내역기재의 충실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것이다.

선행기술검색 노하우 경진대회는 심사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이를 정례화하고 포상 및 참석범위를 확대하여 심사관들 간 정보교류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모든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기관도 우수사례 공유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내외적인 선행기술조사 검색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2. 고품질 특허심사지원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지원과 기술서기관 신용주

가. 선행기술조사사업

특허청은 1992년부터 심사관의 심사부담 경감을 위해 특허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신속한 특허심사를 지원하고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법 제58조 및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 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현재 기술분야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1-4〉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현황

기술분야 지정연도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
1998	(재)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특허정보원
2005	(주)웍스	(주)웍스	(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2006	-	-	(주)웍스
2008	(주)아이피솔루션	(주)아이피솔루션	(주)아이피솔루션

선행기술조사사업은 당해연도 심사처리건수의 일정량을 대상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약 177억원을 투입하여 78,593건을 용역 의뢰하였다.

〈표 II-1-5〉 선행기술조사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 백만원)

연 도	'92~'03	'04	'05	'06	'07	'08
심사처리건수	1,055,698	151,793	180,432	240,665	143,554	109,313
용역건수	208,210	78,080	78,824	80,825	74,432	78,593
용역비율	19.7%	51.4%	43.7%	33.6%	51.8%	71.9%
집행액(백만원)	35,777	15,791	16,316	17,021	16,897	17,711

* 주 : 용역비율 = (용역건수 ÷ 심사처리건수) × 100

아울러, 2008년에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간 조사품질 경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품질에 따른 조사물량 차등배분 비율을 확대하고,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을 개정(특허청고시 제2008-20호)하였다.

2009년부터는 외국으로부터 급증하는 PCT 국제조사 의뢰건을 적정 기한 내에 처리하고 PCT 국제조사보고서 품질 제고를 위해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 국제특허분류사업

국제특허분류(IPC)⁵⁾란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에 따라 제정된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문헌의 분류체계로서 특허문헌의 분류와 선행기술문헌 검색, 심사관 업무 지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분류 심사관을 지정하여 특허청 내부에서 특허분류부여업무를 수행해오다가 2001년부터 외부 전문기관에 특허분류 업무를 용역 의뢰하고 있다.

특허법 제58조 및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

5)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의 약자임

의뢰할 수 있으며, 2000년에 『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운용중이다.

이에 따라, 국제특허분류사업은 2001년에는 ‘특허기술정보센터’가 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용역을 수행하였고, 2002년 이후에는 ‘특허기술정보센터’로부터 명칭이 변경된 ‘한국특허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다.

국제특허분류사업은 당해연도 출원건수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약 18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206,226건을 용역 의뢰하였으며, 심사관 37명의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1-6〉 국제특허분류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 건, 원, 백만원)

연 도	'03	'04	'05	'06	'07	'08
용역건수	153,377	174,000	177,500	188,000	225,310	206,226
용역단가(원)	8,010	8,250	8,500	8,680	8,870	9,050
집행액(백만원)	1,228	1,435	1,508	1,631	1,999	2,577

2009년에는 2008년 10월 미국특허문헌 재분류 대행을 위한 한-미 특허청간 MOU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국특허문헌 재분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허청 직원으로 구성된 IPC 검증반을 운영함으로써 IPC 분류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심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다. 심사관 신기술 교육사업

특허출원의 첨단·복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심사관의 기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기존의 심사관 교육은 특허법 등 법률 위주의 교육이었고, 심사관들의 신기술 지식 습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의 심사 전문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심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를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2006년 4월부터 현장

체험 및 실습 위주의 심사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심사관 신기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에는 종전 IT 분야에 한정된 신기술 교육을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분야 등 모든 기술분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였으며,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원들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표 II-1-7〉 심사관 신기술 교육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주요 추진실적	소요예산
'06	▪ 총 31개 강좌에 448명의 심사관 참석 (디지털전송 등 27개 정규강좌, 2개 연계강좌 및 2개 공통과정 운영)	380
'07	▪ 총 28개 강좌에 431명의 심사관 참석 (전자의료 등 27개 정규강좌 및 1개 특별과정 운영)	380
'08	▪ 총 37개 강좌에 606명의 심사관 참석 (전자의료 등 34개 정규강좌 및 복합 기술 3개 강좌 운영)	700

2009년에는 특허청의 중점 사업중 하나인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사업』 추진과제의 각 기술분야에 대해 맞춤형 신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개별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라. 전통지식 DB 구축사업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전통의약지식 및 유전자원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2000년 8월 “천연의약품의 산업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에 중국·인도를 중심으로 전통의약지식의 보호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WIPO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를 중심으로 전통지식의 용어·개념 정의, 전통지식의 보호, 전통지식의 선행기술화 방안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보호가 첨단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분야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특허청은 우리나라 전통지식에 대해 외국인이 국내·외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을 국·영문 DB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08년 4월에는 PCT 국제조사기관회의에서 한의학·식품·약학·생물 분야의 우리나라 주요 전통지식 관련 학술지 47종으로 구성된 한국전통지식저널을 PCT 최소문헌⁶⁾으로 선정되도록 하여 우리나라 전통지식이 국제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표 II-1-8〉 전통지식 DB 구축사업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주요 추진실적	소요예산
'04	▪ 전통지식 DB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45
'05	▪ 한의학분야 논문 DB 8,100건 구축 ▪ 각국의 전통지식 보호체계 및 활용전략 비교연구	998
'06	▪ 논문(14,052), 천연약재(5,500), 전통처방(20,100), 한방병증(5,500)에 대해 총 45,152건의 DB 구축 ▪ 전통지식 DB 검색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4,675
'07	▪ 논문(1,559), 병증(7,000)에 대해 총 8,559건의 DB 구축 ▪ 전통지식 DB 국·영문 검색시스템(한국전통지식포탈, www.koreantk.com) 개통	1,434
'08	▪ 한국 전통지식 PCT 최소문헌으로 선정('08. 4. '09.1.1.부터 효력 발효) ▪ 논문(1,649), 화합물 색인(8,039)에 대해 총 9,688건의 DB 구축	381

2009년에는 일반인들이 전통지식 DB를 쉽게 접근·활용토록 하여 관련 분야 산업·학문의 R&D를 촉진하기 위해, 네이버 등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전통지식 검색이 가능하도록 특허청의 전통지식 DB를 민간의 포털 검색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6) PCT 최소문헌(PCT Minimum Documentation : PCT 국제조사기관이 국제특허출원을 심사할 때 반드시 비치하여 검색해야 하는 최소한의 선행기술문헌을 말함

3. 특허심사 국제협력 강화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지원과 공업사무관 김병필

가. PCT 심사서비스

PCT 심사서비스는 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이다.

국제조사업무는 국제출원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이에 대한 특허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이며, 국제예비심사업무는 국제조사 결과로도 특허획득 가능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예비적인 심사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이다.

어느 특허청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를 수행할 것인가는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통칭하여 “국제기관”이라 함) 중에서 출원인이 선택하게 된다.

2008년 기준으로 총 15개의 국제기관이 있으며, 우리청은 1997년 9월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1999년 12월부터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II-1-9〉 국제기관(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현황

유럽특허청('78), 미국('78), 일본('78), 스웨덴('78), 오스트리아('78), 러시아('78), 호주('80), 중국('94), 스페인('95), 대한민국('99), 캐나다('02), 핀란드('03), 인도('07), 브라질('07), 노르딕('08)

* 주 1 : ()는 시행연도이며, 노르딕은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의 연합 특허청임

* 주 2 : '07, 10, 인도와 브라질이 국제기관으로 추가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업무는 미개시

우리청이 '99년 12월 PCT 국제조사 업무를 개시한 이후 국제조사 의뢰가 급격히 증가하여, '08년에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한 18,822건이 의뢰되었다. 이중 11,657건은 외국 출원인으로부터 의뢰된 것이며, 7,165건은 국내 출원인에 의해 의뢰되었다.

〈표 II-1-10〉 PCT 국제조사 의뢰 현황

구 분		'05	'06	'07	'08
내국	영 어	2,476	3,350	3,992	4,546
	국 어	1,374	1,813	2,079	2,619
외 국		20	735	2,853	11,657
계		3,870	5,898	8,924	18,822

2008년말 기준 우리나라가 관할 국제기관으로서 PCT 국제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이며, 특히 미국의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PCT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의뢰가 급증하고 있다.

2009년에는 스리랑카와 호주 등도 추가로 PCT 국제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9년에는 총 10개국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표 II-1-11〉 우리나라의 PCT 국제조사 서비스 제공 국가

필리핀('02), 베트남('02), 인도네시아('03), 몽골('04), 싱가포르('04), 뉴질랜드('05), 미국('05), 말레이시아('06), 호주('09 예정), 스리랑카('09 예정)

나. 국가간 심사결과 상호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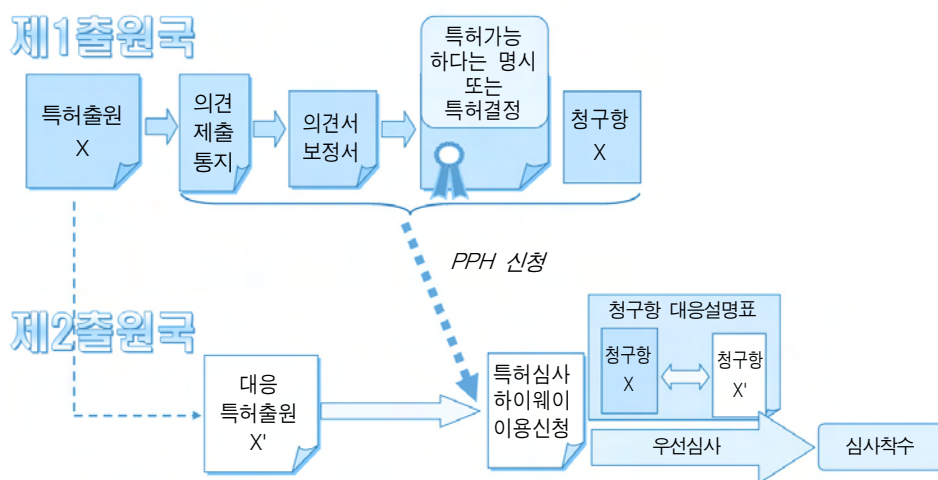
전 세계의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⁷⁾, 특허출원의 증가는 특허청의 입장에서 업무처리 부담이 늘게 되어 심사처리가 더디게 되고, 발명가의 특허권 취득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

7) 전 세계 특허출원은 884,400건(1985년)에서 1,599,000건(2004년)으로 81% 증가, 출처: WIPO Patent Report 2006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국 특허청은 세계 특허출원 중 상당수가 여러 국가에 공통으로 출원되고 있다는 점⁸⁾에 주목하고, 서로 심사결과를 활용하면 심사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심사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발명자는 보다 신속하고도 적은 비용으로 특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간 특허심사결과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간 특허심사결과 활용을 위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 특허청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특허제도의 일부로 반영하여 시행 중이거나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

〈그림 II-1-2〉 특허심사하이웨이의 개요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양 국가에 공통으로 신청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얻은 경우에 상대국은 먼저 출원한 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심사해주는 제도이다.

8) 실례로 2004년도 APEC 내 특허출원 약 125만건 중 약 30만건(24%)이 중복 특허출원, 출처: WIPO Patent Report 2006을 근거로 일본특허청이 추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 4월부터 일본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실시 중이며, 미국과도 2008년 1월부터 1년간 시범실시 하였다.

2009년 1월부터는 미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전면실시할 예정이며, 2009년 3월부터는 덴마크 특허청과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처럼 우리청은 국가간 특허심사결과 활용을 통한 업무협력과 심사품질향상을 위해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허심사하이웨이를 비롯한 국가간 특허심사결과 활용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 국가간 특허심사 교류 프로그램

특허심사 교류 프로그램(Patent Examiners Exchange Program)은 각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심사를 실시함으로써, 특허청 간 심사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향후 심사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허심사 교류 프로그램 참여 심사관은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건에 대하여 사전에 특허심사를 수행한 후, 양국 특허청을 상호 방문하여 심사결과에 대하여 비교 및 토의를 수행하는 한편, 상대국의 심사제도 및 실무 등을 경험함으로써, 타국의 심사제도 및 실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일본과 특허심사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중국('03년), 독일('06년), 호주('07년) 등과도 특허심사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에는 일본, 중국, 독일 특허청과 특허심사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기계, 약품, 통신 분야의 양국 심사관들이 상대국을 상호 방문하여 공동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1-12〉 특허심사 교류 프로그램 기술분야 현황

연도	한-일	한-중	한-독	한-호주
'00	PDP	-	-	-
'01	유기화합물	-	-	-
'02	반도체	-	-	-
'03	하이브리드 자동차	의약	-	-
'04	전자상거래, 이차전지	무선통신	-	-
'05	의료·위생, 반도체 광소자	공작기계, 고분자화합물, LCD, 전자상거래	-	-
'06	로봇, 반도체	가열조리기구, 차량부품, 전기접속장치, 반도체발광소자	컴퓨터, LCD	-
'07	방송 기록·재생, 건축재료	-	디스플레이, 반도체패키징	의약품, 무선통신
'08	세탁기, 의약품	공기조화기, 전기통신기술	내연기관, 화학소재	-

2009년부터 미국 특허청 및 영국특허청과 특허심사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캐나다, 러시아 등과도 논의중에 있어 향후 대상국가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1.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제고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구자광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청에서는 2008년도 심사분야 전략목표를 ‘고품질의 심사 서비스 제공’으로 설정하였으며, 심사업무추진의 패러다임을 ‘처리기간’에서 ‘심사품질 향상’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상표·디자인 분야에서도 ‘고객 - 특허청 - 외국 특허청’을 연계하는 심사품질 향상 추진체계를 마련한 후, ①제도개선, ②심사관 역량 강화, ③심사품질 관리 등으로 추진방향을 세분화하여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II-1-13〉 상표 및 디자인 심사품질 향상 추진체계



나. 추진 내용 및 성과

1) 제도개선

상표 및 디자인분야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지정상품 일부보정제도 도입, 상표 우선 심사제도 도입,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 지정상품 포괄명칭 인정범위 확대 등이 있으며, 특허청 차원에서 출원인 서명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정상품 일부보정제도는 상표등록출원 후 지정상품을 보정하고자 할 경우에 종래에는 출원 시 지정하였던 상품 중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상품과 보정을 통하여 삭제, 정정 및 세분화하고자 하는 상품명칭 모두를 기재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출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보정하고자 하는 상품명칭만을 보정서에 기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상표우선심사제도는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타인이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와 출원인이 지정상품 모두에 대하여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상표권을 조기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 여부 확정 후 2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행디자인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정상품의 포괄명칭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국내외 출원인들이 지정상품 세분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표 II-1-14〉 상표 지정상품 포괄명칭 인정범위 확대현황

NICE 분류상 포괄명칭 수	포괄명칭 인정	보 류
212개 (100%)	186개 (87.7%)	26 (12.3%)

• NICE분류상품(10,627개)의 98%인 10,415개 상품에 대하여는 기 인정함

- 인정상품 예시 : Clothing[의류], Kitchen containers[주방용품]
- 인정되지 않는 상품 예시 : Ironmongery [철제품], Utensil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품]

2) 심사관 역량 강화

특허청에서는 상표 및 디자인 심사관의 심사역량을 강화하고자 효율적인 심사관 교육 실시, 상표 및 디자인분야 제도연구회 운영, 상표 및 디자인 심사노하우 경진 대회 등을 추진하였다.

심사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는 ①상표디자인심사국 자체교육과정, ②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정규교육과정, ③상표 및 디자인분야 현장교육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자체교육과정 2회 46명, 정규교육과정 16개 교육과정 258명, 현장교육 17회 45명 등 총 349명의 심사관에 대하여 심사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II-1-15〉 상표 및 디자인 심사관 심사역량 강화교육 현황

● 상표디자인심사국 자체교육

교육대상	교육내용	2008년도 추진실적
심사국 신규전입 심사관	심사실무 및 노하우	2회 46명

● IPTI 정규교육

교육과정	계	신규심사관	중견심사관	심판관	법령 및 사례연구
추진실적	258명	36명	31명	39명	152명

● 심사관 현장교육

목 적	추진내용	2008년도 추진실적
상품의 생산 및 유통 트렌드 파악	업체, 상가, 전람회 등에 현지 출장	17회 45명

상표 및 디자인분야 연구회의 경우 상표제도연구회를 15회 개최하여 연인원 1,505명의 심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관 및 변리사 등의 상표전문가들이 23건의 주제를 발표하였고, 디자인제도연구회는 11회 개최하여 연인원 795명의 심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관, 대학교수, 디자인 업계 관계자 등의 디자인전문가들이 18건의 주제를 발표하였다.

〈표 II-1-16〉 상표 및 디자인제도연구회 운영 실적

개최횟수	발표주제	참석인원	발표자
26회	41건	2,300명	교수, 변리사, 심사관 등

● 주요 발표내용

계	심사쟁점 연구사례	상표제도 연구사례	외국상표제도 연구사례	심사기준 등 개정사항
41	15	16	5	5

또한 2008년 12월 15일에는 상표 및 디자인의 분류와 검색 및 심사노하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150명의 심사관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3건의 노하우를 발표하고, 공유하여 심사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II-1-17〉 2008년도 상표 및 디자인 심사노하우경진대회 개최 현황

● 추진체계



● 2008년도 추진실적

일 시	발 표 주 제					참석인원
	계	분 류	검 색	심 사	정 책	
2008. 12. 15	13	2	4	6	1	150명

3) 상표 및 디자인 심사품질 관리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심사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3개 분야 36개 과제로 구성된 ‘T&D-EXCEL Plan(Trademark & Design Examination Excellence Plan)’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상표·디자인 심사평가제도를 확대 개편하였다.

〈표 II-1-18〉 T&D-EXCEL Plan 추진현황

● 추진체계



● 2008년도 추진실적

계	심사인프라의 최적화	심사품질 고도화	심사품질관리의 효율화
36개 과제	심사기준 및 규정 보완 등 20개 과제	심사품질 자가진단제 실시 등 13개 과제	심사품질 책임제 실시 등 3개 과제

〈표 II-1-19〉 상표 및 디자인 심사평가제도 개선현황

● 평가체계



● 2008년도 심사평가제도 개선사례

- 평가대상 추출건수 확대 : 심사관 1인당 12건 → 18건
- 평가등급 세분화 : 5단계 → 7단계
- 평가관 증원 : 2명 → 4명

4) 2008년도 상표 및 디자인 심사품질제고 추진성과

특허청에서는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심사품질 제고 추진성과를 측정하고자 특허청의 내부적인 지표로 ‘거절결정 적합률’을 관리하고 있고, 대외적인 지표로는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도 상표 및 디자인 분야 거절결정 적합률은 98.9%(상반기 99.0%, 하반기 98.8%)로서 목표치 97.4%를 초과 달성하였다.

〈표 II-1-20〉 2008년도 상표 및 디자인 거절결정 적합률 현황

2008년도 거절결정 적합률

- 상표 거절결정 건에 대한 심사평가결과 오류가 없는 건의 비율
- 2008년도 목표 및 달성도

Target	달성도		
	계	상반기	하반기
97.4%	98.9%	99.0%	98.8%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상표 및 디자인 분야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71.99%(상반기 71.62%, 하반기 72.36%)로서 목표치인 74.1%에 미치지지는 못하였으나, 상표 및 디자인 심사분야별로 조사한 분야별 만족도의 경우에는 69.18%로서 목표치인 68.05%를 초과달성하였다.

〈표 II-1-21〉 2008년도 상표 및 디자인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단위 : %, 상반기/하반기)

구 분	전반적인 만족도	분야별 만족도				
		평균	통지서 이해 용이성	관련법규 정확성	심사관 전문성	심사과정 공정성
평 균	71.62/72.36	69.01/69.34	68.25/66.37	69.38/70.07	68.79/69.05	69.63/71.87
상 표	70.39/72.54	72.15/69.72	70.83/69.22	71.82/68.03	71.62/70.53	74.33/71.08
디자인	72.82/71.90	72.27/67.0	70.05/65.15	72.5/67.55	72.77/65.89	73.76/69.42

* 목표달성구간 : 전반적인 만족도 74.1, 분야별 만족도 68.05(평균치)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특허청에서는 2009년에도 상표분야에서 권리불요구제도 도입, 중용권제도 도입, 갱신출원제도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디자인분야에서는 도면심사 방법 개선과 같은 강한 디자인권 창출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등 상표·디자인제도를 고객지향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속적인 심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2. 상표·디자인심사 지원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 행정사무관 김원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 상표조사분석사업

특허청은 2003년부터 상표심사의 일부인 상표분석 및 검색 업무를 일정부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상표조사분석사업』은 출원상표의 의미를 분석하고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선출원·선등록상표의 검색 업무를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 처리하여 심사관의 심사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적정 심사처리기간을 유지하고 심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표조사분석사업』은 상표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상표법 제22조의2 제1항은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조사기관에 대하여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디자인조사분석사업

디자인 조사분석 사업은 디자인 출원량 증가에 따른 심사인력 보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사업무의 일부인 디자인 자료검색을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아웃소싱함으로써 심사관의 업무부담 경감과 신속한 심사를 통해 출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장기적으로 디자인 심사품질 향상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200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하였다.

3) 지정상품의 포괄명칭인정 제도

특허청은 그동안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으로서 국제상표등록과 관련하여 포괄명칭을 불인정하고 있어 상품과 관련된 과도한 의견제출통지로 국제적으로 민원이 많았으며, 국내출원인도 국내출원을 기반으로 국제등록출원을 할 경우 국내에서 포괄명칭이 인정되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아울러 국내상표등록의 경우에도 과도한 상품지정으로 인해 심사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등의 개선이 필요했다.

* 출원건당 상품갯수 : '02년 평균 8.8개 ⇒ '07년 평균 88개(연평균 62.8%)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상표조사분석사업

특허청은 상표검색에 필요한 전문 인력·문헌·장비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특허정보원”을 상표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03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경쟁을 통한 사업의 품질평가를 제고하기 위하여 '05년 12월에 “(주)윅스”를 상표전문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06년부터 복수경쟁체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상표전문조사기관의 조사원을 대상으로 상표법 및 상표심사기준에 대한 workshop, 심화교육 및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동 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품질평가 점수가 '07년에는 83.3점, '08년에는 83.4점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조사분석보고서 미활용률도 '07년 0.3%에서 '08년에는 0.1%로 낮아지고 있다.

특허청은 '08년부터 사업품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상표전문조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허청 고시 제2008-15호)를 개정하여 상표전문조사기관의 품질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등급단계를 세분화(4단계 → 6단계)하였다.

2) 디자인조사분석사업

이 사업은 디자인보호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과 장비, 보안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법인)를 디자인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한 전문조사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연간 사업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사업과정의 핵심은 심사활용도가 큰 정확한 보고서의 작성으로 반복 교육과 심사관 토론을 통해 조사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보고서의 평가기준과 방법을 전문조사기관 운영요령(특허청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용역보고서 품질만족도 84.1점, 심사활용률 100% 등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조기에 마련하였다.

3) 지정상품의 포괄명칭인정제도

특허청은 포괄명칭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상표디자인심사국내에 '08년 4월부터 '08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별도추진반을 구성하여 니스분류(제9판)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제목록(10,627개)중 한국의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26개의 목록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한 포괄명칭 인정목록 279개를 '08.9.16일부터 인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허청 예규인 '상표심사기준', '유사 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 및 류구분에 관한 고시' 등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포괄명칭을 검색하기 위한 포괄코드전산시스템 및 출원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표심사기준' 제 31조 제1항을 개정하여 동일 상품류구분 내에서 여러개의 유사군에 속하는 포괄명칭을 기재할 수 있는 근거 및 포괄명칭의 개념 규정을 마련했고, 제 31조 제8항을 신설하여 포괄명칭에 대한 심사시 일부 유사군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품으로 보정하도록 하고 예시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유사 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총론부분에서 포괄명칭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를 개정하여 포괄명칭 인정목록 수록을 위한 '상품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별표 2) 및 '서비스업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별표 3) 개정하였다.

〈표 II-1-22〉 포괄명칭인정목록의 상품류별 현황

상품서비스업별	상 품					서비스업			합 계
	12류	11류	9류	기타	소계	35류	기타	소계	
최종 인정 목록수	71	25	17	143	256	5	18	23	279

다. 평가 및 발전방향

1) 상표조사분석사업

상표조사분석사업은 상표심사의 품질향상 및 심사업무의 부담경감을 위해 실시된 사업으로 상표심사인력 대체효과면에서는 '03년 『상표조사분석사업』이 시작된 이후 '08년까지 총 25만여건을 실시하였으며, '04년 5.8명, '05년 5.8명, '06년 8.9명, '07년 8.9명, '08년 6.2명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심사인력증원의 한계로 인해 심사처리물량의 약 30%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며 아울러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2) 디자인조사분석사업

이 사업은 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아웃소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사관의 수준에 맞는 조사인력의 확보와 심사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심사환경의 구축, 그리고 비공개 디자인 등에 대한 엄격한 보안관리가 중요하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극복하기 위해 디자인 심사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전문조사기관에 제공하고, 디자인 심사시스템 기능을 개선·발전하는 한편,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통한 디자인 자료의 전송과 전문조사기관의 보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3) 지정상품의 포괄명칭인정제도

포괄명칭인정제도는 국내출원인에게는 지정상품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불편 감소, 지정상품을 잘못 표기하여 발생하는 보정대상 감소 및 신규 상품 출시시에도 지정상품 추가지정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출원인에게는 국제상표출원건의 가거절통지건수가 상당수 감소될 것으로 예상(아래표 참조)되며 상표심사관에게도 지정상품 오류(오기, 오타등)에 따른 보정통지대상이 감소되고 상품 유사여부 판단을 위한 시간이 절약되는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포괄명칭 인정목록을 계속 개발하여 추가할 계획이다

〈표 II-1-23〉 포괄명칭관련 가거절통지건수(국제상표) 현황

연 도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출원건수(A)	4,874	6,699	8,483	9,072	
가거절통지건수(B)	1,341	2,132	2,887	4,247	
거절비율(B/A)	27.5%	31.8%	34.0%	46.8%	35.0%

3. 상표·디자인심사 인프라 지원

상표디자인심사국 서비스표심사와 서기관 최제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수집 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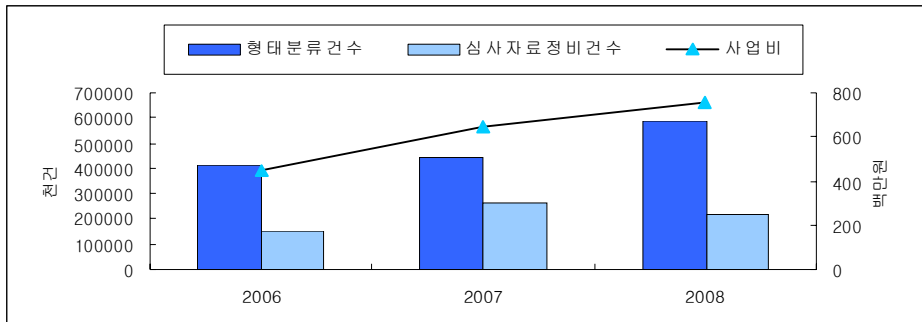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수집 정비사업은 디자인보호법이 규정한 출원 디자인의 신규성 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디자인보호제도가 도입된 이래 계속해 왔으나, 1998년 특허청의 전자출원 및 심사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종전에 문서형태로 수집하던 것을 컴퓨터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이미지로 전환 가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사업은 디자인 심사자료를 수집 가공하여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고품질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공개·공지 디자인을 신속히 확보하여 신규성, 창작성 판단 등 디자인 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2) 디자인 심사자료 형태분류 정비사업

디자인 심사자료 형태분류 정비사업은 7백만 건에 이르는 디자인 심사자료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검색하기 위해 그동안 물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 디자인의 물품을 형태적 요소를 추가하여 다시 세분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시한부 사업으로 시작하여 200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210만 건에 대한 재분류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연도별 사업량과 사업비는 다음 표와 같다.

〈그림 II-1-3〉 디자인 심사자료 형태분류 정비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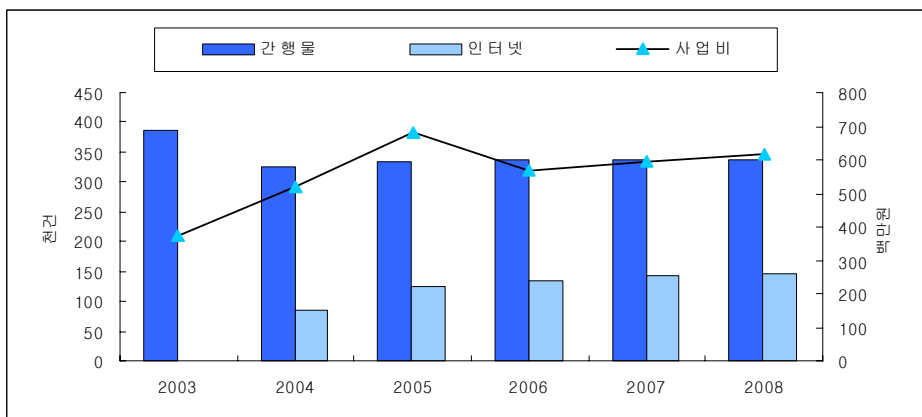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수집 정비사업

이 사업은 디자인 심사자료의 수집과 정비에 관한 지식과 데이터 가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용역사업으로 시행했으며, 사업의 주된 내용은 첫째,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공지되는 디자인 심사자료. 둘째, 잡지, 카탈로그 등을 통해 공개·공지되는 디자인 심사자료. 셋째, 미국, 독일, 일본, OHIM, WIPO의 디자인 등록·공개공보를 수집하여 DB자료로 가공하는 등의 3가지로 크게 구별되며, 연도별 예산액과 사업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그림 II-1-4〉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수집 정비현황



2) 디자인 심사자료 형태분류 정비사업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째, 물품의 용도, 기능으로 분류한 디자인 심사자료를 물품을 형태요소를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각각의 코드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아래 표 참고). 둘째, 물품의 용도, 기능이 과도하게 세분되어 따로 심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소분류를 통합하는 사업. 셋째, 형태분류(안)에 맞춰 보유한 심사자료 DB의 분류 코드를 수정(사업수행 과정에서 오류, 중복, 이미지 불량 자료 등을 함께 정비)하는 사업의 3가지로 구분된다.

2006년부터 3년간에 걸쳐 시행한 사업실적은 형태분류 163개 소분류, 유사 소분류 통합 138개 소분류(신설 43개), DB 정비건수는 210만 건이다.

〈표 II-1-24〉 형태분류 전후 심사자료 비교(휴대용 전화기 H3-301의 경우)

형태분류 전	형태분류 후
휴대용 전화기 (H3-301) 총 29,859건 (소분류 아래에 형태분류 등 없음)	H3-301A 바 타입형 5,551건
	H3-301B 플립형 1,511건
	H3-301C 폴더/슬라이드형 10,957건
	H3-301CA 액정 및 기능버튼노출형 (2,796건)
	H3-301CB 액정 외부 노출형 (3,738건)
	H3-301CC 열린 폴더형 (2,107건)
	H3-301CD 열린 슬라이드형 (854건)
	H3-301CE 열린 회전/스윙형 (295건)
	H3-301D 신체 착용형 113건
	H3-301 기타 11,727건

다. 평가 및 발전방향

1)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수집 정비사업

이 사업의 핵심은 실효성 있는 공지·공개 디자인 자료를 수집, 정확하게 가공 및 분류하여, 신속하게 특허청 심사관에게 제공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2008년도 사업은 디자인 출원 추이를 고려하여 물품별 심사자료 수집량을 정한 다음 2개월 간격으로 납품하였으며, 납품 데이터의 검수 탑재율은 98.6%로 2007년도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는 데이터의 납품시기를 1개월 간격으로 단축하고, KOTRA, 주한 외국공관 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외국에서 공개되는 디자인 자료의 수집능력을 대폭 강화할 예정으로 2008.12월 현재 디자인 심사자료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II-1-25〉 디자인 심사자료 보유현황(2008.12월 현재)

구 분		수량(천 건)	축적기간	수집주기
국내	디자인 공보	891	1960~	수시
	실용신안 공보	448	1999~	수시
해외	일본 공보	1,179	1960~	주 1회
	WIPO 공보	97	1998~	월 1회
	OHIM 공보	308	2003~	연 5회
	미국 공보	129	2002~	연 5회
	독일 공보	70	2006~	연 5회
	과거 외국공보	677	~1999	
기타	카탈로그, 인터넷	3,280	1980~	연 5회
	화상디자인	144	2003~	연 5회
	글자체	28	1999~	연 5회
계		7,251		

2) 디자인 심사자료 형태분류 정비사업

이 사업의 핵심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디자인 요소 중에서 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하고 식별력이 큰 부분 중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추출해서 체계화하는 일이다. 따라서, 형태분류(안)의 마련 과정에서 업계, 디자이너, 변리사 및 심사관, 분류 관계자 등의 많은 참여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특허청은 2009년 중에 현행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그동안의 형태분류 결과를 분류지침에 반영하고 물품별 분류 정의서 제정, 디자인 물품 분류목록 고시 등을 통해 출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LOCARNO 분류 등 국제 디자인 분류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3절 심판 분야

1. 심판품질 제고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행정사무관 최정태

가. 개 요

특허심판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은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있는 소중한 목표이며 앞으로 영원히 추구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동안 특허심판원은 심판인력 증원 및 심판제도의 개선 등 지속적인 심판처리기간 단축노력의 결실로 '07년에는 세계최고 수준의 심판처리기간 5.9개월을 달성하였으며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도 심판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심판품질을 가늠하는 지표인 특허법원 소제기율과 심결취소율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08년에는 심판처리기간의 안정적인 유지를 바탕으로 처리기간에서 품질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08년을 '심판품질 제고의 원년'으로 삼아 심판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과 연계된 평가 및 보상시스템 운영, 심판 인프라 확충,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심판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심판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과제들을 발굴하였다.

품질과 연계된 평가 및 보상시스템으로는 분기별 심판품질평가위원회 개최, 매월 심리과정에 대한 심판관의 심리충실성 평가제도 운영, 매주 심결취소원인분석 및 동향점검회의의 개최, 반기별 판례평석 공모 및 포상, 법원근무결과 발표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다. 심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구술심리 및 기술설명회 확대, 쟁점별 상표판례DB 검색시스템 구축, 심판이력관리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심결문 작성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심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임심판관 멘토링시스템 운영, 경력심판관 보수교육, 판사·교수 초빙 판례·소송법 연구회 등 심판관 맞춤형 교육 및 품질제고를 위한 심판부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 및 보상시스템 운영

가) 심판품질평가위원회 활동

심판품질평가위원회는 상표, 디자인,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 5개 분야별로 구성된다. 분야별로 수석심판장이 위원장이 되며 심판관 4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매 분기당 1회 개최되며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이 심결 취소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관 교육자료를 작성하게 된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판관 위원 4인 중 2인을 다른 분야 심판관으로 구성하고 있다.

나) 심결취소원인분석 및 동향점검회의 신설

심판원에서는 심결취소 확정 건에 대하여 분야별 심판품질평가위원회 개최뿐만 아니라 심결취소 건에 대해 신속하고 심층적인 원인분석 및 즉각적인 환류를 위해 매주 심판원장 주재로 심결취소원인분석 및 동향점검회의를 '08년 7월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해당분야의 수석심판관, 해당사건의 주심심판관 및 소송수행관이 참석하며, 심결취소원인분석서를 바탕으로 취소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토론을 통해 회의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심판관 및 소송수행관들에게 환류하여 심판 및 송무업무의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다) 판례평석 공모 활성화

특허청 구성원들의 판례연구 활성화를 위해 판례평석 기고를 적극 장려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련 판례연구를 통해 특허청 고유의 심사·심판 논리개발은 물론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함양되기 때문이다. 특히, 잘못된 판례에 대한 이성적 비판·견제를 통하여 관련 법규·제도의 발전은 물론 심사·심판의 현안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반기 별로 공모를 시행한 결과 상반기 25편, 하반기 23편의 판례평석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판례평석은 3단계에 걸쳐 평가 및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우선 1차평가를 통해 판례평석의 등급을 매기고, 2차평가에서는 1차평가 결과 등급이 우수한 판례평석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점수평가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2차 평가점수를

고려하여 판례평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편의 우수판례평석을 선정한다. '08년에는 10편의 우수판례평석이 선정되었으며, 우수판례평석으로 선정된 건에 대해서는 법률 관련 간행물, 각종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 등에 게재하였으며, 특히 「지식재산21」에 매회 2~3건을 고정적으로 기고하여 청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라) 법원근무결과 발표회 개최

특허청에서 법원에 파견되어 지재권 사건에 대하여 법관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 특허법원 기술심리관과 대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특허조사관이 있다. 특허법원에는 총 15명이 파견되어 사건에 대한 기술적 자문 역할 및 필요시 심리와 합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법원에 6명, 서울지방법에는 2명이 파견되어 특허소송사건에 대한 기술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이들 법원근무 경험자의 노하우를 심사관·심판관에게 생동감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발표회를 2008년 11월에 개최하였다.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11명의 법원근무경험자가 발표를 하였으며 사이버투표 및 평가위원의 평가 등 다중평가를 통해 발표우수자 4명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이들의 법원근무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연구회, 세미나 진행시 이들을 적극 참여시켜 발전적으로 공유되고 토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림 II-1-5〉 법원근무결과 발표회 전경



2) 심판인프라 강화

나) 쟁점별 상표판례DB 검색시스템 구축

심결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핵심적이고 적합한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심·판결문 검색시스템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이 수록되어 있어,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심결에 참조할 만한 주요판례를 찾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주요판례를 쟁점별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현행 시스템과 병행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07년에는 특허분야의 쟁점별 주요판례 DB를 구축하고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08년에는 상표분야의 특화된 쟁점별 주요판례 DB를 구축하고 검색시스템을 개통하였다. 검색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각종 기능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차례 반영하여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특히 및 상표분야 쟁점별 주요판례 DB는 반기 별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그림 II-1-7〉 쟁점별 상표판례 검색 사례

판례요지	
[사건번호 : 2000201006912] "(도안화된) PIA"와 "PIAA"는 칭호가 동일하여 유사하다.[U001P]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를 도형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문자의 전체적인 윤곽이 도형화된 정도에 비하여 훨씬 뚜렷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그 문자 전체인 'PIA'로 직감되고 인식되어 '피아'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용상표 역시 '피아'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다.	
도형분류코드 : 270508, 260106	
이견상표이미지 	인용상표이미지(1) 
특허법원 2001. 03. 09 선고 2000허(원)6912 조회횟수(0) 상세정보조회 책갈피	

심판이력				
순서	심판번호	청구일자	심결주문	심/판결일자
1	2000원461	2000/02/29	기각	2000/08/29
1	2000허6912	2000/02/29	청구기각	2001/03/09



다) 통지서 헬프데스크 및 심판 일정관리 시스템 개발

심판관이 심판당사자에게 발송하는 통지서 작성시 건마다 관련조문 및 최근 통지서 등을 일일이 검색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지서(44종)별 근거법령·조문, 모범통지서 등을 통지서 작성기 시스템을 통해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지서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08년 12월에 개통하였다. 동 시스템은 특허/실용/상표/디자인분야별, 심판종류별, 심판관별, 추천빈도별로 동일 종류의 통지서 검색기능, 검색된 통지서 중 모범 샘플에 대해 추천하는 기능, 심판관 본인이 작성한 모범통지서 샘플 및 통지서 작성 노하우를 저장하고 타 심판관과 공유하는 기능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아울러 동 시스템 개발과 함께 심판관이 심판관련 개인일정·공유일정·처리기간 등 심판일정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심판일정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심판업무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3)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심판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허법원 판사 및 법과대학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최근 특허법원의 판례동향 및 민사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심판관의 실무능력을 제고시켰으며, 특허심판원 패소사건들의 패소원인 분석결과 및 최근 심결 및 판결동향 분석결과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였다.

특허심판원에 새롭게 충원되는 신규심판관 및 연구관에 대해서는 지도심판관을 지정하여 6개월간 도제식으로 멘토링을 실시하여 심판업무능력을 조기에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08년부터는 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심판부별 세미나를 각 심판부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연간 총 42회를 개최하면서 해당분야의 심판 쟁점, 판례동향, 최신기술분야 등 심판품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토론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08년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심판서비스 제공을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었다. '07년 이후, 세계 최고수준의 심판처리기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아울러 심판품질에 더욱 비중을 두어 품질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였다. 아울러, 심판품질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과제들을 발굴하였다.

신속한 심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신속히 처리하도록 맞춤형 심판시스템 운영, 경력심판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경력계수를 차등화하는 심판관 등급제 도입, 심결문 작성 시간을 단축하여 심판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결문 작성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품질의 심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지향적 심판제도에 역점을 두어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대상 확대, 소제기 부가기간 지정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고, 법원과의 특허성 판단기준의 조화를 위해 특허법원과의 교류 활성화, 법원과 견 복귀자의 정보공유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며, 심판품질 평가시스템 강화를 위해 심판품질의 핵심지표인 심결취소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융복합기술 사건에 대한 부심 심판관 풀(Pool)제를 도입하여 융복합기술분야에 대해 고품질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4절 심사평가제도 운영

1. 심사평가제도의 운영

심사품질담당관실 기술서기관 이숙주

가. 개요

심사평가제도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실심사를 방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심사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2000년 8월에 심사평가팀이 발족되었으며, 2008년 3월에는 심사품질관리의 기획·진단 및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평가팀에서 차장 직할의 심사품질담당관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표 II-1-26〉 주요국의 심사평가제도 운용현황

국 가	주요 운용현황
미 국 특허상표청 (USPTO)	· 평가조직은 부청장 직속 평가조직(RQAS: Review Quality Assurance Specialist)과 심사국 내의 평가조직(TQAS: Training Quality Assurance Specialist)으로 이원화 · 심사관이 처리한 등록결정 건을 추출하여 심사의 전 과정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심사과장에게 통지 · 매 회계년도말에 1차례 평가를 실시하고, 회계년도 중간에 진행상황을 점검 · 심사과장은 RQAS와 TQAS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심사관의 심사품질 평가 · TQAS는 수석심사관이 처리한 샘플링 양을 확대시켜 심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수석심사관에 대한 재인증 기초자료로 활용
유 럽 특허청 (EPO)	· 청장직속의 내부 감사국 내에 품질감사과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감사 · 사전 표본추출방식에 의한 품질평가 실시 · 2007년도부터 선행기술조사 및 심사를 감사 · 평가결과는 개인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심사과 전체 또는 당해기술 분야의 흠결동향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일 본 특허청 (JPO)	· 품질감리관실(Quality Management Office) 신설(2007.4) · 품질감리관실의 평가관이 국내출원 및 PCT 출원 평가 · 평가는 사후 추출방식에 의하여 임의로 무작위 추출하여 평가 · 평가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되지 않고 심사품질관련 통계 작성에 활용

나. 추진 내용 및 성과

1) 심사평가관에 의한 심사평가

심사평가관의 평가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심사파트 단위로 상반기에는 파트원당 4배수를 샘플링하여 평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파트원당 3배수로 줄이면서 특허요건(신규성·진보성) 위주로 평가를 강화하였다.

상표·디자인의 경우 심사파트 단위로 상반기에는 파트원당 12배수를 샘플링하여 평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18배수로 샘플링을 증가하여 평가하고 있다. 샘플링 방법은 당해 반기 내에 심사관이 등록/거절 결정서를 작성하여 발송된 심사 완료건을 전산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평가하고 있다.

평가관은 총 15명으로, 상표·디자인 분야 4명, 기계·금속·건설 분야 3명, 화학생명 분야 3명, 전기·통신분야 5명으로 2008년 하반기에는 상표·디자인 분야 평가관을 2명 증원하여 당해 분야의 평가를 강화하였다.

상반기 평가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510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2,031건을 평가하였으며, 또한 상표·디자인의 경우는 107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254건을 평가하였다. 하반기 평가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497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476건을 평가하였으며, 상표·디자인의 경우는 97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591건을 평가하였다.

2) 타심사과장에 의한 심사평가

타과장평가는 심사국에 근무하는 심사과장이 타심사과의 심사관이 심사한 심사건에 대하여 반기별로 평가하며,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상반기에는 심사관 1인당 6건을 샘플링하여 평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심사관 1인당 3건으로 감축하였다.

상표·디자인의 경우 상반기에는 심사관 1인당 6건을 샘플링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심사관 1인당 9건으로 샘플링을 증가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샘플링 방법은 심사관이 등록/거절 결정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이미 발송한 심사건을 무작위 추출하여 평가하고 있다.

상반기 평가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511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3,042건을 평가하였으며, 상표·디자인의 경우는 108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925건을 평가하였다. 하반기 평가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492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443건을 평가하였으며, 상표·디자인의 경우는 95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812건을 평가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 방향

2008년 하반기 이후 심사평가는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하여 심사평가관은 특허요건(신규성·진보성) 등 실체 판단 위주로 평가를 하고, 타과장은 심사절차·형식적 판단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역할분담하고 있다.

심사평가 결과는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에 반영되고 있고, 우수 심사관 및 우수 심사부서 포상시 선정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심사평가결과 심사 미흡 또는 우수사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향후 심사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사례 분석을 강화하여 심사관에게 피드백함으로써 특허청의 고품질심사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2. 심사평가규정 및 지침서 개정

심사품질담당관실 기술서기관 임해영

가. 개정 배경

심사정책의 패러다임이 심사품질 위주로 전환되면서 추진된 「심사품질개혁방안」(Examination Excellence Plan)의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심사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규정 중 심사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

청절차를 개선하였고, 또한 우수심사유형의 추가로 보다 많은 우수심사사례를 발굴하고, 형식적인 심사보다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평가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

나. 주요 개정 내용

1) 심사평가규정 개정

첫째, 심사품질담당관실의 심사평가관에 의한 평가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종래에는 흠결 1범주에 대해서만 이의결정위원회에서 이의결정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흠결 1범주와 흠결 2범주 모두에 대해서 이의결정위원회에서 이의결정을 하도록 개정하였다.

둘째, 종래에는 타심사과장에 의한 평가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흠결 1범주에 대해서는 3명의 심사과장이 이의결정하였고, 흠결 2범주에 대해서는 평가한 타심사과장이 단독으로 이의결정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심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2인의 심사과장(단, 이의신청을 한 심사관의 소속 심사과장 및 평가한 타심사과장은 제외)이 위원이 되는 심사국 이의결정위원회에서 이의결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PCT보고서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규정을 명문화하여, PCT보고서를 평가한 평가관을 제외한 5인의 평가관으로 구성된 PCT보고서 이의결정협의체가 이의결정하도록 하였다.

2) 심사평가지침서 개정

첫째, 심사평가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기준이 종래에는 1가지만 있었으나, 3가지 유형을 더 추가하여 ‘탁월’ 사례 선정을 위한 1가지 유형 및 ‘우수’ 사례선정을 위한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우수사례가 발굴되도록 하였다.

둘째, 청구항별 심사에 관한 평가항목이 종래에는 형식적인 면에 치우쳤으나, 발명의 특징에 따라 심사를 충실하게 되도록 개정하여 실질적인 청구항별 심사가 되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 방향

심사평가규정 및 심사평가지침은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심사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심사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심사평가규정 등의 개정은 타당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국내외적으로 심사품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심사평가제도의 개선방향 또한 심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강한 특허가 나올 수 있도록 심사의 방향을 유도하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심사품질의 합리적 측정과 관리

심사품질담당관실 공업사무관 이성섭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식재산권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요국 특허청은 상호 심사결과 활용을 통한 업무경감을 목적으로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특허심사 하이웨이) 및 IP5 특허체제와 같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정세와 권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무효되지 않는 강한 특허를 원하는 국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허청은 2기 책임운영기관의 출범에 맞추어 심사품질 향상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하게 되었다.

심사품질은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측정되기 어렵고, 심사오류율, 심사결과에 대한 출원인의 만족도,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률, 무효심판 청구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수 있다.

특허청은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와 그간 관리하여 오던 심사품질지표를 바탕으로 심사품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로서 특·실 분야 특허결정적합률, 상·디 분야 거절결정적합률 및 심사품질지수를 정의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결정적합률

결정적합률은 특·실분야의 특허결정적합률과 상·디분야의 거절결정적합률로 나뉘는데, 특허결정적합률은 특·실분야의 특허결정 건을 샘플링 추출하여 심사평가한 결과 특허결정에 오류가 없는 건의 비율이고, 거절결정적합률은 상표·디자인 분야의 거절결정 건을 샘플링 추출하여 심사평가한 결과 거절결정에 오류가 없는 건의 비율로서, 결정적합률이 높다는 것은 규정에 따라 심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도 특·실분야 특허결정적합률은 98.5%, 상·디분야 거절결정적합률은 98.9% 수준이다.

2) 심사품질지수

심사품질지수는 심사품질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추출한 후, 이 변수들의 목표값 대비 달성도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량화한 값으로서, 지수 산정을 위한 요소는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을 비롯하여 출원인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취소환송률 등 총 7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요소는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인데, 이는 전체 심사관의 심

사결과를 심사품질담당관실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한 심사평가점수의 평균으로서, 55%의 가중치를 갖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요소들은 그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각각 다르게 부여하였다.

한편, 심사품질지수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목표 값은, 심사품질의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감안하여, 최근 2년간 달성률의 평균값으로 설정하였는데, 2008년 평가결과 심사품질지수를 구성하는 7가지 요소 모두 목표를 초과하였다.

2008년 심사품질지수는 목표보다 6.3%가 향상된 106.3을 달성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심사품질은 어느 한 측면만 관리하는 것으로 향상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심사품질지표 이외에도 심사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발굴 관리함은 물론, 심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반적인 심사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4. 심사관 및 심판관 사기양양

심사품질담당관실 공업사무관 송인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 청에서 심사·심판업무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로 심사·심판의 조속한 처리와 더불어 적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현재 선진 주요국보다 많은 양의 심사·심판 물량을 처리하고 있고, 아울러 심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심사관의 심사를 평가하는 등의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우수 심사·심판부서의 포상은 심사·심판관의 사기를 양양하고 조직원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심사·심판부서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제도이며, 우수 심사·심판관 포상제도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록 출원의 심사·심판과정에서 관련 법규나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한 모범 심사·심판관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것을 말한다.

2008년 하반기에는 심사관의 심사에 대하여 심사품질 지도를 잘한 우수지도 심사과장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여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에 기여 하도록 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우수 심사·심판부서의 포상은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며, 우수 심사부서의 선정은 심사국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우수 심사파트는 심사품질담당관실, 소속 심사과장 및 타심사과장의 심사평가를 전부 받은 심사관이 속한 심사파트의 평균점수 순위에 의해 선정되며, 우수 심판부서의 선정은 심판부별 심판처리량과 품질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다.

2008년에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의 경우 반기별로 각각 6개부서가, 장려상의 경우 각각 5개 부서가 선정되어 연간 34개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고, 심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검색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여 청구항 감축률이 우수한 4개 부서를 반기별로 선정하여 총 8개 부서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였다.

〈표 II-1-27〉 2008년도 우수 심사·심판부서 포상 실적

구 분	포상구분(상반기/하반기)				포상금(만원)			비 고 (상반기/하반기)
	최우수	우 수	장 려	소 계	상반기	하반기	소 계	
합 계	6/6부서	6/6부서	5/5부서	17/17부서	1,730	1,610	3,340	최우수 : 130만원/120만원 우 수 : 100만원/90만원 장 려 : 70만원/70만원

〈표 II-1-28〉 2008년도 검색 우수부서 포상 실적

구분	포상구분(상반기/하반기)	포상금(만원)			비 고 (상반기/하반기)
	최우수	상반기	하반기	소계	
합계	4/4부서	320	280	600	최우수 : 80만원/70만원

우수 심사·심판관 포상 또한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며 우수 심사관의 경우 심사 실적 점수와 심사품질담당관실의 평가점수 및 타심사과장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하며, 우수 심판관은 개인별 심판실적과 심판품질지수의 점수를 합하여 선정하고 있다.

2008년에는 반기별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의 경우 6명, 장려상의 경우 각각 10명으로 총 44명의 우수 심사·심판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였고, 검색 우수심사관 및 검색 우수조사관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여 청구항 감축률이 우수한 심사관 4명 및 조사관 2명을 반기별로 선정하여 총 12명에 대하여 포상을 하였다. 우수지도 심사과장 또한 2008년 하반기부터 3·4분기 각 3명(특허·실용신안 분야 2, 상표·디자인 분야 1)을 선정하여 포상을 하였다.

〈표 II-1-29〉 2008년도 우수 심사·심판관 포상 실적

구분	포상구분(상반기/하반기)				포상금(만원)			비 고 (상반기/하반기)
	최우수	우수	장려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합계	6/6명	6/6명	10/10명	22/22명	1,520	1,460	2,980	최우수 : 100만원/90만원 우 수 : 70만원/70만원 장 려 : 50만원/50만원

〈표 II-1-30〉 2008년도 검색 우수심사관 및 우수조사관 포상 실적

구분	포상구분(상반기/하반기)			포상금(만원)			비 고 (상반기/하반기)
	최우수심사관	최우수조사관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합계	4/4명	2/2명	6/6명	320	280	600	최우수심사관 : 60만원/50만원 최우수조사관 : 40만원/40만원

〈표 II-1-31〉 2008년도 우수지도 심사과장 포상 실적

구분	포상구분(3분기/4분기)			포상금(만원)			비 고 (특실/상디)
	최우수	우수	소계	3분기	4분기	소계	
합계	2/2명	1/1명	3/3명	120	120	280	최우수 : 50만원/40만원 우 수 : 30만원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우수 심사·심판부서의 포상은 부서 내에서는 공동의 목표 제시로 단결과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부서 간에는 선의의 경쟁이 유발되도록 함으로써, 심사·심판의 품질향상과 신속한 심사·심판처리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수 심사관 포상은 심사관에게 심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고 사기를 북돋아주며 심사평가에서 발굴된 우수심사사례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심사관에게 feedback 하는 등 심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 대하여 특허행정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우수심사관(B.E : Best Examiner)제도를 통해 심사국별로 심사품질이 가장 우수한 심사관을 B.E로 선정하여 소속 심사국의 심사품질 관리요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심사국의 심사품질관련 각종 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특허청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심사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데, 이는 심사관이 수행한 심사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와 심사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및 우수심사관에 대한 포상지원에 의해 심사품질이 향상된 결과로 평가되는바, 심사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사평가 강화를 통해 우수부서 및 우수심사관에 대한 포상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선진국 수준의 심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포상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5절 방식심사

1. 신속·정확·고객지향의 방식심사

고객서비스국 고객서비스과 행정사무관 김대영

가. 신속·정확·고객지향의 방식심사

방식심사 처리기간 목표제 시행으로 '08년 접수서류의 99.98%를 기한(6일)내에 방식심사 처리를 완료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방식심사 프로세스 개선협의회를 통한 업무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08년 274건의 개선사항 발굴), 신규 전입자와 업무 전문가와의 1:1 밀착 멘토링, 방식심사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방식심사 처리기간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다.

〈방식심사 처리기간 준수율〉

구 분	접 수	기한내 방식심사	준수율
합 계	1,217,341	1,217,133	99.98%
출 원	658,822	658,804	99.99%
국제출원	21,854	21,852	99.99%
등 록	536,665	536,477	99.97%

또한, 방식심사의 정확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방식심사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미준서 처리건의 유형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출원인의 오류율 감소를 위해 “출원 Expert System”를 마련하여 출원서류 오류율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2

CHAPTER

제2편 세계최고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제공

심사·심판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제1절 심사·심판인력에 대한 교육강화

1. 실무중심의 전문교육과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 행정사무관 안병욱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강국 실현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세계최고 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제공을 위해 다양한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고려하여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실습시간 확대, 심사·심판사례연구시간의 확대·운영 등으로 실무능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기본교육인 신규심사관, 중견심사관 및 심판관 과정에 있어 실무실습시간 확대, 심사·심판사례연구시간 및 OJT를 통해 심사·심판관으로 갖추어야할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하였으며, PCT 과정, 심사사례연구(I, II), 심결판례연구 및 심화과정, 소송수행실무, 선행기술조사 등 다양한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법원 근무자 및 우수 심사·심판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함으로써 심사·심판에 있어 품질을 제고하고 심사·심판 인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또한 심사·심판의 실무 강화를 위해 기본 법률인 특허법 및 상표법에 대한 수준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기초과정, 심화과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주요쟁점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핵심쟁점과정 및 사례연구과정을 특별과정으로 개설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민법(Ⅰ,Ⅱ) 민사소송법 및 디자인보호법 등에 대한 교육으로 법률마인드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실무중심의 교육훈련 현황〉

(단위 : 회, 명)

과 정 명	연 수 대 상	실 적	
		횟수	인원
신규심사관	특허청 심사관 신규임용 예정자	1	48
중견심사관	신규심사관과정 이수자	1	116
심판관	중견심사관과정 이수자	1	109
민법기본(Ⅰ)	특허청 공무원	1	85
민법기본(Ⅱ)	특허청 공무원	1	83
민사소송법	특허청 공무원	1	85
특허법 기초	특허청 공무원	2	167
특허법 심화	특허청 공무원	1	66
특허법 핵심쟁점	특허청 공무원	1	49
특허법 사례연구	특허청 공무원	1	33
상표법 기초	특허청 공무원	1	47
상표법 심화	특허청 공무원	1	37
상표법 핵심쟁점	특허청 공무원	1	43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공무원	1	26
심사사례연구(Ⅰ)	특허청 심사경력 1~2년차 초임심사관	2	111
심사사례연구(Ⅱ)	특허청 심사경력 4년이상 기술직 선임심사관	2	37
심결판례연구	특허청 5급이상 공무원	1	37
심결판례심화	특허청 심사경력 4년이상 기술직 선임심사관	1	22
소송수행실무	특허청 5급이상 공무원	1	25
선행기술조사	특허청 공무원	1	12
국제상표심사	특허청 공무원	1	21
출원등록심판방식심사실무	특허청 공무원	1	29
PCT심사기초	특허청 기술직 심사관	2	79
PCT심사심화	특허청 기술직 심사관	3	99
STN정보검색	화학생명심사국 심사관	1	23
지식재산권관련법	특허청 공무원	1	68
외국의 지재권제도	특허청 공무원	1	36
특허행정신규자	특허청 신규채용 및 전입 공무원	1	20
합 계		34	1,613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실무중심의 커리큘럼 운영 및 우수 강사 초빙, 교육운영결과에 대한 교육생에게 피드백 시스템 구축, 심사·심판 현업적용도 여부 등 다양한 전문교육과 운영기법으로 심사·심판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특허청 상시학습 지원센터 (KIPO 아카데미) 구축·운영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수과 전산사무관 이재근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공무원들의 상시학습 문화가 정착되면서, 특허청 직원들의 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집합교육으로는 그 수요를 다 수용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장기간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시·공간을 초월한 사이버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웹2.0 시대의 도래에 따른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와 집단지성을 근간으로 하는 지식의 공유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사이버교육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교육만으로는 학습자간 또는 학습자와 강사 간 상호작용이나 실습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을 혼합한 Blended Learning(BL)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BL방식은 온라인으로 이론 & 기초 학습을 제공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실습 & 심화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학습 기법이다.

온라인교육 콘텐츠도 공급자 중심, 이론 주입형 교육방식에서 수요자 중심, 문제 해결형 교육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즉각적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쌍방향 학습으로 개발 방식을 다양화 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8년에는 심사·심판 등 특허청 직원을 위한 상시학습 체제를 처음으로 도입함으로써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하여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이버교육 운영 현황을 보면 “특허법”·“상표법” 등 지재권법 과정과, “특허법률 영어” 등 특허영어과정, “민법”·“민소법” 등 법률소양과정 및 교양강좌를 포함한 13개 과정 (제3기수 운영)에 2,332명이 수강하였다.

또한 특허를 심사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핵심쟁점 53개를 도출하여 “특실심사 핵심쟁점 사례(20차시)”을 콘텐츠로 제작하였다. 이 콘텐츠는 경험이 풍부한 심사·심판 전문가가 직접 집필하고 동영상으로 해설하여 직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청의 학습 특수성을 반영하여 청 직원 전용 상시학습 지원센터(KIPO 아카데미)를 새로 개설하였다. 이 사이트에서는 심사·심판관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식 위주의 학습이 되도록 구현되었으며, 직무연수로 인정되는 상시학습, 부담 없이 원하는 모듈을 공부할 수 있는 열린학습, 학습정보교류방, e-휴게실 등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중 주요과정에 대해서는 현장 강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수업에 부득이 참가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장강좌 “특허법 심화”, “상표법 심화” 등이 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08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상시 학습체제를 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콘텐츠 제공과 학습 동기 부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일방적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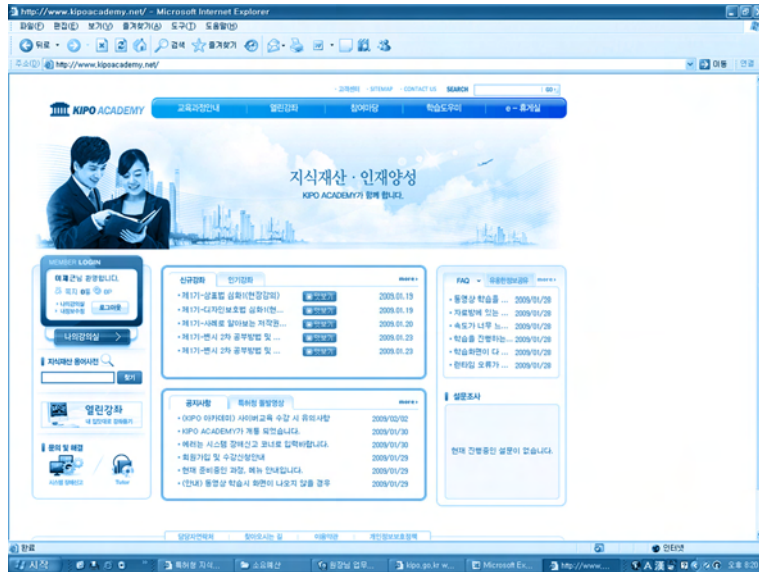
향후에는 특허청 직원들의 지속적 관심 유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학습을 성실하게 한 우수 학습자에게는 경품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우수활동 회원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자 피드백 강화를 통해 사이트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교육의 성공여부는 교육 콘텐츠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 2009년에는 “상표·디자인심사 핵심쟁점 연구”, “PCT 심사실무사례”, “출원·등록·심판 방식심사실무” 등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콘텐츠를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민법·민소법 같은 법률소양과정은 검증된 민간 콘텐츠를 도입할 예정이다. 녹색성장 관련 콘텐츠, 국제협상 과정, 공무원 소양 과정 등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도입하여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교육의 일방향, 이론위주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사례·실습 중심의 특강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최신 IT기술을 반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 및 인터넷 방송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표 II-2-1〉 KIPO 아카데미 (<http://www.kipoacademy.net>)



〈표 II-2-2〉 특허청 상시학습센터 콘텐츠 제공현황 (21개 과정, '08.12)

구 분		구 성		
		차시	러닝타임	강 사
직무 (13)	상표법 심화1(현장강의)	27	50분	박종태
	상표법 심화2(현장강의)	18	50분	박종태
	특실심사 핵심쟁점 사례연구	20	50분	박진석 외 5인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의 이해	10	25분	채명기
	특허법 기초	34	25분	박진석
	2007개정 특허법 해설	3	15분	박종주
	특허법 심화1(현장강의)	17	55분	지현수
	특허법 심화2(현장강의)	16	55분	지현수
	상표법 기초	30	25분	문삼섭
	디자인보호법 기초	25	25분	조국현
	특허법률영어(CIIP)	20	30분	Eric Enlow
	지재산 비즈니스(IP-Panorama)	10	30분	정윤식
	특허정보 및 특허명세서 작성(IP-Xpedite)	14	30분	정윤식
교양 (6)	민법총칙 및 채권법	30	67분	오양균
	민사소송법	30	65분	이종훈
	재무설계1	16	25분	-
	재무설계2	14	25분	-
	Formal Business Writing	20	25분	-
	e-노후생애설계	40	25분	

3. WIPO 및 해외 지재권 교육기관과의 협력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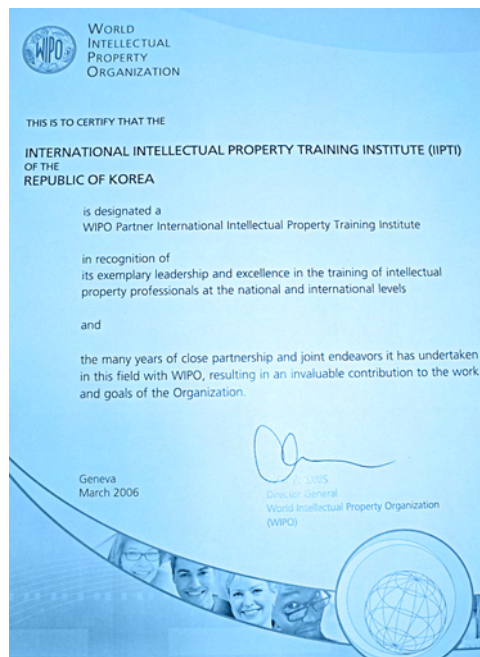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공업사무관 이충석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987년,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자금지원 하에 설립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WIPO와 한국국제협력단 (KOICA)과의 협력으로 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지재권 종사자, 연구원, 정책입안자를 상대로 교육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연수기관으로서 매년 6~8회 정도의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6년 3월 15일 국제 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 최초로 WIPO 공식 지재권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연수원은 명실상부한 아태지역 지재권 교육의 허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그림 II-2-1〉 WIPO 파트너 기관 인증서



나. 추진내용 및 성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8년도에 WIPO세미나, KOICA과정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7개의 국제과정을 운영하여 총 129명의 외국인이 교육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1987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총 1,637명의 외국인 교육생을 배출하여 지재산 교육의 지역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IPO 아태지역 세미나는 1987년 연수원 개원 이래 20년간 WIPO와 공동으로 지재산분야 국제 현안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온 세미나로 WIPO와 지속적인 교육사업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신탁기금(KTF)으로 개최된 세미나는 최빈국 대상의 경제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제도라는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개최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국제지식재산권기구 아카데미(WWA, WIPO Worldwide Academy)의 인제양성 프로그램인 WIPO Summer School을 한국에서도 분산 개최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착안하여 태국, 멕시코, 크로아티아, 제네바와 더불어 한국에서도 최초로 Summer School on IP in Korea를 개최하게 되었다. 교육내용은 WIPO의 역할과 지식재산권의 일반에 대해 소개로 시작해서 디지털 기술과 지재산법, 전통지식, 지재산과 인권의 관계 같은 지재산분야의 최근 이슈에 관해 이해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이 보다 깊은 지식을 습득하도록 구성된다.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경력의 참가자들이 한데 모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쟁점에 대해 서로 토론하며 논쟁하면서 또한 평생 친구로, 협력자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은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림 II-2-2〉 제1회 여름학교 참가자 소감문

이곳에서 신기하였던 점은 한 장소의 각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만 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각자가 다들 그 나라에서 변호사, 버리사 아니면 로스쿨 학생. 그리고 아주 유창한 영어실력, 이런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였다는 자체가 놀라움이었습니다.

여름학교에서 훌륭한 강의내용도 좋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내 건문이 넓어지는 그러한 점이 참 좋았습니다. 특허청 직원 분들에게는 특허청이 어떠한지, 국제학교가 어떠한지, 국제변호사의 길 등에 관한 인생의 방향에 대한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고, 여러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이 살아온 길, 그 나라의 풍습, 우리나라와 다른 점,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이 과정을 통하여 지적재산권분야가 흥미롭고, 미래에 큰 역할을 맡을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좀 더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해 보고 싶고, 전공으로 살려볼 예정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고, 저는 큰 경험과 자극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1회 한국 국제여름학교 참가자의 참가 소감 중에서〉

〈그림 II-2-3〉 제1회 WIPO 여름학교 사진



WWA에서는 2009년에 이 프로그램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에서도 개최하기로 하면서 한국과정을 포함하여 총 7개의 Summer School을 개최될 예정이다.

〈표 II-2-3〉 2009년 WIPO 여름학교 개최 일정

지역별 과정명	개최도시	약자	날짜
WIPO-South Africa Summer School on IP	프리토리아	WSSS	5월 4일 ~ 5월 15일
WIPO-Thailand Summer School on IP	방콕	WTSS	5월 18일 ~ 5월 29일
WIPO-Korea Summer School on IP	대전	WKSS	6월 22일 ~ 7월 3일
WIPO Summer School on IP	제네바	WSS	7월 6일 ~ 7월 17일
WIPO-Ukraine Summer School on IP	오데싸	WUSS	7월 20일 ~ 7월 31일
WIPO-Mexico Summer School on IP	멕시코시티	WMSS	8월 3일 ~ 8월 14일
WIPO-Croatia Summer School on IP	드부로브니크	WCSS	TBD

KOICA 과정은 2008년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특히, 기존의 지재권 일반이라는 획일적인 주제로만 구성되었던 과정을 2006년 처음 「특허행정정보화과정」으로 주제를 다양화한 이후, 교육과정을 더욱 내실화하여 IT에 의한 심사프로세스 과정을 소개하는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본 과정은 이론교육과 함께 KIPO-net 시스템 시연, 특허법원 방문, 대리인사무소 방문 등 실습위주로 진행되어 특허넷 시스템과 주변 지재권 관련기관들이 지재권 생성, 보호, 활용 프로세스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선보여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그림 II-2-4〉 KOICA 한·싱 과정 자료 사진



〈표 II-2-4〉 2008년 외국인 과정 교육훈련 운영 결과

구분	명 칭	주 요 내 용	일 정	참가자
WIPO 과정	LDCs 세미나	· 최빈국 대상 지식재산 워크숍 개최	9.2~9.4	12개국 12명
	Summer School	· 아·태지역 대학생 및 Junior를 대상으로 교육	8.11~8.22	10개국 25명
	아·태지역 세미나	· 지재권과 경쟁정책과의 관계	10.7~10.9	14개국 27명
KOICA 과정	한·싱 지재권과정	· 한국의 지재권 정책과 제도발전 소개	6.8~6.21	10개국 13명
	ASEAN ⁹⁾ 지재권과정	·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10.9~10.23	7개국 13명
위탁과정	베트남 공무원과정	· 베트남 과기부 지재권제도 위탁교육	7.20~7.26	25명
		· 베트남 특허청 및 연수원 역 벤치마킹 과정	8.24~8.29	14명
계	7개 과정			129명

9)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아세안) : ‘동남아국가연합’이라고 하며, 가입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부르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총 10개국임

최근 연수원의 대외 협력 분야에 있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해외 지재권 교육기관 설립 지원과 외국정부 요청에 따른 맞춤형 위탁교육과정 개설에 있다. 국제지식재산 연수원은 2006년 WIPO 및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요청에 의해 아제르바이잔 지재권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컨설팅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지난 5월 컨설팅 보고서(Concept Paper)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WIPO측에 공식 요청한데 대해, WIPO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벤치마킹 모델로 제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에는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 내의 IP 연구원 설립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한국의 지식재산교육 경험을 전수해 주었다.

또한, 2007년에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요청에 의해 양국 지재권 업무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특허제도 및 심사제도를 소개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2개국 공무원 24명을 교육하였고, 2008년에는 베트남 과학기술부 연수원(MTI, Management Training Institute)과 연수원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정례화 하기로 합의하여, 2차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이 맞춤형 교육은 외국정부의 비용부담으로 연수원에서 시행한 최초의 외국인 맞춤형 교육으로 WIPO 공식 지재권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견고하게 함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 지재권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지난 2008년 10월에 대한민국 제주에서 열린 IP5 Heads Meeting에서 선진5개국 특허청장은 5개국 특허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5개국 특허청장은 “5개국 특허청 간의 불필요한 중복업무 방지, 특허심사 효율성 및 품질 제고, 특허권의 권리안정성 보장”이라는 특허심사업무 국제공조의 비전을 채택했다. 또한, 10대 기반 프로젝트의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동 비전의 이행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당당히 중심에 서서 회의를 개최하고, 성과를 도출한 아주 의미있는 행사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공식출범하게 된 5개국 협력체제는 앞으로 우리 특허행정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계 특허제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IP 5 체계 구축의 주역으로서 한국 특허청은 국제적으로 지재권분야의 선진강국으로서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는 그만큼의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도 뒤따른 다는 의미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지재권 교육기관으로서 국제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재권 인재양성의 중심기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5개국 심사관 워크숍 등을 통해 5개국 심사공조체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또한 KOICA 및 ASEAN등의 외부기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개도국의 심사관들을 위한 심사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지재권 교육허브로서의 위상에 맞게 각국의 지재권 제도 발전을 주도할 인재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표 II-2-5〉 2009년 외국인 과정 교육훈련 계획

분류	과 정 명	내 용	일정(예정)	참가인원
(신설)	ASEAN 심사관 교육	· 한국의 특허제도 소개 및 실질심사 교육	5월	15명
WIPO 과정	KTF세미나	· PCT 전자출원 심화교육	2.2~2.6	10명
		· 기술이전 및 지재권 관리	3.30~4.3	10명
	Summer School	· 아·태지역 대학생 및 Junior IP교육	6.22~7.3	30명
	아태지역 세미나	· 세계 지재권 제도의 발전과 현황 공유	10월	15명
KOICA 과정	한·싱 지재권 과정	· 한국의 지재권 정책과 제도발전 소개	6월	20명
	한·SAARC ¹⁰⁾ 과정	· 한국지재권 제도 발전 전수	9월	20명
베트남	과기부 공무원 과정	· 베트남 과기부 지재권제도 위탁교육	7월	20명
합계	8개 과정			140명

10)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남아시아 지역협력 연합’이라고 하며,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7개국으로 구성됨

고객지향적인 지식재산권 제도 구축·운영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1. 고객 맞춤형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추진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기술서기관 박종주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식기반경제의 가장 핵심요소인 특허제도를 고객의 입장에 맞추어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발명자와 기업, 연구소 등 특허청의 핵심고객들이 느끼는 주된 불편 요인인 복잡하고 까다로운 특허 심사·심판절차를 단순화하고, 발명의 보정·보완을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출원인이 특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자 고객 맞춤형 특허제도 구축을 위한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제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객 맞춤형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추진 작업이 2008년 11월 3일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12월에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2009년 1월 30일자로 법률안이 정식 공포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개정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먼저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에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한 경우라도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보정이 각하됨에 따라 결국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에 대한 제한요건에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자유롭게 감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표 II-3-1〉 연도별 보정각하결정 건수

(단위 : 건수, %)

구 분	1차 의견제출통지	최후 의견제출통지	최후 보정	보정각하결정
2004	74,434	1,007	643	273(42.5%)
2005	106,072	2,477	1,817	1,230(67.7%)
2006	151,380	4,435	3,579	2,088(58.3%)
2007	97,000	6,297	5,317	2,814(52.9%)
합 계	428,886	14,216	11,356	6,405(56.4%)

〈표 II-3-2〉 사유별 보정각하결정 현황(2007년)

(단위 : 건수)

제47조제2항 (신규사항 금지)	제47조제3항 (감축 등)	제47조제4항				총 계
		실질적 변경	특허출원시 특허받을 수 있을 것			
			종전 거절이유	새로운 거절이유	청구항 삭제에 따른 거절이유	
130 (5.2%)	231 (9.2%)	757 (30.2%)	1,283 (51.2%)	74 (3.0%)	30 (1.2%)	2,505* (100%)

*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해 복수의 보정각하결정건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건에 대해서만 분석

또한,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출원인으로서의 불가피하게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으나,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심사 청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표 II-3-3〉 연도별 심사전치 특허결정건수

(단위 : 건수, %)

연 도	심판청구건수	심사전치건수	심사전치 후 특허결정건수
2003	3,208	2,772	2,142(77.3%)
2004	4,041	3,392	2,584(76.2%)
2005	6,200	5,121	3,964(77.4%)
2006	8,612	7,172	5,361(74.7%)
2007	9,638	7,934	5,291(66.7%)
합 계	31,699	26,391	19,342(73.3%)

그 밖에도 심사관의 최종거절결정 처분을 받은 후에도 특허출원된 발명을 분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납부로 차등납부제도 도입, 보상금지급청구권 등에 관한 국제공개 효력과 국내공개 효력의 통일, 특허출원 명세서의 사소한 기재불비사항을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심사관 직권보정제도 도입 등 특허출원 심사절차를 단순화하는 한편,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주요내용

- ①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최후 보정단계에서의 보정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특허청구 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은 실질적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함(제47조)
- ②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한 후에 명세서 등의 보정을 통해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사로록 하는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함(제67조의2 신설, 제173조 등 삭제)
- ③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81조 제2항, 제81조의2 제3항)
- ④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은 국제공개가 있는 후 그 국제공개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공개시에 국어로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내공개된 것으로 간주함(제207조제6항)
- ⑤ 심사관으로부터 최종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그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된 발명 중 일부를 분할하여 재출원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¹¹⁾의 가능시기를 확대함(제52조)
- ⑥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심사관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관 직권보정제도”를 도입함(제66조의2)
- ⑦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함(제229조)

※ 실용신안법도 동일하게 개정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우리의 특허제도가 고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고객 맞춤형’으로 개선되면서 기업 등 특허 고객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특허출원은 물론 심사, 심판의 과정과 절차에서 고객의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특허 고객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

11)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인이 2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앞으로도 우리의 특허제도는 상당한 변혁과 성장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제도의 국제적인 통일화 노력의 일환으로 특허법 조약(PLT)에 가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을 뿐 만 아니라, 특허청이 1990년 특허법을 전부 개정한 이래로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법을 개정해 왔으나 부분적인 법개정에 그쳐 특허법 체계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특허출원의 형식 및 절차를 출원인의 입장에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2. 한·미 FTA 합의사항 반영을 위한 특허법령 개정 추진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공업사무관 양재석

가. 추진배경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한·미 FTA 협상이 2007년 4월 2일 타결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특허제도 관련 합의사항을 신속히 국내 특허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한 특허분야 입법조치는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한·미 FTA 특허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2007년 10월 25일 동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한·미 FTA 비준 무산으로 제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관련 법률안들이 모두 자동 폐기됨에 따라 제18대 국회에서 한·미 FTA 관련 특허법·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재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2008년 10월 10일 동 법률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입법사항은 총 4개 사항으로 ①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② 공지에의 적용기간의 연장, ③ 불실시에 의한 특허권 취소제도 폐지, ④ 소송절차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것이며, 동 협정 후속 조치의 시행일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¹²⁾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II-3-4〉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관련 한·미 FTA 합의사항 요약

한·미 자유무역협정	세 부 내 용	개정안 관련 조항	
		특허법	실용신안법
제18.8조제6항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심사지연 등으로 설정등록이 기준일보다 늦게 이루어진 때에는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 ¹³⁾ 연장	안 제92조의2 안 제92조의3 안 제92조의4 안 제92조의5 안 제93조	안 제22조의2 안 제22조의3 안 제22조의4 안 제22조의5 안 제22조의6
제18.8조제7항(공지에의 적용기간 연장)	특허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하여 실시 또는 승인된 공지행위가 당사국 영역에서 출원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특허허여	안 제30조	안 제5조
제18.8조제4항 (불실시에 의한 특허권 취소제도 폐지)	특허 허여의 거절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만 특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특허권을 강화함	제116조 삭제	안 제28조
제18.10조제10항 (비밀유지명령제도)	소송절차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비밀 정보의 보호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권한을 사법부에 부여	안 제224조의3 안 제224조의4 안 제224조의5 안 제229조의3	안 제44조 안 제49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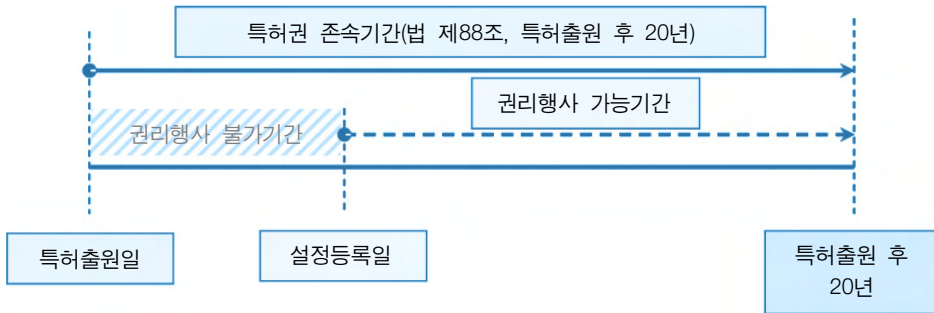
12) 효력발생일 :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된다.

13)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음(특허법 제88조).

1)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동 제도는 특허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연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정등록의 지연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현행보다 특허권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동안 심사지연 등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되게 되면, 특허권의 행사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게 되어 특허권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였다.

〈그림 II-3-1〉 특허권 존속기간에 관한 개념도



* 예 : 심사기간이 3년이면 특허권 존속기간은 17년이 되고, 심사기간이 5년이면 특허권 존속기간은 15년이 됨

따라서, 심사지연 등으로 인해 특허권이 기준일¹⁴⁾ 보다 지연되어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기간을 보전(保全)해 주기 위해, 그 지연기간 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을 연장하여 주는 제도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향후 동 제도가 도입되면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행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기간이 완벽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14) 기준일 : 특허출원일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 중 늦은 날

2) 공지에외 적용기간의 연장

현행법은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전에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국내·외에서 간행물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¹⁵⁾이나, 이 원칙만을 고수할 경우에는 연구성과의 공개를 기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자기 발명에 의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가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예외사항으로 특허출원 전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공지에외”라 함)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지에외를 적용하는 6개월의 기간은 특허출원인이 학술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공개한 후 발명에 대한 시장가치 및 특허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특허출원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시간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지에외의 적용기간을 현행의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특허

15)

특허법

第29條(特許要件) ①産業上 이용할 수 있는 發明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다.

1. 特許出願전에 국내 또는 國外에서 公知되었거나 公然히 실시된 發明
2. 特許出願전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公衆이 이용가능하게 된 發明

第30條(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發明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月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國外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2.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意思에 반하여 그 發明이 第29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실체법조약(SPLT)¹⁶⁾ 등에서 공지의외 적용 기간을 12개월로 통일화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지의외의 적용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여 출원인의 자발적 공개행위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 한·미 FTA 합의사항에 관한 입법적 조치의 일부로서 최근 국제적 추세와 부합하며, 출원인의 연구성과의 공개를 촉진시켜 활발한 연구활동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특허권 취소제도의 폐지

현행 특허권 취소제도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아 국가가 제3자에게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특허법 제107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해당 특허발명이 2년 이상 실시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누구나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허법

제116조(특허권의 취소) ①특허청장은 제10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재정이 있는 날부터 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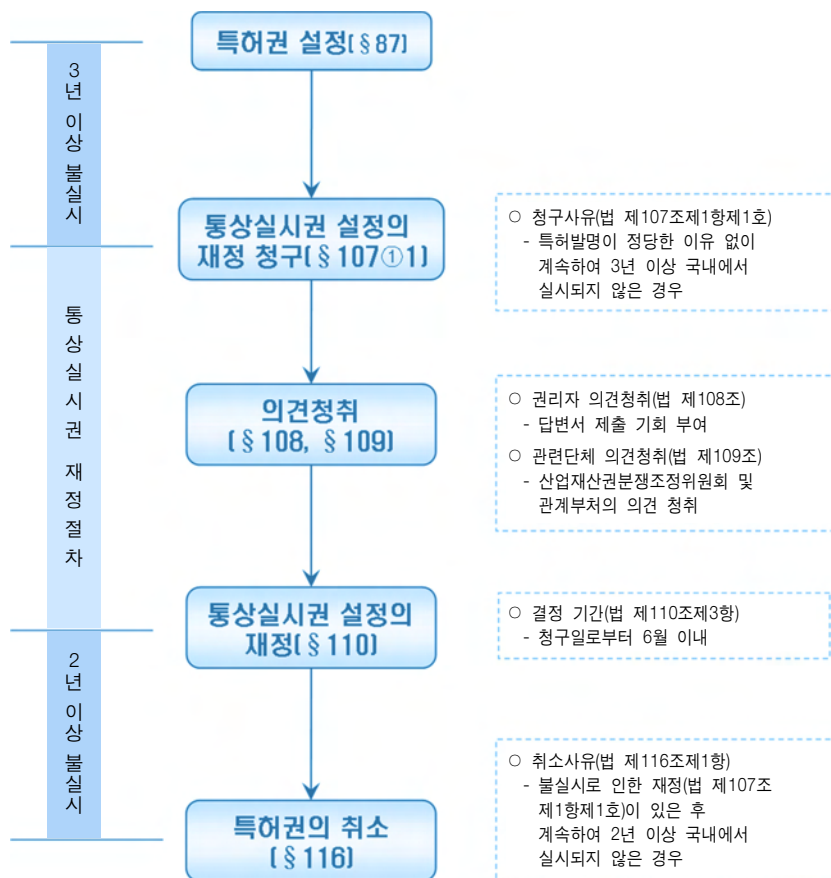
그러나, 발명의 실시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는 통상실시권의 재정제도¹⁷⁾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특허권이 장기간 국내에서 불실시 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것은 개

16) 특허실체에 관한 사항을 통일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특허실체법조약안을 중심으로 현재 실체법 통일화 논의가 진행중임.

17) 행정청인 특허청의 결정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제3자인 신청인에게 부여하는 제도

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인 통상실시권자의 불실시로 인해 해당 특허권이 취소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현행 제116조의 특허권 취소제도는 특허법 제정시(1961년 12월 31일) 도입된 제도로써 동 조항이 적용된 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조항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특허권을 소유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제도를 폐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3-2〉 불실시에 따른 특허권 취소 절차 흐름도



4) 소송절차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동 제도는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다른 당사자 등이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송절차에서 알려지게 된 영업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상대방이 보유한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행위의 수월한 입증을 통해 심리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동 제도가 도입되면 상대방이 보유한 영업행위와 관련된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침해행위 입증, 손해액 산정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심리의 충실성이 도모되고,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중요한 영업비밀정보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됨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막대한 영업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한·미 FTA 특허관련 합의사항을 국내 특허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미 FTA 비준안이 먼저 통과된 후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국회 통과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한·미 FTA 합의사항 중 특허제도와 관련된 합의 내용은 주로 특허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우수한 발명의 특허출원으로의 효율적 유인책 마련 등 특허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인 만큼 한·미 FTA 특허관련 합의사항의 국내 이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 도입

특허심사정책과 사무관 양재석

가.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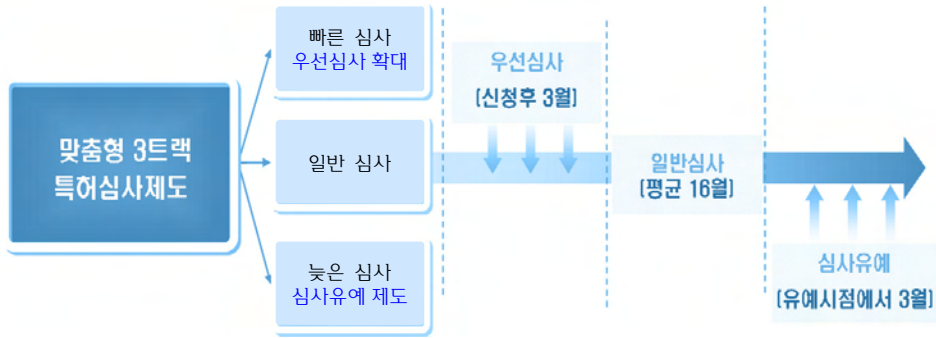
그간 특허청은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2006년과 2007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9.8개월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기술의 라이프사이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시기가 기술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환경에서 획일적인 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왔다. 특허정책이 속도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고객의 요구는 이미 다양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더 빠른 심사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68.3%)”과 “늦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48.8%)” 등이 혼재되어 나타난 여론조사 전문기관(현대리서치)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008년 5월 제2기 중앙책임운영기관 출범을 계기로 ‘일률적인 특허심사처리기간단축’에서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 제공’으로 특허행정 정책방향을 실용적으로 전환하고 특허심사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8년 10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나. 맞춤형 3트랙(빠른/일반/늦은) 주요 내용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는 빠른·일반·늦은 심사의 세 가지 서비스 중에서 출원인이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심사처리시점을 직접 선택·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출원인은 빠른 심사를 통해 하루 빨리 특허권을 획득해 독점적 지위를 선점할 수도 있고, 늦은 심사를 통해 사업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림 II-3-3〉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 개요도



1) 빠른 심사

빠른 심사는 전면 확대된 우선심사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출원 또는 자기실시출원 등 특정출원만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특정출원만 제한적으로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종전 우선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¹⁸⁾에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토록 요청만 하면 누구든지 빠른 심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선심사 이용절차〉

① 종전 우선심사 대상(아래 참조)에 포함 ⇒ 증빙서류를 첨부 후 우선심사 신청

㉠ 종전 우선심사대상

- ㉠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종전 우선심사대상 중 공통분야 : 11개 분야
-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 벤처기업의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 자기발명에 대하여 제3자가 실시중인 출원

18) 지정 전문기관 : 한국특허정보원, (주)윙스, 아이피솔루션(주), (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① 종전 우선심사 대상(아래 참조)에 포함 ⇒ 증빙서류를 첨부 후 우선심사 신청

- 방위산업에 관한 출원
- 공해방지에 관한 출원
- 수출촉진에 관한 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관련 출원
-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및 품질인증사업에 관한 출원
- 조약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 특허출원 종전 우선심사대상 : 3개 분야

-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허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종전 우선심사대상 : 1개 분야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 종전 우선심사 이용절차

- 특허청에 우선심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참조) 제출 및 우선심사청구료(특허 : 매건 16만 7천원, 실용 : 매건 8만 6천원) 납부

② 종전 우선심사 대상에 미포함 ⇒ 다음 절차를 통해 확대된 우선심사 이용

①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 중 한 곳에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의뢰

- 의뢰시 조사대상 출원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선행기술조사결과를 특허청에 제출토록 요청
- ※ 우선심사신청인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의뢰 비용 부담(건당 약 60만원~70만원)

② 특허청에 우선심사신청서 제출 및 우선심사청구료(특허 : 매건 16만 7천원, 실용 : 매건 8만 6천원) 납부

- 의뢰기관, 의뢰일자 및 조사결과 제출 요청 사실 등을 간략히 기재

③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

- 일반적으로 조사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완료

2) 일반 심사

일반심사는 평균 16개월 이내('08년)에 심사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미·일·유럽의 특허 선진 G3보다도 약 8~10개월 앞서는 것이다.

3) 심사유예 신청제도 도입

늦은심사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심사유예신청제도를 통해 가능하다. 이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시기나 시장성 조사 등으로 인해 일반심사보다 늦게 심사받고자 하는 특허출원인을 위한 것이다. 심사받으려는 유예희망시점¹⁹⁾을 적어서 신청하면 그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사유예신청제도를 활용하면 정확한 특허심사 시기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심사는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심사청구 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심사시기가 변동되나 심사유예신청제도를 이용하면 정확한 시기에 심사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결정이 너무 빨라 발명이 조기공개되거나 특허 유지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당장에 상품화가 필요하지 않으면 빠른 특허등록에 이은 조기공개로 인해 경쟁업체에 기술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늦은심사(심사유예)로 심사시기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심사유예신청제도 이용절차〉

-
- ▷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
- 출원인만 신청 가능
 - 출원+심사청구와 동시에 신청도 가능
 - 유예희망시점은 심사청구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부터 출원 후 5년 이내에 한함
- ※ 별도 신청 수수료 없음
-

19) 심사청구 후 18개월 ~ 출원일 후 5년 이내에서 유예희망시점 선택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허출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빠른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의 세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특허심사 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고품질의 특허심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심사시기를 선택함으로써 더욱 용이하게 특허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 개정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기술서기관 정현수

가. 추진배경 및 개요

’08년 특허청은 ‘일률적인 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부터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 제공’으로 특허·실용신안 심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있는 심사체계 구축을 위해 청내·외 전문가로 『특허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하여 제도개선 및 심사지침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검토해 왔다. 그 활동의 결과로 진보성, 명세서 기재요건, 심사절차, 청구항별 심사 등 실체 심사에 관한 심사지침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08년 12월 개정을 완료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진보성 판단기준 명확화

청구항의 발명과 대비되는 인용발명이 복수인 경우, 청구항의 발명과 가장 가까운 제1 인용발명을 먼저 대비하여 차이점을 구분하고, 그 차이점에 관한 용이성 판단시

다른 인용발명 또는 공지기술 등을 고려하도록 판단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종전에도 진보성 판단시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선택하여 대비하는 실무가 있었으나, 이에 관하여 명확한 심사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와 관련하여 공지기술의 일반적인 응용, 알려진 물리적 성질로부터의 추론, 알려진 과제에 해결을 위한 다른 기술분야의 참조 등으로 일상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을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여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그 밖에 공지기술을 결합한 발명 및 파라미터 발명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심사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파라미터 발명과 관련하여, 특정의 성질 또는 특성 등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항의 발명을 특정하려는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그와 대비되는 인용발명의 대응 구성과 비교하기 곤란한 파라미터가 청구항의 발명에 포함된 경우, 양자 간의 차이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차이점을 엄밀히 대비하지 않더라도 양자의 동일·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이 불분명한 파라미터 발명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그 차이점의 의미를 밝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출원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

청구항의 택일적 인용을 위한 청구항 기재 중 “~중 어느 한 항”이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 그 해석에 관한 지침을 명확히 하여 심사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중 어느 한 항”이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 문언상 복수의 청구항을 동시에 인용하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특허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택일적 인용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 거절이유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한 분할출원에서의 공지예외주장 또는 우선권주장시 출원인이 증명서류의 원용표시를 누락한 경우, 원용표시의 보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신설하였다. 본래 원용표시는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 것이어서 반드시 증명서류 제출기간 이내에 원용의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원출원이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발명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이므로 그 증명서류가 이미 원

출원에 대해 특허청에 접수되어 있고, 분할출원시에 공지에외주장 또는 우선권주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그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원용표시의 누락은 단순한 서류기재의 잘못으로 보아 보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분할출원시에 표시해야 하는 우선권주장 또는 공지에외주장 자체를 누락한 경우에는 원용표시의 보정이 불가능하다.

3) 심사절차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

진보성 거절이유의 통지서 작성과 관련하여 인용발명 중심의 통지서 작성 및 독립항과 종속항의 거절이유 작성 차별화 등 청구항별 심사 간소화 방안을 심사지침에 반영하였다. 이는 청구항별로 구분하여 거절이유를 작성함에 따라 동일한 거절이유가 청구항마다 반복되는 등 청구항별 심사의 통지서 작성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지침에 따라 심사관은 청구항 발명의 구성과 대응되는 인용발명의 구성만을 지적하고 그 차이점에 대한 용이성 판단을 기재하는 것으로 특허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종속 청구항에 대해서는 그 부가 한정된 사항에 대한 용이성 판단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구체적인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다수 청구항의 거절이유에 관한 심사관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간결한 통지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일성을 위반한 출원의 심사절차에 대한 지침이 개정되었다. 종전 심사지침에서는 출원인이 2군의 발명 중 실체심사를 수행하여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청구항들을 모두 삭제하고 심사하지 않은 나머지 1군을 남기는 보정을 한 경우, 그 나머지 1군을 다시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최후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 심사지침에서는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한 지침을 삭제하는 대신, 심사관이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 등 실체심사를 하기 이전에 단일성 위반의 거절이유만을 우선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의견서에 기재된 보정내용의 취급, 우선심사대상 확대에 따른 우선심사결정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고, 기타 잘못된 기재,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08년 심사지침서 개정을 위해 별도의 심사지침서 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심사지침서 개정자문위원회는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 경험이 있는 기술분야별 9인의 과장급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사지침서 개정안에 대해 밀도 있는 검토작업을 수행하였다. 최근 국가간 특허협력의 급속한 진전으로 고품질 심사와 국가간 심사기준 일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바, 향후 선진 각국의 심사실무 비교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글로벌 수준의 심사기준을 확립해 갈 필요가 있다.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1. 고객맞춤형 상표법 개정 추진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서기관 엄태민

가. 추진배경

특허청은 상표권자 등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상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해 상표등록료의 보전시 차등납부제도 도입 및 특허법 준용 규정의 해소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2008년 10월 1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나. 추진내용

1) 상표등록료의 보전시 차등납부제도 도입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표권자가 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하여 이를 보전할 때에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금액을 일률적으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상표권자 등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상표권자 등이 부족하게 납부한 등록료를 보전할 때의 납부금액을 납부기관의 경과일수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한 바(1월(120%), 2~3월(150%), 4~6개월(200%))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토록 하였다.

2) 특허법 준용규정의 해소

현행법은 다수의 특허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상표제도 이용자들이 상표법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특허법에서 준용하였던 74개 조문의 내용을 상표법에 직접 규정하여 상표 사용자 등이 상표법만으로도 상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상표권자 등의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개정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상표법 개정사항과 함께 2008년 10월 1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인 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 이후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고객맞춤형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변영석

가. 추진배경

디자인경영이 기업경영의 이슈로 대두되는 등 우리 경제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디자인제도를 보다 고객편의적인 제도를 변모하고자 디자인보호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미납등록료 납부방법 개선,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 상향조정 및 특허법준용규정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2008년 11월 2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나. 추진내용

1) 미납등록료의 납부방법 개선

현재 미납된 디자인등록료 납부시 기간에 상관없이 2배의 금액을 일괄납부하고 있으나 미납된 등록료 납부시 납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토록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였다.

2)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의 강화

특허청 직원이 디자인등록출원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비밀누출에 대한 사전 예방적 보호를 강화하였다.

3) 특허법 준용규정의 해소

현재 디자인보호법은 총 9개 조문에서 100개의 특허법 조문을 준용하고 있어 디자인보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을 함께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조문을 디자인보호법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디자인보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4) 민원서식 서명제도 도입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서식에 출원인의 인장날인만 가능하였으나, 인장날인뿐만 아니라 서명으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서명제도를 2009년 1월1일부터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디자인보호법은 2009년7월1일 시행목표로 국회통과를 추진중이며, 향후에도 도면요건의 완화, 강한 디자인권 창출 등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제도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3. 한·미 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서기관 엄태민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청은 2007년도에 타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리·냄새를 ‘상표’에 포함하고,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상표법 개정안과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입안하여 각각 2008년 10월 13일, 2008년 10월 10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소리·냄새상표 등 비시각적 상표의 인정

소리·냄새 등 비시각적인 표장이라 하더라도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은 상표의 범위에 추가하여 상표법에 따라 등록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 신설

“증명 표장”이란 소비자의 품질 오인이나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특징적인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이며, 대표적으로 WOOL Mark, COTTON Mark 등이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이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명표장을 상표의 형태에 추가하여 상표법에 따라 등록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상표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3) 전용사용권 등록 의무제도의 폐지

“전용 사용권”(exclusive license)이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현행법은 전용사용권에 대해 등록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어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적 계약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토록 하고 등록을 제3자 대항요건으로 변경하였다.

4) 법정손해배상제도 신설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5천만원 이하의 손해액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실손해액과 법정손해액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개정안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영업비밀을 알게 된 경우에도 그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상기 내용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도 반영되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각각 국회에 제출된 이후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인 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 이후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절 심판 분야

1. 구술심리 장소 다변화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방송통신사무관 정병락

가. 추진배경

심판품질 제고를 위해 2006년에 집중심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술심리 및 설명회의 개최건수가 2003년 89건에서 2007년 1,130건으로 연평균 증가율 88.8%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구술심리·설명회 개최 장소의 추가 확보가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섬기는 정부’의 취지에 부응하고, 심판 고객 중심의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술심리와 설명회의 개최 장소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종전에 구술심리는 대전청사 심판정에서만 개최가 가능했으나, 서울사무소에 임시심판정을 설치하여 당사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인이거나, 당사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사무소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도록 2008년 6월에 심판사무취급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종전에 기술·상표·디자인 설명회는 대전청사 또는 서울사무소의 회의실에서만 개최가 가능했으나, KTX 서울역·용산역·대전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회의실을 확보하고 2008년 3월에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으며, 2008년에 14건의 설명회가 KTX역사 내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다. 평가

구술심리·설명회 장소 다변화는 단순히 청사 회의실 부족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 서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고객에게 다가가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새 정부의 국정지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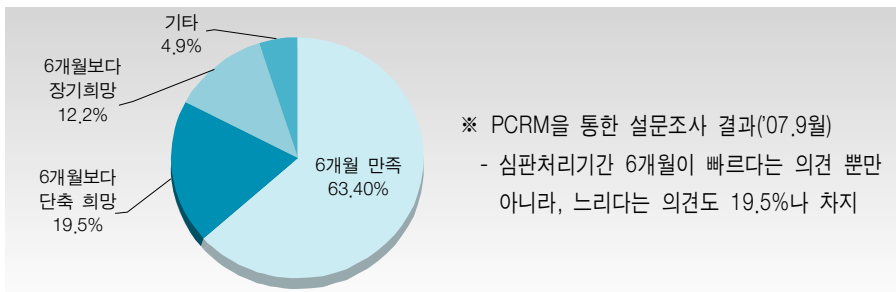
2. 고객맞춤형 심판제도 도입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방송통신사무관 정병락

가. 추진배경

심판제도 개선, 심판사무처리시스템 효율화, 심판처리계획 수립 및 심판관 증원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2003년 14개월이었던 특허심판 처리기간이 2007년에 세계 최고 수준인 5.9개월로 단축되었다. 그러나, 세계 최고수준의 심판기간 달성에도 불구하고, 심판처리기간에 대한 다양한 고객의 목소리가 있어서 심판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림 II-3-4〉 심판처리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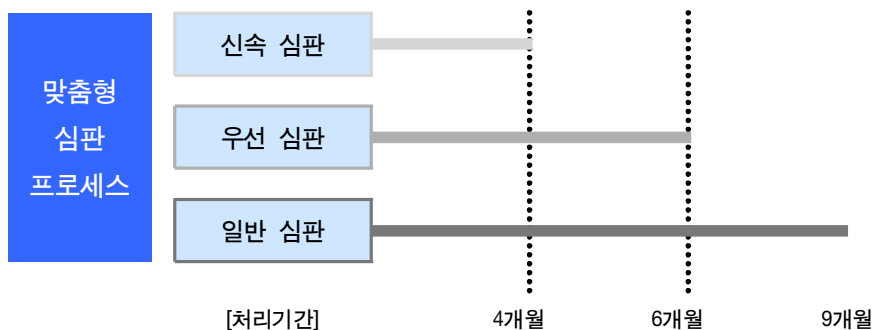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종전에는 획일적으로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으나,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특허분쟁 해결수단으로서 특허심판의 결과가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할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새로 설계하여 심판처리기간을 멀티트랙으로 관리하는 ‘맞춤형 심판프로세스 구축방안’을 2008년 9월 수립하게 되었다.

종래에는 평균 심판처리기간 6개월을 목표로 획일적인 처리기간 관리를 시행하면서, 일부사건에 대하여 일반사건보다 우선하여 심판하는 우선심판 제도를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심판사건의 종류와 내용 및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신속심판’, ‘우선심판’, ‘일반심판’으로 구분하여 심판절차를 운용하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신속심판은 법원 침해소송이 계류 중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과 양 당사자가 신속심판 동의서를 제출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신속심판의 절차진행은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내에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구술심리 개최일부터 2개월내에 심결하는 것을 표준절차로 설정하여 심판청구일부터 4개월내에 당사자가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우선심판 사건과 일반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처리기간 6개월과 9개월을 기준으로 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림 II-3-5〉 맞춤형 심판프로세스 개요



다. 향후 계획

신속심판은 2008년 11월부터 도입되어 시범실시하였고, 본격실시를 위해 2009년 상반기에 심판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하고 심판사무처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신속심판을 포함하는 맞춤형 심판프로세스는 2009년 7월부터 본격실시하고, 프로세스 별로 처리기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지식재산부족 코리아
특허청이 함께 합니다





제 3 편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제1장 특허넷 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 서비스 품질제고

제2장 글로벌 특허정보화 선도

특허넷 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 서비스 품질제고

제1절 미래형 특허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1.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정보기획국 정보개발과 전산사무관 이동영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넷시스템은 '99년 개통이후 지속적인 확충사업으로 '02년에는 정부기관 최초로 전자정부를 구현하였으며, 인터넷공보발간, SMS서비스, Push-mail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03년부터 '05년까지는 특허넷시스템의 통합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자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의 통합, 미들웨어 적용, 네트워크 단일화 등 특허넷 기반구조를 고도화하는 특허넷II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05년도부터는 정부기관 최초로 언제 어디서나 특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24시간 365일 전자출원서비스 및 재택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PLT조약 타결, 국가간 업무협력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특허정보제공 확대 등 다양화·고급화된 특허고객의 정보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중심의 글로벌 특허정보시스템이 필요하였다.

이에 특허청은 '07년 미래형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허행정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을 추진하여 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세계최고의 지식재산 정보체계를 구

축하였고, 이를 기초로 '08년에는 세계최고 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지원시스템 구축사업과 수요자 중심의 전자민원서비스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08년 5월, 제2기 책임운영기관 출범과 함께 특허심사패러다임이 심사처리기간에서 심사품질로 전환됨에 따라, 맞춤형(3트랙)심사제 등 심사품질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시스템화하였으며, 출원 및 심사시스템에 오류방지기능을 대폭 확충하는 특허넷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특허고객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요구사항을 특허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자, 쉽고 간편하게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원클릭전자출원서비스와 특허정보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허정보 웹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였다.

더불어 미국·일본·유럽 특허청과 심사정보 및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공유시스템을 확충하였으며, 특허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통지서 우편자동발송시스템, 반도체배치설계등록업무 온라인화 등의 사무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표 III-1-1〉 '08년 완료된 주요 추진 사항

추진분야	추진내용
수요자 중심의 전자민원서비스 구축	• 상용워드 기반의 전자문서작성기 개발 • 정보수정개념의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 특허정보 웹서비스 확대 • 홈페이지 웹표준 적용
고품질 심사심판 지원	• 특허·실용·상표·디자인·PCT 심사시스템 고도화 • 심판·송무시스템 고도화 • 6시그마 5차, 6차 개선과제 특허넷 적용
사무처리고도화	• WIKI 기반의 지식관리체계 도입 • 재택심사 신청·관리 자동화 • 통지서 송달관리 자동화 •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업무 온라인화
특허정보 국제공유 확대	• 국제 특허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다. 평가 및 발전방향

'08년 특허정보시스템 개선사업으로 특허고객은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전자출원과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진 특허청과 특허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으로 특허넷 글로벌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09년에는 특허정보 창출·활용 촉진과 글로벌특허정보시스템 구축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가치창출형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특허고객 스스로 출원·심사·심판·등록 등의 다양한 IP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특허관리포털을 구축하고, 민간특허정보서비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특허정보웹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문서표준형식(XML)을 지원하는 글로벌 특허문서작성기를 개발·보급하고, 공통출원서식(Common Application Format)을 특허넷 반영함으로써 특허넷의 글로벌화를 진일보시킬 것이다.

아울러, 고객 편의와 권익 확대를 위해 수수료 자동납부제도와 특허마일리지제를 시스템화하고 고객 지향적 CRM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표 III-1-2〉 '09년 주요 개선예정 사항

추진분야	추진내용
특허정보 창출·활용 촉진	• 사용자 맞춤형 특허관리포털 구축 • 특허정보 웹서비스 확대 • 업무·지식 융합형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글로벌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 글로벌 특허문서 작성기 개발 • 공통출원서식(CAF) 특허넷 반영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제 및 마일리지제도 도입 • 번리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PCT 국제단계 심사의 형식적 기재오류 최소화 • 제증명/출원인 대리인시스템 서비스 고도화 • 출원인코드 중복발급 방지시스템 구축 • 고객지향형 CRM시스템 구축

2. 미래형 검색시스템 구축

정보기획국 정보관리과 방송통신사무관 김용웅

가. 개요

검색시스템은 국내 및 세계 각국 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결문정보 등을 신속·정확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검색 시스템으로서 내부 심사관 및 심판관이 사용하도록 하여 우리청 주요 업무인 심사·심판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표 III-1-3〉 검색시스템 구성 현황

구 분	내 용
특실검색시스템 (생명공학시스템포함)	국내,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 특허정보외 비특허문헌 등을 웹환경에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검색하는 시스템
상표검색시스템	국내 상표정보를 웹환경에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검색하는 시스템
디자인검색시스템	국내, 일본, WIPO 등 디자인정보를 웹환경에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검색하는 시스템
심판결문검색시스템	산업재산권 관련 심결문과 판결문을 웹환경에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검색하는 시스템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영문 특허문헌에 대한 영→한 자동번역 서비스를 구현하고, 영→한, 일→한 번역사전 확충을 통해 번역품질을 개선하였고 한글,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된 특허 및 비특허 문헌 모두를 일괄 검색할 수 있는 윈-클릭 검색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또한, 국가별, 기간별, 권리별 및 문헌별로 분리되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내 및 해외 검색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재구축하였으며 유사특허 검색, 검색결과 랭킹서비스, 특허분류(IPC, FI/F-term, USPC, ECLA) 통합 검색,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 제공 등 최신 정보검색 기술을 적용하여 검색기능을 고도화 하였다.

〈표 III-1-4〉 검색시스템 고도화 추진 경과

연도	내 용
2001	• 심사분야별 검색시스템 구축 및 통합 • 검색시스템의 표준화 및 동일한 인터페이스체제 구축 - 심사관의 검색효율 증대와 시스템관리의 7효율성 향상
2002	• 특실분야 통합검색 기능의 확충 - 기술동의를 및 다국어사전 등을 이용 단일질의어에 의한 통합검색구현 - 심사일정에 따른 자동예약검색 및 검색결과의 그룹핑 조회기능
2003	• 지능형 검색을 위한 기반환경 구축 - 유사상표검색 자동화 및 의장 전자병풍 심사 환경 구현 - 비특허문헌의 통합 검색시스템 구축
2004	• 지능형 검색을 위한 핵심기술 도입 - 자동검색기술 도입을 통한 시스템의 지능화 - 사용자 편의위주의 고효율 검색기능 구현
2005	• 지능형 검색시스템 구축 완료 - 유사특허검색, 검색메모 기능 등 개발 - 비특허 메타검색의 웹버전 재구축
2006	• 검색시스템 고도화 - 검색엔진 업그레이드, 일한번역기 교체, - X-Internt 적용을 통한 검색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비특허 메타검색 기능 강화
2007	• 검색시스템 고도화 - 언어장벽없는 심사·심판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특허문서 자동번역시스템 (영→한, 불→한, 독→한 등)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 특실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검색기능 구현 - 책자형태로 발간된 '쟁점별 특허판례모음집'을 DB로 구축 - 비특허 건축문헌 검색기능 추가 - WIPO 공보자료의 TEXT 기반 검색기능 추가
2008	• 미래형 검색시스템 구축사업 추진(1차년도) - 영 → 한 자동번역 시스템 구축 및 번역 품질 고도화 - 특허 및 비특허 문헌을 일괄 검색할수 있는 원-클릭 검색 서비스를 구현 - 국가별, 기간별, 권리별 및 문헌별로 분리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내 및 해외 검색 데이터의 표준화 및 재구축 - 최신기술 적용을 통한 검색기능 고도화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향후 사용자의 검색의도에 부합하고, 검색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의미 기반 검색 기술 및 개인화 기술을 적용하여 고품질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해외 선형기술 정보에 대한 다국어 번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관이 언어 장벽 없이 인용 문헌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대민서비스로 확대하여 국민들도 해외기술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2절 특허정보 시스템 개선 및 운영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운영

정보기획국 정보개발과 행정사무관 박창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넷 시스템의 운영을 민간 IT 전문업체에 위탁한 것은, 전문 민간업체의 정보 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적시에 반영하여, 청내·외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민간위탁 운영은 1998년 12월 기획예산처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우리청이 1999년 1월에 특허넷 개통과 동시에 시작하였다. 위탁방법은 응용 S/W 부문과 H/W 부문으로 분리하여 위탁을 하고 있다.

위탁대상 업무로는 출원, 등록, 심사, 심판 등 사무처리시스템과 검색시스템·지식관리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홈페이지·데이터관리 등 39개 응용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서버·DB·네트워크·전산센터·보안관제 등 기반기술 운영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응용 S/W 부문과 H/W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응용 S/W 부문

1999년 위탁업무를 시작할 당시 특허청 응용소프트웨어의 시스템 수는 22개였으며, 위탁 인력은 55명이었다. 하지만 모든 특허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매년 신규로 개발되는 응용시스템을 위탁·운영함으로써, '09년 2월 현재 39개 시스템에 68명의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2년에는 출원으로부터 등록, 심판 등 모든 산업재산권 민원의 100% 온라인화가 완성되었다. 2003년부터 온라인 제증명 청구·교부 시스템 개통 및 마드리드의 정서 관련 시스템의 구축 완료와 함께 지능형 검색시스템 1차년도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특허넷시스템이 한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국제 지식재산권의 법·제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하고 고급화된 고객의 정보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함과 더불어, 최신 정보기술(표준)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최적화·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한 ISP작업을 수행하여 차세대 특허넷 개발의 기본 계획을 완성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차세대 특허넷 개발사업이 착수되었으며, 2003년 1단계 사업으로 특허넷 내부의 프로세스 효율화 작업, 2004년 2단계 사업으로 특허넷 이용자 편의 증진 작업, 2005년 3단계 사업으로 24시간 전자민원 서비스 구축과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2006년 이후 더욱 고급화·다양화 되어가는 사용자 요구사항 신속한 시스템 반영 및 법개정지원과제 구축 등에 의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특허넷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08년부터는 특허넷 운영위탁사업의 경쟁체제 유도를 위해 위탁운영사업을 2년 계속계약사업으로 전환하고, 운영품질 향상을 위해 특허넷 운영위탁 서비스수준(SLA)의 평가항목 가중치 및 목표치를 전년대비 상향조정하여 성과지표에 반영하였으며, 기능점수방식을 도입하여 시스템개선 사업량을 객관적으로 산정·관리하고 검증된 시스템개선 기능점수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 운영위탁사업자에게 시스템개선 동기를 부여하고 구체적으로 성과관리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특허넷 운영위탁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을 도모하였다.

2) H/W 부문

특허넷시스템 위탁운영 기반운영 부문은 하드웨어를 포함한 전산자원(서버, 디스크, 네트워크, PC, 프린터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유지하고, 특허넷 신규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에 따른 서비스 운영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행정 정보화시스템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크게 전산기, 디스크, 네트워크, 현장지원, 특허전산센터 및 ITSM(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 운영으로 나눌 수 있다.

1999년~2004년 주전산기 공급업체와 조달 수의계약에 의해 운영하던 것을 2005년 부터는 조달 경쟁계약에 의해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장비운영의 효율성, 장애처리의 신속성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 등을 위해 기반운영 위탁과 유지보수를 통합하여 조달 경쟁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 대규모 H/W 전산자원에 대한 다년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장애관리, 변경관리, 전개관리, 구성관리, 용량관리 등 국제적 수준의 IT 서비스관리 개념(ISO20000)을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07년 11월 특허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의 주요 전산장비가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위탁운영 인력중 13명을 감축(32명→19명)하는 등 운영조직을 재정비하였고, 기반 서비스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 및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 조직을 강화하였다.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에 ISO20000 이행 준수율, 현장지원 고객만족도 등 국제수준의 서비스 품질 및 사용자 지원 강화를 위한 지표들을 발굴 보완하였고, 2007년 “매우 우수” 등급을 “보통”으로 조정하여 기반운영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 같은 노력으로 주요 전산장비의 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 및 측정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준 종합평가 점수는 2007년 실적치 및 2008년 목표치 93.9점을 상회하는 94.69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1) 응용 S/W 부문

향후에도 특허청은 유지보수 위주의 단순운영에서 탈피하여 일정규모의 기능개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발사업이 아닌 운영위탁사업으로 수행하고, 특허넷 운영위탁 인력을 기능 및 공정별로 개편하고 및 내부인력에 의한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운영위탁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중심의 특허넷 운영으로 고품질 심사·심판업무 지원 및 고객편의 향상을 위해 특허넷 운영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2) H/W 부문

2009년에는 사업수행의 연속성 확보 및 위탁운영 사업에 대한 경쟁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현 1년단위 계약을 다년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 패널티와 리워드 규정을 강화하고 고객관점의 신규지표를 새롭게 발굴하는 등 성과중심의 위탁 운영을 정착시키고, 과업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며 유지보수 효율의 장비별 차등 지급을 통한 위탁운영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 업무활용 중심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정보기획국 정보개발과 전산사무관 황유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지식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쏟기 시작하였으며, 기업들도 앞다투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경영이론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식재산권의 출원도 급증하여 특허청에서는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관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노하우 등의 지식을 조직 전체가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2000년 정부 부처로서는 최초로 지식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여 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지식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발점을 마련하였다. 이어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을 제정('01.8)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01.9)하는 등 체계적인 지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후 지식의 창출부터 공유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지식관리 전 단계가 온라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하였으며, 2004년에는 전사적 지식포털로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저장소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심판시스템, 검색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I-1-5〉 지식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

구 분	내 용
지식등록	· 업무노하우, 산출물, 참고자료 등 지식등록, 지식Q&A, 위키지식
지식검색	· 지식맵을 활용한 분류별 검색, 키워드 및 태그를 통한 통합검색, 지식전문가 검색
지식검증	· 등록지식 승인처리, 지식평가, 지식 카테고리 이동, 지식수정 및 폐기
마일리지 관리	· 지식등록, 조회, 승인, 평가 등 지식활동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및 실적 집계
커뮤니티	· 국/과 정보방, 동호회 등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 커뮤니티별 게시판 및 회원관리
시스템 관리	· 지식맵/게시판/커뮤니티/지식전문가 관리, 이용통계 및 모니터링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1년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지식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지식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축적되는 지식이 증가할 수록 원하는 지식을 획득하기가 어려워져 지식활동이 점차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2008년에는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지식을 보다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하였다.

첫째, 방대한 양의 지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식분류체계를 정비하였다. 단순하게 업무유형에 따라 지식을 분류하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별, 조직별, 목적별 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차원 지식맵을 구축하였으며, 통일성 없는 메뉴체계를 개편하여 지식의 유형 및 활용목적에 맞게 카테고리별 분산·통합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태그(tag)를 달아 직접 지식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지식의 질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지식을 선별할 수 있도록 지식평가체계를 개편하였다. 등록된 지식은 심사·심판, 국제협력, 정보화, 일반행정 등 분야별 지식전문가에 의해 평가되는데 2008년에는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세밀한 지식품질 관리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지식전문가는 물론 일반직원들도 자유롭게 지식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식이 생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셋째,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지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위키방식의 업무관리카드를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업무현황자료를 개인별로 따로 기록하여 보관하거나 인력변경 시에만 업무담당자 간에 인수인계를 하였으나, 업무관리카드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이 아닌 업무 중심으로 자료들이 상시 관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편집이 가능한 위키기능을 적용함으로써 업무 관련자들은 언제든지 협업하여 자료를 작성·보완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지식관리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전 직원이 지식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였다. 지식등록·지식평가·지식조회 등 지식활동 실적에 따라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승진인사 및 성과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식활동 실적, 지식품질 등을 평가하여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게 포상을 실시하였다.

또한 특허청 내부만의 지식공유에서 벗어나 외부와의 지식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네이버('05), 엠파스('06) 등 민간포탈에 특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국민이 손쉽게 특허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기관과의 지식관리시스템 연계를 확대하여 2008년말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8개 기관에 특허청의 지식관리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특허 관련 법·제도 및 심사·심판 관련 지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지식관리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식중시의 조직문화가 정착되면서 지식활동이 제도개선 등 업무성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대폭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5년 11월에는 정부지식관리 최우수기관(대통령상)으로 선정되었고, 2007년 11월에도 정부지식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지식공유 및 평가 체계의 정비, 업무 중심의 개방적 지식창출 모델 도입 등을 통해 지식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2008년 지식조회건수는 전년도 대비 39%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식활용에 대한 만족도 점수도 '07년 67.86점에서 '08년 70.33점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지식관리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활용성이 높은 고품질 지식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표 III-1-6〉 연도별 지식등록 및 조회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지식등록	3,877	10,500	15,239	14,686	13,468
지식조회	540,519	1,014,368	1,425,888	1,425,662	1,988,794

특허청은 향후 업무와 지식이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별도로 찾을 필요없이 업무에 따른 관련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업무-지식 융합형 지식관리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블로그 등 다양한 웹 2.0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방대한 자료에 대한 손쉬운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조직의 성과달성과 연계된 핵심지식 중심의 지식창출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창의적 지식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및 지식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지식활동이 전사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특허정보 DB 구축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정보기획국 정보관리과 방송통신사무관 신유철

가. 개요

특허청에서는 국내·외 특허기술정보에 대한 선행기술자료를 신속·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지식재산권 검색 DB를 구축·운영 중이며, 특허기술정보교환 정책에 따라 21개국, 5개 기관으로부터 총 85종의 특허기술정보를 입수하여 이중 WIPO, EPO, 미국, 일본 등 주요 특허기술선진국에 대한 특허기술정보를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지속적으로 탑재하고 있다.

2008. 12월 현재 검색 DB에 탑재된 특허기술정보는 약 17,361만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1,457만건이 증가하여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구축된 자료는 선행기술 검색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심사관 이용률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 미국, EPO의 데이터 이용률이 높다.

2008년에는 한국특허문헌의 PCT최소문헌 포함에 따라 검색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EPO의 DOCDB²⁰⁾, WIPO의 MCD²¹⁾ 등 각국 또는 기관에서 정비하여 품질이 향상된 데이터를 입수하여 탑재하였으며, 2009년까지 Working DB를 구축하여 사전검증된 양질의 데이터를 검색DB에 탑재하기 위해 한층 노력할 계획이다.

20) DOCDB(Document Database) : 세계 각국의 특허서지정보 데이터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로 IFD데이터를 정비하여 정확하고 자료가 풍부 데이터베이스

21) MCD(Master Classification Database) : 세계 각국의 특허서지정보(IPC포함)을 포함하고 재분류되는 IPC를 관리하기 용이한 데이터베이스

나. 검색 DB 구축 현황

〈표 III-1-7〉 특·실 검색 DB 구축현황

(단위 : 천건)

입수기관	자료종류	수록연도	자료형태	건 수
국내	서지	'47 ~	Text	2,486
	초록	'47 ~	Text	2,485
	공개공보	'83 ~ '98	Image	786
		'83 ~	SGML/XML	1,705
	공고공보	'47 ~ '98	Image	289
		'79 ~	SGML/XML	1,306
	전문이미지(거절결정)	'47 ~ '98	Image	663
	KPA(한국특허영문초록)	'79 ~	SGML	1,309
일본	서지	'75 ~ '98	Text	9,539
	특실공개공보	'75 ~ '92	Image	10,080
		'93 ~	SGML/XML	6,451
	특실공고공보	'86 ~ '93	Text	1,846
		'94 ~	SGML/XML	2,168
	특허초록	'75 ~ '96	Image	5,394
	PAJ	'76 ~	SGML	8,157
유럽	IFD (DocDB 1.5)	'74 ~	Text	53,203
	FPD	'74 ~	SGML	6,473
	ESPACE-A	'78 ~	SGML/Image	2,822
	ESPACE-B	'90 ~	SGML/Image	1,272
	ESPACE-W	'78 ~ '02	SGML/Image	1,550
미국	특허공고공보	'75 ~	Image	3,995
		'76 ~	SGML/XML	4,001
	특허공개공보	'01 ~	Image	1,919
		'01 ~	SGML/XML	1,933
WIPO	Impact Rule 87	'78 ~	SGML/Text/Image	3,676
대만	특허공개 초록	'00 ~	Text	208
영국	특허공개	'91 ~ '07	SGML/XML	198
중국	특허공개 · 공고(영문초록)	'85 ~	Text	1,377
캐나다	특허공개 · 공고	'99 ~	SGML/XML	464
호주	특허공개 · 공고	'98 ~	SGML	643
독일	특실공개 · 공고	'91 ~	Image	1,153
프랑스	특허공개 · 공고	'92 ~	Image	240
계	139,791			

〈표 III-1-8〉 디자인 검색 DB 구축현황

(단위 : 천건)

입수기관	자료종류	수록연도	자료형태	건 수
국내	선출원	'60 ~	Text/Image	2,902
	선출원전문이미지	'60 ~ '98	Image	187
	국내공보	'66 ~	Text/Image	4,258
	국내공보전문이미지	'66 ~ '98	Image	238
	거절서류철전문이미지	'92 ~ '98	Image	36
	등록서류철전문이미지	'66 ~ '99	Image	235
	등록원부전문이미지	'48 ~ '91	Image	132
	카탈로그	'80 ~	Text/Image	7,225
	화상디자인	'03 ~	Text/Image	304
	글자꼴	'04 ~	Text/Image	82
	실용신안디자인	'70 ~	Text/Image	2,795
일본	등록공보	'65 ~	Text/SGML	1,184
		'65 ~	Image	4,246
독일	등록공보	'88 ~	Text/Image	835
WIPO	등록공보	'99 ~	Text/Image	325
OHIM	등록공보	'03 ~	Text/Image	1,524
과거자료	등록공보	'75 ~ '04	Text/Image	1,867
미국	등록공보	'97 ~	Text/Image	264
계	28,639			

〈표 III-1-9〉 상표 검색 DB 구축현황

(단위 : 천건)

입수기관	자료종류	수록연도	자료형태	건 수
국내	서지	'50 ~	Text	2,209
	견본이미지	'50 ~	Image	2,054
	거절서류철전문이미지	'89 ~ '98	Image	151
	등록서류철전문이미지	'74 ~ '99	Image	527
	등록원부전문이미지	'52 ~ '91	Image	240
계	5,181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국내외 입수 데이터의 오류 검증 및 국내데이터의 청외 보급을 위한 Working DB를 '08년에 설계하여 검색데이터 품질관리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09년부터는 신규 입수데이터에 대해서 Working DB를 통해 사전 오류 검증한 데이터를 검색DB에 탑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09~'10년까지 과거분 데이터에 대해서도 사전오류 검증을 통한 검색DB 재탑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정보기획국 정보관리과 행정주사 최준영

가. 개요

특허넷시스템은 모든 업무처리가 종이가 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허문서전자화센터(이하, 전자화센터)에서는 특허청에 접수되는 온라인출원을 제외한 모든 서면 또는 우편서류를 전자화하려는 목적으로 2001. 1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설립되었다.

특허청은 전자화센터를 특허법에 의해 특허문서전자화기관으로 지정된 (재)한국 특허정보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전자화센터의 업무범위는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 출원인 확인용 DM발송²²⁾, 특허문서전자화시스템 운영 및 관련 S/W, H/W 관리 등 전자화관련 업무 전반이다.

22) 출원인에게 서면출원서와 최종전자화된 데이터와의 정합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출원인에게 전자화데이터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업무

나. 성과

2008년 전자화센터의 전자화대상서류는 2007년과 동일한 777종이며, 전자화처리량은 전자출원률²³⁾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 166천건 대비 49천건이 감소한 116천건으로 29.7%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자화센터는 2008년에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도입하여 전자화데이터의 품질 및 전자화 기간을 평가·관리함으로써, '08년 현재 전자화오류율 0.25% 및 전자화소요기간 2.26일을 달성하였다. 또, 문자상표 및 과거 특허 서류, 미국공개 대표도면 359천건을 전자화하여 검색DB로 구축함으로써 고품질 심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표 III-1-10〉 '08년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서면서류 전자화 실적

(단위 : 건)

구 분	서면접수서류 전자화	문자상표 전자화	과거 특허서류 전자화	미국공개 대표도면 전자화	계
처리건수	116,786	108,275	131,281	120,247	476,589

다. 발전방향

'99년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을 개통한 이후, 특허전자출원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자화센터의 전자화 물량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자화센터는 미전자화된 과거특허서류를 지속적으로 발굴·전자화하여 완결성 있는 특허DB를 구축함으로써 고품질 심사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

'09년 서면서류 전자화 데이터 오류율은 0.17%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전자화 품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품질 분임조 및 모니터링 활동, 고객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품질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반영하여 전자화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전자화 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23) '04(89.1%), '05(90.8%), '06(92.2%), '07(93.1%), '08(94.0%) 지식재산주요통계('09.2월)참조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정보기획국 정보관리과 공업사무관 김은경

가. 추진배경

1999. 1월부터 본격 가동된 특허넷시스템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특허청 데이터 정책의 방향이 데이터의 양적 확충에서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통한 질적 고도화로 전환되었다.

특허청은 기존의 청내 각 부서에서 추진하던 전자화사업을 일원화된 데이터 관리 조직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생산, 정비, 분석하여 전자화 과정에서 발생된 데이터 오류를 치유하고 향후 발생될 데이터 오류를 예방하고자 2002. 5월 데이터관리 전담조직인 『데이터관리센터』를 출범시켰다.

나. 성과

데이터관리센터에서는 기개발된 데이터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2002. 1~4월에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생성에서 분석까지의 공정, 일정, 인력별 운영계획을 테스트하여 실제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다. 동 센터는 특허정보 전문기관인 (재)한국특허정보원에게 위탁운영함으로써 특허정보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의 품질제고는 물론 데이터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 절감 부문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출범 첫해인 2002년 한해 동안 데이터관리센터에서는 4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데이터생성 공정에서 디자인카다로그, 서면포대 등 62천건의 과거분 서면자료를 전자화하였으며, 데이터 정비분야인 검증공정에서는 특허청 검색 및 특허넷 DB의 오류, 누락데이터를 85천건 정비하였고, 데이터 분석공정에서는 과거 및 현재의 오류

데이터를 상호 비교, 분석·치유한 후 데이터 표준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오류유형을 사전 예방하였다.

또한, 동 센터에서는 데이터 생성, 검증, 분석업무와 아울러 각 공정을 프로세스 별로 분석,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3년에 문자상표의 원활한 검색을 위하여 상표명 입력을 데이터생성 공정에 추가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과거분 문자상표 상표명의 검증과 외국서면디자인공보의 전자화를 함께 추진하였고, 2005년에는 데이터 수정, 인터넷공보 발간, 우선권서류 전자적교환, 매체관리 및 데이터탐재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데이터관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6년에는 특허데이터검증식 도출, 데이터정비마스터플랜 수립 등 데이터품질관리 방법론을 도입하여 데이터품질관리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에는 품질지수를 선정하여 데이터품질 정확도를 96.32%에서 97.14%로 향상시켰고, 국내외 특허데이터분석 및 패밀리 데이터 재구축 등 데이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2008년에는 데이터품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데이터품질 정확도를 97.93%까지 높였으며, 데이터품질관리 체계마련 및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력으로 우리청이 정부기관 최초로 데이터품질관리 대상 수상(문화관광부 장관상) 및 데이터품질 인증(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주관) Level 2를 받는데 기여하였다. 특허청은 향후에도 『데이터관리센터』를 통해 데이터품질관리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은 물론 심사·심판관이 양질의 데이터를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이를 제공할 계획이다.

〈표 III-1-11〉 2008년도 데이터관리센터 처리 현황

(단위 : 천건)

구분	데이터품질관리				특허정보DB구축		시스템운영관리			특허정보 공동활용
	검증식	CSR 분석	검증식에 의한 데이터정비	DB검증 및 정비	국내	국외	공보 발간	우선권 교환	CSR 수정	
실적	166건	12건	10,602	810	1,155	10,236	331	205	11	15,775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데이터관리센터는 무결점·고품질 특허 데이터 제공을 위해 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특허넷 데이터 정제 및 품질관리 체계 확립은 심사관의 내부 만족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곧 심사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다.

특허데이터 관리는 신뢰도 높은 특허행정 서비스를 위한 초석이다. 동 센터는 데이터품질관리 자동화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오류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차단하여 심사관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6시그마 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특허행정을 지원할 것이다.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정보기획국 정보관리과 행정사무관 이범철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청은 해외에서 국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특허 다출원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에 출원된 특허기술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한국특허영문초록(KPA²⁴)을 발간하고 있으며, 발간된 한국특허영문초록을 해외 특허청 및 유관기관에 신속히 보급하여 국가 간 선행특허기술 조사 및 기술동향 파악을 위한 상호 교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05년 10월 WIPO PCT 총회에서 한국특허문헌을 PCT 최소문헌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에 PCT 최소문헌으로써 한국특허영문초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2007년 4월 발효)

24) KPA(Korean Patent Abstracts)

한국특허영문초록은 특허공보에 기술되어 있는 발명의 주요내용을 해외심사관 및 이용자가 신속·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영문으로 간결하게 기재한 영문 요약서로 서지사항, 요약문 및 대표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지사항은 출원·공개(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발명자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문 요약문은 명세서 전체를 요약한 내용으로,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기재된 목적부분(PURPOSE)과 기술적 해결 수단과 구성요소간의 관계가 기재된 구성부분(CONSTITU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문 250 단어 내외의 범위로 작성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특허청은 1979년부터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책자형태로 한국특허영문초록을 발간 하였으며, 1997년부터 특허 3국(미국, 유럽, 일본)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MIMOSA S/W를 활용하여 검색과 조회가 가능한 CD-ROM 형태로 발간 및 보급하고 있다. 2000년도부터 국내 출원기술의 해외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대상을 등록특허에서 공개특허로 확대하였으며, 2007년부터 외국인이 출원한 PCT 공개특허에 대해서도 한국특허영문초록을 발간하였다.

2008년 148,090건의 한국특허영문초록이 발간 및 보급되었으며 2008년 말까지 총 1,310,311건의 한국특허영문초록 DB가 구축되었다.

〈표 III-1-12〉 한국특허영문초록 DB구축 현황

(단위 : 건)

구 분	'79~'99	'00~'01	'02~'03	'04~'05	'06	'07	'08	합 계
등록특허	82,086	94,966	16,032	7,907	16,859	41,693	36,679	296,222
공개특허	-	127,702	167,177	141,082	165,606	301,111	111,411	1,014,089
소계	82,086	222,668	183,209	148,989	182,465	342,804	148,090	1,310,311

한국특허영문초록은 CD-ROM으로 제작되어 해외 46개, 국내 32개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에 무료로 보급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는 미국, 일본을 포함한 39개국 특허청과 WIPO, EPO 등 7개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11개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과 21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배포된 한국특허영문초록은 홈페이지(www.kipris.or.kr)를 통해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다.

〈표 III-1-13〉 한국특허영문초록 CD-ROM 국내외 배포기관

구 분		내 용
해외 (46개소)	특허청 (39개소)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태국, 이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남아공화국, 케냐,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이탈리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그리스 뉴질랜드, 독일, 스위스, 영국, 체코, 프랑스, 터키,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유관기관 (7개소)	EPO, ARIPO, APCTT, WIPO, JAPIO, 유라시안특허청, 중국특허연수원
국내(32개소)		국회, 국립중앙도서관, 특허법원,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32개소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써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의 주요선진국들은 지식재산 정책을 국가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중국 등의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자국의 특허에 대한 영문초록을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다.

최근 2년간 한국특허영문초록 검색회수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한국특허정보를 알고자 하는 외국인의 수요가 점점 증가되고 있고 한국특허영문초록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I-1-14〉 한국특허영문초록 검색회수(3년간)

(출처 : KIPRIS)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검색회수	136,285회	296,523회	544,421회
전년대비 증감율	-	117.6%	83.6%

우리청은 국내 특허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특허영문초록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검증을 통하여 고품질의 한국특허영문초록을 지속적으로 발간 및 보급할 것이며, 한국특허영문초록의 활용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5. 공보 발간 및 보급

정보기획국 정보관리과 공업주사 손동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01. 7. 2일부터 인터넷공보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동 서비스는 누구든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하여 공개공보 및 등록공보를 발간과 동시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한 서비스이다.

1999년부터 전자출원을 실시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특허문서를 전자화하여, 공보발간 대상 서류의 대부분이 전자문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공보 발간공정을 자동화하여 그 발간 주기를 단축하고, 최신의 특허기술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특허기술정보 제공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였다.

나. 성과

〈표 III-1-15〉 2008년도 공보 발간 건수

(단위 : 건)

공개 특허	공개 실용	등록 특허	등록 실용	디자인	상표 광고	계
114,833	6,735	85,148	5,017	42,271	76,114	330,118

〈표 III-1-16〉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

(단위 : 명/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가입인원	335	410	616	1,332	3,602	2,268	1,804	10,367
발송건수	116,229	179,108	273,794	378,570	687,700	876,027	862,113	3,373,541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인터넷공보 서비스는 3가지 서비스로 구분된다.

첫째, 발간서비스이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터넷 환경에서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PDF 문서형태로 발간하고, 발간공정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진행되며, 발간할 공보의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다단계의 검사 및 검수 공정을 구비하고 있다.

둘째, Push Mail 서비스이다. e-mail 주소를 등록하면 민원인이 관심분야와 새로이 발간되는 공보를 일정주기별로 취합하여 관심분야리스트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게 되며, 민원인은 이를 클릭하여 해당 특허기술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서비스는 출원인은 물론 발명가, 기업 및 연구소의 연구원 등 특정 분야의 최신 특허기술 정보가 필요한 민원인에게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가 되고 있다.

셋째, 인터넷공보 서비스이다. 특허기술정보 유통 폭을 크게 넓혀 이에 따른 파급 효과가 커졌으며, 산업계에 제공된 특허기술정보는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과거 종이공보 시대에서 전자공보 시대로의 전환이 모두 완료된 만큼, 새롭게 등장하는 IT 신기술을 적시에 적용하여 앞으로도 세계최고 수준의 공보발간을 지속할 것이다.

제4절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

1. 특허넷 시스템 기반인프라 향상

정보기획국 정보기반과 전산사무관 최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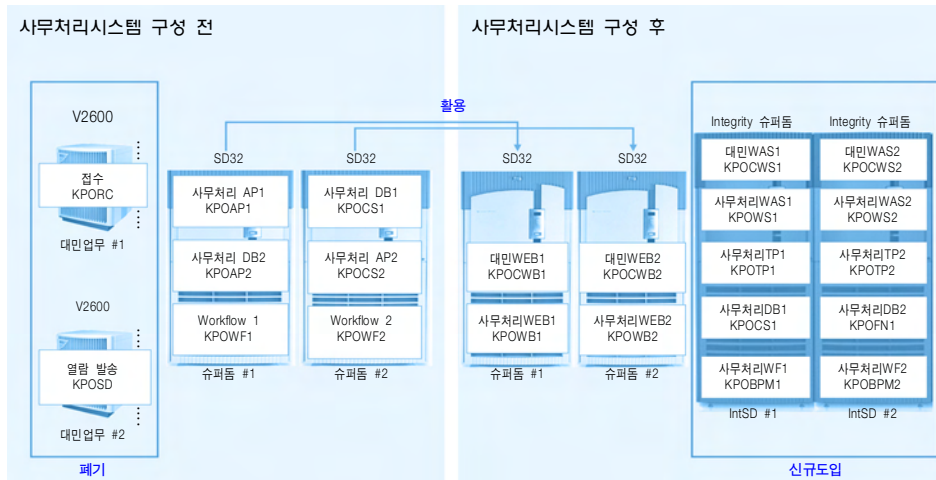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999년 1월 특허넷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서비스의 양적인 증가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확충하였다. 이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구현 및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등 시스템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기반 인프라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8년에는 특허넷 사무처리시스템의 전반적인 자원 활용률을 높이고 상용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장애발생 시 보다 높은 가용성 확보하기 위하여 약 6개월여에 걸쳐 노후화된 사무처리 서버를 교체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스템 기능별로 응용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웹서버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전용시스템을 구현하는 등 응용 아키텍처 구조 개선을 통하여 특허넷 무중단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자 중심의 특허정보 서비스 성능개선을 실현하였다.

〈그림 III-1-1〉 특허넷시스템 내부구성도



사무처리시스템의 재구성을 통하여 장애발생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장애발생시 서비스 재개시간이 180초에서 5초로 단축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하나의 서버에 집중되어있던 구성을 분리함으로써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간 상호간섭을 제거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주요서버의 업무집중시간대 자원(CPU) 사용량이 감소(평균사용률 93.22% → 30.57%)하고, 배치업무 수행시간이 감소(일 평균 배치업수 수행시간 180분 → 154분)함에 따라 안정적인 특허넷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였다.

〈표 III-1-17〉 주요 서버별 업무집중시간대 CPU 사용률 개선 현황

[성능측정기간 : '08. 10. 27 ~ 12. 05]

서버	평균사용률(%)	서버	평균사용률(%)
사무처리 응용서버	91.59	대민 WAS	26.45
		사무처리 WEB	9.05
		사무처리 WAS	30.90
		사무처리 TP	34.18
사무처리 DB 서버	94.85	사무처리 DB	52.27
평균	93.22		30.57

다. 향후 발전 방향

2009년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품질 성능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고객관점의 성능 체험단 활동을 개선하여 특허넷 업무 수행자를 비롯한 청 내·외 고객이 체감하는 시스템 속도와 통합성능관리에서 추출한 성능자료를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 내·외 시스템 성능에 대한 불만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의 기획 및 개발단계에서부터 품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 간 시스템 품질 관리 방향성 및 품질관리 목표의식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품질관리 기준 및 매뉴얼을 정비하여 사용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 사용자지원 고객만족도 향상

정보기획국 정보기반과 전산사무관 한상용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넷시스템 사용자지원 서비스는 개인용 전산장비(PC, PC용 소프트웨어, 모니터, 프린터 등)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예방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정확하게 지원하여 사용자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III-1-18〉 연도별 사용자지원 현황

서비스지원 사항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장애접수 및 처리	29,527건	30,961건	33,200건
찾아가는 서비스	-	3,066건	3,714건
해피콜 서비스	2,952건	3,101건	3,321건
재택근무 지원	2,923건	2,339건	1,546건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사용자지원 서비스는 한층 높아진 청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장애처리 지원의 차원을 넘어 사전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5월부터 현장지원 CSR 다회(多回) 요청자 사전집중지원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지난 한해 동안 167명에게 572회의 집중 사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최상의 전산업무 환경의 조성을 위해 2008년 노후 PC 등 453대를 교체 설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각종 바이러스와 악성 코드, 청내 PC에 설치된 다양한 종류(평균 40종)의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사용자지원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용자 의견을 수렴·분석하여 특허넷시스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8년 하반기 사용자지원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82.24점의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다.

다. 향후 발전방향

2009년 사용자지원 서비스는 장애처리 품질강화를 위해 장애분석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첨단 장애처리시스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분석시스템은 사용자 PC 장애발생시 자동으로 오류화면과 오류 로그를 서버로 전송, 데이터베이스로 기록·관리하며 CSR 접수시 장애를 미리 인지하고 사용자를 방문할 수 있어 정확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용자 업무 편의 도모를 위하여 청내 서비스 전용 웹하드를 구축, 일정량의 데이터 저장 공간을 PC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기존의 인사 이동 시 어려움을 겪었던 데이터 백업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정보보호체계 강화

정보기획국 정보기반과 전산사무관 전익수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청은 2005년 9월 365×24 보안관제센터 구축, 2006년 12월 중앙행정기관 최초 정보보호관련 국제인증인 ISO27001 인증획득 등 특허청 정보보호체계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보안시스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07년에는 국정원 주관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에서 99개 공공기관 중 최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2008년에는 ①기존 정보보호체계 고도화, ②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 정보보호강화를 위한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기반마련, ③ 특허청에만 주로 적용하여 왔던 정보보호체계를 관련 유관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특허청/유관기관 정보보안 공동대응체계 마련 등 세 가지 과제를 2008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연초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첫 번째, 기존 정보보호체계 고도화방안으로서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특허청 메일 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하여 공인인증서 기반의 인증체계 구축과 웹구간 암호

화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였으며, 외부 해킹공격에 의한 특허청 내부정보자산의 무단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행정망·인터넷망 네트워크 분리사업을 11월에 추진하여 2009년 3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두 번째, 특허청의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2008. 8~12)을 수행하여 특허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별도의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함으로써 특허청의 전반적인 개인정보관리체계 수준을 개선하였다. 또한, 파악된 개인정보 관리현황은 2009년 수행 예정인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08년 12월에 특허청/유관기관 정보보안 공동대응체계 마련의 일환으로서 특허청, 산하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의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들로 구성된 “특허청/유관기관 정보보안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정보보안 운영협의회의에서는 유관기관 정보보안 담당자에 대한 정보보안관련 교육 및 최근 이슈에 대한 정보교류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혹시 발생 가능한 침해사고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2009년에는 기존 특허청에만 한정된 보안관계대상을 관련 유관기관까지 확대하고 특허청 CERT²⁵⁾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보보안분야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주관하는 “2008년 보안관리실태평가”에서 2007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분야에서도 2008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43개 공공기관중 1위를 차지하였다.

25)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 컴퓨터침해사고 및 대응을 위한 비상전담팀으로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

다. 향후 발전방향

특허청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수립한 연간 정보보안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는 하였으나, 새로운 유형의 침해사고, 사용자 부주의 및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지재권 관련 최상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청 정보보안 강화 중장기(’09~’11)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행정의 주무부처로서 정보보호 분야에서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글로벌 특허정보화 선도

제1절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1.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활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기획국 정보협력팀 공업사무관 백재홍

가. 추진배경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는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를 총 7,601건 출원하여 세계 4위의 출원국가가 되었으며, 다출원 기업순위에서도 LG전자가 18위, 삼성전자는 25위, ETRI는 46위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휴대폰 등 우리나라의 IT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특허문헌은 2007년 4월부터 'PCT 최소문헌'으로 발효되어, 14개 특허청(국제조사기관)이 PCT 국제출원을 심사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특허문헌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게 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한국어가 PCT 국제공개어로 발효되었다. 한편, 미국, 유럽 및 일본 특허청은 3국 문서접근시스템(TDA : Trilateral Document Access)을 구축하여 상호간 심사정보 및 우선권서류의 교환·활용함으로써 심사결과 상호인정 및 행정효율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국가 기술력 향상 및 PCT 최소문헌 발효, 그리고, 선진특허청의 동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특허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외국 심사관이 우리나라 특허문헌을 포함한 특허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특허청은 2003년 ‘특허청간 심사결과 상호활용을 위한 심사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 11월부터 외국 특허청에 특허공보, 2006년 11월부터는 심사과정 서류의 한영 자동번역서비스를 인터넷 기반의 K-PION (Korean-Patent Information Online Network)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1월부터는 한국특허영문초록(KPA, Korean Patent Abstract)을 영문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부터는 한국 특허공보를 영문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특허정보에 대한 활용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번역서비스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번역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특허청은 특허문헌에 자주 사용되는 문형을 분석하고 370만개에 달하는 특허전문용어사전 및 심사용어 사전을 결합시킴으로써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도 한국특허문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을 포함하는 29개 외국 특허청이 K-PION을 통해 한국특허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미국, 유럽 및 일본 특허청과 3국 문서접근시스템(TDA)을 기반으로 하는 심사정보 및 우선권서류의 상호 교환·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과는 2007년 4월부터 심사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으며, 2008년 4월부터는 우선권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과는 2008년 10월부터 우선권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부터는 심사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고, 미국에서 의뢰되는 PCT 국제조사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8년 11월부터 PCT 문서의 전자적 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 특허청과는 2008년 12월부터 우선권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특허청은 올해 유럽 특허청과 심사정보 상호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정보의 상호 열람을 개시하고, WIPO 회원국 간의 우선권서류 교환시스템인 DAS(Digital

Access Service)을 구축함으로써 3국 특허청 외 다른 주요 특허청과도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상표, 디자인 및 한국어 PCT 출원까지 K-PION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 번역의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K-PION의 보급 확대 및 3국 문서접근시스템의 확대 구축을 통해 한국 특허정보를 외국 특허청으로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특허권의 해외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 특허권분쟁의 원인을 최소화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특허정보 즉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심사정보를 각국 특허청과 상호 공유하고, 각국에 출원된 동일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각국의 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제고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으며,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통해 특허행정효율의 제고 및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

정보기획국 정보협력팀 행정사무관 김주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현재 지식재산 정보화 분야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각국의 심사·심판 업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간 특허정보 공유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표준 제·개정 업무 등 정보화시스템 및 제도의 조화·통일화 논의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3국 특허청은 상호간 특허정보 공유시스템 및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WIPO에서는 향후 통일화된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WIPO 표준 제·개정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분야의 국제적 발전방향을 주시하고 나아가 우리청이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정보화 협력강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 발전방향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선진 5개국 특허청(IP5;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정보화 전략 및 정보기술을 상호 교환하고 정보화 주요이슈에 대하여 우리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견지하고자 한다. 또한 기타 중위권 특허청과도 협력강화를 통해 향후 국제무대에서 우리청이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가고자 한다.

나. 추진 경과 및 성과

1) 선진 5개국간 정보화 협력 강화

전 세계 특허출원의 급증에 따른 심사적체가 글로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진 5개국간 협력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07년 5월 IP5 청장회의, '08년 10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IP5 청장회의 및 후속 실무회의를 거쳐 5개국간 심사업무협력을 위한 10개의 기반과제를 추진키로 합의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동 기반과제에는 우리청 주도과제인 기계번역과 타청 주도과제인 검색(심사)전략 공유, 검색(심사)지원 도구, 공통 DB 및 검색(심사)결과 공유시스템의 총 5개 정보화 기반과제를 포함한 10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09년부터는 각 정보화 기반과제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각 과제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화 기반과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에 큰 차이가 있음에 따라, 양자 협력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과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우리청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거나 혹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청의 보다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2) 한·일 특허청간 정보화 협력 강화

한·일 특허청은 2008년 6월 한국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일 정보화전문가회의에서는 전자출원 공통서식(CAF; Common Application Format)에 대한 일본 특허

청의 경험소개, 양청간 삼극망을 통한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환 시스템의 버전업, 데이터 교환을 위한 DAS(Digital Access Service) 방식, 한국 특허청 재택근무자를 위한 일본특허문헌 영문번역서비스(AIPN; Advanced Industrial Property Network) 서비스의 이용 및 일·한 번역기 소개 등이 논의되었는데, 동 회의를 통해 우리청은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한국 특허청 재택근무자를 위한 AIPN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하기로 하였다.

양청은 이러한 정보화 협력활동을 통해 우선권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양청간 검색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 심사관의 선행기술 검색의 정확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상호 우수한 정보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시스템 개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3) 한·유럽 특허청간 정보화 협력 강화

한·유럽특허청은 2005년 6월 양청간 체결한 포괄적인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매년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연간 협력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보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양청은 특허데이터 교환, 상호 정보화시스템의 통합, 검색시스템의 시범 Testing, 한국특허정보 전문가의 파견 등 정보화분야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 한·유럽특허청간 삼극망을 기반으로 하는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이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보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후에도 IP5 체제와 더불어 양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4) 한·중·일 3국 특허청간 정보화 협력 강화

한·중·일 3국은 2008년 10월 한국에서 제6차 3국 정보화전문가그룹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3국은 각국의 자동화 시스템 현황 및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3국간 홈페이지 구축, 3국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통계데이터 교환, 각 국간 특허DB 보급 정책의 통일화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3국 홈페이지(www.tripo.org)에 3국간 교환 가능한 검색데이터 목록을 탑재하여 상시로 상호 교환 가능한 목록을 확인·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요 국제적 이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며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특허청 시대에 있어서 동북아시아 특허청간 실질적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5) 한·미 특허청간 정보화 협력 강화

한·미 특허청은 양청간 협력활동을 통해 IP5 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Best Practice Model이 될 수 있도록 2008년 9월 양청간 체결된 한·미간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동 MOU의 일환으로 정보화 협력활동의 본격화를 위해 2008년 10월 정보화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동 실무회의에서는 양청 심사관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양청간의 심사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PCT 문서의 양방향 교환, 가상협업시스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2007년 4월 한국특허문헌이 PCT 최소문헌으로 발효되어 한국특허데이터에 대한 미국특허청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양청은 2008년 정보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삼극망을 기반으로 하는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실시하고, 삼극망을 기반으로 하는 심사정보 공유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08년도 우리청은 일본, 유럽, 미국, 중국 특허청 등과의 양자간 정보화협력에 더불어, 선진 5개국 협력체제에도 동시에 참가함으로써 지재권 국제사회에서 우리청이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009년도에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선진 특허청을 포함한 각국 해외특허청과의 정보화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표 III-2-1〉 주요국 특허청과의 향후 계획

구분	일정(2009년)	주요 논의 과제
한/EPO	2월	• 삼국망 기반 심사이력정보 교환 • 한국어 esp@cenet(EPO 대민검색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
한/중	4월	•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 • 특허 공보 데이터 교환
한/JPO	6월	• 전자출원 시스템, 네트워크, 특허정보 데이터의 교환 및 활용, 검색 데이터 교환에 대한 논의
IP5	6월	• 선진5개국 고위급(차장급) 회담 • 10개 기반프로젝트 및 기타 5개국간 심사업무협력을 위한 방안
한/미	(미정)	• 한·미간 가상협업 시스템 구축 • PCT 문서의 양방향 전자적 교환
한/중/일	10월	• 한·중·일 삼국 간 정보화 전략 및 기술 공유
한/EPO	12월	• 한·EPO 청장회담

3. 국제기구와의 정보화 협력사업 확대

정보기획국 정보협력팀 행정사무관 김진주

가. 추진배경

1) 지식재산권 영문교육 분야

기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교육은 국내법과 국내제도 위주의 국문 과정이 대부분이었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지식재산권을 습득할 수 있는 영문 교육과정은 없었다. 그러나 특허, 상표,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가장 국제화된 분야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국제적 활동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영문교육 과정의 필요성과 국내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시켜 한국이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영문교육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 먼저, 초급자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교육원(WWA)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대학 교육과정을 개설하였고 중급자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소기업국(SME)의 IP for Business라는 원고를 활용하여 IP 파노라마를 개발하였으며, 전문가를 위해 미국, 일본, 호주 등 지식재산권 선진국과의 공동작업으로 APEC 기금을 활용하여 IP Xpedite를 개발하였다.

2) 지재권 행정정보화 분야

1999년 특허청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이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재권 행정의 전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지재권 행정정보화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PCT 조약국들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2004년 WIPO와 공동으로 국제특허접수시스템(PCT-ROAD: PCT-Receiving Office ADministration, 국제출원을 접수·처리·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소규모 특허청의 PCT 행정정보화에 기여하는 등 PCT 정보화 분야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세계 특허행정 정보화분야에서 한국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나. 추진경과 및 성과

1) 지식재산권 영문교육 분야

'06년도에 WIPO와 디지털 형태의 지재권 교육콘텐츠를 공동개발하여 전세계 특허청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식재산 파노라마(IP Panorama)라 불리는 이 콘텐츠는 특허정보, 기술거래, M&A, 전자상거래, 특허분쟁 등 총 12개 분야에 걸친 지재권 관련 교육자료로서 '04~'06년 10개의 콘텐츠에 대한 1차 개발 및 '08년 2개의 추가 콘텐츠에 대한 2차 개발을 완료한 후, 전 세계 특허청에 보급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08년 몽골, 포르투갈, 에스토니아와 IP 파노라마 자국어 판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IP 파노라마 태국어판 번역이 완료되었다.

또한, 지재권 e-러닝 콘텐츠 개발을 위한 APEC 기금을 확보하여 '06년에는 특허 정보의 활용에 관한 8개 분야, '07년에는 주요국별 특허문헌 작성 및 해석에 관한 6개 분야의 e-러닝 콘텐츠(IP Xpedit)를 개발하여 APEC 역내 회원국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7년에는 중국 특허청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IP Xpedit의 자국어 버전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08년에는 IP Xpedit의 국외 보급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아·태 지역 2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IP Xpedit을 활용한 특허정보 활용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APEC 예산 13만불을 확보함으로써 2009년 APEC과 공동협력사업으로 시행하여 아·태 지역 내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이러한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 영문 e-러닝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2005년 3개 대학에서 324명의 학생이 수강한 이래 2008년에는 국내외 14개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뿐 아니라 기업관계자, 수습변리사 등 총 2330명이 수강하였다. 대학의 지식재산권 영문교육과정 우수 수료생을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교육원이 주최하는 여름학교와 싱가포르 지식재산권 아카데미 등 국외 지식재산권 연수 참가기회를 제공하여 2008년 17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으며,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소기업국과 공동으로 IP for Business School을 2008년 개최하여 6개 기업의 10명이 참가하였다.

2) 지재권 행정정보화 분야

PCT-ROAD는 2005년 첫 출시 이후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등 전 세계 24개국에 보급되었고, 지속적인 품질개선 및 기능고도화 작업을 거쳐 2008년 12월 새로운 버전이 출시됨에 따라 세계 각국 특허청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PCT-ROAD의 결과물인 RO-WASP²⁶⁾ 데이터의 정합성은 PCT 회원국에서 보내오는 모든 데이터 중 가장 품질이 우수하여 WIPO 내부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PCT-ROAD 사용자들의 시스템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9년 2월에는 WIPO와 공동으로 PCT 행정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26) RO_WASP(Receiving Office_ Wrapped And Signed Package): 수리관청에서 보내오는 PCT 전자출원 데이터

한편, 2008년에는 한국어가 PCT 국제공개어로 발효(2009년 1월)됨에 따라 WIPO 정보화시스템에서 한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글폰트를 정비하고, 출원인들이 한국어로 PCT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버전의 PCT 전자출원소프트웨어(PCT-SAFE)를 개발 보급하였다.

다. 향후 계획

1) 지식재산권 영문교육 분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교육원(WWA)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문교육과정을 수강한 대학생들과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WWA가 제공하고 있는 DL-101 콘텐츠를 멀티미디어화하는 개발사업을 WWA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수강생의 학습욕구를 높이고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IP 파노라마를 중국어, 러시아어 등 UN 공용언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과 IP 파노라마의 자국어판 개발 관련 협의가 진행중이고, 필리핀, 이탈리아, 모리셔스와 IP 파노라마 사용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APEC 기금을 통해 개발된 IP Xpedite의 국외 보급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아·태 지역 2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IP Xpedite을 활용한 특허정보 활용인력 양성사업”을 2009년 APEC과 공동협력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아·태 지역 내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 지재권 행정정보화 분야

한국 특허청은 PCT-ROAD와 같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특허정보화 시스템의 국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허행정 정보화 분야의 세계표준 정립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특허 정보화 분야의 미개척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여러 가지 공동협력 사업을 구상중이다. 특히 글로벌 전자문서작성기, 인터넷 기반의 통합 PCT 정보화시스템 및 특허문서의 전자화시스템 등 세계 특허행정정보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2절 한국형 특허정보화 시스템의 해외 확산

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정보기획국 정보협력팀 토목사무관 김영표

가. 전자정부 해외진출 추진 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 전반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낳았으며, 특히 이러한 흐름 속에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업무의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온 국가경쟁력의 산물로서 새로운 IT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특허정보화시스템, 관세정보화시스템 등 6개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 전자정부 구축 지원을 위한 “전자정부 6대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자정부사업을 중심으로 성공한 IT 산업분야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국가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IT 해외진출 시장을 창출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전자정부 해외진출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 지재권 분야의 전자정부 해외진출 환경

오늘날 세계 각국의 특허청은 급증하는 특허출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분야의 전자정부 구현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특히, 3국 특허청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일본 및 유럽 특허청은 자국 특허행정의 정보화 뿐만 아니라 “세계 특허시스템”을 개발하여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 특허청에 보급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등 특허행정의 정보화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특허넷 기술이전 사업은 지재권행정 정보화 분야에서 기술표준의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다자차원의 지지기반 확보 및 개발도상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익 우선의 다자관계 형성을 위한 전초기지를 구축하며 이와 더불어 민간 SI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 특허행정 정보화시스템(특허넷)의 해외 확산 현황

우리 특허청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전자정부시스템인 특허넷시스템이 이들 3국 특허청을 포함하는 세계 각국 특허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PEC에서 역내 개도국 특허청에 대한 정보화협력사업의 담당자로 우리 특허청을 선정한 데 이어, 지재권 분야의 국제 규범의 정립 및 국제협력을 관장하고 있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PCT 국제출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보급사업의 파트너로 한국특허청을 선택하는 등 우리 특허청의 전자정부시스템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APEC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원 기능을 구현한 한국 특허청의 특허행정정보화 수준을 높이 평가하여 2002년도 개도국 특허행정 기술협력사업의 주 파트너로 한국을 만장일치로 선정하고 한국 특허청에 특별기금 제공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마련한 APEC 특별기금을 사용하여, 한국특허청은 태국, 페루,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베트남 및 인도 특허청에 대하여 정보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APEC역내 회원국들의 높은 평가와 더불어 특허행정정보화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허넷 해외진출 추진은 주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06년 2월 태국 상무부는 태국 특허청 정보화사업(IPCenter 구축사업)에 우리청 참여를 요청해 와, 한국 특허청은 한국통신, LG-CNS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06년 하반기 예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양청간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합의하였으나, 태국 쿠테타가 발발하여 동 사업의 추진이 보류되었다. '06. 12월말 태국 정국이 안정됨에 따라 협의를 재개하여 '07년 9월 양국 특허청은 태국 IPCenter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한국 특허청이 WIPO와 공동으로 개발한 지재권 e-러닝 콘텐츠인 IP 파노라마의 태국어 버전 개발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한국 특허청은 IPCenter 구축사업 참여를 위한 타국과의 경쟁시 확고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였다.

'03년 8월 한·인도네시아 특허청간 체결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국 특허청은 '07년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특허청 정보화사업(DGIPnet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총 33백만불 규모의 특허정보화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07년 9월 양국 특허청은 DGIPnet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08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DGIPnet 구축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차관사업으로 공식 선정하였다. '09년에는 인도네시아 특허청 정보화사업을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사업으로 확정된 후, 인도네시아 특허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특허넷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베트남, 필리핀, 몽골 특허청의 정보화사업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고, '09년 1월 몽골 정부는 한국정부에 특허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조자금을 요청하는 등 해외 특허청의 정보화사업에 참여하여 특허넷시스템의 기술 및 표준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해외 특허청의 정보화사업에 참여하여 특허넷시스템의 전체 모델을 보급하는 것과 병행하여, 개별 단위업무의 전산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모듈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첫 번째 모듈화시스템은 국제특허접수시스템(PCT-ROAD: PCT-Receiving Office Administration)이다. '05년부터 WIPO의 요청에 따라, 국제출원을 접수·처리·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PCT-ROAD의 공동 개발을 완료하고, '05년 베트남·이스라엘 등 7개국에, '06년에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 보급하였다. 또한, 스페인 특허청의 기금 60,000스위스프랑을 제공받아 스페인어 버전 PCT-ROAD를 개발완료하여 '07년에는 쿠바·도미니카 공화국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포함한 6개국에 보급하였고, '08년에는 브라질, 유라시아 특허청 등 6개국에 보급하여 총 24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모듈화시스템은 특허문헌 검색시스템이다. 검색업무는 특허심사업무에 있어서 필수적인 업무로서 아직도 많은 개도국에서는 검색업무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청은 '08년 핵심검색기능과 3국 특허청의 특허문헌와 한국특허문헌을 탑재한 한국형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보급하였고, 향후 동 시스템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 향후 계획

한국특허청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APEC, WIPO 등 국제기구는 물론 해외 특허청의 호평의 결과로, 스페인특허청, 프랑스특허청 등 선진특허청들도 자국의 기금을 제공하면서까지 우리 특허청과의 정보화 공동협력사업 의사를 타진하고 유럽특허청의 경우 자국시스템(EPTOS 시스템)과 PCT-ROAD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한 세계 특허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등 지금까지 3국 특허청 주도로 진행되던 특허행정 정보화 국제협력에 변화가 일고 있다. 즉, 우리 특허청이 해외 정보화시스템의 선진화와 관련된 정보화 협력사업에서 WIPO와의 협력 및 APEC 특별기금 확보 등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특허행정 정보화 분야에서 한국 특허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허행정 정보화 관련 세계표준 제·개정 이슈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청은 해외 특허청의 정보화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특허넷시스템의 모델을 모델로 한 정보화시스템을 보급하고, 선진 특허청, 국제기구(WIPO, APEC)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 협력사업을 추가발굴하여 한국형 특허정보화시스템의 표준 및 기술이 WIPO시스템 및 이를 도입한 각국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채택되도록 함으로써, 정보화 세계표준의 정립에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우리 특허청이 3국 특허청과 더불어 지재권 분야의 국제규범 및 정보화 세계표준 정립을 이끌어 가는 선도 특허청(leading office)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2.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정보기획국 정보협력팀 공업사무관 김명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재권분야의 정보화 표준 제·개정은 특허행정의 전 프로세스를 전산화한 방대한 특허넷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에게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특허넷시스템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과 다른 표준이 세계표준으로 새롭게 채택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특허넷시스템을 전면 재개발해야 할 필요에 직면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을 방지하고 지재권분야의 세계표준이나 지재권의 국제적 보호수준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재권분야의 정보화 표준 국제논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우리청은 선진 지재권 정보화시스템인 특허넷시스템(KIPOnet)의 개발·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화표준회의(SDWG) 활동을 통한 WIPO 표준 제·개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시에 3국 및 주요국 특허청과의 양자협력을 통해 지재권 정보화 국제표준 제·개정 활동을 강화하여 KIPOnet의 호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힘쓰고 있다.

정보화분야 WIPO 국제표준화 활동은 정보화표준회의(SDWG)에서, 그 산하에 다수의 분과위(Task Force)가 조직되어 분과위 회원간의 e-forum 논의를 거쳐 표준안이 마련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표준 작업은 분과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SDWG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검토 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리청 역시 주요 분과위에 참여하여 표준 논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아국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SDWG는 2008년에 11월에 10차 회의가 개최 되었으며, 특히 우리청은 2002년도 부터 상표표준의 분과위 위원장을 맡아 상표분야의 표준 작업을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 및 디자인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 2008년 정보화표준회의(SDWG) 활동

우리청은 SDWG 산하 ‘상표표준’, ‘출원번호 표준’, ‘연차기술보고서(ATRs)’, ‘문서 표준’ 등 12개의 주요 분과위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 디자인으로 까지 확대 가능성이 큰 ‘상표 이미지 처리에 관한 표준’과 관련해, 우리청이 해당 분과위의 위원장을 맡아 제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3국 등 주요국의 표준 동향을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아국 표준을 방어하고 아국에 유리하도록 관련 표준 내용을 정비하고 있다.

표준제정 작업은 일반적으로 분과위 위원장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SDWG 회의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표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동의를 얻게 되면, 분과위 위원장이 동 표준제정 작업을 수행할 ‘사업계획서(Project Brief)’를 제출하게 된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SDWG 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분과위는 위임받은 범위의 표준작업을 분과위를 통해서 수행하게 된다.

분과위 위원장은 e-forum을 통하여 표준안 제정 작업을 위한 전체일정을 제안하고, 분과위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작업일정을 확정한다. 정해진 작업일정에 따라 회원국의 자동화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 초안을 e-forum을 통하여 제시하며, 분과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완성하고, 이를 국제 사무국으로 이관하여 3개의 언어, 즉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WIPO 회원국에 배포된다. 향후, 취합된 회원국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표준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e-forum에 상정하여 분과위원들의 검토의견을 거친 후 표준 최종안을 만든다. 이 표준안을 차기 SDWG 회의에 상정하여 동의를 얻으면 표준으로서 공표된다.

SDWG 회의 시 분과위 위원장은 표준제정 작업에 대한 경과보고 및 회원국의 건의 및 질의사항에 답변을 하고, 동 기간 열리는 분과위회의를 주재하여 e-forum을 통해 제시된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한 후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한다.

현재, 상표표준분과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국은 회원국의 상표이미지 관련한 설문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e-forum을 통해 전달하고 상기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07년 3월 제8차 SDWG에서는 상표표준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08년 11월 제10차 SDWG에서 부록을 제외한 상표이미지 표준안에 대해 일부분을 제외하고 합의에 도달하였고, '09년도 11월 제11차 SDWG 회의에 최종 표준안을 상정하여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또한, '08년 11월 제10차 SDWG 회의에서 ST.13(출원번호 부여체계)의 개정 내용(출원번호 개정)을 토대로 ST.10/C(서지데이터 구성요소의 표기) 개정안의 각 문단별 내용이 재검토되고, 문구가 수정되었으며, ST.10/C 개정안은 특허문서에 한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ST.36(특허문서의 XML 표준)의 표준안에 3가지 엘리먼트 추가에 합의하고, ST.36 및 PCT와 관련된 18개 엘리먼트에 대해 검토하기로 합의했고, ST.22(OCR에 적합한 출원서 작성 권고안)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2) WIPO 정보화 협의체 구축 및 활동

WIPO와 PCT분야 정보화 협력 중 정보화 표준 관련 사항들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정보화 표준 관련 사항들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청내 정보화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정보화 협의체는 정보기획국 내의 각 과 담당자 각 1인, 심사정책과 및 심사지원과의 담당자 각 1인과, 국제출원과 담당자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정기적 회의와 사이버 포럼을 통해 진행중인 정보화 표준 관련 사항들에 대해, 충실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우리청은 지속적인 SDWG 활동을 통해 상표표준의 제정 작업을 리드할 것이며, 동시에 KIPOnet의 유연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PCT 표준개정작업에 특허심사지원과와 함께 정보화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8년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선진 5개국 특허청(IP5) 정보화 실무회의를 통하여 우리청의 특허넷 기술이 표준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표 III-2-2〉 정보화 기술표준을 위한 향후 계획

일정 (2009년)	추진내용
2월	• 상표이미지 표준 개정안 발표(버전 1.2)
3월~4월	• 상표이미지 표준에 대한 개정안을 e-form을 통해 공지
4월~9월	• WIPO 상표표준 분과위의 의견 수렴 및 상표이미지 표준안에 대한 마지막 개정안을 e-form을 통해 공지
11월	• 제 11차 SDWG회의 참석 후 최종안 발표

지식재산부족 코리아
특허청이 함께 합니다





제 4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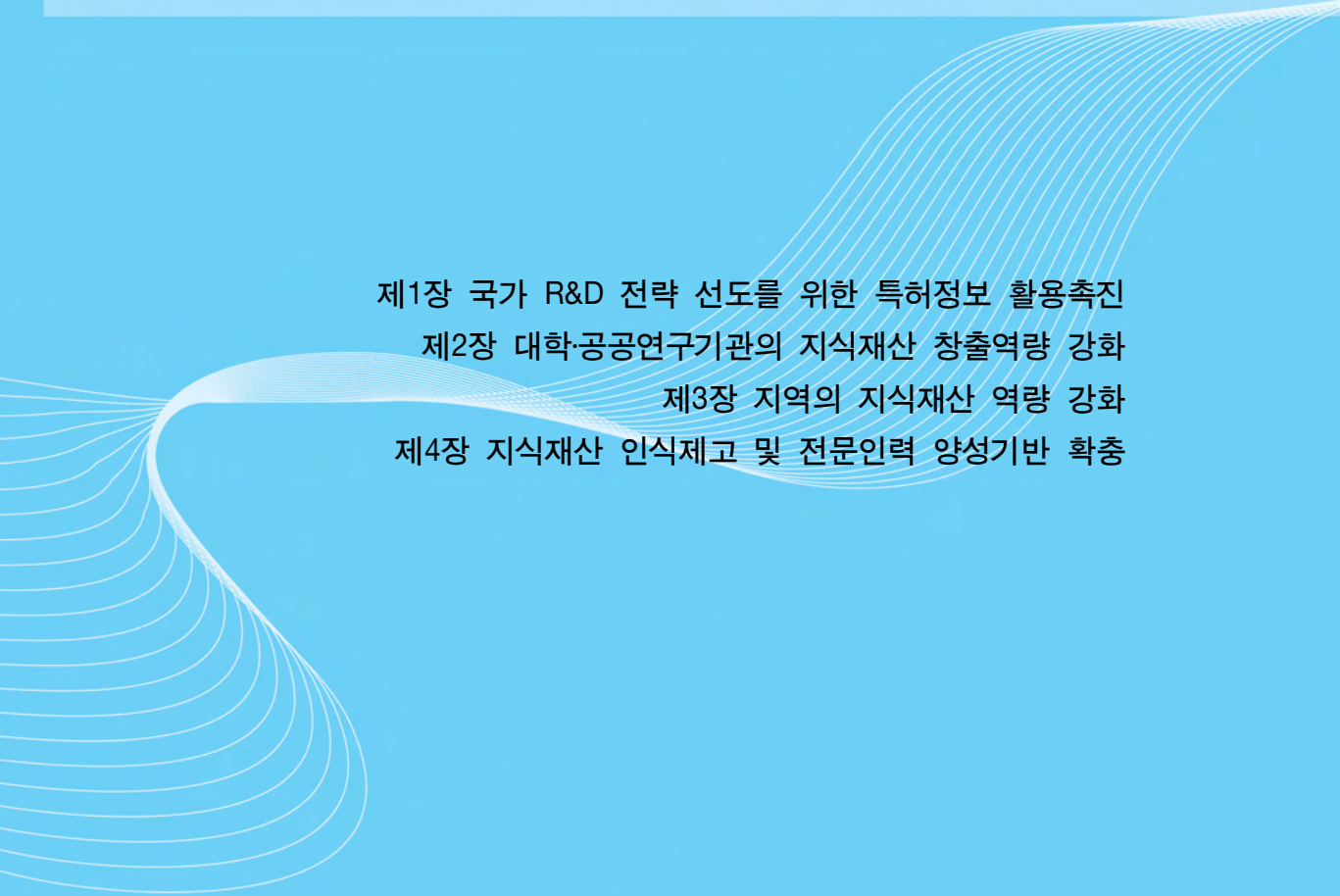
지식재산의 창출기반강화

제1장 국가 R&D 전략 선도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촉진

제2장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제3장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제4장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국가 R&D 전략 선도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촉진

제1절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추진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1.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개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공업사무관 김용훈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이미 토지·자본 등 유형자산이 경쟁력의 원천인 산업화 사회를 거쳐 정보·지식에 근거한 차별적 기술, 강한 브랜드, 독창적 디자인 등 무형자산을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제조업보다 지식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산업도 지식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고 신기술 등 지식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무형자산 중 권리화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 극대화 추구로 국가간·기업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시대가 도래하였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재산의 전략적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극대화를 추구하고, 무역제재의 주요수단이 반덤핑 제소에서 특허침해를 근거로 한 수출입금지 등의 강력한 국경조치로 변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기업들은 지식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특허 공세를 펼치는 특허경영을 본격 도입하여 표준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은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시장을 독점하나, 패배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군소기업으로 전략하는 실정이다.

또한, 세계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동시 직면하여 기상재해, 생태계파괴, 에너지·자원 부족 등으로 인류의 생존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녹색기술을 신(新)성장동력화 하는데 국력을 집중하여 자국 산업의 성장 및 실업문제 해결, 새로운 시장 선점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은 ‘국가간·기업간 지식재산전쟁’과 ‘녹색경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선진일류국가로의 진입을 위해, '08년부터 既 특허정보 활용 정책을 지식·혁신 주도형 質 좋은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으로 확대·개편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0년부터 특허청은 자체 보유한 1억 3천여만 건의 국내·외 특허문헌을 분석·정리하여 국내기업 및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총 120개 신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맵(Patent Map)을 작성·보급하였다.

2004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을 보고하고, 2005년부터는 동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과제선정, 성과평가 등의 단계에서 분석된 특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력 제고를 위한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과학기술자의 특허 정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교육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2006년 연구개발 숲 과정에 걸친 지재권 관리·활용 전략 상담 및 관련 정보 지원을 통하여 국가 R&D 사업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R&D 특허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특허능력을 겸비한 연구인력을 대학에서부터 체계적

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에 정규과목으로 특허강좌를 개설·운영하고, 대학의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실 단위로 대학의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특허맵을 대학과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다.

2008년 실용정부 출범과 동시에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위기극복”이라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세계 경제의 기조가 저탄소 경제전환 및 산업의 녹색전환임을 감안하여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할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전략으로, 특허청은 지식재산 중심의 강한 특허 확보형으로 R&D 체질을 개선하여 연구개발 효과성을 제고하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추진하였다.

’08년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여 핵심·원천 특허 확보가 시급한 녹색성장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조선,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소재, 임베디드 S/W 4대 분야에 ’08년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순 R&D 부처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성과를 통한 사업예산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지원받는 R&D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수를 2007년 3,433과제에서 2008년 4,760과제로 확대하였다.

2.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지원 사업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기술서기관 김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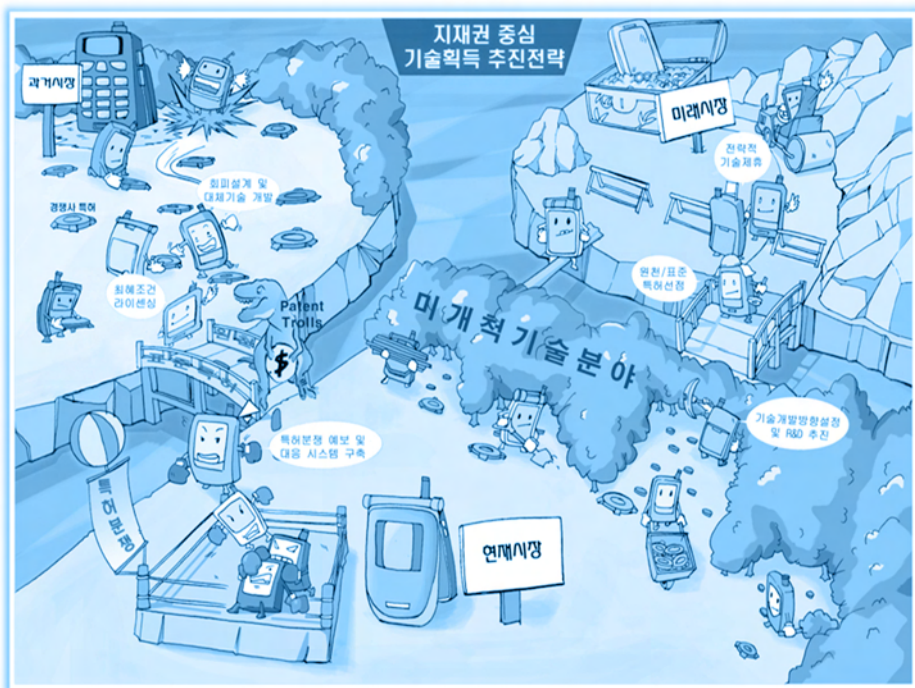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기술수지 적자국으로 조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핵심·원천 특허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부족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시장을 지배할 핵심특허를 예측하거나 현재의 주요특허를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지식재산 중심의 전략적 경영 역량은 많이 부족하다. 그 결과, 그간 R&D 투자액은 '07년 세계 7위, GDP 대비 세계 3위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R&D의 실질적인 성과는 다소 미흡하여 경쟁기업의 높은 Royalty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거나, 심지어는 여러 국가 R&D 과제가 중복된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기업활동에 실제 필요한 핵심특허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자체 개발·외부도입(권리이전, 라이선싱) 등을 조합한 최적의 기술획득전략을 제시하는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지원 사업을 '08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림 IV-1-1〉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지원 사업 체계도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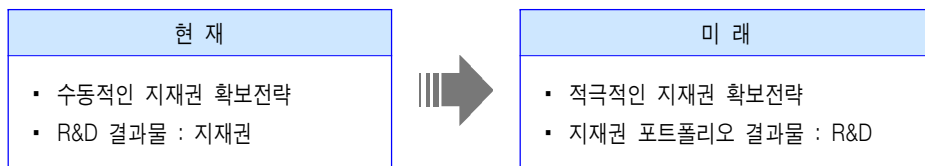
'08년 세계 경제의 기조가 저탄소 경제전환 및 산업의 녹색전환임을 감안하여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할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전략으로, 녹색성장 분야를 기초로 「지재권 중심 기술획득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다.

〈표 IV-1-1〉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지원 사업 개념

- 제품을 '부품결합체'로 보던 시각에 '특허복합체'라는 관점을 추가로 접목시켜, R&D의 최종목적을 다수의 '돈되고 강한 특허' 획득에 두는 것으로
- 기업의 니즈에 바탕을 두고, 앞으로 5~7년 뒤에 세계 시장을 주도할 핵심·원천 특허에 관한 지재권 포트폴리오(특허의 집합)와 이를 구현할 전략(국가 R&D, 기업 자체 R&D, 제3 기업과의 기술 제휴 등)을 제시하여,
- 기업이 지식재산의 눈으로 R&D를 바라보게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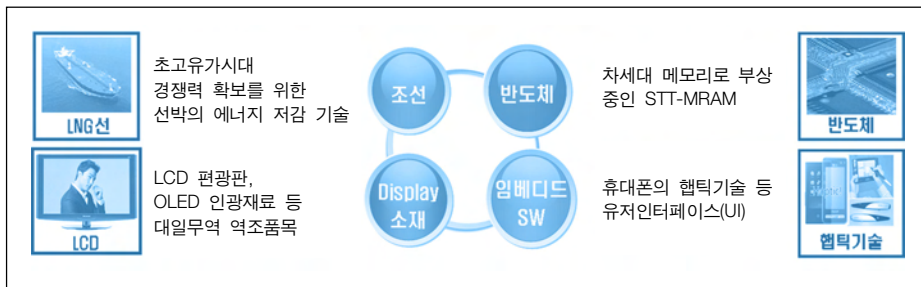
종전 R&D의 결과물로 바라보던 지재권에 대한 시각을 지재권 포트폴리오의 결과물이 R&D라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여 우리기업에게 제시하고,

〈표 IV-1-2〉 지재권의 눈으로 바라본 R&D 연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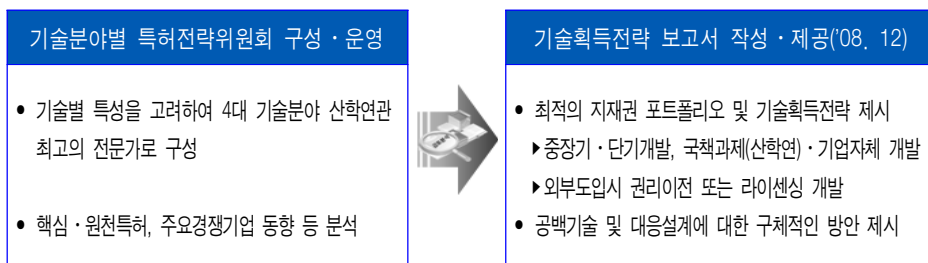
30여개의 산학연관 R&D 전문가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핵심·원천 특허 확보가 시급한 조선 등 4대 녹색기술 분야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IV-1-2〉 '08년 지재산 획득전략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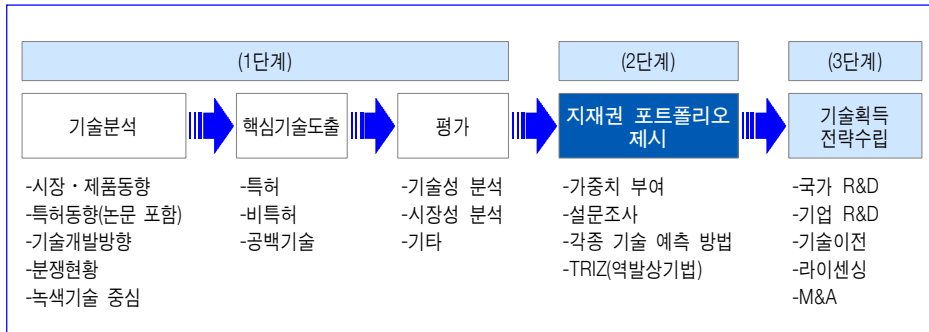
특허청 심사관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4대 분야별(조선,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임베디드 S/W) 특허전략 추진단을 구성하여 특허청이 개발한 기술획득전략 수립 방법에 따라 신규 시범 사업을 실행하였고, 특허전략 추진단은 '08년 하반기 동안 산학연 전문가 총 40명, 특허청 심사관 25명이 투입되어 특허청이 중심이 되어 신규 기술획득전략을 개발하여 전략보고서를 기업들에게 제시하였다.

〈표 IV-1-3〉 특허전략 추진단 구성(4대 분야별 특허전략위원회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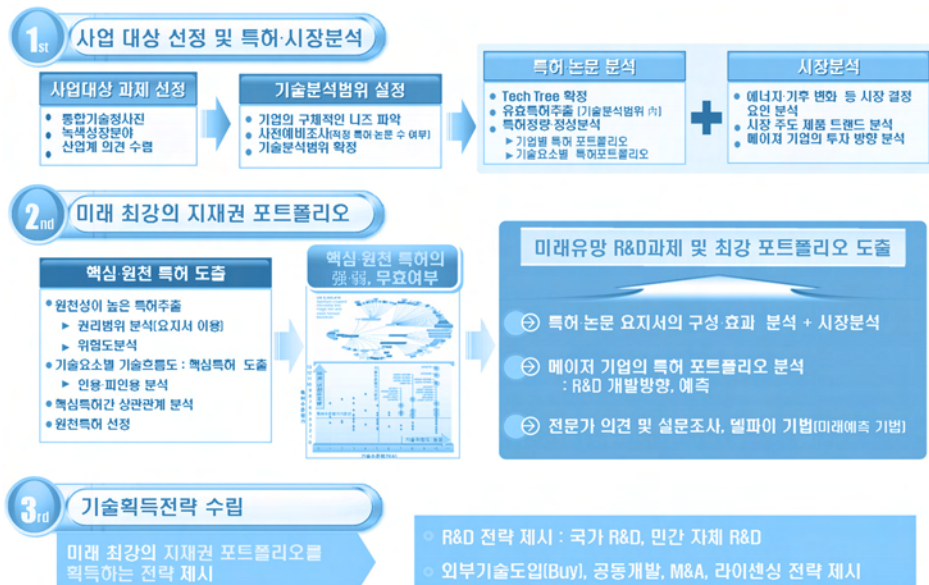


4대 기술분야별 특허전략연구회 소속 산학연관 전문가들은 6개월간 협동하여 (Open innovation) 기술획득전략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표 IV-1-4〉 기술획득전략 수립 Process(실행방안)



〈그림 IV-1-3〉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방법론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특허청이 제시한 기술획득전략 방법은 '08년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학계로부터 그 방법론의 유용성을 검증받아, 연구자들은 지재권 포트폴리오의 결과물이 R&D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표 IV-1-5〉 특허청이 개발한 지재산 중심 기술획득전략 방법론의 유용성 평가

차세대 반도체(STT-MRAM)에 대한 평가

- (산학연 전문가) “기술획득전략 보고서”는 매우 유용한 자료로서, 우리 기업의 R&D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주력기업인 S社, H社) 치밀하고 다각적으로 잘 분석된 R&D 전략의 바로미터로서, 적용된 방법론을 확대하여 기업에 적용할 예정
- (H대) 놀랍고 감동적인 분석결과로서, **국책과제 연구제안서(RFP)를 수정·보완할 계획**
 - ▶ '09년 차세대 메모리 국책사업단 추진과제(7개)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요구하여 이중 'ReRAM' 과제에 대해 추가 기술획득전략을 제공기로 결정

디스플레이 소재, 조선, 임베디드 S/W에 대한 평가

- (D社) 막대한 양의 Data와 Data 분석 프로세서를 입수하여, **기업 특허팀에도 이런 방법론이 확대 재생산되어 활용되길 희망**
- (D협회) 국가 R&D에서 제한된 자원을 배분할 때 명확하게 우선 순위가 정해질 수 있도록 **결과물이 정부부처 내에서 공유되길 희망**

제시된 기술획득방법론은 국가와 기업의 핵심·원천특허 확보 지향적 R&D 과제 추진, 기업의 특허분쟁 예방 및 주요 기업과의 기술 제휴 등에 활용되고, 미래 시장성, 원천기술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도출된 과제는 정부 R&D 연구기획기능을 대체하고, 강한 지재산 창출 및 확보를 통한 수익창출, 기술료(Royalty) 부담 완화, 특허분쟁 예방, 지재산 거래 촉진 등 기업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더불어 산업계에 기술분야별(차세대 반도체 등 4개분야) 총 476개의 핵심특허를 제시하고, 지재산 포트폴리오와 이를 구성하는 개별 특허에 대한 총 82개의 R&D 과제를 20개 기업에 제공하여, R&D 과제의 수행이 완료되는 3년 후에는 과제당 약 2건 이상, 총 164건 이상의 핵심·원천 특허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1-6〉 시범 사업성과(도출된 R&D 과제수)

구 분	핵심특허(건)	R&D 과제수		
		총 R&D 과제	국가 R&D	민간 R&D
조선	286	20	14	6
차세대 반도체	17	22	16	6
디스플레이 소재	96	4	1	3
임베디드 SW	77	36	22	14
합 계	476	82	53	29

'09년에는 풍력발전, 그린카, 태양전지 등 녹색성장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여 18개 분야를 선정하여 확대·추진하여 녹색성장분야에서 약 320개의 R&D 과제가 도출되고 총 640건 이상의 핵심·원천 특허가 창출되도록 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갈 것이다.

〈표 IV-1-7〉 '09년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과제

구분	'08년(4개 분야)	'09년 (19개 분야)
녹색성장	- 메모리반도체 (STT-MRAM) - 디스플레이 소재 - 임베디드 SW - 에너지 저감(조선)	- 헬기 추진 및 제어시스템 - 발광다이오드 (LED) -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ReRAM) - 임베디드 PCB - 유비쿼터스용 SoC 구조 - 차세대 SSD(Solid State Drive) 저장장치 - 그린 IT기반 Beyond 4G 이동통신시스템 - 맞춤 의료를 위한 분자진단기술 - 녹색 성장형 섬유 소재 - Mobile IPTV - CR/SDR 단말 기술 - 풍력발전시스템 - 그린빌딩(건물 에너지효율 향상기술) - CO₂ 회수 및 자원화 - 자동차용 고출력 리튬 2차전지 - Fuel cell 그린카 - CIGS 태양전지 - 차세대 e-IP기술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		프린터* 시범사업

3.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공업사무관 김용훈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가 연구개발 연구성과의 목표는 국가 경쟁력의 제고에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 투자하는 연구개발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 개발 예산을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적절히 투자하고 그 성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지속적 연구개발투자 증대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성과는 크게 신장하고 있으나, 기술혁신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효율성이 낮고 R&D 결과의 경제적 성과로의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특허정보 활용 미흡으로 중복연구 등 중복 투자가 우려되고 있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촉진 및 강한 특허 창출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다.

특허청은 제16회 국과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04.12)을 상정하여 ’05년에 R&D 수행부처와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제선정 등의 단계에 특허기술동향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07년 3,433개 과제에서 ’08년 4,760개 과제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을 확대하였고, 각 과제 연구기획위원회에 ’08년 400여명의 해당분야 특허청 심사관이 연구기획위원으로 참여하여 특허분석을 지원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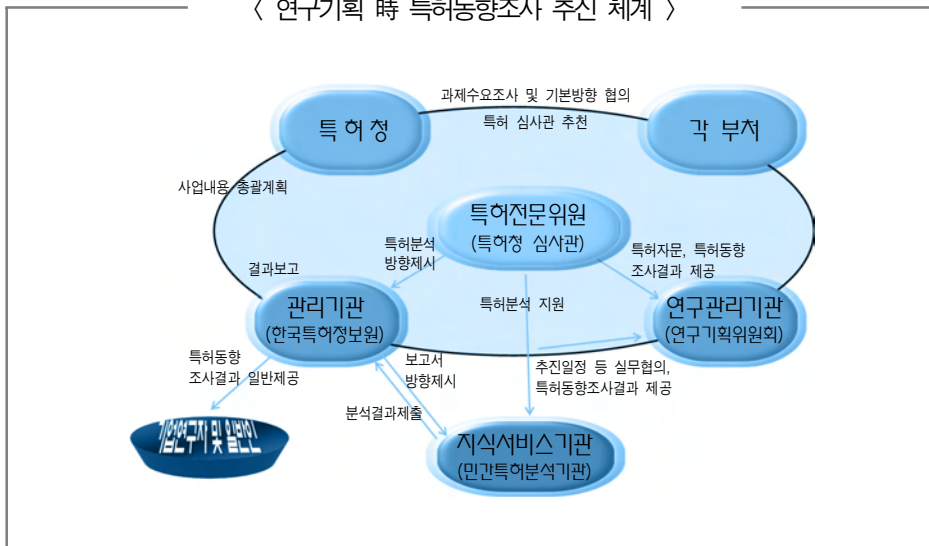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중간기획 時 특허동향조사

특허동향조사 사업은 기존의 전문가 검토 위주로 이루어지던 Top-down 방식의 연구개발사업 기획 時 해당분야의 기술동향, 공백기술, 원천특허 내용을 포함하는 특허동향조사를 통하여 기술동향, 공백기술 및 원천 특허 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더욱 완벽한 국가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R&D 부처에서 연구개발사업 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위한 예산과 기간을 확대조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요령·지침 등 관련 규정에 특허동향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05년부터 R&D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특허정보 제공 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과기부, 산자부 등 R&D 중장기 대형과제의 특허동향조사 결과물을 해당 부처에 제공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제공된 특허동향조사 결과물을 통해 연구기획방향을 설정·변경하는 등 연구기획보고서에 특허정보를 반영하였다.

2006년에는 과기부, 산자부 등 4개 부처 211개 과제, 2007년에는 과학기술부 융합기술개발사업과 산업자원부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등 290개 과제에 대해서 연구기획단계의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였고, 부처 연구기획 일정에 맞춰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 특허정보를 분석하고, 각 과제 연구기획위원회에 해당 기술분야 특허청 심사관이 R&D 특허지원단으로 참여하여 분석을 지원하고 기획에 반영하였으며, 2008년에는 지원과제를 대폭 늘려 지식경제부(舊 산업자원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등 407개 과제에 대해서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특허청 심사관을 R&D 부처 연구기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였다.

〈그림 IV-1-4〉 연구기획 시 특허동향조사 추진 체계



R&D 부처의 연구기획과제에 대한 특허동향조사 지원을 통해 23%가 연구방향을 수정하는 등 국가 R&D 효율화의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였고, 조사결과물 제공 후 연구기획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08년)에서는 응답자의 90.2.%가 특허조사가 연구기획에 유용하게 쓰였다고 대답하였으며 85.5.%가 R&D 특허지원단의 참여로 효과적 연구기획이 가능했다고 응답하였다.

제도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2005.6. 개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됨에 따라 중장기 대형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특허동향조사 실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고, 2007년 2월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단계평가지에도 특허동향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계속과제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된 과제의 경우에도 특허동향조사를 제도화하였다.

아울러 본 사업으로 얻어진 결과물인 특허동향조사보고서는 e-특허나라 웹사이트(www.patentmap.or.kr)를 통해 일반에 모두 공개하여 이후에도 연구자들이 연구수행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IV-1-8〉 '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중간기획 시 특허동향조사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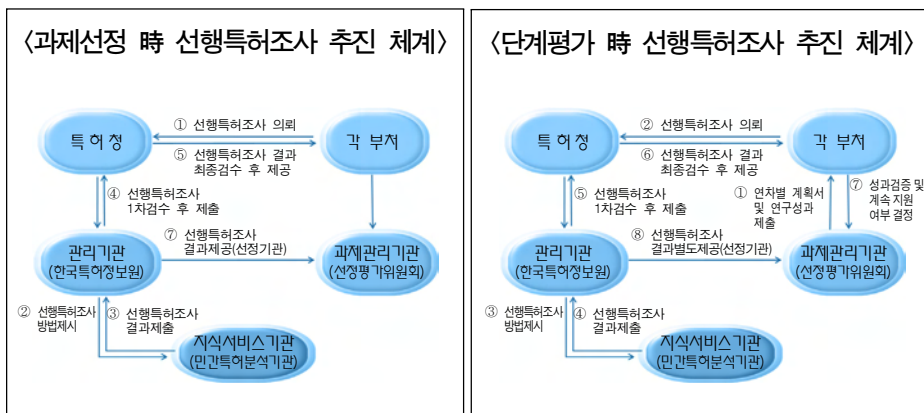
구 분	주관 부처	연구개발 사업명	사업 과제수
연구기획시 특허동향조사	지식경제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15개
		통합기술청사진	88개
		중장기산업기술개발사업	4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11개
		섬유산업간스트림협력기술개발사업	15개
		전략기술개발사업	39개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14개
		IT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36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102개
	교육과학기술부	질환중심글로벌 신약후보물질 발굴사업	11개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10개
	국토해양부	해양수산기획연구	18개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	1개
		첨단도시개발	3개
		플랜트기술고도화사업	3개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3개
	농촌진흥청	농업공동연구신규사업	1개
	방위사업청	민군검용기술개발	2개
중간기획시 특허동향조사	농림수산식품부	수의과학기술개발사업	7개
	지식경제부	전략기술개발사업	23개
	환경부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1개
8개 부처			407개

2)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단계평가 시 선행특허조사

과제선정단계의 선행특허조사는 농림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R&D 부처의 단기 소형과제에 대해 실시하며 Bottom-up 방식의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시 해당 분야의 선행특허 등을 미리 조사하여 중복 연구개발을 방지하고 특허가 가능한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각 부처는 연구과제 선정에 선행특허조사 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기간 중 15일 이상의 선행특허조사 최소기간을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 지원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이 때 특허청은 부처에서 조사의뢰한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 선행특허조사를 수행시켜 각 부처에 제공하며, 최종 선정된 과제신청기관에 보고서 형태의 선행특허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선행기술을 고려한 연구개발을 유도하는 체제로 추진되고 있다. 2006년에는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 1,888개 과제 2007년에는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등 13개 부처의 3,143개 과제에 대해서 과제수행/단계평가 시 선행특허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에는 부처의 수요에 맞춰 지원과제를 대폭 늘려 중소기업청, 환경부 등 14개 부처 4,395개 과제에 대해서 선행특허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IV-1-5〉 과제선정/단계평가 시 선행특허조사 추진 체계



이를 통해 743개 과제가 동일한 선행특허의 발견으로 과제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09년 수요 조사에서는 13개 부처에서 6,408개 과제를 신청하는 등 각 특허분석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과제선정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08년)에서는 응답자의 83.5.%가 선행특허가 과제평가에 도움이 되었으며 87.1%가 향후 선행특허조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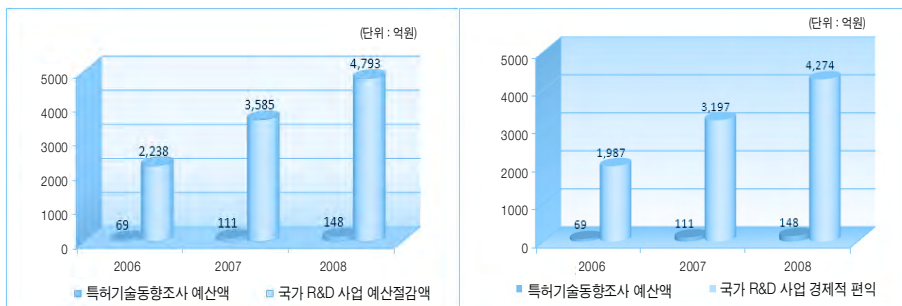
〈표 IV-1-9〉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단계평가 시 선행특허조사

구분	주관 부처	연구개발 사업명	사업 과제수
과제선정시 선행특허조사	지식경제부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73개
		IT우수기술지원사업	133개
		에너지지원기술개발사업(시범)	11개
		청정기반전략기술개발사업	69개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개발사업	28개
		Korus Tech사업	11개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219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신규)	193개
		한의약연구개발사업(신규)	24개
		국립암연구소지원기관 고유연구사업	71개
	환경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431개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79개
		수생태복원사업	12개
		폐자원 에너지화 및 on-CO2온실가스사업	19개
	국토해양부	미래해양 및 특정수산기술개발사업	41개
		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	6개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	7개
		수산중소 벤처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37개
		미래해양기술개발사업	24개
		첨단항만기술개발사업	2개
	농림수산식품부	농림기술개발사업	333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50개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2차-추가)	4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 및 무대공연기술개발지원사업	10개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44개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	28개
		CT글로벌프로젝트기술개발지원사업	1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1,590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286개
	기상청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29개
	농촌진흥청	농업특정연구개발사업	287개
	방위사업청	국방기초연구사업	39개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기술개발연구사업	30개
	산림청	임업시험연구개발사업	59개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18개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	8개
소방방재청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7개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	12개	
	방재기술연구개발	5개	
	산업화지원사업	10개	
단계평가시 선행특허조사	교육과학기술부	바이오기술개발사업(단계평가)	33개
	농림수산식품부	수의과학기술개발사업(단계)	8개
		인수공통전염병대응기술개발사업(단계)	4개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연구개발사업(단계평가)	8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단계평가)	2개
14개 부처			4,395개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서울대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R&D사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의 결과, 동일한 선행특허 발견으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07년 약3,600억, '08년 약4,800억에 이르는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08년 동 사업 실시로 향후 4,274억원의 경제적 편익(수익성 개선 효과) 발생이 기대 된다.

〈그림 IV-1-6〉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예산절감 및 경제적 편익 효과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통하여 매년 특허출원 건수가 약 2.25%가 증가하며, 특허정보 시장 육성으로 2010년에 29,000개, 2015년에는 61,000개의 이공계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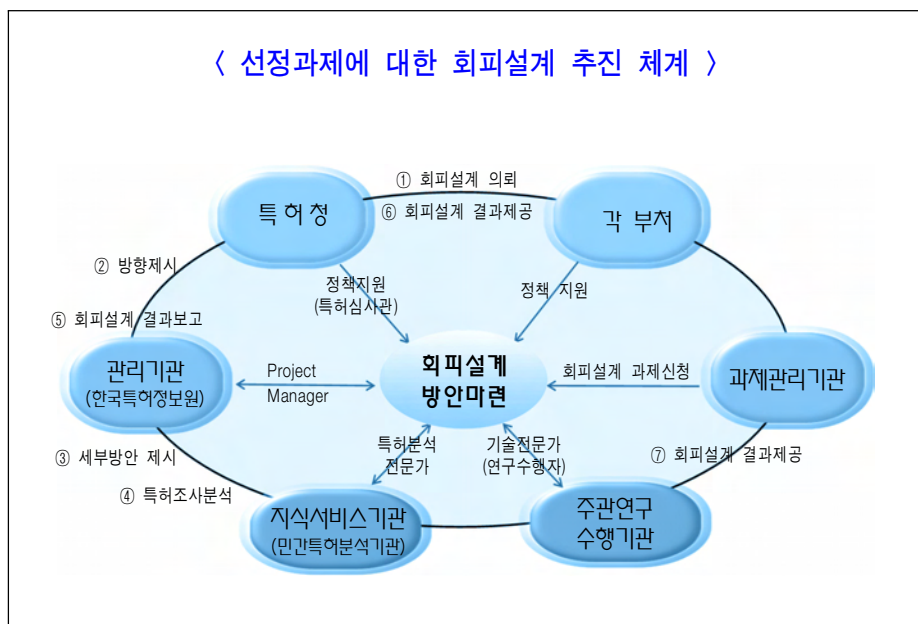
〈그림 IV-1-7〉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09년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과 과학기술자의 특허정보 활용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기술경쟁력 강화 및 국가 비전인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해 확대·추진해 나갈 것이다.

'09년 연구개발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허동향조사 실시로 연구기획 단계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과제선정 시 선행특허조사의 지속적인 실시로 국제특허 가능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 유도하며, 선행중복특허가 존재함에도 사업화 촉진 또는 국산화 개발 필요성 등으로 선정된 연구과제에 회피설계 분석을 신규지원 할 예정이다.

〈그림 IV-1-8〉 선정과제에 대한 회피설계 추진 체계



향후에도 특허청은 R&D 주관 부처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특허정보 활용 제도화(IDS)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4. 국가 R&D 특허성과관리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기술서기관 김주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연구관리전문기관별로 특허성과 수집 및 검증체계가 상이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신고에 의존하여, '08년 국가 R&D사업 조사·분석·평가를 위해 신고된 특허성과 33,149건 중 9,784건(29.5%)이 중복신고 등의 오류가 다수 발생하는 등 국가 R&D 사업의 평가가 성과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특허성과는 여전히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보유 중인 특허성과 데이터는 연구사업 단위로 관리되고 있어 세부연구과제, 참여연구인력 등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특허성과물 전담기관(특허정보원)을 중심으로 NTIS(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²⁷⁾)와 연계할 수 있는 특허성과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성과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既 보유중인 국가 R&D 특허성과의 연구사업별 데이터 정보에 세부연구과제 정보를 연결시켜 실효성 있는 분석이 가능토록 데이터 정비가 요구된다.

'03년 시범사업 이후 '05년부터 매년 국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을 수행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서('04. 12) 「국가 R&D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국가 R&D 특허성과 관리 체계화를 위해 특허출원시 과제고유번호 등을 기재토록 의결하였다.

27) 부처별·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국가 R&D 사업 관련 정보와 과학기술정보를 공유·공동 활용하기 위해 교과부 주관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

〈표 IV-1-10〉 '03년부터 특허성과 분석에 따른 DB 구축 현황

수행연도	분석 대상	DB 구축 건수
'03년	'98년~'02년 출원·등록된 특허성과	7,991건('03.12)
'05년	'04년 출원·등록된 특허성과	7,336건('05.12)
'06년	'05년 출원·등록된 특허성과	9,485건('06.12)
'07년	'06년 출원·등록된 특허성과	12,732건('07.9)
'08년	'07년 출원·등록된 특허성과	19,295건('08.11)
합 계		56,839건

제2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7. 9)에서 교과부(舊 과기부)와 공동으로 “연구성과 관리·활용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특허정보원을 특허성과물 전담기관으로 지정키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특허청 단독으로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2008년에는 제3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08.11)에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 보고하였다.

국가 R&D 특허성과와 관련된 사항을 특허청 및 재정부·교과부(舊 과기부) 소관 R&D 관련 법률 및 법령에 반영하여, 특허법 시행규칙('05. 11)에 국가 R&D 특허성과의 특허출원시 연구과제 고유번호 등을 기재토록 임의사항으로 규정하였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05. 12)에 최초로 특허가 ‘연구성과’임을 규정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7. 2, 이하 공동관리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특허출원시 과제출처 기재 의무화와 공동관리규정('08. 5)에 특허성과물 전담기관으로 「한국특허정보원」을 지정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07년 국가 R&D사업 조사·분석·평가를 위해 신고된 특허성과와 특허청의 특허데이터를 대조하여, 중복신고, 기재불비 등의 오류 데이터를 정비한 결과 '07년도 특허성과 33,149건 중 19,295건(58.2%)만 특허성과로 인정되었으며, 국가 R&D

사업의 정책 수립 및 자원배분 등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조사·분석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환류하였고, K-PEG²⁸⁾을 활용하여 '07년 등록특허의 가치평가 및 등급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별, 연구주체별, 사업별 질적 분석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국가 R&D 성과관리는 신고누락, 중복신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허출원시 R&D 출처 기재가 미흡하므로, 09년부터는 특허성과물 전달기관(특허정보원)의 특허성과종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국가 R&D 사업의 특허성과를 철저히 관리해야하며, 특허출원서에 R&D 사업 성과임을 표시토록 제도화(공동관리규정, '07.2)하였으나, 동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및 연구전담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 R&D 특허성과 분석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 주요 선진국의 특허-산업분류 연계표 현황조사 및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 개정분류의 61개 산업분야에 대해 한국특허·실용신안 출원 90여만건을 분석 자동분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계적 산업분류를 부여하여, 국제특허분류(IPC) 기준 데이터를 산업분류에 따른 데이터로 변환시키기 위한 확률표를 작성해서 주요 선진국의 특허-산업분류 연계표 적용결과의 비교분석 및 산업별 기초 통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작성된 국내외 각종 경제·산업통계를 IPC와 연계하여 특허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국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시 신규 분석항목 추가를 통해 정책 유용성 증대가 가능하다.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에서 제공한 R&D 참여 연구자 리스트와 우리청 특허데이터를 대조하여 연구자가 발명자로 포함된 모든 특허성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R&D 참여 연구자 특허성과와 국가 R&D 특허성과 DB와의 매칭을 통해 국가 R&D 특허성과 현황을 분석하여 대학·출연(연) 연구자의 소속기관명의, 개인명의, 산학연 공동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28) K-PEG(Korean Patent Evaluation and Grading)은 국내 등록특허 중 평가대상특허와 유사한 특허를 추출,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특허의 질을 비교·평가하는 특허등급평가 시스템

분석 결과, 소속기관의 특허보유현황, 개인명의 특허현황 등에 대한 통계 자료 확보 및 국가 R&D 연구성과의 미신고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이 가능했으며, NTIS에서 구축한 국가 R&D 특허성과 입력·검증 시스템은 개인명의의 특허성과 입력을 지원하지 않아, 연구자들이 개인명의 특허성과를 보유하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특허의 인용지수(Impact factor)를 이용하여 Hot Patents²⁹⁾, Next Generation Patents³⁰⁾, Co-citation Clustering³¹⁾을 활용한 미래 핵심특허 포트폴리오 모델을 발굴하여, 전문가의 지식 및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계량적 지표를 활용한 통계분석으로 객관적 예측 모델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인력 및 소요기간 단축으로 예산부담 감소 및 단기간 분석결과 도출이 가능해져 차후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 첨단부품·소재 IP-R&D 지원사업 등 특허청 주요정책사업 추진 시 미래 핵심특허 추출 모델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09년 특허성과를 중심으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시스템 구현을 위해 국가 R&D 특허성과 입력·등록시스템 구축 및 국가 R&D 특허성과 입력·등록시스템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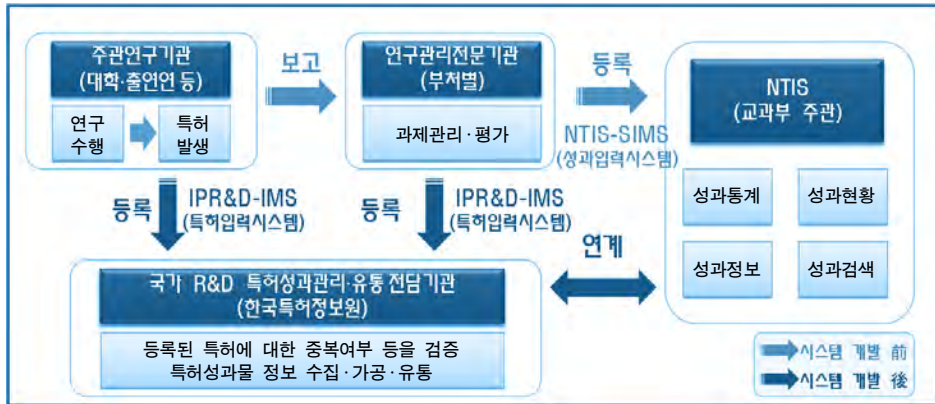
29) **Hot Patents** : Sliding Scale*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최근 인용도가 높은 고인용 특허

* Sliding Scale : 임금, 통신료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초기치와 목표치를 설정하여 매년 일정비율로 감소 또는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최근 인용도가 높은 특허 추출에 적용

30) **Next generation Patents** : Hot Patents를 인용한 최신 특허

31) **Co-Citation Clustering** : 같은 문서에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문서가 인용된 경우를 말하며 서로 다른 문서가 같은 문서에 얼마나 동시에 인용되었느냐에 따라 내용의 밀접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라이선싱이 필요한 특허를 패키지화하는데 사용

〈그림 IV-1-9〉 특허성과 입력·등록시스템 구축 前後 비교



* IPR&D-IMS(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 : 특허 입력시스템

’09년 특허성과 데이터 및 국가 R&D 사업 과제정보를 보완하는 국가 R&D 사업의 특허성과 데이터 정비를 위하여 R&D 주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03년 특허성과 및 누락된 특허성과 데이터를 구비하고 교과부와 협의를 통해 특허성과 조사·분석과 관련된 과제요약서, 참여연구원, 국제공동연구, 사업화 정보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08년 국가 R&D사업의 특허성과를 조사·분석하여 국가 R&D 특허성과 분석결과 활용 확산에 따른 특허성과 중심의 평가제도 정착을 기대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발간되는 주요 IP-R&D 관련 통계 보고서 자료를 입수·분석하여 전 세계 R&D 통계 및 특허통계 정보의 적시성 확보를 통한 국가 R&D 및 특허관련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예정이다.

’09년 특허성과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며, 특허출원 시 연구과제 출처 기재율 제고를 위해 R&D 주관부처, 연구관리전담기관, 변리사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특허출원시 과제출처 등의 기재 의무화’를 홍보하고, 특허출원시 과제출처 기재건만 성과인정 방안을 추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특허성과 입력 없이,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연구과제 출처건수로부터 출원 및 등록성과 현황 파악이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5.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공업사무관 김선아

가. 개요

R&D 특허센터(www.ipr-guide.org)는 국가 R&D 사업全过程에 걸쳐 지재권 창출·관리·활용에 관한 상담과 전략을 제시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한다는 목표 아래 2005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R&D 특허센터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에게 해당하는 특허정보를 활용한 연구제안서 작성, 연구노트 작성, 비밀정보의 관리, 논문특허전략 등 지식재산인자 20개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R&D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가 R&D 관련 온라인 상담

R&D특허센터는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연구노트작성, 연구실 특허관리 등 지식재산 전반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08년 상담건수는 전년대비 84% 증가한 647건이었다.

〈표 IV-1-11〉 '08년 상담실적 내용별 분류

상담내용	연구노트작성	연구실특허관리	논문·특허전략	지재권 소유	기타	합계
상담건수	394건 (60.9%)	122건 (18.9%)	36건 (5.6%)	20건 (3.1%)	75건 (11.6%)	647건

2) R&D 현장밀착형 지재권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연구개발결과의 질과 관련되는 지식재산 요소(지식재산인자)를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활용하도록 R&D현장에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시켜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컨설팅 수행 전 연구실의 지식재산 수준을 사전진단하여 맞춤형 지식재산교육을 제공하고, 보유특허 분석을 통해 강한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업대상은 국가 R&D과제를 수행했거나 R&D 및 특허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대학 연구실 및 연구단이며, '08년에는 50개 연구실, 2개 연구단에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08년 컨설팅을 수행한 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컨설팅이 연구방향 설정, 강한 특허 권리획득, 특허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85%, 90%, 91%에 달하는 등 사업성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적 지식재산관리 교육사업

제2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7.1)에서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에 대한 지식재산교육을 R&D특허센터가 담당키로 의결된 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연구노트 정착사업, R&D IP School, 권역별 세미나 등을 실시하였다.

가) 연구노트 정착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과학기술자에게 연구기록문화를 확산시켜 연구 노하우를 보존하고, 특허 등 연구결과 활용 시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연구노트를 정착시키기 위한 설명회를 하고 있다.

'08년에는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모두 1,476명이 교육을 받았다. 그 밖에 연구노트 온라인 교육 이수자에게 연구노트를 보급하여 총 233개 기관에 2,592부를 배포하였다. 그 결과 교육 후 KIST, 연세대, 강원대 등 많은 기관에서 연구노트 작성에 대한 내부지침을 만들고 연구노트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나) 지재권 교육 및 세미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지식재산권 관리 능력 배양 및 특허의 전략적 활용을 지원하고 연구자, 연구기관, 정부 간 상호협력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R&D IP School 2회와 권역별 세미나 4회(충청권, 경남권, 제주권, 수도권)를 개최하였다.

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

R&D 특허센터는 기술분야별 강한 특허청구범위 작성, 특허정보 활용방법 등 총 9개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09년에도 3개 교육과정을 더 개발할 예정이다. '08년 한 해 동안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전년대비 380% 증가한 4,991명에 이르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09년에는 R&D특허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식재산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지식재산관리능력을 테스트해보고 그 결과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R&D 현장밀착형 지재권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은 2008년에 이어 50개 연구실과 2개 연구단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을 더욱 내실화 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설정하는 실습을 해보고, 연구실 및 연구단의 연구 전략을 도출해볼 것이다.

특히, 2009년에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이 확산되는 환경 하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연구 시 R&D 특허전략' 교육을 시범적으로 4회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최근 늘고 있는 국내외 공동연구 시 야기될 수 있는 보안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특허정보 활용 인프라 확대

1. 고객지향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운영

정보기획국 정보기획과 공업주사보 이재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제도는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발명가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출원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따라 선진특허청은 자국의 기술보호와 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특허정보보급에 중점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특허청은 2000. 1. 1일부터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를 통하여 국내특허정보를 무료로 서비스 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특허정보 보급 촉진

특허청은 특허정보 활용확대에 중점을 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06년부터 회원가입 및 로그인과정 없이도 자유롭게 검색 가능하도록 개편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08년에는 주요대학교에 KIPRIS를 연계한 원클릭서비스를 실시하여 일반 대학생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연구소 및 일반기업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04년부터 국내특허정보를 영문화한 한국특허영문초록(KPA) 서비스를 실시하여 해외이용자들에게까지 이용의 기회를 넓히고 있으며 해외특허청과도 다양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2) 검색 및 조회정보 확대

KIPRI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초기 국내특허에만 국한되었으나 '02년 상표, 디자인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EPO 등의 해외 데이터도 영문초록('03년)을 시작으로 '06년부터 해외특허 전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계속적인 해외특허 전문서비스사업으로 '08년에는 중국특허 영문초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 및 독일데이터도 '09년에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특허간의 행정정보가 중요시 되고 있어 특허청에서는 공보정보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08년 10월 WIPO와의 연계를 통한 행정진행정보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EPO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09년)시켜 나아갈 방침이다. 이밖에 '09년부터 DOC DB Family 정보를 구축하여 국제 Family정보까지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3) 보급 및 사용방법 개선

이러한 데이터의 규모확대와 더불어 데이터 보급 및 사용방법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번역서비스도 제공('07년)하게 되었으며 공보발행후 데이터 탑재소요기간도 꾸준히 단축하여 '05년 3일에서 2일로 단축한데 이어 '06년에는 1일, 급기야 '08년 7월부터 공보발행 당일 탑재할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최신의 특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그간 성과

이러한 특허정보 활용 확산 정책에 따라 KIPRIS 이용량도 해마다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KIPRIS 이용 지표로 삼고 있는 연간 검색횟수를 살펴보면, 2001년 88만 회에 불과했으나, 2002년 203만 회, 2004년 686만 회, 2006년 11월 사상 최초로 연간 검색횟수 1,000만 회를 넘어서 2008년에는 1,870만 회에 이르렀다. 특허정보는 단순히 내용수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연구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침으로 비중과 중요도가 날로 증가해 감에 따라 향후에도 KIPRIS를 이용하는 이용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향후 KIPRIS는 “개방”, “공유” 그리고 “유통”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종합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하여 서비스지향형 구조(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07년 3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상표정보대상 서비스지향형 웹서비스(KIPRISPlus)와 앞서 언급한 원클릭서비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09년에는 이용자들이 KIPRIS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본격적인 개방형 웹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및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일반국민들이 지식재산권 정보를 신속·정확하고, 손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객의 요구를 수렴하여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표 IV-1-12〉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제공정보 현황

(2008. 12월 현재)

구 분		제 공 범 위	제공건수(천건)
국내	특허	서지, 초록, 대표도면, 공보전문, KPA	9,941
	실용신안	서지, 초록, 대표도면, 공보전문	3,432
	디자인	서지, 육면도, 공보전문	4,399
	상표	서지, 상표이미지, 공보전문	4,981
	기타	행정처리·등록사항, 심판사항(심결문포함)	9,013
	소계	-	31,766
해외	미국특허	서지, 초록, 대표도면, 전문	11,573
	유럽특허	서지, 초록, 대표도면, 전문	4,031
	일본특허	서지, 초록, 대표도면, 전문	17,976
	PCT	서지, 초록, 대표도면, 전문	3,086
	소계	-	36,666
계			68,432

〈표 IV-1-13〉 연도별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사용자 현황

(2008. 12월 현재)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KIPRIS 사용자 등록현황 (명, 신규 가입자)	대기업	10,919	9,736	10,135	10,139	7,612	2,480	926	221	253
	중소기업	23,900	23,626	18,512	17,129	14,126	8,832	3,594	905	886
	변리사	760	372	400	315	308	68	16	10	17
	연구소	3,812	3,449	2,593	2,387	2,424	2,473	1,119	430	410
	개 인	70,034	64,352	61,332	64,388	55,785	21,095	7,863	3,052	2,018
	기 타	10,449	16,544	13,444	13,883	31,447	89,220	36,953	6,295	7,260
	합 계	119,874	118,079	106,416	108,241	111,702	124,168	50,471	10,913	10,844
KIPRIS 검색횟수 (천회)	기간별 (증가율)	879 -		2,033 (131.4%)	5,514 (171.2%)	6,858 (24.4%)	9,242 (34.8%)	13,049 (41.2%)	16,107 (23.4%)	18,699 (16.1%)
홈페이지 방문횟수 (천회)	기간별 (증가율)	1,601 -	3,279 (104.8%)	3,765 (14.8%)	4,104 (9.0%)	4,220 (2.8%)	4,429 (4.9%)	7,808 (76.3%)	11,214 (43.6%)	15,914 (41.9%)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제1절 기초·원천특허 창출기반 조성

1. 대학 중점연구분야의 특허정보 분석 지원 확대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공업사무관 이아연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통한 공공부문의 R&D 효율화가 국가혁신 및 산업경쟁력 강화의 요체로 대두되면서, 기술혁신의 핵심주체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은 2007년도 국가 총 R&D투자의 10.7%를 사용하고, 박사급 연구인력의 69.0%를 보유하고 있으나, 내국인 전체 특허출원건('03~'07년)중 점유율은 '07년 기준 5.2%에 불과하여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잠재역량 대비 특허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표 IV-2-1〉 연구개발비 및 박사급 연구인력 현황('07년)

구 분	대 학	공공연구기관	기 업	계
사용 연구개발비 (점유율)	33,341억원 (10.7%)	41,024천억원 (17.3%)	238,649억원 (76.2%)	313,014억원 (100%)
박사급 연구인력 (점유율)	50,689명 (69.0%)	10,498명 (14.3%)	12,319명 (16.8%)	73,506명 (100%)

* 자료 : 2008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교과부)

〈표 IV-2-2〉 특허출원건수 및 점유율('03~'07년)

구 분	'03	'04	'05	'06	'07
대 학	1,692건 (1.9%)	1,962건 (1.9%)	2,905건 (2.4%)	4,391건 (3.6%)	6,486건 (5.2%)
공공연구기관	3,185건 (3.6%)	3,479건 (3.4%)	4,453건 (3.7%)	5,592건 (4.5%)	6,418건 (5.1%)
기 업	63,918건 (71.9%)	76,970건 (74.4%)	90,671건 (74.4%)	87,749건 (71.2%)	82,390건 (65.6%)

* 자료 : 한국의 특허동향 2007

대학과 공공(연)은 R&D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역량이 부족하여 연구개발전과정이나 연구개발 활동에 앞서 선행특허정보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기관의 비율은 27.0%(기업 56.4%)에 불과하며, 기관 차원에서 연구자들에게 특허정보를 조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율도 51.7%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R&D 관련 지재권제도 및 정보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이 미흡하여, 일부 선도기관을 제외하고는 연구과제 기획, 선정, 협약체결 및 사후관리 등 국가R&D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특허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지식재산 마인드 부족은 특허와 연계된 R&D 활동의 부진을 낳고, 이는 결국 국가연구개발 사업 특허성과 부진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여전히 논문 위주의 연구실적 평가로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 유인이 미흡한데, 교원업적평가시 산학협력지표에 대해서 SCI논문 반영점수대비 평균 반영비율을 산출한 결과, 국내 특허등록에 SCI 논문대비 평균 22%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연구업적평가시 논문위주의 평가로 특허성과가 저평가되고 있다(2007 대학산학협력백서, 학술진흥재단).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8년 한 해 동안 특허청은 대학의 중점 연구분야에 대한 특허 3극의 특허정보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의 특허 성과 창출 및 경쟁력 있는 기술혁신을 지원하였다. 또한 특허정보 분석과정에 대학의 연구원을 참여시키고 연구실 맞춤형 특허세미나를 제공함으로써 특허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였다.

대학뿐 아니라 특허청, 특허정보분석기관, 관리기관의 4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전문적인 분석 실시 및 기술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에, 서울대, KAIST, 연대, 고대, 포항공대 등 16개 대학(20개 과제)을 대상으로 특허분석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서울대, KAIST 등 22개 대학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개 공공(연) 등을 대상으로 40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특허분석 이후 총 633명(상반기 200명, 하반기 433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제도 일반 및 청구범위 해석방법, 특허정보 검색 및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지식재산 창출 기반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특허분석지원사업 전·후 특허정보 참조비율은 12.57%에서 35.29%로 약 2.8배(22.72%) 향상되었으며, 사업 참여 전·후 연구원의 지식재산 관련 지식 향상 정도는 64.91%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5월 성과측정 결과 특허맵이직·간접적으로 활용된 연구과제는 총 32건이며, 연구비는 총 28,815백만원 정도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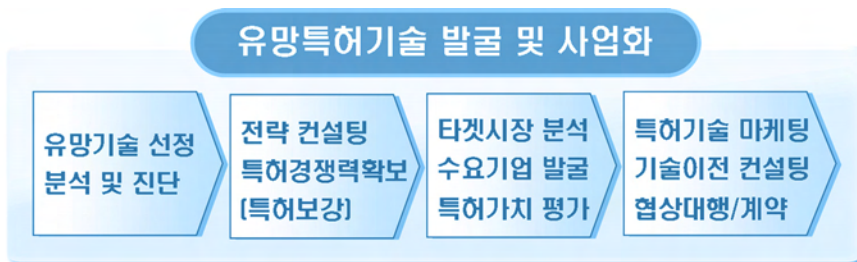
또한, 특허맵 지원사업에 따른 신규적인 연구주제발굴은 총 25건, 연구과제방향 수정은 4건이었으며, 진행 중인 과제가 이미 특허문헌상에 나타남으로 인해 중복연구과제를 기각한 것은 3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3건의 중복연구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365백만원으로서, 이번 특허맵 지원사업을 통해 3개의 연구실에서는 1,365백만원의 중복연구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를 위하여 특허정보 분석 지원을 통하여 효율적인 R&D 성과 창출을 도모하였으나, 특허분석 뿐 아니라 특허보강 및 사업화 지원까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2009년에는 ‘유망특허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우수기술 선정 후 특허분석, 전략수립, 특허보강, 특허가치평가, 수요기업 발굴 및 마케팅에 이르는 전(全) 단계의 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 IV-2-1〉 유망특허기술 발굴 및 사업화



2. 직무발명제도 정착 촉진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방송통신사무관 유선중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세계경제가 지식과 기술이 국부창출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 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하는 가운데 핵심·원천기술의 확보 여부는 국가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생존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핵심원천기술은 조직화된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고도로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prior art)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개인발명가에 의한 발명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의한 직무발명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발명 건수가 2002년도 10만건 수준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17만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표 IV-2-3〉 최근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추이

(단위 : 건, %)

구 분	'02	'03	'04	'05	'06	'07
개인발명(A)	19,662	21,275	22,104	24,368	27,062	32,189
직무발명(B)	86,474	97,377	118,011	136,553	139,127	140,280
계(C)	106,136	118,652	140,115	160,921	166,189	172,469
직무발명 비중(B/C)	81.5%	82.1%	84.2%	84.9%	83.7%	81.3%

* 출처 : 2008년도 지식재산 주요통계

이러한 수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개발예산 추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표 IV-2-4〉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 추이

(단위 : 10억원, %)

구 분	'02	'03	'04	'05	'06	'07
총연구개발비	17,325.1	19,068.7	22,185.3	24,155.4	27,345.7	31,301.4
공공연구기관 ³²⁾	2,552.6	2,626.4	2,964.6	3,192.9	3,497.1	4,102.4
대 학	1,797.1	1,932.7	2,200.9	2,398.3	2,721.9	3,334.1
기업체	12,975.4	14,509.7	17,019.8	18,564.2	21,126.8	23,864.9

* 출처 : 2008년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과학기술부)

32) 국공립연구기관(국공립시험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 의료기관(국공립병원 + 사립병원) + 기타비영리연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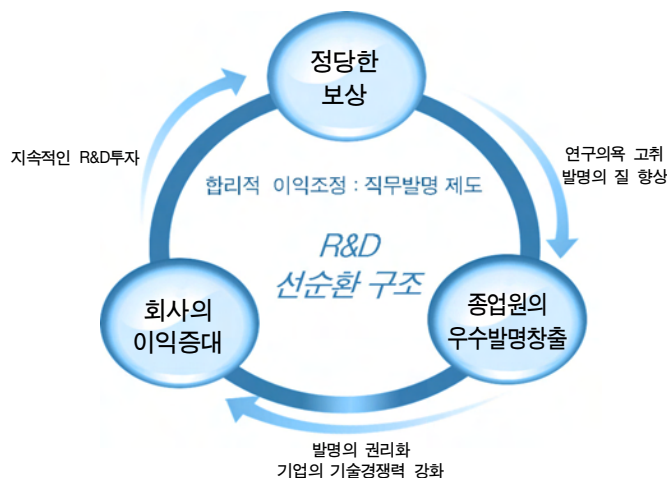
따라서 각 연구주체별로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을 어떻게 제도화시키고, 육성하는가의 문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21세기 세계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발명 및 신기술개발의 창출주체가 종전의 개인중심에서 대학, 연구소, 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원, 대학교수, 기업체 종업원, 공무원의 연구개발 및 발명의욕을 장려하기 위해 직무발명제도를 여하히 운용하는가 하는 부분이 국가와 기업 등의 중요한 지식재산전략으로 대두하고 있다.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즉, 연구개발(R&D)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와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 상생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에게 지식재산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종업원에게는 권리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및 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림 IV-2-2〉 직무발명제도 메카니즘



나. 추진내용 및 성과

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 주요 연구개발 주체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직무발명 설명회를 '08년 ³³⁾53회를 실시, 연인원 ³⁴⁾1,610명이 참여하였다. 청내 심사관으로 구성된 '직무발명연구회'와 직무발명제도에 해박한 '재산경영지원팀'의 직원을 강사로 활용하여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설명회 형식을 탈피하여 「지식재산 CEO 포럼」 및 「기업 최고경영자 과정」 등에서 특강을 하거나 전국 29개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한 지역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활용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려고 노력하였다. 설명회 참가 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도입검토중인 기업이 전체의 75.38%를 보여, 설명회가 기업의 인식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IV-2-3〉 충남지식재산센터(5.27)



〈그림 IV-2-4〉 연구담당자교류회(9.25)



기업·대학 등 정책고객 유형과 고객별 직무발명제도 실시수준을 고려하여 고객수준별 맞춤형 홍보자료를 제작·보급하였다. 직무발명 설명회 및 실태조사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개정 직무발명제도 소개 자료인 「기업 및 대학용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 「직무발명 보상 가이드라인」, 「산학공동계약 가이드라인」 등을 업데이트하였다. 더불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직무발명제도 설명자료

33) 설명회 개최건수 : ('06) 33회 → ('07) 38회 → ('08) 53회

34) 설명회 참여인원 : ('07) 711명 → ('08) 1,610명

를 추가로 제작하였다. 외국기업 및 합작기업 등의 국내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영문판 직무발명 표준모델」, 기업의 노하우·영업비밀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보호 방안 제시를 위해 「선사용권의 올바른 활용방법」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직무발명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정책우대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우수특허사업화 패키지 사업」 지원 대상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가점부여 및 중소기업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 대상시 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 또는 지식재산 전담부서 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부여요건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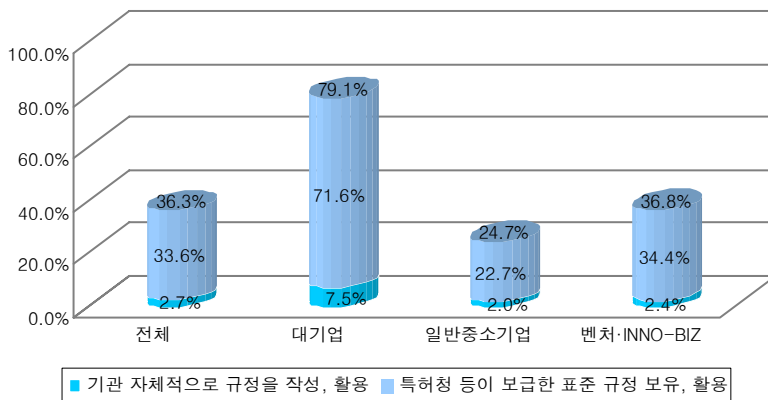
대학교수들이 좋은 기술은 개인명으로 출원하고, 산학협력단에는 주로 실적평가용 저품질의 발명을 신고하여 국가 R&D사업의 결과물이 개인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대학 직무발명 위반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하여 교과부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술연구진흥재단의 이공계 교수 DB를 기준으로 대학교수 출원 실태조사 결과와 각 대학 산학협력단 보유 특허와의 Cross Check를 통해 교수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개인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추후 대학교수의 직무발명 인식제고 및 제도를 통하여 정해진 자진신고기간에 반환 축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홍보 메시지를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홍보하였다. “직무발명의 도입이 곧 기업의 생존전략이다” 라는 취지로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에게 직무발명보상 미실시로 인한 연구원의 연구의욕 저하에 따라 기업경쟁력 약화, 기술유출발생, 핵심인력 이직 등 기업의 생존과 직결됨을 설득하며, 발명자(종업원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연구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홍보하였다. 직무발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발명가와 잠재적인 발명가(발명 꿈나무)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직무발명 활성화로 이공계 인재를 국가의 핵심중추로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함을 강조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36.3%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화하면 특허청 등 관련기관이 작성하여 보급한 표준화 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33.6%로 나타났고, 기관 자체적으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2.7%로 나타났고, 2007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2.0%p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5〉 직무발명 보상 규정 보유·활용 비율



* 출처 : 2008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표 IV-2-5〉 직무발명 보상실시율

연 도	05년	06년	07년 ³⁵⁾	08년 ³⁶⁾
실시율	20.1%	32.3%	38.3%	36.3%

* 출처 : 2008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35) '07년 실태조사의 경우, R&D활동을 하고 있는 10,0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함

36) '08년 실태조사의 경우, R&D활동을 하고 있는 11,29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함

세부적으로 기업별 직무발명통계를 살펴보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대기업이 79.1%로 가장 높으며, ³⁷⁾벤처·³⁸⁾INNO-BIZ 기업 36.8%, 일반 중소기업이 24.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화하면 기관 자체적으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대기업 7.5%, 일반 중소기업 2.0%, 벤처·INNO-BIZ 기업 2.4%로 조사되었고, 특허청 등 관련기관이 작성하여 보급한 표준화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대기업 71.6%, 일반 중소기업 22.7%, 벤처·INNO-BIZ 기업 34.4%로 나타났다.

〈표 IV-2-6〉 직무발명 보상 유형별 실시율

보상종류		'08년	보상금액		'08년
발명제안보상		20.3%	발명제안 보상금		56.4만원
³⁹⁾ 출원보상	국내	28.4%	출원보상금	국내	41.5만원
	해외	18%		해외	36.0만원
⁴⁰⁾ 등록보상	국내	28.8%	등록보상금	국내	74.7만원
	해외	18.7%		해외	79.6만원
실시보상	⁴¹⁾ 자사	13.4%	실시보상금	자사	수입금의 8.44%
	⁴²⁾ 타사	10%		타사	수입금의 6.92%
⁴³⁾ 처분보상		9.7%	처분 보상금		수입금의 5.90%

* 출처 : 2008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37) 사업의 위험성이 높으나, 성공시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생기업

38)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기술혁신시스템 구축)

39) 종업원이 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출원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

40) 사용자가 승계하여 출원한 발명이 특허등록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

41) 특허 등을 받은 직무발명을 자사에서 직접 실시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

42) 직무발명 특허 등을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실시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

43)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

직무발명 보상 유형별 실시율로 보면 국내 특허의 출원 및 등록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이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28%를 차지하였고, 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은 18%를 차지하였다. 직무발명 보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시 보상과 처분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개정 직무발명제도 인지정도

	전체	대기업	일반 중소기업	벤처· INNO-BIZ
개정된 내용 전부를 알고 있음	6.0%	27.1%	3.0%	4.3%
개정된 내용의 일부를 알고 있음	15.8%	24.1%	14.1%	15.7%
개정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음	30.7%	21.8%	29.9%	33.6%
전혀 알지 못함	47.5%	27.0%	53.0%	46.4%

* 출처 : 2008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또한, '06년도 개정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개정 내용 전부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대기업이 27.1%로 가장 높으며, 벤처·INNO-BIZ 기업 4.3%, 일반 중소기업이 3.0%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 벤처 기업의 직무발명 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개정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과 벤처·INNO-BIZ 기업의 비율은 각각 53.0%와 4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기술·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보다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찾아가는 직무발명 설명회를 확대 개최 및 내 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CEO가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 전환을 유도하여 자발적 실시를 통해 직무발명 보상 실시율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전국 대학(원)생 직무발명 창작만화 공모전」 개최를 통한 우수작품을 이용하여 만화 홍보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적극 홍보하여 정당한 직무보상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3. 국유특허권의 활용촉진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임성택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이 직무발명에 따라 국가가 승계하고,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이하 “국유특허”라 한다)를 말하며,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72.12.14 공포)하면서 국유특허제도를 도입하였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공무원(국·공립대학 내에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대학 교직원(제외)이 그 직무에 관한 발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 또는 공유(公有)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명진흥법 제10조 제4항은 국유로 된 특허권 등의 처분에 대해 특허청장이 처분 또는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특허청은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직무발명에 의해 국유특허로 등록된 경우에는 발명자인 공무원에게 등록보상금을,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통한 발명의 실시로 처분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국유특허권을 처분한 1년간의 처분수익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수익금을 기준으로 발명기관에 기관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유특허권의 등록현황

'08년 12월말 기준으로 국유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포함)는 총 1,929건이 등록되어 전년도 대비 약 10% 정도 증가하였다. 전체 등록건 중 특허가 77%로 가장 많고, 실용신안권이 15.1%를, 디자인권은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등록 국유특허도 2.1%로 40건을 보유하고 있다.

'08년에 신규로 등록된 국유특허는 255건으로 '07년 215건에 비해 약 19%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특허권은 전년대비 21.5%가 증가를 하였다.

〈표 IV-2-8〉 연도별 국유특허권 보유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신 규 등 록					소멸 및 이전	누 계				
	특허	실용	디자인	해외 특허	계		특허	실용	디자인	해외 특허	계
'93	6	1	4		11	1(특)	20	9	5	-	34
'94	8	1	-	-	9		28	10	5	-	43
'95	3	4	-	-	7		31	14	5	-	50
'96	15	2	1	-	18		46	16	6	-	68
'97	38	8	4	2	52	1(특허)	83	24	10	2	119
'98	100	16	2	2	120		183	40	12	4	239
'99	101	14	13	2	130	5(실4,디1)	284	50	24	6	364
'00	111	52	24	3	190	2(특1,실1)	394	101	48	9	552
'01	122	41	18	4	185	5(실3,디2)	516	139	64	13	732
'02	149	45	25	6	225	6(특1,실3,디2)	664	181	87	19	951
'03	153	36	11	2	202	61(특50,실9,디2)	767	208	96	21	1,092
'04	171	54	6	2	233	30(특21,실6,디3)	917	256	99	23	1,295
'05	147	31	4	5	187	75(특51,실24)	1,014	263	103	28	1,408
'06	163	44	7	9	223	49(특35,실14)	1,142	293	110	37	1,582
'07	198	10	6	1	215	38(특18,실12,디8)	1,322	291	108	38	1,759
'08	223	15	15	2	255	38(특18,실12,디8)	1,478	291	120	40	1,929

2) 국유특허권의 활용 현황

국유특허권의 활용이란 등록된 국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매각,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여 민간기업 등이 국유특허기술을 활용케 하는 것을 말한다.

국유특허권의 활용을 위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실시한 건수는 '06년 206건, '07년 253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08년도에는 총 271건의 유상 또는 무상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총 7.2억원의 실시료 수입을 기록하였다.

〈표 IV-2-9〉 연도별 국유특허권 실시현황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실시허락(건)			실시료 수입
		등록	출원중	계	
'94이전		6	-	6	30,760
'95		4	-	4	8,129
'96		5	-	5	1,224,138
'97		5	-	5	5,345
'98		18	-	18	87,806
'99		24	-	24	92,209
'00		36	-	36	67,320
'01		62	49	111	313,074
'02		57	29	86	279,116
'03		53	42	95	315,170
'04		82	59	141	376,130
'05		98	63	161	486,212
'06		149	57	206	635,629
'07		193	60	253	574,213
'08		162	109	271	717,709
계		954	468	1,422	5,212,960

3) 국유특허권의 직무발명보상금의 확대 지급

공무원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국유특허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04.12월)하여 '05년부터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하는 처분보상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종전 처분보상금은 등록된 권리나 출원중인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 수입금을 기준으로 10%~30%를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일괄적으로 처분수익금액의 50%를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08년에 처분보상금으로 213건에 대해 2억 4천여만원을 지급, 신규 등록보상금으로 264건에 대해 1억 1천 3백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그 동안 총 3,018건에 대하여 24억 6천 9백만원을 공무원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표 IV-2-10〉 국유특허 등록·처분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원)

구분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	
	지 급 건 수	지 급 액	지급 건수	지 급 액	지급 건수	지 급 액
'92	3(특허)	3,000,000	1	602,060		
'93	10(특5, 실1, 디4)	6,700,000	1	3,615,300		
'94	9(특8, 실1)	8,500,000	4	2,209,200		
'95	6(특3, 실3)	4,500,000	4	2,025,840		
'96	18(특15, 실2, 디1)	16,300,000	5	125,703,830		
'97	39(특28, 실8, 디3)	32,900,000	5	1,471,320		
'98	32(특26, 실3, 디3)	27,350,000	2	603,210		
'99	114(특96, 실18)	103,050,000	13	13,097,560	1	1,000,000
'00	166(특129, 실15, 디22)	133,339,900	29	26,095,680	4	4,000,000
'01	231(특157, 실45, 디29)	145,059,000	67	42,355,450	2	2,000,000
'02	193(특148, 실20, 디25)	93,162,000	111	113,594,710	12	16,000,000
'03	106(특87, 실4, 디15)	44,290,000	72	63,138,260	7	11,000,000
'04	117(특109, 실7, 디1)	48,647,500	114	75,482,310	6	14,000,000
'05	148(특125, 실21, 디2)	58,724,850	111	129,488,650	-	-
'06	193(특168, 실16, 디9)	74,759,980	232	335,879,130	10	22,000,000
'07	103(특94, 실7, 디2)	44,235,000	212	212,498,350	14	31,000,000
'08	264(특230, 실17, 디17)	113,237,000	213	240,672,000	14	22,000,000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국유특허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발명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발명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국유특허 활용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유특허기술 목록 및 기술내용 등을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와 IP-Mart(<http://www.ipmart.or.kr>)에 공개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활용 국유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06년에는 3년이상 장기 미활용 특허의 무상실시 제도를 도입하였고 '07년에 100건, '08년에는 200건의 장기미활용 국유특허권의 가치평가를 실시하였다.

향후에는 국유특허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업무를 기술내용 및 시장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발명기관 및 전문기술이전기관으로 이관하고, 특허기술의 활용가치가 낮은 국유특허에 대해서는 존속기간 만료전에 퇴출(소멸)할 수 있도록 2009년도에 발명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절 지식재산 관리역량 제고

1. 특허전문가 파견 확대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공업사무관 이아연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연구성과의 민간이전 등 지식재산의 활용실적은 개선 추세이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27.4%(’07)로 ’06년(21.4%)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구체적으로 대학 15.3%(’06년 13.6%), 공공연구기관 42.4%(’06년 26.3%)로 대학이 훨씬 저조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2-11〉 기술이전율 현황

구 분	’07년			’07년까지 누계		
	신규확보기술	기술이전	이전율	보유기술	기술이전	이전율
공공연구기관	5,672건	2,407건	42.4%	32,664건	9,232건	28.3%
대 학	7,003건	1,070건	15.3%	23,094건	3,259건	14.1%
합 계	12,675건	3,477건	27.4%	55,758건	12,491건	22.4%

* 자료 : 2008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실적 조사(지경부)

기술료 수입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893억원, 대학은 164억원(’07)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료 수입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R&D 생산성(연구개발비 투입대비 기술료수입 비율, ’06년)은 대학 0.3%, 공공연구기관 2.3% 수준으로 미국 대학 4.8%, 공공연구기관 8.2%(’05년 기준)에 비해 크게 저조한 현황을 보이고 있다.

〈표 IV-2-12〉 기술료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2년누적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 계
공공연구기관	379,443	46,846	53,313	61,853	74,017	89,342	704,814
대 학	11,191	2,250	3,177	6,878	8,002	16,415	47,913
합 계	390,634	49,096	56,490	68,730	82,030	105,757	646,980

* 자료 : 2008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실적 조사(지경부)

이와 같이 기술이전 성과가 저조한 주요 이유는 대학·공공(연)의 전문적 지식재산관리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을 들 수 있는데, 2006년 조사에 따르면 특허관리전문인력이 기관당 평균 각 1.5명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은 연평균 1.9억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직 및 인적구성의 한계로 기술이전 활성화의 핵심요소인 전담인력과 연구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한 상황이며, 대학명의 출원과 보유특허 증가에 따른 특허경비 급증 및 특허전략 부재로 적절한 검증절차 없이 특허를 포기하는 등 대학의 평균 특허보유기간은 4.6년, 보유특허의 유지·포기관련 규정 및 절차가 없는 대학은 37%(대학 및 연구소 특허관리실태 조사, '05.10)를 나타내고 있어서, 향후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의 출발점인 발명신고의 형식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평가체제 미비로 효과적인 기술마케팅 전략 수립이 곤란하고 체계적인 기술이전기반 구축을 위한 내부 업무프로세스가 미정립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발명신고시 발명관심 예상기업, 경합연구 등 기술마케팅 관점의 정보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06년부터 특허전문가를 파견하여 인프라 구축 및 체제 정립을 지원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특허관리어드바이저 파견 사업 확대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는 각 대학에서 직무발명규정 정비, 지재권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학내 지식재산 가치 극대화를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수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재권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산학협력단 전담직원 및 교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재권 상담 및 자문제공 등을 통해 대학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표 IV-2-13〉 특허관리어드바이저 파견대학

파견연도	파견대학 (총 20개)
2006년 (7개 대학)	KAIST, 충북대, 호서대, 전남대, 전북대, 인하대, 강릉대
2008년 (13개 신규 파견 대학)	포항공대, 경북대, 울산대, 창원대, 경상대, 강원대, 원광대, 성균관대, 제주대, 중앙대, 아주대, 조선대, 인제대

특히, 어드바이저들은 대학 지재권 관리역량 제고 외에 해당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여 수익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는데, 2008년에는 총 136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30억원에 가까운 기술료 수입을 올려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활용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산학연 인력 POOL을 구축하여 지자체, 특허정보 및 사업화 컨설턴트, 기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수요나 기술이전관련 정보교류에 적극 매진함으로써 지역혁신주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표 IV-2-14〉 특허관리어드바이저 파견 성과

창출	- 연구개발전 선행기술조사비용 : 94% (국공립대학평균 73.9%, 사립대학평균 52.6%) - 연평균 특허출원증가율 : 45.3% (대학평균 33%)
관리	-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특허관리 매뉴얼 보급률 : 100% - 연평균 특허등록증가율 : 64.1% (대학평균 49%)
사업화	- 특허기술사업화 증가율 : 34.5% (대학평균 : -14%) - 기술이전액 증가율 : 27.1% (대학평균 : 17%)
만족도	대학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사업 만족도 : '08년 81.6점 (대학 내 교수 및 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2) 특허전략전문가 파견사업 실시

핵심적인 첨단기술분야의 기술전문성과 특허전문성을 갖추고, R&D 경력과 지재권 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채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단에 파견함으로써 연구성과물을 ‘강한 특허’로 권리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2008년에 시범 추진하였다.

IT와 NT 분야의 특허전략전문가 2명을 선발하여 KIST, 연세대, 경상대, 중앙대 총 4개의 사업단에 파견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R&D의 효율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그림 IV-2-6〉 특허전략전문가 파견사업 개요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06년부터 실시 중인 특허관리어드바이저 파견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돌입하고, 2008년 시범 실시한 특허전략전문가 파견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딸 파견대학 및 연구단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20명)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상호 보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20개 이상의 대학으로 지원 받는 대상을 확대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2009년부터 특허관리어드바이저를 지역 거점형 파견방식으로 전환하여 개별대학 뿐 아니라 인근대학에 동시 지원함으로써 중소규모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범권역적 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개별대학의 업무 뿐 아니라 어드바이저가 파견된 타 대학의 전공분야 관련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허관리어드바이저와 특허전략전문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장·단기적 전략 수립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 지식재산관리역량 진단 및 컨설팅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공업사무관 이아연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특허 등 연구성과물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국가 R&D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64%인 반면, 같은 기간동안 국가 R&D 주요 수행기관인 대학의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은 49.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우수 연구성과의 창출 이외에 창출된 연구성과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및 공공(연)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수준은 해외 우수 연구기관 대비 45.8%에 불과하여 연구성과물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에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해서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관리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었고, 이를 위해 제2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7.9.)에서 「연구성과(특허분야) 관리 역량 평가」를 추진키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대학·공공(연)의 자발적인 지식재산 관리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활용성과(연구개발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역량 평가 방안을 수립하였다.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관리역량을 측정하는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신청기관의 지식재산관리역량을 진단·분석하고, 그 결과 진단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관에는 지식재산관련 정부지원사업 등에 우대조치를 하고자 하였다.

〈표 IV-2-15〉 지식재산관리역량 평가 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IP 창출(창출지원)	IP 보호(권리화·유지)	IP 활용(이전·사업화)
기반(체계화)	각 부문별 조직, 인력, 예산, 규정, 기초정보시스템 측정		
운영(전략화)	각 부문별 교육 및 4가지 핵심활동 측정		
성과(효율성)	각 부문별 양적, 질적 활동성과 측정		

평가 모형은 IP 창출·보호·활용 역량별 투입과 산출의 연관성을 고려한 환류구조 모형으로 대학·공공(연)의 IP 창출역량, 보호역량, 활용역량 부문별로 기반, 운영, 성과를 측정하는 총 42개 평가항목과 82개 세부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절차는 대항목(기반, 운영, 성과)별로 측정한 점수와 그 점수의 합계인 부문(창출, 보호, 활용)별 총점을 활용하여 피평가기관의 IP 관리역량을 평가한다.

〈표 IV-2-16〉 지식재산관리역량 평가 절차

단계 (1)	창출, 보호, 활용부문별 각 평가항목의 점수 산출	
	○ 기반, 운영, 성과 각각 100점, 부문별 총점 300점 만점(전체 총점 900점 만점)	
단계 (2)	항목별 점수를 활용한 부문별 IP 관리수준 측정	
	○ 대항목(기반, 운영, 성과)별 점수와 부문별 총점을 기준으로 부문별 관리수준 측정	
구분	평점 기준	부문별 IP 관리 수준
A	각 대항목별 70점 이상 & 총점 240점 이상	완성단계
B	각 대항목별 50점 이상 & 총점 180점 이상	고도화 단계
C	각 대항목별 20점 이상 & 총점 90점 이상	기초단계
D	각 대항목별 20점 미만 또는 총 평점 90점 미만	미흡단계
단계 (3)	부문별 관리수준을 활용한 개별기관의 IP관리역량 평가	
	○ 부문(창출, 보호, 활용)별 점수와 전체 점수를 기준으로 기관의 IP관리역량 평가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국내 주요 대학 및 공공(연)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허관리역량을 진단한 결과, 특허관리 전문성이 높은 기관일수록 건당 기술료 수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특허관리 전문역량과 기술료 수입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주요 대학 및 공공(연)의 특허관리 전문역량은 전반적으로 특허관리 기초 역량 및 특허의 활용역량에 비해 제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특허관리 분야에서의 현상 진단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IV-2-17〉 주요 대학·공공(연) 특허관리역량 점수(평균)

구 분	배점	대학		연구소		전체	
		평점	도달률(%)	평점	도달률(%)	평점	도달률(%)
기초적 특허관리	24.7	14.49	58.7%	14.51	58.7%	14.50	58.7%
전문적 특허관리	38.6	10.59	27.4%	13.27	34.4%	11.93	30.9%
안정적 특허활용	36.7	19.63	53.5%	19.13	52.1%	19.38	52.8%
합 계	100	44.71	44.7%	46.91	46.9%	45.81	45.8%

* 자료 : 주요 대학·공공(연) 특허관리역량 진단결과, 특허청('07.7)

* 주 : **기초적 특허관리란**, 특허의 효율적인 권리화를 지원하는 반복적이고 행정적인 활동
전문적 특허관리란, 사업화 가능성이 우수한 유효특허 위주로 특허를 보유·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활동
안정적 특허활용이란, 특허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활동

따라서 대학·공공(연)에 대하여 지식재산역량 지표를 통한 정량화로 기관의 역량을 진단하고 집중 개선분야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특허관리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관리어드바이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관리역량을 측정하는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지표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어드바이저가 직접 대학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 및 전략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제3절 지재권 정책강화기반 조성

1. 지식재산정책 연구 강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행정주사 김설규

가. 추진배경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업경영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시의성 높은 국가 지식재산정책 수립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파악에 대한 내·외부 고객의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나. 추진내용

국가의 중장기적 지식재산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특허청 내부 수요조사, 학계·기업의 수요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제 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업재산권과 컴퓨터프로그램, 지리적 표시 등 신지식재산권의 대두에 따른 법·제도 연구,
- 과학기술, 통상, 중소기업, 인재육성, 국민보건 등 국가 주요 정책과 특허정책의 연계를 위한 정책 연구,
-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지식재산 협력방안 연구를 통해 남북한 지식재산교류 및 협력 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
- 주요국의 지식재산관련 법령·제도 및 정책동향 등을 분석하여 정부의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연구,
- FTA체결 이후 국내외 환경변화와 국가 지식재산 대응전략 수립 등을 위한 정책 현안 연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연구주제를 선정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외부 연구원(기관)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연구용역 추진절차 및 운영은 아래와 같다.

〈표 IV-2-18〉 정책연구용역 추진절차 및 운영



*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시행세칙'(특허청훈령제596호) 운영

'08년에 수행한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연구결과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또는 정책연구용역사이트(www.pris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다.

〈표 IV-2-19〉 '08년 지식재산정책연구용역 주제

구분	과제명
1	한-EU FTA 협상에 따른 상표디자인 분야 제도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2	상품 유사판단 기준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3	서비스표 심사의 품질제고를 위한 서비스업의 조사 연구
4	지정상품 과다지정 출원 방지 방안 연구
5	무심사등록 디자인권의 신뢰성 제고방안 연구
6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의 정보 분석 및 활용 전략 연구
7	의약품도 발명의 표현형식과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8	BM 특허의 국내외 보호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9	5개국(한·미·일·EPO·중국) 특허법 비교 고찰 연구
10	선진 특허강국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과 특허정책 연구
11	심사처리물량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용역물량의 적정수준 연구
12	국가간 특허심사결과 상호 활용 발전을 대비한 대응전략 연구
13	차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과 국가간 관련 IPR 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14	국내 특허료 결성에 필요한 로열티 산정과 분배기준 및 주요계약 조건에 대한 세부 분석연구
15	Embedded Software를 중심으로한 소프트웨어 권리보호 전략 연구
16	지식재산 행정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특허청 인적자원 적합형 지식경영 추진 방법론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17	지역특화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발전방안 연구
18	지식재산관리 역량 제고 방안 연구 - 대학·공공(연) 인증제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19	대학 및 공공(연) 지식재산 전략매뉴얼
20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21	주요국의 표준특허 정책 및 글로벌 기업의 표준특허 확보전략 연구
22	특허기술거래 및 평가 사례 구축에 관한 연구
23	기업의 IP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24	사례 중심의 지식재산경영 매뉴얼
25	기업의 지식재산전략과 이에 따른 조직운영 형태 연구 - 선진기업의 지식재산전략 및 조직운영 비교를 중심으로
26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방안 연구
27	형태모방(Dead Copy)에 대한 보호강화방안 연구
28	기업의 발명 생산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29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상 대응 방안 연구
30	남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 방안 연구
31	고객가치행정을 위한 수수료 행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2	지식재산권이 연구개발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3	조문별 부경법 해설서
34	특허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Invention Capital 도입 필요성 검토
35	국제적 특허시스템 주요 이슈에 관한 분석 및 정책방향 제시
36	특허정보 공개 및 보급확대 정책과 개인정보보호 문제간의 상충 가능성 검토 및 해결방안 연구
37	디자인보호법 독자법화를 위한 개편방안 연구

다. 평가 및 발전방안

기존에 정책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단순 동향조사, 참고자료용으로 정책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하여 정책연구결과의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시의성 높은 과제가 발굴되도록 정책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정책과제 성격의 연구과제에 대해서만 연구용역과제로 채택되도록 하며, 연구결과의 활용 목적을 중심으로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과제선정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며, 과제의 중복 수행 방지를 위해 지식재산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학술 정보맵’을 활용하여 연구과제의 중복 여부 검토를 하고 동시에 신규과제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

기존에는 연 1회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긴급한 정책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 2회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여 정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2. 지식재산정책 연구 인프라 구축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행정주사 김설규

가. 지식재산정책동향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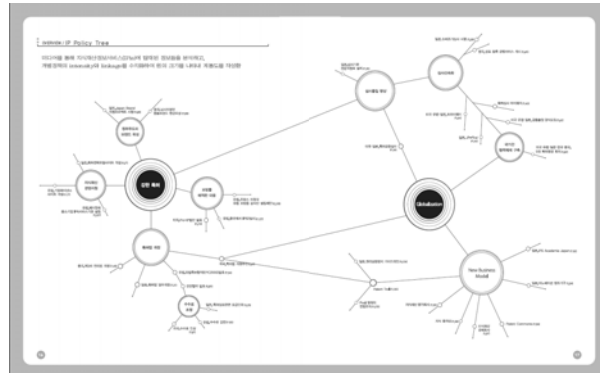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지식재산강국을 비롯한 기타주요국(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이에 대한 추가조사와 심층분석 등을 통해 「Weekly IP Look」을 메일링 서비스로 매주 제공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수집된 세계동향 및 학술정보 등의 지식재산정보의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정책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Global IP Trend 2008」을 제작·배포하였다.

〈그림 IV-2-7〉 Global IP Trend 2008 표지 및 Global IP Trend 계통도



▲ Global IP Trend 표지



▲ 트리형태의 Global IP Trend 계통도

특히 미디어를 통해 지식재산 정보들을 분석하고 개별정책의 중요도와 연관성을 트리형태로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올해의 8대 트렌드가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글로벌화’와 ‘강한특허’라는 올해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단신으로 언급되었지만 향후 이슈가 될 수 있는 8개의 뉴스를 뽑아 ‘놓칠 뻔한 올해의 지식재산 8대뉴스’로 향후 주목할 수 있도록 중요하게 다루었다.

〈표 IV-2-20〉 Global IP Trend주요 뉴스

2008 올해의 8대 트렌드	놓칠 뻔한 올해의 지식재산 8대 뉴스
심사품질 향상	도시바 前사원 발명대가 2억6000만엔 요구
심사 신속화	미국특허상표청과 조지워싱턴대학의 국제비즈니스 케이스 연구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사람의 IPS세포제작 성공 누가 빨랐나 -교토대학 vs. 바이엘약품
New Business Model	미국상무장관, 특허심판의 심판관에 대한 임명권 되찾아
정부주도의 브랜드육성	일본, 중동 국부펀드 1000억엔 출자요청
지식재산 경영지원	닛산, 전기자동차의 개발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전문팀 편성
모방품·해적판 대응 모색	컨설팅 업무에 도전하는 일본의 변리사업계
각국의 특허법 개정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디지털카메라관련 일본 대기업 5사 제소

나. 지식재산 네트워크 구축

국가R&D IP포럼을 비롯하여 공익성을 강화한 정책포럼이 시의성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개최되어 정책입안자, 정책개발자, 정책이용자 등이 참여한 ‘열린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식재산관련 연구자,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표 IV-2-21〉 포럼 리스트

포럼 명칭	세부 주제
국가 R&D IP포럼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공공연구기관 창출 기술의 Licensing & Out전략
	공공기술 민간이전 촉진을 위한 IP정책 대토론회
	공공부분의 IP이노베이션 전략
정책 포럼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 및 활용을 위한 표준특허 전문가포럼
	리서치툴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전문가포럼
	특허권 남용 방지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포럼

다. 지식재산 연구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2008년 대학(원)생 지재권 우수논문 공모전은 전반적으로 논문의 질이 높아졌다는 평가 속에서 특히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대학 학부생이 석·박사과정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법학전문학술지 「지식재산연구」는 올해 투고대비 탈락율이 29.5%에 이르는 등 등재지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학술지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식재산분야에 관한 전문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재산전문도서관은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를 수집·정리·축적하여 연구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센터 3층으로 이전하면서 북카페형식의 도서관으로 탈바꿈하여 지식재산전문도서관이라는 전문성과 이용편리성을 높여 활용성을 강화 하였다.

〈그림 IV-2-8〉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사진



〈지식재산전문도서관 내부 모습〉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서가 모습〉

라. 지식재산 기초연구

「2008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강한 특허를 중시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특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과정에서 특허정보를 조사·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68.8%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5.0% 증가한 수치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품질특허의 중요성에 따라 지식재산관련 인프라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연구개발비 대비 지식재산활동비와 지식재산전담조직 보유 기업수가 증가되었고, 창출된 지식재산의 활용 또한 활발해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구축

지식재산정보의 효율적인 통합제공을 위해 지식재산분야 유일의 통합정보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동향, 학술동향, 지식재산 행사정보, 신착도서정보 등 지식재산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그림 IV-2-9〉 지식재산정보서비스(IPis) 홈페이지



〈지식재산정보서비스(IPis)홈페이지〉

〈지식재산정보서비스(IPis) 세부내용〉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제1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종합인프라 구축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행정사무관 엄기훈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청은 지역 지식재산 창출의 전략거점으로서 전국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지식재산센터는 1978년부터 특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5개 시·도 상공회의소를 지정하여 운영한 지방특허자료열람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2000년에 동 열람소를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특허정보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민원상담 등을 제공하였고, 2004년 1월에 이를 재차 개편, 지역지식재산센터로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12월 말 현재 전국에 29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으며, 동 센터를 통해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지재권 종합민원 상담, 지재권 설명회 개최 및 지역 발명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특허청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지역의 지재권 창출지원을 위한 종합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담당케 하여 지역의 발명풍토를 조성하고 지식재산

권 창출을 촉진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동 사업의 목표로 삼고 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특허정보서비스와 종합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재산기반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설명회 및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지재권에 관한 수요를 고객의 근접 지점에서 충족시킴으로써 고객가치경영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고 활용방안을 증진시키며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재권의 창출·활용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6년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위해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지역 브랜드가치제고,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등 다양한 신규사업 개발과 사업 예산의 확대를 통해 지역 지재권 창출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였고, 2007년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지재권 종합 지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왔다.

2008년에는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및 지역지식재산센터운영사업의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광역거점 중심의 센터운영이 되도록 추진하였다. 이러한 기능개선을 통해 센터 이용고객의 보통 이상의 만족도가 97.5%('08. 11, 한국 갤럽 조사)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63,746건의 특허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60,675건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종합민원상담을 실시하였고, 18,814건의 전화상담을 하고, 463회의 지식재산권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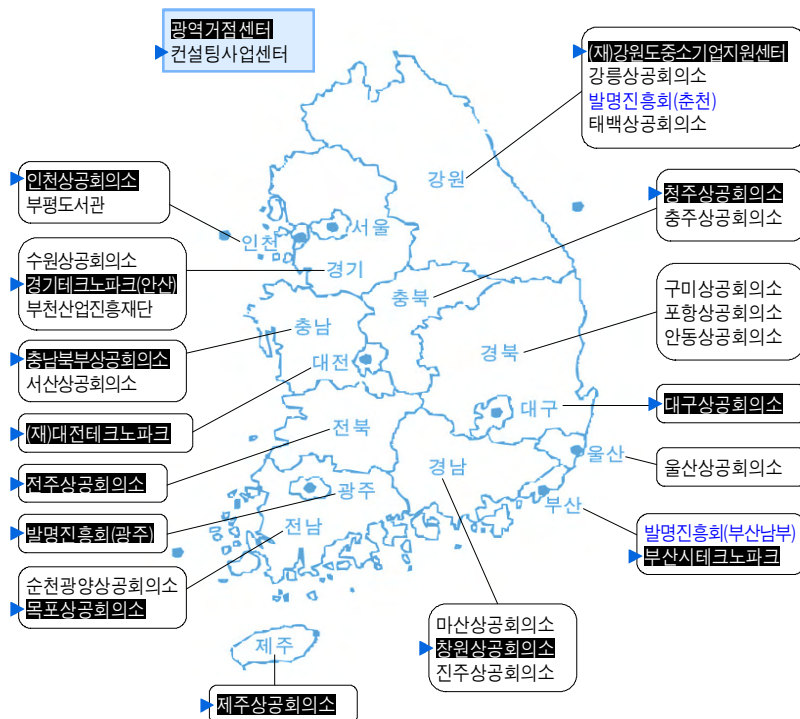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지역 지재권 창출의 종합 지원 인프라로 구축하고, 지역별 지재권 환경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전센터는 육군 발명경진대회를 위해 육군 발명동아리를 지원하고, 부평센터는 에디슨 발명특허교실, 강릉센터는 강릉 단오제 발명 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 소재 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내 센터간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여 센터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센터장 및 지식컨설턴트에 대한 정기적·선택적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표 IV-3-1〉 운영주체별 사업수행기관

운 영 기 관	지역센터(전담인원)	비 고
발명진흥회 지회	부산남부(4), 광주(3), 춘천(3)	발명장려관 포함
지역상공회의소	대구(2), 인천(2), 울산(2), 수원(2), 충북(2) 충남(2), 구미(2), 포항(1), 마산(2), 전북(2) 순천(2), 제주(2), 경남(3), 진주(2), 강릉(1) 충주(2), 전남(2), 안동(2), 서산(2), 태백(2)	
테크노파크, 산업진흥재단	부산(2), 경기(2), 부천(2), 대전(2)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부평(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강원(2)	
소 계	29센터 61명	

〈그림 IV-3-1〉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분포현황



〈표 IV-3-2〉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현황

연번	센 터 명	운영기관	연락처	등록 (설치)일	주 소
1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051)645-9684	(2000. 2)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
2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053)242-8081	(2000. 2)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7
3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38	(2000. 2)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
4	광주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062)954-3841	(2000. 2)	광주 광산구 도천동 621-15
5	울산지식재산센터	울산상공회의소	052)228-3083	(2000. 2)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589-1
6	수원지식재산센터	수원상공회의소	031)244-3453	(2000.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 2동 80-17
7	춘천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033)258-6580	(2000. 2)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25
8	충북지식재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043)254-4281	(2000. 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16-84
9	충남지식재산센터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	041)556-7131	(2000. 2)	충남 천안시 원성 286-7
10	구미지식재산센터	구미상공회의소	054)454-6601	(2000. 2)	경북 구미시 송정동 454
11	포항지식재산센터	포항상공회의소	054)274-2233	(2000. 2)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2
12	마산지식재산센터	마산상공회의소	055)241-4121	(2000. 2)	경남 마산시 산호동 17-5
13	전북지식재산센터	전주상공회의소	063)288-3013	(2000. 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14	순천지식재산센터	순천·광양 상공회의소	061)741-5511	(2000. 2)	전남 순천시 장천동 58-2
15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064)757-2164	(2000. 2)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4B 1L
16	경남지식재산센터	창원상공회의소	055)283-0608	2001. 7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97-6
17	강원지식재산센터	강원도중소기업 지원센터	033)749-3310	2001. 7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
18	진주지식재산센터	진주상공회의소	055)753-0411	2001. 12	경남 진주시 상대동 341-3
19	부평지식재산센터	인천광역시 부평도서관	032)512-8023	2003. 1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6-454
20	부산지식재산센터	부산테크노파크	051)974-9066	2003. 3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1276번 지 부산TP POST-BI 306호
21	경기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031)500-3030	2003. 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11
22	대전지식재산센터	대전테크노파크	042)867-4002	2003. 10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23	강릉지식재산센터	강릉상공회의소	033)643-4411	2003. 10	강원도 강릉시 교2동 349-2
24	충주지식재산센터	충주상공회의소	043)843-7002	2005. 7	충북 충주시 문화동 562번지
25	부천시지식재산센터	부천 산업진흥재단	032)621-2082	2005. 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8
26	전남지식재산센터	목포상공회의소	061)242-8581	2005. 7	전남 목포시 중동 2가 1번지
27	안동지식재산센터	안동상공회의소	054)859-3090	2005. 11	경북 안동시 윤흥동 300-6
28	서산지식재산센터	충남서부 상공회의소	041)663-3063	2005. 11	충남 서산시 읍내동 114-1
29	태백지식재산센터	태백상공회의소	033)552-5555	2005. 11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64-6

2.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행정사무관 엄기훈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은 '96년 당시 통상산업부에서 시작된 『산업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제 구축사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정에서 선행특허와의 저촉 여부에 대한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97년 11월에 특허청에 이관되어 지난 '04년까지 211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진단이 실시되었다.

〈표 IV-3-3〉 연도별 진단실적

(단위 : 백만 원, 건)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예 산	311	244	230	209	238	235	257	350	400
진단과제	36	26	22	15	17	21	21	25	28

그러나, 2004년 말 진단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 및 진단 수혜기업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나 한정된 예산규모와 수혜기업의 한정으로 인해 동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기반조성이라는 거시적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지식재산권 창출 기반조성 부문으로의 사업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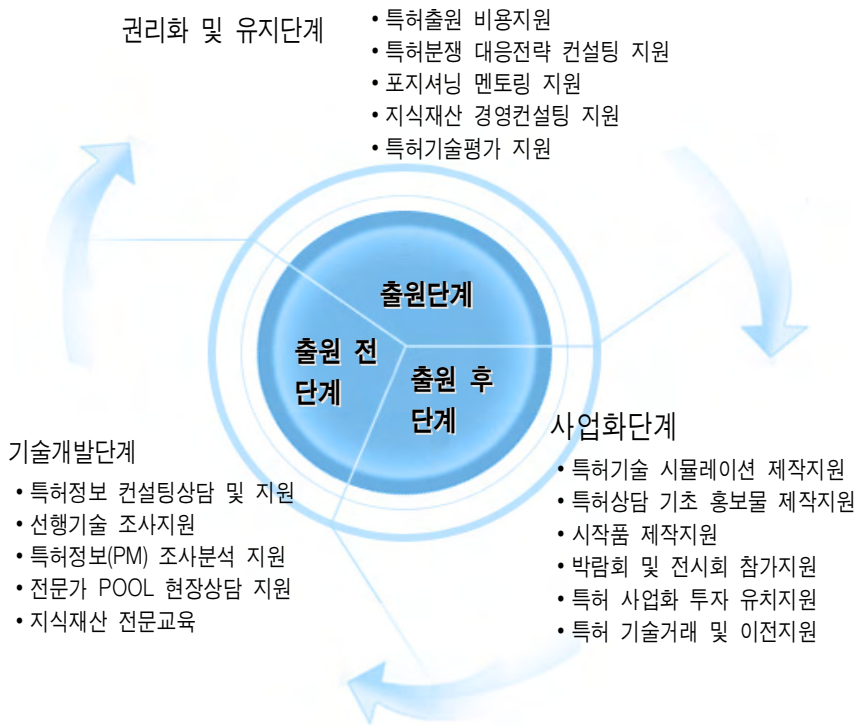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의 목적은 특허정보를 사전에 조사·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R&D 투자방향 설정을 지원해 주고 분석된 특허정보를 기술개발 과제선정에 활용케 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있다.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고에 상응하는 자금을 투자(매칭비율 50:50, 매칭금액 2억 원칙)하게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을 통해 지역의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5년 2개 지자체(대전, 경기)의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에는 8개 지자체, 2007년에는 9개 지자체, 2008년에는 13개 지자체와 매칭펀드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표 IV-3-4〉 2008년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자체	지역센터(사업운영기관)	주소	매칭금액	비고
대전시	대전지식재산센터(대전테크노파크)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3억	'05년 시범 지역
경기도	경기지식재산센터(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안산시 사1동 1271	3.5억	
부산시	부산지식재산센터(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산84-2	2억	
인천시	인천지식재산센터(인천상공회의소)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	3억	'06년 참여
대구시	대구지식재산센터(대구상공회의소)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7	2억	
충남도	충남지식재산센터(충남북부상공회의소)	천안시 원성동 286-7	2억	
충북도	충북지식재산센터(청주상공회의소)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84	2.5억	
경남도	경남지식재산센터(창원상공회의소)	창원시 신월동 97-6	2억	
강원	강원지식재산센터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번지	2억	'07년 참여
전남도	전남지식재산센터(목포상공회의소)	전남 목포시 중동 2가 1번지	2억	'08년 참여
광주시	광주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621-15 중소 기업진흥센터 2층	2억	
전북도	전북지식재산센터(전주상공회의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140-11번지	2억	
제주도	제주지식재산센터(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4B 1L	1.5억	

〈그림 IV-3-2〉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추진 단계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은 첫째, 특허정보분석 및 특허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제공, 둘째, 지역 특허 스타기업 육성, 셋째, 지역 특허산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의 세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대표 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1) 특허정보 분석 및 활용 등 종합컨설팅 제공

동 사업은 특허정보 제공과 개발된 기술의 특허사업화 지원을 위한 특허정보컨설팅 및 특허사업화컨설팅을 One-Stop 종합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컨설팅은 특허정보컨설턴트 및 특허사업화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며, 해당 특허정보·사업화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컨설턴트들은 사업 운영기관인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센터 계약직원으로서의 신분을 갖는다.

먼저, 특허정보컨설팅은 특허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활용능력이 취약한 지역 소재 개인발명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정보, 기술동향 및 시장정보 등을 조사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서 발굴된 우수기술에 대한 심층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제공, 특허출원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사업화컨설팅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확보, 투자유치 등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금융기관의 각종 사업화 지원제도 및 자금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특허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시켜 줌으로써 특허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기술거래소, 지역 테크노파크 등의 시제품 개발지원, 창업자금지원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운영을 통한 특허기술 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고 있다.

2008년에는 13개 센터(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부산, 대구, 경남, 강원, 전남, 광주, 전북, 제주)에서 총 54회의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4,225건의 특허정보컨설팅과 1,671건의 특허사업화컨설팅을 시행하였으며, 169건의 맞춤형 PM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대전에 위치한 폐수재생장치 제조업체인 필텍코리아는 맞춤형 PM, 선행기술조사 등을 통해 삼성정밀화학과 9억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우크라이나에 진출하는 성과가 있었고, 위성안테나 업체인 위월드는 태국 최대 통신업체인 SBI사에 30만불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국에 10억원의 투자유치를 거두었다.

〈표 IV-3-5〉 2008년 맞춤형 PM컨설팅 센터별 추진 현황

센터명	지원기업	분석과제
1	인천 (24)	(주)토일러
		물을사용하지않는 화장실용 세정제
		(주)현대지에스
		함초를 주원료로한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주)명가인터내셔널
		보석세팅기술
		솔로몬스포츠
		영상프로그램을 이요한 스피닝운영 및 운동법
		(주)엠지인투바이오
		천연계면활성제인 Sophorolipid와 rhamnolipid
		(주)팔자임 앤 텍
		혈전치료제
		(주)한국화학
		친환경제설제 조성 및 그 제조방법
		해초건강생활(주)
		다시마를 주재료로 한 식품
		해성산업(주)
		공연예술회관용 객석의자
		(주) 예일전자
		리니어 진동모터
		(주)스마트로닉
		5세대 자동차용 스마트키
		(주)에프에스씨
		차량용 RAIN SENSOR
2	경기 (18)	네오세미테크(주)
		실리콘 단결정 성장 공정및 제조장비
		(주)비전솔루션
		RF-ID를 이용한 돈사관리 시스템
		신기음향(주)
		휴대폰용 골전도 Speaker
		(주)에이피시스
		고온플라즈마를 이용한 유해폐가스 처리장치
		전자넷
		발광종이(Sheet)
		(주)픽닉스테크놀로지스
		와이어 PCB 제조장비
		(주)JMC
		핸드폰 슬라이딩 힌지
		상미에어텍(주)
		에어 댐퍼
		(주)조인탑
		원터치 파이프 연결구
		주식회사 대금지오웰
		세륜기
		에이스공사
		자동문
		GW Technology
		초음파 식품 세척기
		(주)삼신이노텍
		음지연 레벨감쇄 음향기기 기술
		(주)우대칼스
		GIS기반의 3차원 데이터 스트리밍 소프트웨어기술
		(주)썬트론
		TPMS(자동차타이어공기압측정센서)
		(주)뉴트리
		유화액 개발기술
		(주)에이티티알앤디
		EPB(전자 주차 브레이크
		(주)테스
		Low-k PECVD
		필룩스
		조명용 광원(신광원-무수은)/EEFL(외부전극 형광램프)
		디오스텍
		액체렌즈 및 PZT Actuator를 이용한 자동 줌/포커스 카메라 렌즈모듈
		영신금속공업
		자동차 어스용 볼트
		테라세미콘
		반도체 기판 열처리 장비
		인산디지캠
		산업용 양면 테이프
		덴티움
		치과용 CAD/CAM/MAD/MAM 기술
		(주)포콘스
		메탈 돔
		(주)성우모바일
		터치스크린 모듈 구성 리모콘
		펜타원
		360도 전방위 감시 카메라
		마루LSI
		다이나믹 레인지의 향상을 위한 CMOS 이미지 센서
		지엔티시스템즈
		휴대용 중소형 LCD&OLED 모듈 및 패널 검사기
		(주)이모트(구. 에프텍)
		광결정 구조

센터명	지원기업	분석과제
3	대전 (20)	(주)넥스컴글로벌
		LCD용 Glass의 미세 Crack의 실시간 검사시스템
		(주)리직스
		전자기기 제어용 네트워크 카메라
		(주)엔씨씨
		전력변환기
		(주)파이오닉스
		다채널 병렬 광송신 및 광수신 장치
		위월드(주)
		이동체 탑재형 해양용 3축 위성추적 안테나
		(주)메닉스
		이동통신단말기용 안테나 구조 및 제조방법
		(주)디씨아이
		지능형 형광등 절전기
		(주)휴텍스
		정량정성 분석을 위한 전 자동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주)케이에스텍
		소방용 조립식 Panel 및 cap
		(주)알피엠텍
		초고속 스피들용 외부가압공기 저널 및 스러스트 베어링
4	충북 (10)	(주)템스
		LNG 혼소차량 연구 및 개발
		(주)에이엔티이십일
		공기 정화처리방법 및 그 장치
		(주)필텍코리아
		CR FILTER 와의 특허 침해성 검토 및 대응기술
		(주)바이오큐어팜
		DDS기술(Nano particle, Lipid)을 이용한 바이오 개량신약
		(주)파나진
		마이크로 RNA(miRNA) 어레이 및 저해제
		한신타올공업
		산업용 및 생활용 다기능성 인체친화 테리섬유제품
		(주)모신바이오텍
		비타민 C와 수용성 베타글루칸을 함유하는 화장품의 개발
		(주)바이오뉴트리젠
		비만증 예방용 식품소재
		(주)바이오니아
		유전자 합성기술
		(주)디엔에프
		반도체 Cu(구리) 배선 용 전구체
		(주)두본
		하이드로탈사이트 제조 및 응용
		FM애그텍
		함초를 이용한 기능성 식물 영양제 개발
		(주)엠비전
		UV LED와 광학Filter를 이용한 휴대용 진위식별기 개발
		(주)참선진종합식품
		황기를 이용한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 관한 특허 및 기술 현황
		영농조합법인 오가식품
		오가피, 피타민 등 결합식품 특허 현황조사
		(주)나노신소재
		아연 산화물 sputtering target
		(주)KPF
		자동차용 단조품(열간, 냉간)부문 특허 사항
		(주)씨니전자
		수정진동자, 수정발진자의 신제품 및 신기술 현황
		충청S&G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차량 추적 시스템
		(주)제이슨R&D
		라디오주파수 인식기술을 이용한 고객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

센터명	지원기업	분석과제
5	충남 (12)	더멋진바이오텍
		커피어 소재
		물사랑
		위생세면대
		케이디
		발광 혼 마크
		신한테크
		흡입공기 균질분배시스템
		에버그린씨엔씨
		축산분뇨 비료생산기술
		코웰테크
		용접용 품질 판별기술
6	부산 (10)	정우산기
		해수여과기
		피케이엘
		포토마스크 클리닝 기술
		전자빔기술센터
		전자빔 반도체 장비
		센서엠피알
		MRI 기술
		넥스탑
		유압프레스, CIP/HIP 프레임
		디에스시
		자동차 시트의 매뉴얼 럼버서포트 시스템
7	대구 (10)	(주)해왕
		산업용 송풍기
		(주)JPS마이크로텍
		세라믹분말
		투원글로벌
		유압기기 및 항공부품
		네가트론
		나노펌프
		서진산업
		유아 및 실버용품(보행용)
		(주)솔라비
		태양력 물순환장치
7	대구 (10)	듀라케미
		기능성 도료
		청호씨푸드
		해산물 가공식품
		인우테크
		진공식 표면연마장치
		스쿨환경산업
		기능성 정수장치
		(주)아바코
		태양전지용 다결정 실리콘 잉곳 제조장치 및 방법 기술동향
		(주)진양오일셀
		자동차용 PTFE SEAL과 Encoder system의 접목
7	대구 (10)	(주)금성정공
		2-level Stack Mold(LCD용 MOLDFRAME)
		(주)비에스지
		열상차폐기능을 가지는 laminated 원단 관련 기술동향
		(주)삼코
		드레인 배수 PUMP IMPELLER
		(주)JDH
		Shear line, Slitter line, Coil processing line의 기술동향
		(주)삼보모토스
		자동차 연료 시스템의 연료주입구 관련 특허기술동향
		(주)부원생활가전
		믹서기(핸드믹서기 포함) 및 회전류 조리기 기술동향
7	대구 (10)	잘만정공(주)
		니들롤러 베어링의 현재 추진 중이거나 개발된 기술동향
7	대구 (10)	부호체어원(주)
		사무용 의자 관련 특허기술동향

센터명	지원기업	분석과제
8	경남 (15)	대호아이티
		지리정보 시스템과 화상정보를 통합한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주)드림피아
		다중생체인식 시스템
		상도전기통신(주)
		지능형 수족관 자동관리 시스템
		엔조이라이트
		Home Network기반의 지능형 비상유도라인 시스템
		엠티엠
		카메라모듈 검사장치
		(주)포스텍
		사용자 인증 유무선 Voip 단말기
		(주)한국티이에스
		생체인식에 의한 인증을 수행하는 카드
9	강원 (10)	(주)한려ENG
		전자코 콘센트
		(주)다보정보기술
		알포인트 시스템
		(주)마이비엠
		300mhz 대역의 능동형 RFID 태그 및 수신기
		(주)바벨
		코이노니아(koinonia)칩 기반 Binary CDMA 무선 통신 기술
		(주)에스엘전자
		무드조명 스위치
		(주)컴스타
		USN-gateway 및 sensor node 연동
		한셀테크
10	전남 (10)	가정자동화 기능이 내장된 각방온도조절장치
		(주)흙시큐넷
		NTSC방식의 카메라를 적용한 영상통합 관리서버시스템
		(주)태성
		와이어를 이용한 오일스키머
		(주)거화
		담체 및 이를 이용한 오펜수처리 장치
		(주)센코
		전기 화학식 수소 센서 및 감지기
		(주)케이이씨
		암파쇄 성능 향상을 위한 전력충격기 및 전해질 관련 기술
		(주)예원개발
		비탈면 생태복원 공법
		(주)두산에코비즈넷
		광합성세균 간이 배양기관련 기술
		(주)BMT
		HPV유전자 진단방법
		(주)메디슨
		탄성영상을 이용한 초음파 이미지
		(주)애드바이오텍
		LGY의 산업화 기술
		(주)리제론
		피부질환 치료와 관련된 Interleukin-2,3,4,12,15
		삼천화학
		거푸집 코팅 합판
		(주)듀얼라이프
		노니, 알긴산을 이용한 아토피 및 피부 개선제
		(주)수프로
		조경(녹화)용 화분
		KS랩
		고기능성 안의료용 소재
		주몽소금
		기능성 소금/염전-시설물/용기
		(주)태형중공업
		레저선박의 특허동향 및 수요분석
		(유)강남기초건설
		자력콘크리트구조물(콘크리트로봇)공법
		엘시스
		센서 모니터링을 이용한 조도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주)삼우기계
		floating slab track system 부상식 도상궤도
		(주)삼호용접기
		토치 회전형 자동용접기

센터명	지원기업	분석과제
11	광주 (10)	(주)탑알앤디
		수륙양용 다목적 전기자동차
		제이엘씨(주)
		차세대 전도성 투명잉크
		에프엔엔(주)
		웅(북)합 실내 공기오염 센서
		(주)한진디엔비
		천공기의 워터햄머
		남도금형(주)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페타이어 처리기술
12	전북 (10)	(주)링크라인아이엔씨
		광커넥터 자동조립장치
		(주)위드솔루션
		광인터페이스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기술
		(주)도시환경이엔지
		태양광 발전장치
		FBG TECH
		광섬유격자센서 응용제품
		(주)대림솔라
		태양광 1축 추적시스템
13	제주 (10)	(주)캠스텍
		폐식용유 및 폐유의 연소장치 및 분무(분사) 기술
		(주)이노테크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유)원진알미늄
		커튼월 창호 및 시스템 여닫이 창호
		(주)디유에이엔아이
		승강장 스크린 도어
		(주)쿨테이너
		저온저장고(pantry 포함)
		(주)신산이
		태양열 집열기 제조기술
		(주)네패스신소재
		EMC(Epoxy Molding Compound) 활용 기술
		(주)예기산업
		트랙터 트레일러용 공기제어 통합시스템
		썬메디텍(주)
		인체의 몸속에서 나는 소리를 청취하는 기구인 청진기
		(주)데크 전주공장
		항공기 카본 브레이크 디스크
		라이브캠
		감태추출물의 산업적 응용
		설향
		말 부산물(마유,말태반)의 산업적 활용
		탐라사료
		가축의 사료 영양 및 사육환경
		한국영농기술
		스프링클러의 기술
		대성정보기술
		네트워크 보안관리기술
		자바정보기술
		RFID/USN 응용서비스기술
		에이원
		IPTV관련 콘텐츠기술
		인포마인드
		USN 기반 미들 웨어기술
		제주아침
		해수를 이용한 두부제조 관련기술
		태림
		해조류 관련 활용기술

2) 지역 특허 스타기업 육성

특허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특허 스타기업(Star Company)를 육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특허 스타기업 육성 사업의 목적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행기술조사, 출원비용, 시제품 제작 등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과 연계 를 통해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청 심사관 및 특허컨설턴트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해당 기업을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 고하는 데 있다.

2007년에는 51개의 지역 특허 스타기업을 육성하여 선행기술조사, 출원비용, 시 작품 제작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였다.

전체적으로 특허스타기업의 경우 특허컨설팅 지원을 계기로 2007년에는 전년 대 비 특허출원이 15.7% 늘었고 매출은 10%, 고용규모는 6.6% 각각 개선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참여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전북, 전남, 제주, 광주 시가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에 참여해 총 13개 시·도로 확대되었고 70개의 지역 특허스타기업이 발굴·육성되었다.

충북에 소재한 제이슨알앤디 회사는 RFID 상용 솔루션 개발업체인데 2007년도에 충북지식재산센터의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을 받아 국내외 선행기술조사와 맞춤 형 특허지도를 제작하여 틈새 기술을 발견해 분쟁 소지를 예방하면서 효율적으로 기 술을 개발하고 권리화하는데 성공하여 S-Oil과 협력하여 세계최초로 RFID 주유소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경남의 영상신호 검사기 제조업체인 (주)마스타는 경남지역 특허스타기업으로 특 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경영컨설팅, 해외출원비용, 국내출원비용 등의 지원을 받아 지식재산권이 7건 증가하고, 매출액도 증가하였다.

〈그림 IV-3-3〉 특허스타기업육성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매일경제

2008년 05월 08일 목요일 B07면 기타

지역중소 특허 사업화 도와드려요

특허청-지자체 '특허 스타기업 육성사업'

▶사례1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환경여과장치 관련 기술 개발 업체인 필렉코리아. 이 회사는 지난해 특허청과 대전시가 선정하는 '특허 스타기업'에 뽑혀 다양한 특허컨설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동안 특허청 대전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선행기술 조사와 특허법(PM) 과정 지원, 국외 출원비용 지원 등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적잖은 도움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고농도 산업을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의무 발생량로터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큰 어려움을 덜어 성공할 수 있었다. 특허청과 대전시 지원으로 외국시장 개척에서도 우크라이나 KIY-PIVO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상상정밀화학과의 9억원 상당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한 대전시지식재산센터의 연계 지원으로 시제품 제작도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국외 특허출원 비용에서도 도움을 받았다. 이 회사 박기택 사장은 "특허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좋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사례2 경남 창원에는 자동차 정비·전자 제어장치 생산 업체인 솔로몬 메카닉스도 올해 특허청과 경남도가 선정하는 특허 스타기업에 뽑혀 각종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 회사는 특허와 실용신안 총 50건을 등록 또는 출원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허청 특허경영 컨설팅을 비롯해 국내외 특허 출원비용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으로 특허 기술을 사업화에 성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이 회사 김수용 사장은 "특허 스타기업에 선정됨에 따라 회사 여건에 맞는 특허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 회사 자체 지식재산 기반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행기술 조사·출원비용·제품생산 지원

선정된 51개사 총 매출규모 387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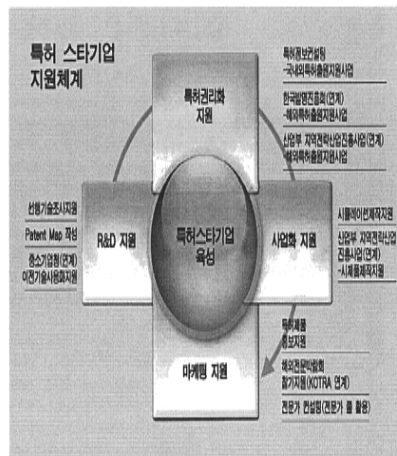
특허청이 지자체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특허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대기업에 비해 권력적인 특허 관련 어려움에 크게 노고 있으며 출원비용 등 관련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시·도별로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특허 스타기업이란 중소·벤처기업으로서 특허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특허기술 사업화와 특허경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특

허청이 이 사업을 시작한 목적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특허경영 종합 컨설팅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출원비용, 시제품 제작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각종 지원에 지역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특허청과 지자체가 50%씩 부담편드를 조성해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는 경영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역 기업 수요와 여건에 따라 자체별로 지원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허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51개에 달한다. 지역 특허 스타기업은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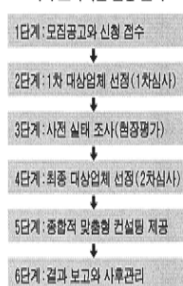
선정된 지원을 계기로 전년 대비 특허 출원이 15.7%로 향상되었다. 매출은 10%, 고용 규모는 6.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특허 스타 기업 총 매출 규모가 3873억원에 달해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도 적극적일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전북·전남·제주·광주가 특허청으로부터 종합 컨설팅 사업에 참여해 8개 시·도에서 13개 시·도로 확대되었으며 매칭 지원 규모에 대한 중요 역할 역시 각 지역에서 세우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도 종합컨설팅 사업이 지역별 특허 스타기업 육성에 연결되는 만큼 이 사업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허청은 특허를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지역별로 특허 스타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을 계획한다.

특허청은 올해 지자체 매칭펀드 자금을 포함해 예산을 60억8000만원 배정해 총 89개 지역 특허 스타기업을 지원·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특허청

특허 스타기업 선정 절차



산업재산정책과장은 "한국 경제 상황에서 특허 스타기업을 지역별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 IV-3-6〉 '08 특허 스타기업 현황

연번	센터명 (업체수)	업체명	소재지	분야(업종)
1	경기 (10)	삼신이노텍	고양시	제조업외
		영신금속공업(주)	평택시	조립금속제품제조
		(주)테스	용인시	반도체장비제조
		씨트론(주)	부천시	제조업(타이어센서)
		인산디지캠(주)	화성시	제조업(양면테이프)
		(주)테라세미콘	화성시	제조업(반도체)
		(주)포콘스	수원시	제조업(전자부품)
		(주)디오스텍	용인시	광학렌즈 및 기기개발
		(주)우대칼스	성남시	소프트웨어개발
		(주)필룩스	양주시	조명장치등
2	인천 (4)	(주)에일전자	인천 부평	제조업(이어폰)
		(주)에이피시스	인천 남구	제조업(유해가스처리)
		(주)전자넷	인천 남구	제조업(전광게시판)
		(주)토일러	인천 남구	제조업(화장실용세정제)
3	강원 (6)	(주)태성	원주시	건설,제조
		(주)거화	강릉시	제조,설비
		(주)센코	강릉시	제조업
		(주)케이이씨	철원군	플라즈마
		(주)에드바이오텍	춘천시	바이오
		(주)케어텍	원주시	의료기기제조업
4	충남 (4)	우리생명과학(주)	아산시	생명공학
		(주)신화기공	당진군	기계금속
		(주)두선	천안시	기계금속
		(주)물사랑	아산시	환경
5	대전 (5)	(주)넥스컴글로벌	대전 서구	제조업 등
		(주)바이오뉴트리젠	대전 유성	제조 및 도소매
		(주)바이오니아	대전 대덕	제조 및 도소매
		일신테크(주)	대전 유성	제조 및 도소매
		(주)파나진	대전 유성	제조 및 서비스
6	충북 (5)	(주)두본	청원군	화학/바이오
		(주)충청에스엔지	청주시	지리정보시스템
		FM에그텍	음성군	화학/바이오
		(주)파켄오피씨	청원군	전기전자
		(주)엠비전	청주시	기타

연번	센터명 (업체수)	업체명	소재지	분야(업종)
7	대구 (7)	(주)잘만정공	대구 달서	제조업(베어링)
		(주)IDH	대구 달서	제조업(제철설비)
		(주)삼보모토스	대구 달서	제조업(자동차부품)
		부호체어원(주)	대구 달서	제조업(사무용의자)
		(주)진양오일셀	대구 달서	제조업(부품)
		(주)비에스지	대구 북구	제조업(섬유)
		(주)삼코	대구 달서	제조업(세탁기부품)
8	경남 (5)	(주)마스타	창원시	전자계측기
		(주)솔로몬메카닉스	창원시	자동차설비
		에이스(주)	김해시	컴프레사관련기계
		제이.알(J.R)	진주시	식품제조가공
		(주)한립생명공학	진주시	의약품생산
9	전남 (3)	(주)태형중공업	영암군	제조업
		(주)수프로	순천시	제조업
		(유)강남기초건설	목포시	건설업
10	광주 (5)	(주)탑알앤디	광주 북구	의료기기제조업
		(주)대림솔라	광주 광산	제조업(광모듈)
		(주)링크라인이아이엔씨	광주 북구	제조업
		(주)한진디엔비	광주 광산	제조업(유압식기계)
		워드솔루션	광주 북구	제조업
11	제주 (5)	(주)라이브캠	제주시	제조, 의약/식품
		(주)제주아침	제주시	제조업(가공식품)
		자바정보기술(주)	제주시	SW개발
		(주)대성정보기술	제주시	컴퓨터, 사무기기
		한국영농기술	제주시	제조업(스프링쿨러)
12	부산 (6)	(주)위드	부산 사하	화학
		(주)G&T	부산 사상	전기전자
		(주)크린월드	부산 강서	화학
		듀라케미(주)	부산 강서	화학
		(주)그린볼텍스	부산 사상	기타
		(주)네가트론	부산 사상	기계
13	전북 (5)	(주)데크전주공장	전주시	제조, 도매
		(주)디유에이엔아이	완주군	제조, 도매
		(주)세원하드페이징	전주시	제조
		(주)삼정디씨피	김제시	자동차부품
		(주)네패스신소재	익산시	반도체재료

3)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 작성·보급

기존에 제공된 특허기술동향조사는 첫째, IT, BT, NT 등 산업 전반 또는 국가적 규모의 광범위한 특허기술지도였고 둘째, 지나친 전문용어 사용과 단순한 통계적 자료의 나열이었기 때문에 특허정보에 대한 분석능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특허기술동향조사에 대한 활용도는 극히 저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특허기술지도는 연구개발의 방향 및 특허 출원시의 회피설계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종사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특허맵(Patent Map) 주제 선정과 개별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통한 결과물 보급을 통해 그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에서는 지역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해당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특화산업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기술개발의 방향설정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해당산업 종사 기업체에 대한 개별 특허맵(Patent Map) 작성 지원 및 심층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연구기관, 대학 등 기술공급기관에도 특허기술지도 결과물 보급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기술수요를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8개 지자체에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 10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특화산업 종사기업에 대해 60개의 맞춤형 PM 작성과 심층컨설팅을 시행하였고 2007년에는 9개 지자체의 특화산업 종사기업에 대해 90개 맞춤형 PM과 심층컨설팅을 시행하였다.

2008년에는 13개 지자체의 특화산업 종사기업에 대해 169개의 맞춤형 PM 작성과 심층 컨설팅을 시행하여, 기존 정량분석 위주의 획일적 조사분석을 지양하고 컨설팅을 통한 기업 요구에 맞는 정성적 분석 위주의 특허기술정보자료 조사하였고, 기업의 기술개발육성 지원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효과적 지역특화산업 육성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특허정보를 사전에 조사·분석,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 방향 설정을 지원해 주고 분석된 특허정보를 토대로 한 기술의 권리화와 사업화도 충실하게 지원하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행기술조사, 출원 비용지원, 시작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특허스타기업을 2009년에는 90여개 육성하고, 특허청 심사관 출신 컨설턴트를 통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제공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09년에는 경북, 울산, 서울 지식재산센터에서 신규로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총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역 현장에서 지원한다. 특허정보분석 및 사업화 컨설턴트 2명이 지역센터에 상주하여 기술개발에서부터 권리화·사업화에 이르기까지 One-Stop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3. 지역 지재권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행정사무관 엄기훈

가.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1)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청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지재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지식재산 창출사업에 대한 자문제공, 아이디어 발굴 및 발명행사의 여론조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지자체 및 교육청 공무원, 교수, 연구원, 변리사, 교사, 학생, 기업체 특허

전담직원, 지역 발명 유관기관 구성원 및 지역언론 등 지역별 평균 30~50명 규모의 서포터즈 POOL을 구성하여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2008년에는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하였다. 총 85회 1,170명의 지재권 서포터즈와의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창출 사업에 대한 자문제공, 아이디어 발굴 및 발명행사 여론조성, 중소기업 지원 주요사업 설명 및 기업체 의견수렴, 산학협력 육성 정책 및 협력사례, 특허활용방안, 2009년도 신규사업 발전방향 논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 IV-3-7〉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현황

지역	서울	경기	수원	인천	부평	부천	춘천	강원	충남	대전	충북	충주
회의수	2	4	3	3	3	5	4	3	3	3	5	4
인원	56	46	37	39	52	62	37	52	33	48	64	49

부산 남부	부산	울산	대구	구미	진주	경남	순천	전남	광주	전북	제주	합계
2	3	9	2	3	3	4	3	3	5	4	2	85
48	42	79	28	46	48	49	58	44	85	33	35	1,170

3) 평가 및 발전방향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지재권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 지식재산 창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과제에 개선을 통해 지역의 특성 맞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표 IV-3-8〉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현황

지 역	지역센터(수행기관)
서울특별시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주관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지식재산센터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대구광역시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인천광역시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상공회의소)
	부평지식재산센터 (인천부평도서관)
광주광역시	광주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대전광역시	대전지식재산센터 (대전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	울산지식재산센터 (울산상공회의소)
경 기 도	경기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수원지식재산센터 (수원상공회의소)
	부천시지식재산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
강 원 도	강원지식재산센터 (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
	춘천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충청북도	충북지식재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충주지식재산센터 (충주상공회의소)
충청남도	충남지식재산센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전라북도	전북지식재산센터 (전주상공회의소)
전라남도	순천지식재산센터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전남지식재산센터 (목포상공회의소)
경상북도	구미지식재산센터 (구미상공회의소)
경상남도	경남지식재산센터 (창원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 (진주상공회의소)
제 주 도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나.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

1)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청에서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7월 이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2006년 이후에는 전국순회설명회의 수요 감소에 따라 전국순회설명회를 지역의 지재권 창출촉진을 위한 지역순회 지재권포럼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전국순회설명회의 경우, 2003년 67회 3,931명, 2004년 64회 3,907명, 2005년에는 54회 3,145명이 참석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수요감소로 2006년 이후부터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설명회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06년부터 16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 지재권 현황에 대해 토론하는 지역순회 지재권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재권 마인드를 제고하는 한편,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2007년 총 16회, 2,011명, 2008년 총 16회, 1,776명이 참석하였다.

지재권 순회 포럼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식재산 조례 제정의 필요성 강조 및 표준 조례안 보급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공포('08.8.4)하였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지식재산도시 선포('06.3), 중기 발전계획 수립('07.9) 및 지식재산 전담팀 신설('07.10) 이후 지속적으로 지식재산 중심의 도시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지자체 및 지역민 대상 지재권 조례에 대한 필요성 홍보 및 표준안 보급을 통하여 지자체별 지재권 조례 제정을 앞당기는 계기 마련하고,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

1) 추진배경 및 개요

업종별 단체설명회의 경우에도 1999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동 설명회의 추진목적은 업종별 단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및 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역량 강화와 업종별 단체 회원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에 있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업종별 단체설명회의 대상은 특허청 심사팀과 지식재산권 업무협력 약정이 체결된 3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기업에서 설명회 개최 요구시에는 특허청 담당심사관과 연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업종별 단체설명회의 경우, 2003년 27회 1,277명, 2004년 30회 1,459명이 참석하였으며, 2005년에는 41회 1,983명, 2006년 40회 1,961명, 2007년 32회 2,897명이 참석하여 꾸준한 참여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보건산업연구진흥원, 디스플레이 특허연구회, 국방부, 식품분야, 화장품분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의 12회에 총 653명에게 업종별 단체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지재권 동향과 전략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지재권 제도홍보 및 특허관리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업종단체, 우리청 심사팀 및 특허연구회 등과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원하는 지재권 현안 중심의 주제를 발굴, 차별화된 업종단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4.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행정사무관 정임숙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사업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를 활성화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의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불고 있는 브랜드 경영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사업은 첫째 지역특산품 명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의 권리화 지원, 둘째 지자체 브랜드 관리 전략에 대한 컨설팅 제공, 셋째 지역특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역특산품 명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의 권리화 지원사업의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요건인 특정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조사 및 시험연구 용역과 지역특산품의 생산·가공자 단체 등에 대한 현황자료를 수집·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에는 공모를 통해 10개 지자체의 10개 지역 특산품을 선정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위한 권리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둘째로, 지자체 브랜드 관리 전략에 대한 컨설팅 제공 사업은 2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들 지자체에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출원한 상표를 분석하여 작성한 지자체 브랜드 맵을 기초로 지자체 브랜드 관리 전략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는 지자체 브랜드맵 심층분석을 토대로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북도 포항시 등 14개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을 시행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브랜드 관리 전략을 제공하였다. 장수군은 지자체장의 높은 관심으로 자체 예산 투입(2천만원)하여 매칭 펀드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남해군은 자체 전담부서를 구축하고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원대상 품목인 남해죽방렴멸치의 재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셋째로, 지역특산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유망 품목에 대해 TV방송 등 기획·홍보를 실시하였다. 2008년도에는 6월~8월 10편의 “6시 내고향” 팔도명물 대동특지도 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 및 지역 특산품 생산·가공자들에게 비교적 생소한 용어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브랜드 공동자산으로서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지역특산품 명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의 권리화를 위한 지원 사업은 '06년부터 '08년도까지 지원한 60여개 특산품에 대한 권리화 과정(출원 및 등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존 지원 대상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이다.

'06년도에 작성한 248개 지자체 브랜드 맵을 기초로 해당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 평가 및 브랜드 관리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자체 브랜드 컨설팅은 수요조사 후 15개 지자체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IV-3-9〉 '08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 지역특산품

NO	지역지식재산센터	특산품목		비고
1	충남	1	천안 배	
2		2	금산 인삼	
3	서산	3	서산 어리굴젓	
4		4	광천 토굴새우젓	
5	안동	5	안동 한우	
6	포항	6	포항 구룡포과메기	
7	경남	7	통영 누비	
8	전남	8	영암 황토수박	
9	전북	9	고창 수박	
10	제주	10	제주 자연산톳	

〈그림 IV-3-4〉 '08년 지자체 브랜드 컨설팅 감사편지

존경하는 고정식 특허청장님!

경남 남해군수 정현태입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을 이끌어 나가고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통해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 특허청을 훌륭하게 지휘하고 계신 청장님께 무한한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하고자 하는 의욕을 빼고는 모든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특허청에서 우리 군이 차별화된 우수브랜드 육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브랜드 컨설팅사업'을 지원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군은 지역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고 브랜드 관리 및 경영실태를 정립함과 아울러 우리 공무원들이 브랜드에 대한 마인드를 향상하고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12월 16일

남해군수

정현태

〈표 IV-3-10〉 '08년 지역브랜드 컨설팅 대상 지자체 현황

NO	지자체	컨설팅 내용
1	강원도 원주시	개별브랜드 (한지, 옷) 활성화 전략 컨설팅
2	충청남도 공주시	도시브랜드 Hi-touch 통합브랜드 컨설팅
3	전라북도 장수군	개별브랜드 (사과, 한우) 활성화 전략 컨설팅
4	경상북도 청도군	상표관리체계 정립, 미나리 등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의견 제시, 상표관리시스템 컨설팅
5	경상북도 포항시	제반 디자인 요소 진단 급구, 브랜드 포트폴리오 설계 컨설팅
6	경상남도 거창군	도시브랜드 선정 프로세스 개발, 거창군 지역 브랜드의 통합적 관리시스템 설계 컨설팅
7	제주시	통합브랜드 (해 올렛) 활성화 전략 수립 및 8개 품목별 품위관리 시스템 설계 컨설팅
8	충청북도 영동군	통합브랜드 (Mayvil) 활성화 전략 컨설팅
9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브랜드 (칠갑마루) 활성화 전략 컨설팅
10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 젓갈 브랜드 활성화 전략 컨설팅
11	전라북도 진안군	통합브랜드(6월 말 개발 완료) 활성화 전략 컨설팅
12	전라남도 완도군	도시브랜드 활성화, 라이선스 전략 수립, '완도 전복'의 화폐가치 측정 별도 진행 컨설팅
13	경상북도 의성군	개별브랜드 (의성마늘) 활성화 전략 컨설팅
14	경상남도 남해군	개별브랜드 (죽방렴멸치) 활성화 전략 컨설팅

5. 비영어권 브랜드개발 지원사업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행정사무관 정임숙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세계 경제의 총체적 불황 속에서도 유엔개발정책분석국은 중국의 세계성장 기여도가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어권 선진국의 경우 이미 대부분 성장이 완료되거나 시장이 성숙하여 중소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거나 빈틈을 찾기 어려운 반면, 비영어권 시장은 비교적 글로벌 경쟁에 덜 노출된 상태로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다.

하지만 변변한 브랜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비영어권 시장 개척은 어려운 일이다. 삼성 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들은 취약한 브랜드력 때문에 제품이 시장에서 실제 가치의 64%정도로 평가된다고 생각하며, 87%가 브랜드력이 취약하여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브랜드력마저 취약해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중소기업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특허청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비영어권 시장 진출을 돕고자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본 사업은 사업수행사와 중소기업을 1:1로 매칭하는 한편 한국외대 교수 및 브랜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전문성을 적극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현지어 브랜드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개발 단계에서 현지 상표 등록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개발 후 현지어 브랜드의 현지 출원은 물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08년에는 총 5개 업체의 현지어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 사업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 참여자의 사업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고 과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사업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이미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제외한 3개 기업은 글로벌 브랜드 개발 후 현지어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브랜드 개발을 이끌었다. 사업수행사와 중소기업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적인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더불어 이러한 브랜드 개발 과정을 초 - 중 - 후반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브랜드 전문가와 현지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브랜드수요자인 중소기업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나아가 개발브랜드 후보군을 대상으로 현지시장에서 부정 이미지 연상테스트와 정밀 검색을 실시하여 현지와 밀착한 맞춤형 브랜드는 물론 상표등록에도 만전을 기했다.

〈표 IV-3-11〉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현황

연번	기업명		개발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1	(주)부원 생활가전		주방용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간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의 질을 높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 핸드블랜더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중국(현지법인), 대만, 미주지역에 진출 주 생산품(비영어권 수출품) : 핸드 블랜더
	진출 국가	중국	 
2	(주)캐프		1995년 '최고 품질의 자동차 와이퍼 생산'이라는 사명 아래 창업하여 과감하고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해외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점유율 5위 기업으로 성장, 종합 부품그룹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 주 생산품(비영어권 수출품) : 자동차용 와이퍼
	진출 국가	러시아	 
3	(주)장생도라지		특허작물인 장생도라지(평균 수명이 3년인 도라지를 자연 상태에서 21년 이상 생장시킨 도라지로서 인체에 유용한 약리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이 밝혀져 식품은 물론 과학적, 의학적인 연구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바이오 신소재)를 재배, 연구하고 이를 다양한 기능성 제품으로 생산, 수출하고 있는 INNO-BIZ 바이오 벤처기업 주 생산품(비영어권 수출품) : 장생도라지를 주원료로 하는 가공품
	진출 국가	중국	 
4	(주)OKF		해외 70여 개국에 식음료제품 등을 위주로 수출하는 기업 주 생산품(비영어권 수출품) : 알로에음료, 김치, 삼계탕, 김 등
	진출 국가	중국	
5	메디포스트 (주)		국내 줄기세포 치료 개발 선두업체이자 대한민국 대표 생명공학 기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제대혈 보관업 및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담당. 대표브랜드인 제대혈 은행 [Celltree(셀트리)]가 있으며 국내 M/S 1위를 차지 주 생산품(비영어권 수출품) : [셀트리모비타] 임산부용 건강기능식품
	진출 국가	중국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진행된 본 사업은 사업에 참여한 5개 기업 모두 2009년 2월 말 현재 현지 출원을 완료한 상태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비영어권 시장이라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특정 시장을 타겟팅하여 현지에 주요한 브랜드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여타 중소기업 브랜드지원사업과 차이점을 갖는다고 하겠다. 또한 바로 이점이 개발 브랜드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개발 브랜드의 질을 담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자문으로 정보비대칭상황에 있는 사업 수행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08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09년에는 지원 중소기업을 확대하고자 예산을 증액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통해 증명되었던 본 사업의 효과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지원 확대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확대 구성을 이루고자 한다. 중국, 러시아에 그치지 않고 아랍 및 남미 등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다변화된 세계시장 공략을 함께할 예정이다.

〈표 IV-3-12〉 '08년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 반응

- * 중국 시장의 본격 진출을 위한 중국현지화 브랜드를 임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수준의 우수한 브랜드 개발 완료 -부원생활가전
- * “비영어권 브랜드 지원 사업”은 실천으로 살아 움직이는 정부 지원 정책 최고의 지원 사업으로 사료 -장생도라지
- * 브랜드 운영위원의 좋은 의견이 많아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 캐프
- * 브랜드 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부담 등의 문제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임. 중소기업들이 해결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헤아려주어 매우 만족 -메디포스트

〈 비영어권 브랜드 지원 결과 〉

Before					After
(주)부원생활가전	홈쇼핑	1개 업체 (상하이 동방CJ)	→		5개 업체가 신규로 입점 요청 (남경 요요, 후난TV 등)
	일일 판매량	평균 40대		→	최대 320대
	매출액	130백만원('08.12월)			650백만원('09.1월)
(주)캐프	바이어	2개 업체	→		3개 업체 (1개 업체 추가 발굴)
	매출액	700백만원('08.12월)			4,200백만원('09.1월)

6.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공업사무관 여덕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1세기는 국내외 전문가에 의해 이미 지식기반사회로 정의된 바 있으며, 미국의 경우 'Pro-patent'와 같은 특허중시정책을 근간으로 자국의 지식재산권(지재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입안하는 등 자국의 지재권 창출, 활용, 보호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기업이 지식자산을 경영에 도입하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기업은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지재권을 기업경영의 한 축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경영이 본격 도입되었으나, 중소기업은 인식, 자금, 인력 등의 부족으로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다수의 혁신형 중소기업은 국내 또는 해외 영업에서 제품과 관련한 우수특허의 확보, 경쟁업체와의 지재권 분쟁 가능성이 상존 등 지재권 관련 현안을 인식하고 당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허청에 문의를 해 왔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기 이전에 특허청은 주로 담당 심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해당 기업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특허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06년 9월 기술분야별 심사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단」을 발족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높은 호응도를 얻었다. 특허청은 특허 이외에 상표, 디자인에 대한 중소기업의 컨설팅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어, '07년 6월 기존의 지원단을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단」으로 확대·발족하였으며 '07년 12월 지원단의 업무 확대를 위해 산업재산경영지원팀으로 승격시켰다.

선진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지재권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상담 및 컨설팅이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특허청의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이러한 선진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경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컨설팅 과정은 특허청의 지식재산경영 전담인력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컨설턴트가 혁신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조직 설치 여부 및 직무발명 운영상태 등에 대한 사전진단을 수행하고, 사전진단 결과와 대상 업체가 희망하는 분야를 토대로 맞춤형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컨설팅 대상 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보다 내실 있는 컨설팅을 위해 컨설팅 전담인력뿐만 아니라 공익변리사, 특허유통 상담관 등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게 된다. 대기업 또는 외국기업과 분쟁중이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에 공익변리사를 파견하여 특허분쟁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기술이전 또는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유통상담관이 기술 거래 방법, 관련 제도, 정부 지원시책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림 IV-3-5〉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개요



44) WIPO SME division의 best practice, http://www.wipo.int/sme/en/best_practices/ 참조

나. 추진내용 및 성과

'06년부터 '08년까지 총 291개 업체가 특허·브랜드·디자인경영 컨설팅 지원을 받았으며, 이들 기업 중 62개 기업에 대해 해당업체 전략품목에 대한 맞춤형 특허맵을 작성 보급하여 연구개발 방향 설정, 보유 지재권의 평가, 주요 국가 수출시 사전 분쟁 회피 등을 지원하였다.

컨설팅 제공 중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컨설팅, 특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S/W) 지원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온라인 컨설팅을 위한 포털 사이트(www.ipp.or.kr), 특허관리 S/W를 개발하여 컨설팅 수혜기업에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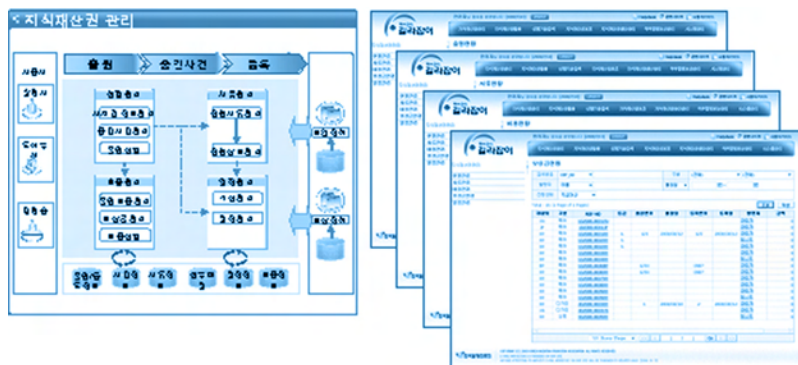
온라인 컨설팅을 위한 포털은 지식재산창출·활용·보호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지식재산 경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IP포털 사이트로서의 위상확립과, 중소기업의 추가 컨설팅 요구에 대응 및 보완하기 위한 온라인 컨설팅 망의 구축을 통한 상시 컨설팅 체계 구축 및 컨설팅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해 개발되었다. 지식재산경영 관련 소개, 지식재산경영 관련 최신 뉴스, IP 경영 자가진단 기능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그림 IV-3-6〉 지식재산경영 포털 사이트



특허관리 S/W는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기획, 출원, 중간 등록 및 활용계획 등 체계적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지재권 업무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특허 관리를 위한 S/W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지식재산권 관리기능 메뉴, 선행기술검색 툴 구축 및 삽입, 직무발명보상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게 된다.

〈그림 IV-3-7〉 특허관리 S/W 실행 화면(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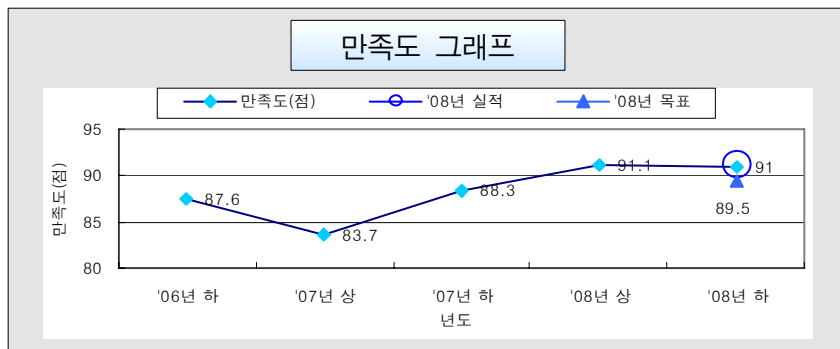
컨설팅 이후에도 ‘중소기업 특허경영 매뉴얼’, ‘중소기업을 위한 브랜드 디자인 경영 매뉴얼’, ‘정부의 특허경영지원시책 안내’, ‘직무발명 보상절차 가이드라인’, ‘특허 정보핸드북’ 등 다양한 지식재산경영 안내서를 제공하여 업체의 CEO와 담당인력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컨설팅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시 사전 특허 조사, 핵심 기술의 보호를 위한 특허출원 및 등록, 기업의 얼굴에 해당하는 상표 및 서비스표의 출원 및 권리화, 디자인의 개발 및 권리화, 지식재산 담당 인력의 배치 및 지속적인 교육, 연구인력의 사기진작과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등을 컨설팅 대상업체의 CEO 및 경영진에게 제안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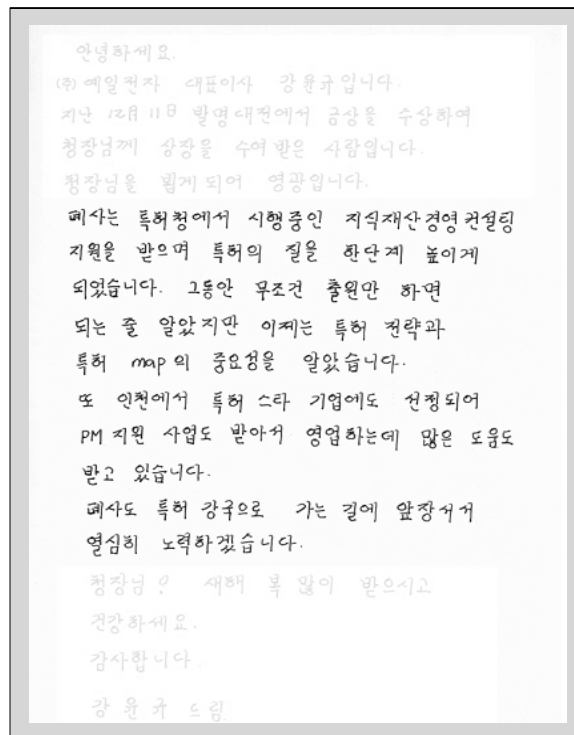
중소기업 재식재산경영 컨설팅 제공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기반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우수 지재권을 확보하고 자체적인 지재권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컨설팅 이후 청의 고객인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90점에 가까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 방문하는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 CEO는 컨설팅 이후 소감을 특허청장 앞으로 보내오기도 하였다.

〈그림 IV-3-8〉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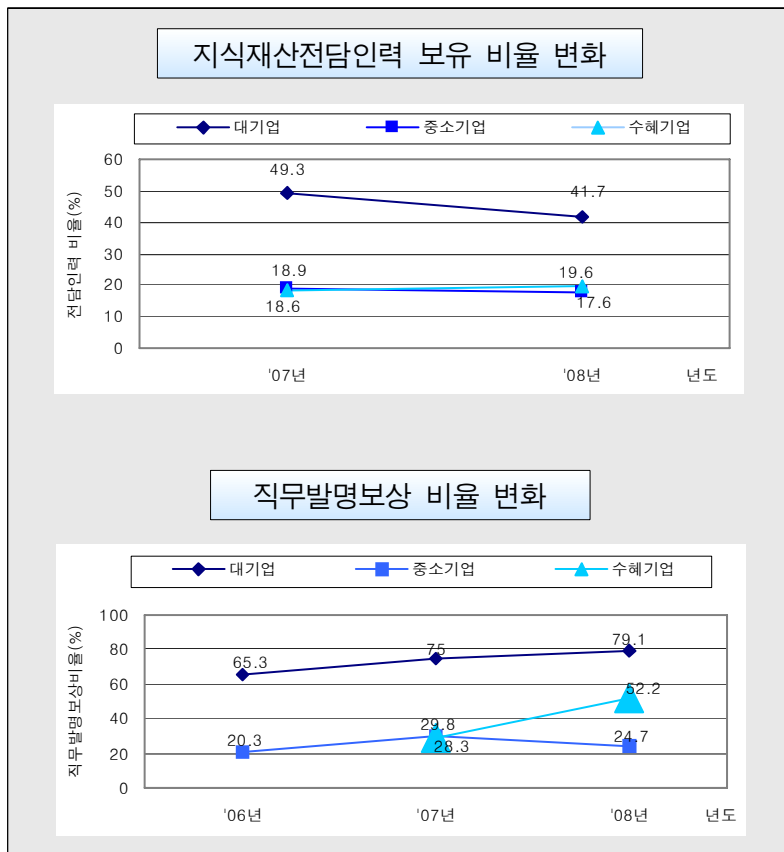


〈그림 IV-3-9〉 중소기업 CEO의 감사편지



'07년 및 '08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제공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절대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진이 기업경영에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중·장기적으로 컨설팅에서 제안된 사항을 도입·적용할 계획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07년 컨설팅 수혜기업이 '08년 말 지식재산경영 체계 개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08년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지식재산전담인력 보유기업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컨설팅 대상기업의 비율은 오히려 1%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일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비율은 5%가량 감소하였으나 컨설팅 수혜기업은 75%의 증가율을 보여 컨설팅이 CEO 및 기업의 인식 전환에 이바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3-10〉 지식재산전담인력 및 직무발명보상 비율 변화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 CEO들은 사내 지재권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부터 동 사업이 애초 목표로 하였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일정 부분 달성하였고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은 동 사업의 성과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에는 기업 Needs를 바탕으로 한 적시지원과 사후관리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경영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국제출원비용·시작품제작·특허기술 가치평가비용 등의 패키지 지원사업, 발명특허대전 제품전시, 기술거래, 기술보증 등과 지식재산경영 컨설팅과 연계지원을 하여 컨설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패키지 지원사업, 컨설팅 수혜업체 중 성과 우수기업, 일반 중소기업 중 IP 경영 선도 기업 등을 선별하여 민간의 IP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할 예정이다. 민간 IP 전문가는 수혜기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게 되며 국내 중소기업 실정에 적합한 지식재산경영 성공모델을 창출하게 된다. 지원 방식은 기업의 IP 경영 현황 진단,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사후관리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수혜기업은 IP 창출·보호·활용 및 인프라 구축 등 IP 경영 전 부문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수혜기업은 단기적인 지재권 분야 현안 해결은 물론, 기업의 중장기 IP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기초체질 개선은 물론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인식·이해정도에 따른 기업의 수준별(선도기업, 중간기업, 후발기업) 맞춤형 지원에서부터 사업화 및 환류까지 One-Stop Total Service 체계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경영 성공모델 창출을 촉진·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IV-3-11〉 사업추진 목표 및 추진방향



붙임1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주요 내용

0 특허경영 컨설팅	
특허경영 일반	- 특허경영의 중요성 및 도입 필요성 - 선진업체의 특허경영사례 및 최근 동향 설명 (중소기업 사례 포함) - 특허전담부서 및 인력의 업무내용 소개
특허제도 및 출원전략	- 특허·실용신안 제도 및 출원절차 안내 - 특허명세서·청구범위의 이해와 작성전략 교육 - 특허심사실무 소개 및 해당업체 심사사례 분석
특허정보 활용	-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검색방법 설명 - 업체 주력 기술분야 특허동향자료 제공
특허분쟁 대응	- 업체의 주력 기술·제품분야 특허분쟁사례 설명 - 분쟁관련 법률자문 및 라이선스 협상전략 설명(공익변리사 협조)
특허사업화 및 거래·평가	- 특허사업화 및 거래·평가 관련 정부지원 정책 소개 - 특허양도·라이선스 계약실무 안내(특허유통상담관 협조)
직무발명제도	- 개정 직무발명제도 소개 - 기업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제공 및 자체 규정화 유도
0 브랜드경영 컨설팅	
브랜드경영 일반	- 브랜드경영의 중요성 및 도입 필요성 - 선진업체의 브랜드경영사례 및 최근 동향 설명 (중소기업 사례 포함)
상표제도 및 출원전략	- 상표제도 및 출원절차·전략 소개 - 상표심사실무 소개 및 해당업체 심사사례 분석
상표정보 활용	- 선행상표조사 등 상표검색방법 설명 - 업체 생산제품 분야 상표동향 자료 제공
상표분쟁 대응	- 상표분야 국내외 분쟁사례 설명 - 분쟁관련 법률자문 및 대응전략 소개
0 디자인경영 컨설팅	
디자인경영 일반	- 디자인경영의 중요성 및 도입 필요성 - 선진업체의 브랜드경영사례 및 최근 동향 설명 (중소기업 사례 포함)
디자인제도 및 출원전략	- 디자인제도 및 출원절차·전략 소개 - 디자인심사실무 소개 및 해당업체 심사사례 분석
디자인정보 활용	- 선행디자인조사 등 디자인검색방법 설명 - 업체 생산제품 분야 디자인동향 자료 제공
디자인분쟁 대응	- 디자인분야 국내외 분쟁사례 설명 - 분쟁관련 법률자문 및 대응전략 소개

붙임2 :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수혜업체 CEO의 인터뷰 내용

의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때문에 하반기부터 케이블 광고를 시작으로 지하철 광고, 나아가서는 매이저급 TV 광고 등을 통해 인지도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또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부하는 지금의 기술력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정복이 가능한 업그레이드 제품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달 비치밀리볼 행사에 공식 후원사로 나선 것도 그러한 홍보 전략의 하나. 하반기에는 잡지 지면 광고를 비롯해, 케이블 TV 5개 채널, 지하철, 네이버 키워드 광고 등 공격적인 홍보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가식성 필름 원천기술과 점목, 전세계 제약업계에서 자리매김할 터

장석준 사장이 경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회사의 생산제품이 내 맘에 100% 만족하는, 1등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만든 제품이 자신감이 있어야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 제품을 팔더라도 자신감 있게 세일즈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동안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 중소기업이지만 저를 비롯하여 써열람 23명 전직원은 우리 제품이 업계 1등 제품이라는 자부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모두가 뜻을 품쳐 미래의 꿈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 스스로 그런 직원들에게 지금은 중소기업으로서 힘들지만 회사 성장과 함께 삼성 등 대

기업 못지않은 대우를 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뷰 발미에 미국 등 세계 각국을 돌며 비즈니스맨으로 활동한 장석준 사장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아쉬웠던, 그리고 고마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실질적인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다.

"현재 시판중인 제품의 브랜드명이 에너센스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이센스라는 브랜드로 등록을 했었지요, 그런데 요개월 만에 '불가'가 나왔습니다. 포스터, 라벨, 박스 등을 모두 다시 제작하면서 금전 손실은 물론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잠시 심각한 상황을 경험했었습니다. 한편 우연한 기회에 특허청의 중기지원책 중 컨설팅사업에 참가하게 되었었는데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진심 어린 도움을 받으면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 힘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모두가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지만 말로만 중기 육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의 사업과 같이 진정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중기 육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류비즈니스, 화장품비즈니스 등 평생을 국내외에서 비즈니스와 함께 전파가 많은 특성의 CEO, 장석준 사장, 그는 이제껏 '돈을 찾아서 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단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그가 지금 '가식성 필름 원천기술을 점목, 전세계 제약업계에 이름을 하나를 남기겠다'는 꿈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특허의 CEO, 장석준 사장이 그가 꿈꾼 '블루오션'의 세계에서 마음껏 나래를 펼치기를... 기대한다.

문의 02-406-7007

제2절 상표·디자인 정보 활용 확산

1. 디자인맵 개발 및 분석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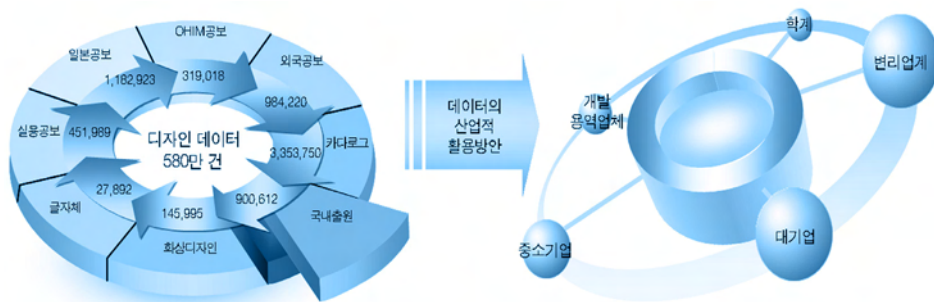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상영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 추진배경

세계시장은 이제 디자인에 의하여 시장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즉, 디자인은 Global 경쟁시대에 있어서 기업 성공의 필수적인 Tool이 되고 있으며 세계 우수기업들은 디자인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특허청에서는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심사 참증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740여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기업에서 활용하여 Global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 맵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다.

〈그림 IV-3-12〉 디자인 참증자료현황 (특허청 통계자료, 2009년 2월 25일 기준)



가) Global 디자인 시장

최근 보도를 보면, 세계적인 불황을 타게 하기위하여 기업에서는 신성장 동력으로써 디자인을 삼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2005년부터 3년간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9백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58%, 수출은 90% 가까이 증가하는 등 디자인의 개선을 통한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개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디자인이 경쟁력이다’라는 인식의 확대 및 디자인을 통한 기업의 성공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관심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세계 휴대폰시장이 2004년도 출하량의 연간 성장률이 31%에서 2005년 25%로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모토로라의 경우 새로운 디자인인 「레이저 모델」을 통해 5000만대에 달하는 판매를 이루었으며, LG의 경우 2006년 3월 새로운 디자인인 「초콜릿 폰 모델」로 시판 이후 8주 만에 100만대 이상 판매를 이루었다고 한다. 뛰어난 디자인은 소비자 수요를 자극하여 최고급 제품뿐만 아니라 초저가 제품에 이르기까지 매출과 직결되는 요소로써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어지고 있다.

이는 각 기업들의 이윤창출 뿐만 아니라 국익과 연결되는 것으로써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디자인에 있다 할 것이다.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성공적인 디자인 사례들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디자인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경우도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디자인 제품을 통해 성공한 기업들이 신발, 보안기기, 세차기 등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디자인 전문회사나 대학 등과 연계해 제품이나 포장, 시각, 캐릭터, 브랜드 등의 디자인 개발에 힘을 쏟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는 디자인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시장조사를 통한 디자인 트렌드 파악이나 제품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디자인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한 때인 것이다.

2)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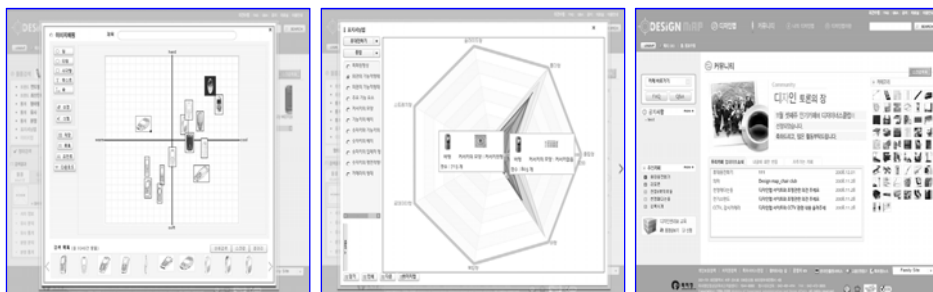
디자인 맵(Design Map: DM)이란, 국내·외 디자인 정보의 각종 서지적 권리정보 사항과 도면 항목들을 정리·가공 분석하여, 디자인의 트렌드 파악, 유사분석 및 분쟁분석 등의 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한 것이다.

디자인 맵은 물품별 트렌드 분석과 산업별 트렌드 분석이라는 2개의 큰 모듈로 구성되며, 2010년까지 70여개 아이템에 대한 디자인 맵이 구축될 예정이며, 녹색성장 과 관련된 제품과 연계한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및 각 산업영역별 동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디자인 맵은 제품의 개발방향 설정 및 경쟁력 강화, 특정 분야의 디자인 트렌드와 시장 및 상품의 변화를 파악함과 아울러 디자인 권리간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산업계, 학계, 변리업계, 일반 출원인 등의 현업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예상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디자인 인프라구축에 크게 기여 할 것이며, 우리나라 디자인산업 수준을 선진국 진입의 전략적 목표로 달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 IV-3-13〉 디자인 맵 기능별 개발예 ; 메인페이지, 통계분석, 트렌드분석



〈그림 IV-3-14〉 디자인 맵 기능별 개발예 ; 이미지 맵, 포지셔닝 맵, 카페



현재 디자인 맵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축사례는 전무하고, 일부 민간기업의 외부 위탁에 의한 소수 디자인 맵 구축사례가 존재한다. 디자인 맵과 구축목적이 유사한 특허 맵(Patent Map: PM)의 경우 특허청의 주도로 2000년부터 구축사업을 시작하

여 특허와 관련된 지속적인 과제를 수행중이다. 외국의 경우, 유일하게 일본 특허청에서 2000년도부터 디자인 맵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17개 분야의 핵심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맵을 작성 완료한 수준으로 아직 초보적인 디자인 정보 제공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6시그마 프로젝트로써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 말까지 실시된 디자인 맵 프로젝트는 2007년도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2006년 현재 High-Tech 분야의 휴대폰과 Low-Tech 분야의 전기스탠드를 시범 아이템으로 선정하여 실제적인 차원에서 고객의 소리(VOC: Voice of Customer)를 듣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와의 토론회와 Workshop, PCRM(Personal Customer Relation Management) 및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하여 업계, 학계, 변리업계 등의 요구를 청취, 의견수렴 하였으며, 디자인 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많은 기능을 첨부하기 위한 보안작업 등의 노력을 통하여 진정한 국가 디자인 경쟁력에 밑거름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성공적으로 Pilot Test를 마칠 수 있었다. 특히, 2007년도에는 20개 아이템에 대한 디자인 맵 개발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에는 18개 아이템에 대한 맵 작성 및 시스템 구축을 하여 시범운영중에 있다. 2009년에는 15개 아이템에 대한 맵 작성, 39개 아이템에 대한 업데이터, 6개 아이템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및 산업동향 분석이 추가적으로 진행 된다.

〈그림 IV-3-15〉 2006년 디자인 맵 Workshop, 2006년 4월 21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회의장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디자인 맵 구축 사업은 매년 중간 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있으며,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2009년부터는 산업동향 분석 및 기업 맞춤형 디자인 맵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내외 산업동향 파악을 위하여 국내외 디자인 출원 동향 등을 군별, 대분류별, 중분류별 중심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전반적인 산업별 동향 분석 트렌드 제공을 추진한다. 산업군별 물품 경향과 특징에 따르는 여러 요소들을 분석하고, 친환경적 물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트렌드 및 개발 방향을 정의하여 제품 개발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된다.

〈그림 IV-3-16〉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산업군별 통계분석



또한 녹색성장 산업에 해당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친환경디자인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의 프로세스에서 요구되어지는 각종 디자인 정보를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는 또한 상대적으로 디자인 정보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디자이너에게 미래의 혁신적인 친환경디자인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디자인 전략과 방법론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경쟁업체 및 경쟁국의 디자인을 분석할 수 있는 효율적인 디자인 툴로써 사용될 것이다.

현재 특허청이 추진 중에 있는 디자인 맵 사업은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각 용도별로 프로그램화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무한 디자인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외 상황에서 “디자인 맵”은 21세기 국가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V-3-17〉 2006년 디자인 맵 사업 설명회, 2006년 8월 25일, 리츠칼튼호텔 그랜드볼룸



〈그림 IV-3-18〉 2007년 디자인 맵 사업 완료보고회, 2007년 12월 12일,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그림 IV-3-19〉 2008년 디자인 맵 사업 완료보고회, 2008년 12월 4일,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2. 상표트렌드 분석사업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 행정사무관 윤내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오늘날 상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 및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품질이 평준화되면서 기술과 품질로는 차별성을 갖기 어려워졌고 소비자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상표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기업의 마케팅 분야에서도 상표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기업이 가지는 어떠한 유형자산보다도 큰 개념의 무형자산으로서 기업의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소중한 재산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표는 한국시장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하여 소멸되는 것일까? 또한, 시대적 상황과 유행 또는 문화의 변화 속에서 그 위상은 어떻게 변화하였고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배경으로 ‘상표 트렌드 분석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7년 시범사업으로 화장품 등 7개 품목에 대해 기초통계와 도표, 시대상황과의 관계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분석되었고, 그 결과물을 『2007 상표-디자인展』에 전시하여 호평을 받았다. 2008년에는 의류와, 식·음료서비스업, 쌀 등 곡물 도정류 3개 품목을 분류코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물품의 선정배경은 다출원 다분쟁품목과 국내산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또한 『2008상표-디자인展』에 전시되었고, 결과물을 CD에 담아 관람객에게 배포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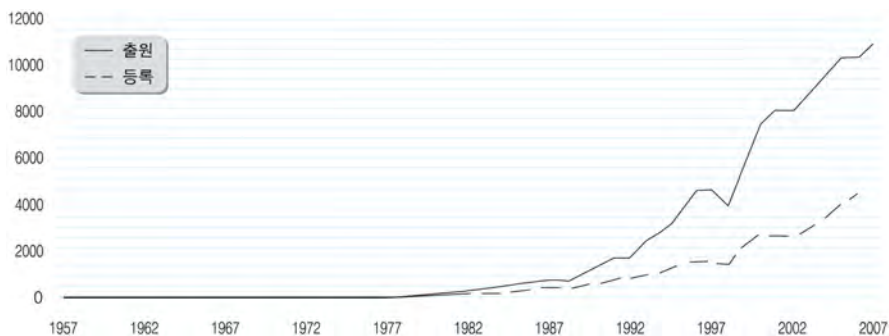
〈표 IV-3-13〉 분석대상 및 분석 건수

구 분	식음료를 제공 하는 서비스업S1206	의류G4503	쌀 등 도정한 곡물 G0201
출 원	110,290건	143,933건	44,297건
등 록	39,852건	65,474건	25,063건

분석내용으로는 출원인별 출원, 등록 동향을 분석하였고, 상품의 구성요소를 문자, 외관, 관념으로 나누어 네이밍 업체와 일반 출원인이 파악하기 쉽도록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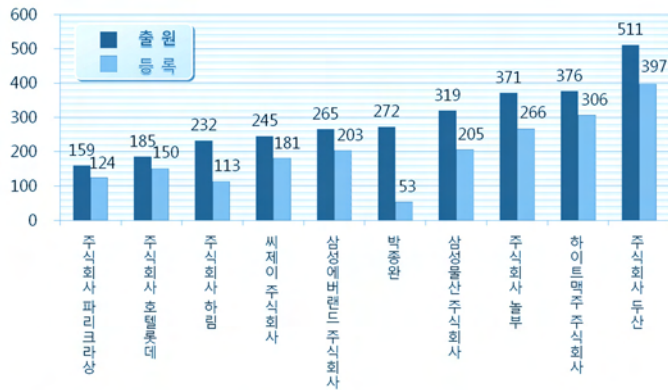
구성요소분석, 결합형태에 따른 분석, 자연어·조어 분석, 한글 음절수에 따른 분석 등이 이루어졌으며, 거절이유와 심판 및 소송까지 분석함으로써 미연에 상표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갱신 횟수에 따른 장수상표와 테마로 살펴보는 상표(계절표시, 실명표시, 방송관련 연예인 표시, 독도표시) 등 상표별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IV-3-20〉 식음료서비스업의 연도별 상표출원 및 등록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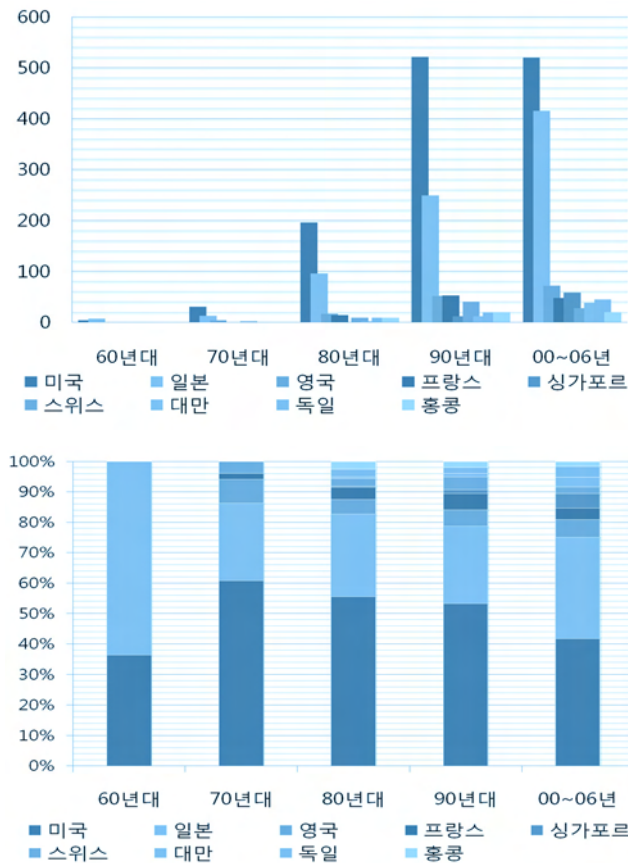


1. 연 대	2. 출 원	3. 등 록
1950년대	3	3
1960년대	21	21
1970년대	256	232
1980년대	4,485	2,622
1990년대	32,533	12,387
00~06년	62,128	22,606
계	99,426	37,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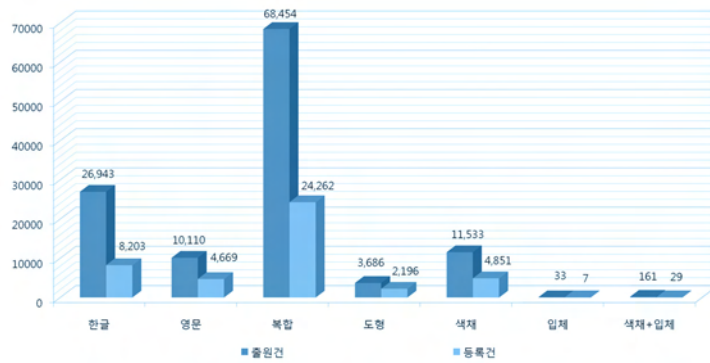
〈그림 IV-3-21〉 식음료서비스업의 상위 출원인 출원 및 등록 추이



〈그림 IV-3-22〉 식음료서비스업의 국가별 등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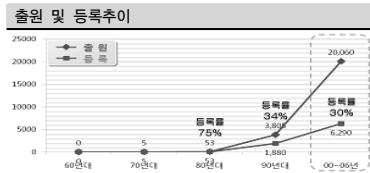
〈그림 IV-3-23〉 식음료서비스업의 구성요소별 출원 및 등록



〈그림 IV-3-24〉 식음료서비스업의 구성요소별 등록 및 거절 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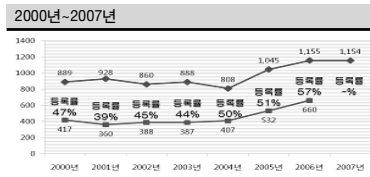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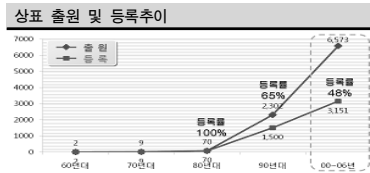
한글만으로 된 상표

등록	거절
마당지기 41-2008-0029118	오늘의 주길부리 타인의 선행등록 동일유사 41-2008-0022471
우삼시대 41-2008-0029454	돈·보·다리 타인의 선행등록 동일유사 41-2008-0029029
이순재 손칼국수 41-2008-0030082	솔잎오겹살 성질표시(원재료·성분·수량·중량) 41-2008-0028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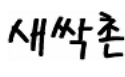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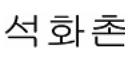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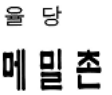
영문만으로 된 상표

등록	거절
buona Sera 41-2008-0018409	JOY & CHARLIE 타인의 선행등록 동일유사 41-2008-0025548
TOPINO 41-2008-0020100	Little Saigon 현저한 지리적 표시 41-2005-0025581
BOTTICELLI 41-2008-0019680	sushimadang 원재료 표시 41-2005-0028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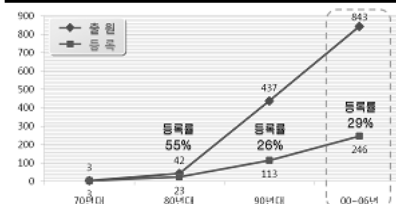


〈그림 IV-3-25〉 식음료서비스업의 구성요소별 등록 및 거절 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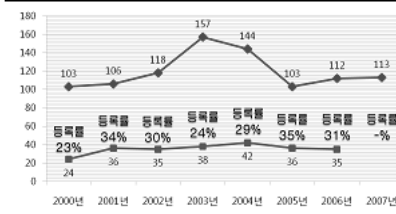
‘촌’이 결합된 상표

등 록	거 절
 본가 장수촌 41-2002-0013082	 새싹촌 타인의 선등록 동일유사 41-2004-0011148
 단지촌 41-2000-0025347	 석화촌 원래로 표시 41-2003-0017202
 메밀촌 41-2000-0003849	 한반장어촌 타인의 선등록 동일유사 41-2000-0031807

출원 및 등록추이



2000년~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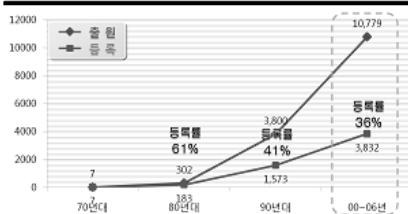


〈그림 IV-3-26〉 식음료서비스업의 구성요소별 등록 및 거절 예3

‘동물’ 도형코드

 대양참치 41-2006-0024841	 大吉 41-1999-0019244
 한대곰 41-2006-0026278	 파주목 41-2006-0028275
 장광명 41-2007-0014043	 사각니 41-2008-0026680

출원 및 등록추이



2000년~2007년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상표트렌드 분석사업은 감성소비시대에 주요한 마케팅포인트가 되는 상표(브랜드)의 개발뿐 아니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전기음향영상기구, 의료기계기구, 소고기 등 식육류 3개 품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상표트렌드 분석요소 이외에 우리나라의 주요수출국의 주요 수출품의 상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해당국의 상표를 분석하여 니치마켓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국의 문화와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키워드제시를 해당지역의 현지 어휘와 발음까지 제공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 더욱 좋은 브랜드정보제공을 할 예정이다.

4

CHAPTER

제4편 지식재산의 창출기반강화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제1절 발명진흥행사 개최

1. 제43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서기관 문창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보호에 이르는 지식재산 선순환 구조의 확립여부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의 주요원천이 되고 있다.

이러한 순환의 시발점인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으로 지식재산 창출 저변을 확대하는 법적·제도적·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발명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발명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발명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957년에 세종대왕이 측우기 발명을 공포한 날(1442. 5. 19)을 기념하여 5월19일을 「발명의 날」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다.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는 발명가들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유공자 포상, 발명우수사례 발표, 우수발명품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08년 「제43회 발명의 날」 기념식은 ‘**발명으로 열어가는 선진 일류국가**’라는 주제 하에 지식경제부장관과 발명유공자, 우수발명업체, 발명학생 및 지도교사 등 약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9일(월), 서울 COEX에서 거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발명 및 특허분야에 공헌해 온 유공자 7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이 있었으며, 부대행사로 우수사례 발표, 홍보영상 상영, 발명대왕 선정, 우수발명품 전시회 등을 진행하여 발명에 관한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이날 특별 전시된 ‘복싱 로봇’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독차지 하였다.

〈그림 IV-4-1〉 발명대왕 시상식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념식 축사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경제부의 출범이 갖는 의미와 특허청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세계4위의 특허출원강국으로서의 특허청의 위상, 품질위주의 심사·심판 정책 및 개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발명가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표명 하였다.

〈그림 IV-4-2〉 발명의 날 기념식 치사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08년 발명의 날 기념식은 새정부 들어 처음 맞는 행사로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행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홍보탑 설치, 가로등 배너 등 전시용 홍보를 폐지하여 행사의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2009년도 「발명의 날」 기념식에는 홍보효과가 큰 ‘발명가 성공 스토리’ 책자 발간,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 및 우수발명품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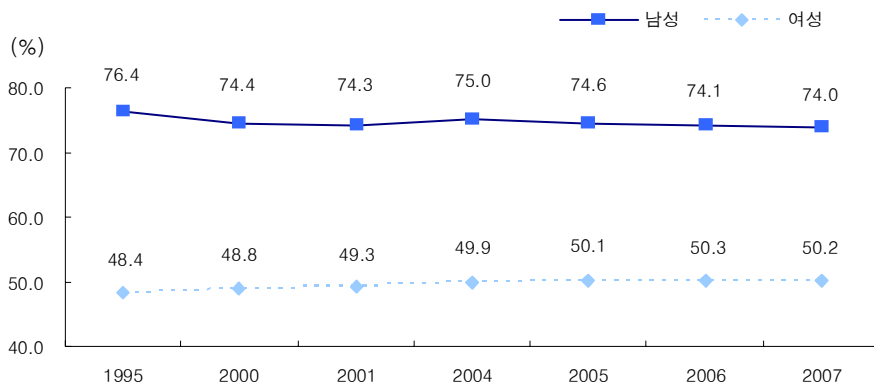
2. 세계여성발명대회 등 여성발명 진흥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김신용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속적인 지원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07년말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10,092천명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2%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이 갈수록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인력을 경제활동인구로 적극 참여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림 IV-4-3〉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KOSIS DB

이에 지난 1999년 한국여성발명협회의 설립을 인가하고 본격적으로 여성들 대상으로 한 발명진흥사업을 펼쳐왔다. 그 결과로 발명품박람회, 지식재산권설명회 등 본격적인 여성발명진흥사업을 펼치기 시작한 '01년 여성의 산업재산권 등록 건수가 4,032건 이었던 것에 비해 작년에는 7,772건으로 92.8%, 전체등록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01년 3.1%에서 '08년 4.0%로 증가했다.

〈표 IV-4-1〉 여성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특 허	153	314	345	420	743	1,252	1,529	1,133
실용신안	1,821	1,938	1,950	1,987	1,974	1,915	211	284
디자인	793	1,211	1,225	1,356	1,733	2,121	2,838	2,571
상 표	1,265	1,596	2,032	2,735	3,039	3,889	3,498	3,784
계(증가율)	4,032	5,059 (25.5)	5,552 (9.7)	6,498 (17.0)	7,489 (15.3)	9,177 (22.5)	8,076 (△12.0)	7,772 (△3.8)
총 등록 (점유율)	130,850 (3.1)	153,078 (3.3)	155,840 (3.6)	165,375 (3.9)	198,094 (3.8)	250,557 (3.7)	227,606 (3.5)	193,939 (4.0)

또한 여성들의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을 보면 '08년 18,178건으로 '01년 11,419건 대비 59.2% 증가하였으며, 전체 출원에서 여성출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01년 3.9%에서 '08년 4.8%로 증가하였다.

〈표 IV-4-2〉 여성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특 허	1,279	1,354	1,586	1,891	2,268	2,932	3,672	3,555
실용신안	2,044	2,115	2,442	2,271	2,386	2,429	1,572	1,198
디자인	2,159	2,149	2,226	2,342	3,178	5,911	4,807	4,878
상 표	5,937	6,844	7,591	7,782	8,323	8,982	9,598	8,547
계(증가율)	11,419	12,462 (9.1)	13,845 (11.1)	14,286 (3.2)	16,155 (13.1)	20,254 (25.4)	19,649 (△3.0)	18,178 (△7.5)
총 출원 (점유율)	289,420 (3.9)	290,792 (4.3)	306,001 (4.5)	327,516 (4.4)	359,207 (4.5)	372,520 (5.4)	380,203 (5.2)	359,229 (4.8)

발명분야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발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내면서 여성 발명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성공한 주부발명기업인들도 배출해 내고 있다.

특히 2008년은 여성발명진흥사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출발점이 되

는 한해였다. “2008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가 20여개국 1500여명의 여성발명가가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명실 공히 세계적 규모의 최초의 여성발명대회로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 또한 각국 대표단이 “세계여성발명인협회”를 조직해 여성발명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사무국을 한국에 두는 것에 동의한 “서울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세계여성발명인들의 연대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08년에도 우리 사회에 생활발명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여성발명인 양성과 여성발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졌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발명창의교실, 지식재산권설명회, 지도자양성과정 등이 전국에서 개최되어 4천명 이상이 참여했다. 2007년 처음 실시된 여성발명지도사 과정은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발명, 창의교육 전문지도사 과정으로 집에서 쉬고 있는 고급여성 인력이 사회로 재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회원 뿐 아니라 아동 교육에 관심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과 우수사례발표회, 여성발명품박람회, 여성발명인 변리자문 등 여성 발명품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되었다. 또한 여성발명인들을 장려하기 위한 경진대회와 발명대회도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여성발명진흥을 위한 사업화 지원 및 창의적 여성발명인력 발굴

① 세계 여성 발명 대회 및 여성 발명품 박람회 개최

세계 최초의 대규모 국제여성발명대회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여성발명주도국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08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와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국내 여성발명인들에게 국제대회 수상 및 폭넓은 해외 비즈니스 매칭 기회 제공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하였다. 개최일시는 2008. 5.8-5.10(3일간),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실시되었고 세계여성발명대회의 경우 22개국 264점 (국내100점, 국외164점)이 출품되었고, 여성발명품 박람회는 총 92개업체, 117개부스 참여, 7만5천명 관람하였으며, 바이어 상담은 국내 16,861회, 총 12억 9,700만원, 해외 10,298회, 총 27억 3,100만원을 상담하였다. 해외 바이어 상담 금

액이 국내 바이어 상담금액의 2배 이상으로써 호응이 좋았다. 세계여성발명포럼은 2008.5.9(금),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실시하였는데 30개국 350명 참석하였고, 이 포럼에서 서울 선언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은 서울에 사무국을 두는 세계여성발명인협회의 설립을 확정하였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MOU를 체결하는 등 국제기구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하였다.

이번 세계 여성 발명대회로 전 세계 여성발명인들의 국제적 연대와 네트워크 구축하여 국내 여성발명기업인들의 해외진출의 교두보 마련되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다양한 여러 매체에 소개되어 우리 사회에 여성발명문화진흥에 중요성 및 관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는 여성의 섬세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참신한 발명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여성발명활동의 모범을 보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여성들의 발명의욕과 잠재된 창의력을 일깨우기 위하여 '9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08년은 6월 10일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총 41건의 응모작품 중 6건이 선발되었고 약 200명이 참석하였다.

③ 여성 발명인 변리 자문

여성들의 발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출원을 돕기 위해 산업재산권 무료 변리상담, 정부의 산업재산권 지원제도 안내 및 산업재산권 관련 각종 자문, 특허출원시 변리비용 할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변리 자문사업」이 '04년 9월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08년에는 무료 변리상담 109건, 이중 45건을 출원하였다.

④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여성의 발명의욕 고취, 기술개발 촉진 및 발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우수 여성발명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07년부터 실시하였다.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범주에 속하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시제품을 통해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08년 113건 신청에 25건이 선정되어 6천5백 7십5만원이 지원되었다.

2) 여성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

① 전국 순회 여성 지재권 설명회

특허청은 여성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를 제고하고 잠재력 있는 여성발명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각 지자체, 지역 여성단체 등과 협조하여 발명에 관심이 있는 주부, 발명교실 참가학생 학부모, 여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순회 여성 지재권 설명회”를 '01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특허청 심사관, 발명교육 현장 전문가, 성공한 여성발명가 등을 강사로 구성하여 운영되는 동 설명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요 및 사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여성의 역할, 발명기법 및 요령, 여성발명가의 발명체험 사례 등을 주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08년도 여성지식재산권 설명회는 총 16회 개최하여 2,151명이 참가하였으며, 여성발명 창의교실의 경우 총 32회 개최, 1,588명이 참가하여 열띤 호응을 보였다.

② 여성발명 경진대회 개최

여성발명 경진대회는 여성들에게 참신한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창작 아이디어 계발에 대한 의식고양으로 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여성발명아이디어 공모대회」를 통합·발전하여 '03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08년에는 일반부 255건, 학생부 84건 등 총 339건이 출품되어 이중에서 아이디어 창출과정, 독창성, 실용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대통령상) 및 우수상(국무총리상) 각 1건 등 50건을 시상하였다.

③ 여성발명정보지(월간 “발명하는 사람들”) 발간

여성발명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 및 발명계의 각종 소식 전파, 정부의 지식재산권 창출촉진 사업 소개 등을 위해 한국여성발명협회 주관으로 '02년 7월 창간되었다. “발명하는 사람들”은 발명 마인드 제고, 발명인의 자긍심 고취 및 권익 옹호, 범국민적 발명생활화 운동의 전개, 발명인과 기업간의 연계 추진, 발명기업 홍보 등 생생한 정보와 다양한 뉴스를 발명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유관기관, 전국대학발명동아리, 여성 출원자 및 등록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여성발명진흥사업은 더 많은 여성들이 산업재산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펼쳐졌다. 창의적 여성발명가를 육성, 활용하고 우수 여성발명 출원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몽 및 진흥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물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성발명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고 여성 발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발전에 여성발명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핵심 역량을 투여했다.

2009년에는 국내를 벗어나 우리나라 여성발명가들이 세계의 중심에 서기 위한 도약을 준비 중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계 여성발명인 교류 및 여성발명의 세계화를 위해 발명대회, 박람회, 학술회의, IP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대규모의 국제 발명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세계 여성발명인의 협력 네트워크인 “세계여성발명인협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전 세계 40개에서 참여하는 ‘2009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제9회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세계여성발명포럼’, ‘세계여성발명·기업인위크샵’으로 이어지는 전 세계 여성발명인의 축제의 장이 마련되어 여성분야 지식재산권 최대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게 된다.

또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여성발명시제품제작지원사업, 우수사례발표회 등 다양한 여성발명진흥사업을 통해 여성발명의 저변확대와 여성발명품의 사업화를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발명가족페스티벌, 여성발명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여성 발명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며 전국에서 무료로 지식재산권 설명회, 발명창의교실, 발명지도사과정을 운영하고 여대생 발명캠프, 여성발명인위크숍 등을 통해 여성발명 인력 양성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2009년에는 여성발명진흥과 산업재산을 활용한 여성경제인 배출이라는 목표를 넘어 여성발명의 세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 발명특허·상표·디자인 대전 및 서울국제발명전 개최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성창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재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발명분위기 확산, 국내·외 발명인들의 교류 확대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발명품의 판로개척 및 유통을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행사연혁으로 발명특허대전은 1982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올해로 27회째, 서울국제발명전은 2002년부터 격년 개최하여 올해로 4회째, 상표·디자인전은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대한민국발명특허·상표·디자인대전」 및 「서울국제발명전」을 동시 개최하여 국내 우수한 특허, 상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발명품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명실 공히 세계 최대규모의 지식재산권 전시회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국내 발명특허행사의 대외 위상 상승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개막식 및 시상식에 국무총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간사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대내외적으로 지재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발명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되었다.

「서울국제발명전」은 국내 68사(명) 135점, 해외 34개국 351점이 전시되어 세계적 발명전 최대국내외 발명인들의 교류 확대 및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좋은 기회였으며, 최초로 해외 참가국별 통역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해외 참가자들의 의사소통 등의 문제를 해결, 해외참가자 참가 만족도 증대에 기여하였다.

〈표 IV-4-3〉 대한민국발명특허·상표·디자인대전 및 서울국제발명전 성과내용 요약

- 2008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및 서울국제발명전
 - 일시/장소 : '08. 12.11 ~ 15(5일간), 코엑스 태평양홀
 - * 발명특허대전 : 수상품 132점, 100대 우수특허제품 25점, 육군발명품 20점, 시작품 20점, 특허제품판로 지원관 11점 등 208점 전시
 - 기술이전(전용 및 통상실시권)계약실적 10건
 - 제품판매(수출 포함)계약실적 55건, 1억1천만원(2개업체)
 - 기술이전(전용 및 통상실시권)상당실적 186건,
 - 제품판매(수출 포함) 상당실적 334건
 - * 서울국제발명전 : 35개국 486점(국내 135점, 해외 34개국 351점)
 - 제품판매(수출 포함) 계약실적 : (국내) 61건 26억, (국외) 35건
 - 제품판매(수출 포함) 상당실적 : (국내) 736건, (국외) 446건
- 2008 상표·디자인전
 - 일시/장소 : '08. 12.11 ~ 14(4일간), 코엑스 인도양홀
 - * 우수상표, 디자인공모전 작품, 진품·모조품 등 전시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08년도 행사에는 대기업의 불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교류 및 상호 거래 활성화의 계기가 되지 못하였으며, 참여업체의 적극적 홍보부족으로 우수특허제품의 유통증진 및 판로 개척에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다출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교류 및 상호 거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09년도부터 매년 개최하는 「서울국제발명전」의 해외 우수한 발명품이 다량 출품될 수 있도록 각국의 발명협회 및 국제발명가협회연맹(IFIA)의 협조를 통해 해외 참가국 우수발명품 전시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IV-4-4〉 발명특허·상표·디자인대전 및 서울국제발명전 개막식



〈그림 IV-4-5〉 발명특허·상표·디자인대전 및 서울국제발명전 시상식



제2절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체계 고도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행정사무관 이진화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상영

1.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가. 이공계 대학(원) 특허교육 추진

1) 추진 배경 및 개요

최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많은 기업이 특허분쟁을 겪으며 특허문제는 전담 인력과 연구인력이 R&D 기획 단계부터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특허 전담인력을 별도로 둘 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구인력이 특허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더욱 특허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기업의 특허 역량을 갖춘 연구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춘 인력의 양성·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 특허교육의 확대 및 질적 제고에 대한 학계 및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의 연구인력인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특허교육을 추진하였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대학(원) 특허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공계 대학(원)에 특허 과목을 정규 과정으로 개설하여 대학(원)생들의 특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특허제도 전반 및 특허정보분석 관련 실무 중심의 특허교육을 실시하였다.

'08년 대학 특허 정규 과목은 40개 대학에 93개 강좌를 개설하여 4,775명이 수강하였고, 대학원은 6개 대학원에 15개 강좌를 개설하여 506명이 수강하였다. 총 수강생은 5,281명으로 '07년 수강생 4,791명 대비 490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실무 중심 교육 및 참여형 교육을 위해 강좌당 학생비율도 감소시켰다. 대학은 강좌당 학생비율이 51.3명으로 '07년에 비해 약 10명 감소하였으며, 대학원은 강좌당 학생비율이 33.7명으로 '07년에 비해 약 9명 감소하였다.

〈표 IV-4-4〉 대학 특허교육 지원현황

구 분	대학		대학원	
	'07	'08	'07	'08
대학 수(개)	37	40	4	6
강좌 수(개)	70	93	10	15
강좌이수 학생수(명)	4,370	4,775	421	506
1강좌당 학생수(명)	62.4	51.3	42.1	33.7

대학 특허강좌 수강생 중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심화교육을 위한 “IP Summer School”을 개최하였다. 전국 38개 대학에서 87명이 참여하여 총 15개 팀을 구성하여 특허교육과 함께 발명 아이디어 촉진을 위한 팀별 발명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또한 대학원에서 정규 과정으로 특허과목을 개설하기 어렵거나 교육 수요가 많아 기술별 맞춤형 교육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Lab)을 위해서는 석·박사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7개 대학, 10개 연구실에 개설하여 118명의 석·박사 연구인력이 수강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대학(원) 특허강좌는 '06년 본격 실시한 이후 양적·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학부 강좌는 '06년 44강좌에서 '08년 93강좌로 2.3배 증가하였으며, 대학원 강좌는 '06년 2강좌에서 '08년 15강좌로 7.5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IP Summer School 등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질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대학 특허교육을 확대하여 특허에 강한 연구인력을 양성하

고, 이들을 기업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특허에 관심을 갖도록 흥미로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실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사례 중심의 교육 내용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이공계 연구인력 뿐만 아니라 디자인권을 창출하는 연구인력 등을 위한 교육 지원 등 지식재산권교육의 저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IV-4-5〉 '08년 1학기 학부 및 대학원 강좌개설 운영지원 현황

구분	학교명	학과	강좌명
학부	강릉대	기계공학과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
	강원대	자원생물환경학과	웰빙 농업 지식재산권
	공주대	공학센터	발명과 특허 A
			발명과 특허 B
	금오공대	전자공학부	창의설계프로젝트
	김천대	의료보장구과	발명과 특허 A
	대불대	정보산업학과	발명과 특허 B
	대진대	기계설계공학과	발명과 특허 A
			발명과 특허 B
			발명과 특허 C
			발명과 특허 D
	동서대	응용생명공학부	발명과 특허
			특허관리
	동의대	공대	특허설계
	동원대	공대	기술과 특허
	서울대	재료공학부	지식재산권과 정보경영
	서울여대	컴퓨터공학부	특허와 기술이전
	서울정수대	카일렉트로닉스과	지식재산권
	세명대	바이오환경공학과	발명과 특허
	순천향대	의료과학과	특허와 환경신기술
	수원대	의료과학과	의료과학개론
	아주대	물리학과	발명과 과학
	아주대	신소재공학과	발명과 특허
	원광대	공대	지식재산권기초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인하대	공학인증(4강좌)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A ~ D
	전남대	응용화학공학부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A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B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C
	전북대	헬스케어공학부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
	제주대	생물산업학부	발명과 특허 A -BIO 분야

구분	학교명	학과	강좌명
		기계에너지시스템공학	발명과 특허 B -기계분야
	충남대	공학인증(4강좌)	공학 법제 A ~ D
	포항공대	인문학부장	지식재산권
	한국기술교육대	컴퓨터공학과	공학과 특허
	한밭대	전파공학과	지식재산권
	한양대	법대	특허법의 이해
대학원	서울대	재료공학부	특허와 정보분석 기술관리와 사업화
	KAIST	바이오시스템학과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A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B
	연세대	컴퓨터과학부	특허와 정보분석
	고려대	정보경영공학부	특허와 정보분석
계	27개 대학 / 4개 대학원		학부 43강좌 / 대학원 6강좌

〈표 IV-4-6〉 '08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강좌개설 운영지원 현황

구분	학교명	학과	강좌명
학부	가톨릭상지대	철도전기과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공주대	신소재공학과	특허 및 문헌수집 연습
		기계시스템공학과	발명과 특허 A
			발명과 특허 B
			발명과 특허 C
			발명과 특허 D
	금오공대	기계공학과	발명특허개론
	대구대	컴퓨터공학과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대불대	정보산업학과	발명과 특허 A
			발명과 특허 B
	대진대	기계설계공학과	발명과 특허
		산업공학과	발명과 특허
	동서대	응용생명공학부	발명과 특허
			특허관리
	서울대	재료공학부	특허와 기술이전
	서울여대	컴퓨터공학부	지식재산권
	선문대	환경공학과	과학기술과 지식산업
	세명대	바이오환경공학과	특허와 환경신기술
	수원대	물리학과	발명과 과학
	아주대	신소재공학과	발명과 특허
	영남대	화학공학부	식스시그마 특강(특허부문)
	이화여대	통계학과	지적재산권 관리

346 제4편 지식재산의 창출기반강화

구분	학교명	학과	강좌명
	인하대	공학인증(4강좌)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전남대	응용화학공학부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A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B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C
	전북대	헬스케어공학부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제주대	생물산업학부	발명과 특허 A -BIO 분야
		기계에너지시스템공학	발명과 특허 B -기계분야
	조선대	응용화학소재공학과	발명과 특허
	충남대	공학인증(3강좌)	공학법제 A ~ C
	포항공대	인문학부장	지식재산권
	한국기술교육대	컴퓨터공학과	공학과 특허
	한국폴리텍1대학	카일렉트로닉스과	발명과 특허
	한양대	법학과	특허법의 이해
	국민대	전자공학과	사제동행 세미나
		전자공학과	미래사회와 지식재산
		비즈니스 IT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숙명여대	법학과	지식재산권법 II
	강원대	생물자원환경학과	지식재산권의 이해
	동국대	기계공학과	기계공학
	서울산업대	신소재공학과	특허와 공학인
	고려대	산업시스템정보공학과	지식재산의 이해
대학원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지식재산권
	충북대	법학과	특허와 상표
	서울대	재료공학부	특허와 정보분석
			기술관리와 사업화
	KAIST	바이오시스템학과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A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B
	연세대	컴퓨터과학부	특허와 정보분석
	고려대	정보경영공학부	특허와 정보분석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특허와 정보분석(본교)
			특허와 정보분석(안산)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특허와 정보분석
계	32개 대학 / 6개 대학원		학부 50강좌 / 대학원 9강좌

나.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지원

1) 추진배경 및 개요

'08년 현재 국내에는 디자인관련학과가 320여개 대학에 개설되어 27만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매년 3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및 디자인보호제도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으며, 이에 대한 인식이 낮아 창작성이 높은 디자인결과물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은 '05년 10월부터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디자인결과물을 디자인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권리화 지원사업」 계획·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의 디자인전공 대학생 및 산업현장의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 보호제도교육을 통해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와 산업 현장에서 창작한 디자인 결과물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도·장려함으로써 디자인출원의 증가와 함께 디자인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06년부터 디자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권공모전(Design Right Fair)”을 개최하고 있으며, 디자인 전공 대학생뿐 아니라 기업에 있는 디자인관련 임직원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의 결과, 대학생의 디자인 등록출원건수가 '04년 241건에서 '08년 2,452건으로 4년만에 900%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표 IV-4-7〉 대학생 디자인등록출원 건수

연 도	'04	'05	'06	'07	'08
디자인등록출원건수	241	588	1,530	1,367	2,452

2) 디자인권리화 지원사업

특허청에서는 예비디자이너와 현장의 디자이너들에게 지식재산권 및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소개를 하고, 전자출원요령과 도면작성방법을 숙지토록 하여 자신의 디자인결과물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자인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캐릭터, GUI(Graphic User Interface) 등의 화상디자인,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디자인과 글자체 디자인 등에도 디자인권리가 부여될 수 있음을 관련 학과와 단체,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하였다.

디자인권리화 지원사업은 특허청의 디자인심사관이 학교와 기업을 방문하여 각 학교와 기업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08년에는 동서대 등 44개 기관, 2,360명에게 교육을 하였다.

〈그림 IV-4-6〉 2008년도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설명회(4월, 동서대학교 디자인학과)



3) 디자인권공모전(Design & Right Fair)

디자인권공모전은 디자인권의 인식제고를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2006년 대학생디자인공모전(Design & Right)로 시작되었다. 2008년 그 대상과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환하여 디자인권공모전(Design Right Fair)로 변경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수출기업의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300여회가 열리고 있는 각종 디자인공모전은 각 기업의 홍보와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얻으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출품자의 모든 지식재산권은 주최 측에 넘겨주고 소정의 상금만을 받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디자인권공모전은 디자인권을 매개로 기업과 출품자(디자이너)를 연결하여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08년부터 출품대상을 대학생에서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였으며, 디자인이 필요한 기업의 물품디자인을 공모하면 디자이너는 이에 대해 출품과 동시에 디자인등록출원하게 된다. 선정시에는 기업관계자와 함께 심사하여 기업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상한 후 선정된 작품은 기업이 양산하고 이에 따른 로열티를 출품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2008년 13개 기업(엘지생활건강, 애경, 듀오백 등)의 15개 디자인 품목(샤프용기, 치약패키지, 의자 등)에 대한 공모를 하여 350건이 출품되었고, 그 가운데 듀오백코리아의 의자디자인을 출품한 국민대학교의 임성빈씨가 대상인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외에 다양한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방어전략을 수립한 작품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상을 수여 하였으며, 이들 수상작(입선포함 140)들은 『2008 상표-디자인展』에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전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심사에는 학생들의 디자인 전개능력 뿐 아니라 특허청의 디자인 출원등록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어 학생으로 하여금 디자인 등록출원 절차를 직접 경험하게 하여 디자인 권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또한, 많은 작품을 출품하고 디자인등록출원한 학교 4곳을 선정하여 상표디자인전에 학교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듀오백코리아에서는 대상작품을 신상품으로 개발 중이며, 양산하여 판매하고 이에 따른 로열티를 선정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2009년에는 기업디자인과 더불어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관심증대로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까지 포함한 디자인을 공모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올 12월 『2009 상표-디자인展』에 전시될 예정이다. 디자인권공모전은 디자이너와 대학생들의 창작의욕과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디자이너를 발굴하기 위하여 『2008 상표-디자인展』의 일환으로 서울 무역전 시장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08년 12월 11일부터 4일간 개최되었다.

〈그림 IV-4-7〉 2008년도 디자인권 공모전 대상작 “듀오백코리아 의자디자인 및 전시포스터



〈표 IV-4-8〉 참여기업 및 공모디자인품목

구분	회사명	디자인물품
1	주)경희	원피스 스텝킹 의자디자인
2	주)듀오백	오피스 체어디자인
3	주)애경	치약용기
4		치약포장디자인
5	주)이든	노트(환경문제를 다룬 그래픽)디자인
6	주)진주동아실크	패브릭 디자인
7	주)태주조명	인텔리전트 조명디자인
8	주)태하메카트로닉스	노인용 자전거형 운동기기디자인
9	주)한국어도비시스템즈	어도비 홍보 영상(플래시, AV)디자인
10	보승코퍼레이션	컴팩트용기
11	주)해보산업	무선진공청소기
12	주)아모시스	롤러슈즈
13	주)혜왕	휴대용 난방기
14	주)엘지생활건강	엘라스틴삼푸용기
15		리엔삼푸용기

〈표 IV-4-9〉 출품현황 및 수상

순서	출품 기관	출품수	입상수
1	국민대	87	32
2	청주대	31	17
3	인제대	35	13
4	서울산업대	25	9
5	영남대	16	9
6	일반 및 기타	18	9
7	목원대	6	4
8	상명대	13	4
9	서경대	8	4
10	동아대	5	3
11	연세대	5	2
12	이화여대	2	2
13	전주대	8	2
14	한국과학기술원	2	2
15	한성대	3	2
16	강원대	1	1
17	계명대	1	1
18	계원디자인예술대	1	1
19	광주대	3	1
20	동덕여대	3	1
21	명지전문대	11	1
22	서울시립대	4	1
23	세명대	1	1
24	전북대	2	1
25	충북대	2	1
26	한국산업기술대	2	1
27	협성대	2	1
28	홍익대	7	1
29	기타 대	44	
		348	127

2. 개방혁신을 위한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추진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행정사무관 정의관

가. 추진 배경

일본은 2005년도에 208개 대학, 153개 대학원에서 지식재산 강좌를 운영하였고, 독일은 1996년부터 공대에 INPAT(대학 특허강좌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식재산 강좌가 1996년도에 65개 대학, 95개 학부에서 2000년도에는 127개 대학, 268개 학부로 확대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대학특허교육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2006년부터 대학특허교육이 시작되어 2008년도에 6개 대학원, 40개 대학에서 특허교육이 실시되었으나, 이론·법학 중심의 특허교육에서 특허정보 검색, 청구범위 작성 등 실무 중심의 실용적 특허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나. 추진 목적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는 대학의 실용적 특허교육을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허에 강한 연구인력 육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기업은 문제 출제, 심사, 상금을 부담하며 대학은 교수, 학생이 기업이 출제한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고 특허청은 대회운영지원을 한다. 이와 같이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는 기업, 대학, 정부의 실질적인 산·학·관 협력을 사례이다. 그리고 기업이 대학의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기업경영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 내부에 국한된 R&D에서 과감히 탈피, 외부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내부의 혁신으로 연결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 대회 개요

1) 경진부문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경진부문은 특허전략 수립부문, 선행기술 조사부문 2개 부문이 있다. 특허전략 수립부문은 세부적 기술주제에 대하여 국내외 특허를 분석하고, 연구개발전략 및 특허획득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선행기술 조사부문은 산업별 가상의 출원서 또는 발명요약서에 대하여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한 후에 특허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출원서를 보정 또는 작성하는 것이다

2) 참가자격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허전략 수립부문은 3명 이내 팀 또는 개인으로 참가하며 지도교수 1인이 참여해야 하고, 선행기술 조사부문은 개인으로 참여를 하며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장 추천서가 필요하다.

3) 심사절차

심사는 서류심사, 서면심사, 발표심사, 최종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는 신청자격 여부, 추천서(참가확인서) 확인 등 기초심사를 하고, 서면심사는 기업이 제출된 답안을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자 수의 3배수 정도를 선발한다. 서면심사는 서면심사에서 선발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작성한 논문 발표를 통하여 최종 순위를 정한다. 최종심사에서는 기업이 추천한 최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특허청장상 이상 상위의 상을 선정하게 된다.

4) 심사기준

심사기준은 경진부문별로 서류심사기준과 최종심사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게 된다. 선행기술 조사부문 서면심사기준은 선행기술 검색, 청구범위 작성·보정을 중심으로 세부평가지표를 정하였고, 특허전략 수립부문은 선행특허 조사 및 분석, 특허전략 수립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지표를 정하였다.

〈표 IV-4-10〉 경진부문별 서면심사기준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내용
선행기술 조사 부문	선행기술검색	선행기술 조사 달성도	효과적인 검색방법 사용 여부, 선행기술조사 결과 달성도 등
		검색 선행기술 적정성	검색 선행기술의 문제 출제 의도와와의 부합성
	청구범위 작성·보정	청구범위 작성·보정의 적정성	가장 넓은 독립항 작성, 적절한 종속항 사용 등
		특허요건 관련 의견 타당성	신구성 및 진보성 등에 관한 설득력 있는 의견 개진 여부
특허 전략 수립 부문	선행특허 조사 및 분석 등	기술개발 및 산업 동향 등 분석	기술·시장·산업 동향 분석의 적정성 등
		선행 특허 조사(정량·정성 분석) 등	주요 기술에 대한 선행 특허 조사 등 세부모듈별, 국가별, 출원인별 분류 등 핵심·원천 특허 도출 등
		핵심특허 도출, 선별, 분석 등	주요특허 검색 정도, 선별·분석의 적정성 등
	특허전략 수립 등	미래 기술개발 방향·전략 등 제시	미래 기술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전략 제시의 적정성 등
		기술획득전략 수립의 구체성·적정성 등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제시 등 회피(공백)기술 설계방안 등 자체 개발, 외부 도입 전략 등 판단 단기, 중·장기 개발 여부 판단 등

〈표 IV-4-11〉 경진부문별 최종심사기준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내용
선행 기술 조사 부문	학생답안	선행기술 검색 등	선행기술 조사 달성도 정도 검색 선행기술의 적정성 등
		청구범위 작성·보정 등	청구범위 작성 적정성 특허요건 판단 적정성 등
	기업성과	문제 해결 기여도	문제 출제 목적·의도 부합성 등 해당 산업분야 등에 대한 파급효과 정도 등
		발전가능성 등	향후 연구과제 채택 가능성 등 실무 적용 계획 등
특허 전략 수립 부문	선행특허 조사 및 분석 등	기술개발 및 산업 동향 등 분석	기술·시장·산업 동향 분석의 적정성 등
		선행 특허 조사(정량·정성 분석) 등	주요 기술에 대한 선행 특허 조사 등 세부모듈별, 국가별, 출원인별 분류 등 핵심·원천 특허 도출 등
		핵심특허 도출, 선별, 분석 등	중요특허 검색 정도, 선별·분석의 적정성 등
	특허전략 수립 등	미래 기술개발 방향·전략 등 제시	미래 기술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전략 제시의 적정성 등
		기술획득전략 수립의 구체성·적정 성 등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제시 등 회피(공백)기술 설계방안 등 자체 개발, 외부 도입 전략 등 판단 단기, 중·장기 개발 여부 판단 등
	특허 분석과 전략수립(회피설계)간의 논리적 연계성 등		

〈표 IV-4-12〉 발표심사기준

평가지표	세 부 내 용
이해력	발표자 이해도, 청중 이해도
분석력	목적 적합성, 방법 정확성
표현력	답변 명료성, 발표자료 사용 적절성

5) '08년 시상내역

'08년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시상은 특허전략 수립부문에서 특허청장상 이상 상위상에 학생 6개 팀, 지도교수 6명을 선정하였고, 기업 CEO상은 18개 팀, 가작은 31개 팀을 선정하여 총 55개 팀(지도교수 6명 제외)을 선정하였다. 선행기술 조사부문은 특허청장상 이상 상위상에 4명, 기업 CEO상 10명, 가작 20명 총 34명을 선정하였다. 단체상은 최다응모대학으로 연세대학교가 수상을 하였다.

〈표 IV-4-13〉 '08년 시상내역

구 분		특허전략수립		선행기술조사
		학생	지도교수	
지식경제부장관상		1천만원(1팀)	5백만원(1명)	3백만원(1명)
한국공학한림원회장상		1천만원(1팀)	5백만원(1명)	-
특허청장상		각 7백만원(4팀)	각 5백만원(4명)	각 2백만원(3명)
기업상	CEO상	각 5백만원(18팀)	-	각 1백만원(10명)
	가작	각 1백만원(31팀)	-	각 3십만원(20명)
단체상	최다응모대학	1천만원(1개 대학)		

6) '08년 주요일정

'08년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는 '08. 9. 9 공고를 시작으로 신청서 접수, 논문 제출, 심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표 IV-4-14〉 '08년 세부추진일정

구분	세부내용	'08년 일정
공고·접수	대회공고	'08. 9. 9
	참가신청서 접수	'08. 9. 10~10.10
선행기술 조사부문	문제 공고	'08. 11. 3
	답안 제출	'08. 11. 14
	기초·서면·발표·최종 심사 등	'08. 11. 17~'09. 1. 8
특허전략 수립부문	논문 제출	'08. 12. 31
	기초·서면·발표·최종 심사 등	'09. 1. 2~2. 3
시상식		'09. 2. 13

다. 추진 실적 및 결과

1) 전자, 조선, 화학 등 4개 산업분야의 21개 기업 참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21개 기업이 후원 기업으로 참여하였고, LG전자, 삼성중공업 등 14개 참여기업이 수상자에게 취업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표 IV-4-15〉 21개 참여기업현황

삼성전자, LG전자, 삼성SDI, 현대기아자동차, LG디스플레이, LG화학, 일진소재산업, 호남석유화학, 효성, hynix, posco, 동양제철화학, 실트론, 한화석유화학, 현대제철, SK에너지, 주성엔지니어링,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STX조선	
---	--

* 수상자 취업인센티브 부여 :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실트론, 호남석유화학, 효성, 동양제철화학, 한화석유화학, 현대제철, 주성엔지니어링,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STX조선 등 14개 기업

2) 참가 현황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로 68개 대학 2,050개 팀이 참가신청을 하였고, 56개 대학 1,128개 팀이 논문을 제출하여 이 중에서 34개 대학 89개 팀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기업, 대학, 특허청, 한국공학한림원이 한 자리에 모여 2월 13일 시상식을 개최함으로써 「2008년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를 마쳤다.

〈표 IV-4-16〉 부문별 수상현황

구 분	특허전략 수립		선행기술 조사		합계	
	대학	팀	대학	명	대학	팀(명)
참가신청	61	609	59	1,441	68	2,050
논문제출	46	288	48	840	56	1,128
발표심사	34	84	27	88	39	172
수상자	25	55	20	34	34	89

3) '08년 문제(주제) 현황

'08년도에 출제된 문제는 특허전략 수립부문에서 19문제, 선행기술 조사부문에서 10문제가 각각 출제되었다. 참여기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기술주제를 선정하여 문제를 출제하였고,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대체에너지 및 환경분야의 태양 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CO2 저감기술 등이 문제로 제시되었다.

〈표 IV-4-17〉 산업분야별 문제출제 현황

산업 분야	문제코드	문제 주제	
		특허전략 수립부문	선행기술 조사부문
전기 전자	A1	휴대폰 전화번호 저장 방법	USB포트를 내장하여 USB를 통해 PC로부터 USB신호로 변환된 비디오신호를 입력받아 디스플레이 가능한 모니터
	A2	Haptic	단말기를 이용한 다자간 통화 방법
	A3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광전변환 고효율 소자	전지 팩 (Battery pack)
	A4	Flexible Display	LCD 패널의 백라이트 결합구조
	A5	CIGS 박막태양전지분야	
	A6	차세대 메모리 제품	
	A7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조 사용 에피웨이퍼	
	A8	박막형 실리콘계 태양전지	기판지지 부재
조선	B1	IT 기술, 선박 건조, 안전 운항, 지능화	
	B2	폐열회수처리장치 등 친환경 성능개선 시스템	
화학 에너지	C1	중대형 리튬이온 이차전지 차세대 소재	비수 전해질 2차 전지 및 그 충전 방법
	C2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프로필렌 중합용 담지 촉매, 및 이를 이용한 프로필렌 중합체의 제조방법
	C3	Tandem cell	이방성도전필름
	C4	고효율 비정질실리콘계 박막 태양전지	
	C5	SPIO 나노입자 MRI조영제	
	C6	천연가스로부터 석유화학원료 및 합성가스 제조방법	
기계 금속	D1	Plug-in Hybrid Car	이형 단면 통상체의 제조방법 및 토션 빔용 엑슬 빔
	D2	고강도 자동차 강판	Vortex 방지기술
	D3	CO2 저감기술	
합계	21개 기업	19문제	10문제

4) 대학별 수상자 현황

'08년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에서 수상자를 낸 대학은 34개 대학(89개 팀, 172명)이다. 대학별 수상자를 보면, KAIST가 18개팀, 고려대·서울대 7개팀, POSTECH 6개팀, 영남대·한양대·연세대·전북대 4개팀 등이다.

〈표 IV-4-18〉 주요 수상자 현황

부문	상격	성명	대학교	학과
특허전략 수립부문	지경부장관상	최성철, 강순평, 정수호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공학한림원회장상	박훈, 이성제	KAIST	신소재공학과
선행기술 조사부문	지경부장관상	이진이	충남대	메카트로닉스전공

〈표 IV-4-19〉 대학별 수상현황

순위	대학	합계	특허전략 수립부문			선행기술 조사부문		
			우수상	가작	소계	우수상	가작	소계
1	KAIST	18	6	3	9	3	6	9
2	고려대	7	3	1	4		3	3
3	서울대	7	1	5	6	1		1
4	POSTECH	6	2	3	5		1	1
5	영남대	4	3	1	4			
6	한양대	4	2	1	3	1		1
7	연세대	4	1	1	2	1	1	2
8	전북대	4		2	2	1	1	2
9	단국대	3	1	2	3			
10	아주대	3				2	1	3
11	경희대	2	1	1	2			
12	서강대	2		1	1	1		1
13	충남대	2		1	1	1		1
14	경상대	2		1	1		1	1
15	울산대	2		1	1		1	1
16	국민대	1	1		1			
17	서울산업대	1	1		1			
18	전남대	1	1		1			
19	창원대	1	1		1			
20	건국대	1		1	1			
21	부산대	1		1	1			
22	성균관대	1		1	1			
23	송실대	1		1	1			
24	인하대	1		1	1			
25	충주대	1		1	1			
26	대구대	1		1	1			
27	금오공대	1				1		1
28	서울여대	1				1		1
29	조선대	1				1		1
34	광주과기원	1					1	1
31	동국대	1					1	1
32	동의대	1					1	1
33	순천향대	1					1	1
34	한국기술교육대	1					1	1
합계		89	24	31	55	14	20	34
대학수		34	25			20		

5) 평가

'08년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에 학생들이 제출한 논문에 대하여 참여기업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어떤 기업은 몇 년 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선행기술 조사부문에서는 진보성 선행기술이 도출되거나, 선행기술에 대한 객관적 결과를 확보하여 기업이 향후 연구개발시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허전략 수립부문에서는 특허 분석과 미래특허전략 제시에서 독창적인 접근방법과 창의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연구개발시 활용할 수 있는 논문이 제출되었다고 참여기업은 평가했다.

3.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행정사무관 정대순

가. 추진배경

최근 국내·외 특허분쟁, 특허경영 확산 등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기업의 주요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선발기업들이 자사의 핵심특허를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등 특허는 빼 놓을 수 없는 주요 경영전략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특허의 창출·활용·보호 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특허환경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개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90%가 특허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특허 전담인력이 없는 기업도 80%나 되었다.⁴⁵⁾ 특히,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분쟁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특허인력기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45) 지식재산 전문 인재상 연구 및 수요조사, '07. 특허청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기업의 특허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

나. 정책방향

'08년도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정책은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조정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교육의 기반이 되는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강사 Pool 구축, 본격적인 교육 시행 전 시범교육 개시 등이 주요 정책이었다.

다. '08년도 주요 추진실적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을 단계별·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겸임인력 교육, 전담인력 교육, 고급직무교육과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전담인력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기·전자 분야, 화학·생명 분야별로 구분하여 특허관리, 국·영문 명세서, 해외 거절이유·대응(OA, Office Action), 특허정보활용 등의 교재를 개발하였다.

또한, 고급직무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미국분쟁 사례연구', '해외출원전략 사례연구', '계약서 작성실무' 등 3권의 교재를 개발하였다. 특히, 사례·실무 중심의 교재 개발을 위해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들을 교재개발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교재의 완성도를 높였다. 교육과정의 경우, 타 기관의 교육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 지식재산 전문가, 변리사 등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8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11월 고급직무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하였고 시범운영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와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라. 향후계획

'08년도가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해였다면 '09년도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기

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특허분쟁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특허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09년도부터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특허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 교육은 시간·장소적 한계 등으로 교육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를 직접 교육현장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의 수준을 사전 진단하고 이에 따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침해 경고장 수령시 대응방안 등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으로 현장대응력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수준에 따라 겸임인력, 전담인력, 고급직무교육, 국제실무인력 교육과정 등 단계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식재산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기업은 특허경영을 위한 인력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4-20〉 단계별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안)

구분	겸임인력 양성	전담인력 양성	고급직무 교육	국제실무인력 양성
목적	지식재산법·이론에 대한 기초지식을 보유하고 지식재산 업무를 효과적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	출원 등 특허관리, 특허조사·분석 등 실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	전담인력 또는 일정분야에서 전담인력 수준의 능력을 가진 겸임인력의 지재역량수준 질적제고	국제 라이선싱, 해외출원, 국제특허분쟁 등 국제특허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
교육 과목 (안)	· 지식재산권 입문 · 특허정보조사 기초 · 특허제도와 출원서 작성 · 특허전략과 연구성과관리 · 특허관리 입문	· 기술분야별 (전기전자, 화학생명 분야 등) - 특허관리 - 국영문 명세서 - 해외 거절이유 대응 (OA*) * OA(Office Action) - 특허정보활용	· 미국분쟁사례 연구 · 국제 라이선스 계약실무 · 해외특허전략 수립 · 글로벌 특허전략을 위한 5개국 특허법 비교 · 지식재산 회계 · 디자인·상표 전략 · 기술마케팅 및 사업화전략 · 중국 IP전략	· 국내사전교육(1개월) - IP영어 등 · 현지파견교육(3개월) - 미국 현지의 법제도 및 IP 관리실무, 특허분쟁 및 라이선싱 실무 과정
운영 방안	· 5강좌에 대해 강좌당 1~2일 과정으로 운영	· 기술분야별로 4개 모듈로 구분하여 설계·운영 (4강좌, 40시간)	· 강좌별 3일 내외 과정으로 토론 등을 통한 집중교육(8강좌)	· 국내에서 1개월 사전교육 실시 후 3개월 내외로 현지에 실무 파견교육

4. 변리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공업사무관 양기성

가. 추진배경

최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제품·기술 주기 단축 등으로 시장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기업의 변리 서비스에 대한 요구 수준도 高品質化 되어 가는 추세이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특허전략을 ‘양’에서 ‘질’ 위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 10개 기업 기준으로 출원규모가 '05년 52,212건, '06년 36,750건, '07년 3만건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고품질 변리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다가올 법률 시장 개방, 로스쿨 도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변리사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에 대한 기업 특허부서, 변리사 사무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리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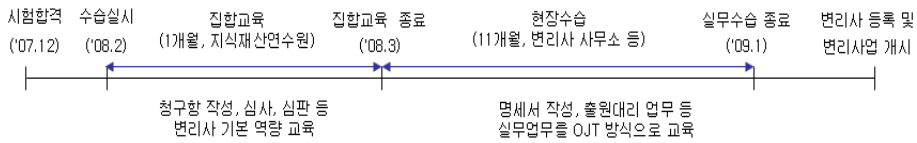
나. 변리사 실무수습 제도 개요

변리사 실무수습은 변리사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 시험 합격자에 대해 변리사 등록 신청 전 1년 이상 실시하고 있다.

실무수습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주관하는 1개월의 집합 교육과정과 변리사 사무소, 기업체의 특허전담부서,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단체 및 연구소 등에서 실시하는 11개월의 현장 실무수습으로 구분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주관의 집합교육 과정 중에는 변리사의 기본적인 윤리와 청구항 작성, 선행기술 조사, 특허 소송 등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11개월의 현장 수습 과정 중에는 수

습기관의 수습 지도관으로부터 실제 출원건을 바탕으로 발명인과 면담 요령, 출원 절차, 명세서 작성 등 출원 실무에서 특히 심판·소송까지 변리사 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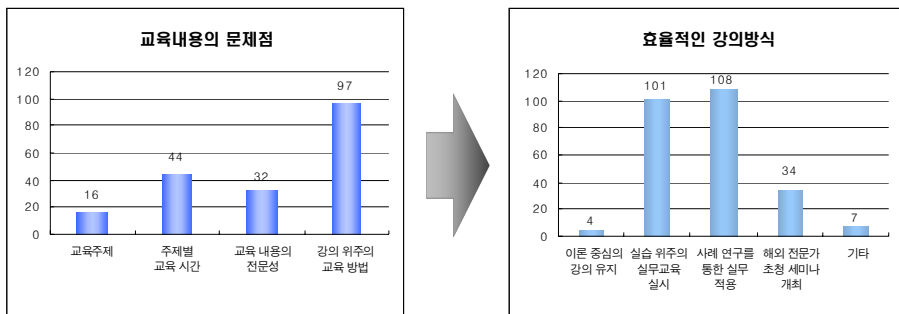
〈그림 IV-4-8〉 변리사 실무수습 개념도('07년 시험 합격자 예시)



다. 변리사 실무수습에 대한 문제점 분석

기존 실무수습 제도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위해 삼성전자, NHN, 유한양행 등의 특허부서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비롯한 변리사 2~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특허 사무소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실무수습 변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 실제 변리사들은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이 실무·실습 위주의 실질적인 교육과정으로 변경되기를 희망하였으며, 명세서 작성, 특허 소송, 선행기술 조사 등 현업 적용도가 높은 교육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그림 IV-4-9〉 실무수습 변리사 설문조사 결과('08.4)



또한 화학, 기계, 전자, 건축 등 다양한 기술분야로 구성된 변리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기술 분야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 결과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센티브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라. 신규 변리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제도 개선

기업특허 부서, 특허사무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2차례에 걸친 변리사자격심 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변리사 실무수습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변리사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08.12월 「변리사실무수습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08년도 제45회 변리사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개선된 변리사 실무수습이 '09.2.9부터 시작된다. 실무수습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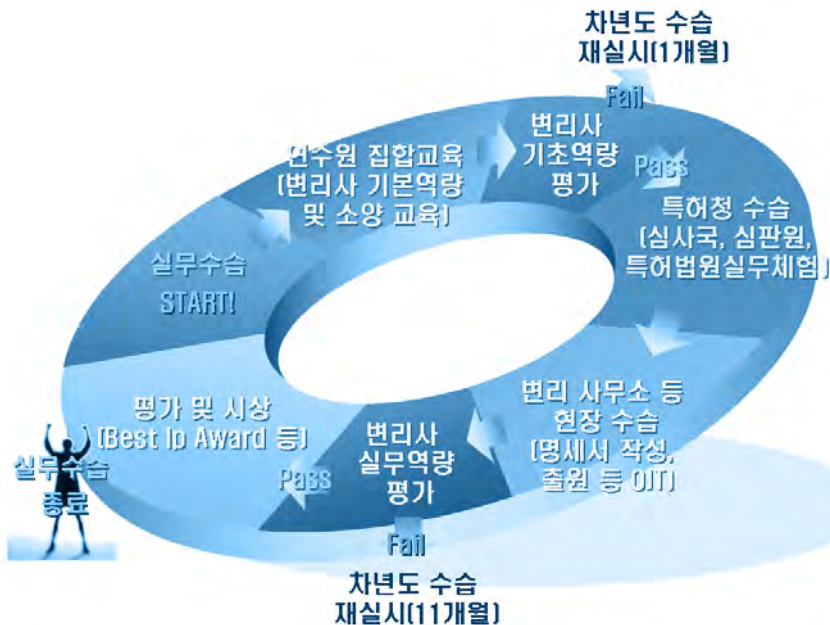
먼저 교육과정을 명세서 작성, 선행기술조사 등 실무·실습 위주로 대폭 개선했다. 예를 들어 산업재산권법령 등 이론 교육 비중은 32%에서 16%로 축소하고 명세서 작성 등 실무 위주의 교과목을 49%에서 65%로 확대하였다. 또한 첨단 기술의 특허출원을 담당하는 변리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전기·전자, 화학·생명, 기계·금속, 상표·기타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하여 개인 변리사별로 차별화되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수습 변리사에게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외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했다.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AIPLA;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부회장이자 미국내 최대 특허 로펌인 Finnegan Henderson(피네간 헨더슨)의 파트너 변호사 David Hill(데이비드 힐)과 쉐콤 본사의 유병호 부사장이 미국 특허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LG전자 CPO(Chief Patent Officer)인 이정환 부사장은 최근 기업의 특허전략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이와 함께 현직 특허법원 판사, 대형 로펌의 변리사 등이 참여하여 특허 소송, 명세서 작성 등 변리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과목을 강의하였다.

교육에 대한 평가도 2단계로 강화하였다. 1단계로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1개월의 집합 교육과정 중에는 매주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2 단계로 11개월의 특허 사무소 등에서 실시하는 현장 수습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수료 여부를 판단한다. 평가 결과 일정기준 미달시에는 수습과정을 다시 받도록 하여 변리사 시험 합격 후에도 경쟁을 통해 변리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는 대한변리사회나 특허 로펌이 희망하는 경우 공개되어 변리사 채용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평가 강화와 함께 교육방식도 기존의 출퇴근 방식에서 합숙방식으로 변경하여 보다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변리사의 주요 업무인 특허출원 및 소송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수습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수습 변리사들은 심사관 및 심판관과의 실제 심사·심판 업무를 체험할 기회도 갖게 된다.

〈그림 IV-4-10〉 개선된 변리사 실무수습 개념도



5. 지식재산 인력 양성 기반 확충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행정사무관 이진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공업사무관 권오민

가. 지식재산 교수양성 프로그램 운영(T3 : Teaching The Teacher)

1) 추진 배경 및 개요

대학의 특허강좌는 전국적으로 120여개 강좌가 개설되고 있으나 대부분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 등 특허 관련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 특허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재권을 전공한 법대 교수 외에는 전문가가 없는 상황으로 증가하는 특허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의 이공계 교수들이 직접 특허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공계 교수들의 지재권 이해도를 제고하고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추진 성과 및 내용

이공계 교수들의 지재권 이해도를 제고하여 지재권 창출 역량을 강화하여 독자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교수 대상 특허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육 참여 편의성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T3와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위한 단기집중 T3로 이원화하여 추진하였다.

찾아가는 T3 2회, 단기집중 T3 4강좌를 통해서 총 129명의 이공계 교수에게 특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참여 교수들의 수료율은 약 80%에 달하였다.

〈표 IV-4-21〉 T3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명)

구 분		신청자	수료자	수료율
찾아가는 T3		32	17	53.1%
단기집중 T3	지식재산권 입문	28	21	75%
	특허명세서 작성	38	29	76.3%
	특허정보 동향조사	30	29	96.7%
	특허기술 가치평가	35	33	94.3%
계		163	129	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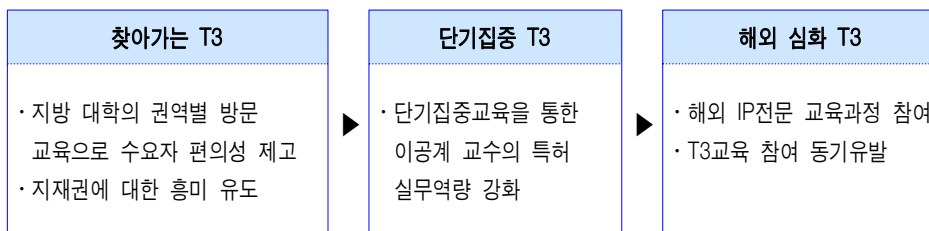
3) 평가 및 발전방향

이공계 대학교수를 위한 특허교육이 '08년 처음으로 시작된 점, 교수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준 점을 통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더욱 많은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만 이공계 교수들에 의한 특허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심화 학습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 및 선진대학의 단기 IP 교육프로그램 운영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교육, 단기집중 교육, 해외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무 중심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참여 교수들의 관심을 유도함으로 이공계 교수를 위한 특허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표 IV-4-22〉 T3 교육 과정 개요



나. 지식재산인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 추진배경 및 개요

'07년 실시한 지식재산 실무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요인력보다 채용인력이 적은 이유에 대하여(326개 기업 응답)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타 부서 동의를 얻기 어려워서'가 가장 많았으며(49.4%), '인력을 채용할 만한 자금적 여유가 없어서'(43.3%),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36.5%),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0.7%) 순이었다.

이에 따라 '08년부터 기업 최고경영자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지식재산인력 채용기업 지원,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인력 종합정보시스템은 지식재산인력에 대한 수요·공급 정보를 원스탑(One-stop)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이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특허청은 '08년 7월 지식재산 전문인력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수행기관 : 아이피아이)하여 사용자 요구 분석 등을 바탕으로 동년 12월에 시스템(www.iphuman.or.kr) 개발을 완료하였고 '09년 1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림 IV-4-11〉 IP 전문인력 종합정보시스템 메인화면



종합정보시스템에 서비스되고 있는 지식재산 인력통계 DB는 기 수행된 지식재산 인력 실태조사('07년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실태조사, '08년 지식재산서비스업분야 실태조사)를 토대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통해 설계되었으며 일반 통계검색 뿐만 아니라 맞춤통계검색, 그래프 변환기능 등 고급분석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IV-4-12〉 고급분석기능 활용 예



또한 변리사 정보의 DB화를 위해 자율적 정보 입력이 가능한 변리사정보등록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식재산 분야 구인/구직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채용사이트(리크루트코리아)와 '08. 11월 채용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지식재산 전문인력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IP 인력정보의 유통이 원활하게 되어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며 변리사 정보제공으로 변리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 서비스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업무 종사자들이 번역, 특허명세서작성, 선행기술조사 등의 부분에서 지식재산 인력을 활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09년 상반기에 변리사 정보 DB 구축, 교육정보 통합, 채용정보 확대를 위한 민간 채용 포털과의 제휴확대 등 서비스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09년 하반기부터 확보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향후 종합정보시스템을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6. 지식재산 경영노하우 공유확산을 위한 KINPA 설립·운영 지원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공업사무관 조영제

가. KINPA(Korea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한국지식재산협의회)의 태동

'08년 2월부터 특허청과 업계는 총 4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전 업종에 걸쳐 지식재산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책건의 등을 수행하는 민간 지식재산 협의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새로운 협의체 창립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하였다.

우선 31개 기업의 특허 실무책임자들이 3월 대전에 모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향후 협의회의 초기 모델을 창출하였으며, 4월부터 5월까지의 가칭 'CIPO Council(지식재산 최고책임자 회의)'을 창립하기 위한 창립준비단을 구성하였다. 당시 창립준비단은 24개 기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창립준비반, 분과연구반, 기획조정반, 총회준비반 등 총 4개 분과로 나누어져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작업을 분업화하여 수행하였다. 총 3회에 걸친 가칭 'CIPO Council 창립준비단 회의' 개최를 통해 민간 지식재산 협의체인 KINPA의 기본적인 골격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이후 6월 4일 서울에서 67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지식재산 분야의 전 영역에 걸쳐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 자율 협의체인 KINPA가 출범하게 되었다. 창립 당시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 뿐 아니라 주성엔지니어링, 서울반도체 등 지식

재산 분야의 선두적인 중소기업까지 다양하게 참여하였다. 초대 회장으로는 LG전자 이정환 부사장이 취임하였으며 '09년 상반기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다.

나. KINPA의 조직 및 역할

KINPA는 주요 사안 의결 및 정책제안 등을 수행하는 이사회와 협의회를 운영하는 기획조정위원회, 그리고 실질적인 지식재산 노하우 공유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특허분과, 상표디자인분과, 국제분과 등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KINPA의 주요 역할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성장 및 시너지' 창출로서 ▲국제적인 지식재산 이슈에 조기 대응하고, ▲특허청 등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제언, ▲지식재산 경영, 특허분쟁, 특허정보분석 등에 관한 공동조사·연구, ▲지식재산 인력양성 등의 중·장기적 문제 해결, 그리고 ▲회원 간 정보공유를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다. KINPA의 활동경과

협의회는 창립 초기인 '08년부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먼저 이사회는 작년에만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특허심사, 특허제도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와 함께 특허에 강한 엔지니어 양성방안, CIPO Forum 구성 운영방안 등에 대해 특허청과 다양한 의견 교환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획조정위원회는 월평균 1회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JIPA(일본지식재산협회), IPO(미국소유권자협회) 등의 국제 지식재산 단체와 교류를 통해 KINPA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향후 국제 지식재산 이슈에 국제적인 공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워크숍, 콘퍼런스 등의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사 및 국내 산업계 전반에 지식재산 노하우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 협의회 내실을 다지기 위한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핵심특허 발굴방안 등을 연구하는 특허분과, 모방품 대응 등을 위한 상표디자인분과, 국제 제도 조사 등을 위한 국제분과, 기업의 지재경영을 연구하는 지식재산경영분과, 지식재산에 강한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분과, 분쟁 연구 등을 위한 라이선스분쟁분과, 정보활용 등을 위한 특허정보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과정 개발·운영 등을 위한 교육인력양성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과위원회가 작년에만 총 3~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체적으로 30여 차례의 사례 연구를 통해 지식재산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라. KINPA의 향후 과제

KINPA는 창립한 지 이제 반년이 조금 지난 상황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지식재산 분야에서 민간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발전전략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한해는 협의회 태동기로서 협의회 활동의 조기 정착을 목표로 분과 활동을 통해 전문성 있는 협의회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워크숍, 컨퍼런스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실질적인 경험공유를 추진하였으며, 특허청의 정책 파트너로의 위상을 정립한 시기였다.

이제 '09년부터 '14년까지는 2단계인 협의회 성장기로서 지식재산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우수 분과활동 모델을 확립하고 확산체계를 구축하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IPO, JIPA 등 해외 지식재산 민간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IP5 특허협력체제에 부합하는 민간 국제 파트너로 성장할 계획이다.

그리고 '15년부터 '18년까지는 협의회 성숙기로서 본격적으로 IP Think Tank로서 도약을 준비할 예정이다. 회원기업을 현재의 80여개 기업에서 600여개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전국의 전 업종으로 확산하고, 지식재산에 기반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국제 지식재산 사회를 선도하는 협의회로 발전할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향후 민간 IP Think Tank를 향한 KINPA의 경주를 기대해 본다.

제3절 미래의 전문인력 양성 내실화

1. 학생발명교육 종합지원체계 구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창의발명교육과 공업사무관 이종우

특허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발명꿈나무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고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수 발명인력 발굴 및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1995년부터 교육청과 공동으로 전국 188개 거점에 설치한 발명교실을 통하여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발명교육이 가능하여졌으며, 2005년 12월에는 발명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우리나라 발명교육의 중심축으로써 발명지도교사 전문성 강화, 우수 학생 교육,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발명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21세기를 이끌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 10월 발표한 「대한민국 인재상」 관련자료에 의하면 수상자 중 각종 발명대회 수상자 및 발명장학생 선발자 등 발명교육 및 발명활동이 우수한 학생 8명이 포함되어 발명교육의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해 왔던 “21세기 우수인재상(장관표창)”을 격상한 대통령표창이다. 선발대상과 인원은 고등학생 60명과 대학생 40명이며, 수상자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스승에게도 지도교사상(상훈격:교과부장관상)을 수여한다.

시·도청의 지역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통보할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면접 및 실사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표창 및 메달, 장학금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며 수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관리를 위하여 수상자 합동연수, 저명인사와의 세미나, 봉사활동 등이 이루어진다.

그 동안의 발명교육은 정규교육이 아닌 특별활동의 형태로 운영되어 학부모 및 학생의 관심 부족, 발명교사들의 사기 저조 등 발명교육의 저변확산에 한계가 있었으나, 발명교육 관련 기관 및 교사들의 노력에 힘입어 2007년 2월 교육부의 제7차 교육과정 개정시 중등 및 고등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반영되어 발명교육의 양적·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 국민공통 실과(기술·가정) 7학년 과정 : 기술과 발명(대단원)

- (가) 발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 (나) 발명의 기법 및 원리를 이해하고, 간단한 생활 발명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발명 활동의 즐거움을 체험하며,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

□ 고등 공학기술 11학년 과정 : 공학과 창의적 문제 해결(중단원)

- (가) 발명 특허에 대해 이해하고 인간 심리에 터한 창의성 및 문제 해결에 관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개발한다.
- (나) 발명한 결과를 특허로 출원하는 과정을 알게 한다.

또한 발명교실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던 발명영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8~’12)」에 적극 참여하여 발명교실을 활용한 발명영재교육 확대 추진 등 발명영재 양성을 위한 추진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2008년에는 발명영재선발도구 및 발명영재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2009년부터 본격적인 발명영재의 선발 및 육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범 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발명·특허 특성화고 프로그램 지원학교」 4개교를 선정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에 돌입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고교 단계에서 체계적인 발명 및 특허분야 전문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력이 되어난 학생들을 양성하여 관련 산업계의 기술개발 및 특허관리 분야의 실무인력으로 진출이 기대된다.

가. 발명교실 운영활성화

발명교실은 1995년 서울 인현중학교(현 봉천중학교)에 시범 설치된 이후 전국 시·군·구 교육청별로 1개씩 총 182개의 발명교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각 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매년 16개 내외의 발명교실을 설치하였고 2006년에 24개를 설치하여 182개 발명교실 설치사업을 1차적으로 완료하였다. 2008년에는 시·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6개 발명교실이 추가로 설치되어 현재 전국 총 188개의 발명교실이 설치되어있는 상황이다. 특허청에서는 발명교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발명교실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발명교실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을 지원 중에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발명교실의 이용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비단 학생 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등 일반인에 대한 교육 또한 확대하여 지역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표 IV-4-23〉 발명교실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학생	326,533	350,657	395,158	491,031	597,060	692,851
학부모	28,370	24,994	37,828	35,317	33,910	27,995
교사	9,655	10,162	19,167	19,598	23,315	16,529
계 (증가율)	364,558 (18.4)	385,813 (5.8)	452,153 (17.2)	545,946 (20.7)	654,285 (19.8)	737,375 (11.3)

2008년에는 발명교실의 운영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3등급으로 A등급 7백만원, B등급 6백만원, C등급 5백만원으로 각각 지원하였다.

〈표 IV-4-24〉 발명교실 이용자 현황

(단위 : %)

영역	기본 시설	교육 실적	행사 실적	사이버 교육	예산	운영 인력	지식재산권 취득	영재학급 설치	계
배점	10	25	25	5	10	10	5	10	100

〈표 IV-4-25〉 발명교실 운영비 지원현황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학교수	46개소	93개소	43개소
지원액 (학교당)	7백만원	6백만원	5백만원

노후화된 발명교실의 보수 및 현대적 발명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장비 교체를 위해 2007년 34개 노후 발명교실의 현대화를 지원한데 이어 2008년에도 2002년 이전에 설치된 14개의 노후 발명교실을 지원하였다. 설치연도 및 제안서 내용, 발명교실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전면보수(8개)에 70백만원, 부분보수(6개)에 35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표 IV-4-26〉 발명교실 현대화 선정기준

영역	설치 연도	제안서의 타당성 실행가능성	교육감 의지	기관장 의지	발명영재 학급 설치	발명교실 운영평가	계
배점	5	20	10	10	25	30	100

〈표 IV-4-27〉 발명교실 현대화 지원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발명 교실	19	9	8	9	5	8	6	28	8	11	9	16	10	19	17	5	187
'01까지 설치	18	8	3	6	4	5	2	7	4	5	4	6	6	7	6	4	95
'06 지원	8	2	2	1	2	2	1	2	2	2	1	2	1	2	2	2	34
'07 지원	3	3	1	4	1	1	0	3	2	2	3	4	2	2	2	1	34
'08 지원	3	3	0	1	1	2	0	1	0	0	0	0	0	1	1	1	14
현대화 미실시	4	0	0	0	0	0	1	1	0	1	0	0	3	2	1	0	13

〈표 IV-4-28〉 시·도 교육청별 발명교실 현황

시·도	발명교실 설치학교 및 기관	교실수
서울	인현중, 잠원초, 성수중, 성일중, 창천초, 남부과학교육센터(중등), 상계제일중, 한남초, 아중중, 공향초, 돈암초, 한성과학고, 수도권전기공고, 서울과학고, 남부과학교육센터(초등), 아현중, 신창초, 계남초, 서울북공업고	19
부산	부산어린이회관, 부산시교육과학연구원, 주례여자중, 괴정초, 신도초, 한국과학영재학교, 성남초, 연산중, 내성초	9
인천	인천학익초, 인천담방초, 동인천여자중, 갑릉초, 인천선학초, 인천부마초, 인천안산초, 인천소래초, 인천원당초	9
대구	대구남산초, 대명여자중, 대구달성초, 대구시교육과학연구원, 범일중, 대구성서초, 대구화원초, 강북중	8
대전	대전대흥초, 대전버드내중, 대전내동초, 동신중, 충남기계공업고, 대전매봉초, 대전시교육과학연구원, 대전전자기계고	8
광주	광주우산초, 금당중, 송정중, 신광중, 광주광천초	5
울산	염포초, 향산초, 유곡중, 울산남부초, 아음중, 함월초	6
경기	매산초, 일산중, 낙생고, 의정부장암초, 희성초, 지장초, 군포초, 선부중, 심곡초, 가평초, 김산초, 백성초, 도농초, 실봉초, 구성초, 송탄중, 신장초, 김포초, 여주초, 전곡중, 동양초, 서촌초, 이담초, 성남동초, 영북초, 학현초, 도곡중, 광일초, 양평초	29
강원	초계학생수련장,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노암초, 단구초, 상장중, 삼척초, 상천초, 북삼초	8
충북	충주삼원초, 청주중, 삼산초, 남천초, 괴산북중, 남신초, 죽향초, 영동초, 진천삼수초, 각리초, 단양중	11
충남	주산초등, 천안중, 광동초, 장항중앙초, 추부초, 남면초, 서동초, 온양용화중, 계성초	9
전북	전주전일초, 김제여자중, 군산중앙초, 순창중, 이리초, 전주인봉초, 고창삼인종합학습장, 전북교육정보과학원, 남원도통초, 부안동초, 임실동중, 동신초, 장수초, 무주중, 봉동초, 진안중앙초	16
전남	여수중앙초, 사창초, 나주중, 해남제일중, 일로초, 옥과초, 화순제일초, 순천성동초, 전남교육과학연구원, 목포대성초	10
경북	황남초, 상주교육관, 김천발명교실, 상대초, 영가초, 구미초, 예천남부초, 경산중앙초, 영주발명교실, 경북과학교육원, 영천동부초, 문경발명교실, 노음초, 진보초, 도촌초, 초전중, 의성중, 이서초, 신동중	19
경남	남해초, 대아중, 김해경원고, 합천초, 창녕초, 경남항공고, 사천고, 진교초, 창원사파고, 마산여자중, 경남교육과학연구원, 거창초, 산청초, 통령초, 중부초, 밀성초, 안골포초	17
제주	서귀서초, 제주중앙중, 한림중, 제주남초, 성산중	5
계		188

〈표 IV-4-29〉 연도별 발명교실 설치현황

(단위 : 개소)

년 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설치수	1	3	11	30	18	16	16	16	15	17	15	24	·	6	188

나. 발명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기회 확대

특허청은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무엇보다 중요한 발명지도교사의 전문역량 및 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발명교사의 온-오프라인 직무연수, 발명교사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대회 및 연구회 지원, 발명교사 워크숍 실시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에는 발명교사의 직무연수 대폭 확대를 통해 발명교육의 정규교과 반영에 대비하고 발명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1) 발명교사 직무연수 지원 확대

21세기형 지식기반 인재양성을 위해 주입식 교육의 틀을 벗어나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교육으로 발명교육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현장교사들의 발명교사 연수기회 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요구도 커지고 있다.

2005년까지 발명교사 직무연수는 주로 방학기간을 활용한 집합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한국학교발명협회, 발명영재단에서 실시된 동 연수를 통해 연간 200~300명의 발명교사를 양성하여 발명교육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2006년에는 사회적 여건 및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교사들의 요구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연수를 보완하는 한편, 신규로 온라인 발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발명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006.7월 교육부 인가를 받아 운영한 사이버발명교육연수원(www.ipteacher.net)은 2008년에는 정규과정으로

6개 과정을 운영하여 3300명(수료인원 2969명)에게 새로운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B2B 형식으로 특별과정을 운영하여 259명에게 추가로 교육기회가 부여되었다.

〈표 IV-4-30〉 사이버발명교육연수원 수료현황

구분	모집정원	연수생수	수료생수	이수율
'06년	400명	400명	330명	82.5%
'07년	1,450명	1,450명	1,246명	85.9%
'08년	3,559명	3,559명	3,175명	89.2%

〈표 IV-4-31〉 2008년 사이버발명교육연수원 과정운영 현황

〈B2C 정규과정〉

(단위 : 명, %)

구분	과정명	운영기수	연수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30시간	교과속으로의 발명여행	5	750	694	92.5
	아이디어 발상기법-TRIZ	5	750	689	91.8
	발명영재교육	5	750	695	92.6
	초등발명 교수학습 길잡이	1	150	127	84.7
60시간	발명세계에서 살아남기	5	500	413	82.6
	발명멘토링	4	400	351	87.8
계	6개 과정	25	3,300	2,969	89.9

〈B2B 특별과정〉

구분	과정명	운영기수	연수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30시간	교과속으로의 발명여행	1	116	91	78.4
	아이디어 발상기법-TRIZ	1	99	79	79.8
	발명영재교육	1	44	36	81.8
계	3개 과정	3	259	206	79.5

2) 발명교육연구회 지원

발명교사들의 발명교육에 대한 자율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발명교육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2001년부터 지역별 발명교육 연구회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까지는 시·도 교육청에 등록된 연구단체인 발명교육연구회(발명반 및 발명교실 지도교사 중심으로 구성)의 지역별 발명교육행사 및 세미나, 교사연수 등을 지원하였다.

2006년부터는 발명교사들의 실질적인 연구능력을 제고하고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원체계를 개편하였다. 공개모집을 통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연구과제 및 자율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시·도 교육청 등록연구회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교사연구회 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발명교실 평가 방법 도구개발’ 등 연구과제 7개, 활동과제 3개 등 총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5~14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표 IV-4-32〉 2008년 발명교육연구회 활성화 지원사업 리스트

순 번	과제 구분	주관기관	과제명
1	연구	경기발명아이교과교육연구회	개정 7차교육과정에 따른 발명관련 지도자료 개발 및 적용
2	연구	서울초중등영재교육연구회	발명교실 평가 방법 도구 개발
3	연구	부산발명교육 초등교사동아리	현장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수-학습용 콘텐츠 개발
4	연구	진해발명교육연구회	체험 중심의 발명 견학 프로그램 안내서 개발
5	연구	경기학교발명교육연구회	발명 멘토링제 운영을 통한 발명교육의 저변확대
6	연구	생각을 키우는 발명교실 연구회	발명기법을 적용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교수학습자료 개발
7	연구	대전대신고등학교	인문계고 10학년 발명정규교과 교육과정 운영
8	활동	정읍발명교실연구회	농산촌 학교 학생을 찾아가는 발명교실 운영
9	활동	즐거운 기술수업 연구회	발명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소외계층을 중심으로
10	활동	경기기술교사모임	기술교과에서 발명교육 체험활동 자료 개발

3) 발명교사 워크숍 실시

특허청은 발명교실 지도교사들의 발명교육 정보공유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 발명교실 운영활성화 논의 등을 위해 매년 발명교실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2008년에는 4.24~25일, 경북 경주에서 발명교실 설치 기관장, 지도교사, 각급 교육청 발명관련 장학사(관) 등 346명이 참여하여 학교발명교육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11.21~22일에는 발명교육센터에서 “발명교육통합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등 86명이 참석하여 “창의적인 발명대회 신설방안”등 4가지 주제별로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였다.

4) 교원 대상 발명대회 및 연구대회 개최

특허청에서는 교사들의 활발한 발명활동을 유도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연구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와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는 발명 지도교사의 직접적인 출품과 시상을 통해 발명지도의 질을 높이고 발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1999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2008년에 개최된 제10회 대회에는 235명의 교사가 발명품을 출품하여 그 중 13명에게 시상하였으며 은상 이상 수상자 3명에게는 해외연수의 특전을 부여하였다.

한편, 발명 지도교사의 연구능력을 키우고, 연구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발명반 및 발명교실 등 발명지도교사를 대상으로 발명교육에 관한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는데, 입상한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입상등급별로 금상은 1점, 은상은 0.75점, 동상은 0.5점의 승진가점이 주어지게 된다. '08년에는 총 33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3편의 우수 연구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다. 발명연구시범학교 지정 및 지원

특허청에서는 발명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범적용과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97년도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매년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에서는 지역별 특성 및 시대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 및 방법들을 시범 적용하고,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발명교육을 확산시키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도교사에게 연구가점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여 주고 있다. '08년에는 21개 학교에 5~10백만원 씩 총 16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IV-4-33〉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

지역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서울	청담초	청담초, 아현중	아현중, 돈암초 한남초	돈암초, 한남초 인현중
부산	내성초	내성초	연산중	연산중
인천	마전초	마전초	신청 안함	학익초
대구	달성초	화원초	화원초	성서초
대전	매봉초	매봉초	동신중	동신중
광주	금당중	송정중	송정중	신청취소
울산	유곡초	야음중, 남부초	야음중, 남부초	함월초
경기	구성초	구성초	동양초	동양초, 도곡중
강원	상장중	상장중	노암초	노암초, 북삼초
충북	괴산북중	남신초	남신초	삼산초
충남	장항중앙초	장항중앙초	부여여중	부여여중
경북	구미초	모서초·중	모서초·중	왜관중
경남	경원고	진교초	진교초, 총렬초	총렬초, 안골포초
전북	군산남초	군산남초, 순창중	순창중	부안중
전남	성동초	제일초	제일초, 산이중	산이중
제주	성산중	성산중	서귀서초	서귀서초, 중앙중
	16개교	19개교	20개교	21개교

라. 발명장학생 선발

특허청에서는 우수발명학생의 지속적인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발명장학생」 선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발명장학생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실적, 학생발명 대회 참가 및 입상실적, 발명활동 및 교육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발하는데 2008년에는 대학생 80명, 고등학생 100명, 중학생 및 초등학교 학생 각 70명 등 총 320명을 선발하여 최고 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표 IV-4-34〉 발명장학생 연도별 선발인원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원	481명	411명	298명	320명	320명	320명

〈표 IV-4-35〉 발명장학생 선발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최고배점		세부 배점기준			확인자료	비고
		초·중	고·대	구분	초·중	고·대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30~50점)	권리 출원	15 · 15	15 · 20	특허	6점	5점	○ 출원접수증 등	○ 실용신안선등록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은 출원으로 간주 ○ 실용신안등록실적은 기술평가 후 등록 유지결정된 건에 한함 ○ 해외출원 및 등록은 기준의 200% 적용
				실용신안	5점	4점		
				디자인	4점	3점		
	권리 등록	15 · 20	25 · 30	특허	12점	10점	○ 등록원부	
				실용신안	10점	8점		
				디자인	8점	6점		
학생발명대회 참가 및 입상 (25~40점)	대회 참가	5	5	1건당	1점	1점	○ 대회참가 증빙자료	○ 발명대회 세부 배점 기준 참고
	대회 수상	35	35 · 20	1건당	0.15~20점	0.15~20점	○ 수상실적 증빙자료(사본)	
발명활동실적 (20~30점)	발명활동 참가실적	16 · 12	10	실적년수별 세부배점 분배	5~16점	5~10점	○ 활동실적확인서 (동아리일지· 출석부사본 등)	○ 전국발명교실, 발명동아리만 해당 ○ 교내발명반, 발명영재단, 발명기자단은 50%인정
	발명관련 교육이수 실적	14 · 13	10	1회당	0.4점~ 2점	0.4점~ 2점	○ 교육이수 수료증(사본)	○ 한국발명진흥회의사이버 아카데미 및 정부기관 주 관 발명 및 지재권 교육

마. 학생 발명대회의 개최

1)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1988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창의성 있는 발명품의 고안 및 제작을 통해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성을 계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게 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의 주역이 될 발명 꿈나무를 발굴·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8년 개최된 제21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8,807건(교원 235건 포함)의 출품 작품중 316건을 선발하여 2008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한국종합전시관(COEX)에 전시하였다.

동 전시회의 출품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의 발명 및 고안품으로 출원 및 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서류심사→선행기술조사→현물심사→종합심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우수한 발명품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상 등 개인상과 단체상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으며, 상위 수상자들에게는 상장 및 상금 외에도 발명캠프,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상학생은 발명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008년에는 장려상 이상 수상학생이 참여하여 양평 청소년 수련원에서 2박3일간 발명캠프를 실시하였고, 금상 이상 수상학생 및 지도교사 등에 일본 및 호주연수를 통해 발명지도 의욕 고취 및 학생발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방순회전시회는 학생발명전시회 및 교원발명품 경진대회 장려상 이상 수상작과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 수상작을 전시대상으로 하며, '08년에는 부산 및 순천에서 개최되었다.

2) 대한민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대한민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는 「남과 다른 나」와 「함께 사는 나」의 조화에 바탕을 둔 협동적인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폭넓은 사고력과 창의력 함양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특허청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5~7명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사전에 주어진 과제(도전과제)와 대회현장에서 주어지는 과제(현장과제)의 해결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2007년 대회는 7월말 개최된 전국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예선대회를 통과한 96팀이 참가하여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COEX)에서 본선을 개최하였다. 본선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9팀에 대해서는 해외 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3) 전국학생발명 상상화·캐릭터·디자인 그리기 대회

전국학생발명상상화·캐릭터·디자인 그리기 대회는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성과 상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서 주어진 주제에 따라 발명상상화·캐릭터·디자인을 직접 그려 평가를 받게 된다.

5월에서 7월까지 전국적으로 시·도 예선을 거쳐 10월에 본선을 개최하는데 '08년 10월 11일 용산고에서 치러진 본선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8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이중 220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바. 발명·특허 특성화고 육성 지원

특허청은 고교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발명 및 특허분야 전문교육을 통해 관련 산업계의 기술개발 및 특허관리 분야의 실무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2007년에 4개의 전문계고등학교를 「발명·특허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학교」로 선정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등 7부 2청이 참여하여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사업계획서 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 등을 통해 2007년 6월에 특성화고로 선정된 학교는 삼일공고(경기 수원, 사립), 대덕전자기계고(대전, 공립), 대광공고(부산, 사립), 경남항공고(경남 고성, 공립) 등 4개이다.

2007년에는 발명·특허 특성화고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목표, 교과개발,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별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특허청, 교육인적자원부, 4개 교육청간 특성화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지원주체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8년에는 본격적으로 발명·특허 특성화고의 운영지원이 시작되었다. 첫해에는 특성화고의 성공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틀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학교별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동 사업은 2012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사. 발명영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특허청은 2007년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8~’12)」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발명영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2007.12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서 확정되었으며, 동 계획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특허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였다. 특허청은 동 계획에 발명교실을 활용한 발명영재학급 추진, 특허청 지정 발명영재교육원 설치 등 발명영재가 체계적으로 발굴·양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발명영재 선발도구 개발을 통하여 영재의 선발 장치를 마련하였고, 또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로써 선발된 발명영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2. 발명교육센터 교육운영 내실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창의발명교육과 사서사무관 전순자

발명교육센터는 발명교육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전문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발명교육의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05년 12월에 준공되었다.

2008년에는 발명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17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10,693명에 대한 교육연수를 실시하였다.

발명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은 “창의적인 우수 발명인재 및 발명지도자 양성”에 목표를 두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발명 심화교육, 발명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발명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 강화하였다.

특히,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재교육 및 전문계 육성을 위하여 교원연수프로그램과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의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시범운영하였으며, 공공기관의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탐구과정」을 신설하여 도서벽지지역 및 사회복지시설 아동들 대상으로 창의력캠프를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교육인 강연형 ‘학생발명순회교육’을 체험형 ‘투어과정’으로 변경하여 발명교육낙후지역인 강원도·전라도 등을 중심으로 발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전 지역 인근학생대상의 1일 체험과정을 전 지역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발명마인드를 제고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08년 신규 개발된 발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발명교실에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발명영재담당교사 및 발명교사들 대상으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전달연수를 실시하는 등 발명교육의 학교교육정착에 최선을 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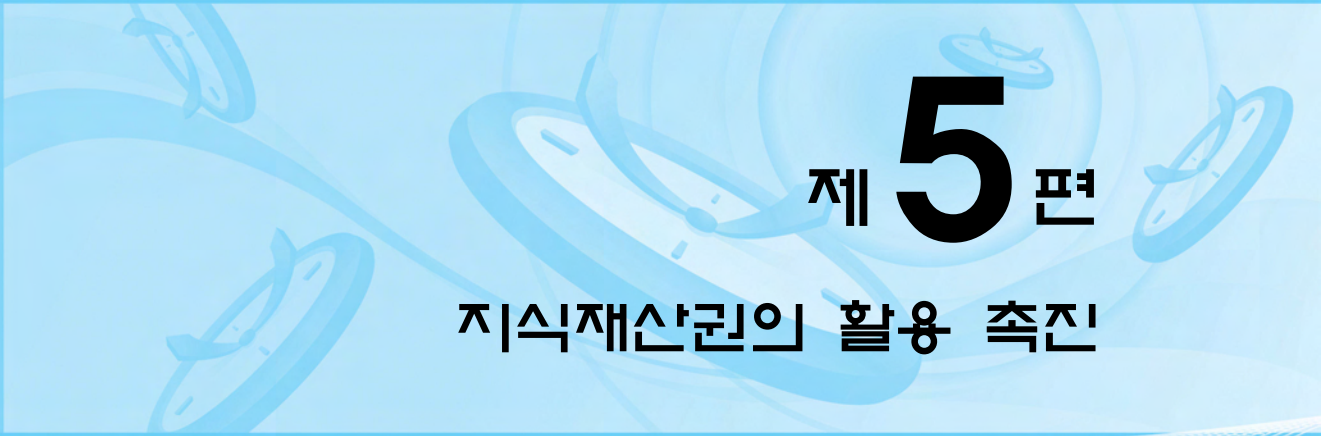
〈표 IV-4-36〉 발명교육센터 교육과정 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과정명	연수대상	실적	
			횟수	인원
발명지도자	교육관리자	교육청 장학관(사) 및 각급 학교 교장·교감 등	6	371
	발명지도자육성	초·중·고 발명지도교사, 발명교육에 관심있는 교사	1	67
	발명반지도교사	각급 학교 발명교실 전담교사 및 발명반 지도교사	1	36
	발명교실담당교사	신규로 발명교실을 담당하는 교사	1	32
	발명영재교육지도자	발명영재학급 및 발명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담당하는 교사	1	68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	발명교육직무연수를 이수한 교사들 중 프로그램개발능력이 필요한 교사	1	32
학생	주니어발명리더	학교발명반 및 발명교실에서 추천한 초·중·고 학생	10	331
	주니어발명마스터	학교발명반 및 발명교실에서 추천한 초·중·고 학생	3	98
	창의적문제해결	학교발명반 및 발명교실에서 추천한 초·중·고 학생	4	130
	특허명세서	고등학교 발명반 및 발명교실에서 추천한 학생	2	72
맞춤형	탐구과정	발명교육에 접하기 힘든 소외지역 계층학생 대상	5	154
	체험과정	발명에 관심있는 전국민	68	1,700
	투어과정	발명에 관심있는 전국민	122	7,387
	부모님과함께하는 캠프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및 학부모	1	74
특별과정	특허명세서지도자	특성화고에서 발명특허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1	28
	발명영재	발명영재학급 및 발명영재교육원에서 추천한 학생	3	80
	위탁교육	경남항공고	1	33
합 계			231	10,693

지식재산부족 코리아
특허청이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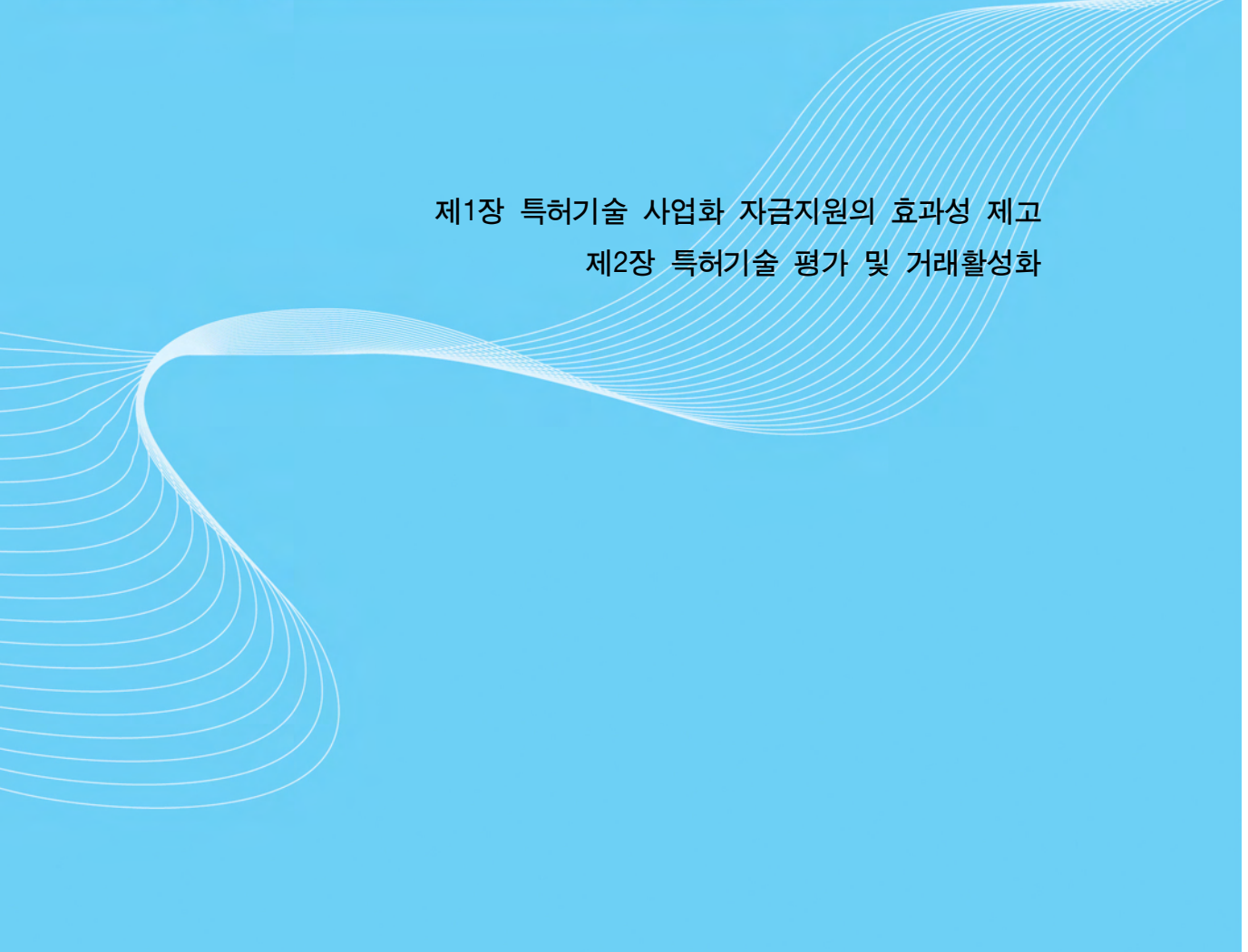


제 5 편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제1장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의 효과성 제고

제2장 특허기술 평가 및 거래활성화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의 효과성 제고

제1절 특허기술사업화 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

1.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임성택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수발명 시작품제작 지원사업은 198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중소기업자가 보유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를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 성장성, 수출 유망성 및 상품 시장성, 기술적 혁신성 및 우수성(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디자인의 심미성 및 우수성(디자인의 경우), 국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최고경영자의 사업화 추진의지 및 사업화 경영능력 등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특허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추진내용

매년 1월(1. 1 ~ 1. 30) 중에 신청 받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1건당 5,000만원 이내이고 70% 범위(30%는 신청인 부담) 이내에서 지원한다.

〈표 V-1-1〉 최근 5년간 시작품 제작 지원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04	'05	'06	'07	'08
예산(직접사업비)		1,200	1,600	3,400	3,230	2,184
신청건수		272	270	442	673	769
지원 내역	건수	55	79	165	135	91
	금액	1,064	1,463	3,140	3,005	1,850

발명진흥법 제35조에 의거 평가기관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발명,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발명, 특허기술상 등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발명, 국제출원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은 발명,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인 경우, 기타 특허청장이 시행하는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을 받은 발명일 경우에는 선정 심사시 우대하고 있다.

시작품 제작비의 지급은 계약시점에 계약금의 30%를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시작품 제작이 완료되면 이를 검수하고 나머지 제작비용을 정산하여 시작품 제작업체에 지급한다.

2) 추진성과

시작품제작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특허기술의 사업화율은 일반적인 특허기술이 사업화되는 비율보다 높아서 약 69.7%('08년 10월 조사)의 사업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특허기술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V-1-2〉 최근 3년간 지원된 시작품의 사업화 실적

년도	제작지원건수	사업화건수	사업화율(%)
2005년도	79	55	69.6
2006년도	165	114	69.1
2007년도	135	95	70.4
총계 및 평균	379	264	69.7

* 주 : 사업화수(비율)는 3년간 누적조사된 수치이며, '08년은 지원한 다음 해의 10월에 조사 실시

또한 신청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지원받으면 사업화에 대단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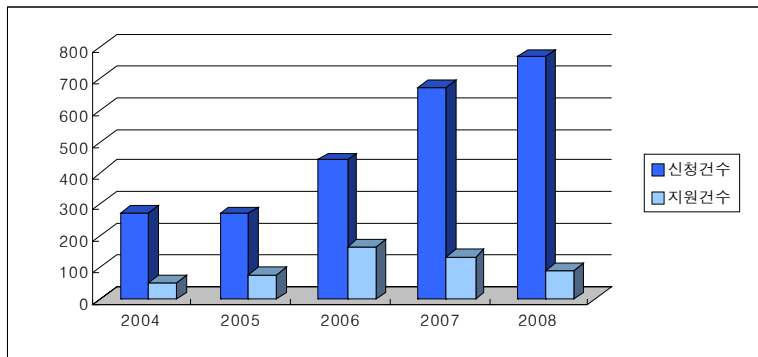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선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비롯하여 지원대상자를 위한 지역별 선정자회의 등을 개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V-1-1〉 지역별 순회 사업설명회 모습(부산광역시)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신청건수와 달리 지원건수는 계속 하향 추세(예산확보 미흡)에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V-1-2〉 최근 5년간 시작품 신청 및 지원건수 추이



향후 특허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국제출원비용, 시작품제작지원 및 발명의 평가 비용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하여 특허기술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시작품 제작지원후 1년 내지 3년의 일정기간동안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지원기관과 연계해서 사업 화자금,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2. 국제출원비용지원을 통한 권리화 지원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임성택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청은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 등 기술혁신주체가 치열한 기술전쟁에서 국제 특허 획득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을 외국에 출원할 경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국제출원비용 지원사업을 1982년 부터 수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외국에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개인 및 중소기업이며, 기술성 평가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해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외국의 특허청에 대해 출원절차를 시작할 경우에 한해서 최초 출원개시 이후의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추진내용

그 동안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에 국제출원비용지원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대학·연구소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원하였으며, 우수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출원 건당 고도기술은 700만원, 우수기술은 5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차등화 하였다. 2008년부터는 지원대상의 차별화를 통한 개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지원을 위해 대학·공공(연)에 대한 지원은 지식경제부의 특허경비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표 V-1-3〉 국제출원비용 지원실적 세부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신청건수(A)	지원건수(B)	지원액	지원율(B/A)	비 고
'00	737	335	361,700	45.5%	개인 235, 중소기업 100
'01	428	257	299,462	60.0%	개인 154, 중소기업 103
'02	938	391	461,638	41.7%	개인 217, 중소기업 174
'03	985	334	556,577	33.9%	개인 150, 중소기업 184
'04	727	261	499,423	35.9%	개인 165, 중소기업 96
'05	743	371	800,000	49.9%	개인 178, 중소기업 180 대학 5, 연구기관 8
'06	1,170	618	1,461,000	52.8%	개인 290, 중소기업 290 대학 35, 연구기관 3
'07	2,148	509	1,442,660	23.7%	개인 180, 중소기업 252 대학 59, 연구기관 18
'08	1,620	547	2,302,794	33.8%	개인 255, 중소기업 292

* 대학·연구기관은 '05년부터 '07년까지 지원, '08년은 지경부에서 지원

2) 추진성과

국제출원비용을 지원받은 기술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의 권리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으며,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출원비용 지원기술에 대한 등록률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V-1-4〉 국제출원비용 지원건의 등록률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지원 건수	심사완료건수		심사중 건수			등록률 {A/(A+B)}
		등록 (A)	거절 (B)	미공개 (확인불가)	심사 미청구	심사중	
2004	261	129	79	40	-	13	62.0
2005	371	155	83	41	36	56	65.1
2006	618	222	68	18	9	301	76.6
2007	509	140	34	34	3	298	80.5
합계	1,759	646	264	133	48	668	71.0

* 등록률 = 등록건수 / 심사완료(등록+거절)건수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08년 지원사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사업성과평가위원회를 평가한 결과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지원사업이 수행되었음을 평가하였고, 신청수요에 대하여는 배정예산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예산증액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제출원에 소요되는 비용규모가 출원권리별로 차등되는 비용에 대하여 일정지원비율을 조정하여 지급함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출원비용 수혜대상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등록률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국제출원비용 지원기술의 등록률 제고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년도에는 특허기술의 사업화지원에 대한 유관사업을 패키지화 하여 신청인의 신청과 지원에의 편의를 도모하고,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수혜자의 입장에서 지원사업체계를 개선하여 운영할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제2절 우수특허제품의 판로지원 강화

1. 특허제품 e-market place 운영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성창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e-marketplace)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으로 등록된 우수특허제품을 사이버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인프라이다. 바이인벤션(www.buyinvention.com)으로 명명된 이 시스템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 및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상품에 대하여 판로개척 및 유통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시스템이 '04년 10월에 본격적인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특허청은 연구개발을 통한 발명과 발명의 권리화, 특허발명의 사업화 그리고 특허제품의 판매로 인한 이익실현을 통하여 다시 연구개발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전체적인 발명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발명특허품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판매상품을 발명특허품 외에도 아이디어 상품, 우수 디자인 상품, 신기술인증 상품 등을 입점하였으며 고객관계 강화 및 고객 만족서비스를 제공코자 특허상품 e-카달로그 DB확충과 365일 열린-고객상담코너를 개설하여 발명특허품에 대한 고객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유통채널 및 판매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발명특허품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표 V-1-5〉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실적

(단위 : 명, 점, 건, 백만원, 개)

구 분	회원현황	입점상품	거래건수	매출액	외부제휴물
2003	-	500	-	-	
2004	3,580	1,500	133	51	
2005	34,522	1,751	907	5,223	
2006	7,299	7,816	2,230	6,307	5
2007	6,180	10,981	10,701	7,035	12
2008	21,892	12,334	15,620	7,843	9
누 계	73,473	34,882	29,591	26,459	26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우수특허제품 온라인 판매 전문 채널인 e-마켓플레이스는 '04. 10월에 서비스를 오픈되어 매출액(=특허사업화 지원)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세발명가 및 특허제품 생산 중소기업에게는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국내 유일의 특허제품전문 쇼핑몰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점 상품 및 제휴기관을 확대하고 홍보·마케팅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신규 유통시장 개척을 통해 특허상품의 홍보·마케팅 지원 강화하며, 향후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운영이 바람직하므로 발명진흥회로 이관 추진을 위해 '09년 준비기간을 거쳐 '10년에 동 사업을 사업추진기관인 발명진흥회에 완전 이관할 계획이다.

2.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성창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기술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투자자금의 조기회수 및 적정이윤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선정된 특허기술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추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우선구매추천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는 품질의 우수성(기준제품과의 성능 비교), 구매효과성(수입대체효과, 능률의 향상 등), 제품의 경제성(예산절약, 경비의 절감 등), 구매대상기관의 적격여부, 기타 제품생산 및 공급능력 등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V-1-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신청건수	15	45	15	19	13	44	32	59	59	78
추천건수	14	44	15	18	13	44	27	52	59	71
구매발생	3	13	5	7	2	8	6	11	16	-
납품금액	56	8,389	499	3,972	1,848	2,093	7,333	7,523	5,434	-

* 2008년의 구매발생건수 및 납품금액은 2009년 6월에 조사(예정)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우선구매추천제도는 신청자가 추천을 원하는 공공기관을 직접 지정하고 그 기관에 대해서만 추천해 주는 제도로서, 추천 대상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공공기관의 구매기관 담당자의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시비 및 민원발생 등을 우려한 구매기관의 소극적 구매관행으로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우선구매추천 심의요건 강화를 강화하고, 우선구매추천 심사시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공급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현장실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과의 연계한 타당성 검토 및 중·장기적인 업무협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실질적 판매강화 기반 확충을 위해 바이인벤션 유통채널 연계하여 우선구매추천 상품의 판매활성화 도모하여 제휴몰을 통한 거래, 기업특판, 복지몰 입점, B2B거래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바이인벤션 홍보/광고시 우수발명품 상품정보지 보급, 추천서 DM발송 등 우선구매추천 상품도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기술 평가 및 거래활성화

제1절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 구축

1. 특허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임성택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산업재산권은 기술개발의 대가로 개발자에게 독점배타적인 법적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지식경제시대의 핵심적인 무형자산이며 기술사업화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기술이 모두 사업화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특허청이 '07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특허 사업화율이 56.7%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산업재산권의 미활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업경영진, 기술투자자, 기술매수자 등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능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부분에서 접근한다면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앞서 사업성이 유망한 기술아이템을 발굴하고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효율적인 특허전략 실행이 보다 더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측면에서 가장 요구되는 기능은 기술의 우수성과 사업화 타당성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특허청은 평가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평가인력을 양성하고 평가기관을 지정·관리하며 평가기법의 개발과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동시에 고가의 평가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술평가를 받지 못하는 개인, 중소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기술평가를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특허기술 평가비용 지원은 발명진흥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의 70% 이내에서 신청인 1인당 연간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다. 평가비용은 보조금 신청→지원대상자 선정→평가수행→평가보고서 검수→보조금 지급의 절차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평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자와 그 승계인 및 전용실시권자로서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과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에 의한 대학 및 국공립연구소이며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평가비용 지원대상자는 특허기술 우수성, 특허기술 유용성, 시장과 산업동향 부합성, 활용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하게 되며 특허기술이 신성장동력기술인 경우, 중국 진출기업 또는 중국에 출원 중인 기술 또는 평가용도가 기술이전거래용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지원하고 있다.

'08년에는 총 1,643건에 대하여 4,778백만원의 평가비용이 지원되었고 특히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는 R&D 결과물의 효율적인 특허관리와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1,048건에 대해 평가비용을 지원하였다.

〈표 V-2-1〉 최근 8년간 평가비용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예산(직접사업비)		604	800	1,080	1,584	1,682	5,616	5,261	4,778
신청건수		50	57	85	212	392	2,283	3,372	4,578
지원 내역	건수	50	57	76	127	169	1,483	1,129	1,643
	금액	491	730	1,074	1,583	1,682	5,616	5,261	4,778

* 주 : 예산액은 연도별 전체예산에서 인건비, 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직접사업비임.

특허기술을 평가할 때에는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며 평가를 통해 해당 특허기술의 우수성과 사업화 타당성 그리고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의 금전적 가치까지 산정할 수 있어 관련 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의 양도, 라이선싱(Licensing)을 위한 적정 거래이전가격 산정, 특허기술 현물출자를 위한 적정가액 산정, 기술투자, 기술의 재무 증권화 또는 대출담보 설정,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계획 수립 및 세금 납부, 기업의 가치 증진, 기술 상품화, 분사(Spin-off) 기타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 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 상환계획 수립, 특허권 침해, 채무 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관련의 법적 소송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산업재산을 이용해 창업하는 벤처기업들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 중 가장 큰 것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를 특허기술평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산업은행과 최초로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05년 2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본 협력사업을 위해 특허청은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건당 5백만원)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특허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사업자금을 특허담보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협력사업은 산업은행에 이어 기술보증기금과 민간 4개 은행(국민·기업·신한·우리은행)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08년에는 특허기술가치평가를 통한 기술금융 보증/대출 실적이 487건에 770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 V-2-2〉 '08년 기술금융연계 평가 지원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지원건수	지원금액	보증/대출금액(건수)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405	1,974	70,656(388)
민간기술금융대출	82	152	6,390(27)
합계	487	2,126	77,046(415)

특허청은 매년 지원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평가비용 수혜자를 대상으로 평가보고서를 사업화에 활용한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평가보고서의 활용율이 최근에는 8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주요 활용내용 또한 사업화 자금 조달과 입찰 및 납품계약 체결 등으로 초기 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2-3〉 최근 5년간 발명의 평가결과 활용율

(단위 : %)

구분	'04	'05	'06	'07	'08
기술거래	21.7	13.8	0.7	2.4	2.3
자금대출	4.3	10.3	9.7	17.6	67
기술인증	10.9	0	2.8	4.3	3.9
마케팅(제품·기술홍보)	19.6	39.7	32.4	18.8	2.2
기타(입찰, 납품계약등)	19.6	15.5	35.9	37.7	7.2
계	76.1	79.3	81.5	80.8	82.6

특허기술 평가보고서의 생명력은 대외적인 공신력이라 할 수 있다. 특허청은 평가보고서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정부보조금으로 시행되는 평가비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명진흥법 제28조에 의거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평가 가능한 기술분야와 최근 3년간의 평가실적, 전문인력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평가기법과 시설의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재 특허청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은 총 9개 기관이며 평가기관 지정후에도 각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07년 2월부터 2년동안 일정수준의 평가역량 강화계획 수립과 이행을 각 평가기관에 요구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표 V-2-4〉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현황

지정기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해시험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술거래소,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인력의 전문성과 관련경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보유한 평가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특허청은 평가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특허기술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08년에는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평가기관 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치평가 관련 국내외 법제도 분석, M&A와 가치평가 사례 및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특허기술가치평가 방법 등 기술평가실무교육과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분기별로 평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평가사업의 활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연말에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가기법 공유 등 평가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브랜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대한 평가기법이 개발되어 평가실무에 적용되고 있다. 향후 특허청은 상표권(브랜드)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추가로 개발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관리전략 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재무기반은 약하지만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게 자사의 기술력을 어필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지식경영의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등 무형의 자산을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합리적인 지식재산보고서 작성 및 관리방법을 마련하는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평가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2절 수요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 시스템 구축

1. 온·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시설사무관 김현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 유형자산에서 기술 등 무형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기업의 가치에서 기술 등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장기성장을 위해서는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 그리고 이들의 사업화 성공 여부가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치열한 기술혁신 경쟁에 따라 기술의 수명주기는 짧아지고 있는 반면에, 기술개발에 투입되는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라 기술개발의 시간 및 비용의 증가하여 기술혁신 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외부의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활용되지 않는 기술은 외부에 라이선싱하여 활용하는 개방형 기술혁신의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의 발명 지향적 전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권리화·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 국가 지식재산보호 및 사업화지원시스템의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특허기술의 활용 촉진 및 개방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특허기술거래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특허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개방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특허기술거래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특허기술거래 시장으로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 시장으로 특허기술상설장터(한국지식재산센터 3층)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특허기술이 이전되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청은 '00. 4. 1부터 인터넷특허기술장터(IP-MART: <http://www.ipmart.or.kr>)를 구축하여 기술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기술거래가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08년 말 현재 41,000여 건의 이전희망기술 DB를 포함하여 총 86,000여 건의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정보가 등록되면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자동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Push-Mail)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 및 산업현장의 애로기술정보가 산업별·기술분야별로 제공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법률·세제·금융·회

계·마케팅 정보 등 기술거래를 위한 종합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되어 더욱 쉽게 기술이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01년부터 특허출원인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출원서에 표시토록 하여 출원공개된 기술 또는 등록된 기술에 대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우수특허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특허기술장터는 거래대상 기술에 대한 홍보와 기술정보 제공을 주로 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는 당사자 간 직접 상담에 의한 개별 직거래 또는 특허기술상설장터의 간접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08년 특허기술상설장터를 통한 기술거래실적은 343건으로 '07년 299건에 비해 14.7% 증가하였다.

〈표 V-2-5〉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DB 구축현황

연도	프로그램 개발	추가D/B 구축	가입회원 (누계)	비고
2000	• e-mail 맞춤형서비스 • IPC 인덱싱 • Full-Text 검색시스템 • 회원관리 강화(중복되는 주민번호 검색, ID, Password 분실시 메일발송) • 사용자 Interface 확충 • 등록된 기술별 사용자들의 관심도 파악기능 •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35,000건	6,200명	2000. 4. 서비스 개시
2001	• 특허기술상설장터 기술 온라인 연계전시 • 시스템 속도 개선 • 인공지능 K-2 검색엔진 적용 • D/B정보의 세분화 • 이전 희망기술의 현재 진행상태 확인방법 제공 • 이용자 분석, 관리 툴 • 도움말 기능강화	7,000건 (누계 42,000건)	12,120명	
2002	• 신규 구축 기술이전 정보 D/B는 신뢰도 검증 • 실시간 서지 정보 확인 • Front-end/Back-end 서버프로그램 언어변환 (JSP/JAVA Script 등) • 특허기술거래 길라잡이 • My Page에서의 일괄 기술관리 • 본인 연락처 선택적 공개 • 사이트 검색기능 및 결과 내 검색기능	8,000 건 (누계 50,000건)	16,100명	
2003	• 특허정보의 최신정보 자동갱신 기능 • 이용자의 실명확인 프로세스 구축 • 국유특허의 제공정보의 다양화 • 특허기술상설장터 테마별 전시 기술 정보제공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전대상 우수특허기술 정보제공	5,000 건 (누계 55,000건)	19,980명	
2004	• 전용 서버 및 스트리밍 시스템 구축 • 커뮤니티 구축, 쪽지기능 • Full Text 검색 안정성 등 기능향상 • 기술분류체계 변경개선 • PDF 명세서 서비스 제공	6,000건 (누계 60,000건)	21,730명	
2005	• “뉴스레터” 발간 • 발명의 자가진단/평가 시스템 탑재 • 기술이전 DB 마케팅 시스템 확보 • 기업 구매기술 상세조사 • 맞춤 검색 엔진 도입 • 추가 도메인 네임(인터넷 주소) 확보 • 정책자금/산업정보/시험/인증/장비정보제공기관 제휴	4000건 (누계 64,000건)	24,090명	

연도	프로그램 개발	추가D/B 구축	가입회원 (누계)	비고
2006	• 기술매칭 시스템 개발 • 온라인 기술경매시스템 개발 • 기술금융 조회시스템 개발 • 기술동향 조사를 위한 특허청 PIAS시스템 탑재 • 기술정보서식 변경개선 • 검색로봇 CIMS 도입	4,000건 (누계 68,000건)	26,800명	
2007	• 홈페이지 디자인 개발 및 구성 개편 • 사용자 기술등록 유효성 체크기능 추가 • 사용자 동향분석 기능추가 • 온라인 기술경매시스템 기능확대 (다중기술경매, 사진·동영상 편집기능 등) • 서버증축(2개) 및 시스템 솔루션 업그레이드 • 통합 프레임워크(Framework) 구축	6,000건 (누계 74,000건)	29,700명	.
2008	•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제니퍼 솔루션 도입 • 사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SSL 구축 • 수요자 검색편이 및 판매기술 선별기능 강화를 위한 IP-STAR 특별코너 구축 • IP-MART 디자인 개편 • IP-MART 사용자 이용안내를 위한 플래쉬애니메이션 제작	12,000건 (누계 86,000건)	31,800명	

특허기술상설장터는 '00.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발명회관 3층에 전시장, 투자설명회장 등 185평 규모로 개관하였다가 '03년에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3층으로 이전되어 이전희망기술, 사업성공기술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 전시되고 있다.

특허기술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이며, 시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 기술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용이하나, 대다수 이전희망 특허기술은 시제품 없이 특허명세서가 전부인 경우가 많고, 시제품 제작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개인 및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

특허기술상설장터에서는 우수 특허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이 상품화되었을 때의 작동 모습과 기능 등을 그래픽으로 구체화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특허기술상설전시장의 터치 스크린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와 연계하여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있어 기술 수요자로 하여금 거래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실제 거래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기술구매자에게 객관적 자료(기술성, 사업성, 권리성)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기술 평가서도 선택적으로 제공

하고 있다. 개관 이후 '08년까지 총 2,200여 건에 달하는 동영상제작 및 기술평가서 작성을 지원하였다.

특허기술상설장터의 접근성 개선 및 기술이전 상담 기능 강화를 위해 '08년 11월 특허기술상설장터를 개편하였으며, 유통 상담관실, 지식재산전문도서관, 특허기술 상설전시장으로 구성된 특허거래 정보센터로 기능을 복합화 하였다. 유통 상담관실에는 전문유통상담관이 상주하여 특허거래 정보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나 특허기술이전 및 사업화 종합 전문가 상담·기술거래 알선 및 기술이전 관련 계약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설전시장의 특허기술거래 정보 및 지식재산도서관의 지식재산 전문정보를 한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허기술상설장터를 통해 이전된 기술은 '00년 30건을 시작으로 '08년 343건에 달하여 총 1,284건의 기술거래 실적을 올렸다.

〈표 V-2-6〉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

유형별 거래실적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 계
특 허	29	72	54	48	72	86	127	259	281	1,028
실용신안	1	8	9	28	26	24	39	39	55	229
디자인		1		9	-	-	2	1	7	20
상 표			1	6	-	-	-	-	-	7
계	30	81	64	91	98	110	168	299	343	1,284

〈표 V-2-7〉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유형별 거래실적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 계
권리양도		16	2	18	19	3	32	26	43	151
실시허락	30	65	62	73	79	107	136	273	300	1,133
계	30	81	64	91	98	110	168	299	343	1,284

한편,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에게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01년부터 매년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성공사례발표회에서는 우수특허기술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특허기술 개발에서 사업화 과정, 유통 및 판매과정 등 사업화에 관한 모든 과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금상(산업자원부장관상), 은상(특허청장상),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등 총 7건에 대해 시상하며, 부상으로 상금도 수여하고 있다. '08년까지 총 84개 특허기업의 우수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온·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을 통해 특허기술거래 지원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특허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특허기술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거래 및 가격 협상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특허기술거래 촉진을 위해 특허기술거래를 지원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기술거래시장을 운영하고, 특허기술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특허기술거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허기술거래 시장은 '07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수요자중심의 기술거래와 공급기술에서 출발하여 거래 대상을 물색하는 공급자중심의 기술거래를 큰 2가지 축으로 추진할 것이며,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와 특허거래 정보센터와 연계를 강화하여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타 기술거래기관과 연계 강화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해 양질의 특허기술 DB를 구축하며, 특허기술이전 상담의 이력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특허기술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기술거래 관계 기관간 협력 강화, 특허거래 전문가 풀 구축·운영을 통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며, 우수사례 발굴 및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 개최로 특허기술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기술거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자동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기술거래 DB를 구축하여 거래되는 특허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시설사무관 김현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 유형자산에서 기술 등 무형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기업의 가치에서 기술 등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장기성장을 위해서는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 그리고 이들의 사업화 성공 여부가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치열한 기술혁신 경쟁에 따라 기술의 수명주기는 짧아지고 있는 반면에, 기술개발에 투입되는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라 기술개발의 시간 및 비용의 증가하여 기술혁신 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외부의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활용되지 않는 기술은 외부에 라이선싱하여 활용하는 개방형 기술혁신의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의 발명 지향적 전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권리화·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 국가 지식재산보호 및 사업화지원시스템의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개방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의 거래'를 촉진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특허기술거래시장을 운영하고, 특허기술이전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특허기술거래정보 확산 및 기술거래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특허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을 운영하고, 시장 지향적인 수요자중심의 특허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지속적으로 특허기술거래 지원 실적은 증가하여 '08년에는 국유특허 271건을 포함하여 총 343건의 특허를 이전하였다.

특허기술거래시장은 온라인상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와 오프라인의 특허기술상설장터(한국지식재산센터 3층 위치)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특허기술이 이전되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청은 '00. 4. 1부터 인터넷특허기술장터(IP-MART: <http://www.ipmart.or.kr>)를 구축하여 기술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기술거래가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08년 말 현재 41,000여 건의 이전희망기술 DB를 포함하여 총 86,000여 건의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V-2-1〉 인터넷특허기술장터 홈페이지



또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정보가 등록되면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자동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Push-Mail)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 및 산업현장의 애로기술정보가 산업별·기술분야별로 제공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세제·금융·회계·마케팅 정보 등 기술거래를 위한 종합정보

가 다양하게 제공되어 더욱 쉽게 기술이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01년부터 특허출원인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출원서에 표시토록 하여 출원공개된 기술 또는 등록된 기술에 대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우수특허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특허기술장터는 거래대상 기술에 대한 홍보와 기술정보 제공을 주로 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는 당사자 간 직접 상담에 의한 개별 직거래 또는 특허기술상설장터의 간접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08년 특허기술상설장터를 통한 기술거래실적은 343건으로 '07년 299건에 비해 14.7% 증가하였다.

〈표 V-2-8〉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DB 구축현황

연도	프로그램 개발	추가D/B 구축	가입회원 (누계)	비고
2000	• e-mail 맞춤형서비스 • IPC 인덱싱 • Full-Text 검색시스템 • 회원관리 강화(중복되는 주민번호 검색, ID, Password 분실시 메일발송) • 사용자 Interface 확충 • 등록된 기술별 사용자들의 관심도 파악기능 •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35,000건	6,200명	2000. 4. 서비스 개시
2001	• 특허기술상설장터 기술 온라인 연계전시 • 시스템 속도 개선 • 인공지능 K-2 검색엔진 적용 • D/B정보의 세분화 • 이전 희망기술의 현재 진행상태 확인방법 제공 • 이용자 분석, 관리 툴 • 도움말 기능강화	7,000건 (누계 42,000건)	12,120명	
2002	• 신규 구축 기술이전 정보 D/B는 신뢰도 검증 • 실시간 서지 정보 확인 • Front-end/Back-end 서버프로그램 언어변환 (JSP/JAVA Script 등) • 특허기술거래 길라잡이 • My Page에서의 일괄 기술관리 • 본인 연락처 선택적 공개 • 사이트 검색기능 및 결과 내 검색기능	8,000 건 (누계 50,000건)	16,100명	
2003	• 특허정보의 최신정보 자동갱신 기능 • 이용자의 실명확인 프로세스 구축 • 국유특허의 제공정보의 다양화 • 특허기술상설장터 테마별 전시 기술 정보제공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전대상 우수특허기술 정보제공	5,000 건 (누계 55,000건)	19,980명	

연도	프로그램 개발	추가D/B 구축	가입회원 (누계)	비고
2004	• 전용 서버 및 스트리밍 시스템 구축 • 커뮤니티 구축, 쪽지기능 • Full Text 검색 안정성 등 기능향상 • 기술분류체계 변경개선 • PDF 명세서 서비스 제공	6,000건 (누계 60,000건)	21,730명	
2005	• “뉴스레터” 발간 • 발명의 자가진단/평가 시스템 탑재 • 기술이전 DB 마케팅 시스템 확보 • 기업 구매기술 상세조사 • 맞춤형 검색 엔진 도입 • 추가 도메인 네임(인터넷 주소) 확보 • 정책자금/산업정보/시험/인증/장비정보제공기관 제휴	4000건 (누계 64,000건)	24,090명	
2006	• 기술매칭 시스템 개발 • 온라인 기술경매시스템 개발 • 기술금융 조회시스템 개발 • 기술동향 조사를 위한 특허청 PIAS시스템 탑재 • 기술정보서식 변경개선 • 검색로봇 CIMS 도입	4,000건 (누계 68,000건)	26,800명	
2007	• 홈페이지 디자인 개발 및 구성 개편 • 사용자 기술등록 유효성 체크기능 추가 • 사용자 동향분석 기능추가 • 온라인 기술경매시스템 기능확대 (다중기술경매, 사진·동영상 편집기능 등) • 서버증축(2개) 및 시스템 솔루션 업그레이드 • 통합 프레임워크(Framwork) 구축	6,000건 (누계 74,000건)	29,700명	.
2008	•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제니퍼 솔루션 도입 • 사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SSL 구축 • 수요자 검색편이 및 판매기술 선별기능 강화를 위한 IP-STAR 특별코너 구축 • IP-MART 디자인 개편 • IP-MART 사용자 이용안내를 위한 플래쉬애니메이션 제작	12,000건 (누계 86,000건)	31,800명	

특허기술상설장터는 '00.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발명회관 3층에 전시장, 투자설명회장 등 185평 규모로 개관하였다가 '03년에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3층으로 이전되어 이전희망기술, 사업성공기술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 전시되고 있다.

특허기술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이며, 시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 기술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용이하나, 대다수 이전희망 특허기술은 시제품 없이 특허명세서가 전부인 경우가 많고, 시제품 제작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개인 및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

특허기술상설장터에서는 우수 특허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이 상품화되었을 때의 작동 모습과 기능 등을 그래픽으로 구체화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특허기술상설전시장의 터치 스크린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와 연계하여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있어 기술 수요자로 하여금 거래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실제 거래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기술구매자에게 객관적 자료(기술성, 사업성, 권리성)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기술 평가서도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관 이후 '08년까지 총 2,200여 건에 달하는 동영상제작 및 기술평가서 작성을 지원하였다.

특허기술상설장터의 접근성 개선 및 기술이전 상담 기능 강화를 위해 '08년 11월 특허기술상설장터를 개편하였으며, 유통 상담관실, 지식재산전문도서관, 특허기술상설전시장으로 구성된 특허거래 정보센터로 기능을 복합화 하였다. 유통 상담관실에는 전문유통상담관이 상주하여 특허거래 정보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나 특허기술이전 및 사업화 종합 전문가 상담·기술거래 알선 및 기술이전 관련 계약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설전시장의 특허기술거래 정보 및 지식재산도서관의 지식재산 전문정보를 한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허기술상설장터를 통해 이전된 기술은 '00년 30건을 시작으로 '08년 343건에 달하여 총 1,284건의 기술거래 실적을 올렸다.

〈표 V-2-9〉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

유형별 거래실적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 계
특 허	29	72	54	48	72	86	127	259	281	1,028
실용신안	1	8	9	28	26	24	39	39	55	229
디자인		1		9	-	-	2	1	7	20
상 표			1	6	-	-	-	-	-	7
계	30	81	64	91	98	110	168	299	343	1,284

〈표 V-2-10〉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유형별 거래실적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 계
권리양도		16	2	18	19	3	32	26	43	151
실시허락	30	65	62	73	79	107	136	273	300	1,133
계	30	81	64	91	98	110	168	299	343	1,284

한편,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에게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01년부터 매년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성공사례발표회에서는 우수특허기술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특허기술 개발에서 사업화 과정, 유통 및 판매과정 등 사업화에 관한 모든 과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금상(산업자원부장관상), 은상(특허청장상),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등 총 7건에 대해 시상하며, 부상으로 상금도 수여하고 있다. '08년까지 총 84개 특허기업의 우수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하였다.

특허기술거래의 시작은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존재하여야 되므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식별하고 해당하는 공급기술을 찾아서 매칭, 알선·중개하는 수요자 중심의 특허기술이전이 더욱 효율적이다. '07년부터 수요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술조사와 특허기술이전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정보화의 진전은 기술의 융·복합화와 소비자의 요구수준을 높여, 결국 기술의 사이클을 급속히 단축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사이클의 단축으로 필요없는 기술을 매각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자체개발에 대한 비용적, 시간적 위험을 줄이고,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을 통해 신속히 기술을 확보하는 소위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기업의 기술경영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기술거래시장은 소수의 기술수요자와 다수의 기술공급자로 이루어진 기술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특허기술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술공급자는 시장수요 즉 수요자가 원하는 기술을 간과한 기술개발로 미활용특허를 양산하고 기술수요 기업의 기술구매 욕구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허청은 국내 특허기술거래시장의 환경에서 지재권 창출의 당사자인 다수의 공급자를 중심으로 한 특허기술이전 마케팅 지원보다는 지재권 활용의 당사자인 소수의 기술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특허기술이전 마케팅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술수요자가 찾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이후 이에 적합한 맞춤형 공급기술을 찾아주는 수요기술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특허청은 기술수요자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산업은행과 기술거래관련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최대 60억(운전자금 30억, 시설자금 30억)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요기업은 기술을 이전받은 이후 사업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도 상반기에는 108개의 수요기술에 이에 적합한 공급특허기술 507개 기술, 하반기에는 114개의 수요기술에 431건의 공급특허기술이 관련기술로 조사되어 수요자에게 제공되었다.

특허청은 수요기술조사를 통해 발굴된 수요기술 정보를 토대로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기업이 보유한 공급기술을 조사하고 이 두 당사자가 함께 모여 기술이전 협상과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만남의 장인 특허기술이전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상반기 특허기술이전상담회는 '08. 6. 3~ 6. 4까지 2일간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그리고 하반기(특허유통페스티벌)에는 '08. 11. 18~19까지 2일간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하여 총 2차례 행사를 가졌다.

특허기술이전상담회는 특허기술이전상담회, 지식재산컨퍼런스, 특허기술경매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기술이전상담회'는 사전 마케팅된 내용을 근거로 기술판매자, 기술구매자 및 거래중개자가 한자리에 앉아 특허기술이전 계약조건(금액, 거래유형)을 협상하는 행사이고, '지식재산 컨퍼런스'는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주제발표 세미나와 사업화 자금 지원 설명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허기술경매는 대기업·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을 기술 경매 형식으로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행사이다.

특허기술이전상담회는 기존의 단순 전시를 통한 특허기술이전을 지양하고, 사전 마케팅을 통해 특허기술이전 가능성을 높인 특허기술거래자 간 만남의 장으로 '06년 처음 개최하였다. '08년도에는 특허기술이전상담회를 2회 개최하여 총 17건의 특허기술을 이전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특허기술거래는 '05년 전문 유통상담관 운영과 '07년 수요자중심의 특허기술 거래 지원체계 구축으로 거래지원실적이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국유특허를 제외한 특허거래 지원 실적은 '08년 72건으로 더욱 많은 발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향후 특허기술거래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권 약자를 위한 특허기술거래 지원 및 특허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인식 제고를 위한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과 특허기술거

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특허기술거래 기반 구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기술거래 시장은 '07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수요자중심의 기술거래와 공급기술에서 출발하여 거래 대상을 모색하는 공급자중심의 기술거래를 큰 2가지 축으로 추진할 것이며,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와 특허거래 정보센터와 연계를 강화하여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타 기술거래기관과 연계 강화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해 양질의 특허기술 DB를 구축하며, 특허기술이전 상담의 이력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특허기술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기술거래 관계 기관간 협력 강화, 특허거래 전문가 풀 구축·운영을 통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며, 우수사례 발굴 및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 개최로 특허기술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기술거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자동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기술거래 DB를 구축하여 거래되는 특허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 수요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 기반 구축

산업재산업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시설사무관 김현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정보화의 진전은 기술의 융·복합화와 소비자의 요구수준을 높여, 결국 기술의 사이클을 급속히 단축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사이클의 단축으로 필요없는 기술을 매각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자체개발에 대한 비용적, 시간적 위험을 줄이고,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을 통해 신속히 기술을 확보하는 소위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기업의 기술경영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기술거래시장은 소수의 기술

수요자와 다수의 기술공급자로 이루어진 기술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특허기술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술공급자는 시장수요 즉 수요자가 원하는 기술을 간과한 기술개발로 미활용특허를 양산하고 기술수요 기업의 기술구매 욕구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허청은 수요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07년부터 수요기술 조사와 수요기술 중심의 특허기술이전 상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수요기술조사를 통해 조사한 기업의 수요기술을 발굴하고, 여기에 매칭되는 공급기술을 발굴하여 이전 상담회를 통해 이전·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특허청은 국내 특허기술거래시장의 환경에서 지재권 창출의 당사자인 다수의 공급자를 중심으로 한 특허기술이전 마케팅 지원보다는 지재권 활용의 당사자인 소수의 기술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특허기술이전 마케팅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술수요자가 찾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이후 이에 적합한 맞춤형 공급기술을 찾아주는 수요기술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특허청은 기술수요자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산업은행과 기술거래관련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최대 60억(운전자금 30억, 시설자금 30억)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요기업은 기술을 이전받은 이후 사업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도 상반기에는 108개의 수요기술에 이에 적합한 공급특허기술 507개 기술, 하반기에는 114개의 수요기술에 431건의 공급특허기술이 관련기술로 조사되어 수요자에게 제공되었다.

특허청은 수요기술조사를 통해 발굴된 수요기술 정보를 토대로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기업이 보유한 공급기술을 조사하고 이 두 당사자가 함께 모여 기술이전 협상과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만남의 장인 특허기술이전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상반기 특허기술이전상담회는 '08. 6. 3~ 6. 4까지 2일간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그리고 하반기(특허유통페스티벌)에는 '08. 11. 18~19까지 2일간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하여 총 2차례 행사를 가졌다.

특허기술이전상담회는 특허기술이전상담회, 지식재산컨퍼런스, 특허기술경매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기술이전상담회'는 사전 마케팅된 내용을 근거로 기술판매자, 기술구매자 및 거래중개자가 한자리에 앉아 특허기술이전 계약조건(금액, 거래유형)을 협상하는 행사이고, '지식재산 컨퍼런스'는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주제발표 세미나와 사업화 자금 지원 설명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허기술경매는 대기업·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을 기술 경매 형식으로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행사이다.

특허기술이전상담회는 기존의 단순 전시를 통한 특허기술이전을 지양하고, 사전 마케팅을 통해 특허기술이전 가능성을 높인 특허기술거래자 간 만남의 장으로 '06년 처음 개최하였다. '08년도에는 특허기술이전상담회를 2회 개최하여 총 17건의 특허기술을 이전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수요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는 적극적으로 기술을 도입하려는 수요자에서 특허기술거래가 시작되므로, 수요자의 필요 기술에 정확히 매칭되는 공급기술을 발굴하면 거래의 성사가 용이하다. 또한 수요자는 사업화 의사를 가진 불특정 다수인데 비해 공급자는 해당 특허권의 권리자 이므로 수요자를 중심으로 공급기술을 탐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수요자에게 필요한 특허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수요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수요기술조사에 신청을 했음에도 수요기술 정보가 구체화되지 않아 매칭되는 공급기술을 발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향후 수요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자가 필요한 기술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수요자인터뷰를 강화할 계획이며, 공급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 절차도 체계화하여 공급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식재산부족 코리아
특허청이 함께 합니다



제 6 편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제1장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제2장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반 강화

제3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제1절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이학진

가. 위조상품 단속

위조상품의 제조·판매는 타인의 상품표지 등과 동일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상품의 유통구조는 문란해지며, 소비자의 불신증가에 의한 구매의욕 감퇴는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위조상품의 유통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출처, 품질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켜, 결국 소비자는 위조상품에 의해 기만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위조상품의 성행으로 기업의 고유 브랜드·제품에 대한 투자·개발이 위축되고 기업 및 제품의 신뢰도 추락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국내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하게 된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조상품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검·경과 합동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한해동안 검·경, 지방자치단체와 정기 및 합동단속을 총 38회 실시하여 1,181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34건을 입건하고 1,147건은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표 VI-1-1〉 위조상품 단속 및 조치내역

(단위 : 건, 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적발	입 건	332	198	88	128	116	34
	시정권고	217	425	749	966	1,066	1,147
	계	549	623	837	1,094	1,182	1,181
물 량		10,160	149,555	17,742	14,852	35,366	97,751

적발된 상표는 대부분(1~10위)이 외국의 유명상표이며 품목별로는 장신구류, 가방·지갑류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표 VI-1-2〉 주요 품목별 단속실적

(단위 : 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의 류	2,596	84,781	7,102	2,172	4,598	2,998
가방·지갑류	1,790	1,307	1,916	2,066	7,823	3,224
신 발 류	402	615	1,280	471	1,203	236
장신구류	4,219	53,849	6,969	8,747	20,830	5,251
기 타	1,153	9,003	475	1,396	912	83,353
계	10,160	149,555	17,742	14,852	35,366	86,042

나.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단속활동과 함께 산업재산보호팀 내에 “위조상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된 위조상품 유통·제조관련 사항을 관할 검·경찰에 이첩하거나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또한 위조상품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특허청 홈페이지내에 위조상품신고센터(ippc.kipo.go.kr)를 설치하여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VI-1-3〉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신고 접수	이 첩	50	62	398	439	1,487
	내용불명	117	188	1,207	1,935	1,649
계		167	250	1,605	2,374	3,136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산업재산업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이학진

특허청은 위조상품 추방을 위해서 검찰,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하여왔으나, 국내 위조상품의 유통이 끊이지 않고 특히 그 유통경로가 점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일반인의 정보제공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에 한국 정부의 위조상품 방지노력을 선진국 등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대외 통상협상 등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고자 2006년 1월 1일부터 위조상품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위조상품 제조업자, 유통·판매업자로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시 첫 해인 2006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책정,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총 107건에 3억 2,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 규모는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약 3,430억원에 이른다. 2007년에는 89건에 2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적발된 위조상품 규모

가 정품가격 기준으로 3,170억원, 2008년에는 84건에 2억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적발된 위조상품 규모가 정품가격 기준으로 3,573억원에 이른다. 또한, 동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5년도의 경우, 특허청으로 접수된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연간 250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도 1,605건, 2007년 2,374건, 2008년 3,13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08년도에 지급된 포상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유통 신고에 34(93백만원), 인터넷판매 신고 19건(40백만원), 창고보관 신고 14건(43.5백만원)과 제조공장 신고 17건(43.2백만원)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가 빠르게 활성화되어감에 따라 2008년도부터는 유통업자의 경우 위조상품 물량이 정품가액기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표 VI-1-4〉 유형별 포상금 지급현황('08. 1~12)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세부유형	지급건수	지급금액
유통업자	도·소매 유통	34	93
	인터넷판매	19	40
	창 고	14	43.5
제조업자	제조공장	17	43.2
합 계		84	219.7

따라서 동 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위조상품의 신고에 대한 동기유발 및 적발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었을 뿐 만 아니라 위조상품의 불법성·폐해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이학진

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재권 보호 홍보 실시

위조상품의 유통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며 국내 고유브랜드 개발을 저해하고 국제적 통상마찰을 야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대국민 계도·홍보의 일환으로 국정홍보처와 협의하여 전국 주요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도심 변화가에 설치된 114개의 대형 전광판과 정부중앙청사 전광판을 활용해 동영상 및 문자표출방식에 의한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계도·홍보를 7개월간(1개월단위) 실시하였다.

또한 위조상품 주 수요층인 대학생을 상대로 지재권보호 필요성 홍보 및 홍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제1회 특허청 대학생광고공모전’(08. 3월 ~ 5월) 및 ‘블로그 대학생기자단’(08. 6월 ~ 12월)을 개최 및 운영하였으며 지하철 이동방송 홍보(08. 5월 ~ 9월), 포털사이트 홍보(08. 7월 ~ 10월), 소비자단체를 활용한 위조상품 유통근절 캠페인(08. 6월 ~ 11월)을 통하여 지재권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매체 홍보를 실시하였다.

나.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 및 각종 홍보물 발간·배포

위조상품 단속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부정경쟁방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이 단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속실적, 상표권자의 상표관리 노력, 당해 상표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주로 도용되는 국내상표 10개, 외국상표 86개 등 총 96개의 상표를 선정한 후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을 2,500부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위조상품에 주로 도용되는 상표를 중심으로 상표등록번호와 상표견본을 수록한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은 위조상품 단속업무 및 검·경의 사건처리 등에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문 홍보책자 “Anti-counterfeiting Activities in Korea 2008” 1,500부를 발간하여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사관 등에 배포하여 우리나라의 위조상품 근절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위조상품을 추방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 등의 계도·홍보전단 15,000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공무원, 일반 소비자 및 상인들에게 배포하였다.

다.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공무원 교육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부정경쟁방지업무에 대한 이해와 위조상품 단속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지역순회 교육(23회)을 실시하였고, 검찰·경찰·관세청·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전문교육(지식재산권지도요원 과정, 4회)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특별교육(7회)을 실시하는 한편, 위조상품 단속요령 책자를 발간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다.

〈위조 상품 식별요령 등 지원 자료〉

- '위조상품단속, 어떻게 하나?'
-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
- '위조상품 추방 홍보용 팜플렛'
- '부정경쟁방지업무 교육교재'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활동 수준 및 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관련지식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이고 전문적으로 단속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VI-1-5〉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교육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교육횟수	17	21	23	33	28	34
교육인원	401	399	544	759	535	966

4. 민관 공동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이학진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상거래 질서를 무시하고 위조상품을 유통시키는 업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조상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변화시켜 소비자가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실천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위조상품의 유통이라는 위법적 상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이러한 행위가 위법임을 소비자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소비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을 구별하고 위조상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기여하고자 한다.

2008년 특허청은 시민단체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 지역에서 가장 위조상품 빈발지역인 이태원, 동대문, 남대문 등에서 가두 캠페인을 통해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홍보책자와 위조상품 식별요령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상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고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에 시민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제2절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 해외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류승호

최근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속에서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부상, 환율의 문제, 유가 등 여러 가지 사면초가를 겪고 있으며,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 기술무역 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경쟁 상대국의 기술 장벽이 확대되는 등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50여년간 수출중심의 경제전략을 추진하여 온바 이러한 변화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와 함께 2008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4220억 달러, 수입은 4352억 달러에 이르는 등 수출입을 포함한 전체 무역규모에서 세계 9위 수준을 차지하였다.

수출기반형 우리경제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더 이상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서 마주치는 급박한 과제이다.

과거에는 관세를 통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소위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을 통한 신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의 변화속에 지재권은 국가간 교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기업의 기술력 및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등 개발도상국가에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단순한 해당 상품의 수출감소에 그치지 않고 우리상품의 국제적 공신력과 평판저하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물론 대기업은 지재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의 인지도와 문제 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전문인력 부족과 소송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감당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해외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침해발생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나서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해외 지식재산 침해 현황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류승호

최근 특허청의 실태조사(2008)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발생국가는 중국이 64.7%, 대만 11.8%, 미국이 11.8% 순으로 중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권역별로는 아시아주에서 발생하는 침해가 83.8%에 이르렀다. 침해받은 권리로는 디자인이 46.2%로 가장 많으며, 상표 38.2%와 특허·실용신안 32.4%로서 중국에서의 디자인·상표 도용으로 인한 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들 국가에서 제조된 모조품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되어 유통되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은 지재권 침해 또는 분쟁에 대하여 기업이 꺼리는 실정과 무역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상당할 것이 예상된다.⁴⁶⁾

46)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물품 교역량 중에서 가짜 상품이 약 5~7%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적용하면 약 250억 달러(2008)에 해당한다.

〈표 VI-1-6〉 연도별·지역별 피침해 현황(2000~2008)

(단위 : 기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아시아	중국	-	11	8	6	5	18	13	21	12	94
	중화권	1	-	2	2	1	1	7	3	3	20
	아시아권	5	1	6	7	4	5	14	11	4	57
아프리카권		1	-	3	8	4	2	4	-	-	22
유럽권		4	4	6	11	3	2	7	5	3	45
북미·오세아니아		-	-	4	4	5	5	7	6	3	34
중남미		1	-	2	-	2	1	1	-	-	7
기타		3	1	-	4	3	-	1	3	-	15
계		15	17	31	42	27	34	54	49	25	294

* 주 : 중화권은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함하고, 아시아권은 중국 및 중화권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국가이며, 침해발생국가 기준임.

294개 기업의 피침해 사례를 권리별로 살펴보면, 이중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48.1%를 차지하고 있어 상표의 보호·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특허 등 기술에 대한 침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1-7〉 권리별 피침해 현황(2000~2008)

(단위 : 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특허·실용	6	5	13	18	6	10	17	25	10	110
디자인	3	4	5	1	2	10	12	9	4	50
상 표	7	11	23	29	18	22	37	17	11	175
기 타	-	1	1	2	3	9	8	5	-	29
계	16	21	42	50	29	51	74	56	25	364

또한, 2008년 특허청의 해외지재권보호센터에 신고 접수된 침해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의 64%(16건)가 모조품(짝퉁)과 관련된 것으로 응답하여 우리기업이 투자 또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의 지식재산권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VI-1-8〉 2008년도 지식재산권 침해유형

(단위 : 건)

침해유형	등록 지재권을 모방한 모조품 유통	미등록 지재권의 무단사용 또는 모조품 유통	현지인의 산업 재산권 무단선등록	기타 (모조품 수출입/ 상표 등록 방해등)	계
건수	16	5	4	0	25

3.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운영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류승호

특허청에서는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담·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해외지적재산권애로센터」를 설치하였고, 2000년부터 이를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에는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법률자문관으로 위촉하여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과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별·언어별로 17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유럽지역 및 아시아 지역의 전문가를 추가하여 30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해외 현지 전문가를 확충하는 한편 구축된 전문가 풀을 DB화 하여 지재권 분쟁당사자에게 보다 활용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침해가 외국에서 발생하고 해당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현지의 정보 획득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내에서보다 어

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사전보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04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해외지재권보호설명회」를 2008년에도 19회(국내 12회, 해외 7회) 개최하여 해외진출 예정 및 진출기업들에게 현지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우리기업의 주요진출 국가인 영국, 인도, 남아공, 칠레 편 「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을 각각 발간하여 해당국의 지재권 제도를 소개하는 책자를 배포하였다.⁴⁷⁾

이와 같은 사전 침해방지 활동 외에도 침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침해 구제를 위한 것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2006년 시작한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2007년에는 12건, 2008년에는 7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분쟁 지원을 하고있다.

또한, 2006년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홈페이지의 서버의 용량을 확대하고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 및 각종 자료 외에도, 지속적으로 해외 지재권보호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 각종사업 홍보 및 정보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지재권 침해가 가장 빈발하고 있는 중국에서 보호활동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07년 3월에 중국 북경 소재 북경IP 연수원에 파견관 1명을 파견하였으며 '08년 8월에 중국 대사관에 특허관을 파견하여 중국 지재권 정책·집행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지재권보호 활동 지원을 현지 밀착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사전예방하고 침해가 있는 경우 사후구제를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7) 2005년에는 중국, 2006년에는 미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대만, 러시아, 말레이시아, 2007년에는 독일, 브라질, 태국, 터키, 2008년에는 영국, 인도, 남아공, 칠레 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음

제3절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

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공업사무관 강택중

최근에는 기술의 고도화·다양화 및 융합화에 따른 기업의 R&D 공백,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및 브랜드 비즈니스 확대, 패턴트트롤의 분쟁 및 소송 증가로 인하여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표준특허 및 특허풀의 증가로 특허계약이 불가피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로열티 수준은 휴대폰은 15~20%, DVD 20~30% 수준 등으로 로열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허분쟁수단도 선소송, 미국 ITC 및 유럽의 보더 디텐션(Border Detention) 등 국경조치, 가처분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발생지역도 미국 중심에서 유럽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80%에 육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도 고액화하고 있다.

특허권자의 특성에 따른 분쟁동향을 살펴보면, 특허권자가 기술개발선도업체, 시장 지배력이 있는 업체 또는 조인트 라인센스업체 등 경쟁제조업체인 경우 특허료가 높고, 협상이 중심이며 소송은 최후가 되며 카운터 클레임이 가능하다. 특허권자가 국제표준특허풀 또는 업계표준특허풀 등 표준특허풀인 경우에는 특허료는 낮은 편이나 협상의 여지가 없으며, 특허권자도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특허권자가 패턴트 트롤인 경우에는 속전속결의 박리다매형이고 소송을 남발하여 일방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그 밖에도 특허권자의 분쟁제기 목적, 특허발생지역별, 특허의 파워별 및 분쟁제기 시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최근 선진국과 우리기업들 간의 특허분쟁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8년까

지 129건이나, 국제특허분쟁이 기업비밀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쟁이 발생한 분야는 주로 전기·전자(100건) 및 화학·의약품(25건)으로 전기·전자는 주로 수출시장인 국외에서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학·의약품은 국내 제약업체의 내수용 복제약품 생산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 대상 국가별로는 미국 67건, 일본 27건으로 이들 국가와 관련된 분쟁건수가 전체의 72.9%를 차지하였다. 최근의 특허분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주력 품목과 내수품목 중 약품분야에서 분쟁이 집중되고 있다.

2008년도 국제특허분쟁관련 통계를 살펴볼 때 가장 주목할 점은 우리기업체들의 역공을 들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를 침해하는 다른 나라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 제소하거나 타 기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이를 맞제소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VI-1-9〉 2008년 우리기업 및 외국기업과 국제특허분쟁 제소현황

분 야		외국기업 제소건수	우리기업 제소건수	소 계	총 계
전기 전자	PDP	-		0	15 (78.9%)
	LCD	-	1	1	
	반도체	2	2	4	
	휴대폰	2	-	2	
	디지털	-	1	1	
	컴퓨터	-	-	0	
	기타	4	3	7	
화학 약품	화학	1	1	2	3 (15.8%)
	약품	1	-	1	
	섬유	-	-	0	
	식품	-	-	0	
기계	자동차	-	-	0	1 (5.3%)
	정밀가공	-	-	0	
	기타	1	-	1	
합 계		10(71.1%)	8(28.9%)	19	19

〈표 VI-1-10〉 외국기업과의 기술분야별 특허소송건수(2000~2008)

분 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소계	총계
전기전자	PDP	-	-	-	2	1(1)	-	2(1)	-	5(2)	100
	LCD	-	-	1(1)	1	3	-	1(1)	6	1(1)	
	반도체	1	1	1	1	2	6(1)	3(1)	6(3)	4(2)	
	휴대폰	-	-	-	-	1	3	4	2	2	
	디지털	-	-	-	-	4	-	-	5(1)	1(1)	
	컴퓨터	10(10)	2(2)	-	-	-	-	1	1	-	
	기타	-	1	-	2	1(1)	-	3(1)	7(3)	7(3)	
화학약품	화학	-	-	-	-	-	1	-	2(1)	2(1)	25
	약품	1	1	1	2	4	-	2(1)	5(2)	1(1)	
	섬유	-	1	-	-	-	-	-	-	-	
	식품	-	1	-	-	-	-	-	1	-	
기계	자동차	-	-	-	-	-	-	1	-	-	4
	정밀가공	-	-	-	-	-	-	1	1	-	
	기타	-	-	-	-	-	-	-	-	1	
합 계	12(10)	7(2)	3(1)	6	17(1)	11(2)	16(4)	38(11)	19(9)	129(40)	129

* 분쟁 발생연도 기준

* 국내외 법원 및 미 ITC(국제무역위원회) 제소 건수

- 제소기관 및 피소 업체 당 1건

- ()는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

* 국제 특허분쟁은 기업비밀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

〈표 VI-1-11〉 상대국가별 특허분쟁 건수(2000~2008)

국가	외국기업 → 한국기업	한국기업 → 외국기업	합 계
미국	51	16	67
일본	20	7	27
대만	1	12	13
영국	5	-	5
프랑스	4	-	4
캐나다	2	-	2
스웨덴	1	-	1
독일	1	-	1
벨기에	1	1	2
스위스	1	1	2
싱가포르	1		1
네덜란드	1		1
중국	1	2	3
합 계	90	39	129

이와 같이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특허분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기업의 기술력 신장으로 LCD, 반도체, 디지털 등 전기·전자분야에서 분쟁이 치열해 졌고,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기술 주도권 싸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둘째,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 중의 하나인 화학·의약품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이 국제특허분쟁 시 적극 대응하여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최근 이 분야 7건의 소송에서 3건의 승소가 이어졌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특허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줄고 있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사전 예방능력 부족이다. 최근의 기술특허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연구기획 단계부터 선행기술 조사 등 특허분석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허분쟁 연루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2. 국내 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공업사무관 강택중

우리나라 국내기업의 특허관리는 아직 미약한 수준에 불과한데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특허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 특허 전담부서가 없으며, 기술 인력들의 특허관련 지식 및 기술분석 능력 부족으로 특허분쟁시 대처 능력이 미약하다. 대기업을 경우에도 S전자, L전자 등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특허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전담부서 없이 법무팀 등에서 특허 출원·등록을 단순 관리하는 수준으로 국제적인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에는 인프라 구축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기업은 연구기획 단계부터 충분한 특허분석을 통해 사전에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특허출원의 50%가 선행기술 조사 미흡으로 거절되며 이중 R&D 착수시점에 이미 선행기술이 존재했던 경우가 80%에 이른다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공업사무관 강택중

우리 기업들의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응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정보 분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과 연구소의 국제특허분쟁 대응력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지역(국가)별 특허분쟁지도와 특허분쟁이 예상·진행되는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분쟁대비 특허맵을 작성·보급하고 있다. 주요 교역국가의 체계적인 특허분쟁 현황 파악을 위한 특허분쟁지도는 2005년 미국편(1)을 작성한데 이어 2006년에는 미국편(2)과 일본편을 작성하였으며 2007년에는 독일·영국을 작성하였으며 '08년에는 중국·미국 편을 제작하였다.

또한, 특허분쟁의 사전예방과 중복연구 방지 등을 위해 2005년부터는 지식경제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분쟁 다발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10개 분야에 대해 분쟁대비 특허맵을 작성·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청은 2005년부터 과기부, 산자부 등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과제선정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국가 R&D 과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특허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의 특허분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 분석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다.

둘째, 특허분쟁 관련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 기술연구회를 활용하고 특허기술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으로 구성된 기술연구회는 업계의 국제특허분쟁 공동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 특허컨소시엄의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특허정보, 관련 법제 등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국제특허분쟁에 관한 구제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재권 침해가 빈발하는 미국, 유럽 지역에 '10년부터 IP-Desk를 설치하여 해외지재권보호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이를 점차 확대 시켜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재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중국에 특허관을 파견하고 중국에서 우리기업들을 상대로 지재권 침해에 관한 애로 상담이나 피해 사례를 분석하는 등 국제특허분쟁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해 대기업의 특허분쟁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공유할 수 있는 해외지재권보호협의회를 '07년 6월에 발족하여 간담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특허분쟁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4절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1. 특허법률구조사업 추진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강균상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및 영세개인발명가 등 경제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심판·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재산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일 권리당 1천만원 이내, 동일 신청자당 2천만원 이내에서 심판 및 소송사건마다 심판비용은 2백만원, 소송비용은 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승소시 지원금의 50%를 대리인의 성과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의 특허법률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신청하여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 권리구제의 필요성 및 승소가 능성 등으로 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8년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통해 150여 사건에 대해서 약 3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승소사건에 대한 성과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다.

〈표 VI-1-12〉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 실적

구 분	심판지원	소송지원	성공사례금
건 수	120	36	66
지원금액(원)	214,000,000	150,000,000	80,166,680

〈표 VI-1-13〉 지원대상자별 지원 실적

구 분	중소기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개인영세발명가	학생	계
건 수	91	1	6	57	1	156
지원금액(원)	220,000,000	2,000,000	20,000,000	120,000,000	2,000,000	364,000,000

또한 보다많은 국민들에게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알리기 위해 2008년에 중소기업 뉴스신문, 특허와 상표, 전자신문, 매일경제등의 매체에 홍보포스터를 게재하였으며, 특허법률구조사업 홍보용 포스터 500부, 팜플렛 2,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외에도 특허법률구조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 위원을 4인에서 7인으로 확대시켰으며, 세칙개정을 통해서 학생이 아닌 ‘만 19세 미만자’도 심판·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08년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건 중 완결된 사건의 승소율은 59.3%였다. 특허청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 개시 전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지원 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2.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운영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강균상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고가의 변리서비스에 접근하기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학생, 소기업 및 대기업과 분쟁중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약자와 변리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4월 1일,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책임변리사를 포함하여 총 7명의 변리사, 도면사, 행정요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각종 특허관련 상담업무, 서류작성 지원, 지재권보호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지원 대상 및 업무영역 확대 등으로 인하여 매년 상담실적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운영 첫 해인 2005년 4월부터 12월까지 1,387건, 2006년에는 3,144건, 2007년에는 5,160건의 상담업무를 수행하였다. 2008년에는 지재권 보호 설명회 56회,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경영 컨설팅 26회 등을 포함하여 총 6,24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8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예약신청, 상담 결과 통보, 서류 지원 결과에 대한 통보 서비스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온라인 상담에 대해서는 익일 답변완료율 원칙으로 하여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지역주민에 대한 변리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산, 충주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새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총 11개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 한 해 719건의 지역순회상담을 실시하였다.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 상담운영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운영 보도자료를 이용한 언론 및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비롯하여, 대구, 진주, 태백, 목포, 제주지역의 신문광고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표 VI-1-14〉 상담유형별 상담실적

전화상담	방문상담	순회상담	온라인상담	지재권보호 설명회	중소기업 특허분쟁 컨설팅	서류지원	계
2,736	1,122	719	1,142	26	7	458	6,240

〈표 VI-1-15〉 상담민원인별 상담실적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재학생	소기업	기타	계
282	304	928	1,158	734	2,834	6,240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09년에는 수요자중심으로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2008년 상담민원인의 상당수는 개인사업자인데 현재 이들은 출원서류 작성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허청에서는 법인이 아닌 일정소득 미만의 개인영세사업자도 서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 상담 요구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에 공익변리사를 지원하여 기술유출 방지 및 사후구제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내실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강균상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유수의 산업재산권 다출원국가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기업 간은 물론,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분쟁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분쟁 당사자들은 변호사·변리사를 통해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절차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기술수명이 날로 단축되고 있는 현재에는 법적 구제 실익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이나 심판에 소요되는 인력, 금전, 시간 등 분쟁해결을 위해 큰 비용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잃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첨단기술분야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분쟁이 더욱 복잡화·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산업재산권 전문가에 의한 중재 및 조정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해져 1995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 소속 공무원, 변리사 또는 변호사, 교수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의 침해·양도 또는 실시로 인한 분쟁,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을 수개월 내에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결하도록 한다.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분쟁당사자와 조정위원이 날인함으로써 분쟁조정위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되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게 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총 90여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이 중 22건은 분쟁 당사자간의 원만한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백혈병 치료제 ‘클리백’의 강제실시권에 관한 중재사건은 2002년 2회, 2003년 1회 등 총 3회의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8년 12월 접수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권 청구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2006년 휴대폰 단말기의 특허기술사용과 관련된 특허권 기술분쟁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개인발명가에게 특허기술료 4천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조정 성립되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표 VI-1-16〉 최근 10년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현황

(단위 : 건)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조정신청	7	5	3	15	5	5	5	5	5	4	59
조정성립	3	-	-	2	1	1	-	1	1	-	9
조정 불성립	4	5	3	13	4	4	5	4	4	4	50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복잡해지는 산업재산권 분쟁해결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14년간 연평균 조정신청 건수는 6.6건, 성립건수는 1.6건에 불과하는 등 조정실적이 저조하여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6년 1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조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출석요청제도를 도입하였고, 분쟁당사자의 소재지를 고려하여 조정회의 개최장소를 선택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예 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신문 매체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취지와 절차,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그림 VI-1-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문광고

신속·간편하고 경제적인 산업재산권 분쟁해결을 원하십니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신청대상**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 **산업재산권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및 당해 권리의 실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신청가능**
- **신청방법**
특허청 지식재산보호센터(www.ippc.kipo.go.kr 또는 www.kipo.go.kr/ippc) 홈페이지/산업재산권분쟁조정/산업재산권분쟁조정신청을 참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으로 제출
※ 주소 : 대전 서구 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전화 : (042)481-5074 팩스 : (042)472-3465
- **조정절차**
- 조정신청서 접수, 분쟁 상대방에 출석요청서 송부, 조정에 응하면 조정개시
- 변리사, 변호사, 특허청 공무원 등 산업재산권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진담
- 양 당사자 합의 → 조정성립
- **조정제도 이런 점이 좋습니다**
- 조정위원은 산업재산권 전문가이므로 분쟁당사자들이 심판과 소송에 가지 않고서도 원만한 해결 가능
- 조정이 잘 될 경우 수개월이던 분쟁 해결
-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조정과정에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 신청인이 원할 경우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산업재산권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음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반 강화

제1절 주요국과의 지재권 협력 강화 및 확대

1.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활동의 강화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기술서기관 김일규

가. 5개국 특허협력 추진 배경 및 경위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체제 변화와 선진국의 지식재산 중시정책에 따라, 최근 전 세계 지식재산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통적인 다출원국가인 미국, 일본, 유럽에 이어 최근 한국과 중국의 지재권 출원 또한 급증 추세이며, 이에 따라 한·미·일·중·유럽 등 5개국으로부터의 출원이 전 세계 출원의 약 80%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특허출원의 급증에 따라 5개국 특허청의 심사부담 및 심사적체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5개국간 특허협력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07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5개국 청장이 사상 최초로 회합하여 5개국 협력에 대해 논의한 이래, '08년 5월 5개국 차장급 실무회담을 통해 5개국간 본격적 업무협력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5개국 협력 필요성을 역설하며 5개국 협력체제의 출범을 위해 2008년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의 한국 개최를 제안하였다. 동 제안은 5개국간 실무협의를 거쳐 '08.9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5개국 특허청장간 회동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고,

'08년 10월 27~28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나라 제주에서 선진 5개국(IP5) 특허청장 회의가 개최되었다.

나. IP5 특허청장 회의의 성과 및 주요의의

2008년 10월 27~28일간 선진 5개국(IP5) 특허청장 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의 고정식 특허청장, 미국의 존 두다스(Jon W. Dudas) 청장, 일본의 다카시 스즈키(Takashi SUZUKI) 청장, 유럽의 앨리슨 브림로우(Alison Brimelow) 청장, 중국의 티안 리푸(TIAN Lipu) 청장 및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5개국간 상호 협력 방안 및 세계특허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들간에 걸친 공식 청장회의와 야간 비공식 실무회의 등을 거쳐 5개국은 마침내 특허심사 관련 국제적 현안 해결을 위한 5개국 간 특허심사협력(Work-sharing)을 공식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세부적으로는 5개국 협력의 비전, 추진목표, 향후 로드맵 및 추진체계등에 합의하여 합의록에 공식서명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5개국간 워크쉐어링 추진을 위한 10대 기반과제의 추진에 합의하였고, 국가간 2개 과제씩 주도국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심사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기반 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5개국 심사관간 워크숍을 개최하는데도 합의하는 등 구체적 실천 계획을 도출하였다.

〈표 VI-2-1〉 IP5 10대 기반 프로젝트

주도국	10대 기반 프로젝트(Foundation Project)
유럽(EPO)	공통 분류, 공통 검색 DB
일본(JPO)	공통출원서식, 검색(심사)결과 공유시스템
한국(KIPO)	심사관 훈련 전략, 기계번역
중국(SIPO)	심사실무 · 품질관리를 위한 공통지침, 공통통계지표
미국(USPTO)	검색(심사) 지원도구, 검색전략 공유 및 접근

당초 참여국간 입장 차이 및 중국의 반대 등으로 합의 도출이 불가능해 보였으나, 지속적 노력 끝에 5개국간 합의를 도출하고 공식적으로 5개국 협력체제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개별국가가 독립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여러 국가가 협력하여 특허심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특허심사 업무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며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향후 각 국의 특허제도 및 심사환경도 상당부분 변화될 것으로 보이고, 전 세계 특허제도의 통일화 및 표준화 논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5개국간 심사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해외에서 특허를 획득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가간 심사절차가 표준화 되면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할 수 있게 되는 등 해외 특허획득에 있어서의 고객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 향후 추진 계획

'08년 5개국 협력체제가 정식 출범한 이후, 현재 5개국간 실무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9년 1월 미국 워싱턴에서 10대 기반과제 이행을 위한 실무회의가 개최되었고, '09년 3월에도 일본 동경에서 실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09년 6월에는 선진 5개국 차장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 '09년 하반기에는 제1차 심사관 워크숍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5개국간 협력활동과 더불어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참여국과의 개별 양자회담을 통해서도 양자간 심사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 5개국 협력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림 VI-2-1〉 5개국 특허청장 공식 합의문 서명식('08.10)



2. 주요국과의 양자협력 강화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서기관 심상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체제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체, 연구원 등이 발명하거나 고안하여 국내 및 해외 주요국가에 출원하는 국제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출원인들의 특허권, 상표권 등이 해외시장에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에서는 해외에서 우리 지식재산

권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주요국과 양자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출원등록을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고 분쟁으로부터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국과의 양자협력은 상대국과 특허청장과 청장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현안 및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를 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양국 특허청의 해당 실무부서에서 후속조치를 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청장회담과 함께 양청 간 국장급 이상 고위급 실무회담과 과장급 이하의 실무회의도 주요국과의 양자협력을 위한 중요한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8년 한 해 동안 특허청은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호주 등과 청장회담을 개최하여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실시, 선행기술 공동조사 및 심사관 교류 등 특허심사교류프로그램, 특허정보교환 및 특허행정정보화 등 정보화 분야 협력에 합의하는 등 총 31건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특허청은 주요국과의 양자협력 확대와 함께 러시아, 남아공, 페루 등 에너지·자원 부국과의 양자협력 다변화를 추진하여 정부차원의 에너지·자원외교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2008년 9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총회에 참석하여 회기 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장, 러시아, 몽골과 청장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특허정보교환, 지식재산권 관련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VI-2-2〉 2008년도 양자회의 합의실적

양자 회의	합의실적
선진 5개국 특허청 고위급 실무회담 (5월)	① 5개국 협력체계 초안 마련 및 추후 청장회담을 통해 공동선언하는 것에 합의 ② 총 8개 협력과제를 선정하여 4개국이 2개 과제씩 주도국 역할 수행 합의 ③ '08.7월까지 세부실행계획 초안 완성 및 9월까지 완성하는 것에 합의 ④ 제2차 IP5 특허청장 회담 한국개최 합의
제3차 한-덴마크 특허청장회담 (6월)	① '09년 1월 한-덴마크 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실시 합의
한-미 특허청 고위급회담 (6월)	① PCT 국제조사용 사본 전자적 교환 합의 ② 우리 특허청 심사관 USPTO 특허 심사관 교육과정 참가 합의 ③ 한-미 포괄적 업무협력을 위한 MOU 체결에 합의 ④ 의제별 실무급 Contact Point 교환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합의
한-호주 특허청장회담 (8월)	① 선행기술 공동조사 지속적 실시에 합의 ② 호주특허청이 우리 특허청을 PCT ISA/IPEA 지정하는 것에 합의 ③ 한-호주 특허심사하이웨이 구축 검토를 위한 실무협력 창구 개설에 합의 ④ WIPO가 구축 추진 중인 DAS 시스템을 통해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 추진키로 합의 ⑤ OHIM 주최 고위급 상표 전문가회의의 공동 참가 합의 ⑥ 중소기업 지재권 경영지원 정책 담당자들의 대화 창구 설치에 합의 ⑦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상호 교육기관에 감사 파견 등 협력사업 진행할 것에 합의
한-일 특허청장회담 (8월)	① F-term 세부정보 교환 및 일본의 특허분류 전문가 한국 파견에 합의 ② PLT 가입 관련 상호 정기적 의견교환채널 구축 합의 ③ 한-일 인재육성 기관 간 교류하는 것에 합의 ④ 대학 지식재산권 관리 정책담당자 간 실무협의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 (10월)	① 5개국 특허심사 Work-sharing 구체방안(비전, 기반프로젝트) 합의 ② 10개 기반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에 합의 ③ 5개국 심사관 워크숍 개최에 합의 ④ 5개국 협력 로드맵 및 추진체계 구축에 합의
한-미 특허청 실무회담 (10월)	① 양국 협력 프로젝트를 장·단기로 구분, 세부 추진체계 구축에 합의 ② '09년 하반기부터 SHARE 프로젝트 추진하는 것에 합의 ③ '09년 상반기 특허심사교류 프로그램 시행하는 것에 합의 ④ 양청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교환하는 것에 합의 ⑤ 우리 특허청 전문가 2명이 온라인 협력시스템 구축 참여에 합의 ⑥ '09.3월까지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기계번역 활용가능성 및 그 범위에 대해 검토 및 평가 완료하는 것에 합의 ⑦ Action Plan '08. 12월 서명하는 것에 합의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우리 지식재산권의 해외보호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국과의 양자협력 프로그램은 미국과 포괄적 양자협력을 추진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우리 특허청 심사관이 미국특허청의 심사관 교류과정에 참여하는 등 그간의 양국 간 지식재산 관련 양자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한 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덴마크와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를 합의하고, 러시아, 독일 등과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를 위한 실무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질적·양적으로 도약의 한 해로 평가할 수 있겠다.

우리 기업의 국제적 활동 무대가 다변화되고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적 논의가 2009년에는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특허청은 국제협력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 추진 전략의 틀에서 양자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에 이어 주요 지식재산권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과의 양자협력외에 러시아, 남아공, 브라질 등 주요 거점국가와의 양자협력관계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페루,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대상 국가와도 양자협력관계를 추진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우리 기업 등 출원인들이 해당 국가의 특허, 상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 지재권 양자협력 대상 국가의 다변화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윤현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제협력 관련 실용정부의 외교 기본 추진방향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외교, 자원·에너지 외교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자원 부국을 방문하여 에너지 협력벨트를

구축하고 패키지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략적 양자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지재권분야 대외 협력은 유럽, 미국, 동북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對 선진국 양자협력과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對 개도국 양자협력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용정부 에너지 외교의 주요 대상국인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등의 지역과는 사실상 협력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동 지역에 지역별로 거점국가를 설정하고 국가별 맞춤형 지재권 분야 교육·정보화·인력 교류 등의 패키지형 사업을 개발하여, 대상국의 경제발전을 돕는 전략적인 지재권 분야 양자협력 다변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아국과 대상국과의 외교관계 개선 및 이를 통한 간접적 자원에너지 외교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지재권 보호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동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먼저 러시아·동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경제·지재분야에서의 위상, 주변국으로의 파급효과,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거점국가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남아공, 페루, 사우디를 선정하였다. 그 후, 각 국가별 현황을 분석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정보화, 특허분야의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협력 다변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08년 9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45차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한-러시아, 한-남아공 청장회담이 개최됨으로써 그 첫 번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여기에서 한-러 청장은 한-러간 기계번역시스템 개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 개최에 합의하였다. 또한 남아공과는 특허정보 교류 등의 정보화와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08년 11월에는 한-러시아·한-유라시아 특허청, 한-우즈베키스탄 실무회담이 연쇄적으로 모스크바와 타슈켄트에서 개최되었다. 우즈베키스탄 및 유라시아 특허청은 우리청의 특허행정 전산화 경험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정보화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러시아와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추진하기로 하여, 러시아에 출원하는 우리 출원인들이 보다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거점국가와의 청장급 교류가 러시아·동유럽지역, 아프리카 지역과 이루어지고 특히 러시아, 유라시아 특허청과는 실무회담을 통해 단순한 협력개시 선언 이상의 구체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우리청의 양자협력이 한단계 성숙한 단계로 평가할 수 있겠다.

올해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논의를 심화시켜 남아공, 러시아, 유라시아 특허청 등과 하반기중 청장회담을 개최하고자 한다. 그밖에 작년에 협력을 개시하지 못한 중동지역, 중남미 지역과도 자유무역협정 논의 및 WIPO 총회, APEC 회의 등의 다자간 협력무대를 통해 협력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거점국가인 페루,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지재권 분야 패키지형 사업을 개발하여 지재교육, 정보화 사업 등 구체적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해당국가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재권 보호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기업이 해외의 다양한 지역에서 기업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4.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기반 강화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승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남북은 지난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1992년 동 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된 시점인 2000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는 지식재산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투자자산”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남북 양측은 WIPO 설립조약,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의정서 등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도 대부분 가입되어 있어, PCT를 통한 국제특허출원 및 마드리드 루트를 통한 국제상표출원 등 산업재산권의 상호 출원 및 등록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여건 및 우리측의 대내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측은 남측의 산재권 출원이나 등록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산재권 당국간의 공식적인 교류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은 개성공단 등 북한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향후 북한경제 개방 시, 북한 내에서 우리 기업과 제3국 기업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북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남북 산재권 당국간 공식적인 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허청은 WIPO 등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북한 산재권 관련 담당자들과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5년 7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PCT 세미나”에서 우리측은 북한 발명총국 관계자를 만나 남북 간 산업재산권 협력의 필요성 및 상호간 기대효과, 장단기 협력 추진 방향 및 향후 전략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남북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관한 세부합의서(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남북간 최초로 산재권 관련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북한 산재권 당국의 인식 제고 및 북한 발명총국 관계자 접촉을 통한 남북 산재권 협력 논의가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06년 9월 몽골에서 열린 “WIPO주관 세미나”에서도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에 관하여 국가품질관리국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북측은 산업재산권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은 국제 조약 등에 의한 상호출원보다는 남북 간 공동 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직접 출원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7년 7월 제네바에서 WIPO 한국기금(Korea Trust Fund)을 통해 개최된 “북한 대표단 Study Visit 세미나”에서는 북한 발명총국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에게 특허행정혁신,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이전에 대한 중요성과 우리청의 그동안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전파하였다. 동 세미나는 WIPO 직원을 제외하고는 북한대표단만이 참석한 최초의 세미나로서, 북한이 지재권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과의 산업재산권 협력은 북한측의 필요에 의해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07년 12월에 개최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산업재산권 분야 협력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었으나, 북측의 논의 거부로 최종협정문에서는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장 문제들을 협력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남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북한의 지식재산권 분야 활동 역량 현황, 실현가능한 남북 지식재산 협력 모델 및 남북간 지식재산권 제도의 통합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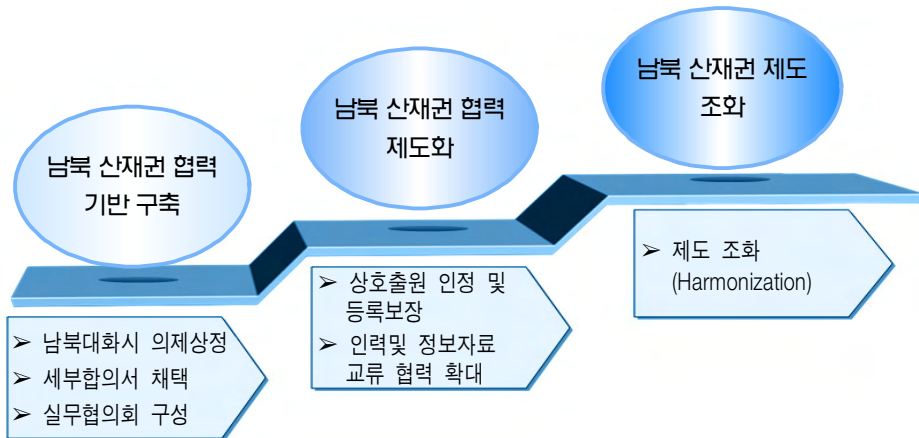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그동안 남북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노력은 남북 관계라는 정치적 환경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야 남북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 산재권 협력 기반 구축”, “남북 산재권 협력 제도화”, “남북 산재권제도 조화”라는 3단계 Action Plan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북 산재권 협력 기반 구축” 단계에서는 남북공식대화에서 산재권 분야 의제상정을 통해서 남북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을 위한 세부합의서 채택 및 실무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남북 산재권 협력 제도화” 단계에서는 남북 상호 출원인정·등록 보장 이행 및 인력교류·정보자료 교환 및 민간부문 교류 지원 등 교류·협력을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남북 산재권제도 조화” 단계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 산재권 제도 조화(Harmonization) 논의를 개시하게 된다.

〈그림 VI-2-2〉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Action Plan



이와 함께 청내 관련 부서 담당자 및 북한학 전문교수, 관련 연구소 연구원, 산업계 대표, 대리인, 유관기관 담당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트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태스크포스트는 당면 현안에 대한 청내·외 의견 수렴, 대응 전략 마련, 홍보채널 및 남북 산재권 협력 이슈에 대한 자문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의 남북 교류 협력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 보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북간에 재화, 서비스, 자본, 기술, 지적창작물 등 모든 유무형의 물적 재산이 원활히 유통되는 제도적인 틀이며 기반이다.

북한은 남한기업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폐쇄되고 고립된 환경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의 최신기술동향, 기술 상용화와 관련된 교육 및 정보지원, 특허 권리화에 필요한 명세서 작성 교육 등이 지원된다면 지금보다 상업적 가치가 높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 산재권 분야 협력 문제가 기본적으로 남북간 정치적 관계의 틀 하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 분야는 남북문제의 상호주의 원칙을 표방한 “실용적 대북정책”기조에 적합한 비정치적·경제적 이슈이다.

따라서, 우리 측은 대북 투자협력사업의 안전판으로서의 우리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상호 출원 및 등록 허용을 위한 남북 산재권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조만간 남북 당국간 산재권 의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2절 지재권분야 통상협상 대응

1. 기 체결된 FTA 협상 및 이행 현황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환경사무관 이진웅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이며, 지역 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사실 특정 국가간에 특혜조치를 부여하는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Nation)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지만, WTO 규범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FTA를 MFN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95)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표 VI-2-3〉 연도별 FTA 체결 건수

년 도	70년대이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이후	계
FTA 체결건수	5	12	10	64	120	211

FTA는 계약당사국에 따라 그 포함 분야 및 협정의 수준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전통적으로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WTO 체제의 출범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상품의 관세 철폐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 정책의 조화 부문까지 협정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가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첫 번째 FTA 협상 상대국인 칠레('02.10. 타결)를 시작으로 싱가포르('04.11. 타결), EFTA⁴⁸⁾('05.7. 타결), ASEAN⁴⁹⁾('06.4. 상품 분야 타결, '07.11. 서비스 협정 서명) 및 미국('07.4. 타결)과 FTA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이들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칠레와는 각국이 3가지의 타국 지리적 표시⁵⁰⁾에 대해 자국 내에서 독점권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싱가포르는 FTA를 통해 싱가포르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에 대한 ISA/IPEA(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로 한국특허청을 지정하고, 한국 등록 특허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무심사로 등록(수정실체심사제도)하기로 하였으며, EFTA와는 지리적 표시 및 미공개 정보의 보호 원칙을 확인하였다. 또한, ASEAN과는 경제협력 분야 부속서에서 지재권 분야 조항을 마련하여, 지재권 교육 및 자료 교환 등에서 협력하기로 하였고, 가장 최근에 타결된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하고,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며, 소리·냄새 상표, 증명표장제도 및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지재권 분야는 FTA를 통해 주로 타국과 지재권 분야의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어 왔으나, 최근 체결된 한·미 FTA에서는 미국 측의 다소 무리한 요구에도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대부분의 수용불가 쟁점들을 철회시키고, 수용

48)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로 구성

49)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으로 구성

50) 우리나라는 인삼, 김치 및 보성녹차를, 칠레는 Pisco, Pajareto, Vino Asoleado를 지리적 표시로 제시

가능한 것만 타결하여 실리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순히 상대국가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철회시켜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가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면밀히 대처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타국과의 FTA에서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가 도입한 선진 제도를 상대방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우리 출원인들이 자국에서 뿐만 아니라, 협상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 주요 FTA 협상 참여 현황 및 전망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환경사무관 이진웅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 침체의 그늘에서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내 놓으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수출시장 확보 등을 목적으로 기존에 다양한 경제 수준 및 규모의 국가 또는 경제권과 진행해 오던 FTA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EU 등 거대 선진경제권, 인도와 같은 차세대 거대경제권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GCC 등과 같은 자원 부국 및 주요 거점국으로 FTA 대상을 확대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일본과는 '03년 12월부터 '04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친 FTA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국민 여론의 악화, 신사참배와 같은 외교적 문제 그리고 협상 분야별로 좁혀지지 않고 지속되는 견해 차 등으로 인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지재권 분야의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상표 출원의 유사여부 판단시점, 저작권 보호의 강화, PCT ISA/IPEA 상호 지정, 영문 특허 출원 인정 등이 있다.

캐나다와는 '05년 7월부터 '08년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FTA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지재권 분야는 제10차 협상에서 타결이 되었다가, 제11차 협상에서 캐나다 측이 다시 지리적 표시 보호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고, '08년 3월 제13차 협상을 계기로 양측이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조항에도 합의함으로써 지재권 분야는 타결되었다(전체 FTA는 현재 계속 진행 중). 지재권 분야의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지재권 분야 협력, 지재권 공동위원회 설치 및 리스트 교환을 통한 양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등이다.

멕시코와는 '06년 2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SECA⁵¹⁾) 형식으로 협상이 진행되다가 상품 개방 수준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협상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07년 12월 FTA로 전환하여 제1차 협상이, '08년 6월에 제2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지재권 분야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소리 및 냄새 상표 인정, PCT ISA/IPEA 지정 등이 있다.

인도와는 '06년 3월부터 '08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⁵²⁾)이 진행되었으며, '08년 10월~11월 간 두 차례에 걸친 법률검토까지 마친 상태로서, 현재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재권 분야의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지재권 분야 협력이 있으며, 이 중에는 인도 측의 요청에 의해, 향후 필요한 경우 양국 특허청 간 MoU와 같은 별도 협정을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EU와는 '07년 5월부터 '08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FTA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7차 협상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분야별 실무회의, 수석대표 회의, 통상장관 회의 등을 개최하여, 최종 8차 협상을 앞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

51)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모든 상품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유화 대상인 상품의 범위를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는, FTA 보다 다소 자유화 정도가 낮은 형태의 무역협정

52)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성격임

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막판 조율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재권 분야도 그 중의 하나로서, 지리적 표시의 최대 보유국이자 강력한 보호체제를 가진 EU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지리적 표시에 대해 TRIPS 이상의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EU 측의 요구가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다자간 논의에서의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 타국과 맺은 FTA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EU측 요구 수용 시 MFN 적용에 따른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재권 분야의 기타 쟁점 사항으로는 특허 분야에서 PLT 조약 준수, 집행 분야에서의 잠정/예방조치 및 금지명령의 대상 범위 확대 등이다.

GCC⁵³⁾와는 '08년 7월에 제1차 FTA 협상을 가진 바 있으며, '09년 3월 제2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제1차 협상에서 지재권 분과는 GCC측 담당자 불참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음) 지재권 분야 협정문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유명상표의 보호 및 지재권 집행 강화 등이 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협상이 중단된 일본과의 FTA는 협상이 재개될 경우, 마지막 협상으로부터 4년이 지난만큼 그동안 변화된 국내 지재권 상황을 반영하여 지재권 분야 협정문을 새롭게 작성하여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협상이 실질적으로 종결된 인도 및 캐나다와는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협상 초반인 멕시코 및 GCC와의 협상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국에서 원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반면, EU와의 FTA 협상에서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53) 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로 구성된 경제협력체

3. 신규 FTA 협상 대비 사전준비 강화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송기중

가. 한-중 FTA

한국의 특허출원은 세계 5위를 기록했으나 지적재산권보호는 아직 글로벌한 시각에서 추진되기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더욱 우려되는 과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배경으로 한국과 중국은 정치, 경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활발하게 국제협력을 다원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국의 제4위 교역 대상국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한·중 경제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양적 확대에서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이제 출발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중 양국 정상이 ‘한·중FTA 추진을 적극 검토한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820억달러, 수입액 630억달러로,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1992년(64억 달러)보다 20배 이상 확대됐다. 한·중 양국 모두 급성장하는 통상관계를 감안할 때 FTA 추진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표 VI-2-4〉 한-중 FTA 공식협상 일정

2004.9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5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 1년차 연구수행
2006	민간공동연구 2년차 연구수행 후 11월 연구종료 - 한·중 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 필요성을 정책제안에서 제시
2006.11.17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기로 합의
2007.3.22-23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북경)
2007.7.3-4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 제 2차 회의 개최 (서울) - 상품 분야 보고서 초안 논의
2007.10.23-25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개최(위해)
2008.2.18-20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제주)
2008.6.11-13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북경)

나.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지재권 보호가 비교적 잘 발달한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지재권 협상을 통해서 양국의 지재권 보호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이익집단의 이익과 법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고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키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했다. 호주는 한·미 FTA로 인해 한국 축산물시장을 미국에 빼앗길지 모른다는 우려 아래 우리정부에 FTA 추진을 강력히 희망해왔다.

〈표 VI-2-5〉 한-호주 FTA 공식협상 일정

2006.12	한-호주 정상회담시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및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에 합의
2007.5/8/10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2008.4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보고서 완료
2008.4.22	한-호주 FTA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서울)
2008.10.13-15	한-호주 FTA 제1차 예비협의를(서울)
2008.12.16	한-호주 FTA 제2차 예비협의(화상회의)
2009.2.16	한-호주 FTA관련 공청회(서울)

〈표 VI-2-6〉 한-뉴질랜드 FTA 공식협상 일정

2006.12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시 한-뉴질랜드 FTA 민간공동연구 및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에 합의
2007.2/7/11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및 공동연구보고서 작성
2008.4.21	한-뉴질랜드 FTA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서울)
2008.5.16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시 한-뉴질랜드 FTA 정부간 예비협의 개최에 합의 (서울)
2008.9.29-30	한-뉴질랜드 FTA 제1차 예비협의를(서울)
2008.11.26-27	한-뉴질랜드 FTA 제2차 예비협의(웰링턴)
2009.2.16	한-뉴질랜드 FTA관련 공청회(서울)

다. 한-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 러시아 FTA

지적재산권은 차세대 산업의 주동력으로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

로 판단된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화 확대, 각종 FTA체결 추진 등으로 인해 지적 재산권의 확보와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른 정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표 VI-2-7〉 한-메르코수르 공식협상 일정

2004.11.	대통령 남미순방시 브라질및 아르헨티나 정상과 공동연구 개시 합의
2005.5.4-5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 공동연구 제1차 회의 (아순시온, 파라과이)
2005.8.17-18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 공동연구 제2차 회의 (서울)
2006.3.2-3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FTA) 공동연구 제3차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2006.10.31-11.1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FTA) 공동연구 제4차 (브라질리아, 브라질)
2007.10.31	한-메르코수르(MERCOSUR) TA 공동 연구 결과 발표회 (몬테비데오)

〈표 VI-2-8〉 한-러시아 FTA 공식협상

2005.11	양국정상이 체결한 Action Plan에서 공동전문가 그룹을 창설기로 합의
2007.10.31-11.1	한-러 양국간 경제동반자 협정(BEPA) 공동연구그룹 제1차 회의(서울)
2008.7.8-7.9	한-러 양국간 경제동반자 협정(BEPA) 공동연구그룹 제2차 회의(모스크바)

라. 한-페루 & 터키 FTA

동시 다발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에 따라 전방위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터키, 페루 등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터키가 현재 우리나라와 FTA 협상

을 진행 중인 유럽연합(EU)과 관세동맹을 맺은 상태라, 유럽 진출과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페루는 지난해 15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통상관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많은 경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유전과 가스 등 자원개발 투자액수가 50억 달러가 넘을 정도로 자원에너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고 지재권 분야 역시 FTA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표 VI-2-9〉 한-페루 FTA 공식협상

2005.11	APEC 계기 정상회담시 Toledo 페루 대통령이 FTA 제안
2006.11	APEC 합동 각료 회의시 FTA 민간공동연구 시행 합의
2007.10	한-페루 FTA 공동연구 제1차 회의(페루 리마)
2008.4	한-페루 FTA 공동연구 제2차 회의(서울)
2008.5	2008.5 민간공동연구 종료
2009.1.20-21	한-페루 FTA 사전준비회의(페루 리마)

〈표 VI-2-10〉 한-터키 FTA 공식협상

2008.6	한-터키 FTA 공동연구 개시
2008.9.25	제 1차 한-터키 FTA 공동연구 회의(서울)

제3절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자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

1. 지재권분야 다자협상에서 능동적 대응

가. 2008년 제45차 WIPO 총회

산업재산정책국 국제기구팀 공업사무관 조정환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각국 지재권분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45차 WIPO 총회시 고정식 현 특허청장은 기조연설에서 WIPO 신임 사무총장 및 184개 회원국에게 현 시점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WIPO 및 모든 회원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이를 위해 모든 회원국들의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WIPO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고민해볼 때라고 부언하였다. 세계가 직면한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고정식 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를 통한 성숙한 세계국가 건설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지표를 소개하였다. 그간 기술혁신을 매개하는 지재권의 일반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던 WIPO와 선진국 또한 이들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에게 이러한 메시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위기의 극복 등 글로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재권의 역할과 이를 총괄하는 국제기구로서 WIPO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얻어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특허청은 동 회의에서 그간 선출원주의의 채택, 신규성 의제의 유예기간, 인간의 모든 활동분야까지 특허대상의 확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특허권 내에서의 보호 및 출원 후 공개된 발명의 선원의 지위 인정 등의 의제에서 견해 차이로 WIPO 회원국간 논의가 잠정 중단된 특허실체법조약(SPLT)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 그룹(B+그룹)에 현 가입국 41개국의 만장일치로 가입하게 되었다. 우리 특허청은 양적인 측면에서 출원 분야 세계 4위라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간 WIPO에서의 영향력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견

해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우리 특허청의 B+ 그룹 가입은 경제분야에서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특허제도 실체에 관한 국제적 표준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SPLT 논의에서 우리의 특허제도를 소개하고 세계 지재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입장을 주장함으로써 지재권 분야에서 실질적인 세계 4위의 위상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특허청은 F. Gurry 신임 사무총장에게 그간 확고하게 유지해온 KIPO-WIPO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이와 연관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 특허청 고위급 인사의 WIPO 진출을 제안하였고, 신임 사무총장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는 지난 2008년 우리 특허 외교에서의 최대의 성과로서 향후 WIPO 및 지재권 분야 다자간 논의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입장을 보다 능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정부간위원회(IGC)

WIPO에서는 유전자원(GR: Genetic Resources) 및 전통지식(TK: Traditional Knowledge) 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유전자원·전통지식·민간전승물 보호에 대한 정부간위원회」를 2001.4월 구성하였다.

2008년 회의에서도 기존 회의와 유사하게 유전자원 출처공개 및 이익공유를 둘러싸고 개도국과 선진국간 입장이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개도국은 선진국이 독점해왔던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고자 특허 출원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하고 이익공유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은 유전자원의 보호와 이익공유는 사적계약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출처공개 자체가 출원인과 특허청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이유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와 이익공유를 위한 국제규범 제정에 반대하였다. EPO는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출처공개는 지지하나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다만, 이익공유와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규범 제정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은 GR/TK의 보호와 선행기술로의 활용을 위하여 관련 DB 구축을 주장하였으나, 개도국은 안전장치가 먼저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DB가 구축된다면 유전자원의 침해가 유발될 수 있음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며, 이와 함께 전통지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은 전통지식 및 권리자·수혜대상자에 대한 정의와 침해 범위가 먼저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상기 사항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처벌의 수준과 이를 규정하는 국제규범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설명하였다.

특히, 2008년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그룹과 아시아 그룹 등 개도국들은 동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가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차기 회의부터는 회의 개최 전 전통지식, 유전자원 등의 전문가 그룹 회의를 별도로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 선진국 그룹은 전문가 그룹의 가입국 제한 폐지 및 전문가 그룹에서 합의된 내용의 이행방안 등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 전문가 그룹의 개설에 반대하였다.

동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양적으로는 유전자원의 빈국이나 기술적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동등할 정도의 부국인 점을 고려하여 국내 생명공학의 발전과 이를 상업화하는 국내 기업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분석하며, 유사한 의제를 논의하는 생물다양성 협약(CBD),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ITPGRFA)에서 주장하는 우리의 입장과 저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확고한 대응 논리를 개발할 예정이다.

다. 국제특허분류 (IPC) 회의

IPC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나타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체계로서, 1971년에 체결된 “국제특허분류에 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국제특허분류 제8판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스트라스부르그협정의 가입국은 5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9년 10월 8일에 가입하였다.

2007년에는 IPC 개정을 수요에 맞게 기본레벨과 확장레벨로 이원화하는 작업이 중점 진행되었다. 기본레벨은 개정실무작업반에서 3년 주기로 개정되며, 확장레벨은 확장레벨 IPC의 개정을 담당하는 IPC 개정실무 협의체인 확장레벨분과위원회(ALS, Advanced Level Subcommittee)에서 수시로 개정작업이 진행된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IPC 분류개정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제안국), 독일, 유럽은 기술세분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미국은 재분류 작업의 과중함에 비하여 분류개정 효과가 적다고 반발하여 상호 대립하였다.

2008년 동 회의는 2009년 1월 IPC 제9판의 시행에 따라 기존 IPC의 개정과 새로운 IPC 개발에 대한 내용을 주로 논의하였다. 특히 IPC 기술 도해(Graphical Illustration)의 도입과 나노기술의 발전에 따른 나노 기술관련 IPC의 개정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나노기술은 전체 IPC에 걸쳐 포함되어 있는바, 회원국들은 기존의 IPC에 포함되지 않는 나노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타입의 IPC가 정의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타입의 IPC 분류표를 마련하기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전문가 위원회 프로젝트로서 도입을 제안하였고, 차기 IPC 전문가 위원회에서 동 프로젝트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 특허청은 우리 산업에 적합한 IPC 개정을 위해 동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기본레벨 및 확장레벨의 IPC 개정시 IT 산업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 산업의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규 IPC 필요 개소를 적극 발굴·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일본, EPO와 함께 확장레벨을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로서 확장레벨 개정 작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라. NICE 국제상품 분류

NICE 국제상품 분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야를 나타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체계로 1957년 WIPO 주도로 체결된 “표장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국제분류에 대한 NICE 협정”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며, 우리청은 1998.3월 NICE 국제상품 분류제도를 도입하였다.

2008년 개최된 회의에서는 NICE 제9판에서 제9류와 제28류로 구분하고 있던 모든 게임기구와 오락기구를 제28류로 일원화하는 안건이 일본에 의해 제안되었고, 회원국들은 게임기의 구성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용도와 기능이 게임인 경우를 포괄하는 “게임장치(Apparatus for game)”를 제28류에 신설하여 동 제안에 합의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NICE 분류 제10판에 추가할 상품 및 서비스업 등의 목록에 대해 니스분류의 일관성 및 정확성과 관련하여 개별상품의 신설 또는 삭제 및 류제목 및 주석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각 목록별 연구가 더 필요하므로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 특허청은 제9판에 「김치」를 포함시킨 것과 같이 우리나라 산업에 적합한 NICE 국제상품 분류 신설을 위해 제10판에 신규로 포함 가능한 상품 목록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 마드리드시스템

마드리드 시스템은 마드리드 협정(Agreement)과 마드리드 의정서(Protocol)로 구성되며, 마드리드 협정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2003.1.20일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였으며, 가입국은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의 개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드리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08년에 회의에서도 2007년과 마찬가지로 세이프가드 조항의 폐지 논의에서 제기된 일부 회원국의 거절이유 통지기한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주장되었다. 마드리드 시스템 체약국들은 마드리드 협정에서 마드리드 의정서로의 전환을 위한 경과규정인 세이프가드 조항을 폐지하여, 의정서로의 완전한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세이프가드 조항을 폐지하고 마드리드 의정서로 전환할 경우, 현 의정서 상 규정된 거절이유통지 기한인 18개월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노르웨이 등 일부 회원국들은 출원인의 권리취득 기간이 늘어나게 될 수 있음을 이유로 협정서상의 12개월로 유지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거절이유통지 기한에 대해서는 의정서 체제로의 완전한 전환에서 예외로 인정키로 협의 되었다. 이에 우리 특허청은 국내 심사절차상 2~3회의 가 거절이유통지가 있을 경우 12개월 내에 모든 거절이유 통지를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18개월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심사처리기간의 지속적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상표 국제출원의 요건인 기초출원(등록) 요건을 폐지하여 출원인이 직접 WIPO에 국제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원인이 원할 경우 본국 관청을 경유하여 WIPO에 국제출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노르웨이가 적극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회원국간 찬·반의 의견이 양립하자 노르웨이는 WIPO에 기초출원(등록) 요건의 폐지에 따른 효과에 관한 연구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기초출원(등록)의 폐지는 국제 상표의 합치심사가 없어지므로 신속한 국제출원이 가능하고 존속기간도 함께 폐지되어 지정 국가별로 등록된 권리의 안정성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바. APEC 지재권전문가회의(IPEG)

'05년 APEC내 지재권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은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구상」과 3개 모델가이드라인의 채택 여부였다. 동 구상과 3개 모델가이드라인은 APEC 역내 지재권 침해물품의 교역방지를 위한 집행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05년 6월 통상장관회의(MRT)에서 최종 승인 및 채택되었다.

동 구상은 지재권 보호에 관하여 범위가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집행체제 수립을 다루고 있어 회원국들의 지지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리청은 중국 및 ASEAN 시장 등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 필요성 등을 염두에 두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동 구상에 우리 입장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에는 동 구상을 근거로 개발된 5개의 모델가이드라인을 제출하여 한국의 지재권 보호 활동 및 관련 법, 제도와 같은 현황을 회원국에 소개하였으며, 9월 시드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의 선언문에 삽입된 '위조 및 불법복제품을 판매하는 유명시장'의 용어의 사용을 둘러싼 선진국 및 개도국의 첨예한 대립에서 우리나라는 중재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간 APEC에서 지재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한 개념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면, 2008년에는 실질적인 사업 수행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APEC 역내 각 국에 지재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사업으로 「IP Xpedite를 활용한 특허정보 활용 인력 양성 사업」을 제안하였고 채택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APEC 역내에서 원조의 수혜국에서 실질적인 제공국으로 입장을 정립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특허청은 APEC 회의시 지재권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고, 2009년부터는 IP의 관리 및 집행의 영역을 벗어나, APEC 자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IP의 창출 및 이를 통해 최빈국 및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사.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 협약(ACTA)

2004년 이후 미국의 ‘불법복제 조직사범 단속전략(STOP: Strategy Targeting Organizing Piracy)’, 유럽 연합의 특별단속작전 ‘FAKE(‘짜퉁’이라는 단속명)’, ‘LION(독일 월드컵 마스코트를 단속명으로 사용)’의 실시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재권 침해에 대하여 국제적인 단속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수준의 지재권 침해 단속을 실시하는 반면, 이에 관한 국제적 규범으로는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있으나, 본 TRIPs 협정은 지재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는 각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서 지재권 침해에 대한 강제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지재권 침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였고, 이에 2005년 7월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G8 정상회의시 TRIPS 협정을 보완하는 새로운 협정의 제정 필요성 제기하였다. 이를 필두로 2006년 이후 일본과 미국이 공동 구상하여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을 추진하였고, 우리나라는 협상 초기 기 진행중인 한·미 FTA와 동 협약이 저촉할 우려가 있어 협상 참여를 유보하다가,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됨으로써 동 협약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1차 ACTA 협상에 참가한 이후 그간 개최된 네 번의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다.

동 협약은 기존의 협정인 TRIPS를 보완하며 지재권 집행에 관하여 한층 강화된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범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간 네 차례 진행된 협상에서 지재권 침해에 대한 국경조치(통관보류조치), 민사절차 및 형사집행분야에 대한 가시적인 수준의 협정문이 완성되었고, 현재에는 동 협약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규정하는 국제협력, 집행관행, 제도적 장치 및 최종규정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동 협약은 목적상 지재권 집행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특허청은 동 협약에 대한 조문을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하며, 외교통상부, 법무부 및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법개정과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2. 적극적인 對개도국 원조를 통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산업재산정책국 국제기구팀 행정사무관 박은결

가. 추진 배경

1) 개도국 지원 관련 국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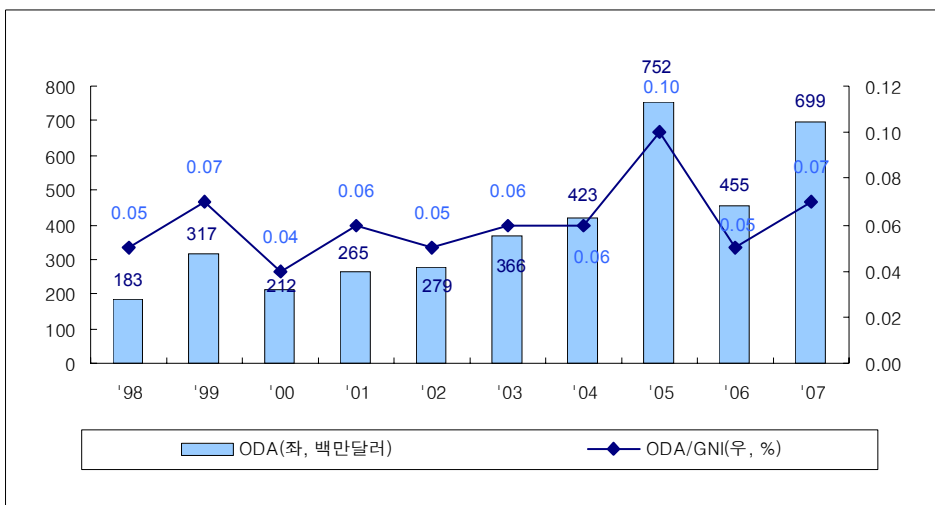
한 국가의 경제성장이 국제무역 등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국제경제 현실에서, 개도국 지원은 이제 부유한 자의 가난한 자에 대한 일방의 호의에서 벗어나, 부국은 경제성장이라는 혜택을 국제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성격까지 지니게 되었다. 더불어 UN에서는 국민 총소득(GNI) 대비 0.7%를 對개도국 공적개발 원조에 기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의 GNI 대비 對개도국 공적개발 원조는 평균 0.25% 수준으로 UN의 권고와는 차이가 있으나, 공여국들은 개도국으로부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원조 공여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개발도상국 대상의 원조 확대추세와 더불어 그간 지재권의 창출과 집행 분야에 초점을 맞춰온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도 2004년 10월 총회에서 WIPO 공식 활동영역에 개도국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개발아젠다를 추가하고 회원국들은 이의 실행을 위한 6대 영역 45개 이행과제를 도출하였으며, 2008년부터 상설위원회(WIPO-CDIP)를 조직하여 구체적 이행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현황

우리나라의 대외원조는 크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987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하여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고자 300억원을 출연하여 EDCF를 조성하여 유상 개발원조의 틀을 마련하였고, 1991년에는 무상원조 기관으로서 KOICA를 설립하여 그동안 건설부, 과학기술처 등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기술협력, 인적교류 사업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더불어 각종 NGO와 전문적인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이들의 개도국 지원을 후원하는 방식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지속적으로 ODA(공적개발원조)를 증가시켜 온 결과 2007년도 우리나라의 총 ODA는 6억 7천만 불에 이르렀다.

〈그림 VI-2-3〉 우리나라 ODA의 연도별 추이 및 ODA/GNI 비율



지재권 분야 對개도국 원조의 일환으로 특허청은 2001. 11월 대전에서 WIPO와 「KIPO-WIPO간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f Cooperation between WIPO and KIPO)」을 체결하고 지재권 제도화 및 집행에 있어 국제적 수준의 유지, 한국신탁기금의 설치 운영을 통한 대개도국 지재권 정보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국제기구 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우리청의 위상제고에 따라 2005년 외교부에서 우리청으로 이관된 국제기구 의무분담금을 2배 인상(Class VII→Class VIbis)하였으며 앞으로 2009년까지 중국수준인 4의2등급(Class IVbis)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2004년도에 WIPO와 체결한 Korean Trust Fund(한국신탁기금) 설치 협정에 따라 WIPO와 공동으로 매년 對개도국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며, 현재 2008.7~2009.6월까지 제5차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나. 추진 성과

2008년 특허청이 추진한 對개도국 지원사업으로서 제4차 한국신탁기금사업은 PCT 워크숍 및 LDC(Least Developed Countries, 최빈국) 워크숍 등 정보 제공과 전문가 자문 등의 컨설팅 사업, 장비 지원 등 9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에서 특허청은 개도국의 PCT 국제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PCT 온라인접수 시스템, PCT 방식심사 시스템, PCT 명세서작성 시스템 등을 지원하였다. 더불어 보급 국가의 전자출원 촉진 및 동 시스템의 사용 능력 배양을 위해 우리 직원이 개별국가를 방문하여 사용자 교육 및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WIPO에 한국 특허청 직원을 파견하였다.

또 다른 성과로서 특허청은 WIPO와 공동 개발한 지재권 관련 e-learning 콘텐츠인 「IP Panorama」를 아시아 역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보급하여 국제적인 지재권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다.

〈표 VI-2-11〉 제4차 한국신탁기금사업 결과 ('07.7~'08.6)

구분	사업 명칭	주관부서	추진 실적
1	연구방문	WIPO, 연수원	아제르바이잔, 태국, 페루, 우루과이
2	전문가 자문	WIPO, 연수원	인도네시아, 튀니지
3	특허맵핑 모듈 개발	특허정보원	수처리 기술
4	PCT 활용도 평가	정보협력팀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자문
5	중소기업 자문(IP 활용)	정보협력팀	몽골, 베트남에 IP활용 교육 실시
6	워크샵 개최	연수원	IP 중요성(08. 9. 2~4, 연수원, 12개국 12명 참가)
		WIPO	상표(베트남)
		WIPO	기술이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WIPO	특허정보 활용(멕시코)
7	지역국가 지원사업	WIPO	몽골, 코트디부아르에 장비지원 및 전문가파견 교육 실시
8	맞춤형 간행물 번역	WIPO	우루과이, 에콰도르 등에 지재권 교육자료 보급
9	장비지원	WIPO	파푸아뉴기니, 콩고, 온두라스, 파라과이

다. 향후 추진 계획

1) 제5차 한국신탁기금(KTF)사업 추진

제4차 사업의 연장선에서 금년도에 실시되는 제5차 사업에서도 개도국을 대상으로 PCT 출원시스템 지원 및 교육, IP 파노라마 보급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그간 시스템보급 및 사용자 교육 등 개도국 정부관련자를 주 대상으로 선정하였던 동 사업을 개도국 산업계 및 R/D 관련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도록 지재권의 활용과 기술이전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표 VI-2-12〉 제5차 한국신탁기금사업 추진 계획 ('08. 7~'09. 6)

구분	사업 명칭	주관부서	비고
1	PCT 전자출원시스템 심층교육	정보협력팀/연수원	5개국 10명 참가(연수원)
2	지역국가 지원사업	WIPO	전문가 교육, 장비지원 등
3	PCT 시스템 지역 워크숍	WIPO	페루, 칠레 개최
4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에 대한 교육	연수원	'09년 상반기
5	IP 파노라마 포럼	정보협력팀	'09년 상반기
6	LDCs(최빈국) 대상 IP 활용에 관한 교육	WIPO	'09년 상반기
7	전문가 방문 교육	WIPO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등

2) 개도국 및 최빈국 대상으로 지식재산획득 및 생존형 최적기술 지원

이러한 지재권의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의 보급과 더불어 금년도부터는 개도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허청은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획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특허청은 수원국가 선정 및 수원국가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2008년부터 WIPO의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한 Pilot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특허청은 먼저 수원국가와 그 나라의 문화적 잠재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품을 선정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그 상품에 대한 브랜드 획득 및 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표뿐만 아니라 특허 등 기술정보 제공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WIPO와의 공동 프로젝트에서 수원국별 필요한 최적 기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할 기술정보의 범위 설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비특허정보와 특허정보로 구성된 탄탄한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보를 최빈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기 위해 이를 현지 언어로 번역하고 책자와 CD 등을 제작하여 직접 원조하거나, 동 정보를 인터넷에 영어와 현지 언어로 제공할 예정이다.

3) 한국형 발전 모델 도출 및 전파 작업

개도국에게 지적재산 창출 및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위 사업과 별도로,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적절한 지식재산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견고한 지식재산 시스템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단계별 진화된 지재권 정책을 모듈화하여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개도국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들 계획의 추진으로 특허청은 그간 사적 재산 보호를 위한 국지적인 기관에서 대외적으로 지재권의 창출,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원조사업을 주관하는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전환할 수 있고, 나아가 공적개발원조의 수혜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CHAPTER

제6편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제1절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1. 우리나라 영업비밀제도의 연혁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공업사무관 최수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영업비밀 보호가 국제협정에 최초로 명문화된 이후, WTO 체제의 출범 등으로 기술 및 지식이 무한경쟁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영업비밀을 산업재산권과 같은 권리의 형태로서 보호하기보다는 타인의 노력과 성과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금지 시키는 부정경쟁 금지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연구·개발활동을 촉진 시키는 한편, 기술이전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누출의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여 국내 기업간 또는 국가간의 기술이전을 순조롭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리하여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적 정보나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관리비결 등 경영상 정보, 영업상 아이디어 등도 법적으로 보호받아 특허제도와 저작권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31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영업비밀의 정의 및 침해행위의 유형과 침해행위 금지, 예방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및 신용회복 조치 청구권 등의 민사적 구제수단, 직원이 그 기업 특유의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제 수단과 이에 대한 친고죄 구성 등을 그 내용이다.

그 후, 1998년 반도체 국외 유출사건을 계기로 법 명칭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전직 임직원이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도 처벌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개정을 단행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자 및 반도체 분야 등 첨단산업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첨단분야의 영업비밀이 국내 기업 또는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되어,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하도록 벌금 상한액을 조정하고, 영업비밀의 범위 확대, 친고죄 폐지, 미수·예비·음모죄 신설 등 대폭 보강하였다.

2007년 12월, 국외로 유출되는 영업비밀에 대한 형량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2008년 3월 현재, 영업비밀의 국외유출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국내 유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의 형벌규정 및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 중 준비서면,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서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비밀유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2. 영업비밀제도 제도 정비 및 홍보 강화

특허청은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다” 등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하고,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홈페이지(<http://ippc.kipo.go.kr>)를 통하여 영업비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제고에 노력하였다.

제2절 반도체 설계재산 기술 인프라 구축

1. 반도체배치설계권 보호

전기전자심사국 반도체설계재산팀 기술서기관 강철수

가. 추진배경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라 함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설계로서 각종 회로소자 및 이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하며 일종의 건축용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반도체배치설계권이란 배치설계를 무단복제 등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반도체칩 구성을 위해 중앙처리장치, 메모리 등과 같은 기능블럭을 구현한 반도체 설계 DATA를 산업계에서는 통상 반도체설계재산⁵⁴⁾(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 반도체IP 또는 SIP라고도 함)으로 통용되고 있다.

지적노동의 산물인 창작성 있는 배치설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저작권법 등 기존의 지재권법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1985년 미국에서 특별법으로 반도체칩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신지식재산권인 『반도체배치설계권』이 태동하게 되었다.

이어 1986. 1월 일본이 『반도체 칩회로배치보호법』을 시행하였고, 1989. 5월 워싱턴조약(칩보호조약회의)과 1991. 12월 WTO/TRIPs 최종합의에 따라 국제적인 보호

54) 반도체 집적회로의 로직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설계한 블록으로, 반도체 IP를 이용한 설계의 재사용이 제품화 기간 단축에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산업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큰 혁명을 가져 왔다.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으로서 이러한 국제규범의 틀 속에서 1992. 12월에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법률 제4526호)을 제정하게 되었다.

1993. 9월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법률소관은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가 담당하고 지식재산권 전담기관인 특허청은 반도체배치설계권 등록업무만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오다가 1999. 1. 1 효울적인 반도체배치설계권 진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허청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이관되어 특허청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 운영하고 있다.

1999. 1. 1 법률이 특허청으로 이관되고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등록실』이 신설되어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등록업무를 수행해오다가 동년 9월에는 『반도체배치설계 진흥실』로 개칭하였고 2000년부터는 반도체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뿐만 아니라 반도체설계기술 발전에 따른 배치설계 보호제도 연구와 인식확산 유도, 배치설계권의 창출 촉진 및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유통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7. 5월에는 『반도체배치설계진흥실』을 課 단위의 『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으로 확대 개편되어 운영해오다가 10월에는 산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반도체설계재산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같은 해 법률 개정을 통해 11월부터는 반도체배치설계 신청인의 편의증진 및 반도체배치설계권 등록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전자신청제도 및 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제도 등을 도입 추진함으로써 고객 지향의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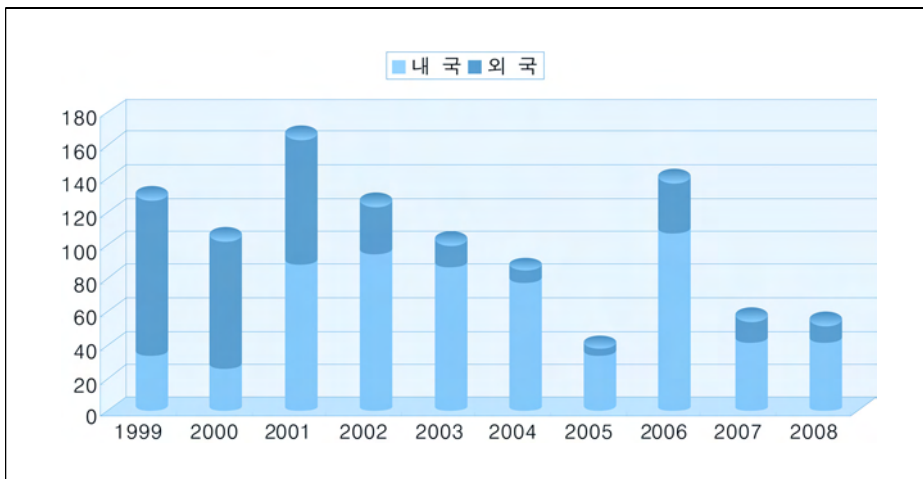
나.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

1) 개요 및 연도별 설정등록 현황

반도체배치설계권은 2008. 12월말 현재 총 1,898건이 등록되었으며, 이중 내국인 등록이 1,045건, 외국인 등록이 853건이다. 최근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등록은 2002년 이후 대기업의 등록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중소기업 및 개인등록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도 국내 등록건수 41건 중 중소기업 및 개인이 14건(34.1%)을 등록하였으며, 1993년 이후부터는 전체 국내 등록건수 1,045건 중 대기업이 357건(34.2%), 정부출연연구기관이 442건(42.3%), 대학이 136건(13%), 중소기업 및 개인이 110건(10.5%) 등록하였으며, 2002년 이후부터는 등록건수 490건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89건(59%), 대학이 99건(20.2%), 중소기업 및 개인이 102건(20.8%)으로 대기업을 제외한 여러 분야에서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을 하고 있다.

〈그림 VI-3-1〉 연도별 설정등록현황



〈표 VI-3-1〉 연도별 내·외국인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구분	1993~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내국	476	88	95	86	78	33	107	41	41	1,045 (55%)
외국	652	77	31	16	8	8	32	16	13	853 (45%)
계	1,128	165	126	102	86	41	139	57	54	1,898 (100%)

2) 국가별 설정등록 현황

2008년까지 총 1,898건중에서 한국이 1,045건, 일본이 830건, 미국 등 기타 국가가 23건을 등록하였다. 2003년 이후 일본의 등록건수가 줄었으나 2006년도에 다시 증가한 반면 미국의 등록건수는 1997년 이후로 전혀 없으며 기타 국가의 등록건수도 매우 적다.

〈표 VI-3-2〉 국가별 설정등록 현황

(단위 : 건)

구분	1993~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한국	476	88	95	86	78	33	107	41	41	1,045 (55%)
일본	642	75	30	9	7	8	30	16	13	830 (44%)
기타	10	2	1	7	1	0	2	0	0	23 (1%)
계	1,128	165	126	102	86	41	139	57	54	1,898 (100%)

3) 기관별 설정등록 현황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기관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연구기관은 2006년을 정점으로 2007년에는 많이 감소했다가 2008년에는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등록은 꾸준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큰 자본 시설의 투자 없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의 전문 인력만으로도 반도체배치설계 창출이 가능한 반도체설계 산업의 특성을 잘 활용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 의해서 반도체 설계재산의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 VI-3-3〉 기관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구분	분야	'93 ~'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누계
내국	기업	330	44	12	16	14	16	1	20	14	467
	대학	15	22	16	26	7	14	17	8	11	136
	연구소	131	22	67	44	57	3	89	13	16	442
	소계	476	88	95	86	78	33	107	41	41	1,045
외국	기업	652	77	31	16	8	8	32	16	13	853
	대학	0	0	0	0	0	0	0	0	0	0
	연구소	0	0	0	0	0	0	0	0	0	0
	소계	652	77	31	16	8	8	32	16	13	853
총계		1,128	165	126	102	86	41	139	57	54	1,898

4) 반도체배치설계권 분류별 등록현황

1993~2007.10.27까지는 로직IC, 메모리IC, 마이크로프로세서, 리니어IC, 기타 IC 등 기술별로 분류하였으나, 2007.10.28일부터 시행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배치설계표에 따라 기능, 구조, 기술별 분류는 폐지되고 Analog and Digital Mixed Signal, Digital Logic, Microcomponent, Memory, Physical Library, Others의 제1분류(대분류)와 제1분류를 세분화한 제2분류(소분류)를 나타낸다. 2007.10.28 ~ 2008.12.31일까지 제1분류(대분류)에 따른 제2분류(소분류)로 총 78건이 등록되었다.

〈표 VI-3-4〉 기술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구 분	'93~'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7,10,27	계
로직	274	21	11	15	7	7	10	2	347
메모리	139	35	4	1	3	0	0	0	182
마이크로 프로세서	209	27	22	9	1	4	2	0	274
리니어	407	36	20	19	6	6	24	22	540
기타	99	46	69	58	69	24	103	9	477
계	1,128	165	126	102	86	41	139	33	1,820

〈표 VI-3-5〉 제1분류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7. 10. 28 ~ 12. 31	2008	계
Analog and Digital Mixed Signal	13	28	41
Digital Logic	6	8	14
Microcomponent	0	5	5
Memory	0	0	0
Physical Library	0	0	0
Others	5	13	18
계	24	54	78

2. 반도체설계재산 진흥

전기전자심사국 반도체설계재산팀 기술서기관 강철수

가. 추진배경

전자·통신·정보제품의 소형화, 반도체배치설계 집적도 증가 등 반도체분야의 급격한 기술진보와 이에 따른 시장의 적기 진입(Time to Market)을 위해 반도체

설계 분야에 새로운 설계방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즉, 개별 반도체를 대신하는 반도체설계재산(SIP)을 유통시장에서 구매하여 단일 반도체칩 속에 레고블럭 조립하듯 설계하여 전자제품을 구현하는 시스템반도체(SoC)⁵⁵⁾방식이 과거의 인쇄회로기판상에서 개별 반도체 및 부품을 조립하여 제품을 만들던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배치설계 기술진흥을 위해 메모리분야에 치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분야의 핵심 설계재산권을 외산 의존에서 탈피하여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반복 창출될 수 있도록 핵심 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 촉진사업을 통해 창출된 결과물을 반도체 전문기관에 보급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반도체설계 기술진흥 여건조성

가) 제9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개최

우수 반도체설계기술의 공개적인 발굴·포상을 통해 국내 반도체설계 분야의 연구·창작 활성화와 반도체 설계인력의 저변확대 및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신지식재산권인 반도체배치설계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와 확산을 위해 제9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을 개최하였다. 2008년도부터는 대회명칭을 『대한민국 반도체설계 공모전』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으로 변경하여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2008년에는 대학 53팀, 기업 11팀, 연구소 9팀 등 총 73팀이 응모하였으며, 아날로그 분야와 디지털 분야 각 전문가 5인씩 총 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엄격한 서면·본선·총괄심사를 거쳐 13팀을 선정하여 대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상, 지식경제부장관상, 특허청장상, 특별상(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대한변리사회장상)과 부상으로 총상금 4,100만원을 시상하였다.

55) System on a Chip의 약자이며, 이는 기존에 1~2가지 기능(로직 또는 메모리)만을 칩에 담은 단순한 IC칩과는 달리, 기존의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의 구분을 넘어 하나의 칩에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아날로그 블록, 디지털 연산 및 제어 블록 등을 모두 집적하는 것을 말한다.

〈표 VI-3-6〉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개최현황

구 분	응모자수 (대학/기업 /연구소)	수상자수	상훈규모	시상식
2000년 (제1회)	33건 (32/1/0)	9건	대 상(1) : 산자부장관상 및 상금 300만원 금 상(1) : 산자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은 상(2)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동 상(5)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50만원	2000.12.6. 특허청
2001년 (제2회)	40건 (39/1/0)	9건	대 상(1) : 산자부장관상 및 상금 300만원 금 상(1) : 산자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은 상(2)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동 상(5)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50만원	2001.11.5. 특허청
2002년 (제3회)	48건 (40/3/5)	9건	대 상(1) : 국무총리상 및 상금 300만원 금 상(1) : 산자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은 상(2)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동 상(5)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50만원	2002.11.15. 특허청
2003년 (제4회)	45건 (38/4/3)	9건	대 상(1) : 국무총리상 및 상금 300만원 금 상(1) : 산자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은 상(2)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동 상(5)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50만원	2003.11.5. COEX
2004년 (제5회)	32건 (25/6/1)	9건	대 상(1) : 국무총리상 및 상금 300만원 금 상(1) : 산자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은 상(2)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동 상(5)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50만원	2004.11.5. COEX
2005년 (제6회)	48건 (37/9/2)	9건	대 상(1) : 대통령상 및 상금 300만원 금 상(1) : 국무총리상 및 상금 200만원 은 상(2) : 산자부장관상 및 상금 각 100만원 동 상(5)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50만원	2005.11.10. 한국지식 재산센터
2006년 (제7회)	63건 (49/9/5)	12건	대 상(1) : 대통령상 및 상금 500만원 금 상(1) : 국무총리상 및 상금 300만원 은 상(2) : 산자부장관상 및 상금 각 200만원 동 상(5)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특별상(3) : 관련기관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2006.12.1. 한국지식 재산센터
2007년 (제8회)	70건 (55/9/6)	12건	대 상(1) : 대통령상 및 상금 500만원 금 상(1) : 국무총리상 및 상금 300만원 은 상(2) : 산자부장관상 및 상금 각 200만원 동 상(5)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특별상(3) : 관련기관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2007.11.30. 한국지식 재산센터
2008년 (제9회)	73건 (53/11/9)	13건	대 상(1) : 대통령상 및 상금 1,000만원 금 상(1) : 국무총리상 및 상금 700만원 은 상(2) : 산자부장관상 및 상금 각 500만원 동 상(5)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200만원 특별상(4) : 관련기관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2008.12.8. 한국지식 재산센터

나) 반도체지식재산 세미나

오늘날 반도체설계재산은 새로운 지식창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 이용 및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통환경을 정비하여 세계 반도체설계재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반도체설계재산팀은 국내외 반도체설계재산의 기술동향, 향후의 정책추진 방향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파악하고자 관련분야 전공자인 특허청 심사관, 대학교수 또는 반도체 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반도체지식재산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반도체칩 보호법 국제동향, 아날로그설계과정 속의 배치설계, 시스템반도체 강국을 향한 반도체IP 발전전략 등 총 6회의 세미나 개최를 통해 급변하는 최첨단 반도체 설계기술 및 시장동향 정보를 파악하여 국내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반도체 설계기업에 대한 컨설팅

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은 신지식재산권으로서 배치설계권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반도체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배치설계를 권리화 하고 활용을 촉진 시켜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신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반도체 설계기업 방문 컨설팅, 온·오프라인 활용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신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한 인식확산 및 반도체배치설계 진흥사업 등 홍보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보유기술을 적극적으로 권리화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8년에는 반도체설계 관련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반도체배치설계권 제도, 지식재산권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상호간 의견교환 및 건의·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사업에 반영하여 반도체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반도체설계재산 보호 · 유통 기반조성

가) 추진배경

반도체 설계산업은 대표적인 승자독식산업(winner takes all)으로 경쟁업체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사업성공의 핵심 관건이다. 기술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칩 설계에서 복잡한 기능을 어느 하나의 기업 또는 개발자가 모두 설계해서 시장에 적시에 출시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디지털 컨버전스의 진전으로 복잡한 시스템과 다양한 기능을 One-chip화 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개발한 반도체IP 활용이 필수적이며 반도체IP 재사용이 요구되므로 개발자는 핵심적인 고유기술만 집중 개발하고 필요한 다른 분야는 이미 상품화되어 시장에 출시된 반도체IP를 활용하는“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산업이다.

미국은 120여개 기업으로 설계재산표준단체(VSIA)⁵⁶⁾를 구성 ·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설계표준을 연구하고 있으며, 반도체설계재산 거래소의 경우 영국의 VCX⁵⁷⁾, 프랑스의 D&R⁵⁸⁾, 일본의 IPTC⁵⁹⁾, 대만의 SoC컨소시엄 등이 있다.(아래 표 참조)

56) Virtual Socket Interface Alliance의 약자

57) Virtual Component eXchange의 약자

58) Design & Reuse의 약자

59) Intellectual Property Trading Center의 약자

〈표 VI-3-7〉 해외 반도체설계재산 유통 관련기관 현황

국 가	기관명	운영형태	수익모델	운영상태
미 국	VSIA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과 주요 EDA 개발 회사 등	IP 품질, IP 보호, IP 전달물, IP 설계 표준 등 인프라 구축	거래에 필요한 부대서비스 제공 중점
	RAPID	민간 기업들의 컨소시엄	IP 거래모델 개발, IP 거래 인프라 구축	1996년 설립 2001년 해체됨
	CEC	EDA 전문민간기업	반도체 IP 테스트 및 분석 솔루션 판매	수익 창출
	Mentor	EDA 전문민간기업	EDA 사용자에게 IP 라이선스 제공	수익 창출
	Synopsys			
	Altera Xilinx	FPGA 전문민간기업	FPGA 사용자에게 IP 라이선스 제공	수익 창출
영 국	VCX	정부지원 완료 후 민간기업 전환	IP 거래 중개, 소프트웨어 판매, 컨설팅	1998년 설립 2003년 업무 중단
프랑스	D&R	민간기업	WEB 포털 서비스, 유료회원 회비, IP 거래 중개	1997년 설립 CMP 그룹 투자 후 수익 창출
일 본	IPTC	민간기업	유료회원 회비, IP 중개 서비스, 기술검색 서비스	2000년 설립 현재 자본잠식 상태
대 만	IP Gateway	국책연구기관 산하에서 설립되어 현재는 비영리 민간협회인 SoC 컨소시엄에 의하여 운영	공공성을 갖는 IP 거래 인프라 구축	2001년 설립 IP Mall의 모태가 되었음
	IP Mall	설계전문회사 소속	IP 라이선스, IP 재사용 설계 서비스 제공, IP 개발	사업 초기 단계로 성과 미정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IP 유통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양적·질적, 유용한 반도체IP의 절대적 부족으로 유통시장의 미성숙, 반도체 설계업체의 유료 유통에 대한 인식부족, 반도체IP의 신뢰성 미확보, 반도체IP DB의 편리성 부족 등으로 유통시장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반도체설계재산의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인 반도체설계재산의 수집·분류·공급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법률 제43조(배치설계기술진흥)와 반도체배치설계진흥 중장기 발전계획('06.2) 등과 관련하여 반도체설계재산유통센터(KIPEX⁶⁰⁾)를 설립·운영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8년에는 KIPEX의 유통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반도체IP 등록·관리·중개 등 유통을 위한 DB시스템 구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반도체IP 검색시스템 구축 등 원격 검증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반도체IP 등록건수 1,134건, 중개건수 69건, 거래금액 34억을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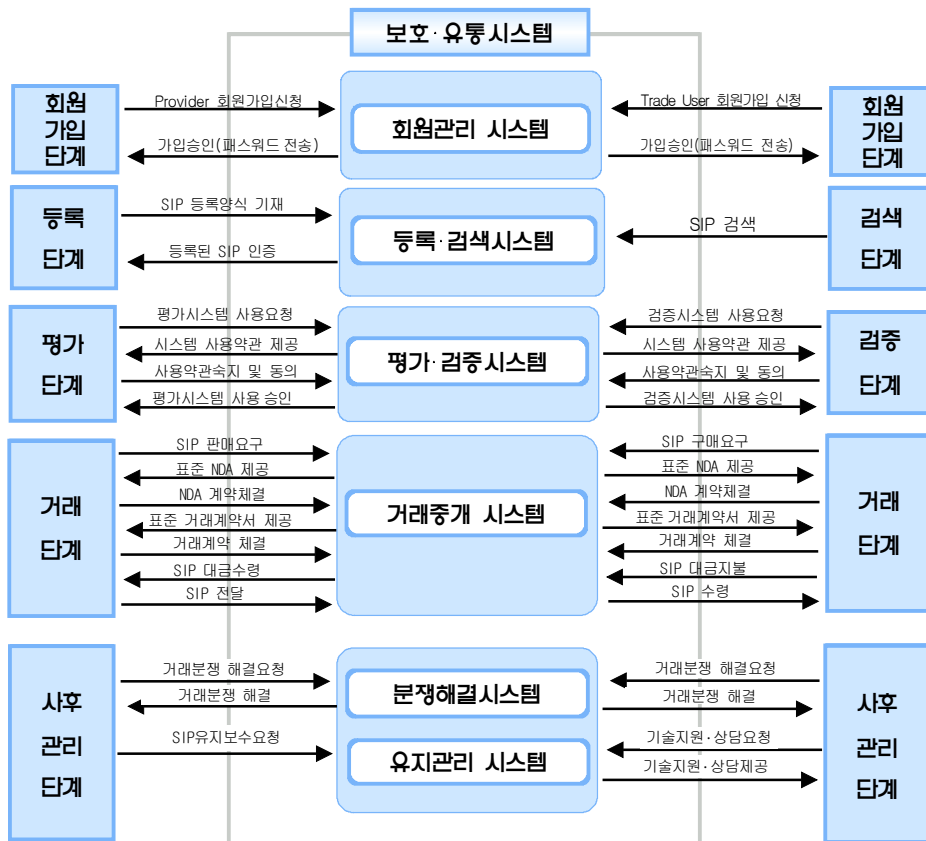
또한,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반도체설계재산의 활용을 촉진시키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사이트 카페개설·운영, 뉴스레터 및 반도체IP 카탈로그를 발간·배포하는 등 반도체설계재산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표 VI-3-8〉 성과목표 및 달성실적

No	내 용	2008 목표치	실 적	비 고
1	반도체IP 등록건수	1,100	1,134	누계건수: 약3,400건(2008.12.31.기준)
2	반도체IP 중개건수	66	69	
3	반도체IP 거래금액	32	34	

60) Korean 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 EXchange의 약자: 반도체IP의 보호 및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이 설립·운영하는 반도체IP유통센터

〈그림 VI-3-2〉 반도체설계재산유통센터 D/B시스템 모델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반도체설계재산유통센터 1단계('01~'05년)사업은 국내 반도체설계업체에 반도체 IP의 유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반도체IP 유통 인프라 구축, 반도체IP 거래 및 재사용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단계('06~'08년)사업은 국내 최대 반도체IP DB확보(약 3,400건), 팹리스, 파운드리 업체 등 네트워크 확대, 반도체IP 유통기반 조성 및 반도체IP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기여하였다.

반도체IP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반도체설계재산권 활용도 제고와 그에 따른 수입 대체 및 국부유출 감소, 반도체IP의 재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개발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핵심 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가) 추진배경

국내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1992년부터 부동의 제1위 수출산업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메모리반도체 시장보다 3배 이상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2007년 2.5%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메모리반도체에 치중되어 있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반도체 시장진출을 확대하여야 하며, 그 중심에는 휴대폰이나 네비게이션과 같이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전자 시스템 내부에 장착되어 두뇌역할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프로세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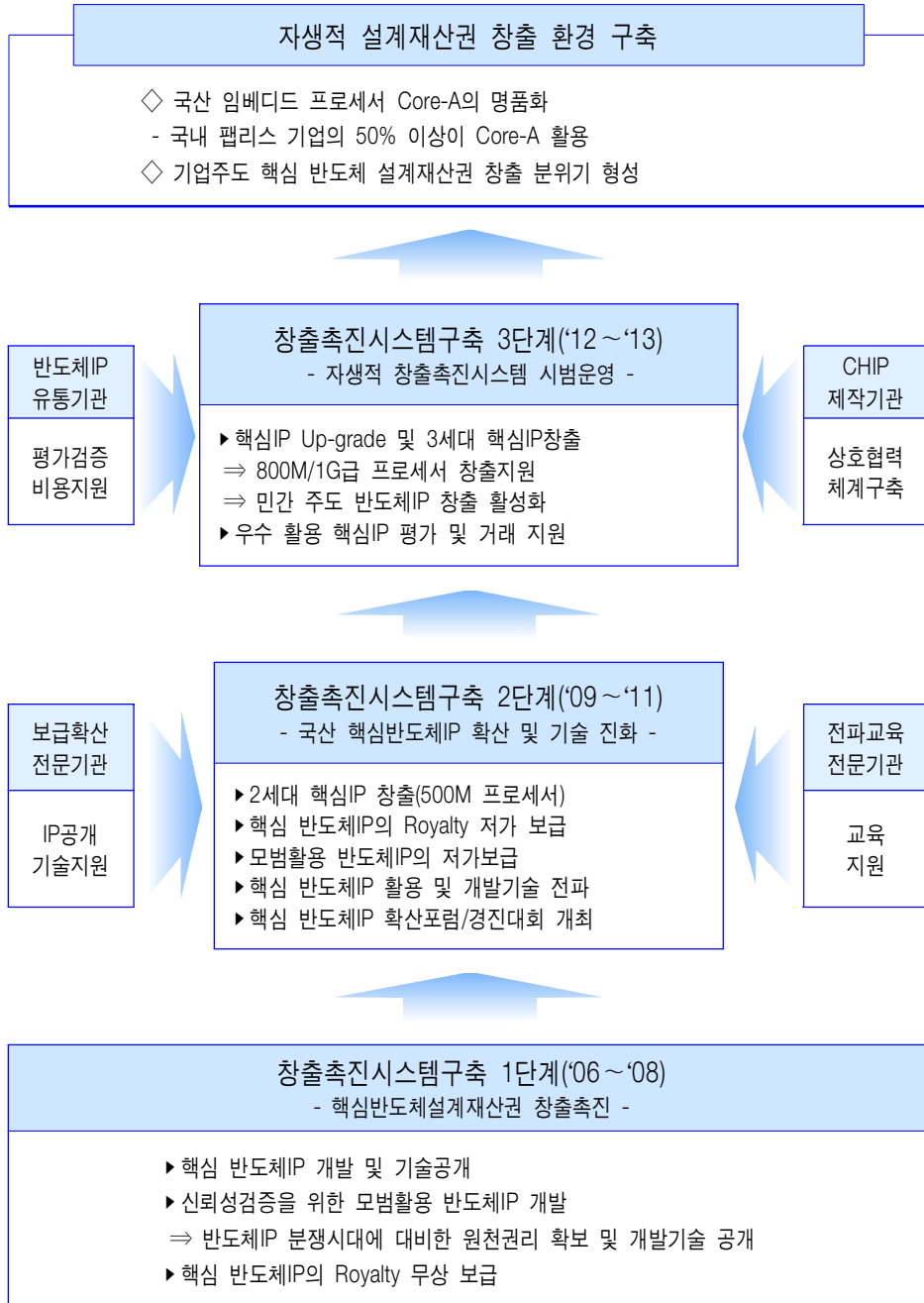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임베디드 프로세서 관련 기술들은 그동안 대부분 외국의 선진기업에 의존해 왔다. 전자장치의 핵심부분인 임베디드 프로세서의 기술 의존은 주변 부속장치뿐만 아니라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술 종속현상은 심화되어 가고 있다.

국내 반도체산업이 명실상부한 세계 반도체 2강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베디드 프로세서와 같은 시스템반도체의 핵심 반도체설계재산권이 외국기술 의존에서 탈피하여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핵심 반도체설계재산권은 국내 기술로 지속적으로 창출촉진 되어야 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시스템반도체 설계의 핵심요소인 “임베디드 프로세서”와 설계환경의 시제품을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관련분야에 보급·확산시킴으로써 민간기업에서의 자생적 권리 창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경쟁력 향상 및 국부유출 최소화 기반조성을 유도한다. 핵심 반도체설계재산 창출촉진사업 1단계('06년~'08년)는 임베디드 프로세서(Core-A로 명칭함)와 설계환경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2단계('09년~'11년)는 핵심 반도체설계재산권의 확산 및 Core-A의 기술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3단계('12년~'13년)는 자생적으로 핵심 반도체설계재산권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반복 창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주도하는 핵심 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림 VI-3-3〉 핵심 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시스템



창출촉진시스템구축 1단계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제1중과제의 1~8 세부과제는 핵심 반도체IP와 설계환경을 위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현으로서 1차년도부터 추진되었다. 이 중에 5~8 세부과제는 반도체IP 라이브러리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차년도(2006년)에 사업이 종료되었다. 또한, 제2, 제3중과제는 개발된 임베디드 시스템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모범 활용사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제1중과제의 Peripheral 반도체IP 개발이 완료된 2007년부터 추진되어 2008년까지 핵심 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시스템구축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표 VI-3-9〉 창출촉진시스템구축 사업현황

〈핵심 반도체 IP 및 설계환경〉		〈모범 활용 사례〉	
3차년도 (2008년)	〈제1중과제〉 총 4 세부과제 1. Embedded processor & On-Chip Bus 2. Compiler & OS 3. In-Circuit Emulation & Debug System 4. DSP & FPU	〈제2중과제〉 Core-A 및 Peripheral IP를 기반으로 하는 Mobile Device (PMP, MP3, PDA) 공유 플랫폼	〈제3중과제〉 감시용 IP Camera 시스템
2차년도 (2007년)			
1차년도 (2006년)		〈제1중과제〉 Peripheral 반도체 IP 5. 임베디드 프로세서용 Peripheral 반도체 IP 6. LCD Controller & Memory Controller 반도체 IP 7. USB Controller 반도체 IP 8. CSMA/CR 제어 반도체 IP	

〈표 VI-3-10〉 사업과제 및 개발기관

종과제	세부사업과제명	개발기관
제1종과제	임베디드 프로세서 및 온칩 버스 창출	KAIST
	임베디드 컴파일러와 OS의 개발 및 포팅	전북대
	In-circuit 에뮬레이션 및 디버그 시스템 창출	부산대
	임베디드 DSP 및 FPU 창출	(주)아스텔
	* 임베디드 프로세서용 Peripheral 반도체IP 창출	KAIST
	* LCD Controller와 Memory Controller 반도체IP 창출	서울대(연세대)
	* USB Controller 반도체IP 창출	건국대(한기대)
	* CSMA/CR 제어 반도체IP 창출	전북대
제2종과제	Core-A 및 Peripheral IP를 기반으로 하는 Mobile Device(PMP, MP3, PDA) 공유 플랫폼 개발	서울대
제3종과제	감시용 IP Camera 시스템 개발	하이버스

* 2006년 완료 과제

핵심 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사업으로 국내 기술로 창출된 Core-A의 저변 확대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인 임베디드 프로세서 분야에서 외국기술 종속으로부터 탈피하고, 국부유출을 축소하여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진일보를 유도하고자 사업종료 이전에 성과물(Core-A)의 탄생과 보급을 위해 2008년 7월 22일에 조기 공개하였다. Core-A의 기술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전략적 홍보 및 런칭행사를 개최하여 당일 반도체 설계기업의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 Core-A를 요청한 64개 기관과 기술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12월말 기준 Core-A 110본이 보급되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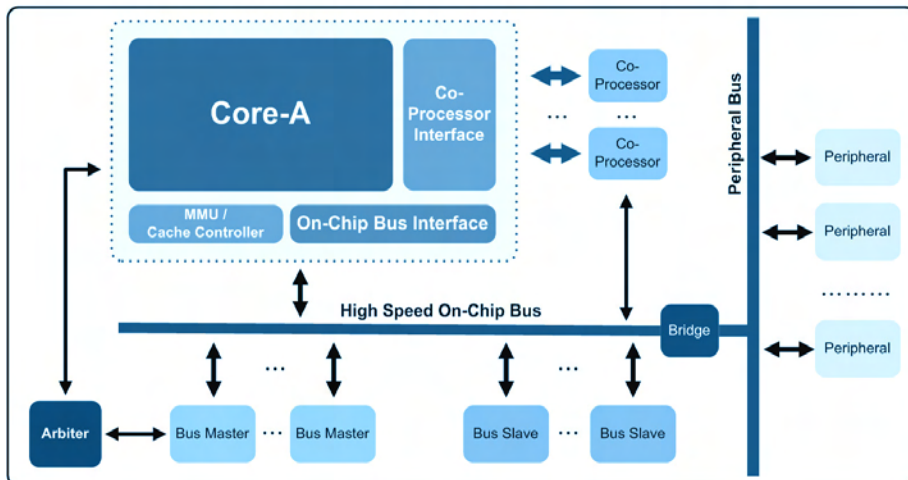
특허청은 2006년부터 반도체IP의 중요성, 기술동향, 산업동향을 파악하여 반도체 IP 시장규모가 가장 큰 임베디드 프로세서 개발을 선정하고 국내 기술로 핵심 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사업을 추진해왔다.

임베디드 프로세서는 자체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버스구조, 주변환경 톨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 코어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코어 자체의 개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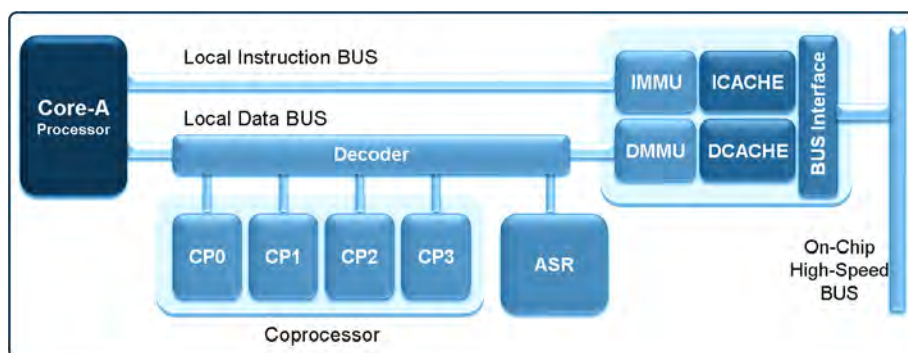
선과 더불어 개선해야 하는 기술·예산·인력 등의 동시다발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Core-A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컴파일러와 링커 등 SW개발 환경, 주변장치의 개발, 응용 플랫폼의 개발과 응용타깃 개발로 인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2단계 사업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단품의 메모리와는 달리 비메모리 특히 임베디드 프로세서는 선단을 이루어 코어, 주변장치, 개발장치, 응용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VI-3-4〉 Core-A 임베디드 프로세서 구조도



〈그림 VI-3-5〉 Core-A용 온칩버스 구조



임베디드 프로세서의 특성상 핵심 코어만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과 보수, 사용자를 위한 주변환경의 개발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시장개척에 성공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미 임베디드 프로세서와 설계환경에 관한 서술에서 사용자에게 친숙한 환경제공을 성공요소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임베디드 프로세서 기능확장, 주변환경, 디버그 환경, 컴파일러 개선, 개발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 신뢰성 확보, 응용프로그램 적용성 등 기술적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플랫폼의 개발로 임베디드 프로세서의 응용성과 교육성을 확장하는 데는 제품의 신뢰성 확보 및 주변 반도체IP의 개발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국내 기술로 창출·보급된 임베디드 프로세서 Core-A가 외산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대체하여 활용확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능개선과 기술지원 등을 전담할 지원전담기관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이 지원전담기관을 통해 반도체 전문기관에 Core-A의 원활한 보급과 사용자에 대한 실용적 지원 및 지속적인 사용환경 개선 등 Core-A가 제품 등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4) 반도체설계재산 활용확산 교육

가) 추진배경

반도체설계의 기반기술인 임베디드 프로세서는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기술 수준이 외국기술에 비해 뒤쳐져 있는 실정이어서 외국기업이 선점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변응용기술 역시 외국기술을 기초로 개발되어 국내 반도체 설계산업이 발전할수록 외국기술 의존도와 외화유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국내 반도체IP 산업의 진흥을 위해 2006년부터 『핵심 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사업』을 통해 국내 기술로 핵심 반도체설계재산을 창출·보급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고 기술적 중요도와 시장 규모가 큰 분야인 임베디드 프로세서 및 주변기술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2008년 임베디드 프로세서(Core-A⁶¹)의 1차 개발이 완료되어 반도체 전문기관에 보급을 해오고 있다.

임베디드 프로세서는 그 특성상 기술의 완성도가 높다는 것만으로 사용자층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술개발뿐 아니라 사용자들이 활용하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2008년부터 『반도체설계재산 활용확산 교육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반도체설계재산 활용확산 교육사업』은 특허청 지원으로 창출된 Core-A 관련 기술교육을 대학·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반도체 설계기술 국산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아직 국내에 Core-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Core-A 활용확산을 위해 안정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법·제도 교육을 통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반도체 설계업체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반도체설계재산 활용확산 교육사업은 사용자가 Core-A를 기반으로 제품에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Core-A의 잠재적 사용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Core-A 사용자 친화적 환경(교재, 실습기자재, 전문 강사진)을 구축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Core-A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특허청은 교재·실습기자재·실습예제 등을 개발하고 사용자에게 배포·대여함으로써 Core-A 학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61) Core-A : 첨단 IT 제품(휴대폰, MP3 등) 칩에 내장되는 프로세서를 국내 기술로 개발 보급하기 위해 특허청 핵심 반도체설계재산 창출촉진 사업의 결과물로 창출된 시스템반도체 IP의 명칭

본 활용확산 교육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는 단계(2008년), 본격적인 교육활동 수행단계(2009년), 교과목·난이도·교육대상 다양화 단계(2010년)로 추진되며, 교육기반 구축·교육 운영·발전기반 수립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반 구축은 교재·실습기자재·실습예제 개발 및 강사양성·교육과정 홍보를 통한 Core-A강좌 채택유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본 교육은 전문 기술교육으로서 일반적인 교육과 달리 실습기자재 및 예제개발의 질이 교육성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므로 교재·실습기자재·실습예제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반도체업계 프로세서 사용자들은 외산 프로세서의 기술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실정이라서 이를 Core-A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므로 대한민국 반도체대전(I-SEDX)전시,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공개강좌 개최 등 본 교육사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전략적 홍보를 통하여 Core-A 활용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운영은 정규강좌와 비정규 강좌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규강좌로 대학(원)에서 학점이 인정되는 Core-A 활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정규 강좌는 국내 반도체설계 관련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IDEC(반도체설계교육센터)을 통해 교수·조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전기반 수립 분야는 본 교육이 여타의 교육과 달리 Core-A의 활용확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능동적으로 시장의 요구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Core-A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초기상태로 사용중 에러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사업을 수행하면서 버그 리포팅 등을 통해 Core-A에 대해 피드백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Core-A 자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표 VI-3-11〉 연차별 사업추진 목표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목표	사업기반 조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 사업의 본격적 운영	교육과정 다양화/고도화
사업내용			
교육기반 구축	교육홍보 및 수요조사 강의개설협의	예제개발·배포 on-line 강의 개발 홈페이지 구축·운영	교육자료 확대개발 교과목 다양화 난이도 다양화 교육대상 다양화
	실습기자재개발 교재개발 강사양성	실습기자재 양산 교육과정 및 실습기자재 AS	
교육운영	교육 시범운영 (공개강좌)	대학강좌개설 기업 단기교육 공개강좌 사용자맞춤형교육 (시범운영)	교과목, 교육난이도 교육대상 확대운영
발전기반 수립	교육협의회 구성	타 유사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모색	반도체설계대전 등 사업연계 추진
	교육협의회 운영		
	Feedback 체계 구축(Core-A 예러보완, 설문조사 등)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08년 주요 사업목표는 교육준비 내실화를 통해 국내 4개 대학(원) 이상에 정규 강좌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프로세서의 특성상 기존에 사용해온 익숙한 프로세서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정한 목표였다. 그러나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반도체관련 학회·전시회 홍보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2008년 12월 현재 10개 대학 11강좌에 Core-A 채택강좌개설 협약을 체결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앞으로 Core-A의 활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교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학별로 교육한 내용을 정리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대상과 교육 난이도 등을 다양화하여 학교 위주의 교육에서 기업교육의 비중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2009년부터 10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11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며 Core-A를 활용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Core-A 활용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3. 향후계획

반도체설계재산 관련 법·제도의 연구 및 신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확산을 통해 반도체 설계기술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반도체 설계재산의 보호·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반도체설계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이 설립 운영하는 반도체설계재산유통센터(KIPEX)의 운영 활성화를 촉진해나갈 것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형인 메모리분야에 편중된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기업의 자생적인 반도체설계재산 창출기반 조성을 위해 특허청이 지원하고 KAIST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한 핵심 반도체설계재산인 Core-A에 이어 차세대 버전으로 2세대 Core-A와 설계환경, 멀티코어 프로세서 창출로 국내 기술 고도화 및 장기 발전가능성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기술로 개발 보급된 Core-A의 활용확산 교육사업으로 10개 대학에 11개의 정규강좌 개설·운영을 통해 양질의 반도체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Core-A 사용기업 발굴, 성공사례 창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담지원 기관 설립·운영을 통해 Core-A 사용기업 요청에 대해 신속한 기술지원을 하고 또한 Core-A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Core-A 활용확산을 장려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대회명칭을 변경한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을 개최하여 반도체 설계인력 저변확대와 반도체 설계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설계 경연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반도체 산업여건과 반도체 설계기술 발전을 반영하고 반도체 IP 유통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신지식재산권 제도정비와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반도체설계재산권 보호관련 국제적 공조를 통해 반도체산업의 변혁을 선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부족 코리아
특허청이 함께 합니다





제 7 편

고객 및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

제1장 고객중심의 서비스 체제 구축·운영

제2장 기업형 책임경영 시스템 정착

1

CHAPTER

제7편 고객 및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

고객중심의 서비스 체제 구축·운영

제1절 고객지향의 민원서비스 제공

고객서비스국 고객서비스과 행정사무관 김대영

1. 고객감동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가. 고객서비스 업무에 대한 기획·통합조정자 기능 수행

고객서비스국은 2006년 6월 신설되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획 및 통합조정 기능을 담당하면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앞으로도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고객 서비스 체제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나. 고객감동경영 마스터플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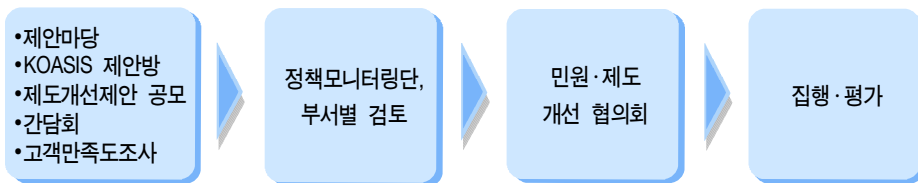
특허청은 “세계 최고의 고객서비스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고객감동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에도 고객감동경영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고객감동경영을 위해 불만고객의 유형별 해소방안 발굴, 고객감동 서비스 체제 강화 등 6대 분야 39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허고객만족도 향상, 전 직원들의 고객서비스마인드 함양 등의 효과를 달성하였다.

2. 고객과 함께하는 민원·제도 개선

객서비스국 고객서비스과 행정사무관 김대영

가.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프로세스’ 활성화

제도 개선을 포함한 고객의 민원수용을 위해 우리청은 ‘국민참여형 민원·제도 개선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제안 공모, 특허행정체험단 등을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해당 부서 및 정책모니터링단에서 검토하고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개선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로는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민원서식에 대한 서명제도 도입 등이 있다.



나. 특허행정체험단 운영

특허행정체험단은 특허청 신규직원, 유관기관 직원 및 MOU 체결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실제와 동일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체험단원들은 특허·상표·디자인 분야의 전자출원 및 서면출원, 설정등록, 이전등록 등 등록과정, 우선심사·의의신청 등 심사과정, 각종 심판청구, 발명지원사업신청, 지식재산관련 교육신청 등 16개의 분야에서 각종 서식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담당공무원을 방문하는 과정 등을 체험하였다.

체험활동을 통해 각종 절차의 안내, 담당 공무원의 태도, 서식종류 및 서식수의 적정성, 민원 처리시간 등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사소한 불편부터 제도개선사항에 이르기까지 2008년 총 105개의 보완사항을 발굴하였다.

다.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 실시

특허행정에 대한 특허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하여 '08년 6월 특허고객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공모를 실시하였다. 제도개선 제안공모를 통하여 총 184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우수 제안사례로는 상세정보, 검색결과를 열 때 새창에서 검색하도록 하는 특허심사 검색시스템 개선 사항 등이 있다.

라.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개최

특허청은 제도개선 제안공모, 혁신제안 등 다양한 발굴원으로부터 제기된 고객서비스 개선 과제에 대하여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민원·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심의 및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008년에는 총 6회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권리변경 서류제출시 실시간으로 자동 통보 시스템 구축, 지정상품 보정료 신설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마. 명예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운영

외부전문가 및 특허고객 등으로 특허청 명예 옴부즈만(Ombudsman) 22명을 위촉하고, 옴부즈만을 통한 의견수렴 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고객참여 특허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8년에는 소액수수료 예치금 제도 신설, 민원서식서류 분류체계 변경 등 26개 안건에 대하여 옴부즈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3. 고객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고객서비스국 고객서비스과 행정사무관 김대영

가. 고객만족도 조사

〈표 VII-1-1〉 특허고객만족도 추이(2004~2008년)

(단위 : 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만족도	63.2	68.2	71.5	72.9	73.4

특허청은 분야별 특허행정서비스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2회의 특허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출원·등록·심사·심판·서비스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출원인, 대리인, 민원인 등 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리서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하며, 고객만족도 결과는 각 국(과)의 성과지표(KPI)로 설정되어 보수, 승진 등 성과평가에 반영됨으로써 고객만족도 개선이 성과평가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특허고객만족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2008년에는 73.4점으로, 2007년 72.9점에 비해 0.54점 상승하였다.

나. 전화친절도 조사

특허청은 분기별로 직원들의 전화응대 태도를 모니터링하여 국별·과별 점수를 발표하고 전화응대 우수자에게는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전화응대 태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초 수신상태, 응대태도, 연결상태, 끝맺음 등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08년 종합 점수는 89.50점으로 나타나, 2007년 종합 점수 89.03점에 비해 0.57%(0.51점) 향상되었다.

다.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 강화

고객의 불만 및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청에서는 각종 민원답변에 대해 접수경로별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우선, 서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송부할 때 만족도 조사 엽서를 동봉하여 민원 답변서에 대한 만족 정도를 회신받고 있다. 또한,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답변을 송부하면서 5점 척도의 만족도 설문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회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청의 2007년도 민원행정 서비스만족도는 '06년(5.33점, 7점 만점) 대비 0.15점(2.7%) 상승한 5.60점으로 나타났다.

4.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고객서비스국 고객서비스과 행정사무관 김대영

가.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특허청은 특허고객들의 특허수수료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최초로 신용카드, 모바일 등을 이용한 특허수수료 납부제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7월부터 소액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일반 특허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 4.21일부터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제도 도입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08년 개인납부 수수료의 9.1%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 지불방법으로 이용되었다.

〈표 VII-1-2〉 전자지불서비스 이용현황(2008년)

구 분	개인납부수수료	전자지불 서비스 이용						
		소계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ARS	민원실카드
건 수	147,422	16,971	5,777	6,166	468	3,462	183	915
금 액	9,428,570	860,361	441,095	285,409	23,178	27,183	4,577	128,915

나. 수수료체계 개편

우리청은 2007년에 이어 강력한 특허권 창출을 유도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특허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허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였다. 특허·실용신안의 9년차 이내 등록료를 중점적으로 인하(약 105억원, 평균 8.8%인하)하였고, 심사청구료·심판청구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원가수준으로 맞추어 인상하였다. 또한 원가 및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PCT 국제조사료에 대해 원가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수수료 감면율을 소기업과 같은 수준인 70%(중견 50%)로 확대하였다.

다. 민원서식에 서명제도 도입

현재 금융거래를 위한 통장개설 등에도 서명으로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일부 행정기관의 서식도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나, 특허행정과 관련하여는 민원서식 제출시 서류에 인장을 날인하도록 되어있어 고객의 불평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09년부터 출원, 등록관련 민원서식의 날인란에 인장 또는 서명의 날인이 가능하도록 민원서류의 양식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라. 출원 Expert System 구축

특허청은 대리인이 없는 개인 및 중소기업이 출원시 발생하는 매년 4% 수준의 출원오류율 감소를 노력해 온 바, 신속·정확한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출원 Expert System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08년 6월 출원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오류율 발생현황을 분석하고, 전자출원 프로세스 재검토를 통해 구축 시기 별로 단기·중기·장기과제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단기과제로 오류검증 기능을 개선('08.9)하여 제출문서 검증기능 이원화, 오류검증 안내문구(160개) 정비 및 오프라인 검증기능(27개) 등을 추가 발굴하였다.

다음으로, 중기과제로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을 구축('08.12)하여 콜센터 상담원이 출원인과 출원시스템 화상정보(출원정보 및 오류상황)를 공유하여 출원서류 작성을 원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원 Expert System의 최종단계인 장기과제로 맞춤형 오류해결 시스템을 구축('09.6)할 예정이다. 이것은 오류원인 맵(map)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법령 등에 즉시 접속하여 토털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으로 출원인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제2절 고객감동 전자민원서비스

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정보기획국 정보개발과 전산사무관 장경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청은 지난 '99년부터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근무시간 중심으로 전자출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서비스시간 확대 요구가 증가되었다.

특허청은 민원인의 여망에 부응하여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넷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24시간 365일 Non-stop 전자출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03년부터 '02년에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특허넷시스템을 실시간 서비스(Real-Time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05.11부터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03년도 추진 사항

'02년에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우선 배치처리(Batch Processing; 일괄처리) 형태의 특허넷 구조를 실시간 업무처리(Real-Time Processing)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허넷 기반구조(Infrastructure) 설계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민원인의 전자출원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전자문서이용신고 등 사전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터넷지로납부, 과오납수수료 온라인반환 등 수수료 관리체계를 개선하였다.

〈표 VII-1-3〉 '03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추진분야	추진내용
민원서비스 개선	-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전자문서이용신고 등 온라인 사전등록절차 간소화 - 과오납수수료 온라인 반환 등 수수료 관리체계 개선 - 메일을 통한 통지서 수신 등 사용자편의 위주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개선
특허넷 기반구조 개선	- 배치처리 형태의 특허넷 구조를 실시간 처리방식으로 아키텍처 재설계 - 전자출원서비스의 실시간 연동을 위해 출원망, 특허망, 행정망을 단일망으로 네트워크 통합설계 24시간 데이터베이스 기동을 위한 무중단·실시간 백업체계 구축 - 불필요한 데이터의 이관·복제작업 제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통합설계 - 특허넷시스템 최적화·경량화를 위한 통합미들웨어 적용

2) '04년도 추진 사항

'03년의 특허넷 기반구조 설계에 따라 '04년에는 배치처리 형태의 특허넷 구조를 실시간 업무처리 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실시함은 물론, 전자출원시스템 장애발생 시 구제방안 및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서류제출기한 조정 등 관련 법제도 개편 작업도 병행하였다.

이는 전자출원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제출기한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변경에 따른 민원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서류제출기한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제출기한 말일을 다음 근무일로 연장되도록 관련 법제도 및 특허넷시스템을 개선하였다.

〈표 VII-1-4〉 '04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추진분야	추진내용
법제도 개선	• 전자출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처리방안 마련 •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편의를 위해 제출기한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로 연장
특허넷 개선	• 익일 배치처리 형태의 프로그램을 실시간 처리방식으로 개선 • 실시간 침입탐지 및 보안모니터링을 위해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 적용 •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복구(DR: Disaster Recovery)시스템 구축 • 온라인 실시간 접수 및 통지 기능 구현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개선	• 제출서류 오류검증 기능 구현 • 다양한 첨부서류 접수 및 통지 기능 구현 • 서류제출에 따른 후속절차 연계기능 구현 • 전자문서의 제출시점 및 제출일자 산정기능 구현 • 서류제출 기한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 말일의 산정기능 구현

3) '05년도 추진 사항

'05. 2월 특허넷II 시스템 개통에 따라 민원서류 실시간 접수 및 통지서 실시간 발송 서비스가 시행되었으며, 특허고객의 전자민원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해 점차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여 '05.11부터는 야간 및 휴일에도 전자출원 등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4시간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출원서류의 접수, 특허청에서 발송한 통지서의 열람, 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심사진행정보의 열람 서비스, 출원 번호 및 제출서류 처리과정 실시간 통지 등 대부분의 전자민원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서류작성 및 특허업무 처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출원인의 불편 및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코자 민원인이 납부해야 할 특허수수료 및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오류 여부를 서류제출 이전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VII-1-5〉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대상

대상 서비스	개선내용
온라인 출원	• 근무시간대 지원 → 24시간 지원(방식심사는 현행 유지) • 흠결서류의 제출전 검증/교정 서비스를 24시간 제공
온라인 통지	• 민원처리과정 통지에 대하여, - 익일 배치처리 → 실시간 처리 - 근무시간대 지원 → 24시간 지원
제증명 신청/발급	• 근무시간대 지원 → 24시간 지원 ※ 신청서비스는 24시간 지원하되, 발급서비스는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24시간 지원
심사진행정보 등 검색	• 비실시간 서비스 → 실시간 서비스

〈표 VII-1-6〉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단계별 개통시기

구분	야간 서비스(1단계)	휴일 서비스(2단계)	24시간 서비스(3단계)
시기	2005. 2 ~ 2005. 6	2005. 7 ~ 2005. 10	2005. 11 ~
서비스 시간	• 평 일 : 08~24 • 토요일 : 08~24 • 공휴일 : 없음	• 평 일 : 06~24 • 토요일 : 06~24 • 공휴일 : 09~21	• 평 일 : 00~24 • 토요일 : 00~24 • 공휴일 : 09~21

4) '06년도 추진 사항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익일에 처리되던 업무가 당일 실시간 Non-stop으로 처리됨으로써, 민원 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민원비용절감 및 행정효율향상 등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왔다.

특히, 단순한 서비스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특허청의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서류작성 및 특허업무 처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출원인의 불편 및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시간 및 공간의 제약 없이 외국 특허청과 실시간으로 전자문서 교환이 가능해져 특허청의 대내외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

'06년에는 민원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민원서식 간소화 작업을 추진한 결과 334종의 민원서류를 149종으로 감축하였고, 수수료 과오납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수수료 납부사항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정정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수료 반환 및 납부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처리시간을 대폭 감축하였다.

〈표 VII-1-7〉 '06년도 주요 추진내용

대상 서비스	개 선 내 용
민원서식 통폐합	• 유사 민원서식 통폐합(334종→149종) • 기재항목 간소화(6,881개→1,336개)
수수료납부사항 온라인 정정	• 수수료반환정보 온라인조회 기능 • 수수료납부사항 온라인정정 기능
국유특허활용도 제고	• 국유특허 열람·관리 기능 • 통상실시권 인터넷 신청 및 계약 기능
기탁미생물 관리시스템	• 미생물기탁기관 연계 • 기탁정보·특허정보의 통합관리 및 검색기능 • 미생물 분양신청 및 발급절차 온라인화

5) '07년도 추진 사항

그동안 지속적인 전자민원서비스 확충으로 언제 어디서나 Non-stop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수동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은 해소되지 못하였다. 이에 '07년에는 맞춤형전자민원서비스를 개발하여 민원인이 해당 사이트에 방문

하지 않아도 민원인이 처리해야할 To-Do정보를 하나로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를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전자출원을 하기 위해선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용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만 가능하였으나, 웹기반 전자출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용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누구든지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전자출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용카드, 휴대폰, 실시간 지로이체 등 수수료 납부수단을 다양화하여 특허고객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대폭 개선하였다.

〈표 VII-1-8〉 '07년도 주요 추진 내용

대상 서비스	개선내용
민원서식 통합 및 간소화에 따른 전자출원시스템 개선	• 서식통합(347종→149종, 57%감축) • 사용자 편의기능 제공으로 서식작성시간 단축 (건당 10분, 연간 236,237시간 단축 예상) • 윈도우 비스타 등 다양한 PC환경 지원
전자출원 SW 기능개선	• 명세서 기재불비로 인한 의견제출통지율 감축 (43.62%→4.36%, 90% 감축) • 민원서류 재작성·제출에 따른 민원비용 절감 • 기재불비에 따른 심사처리 지연 예방
맞춤형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서비스 접근단계 감축(5단계→3단계) • 민원처리결과 등 실시간 맞춤형 알림정보 제공으로 처리기한 만료에 따른 민원피해 예방
웹기반 전자출원서비스 확대	• 상표에서 전 권리로 확대 • 개인출원인의 이용증가(상표의 경우 전년대비 5.6% 증가)
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	• 수수료납부수단 확대(2종→7종)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선불카드, ARS, 지로, 방문) • 수수료 납부시간 단축(기존방문, 지로납부) • 납부정보 실시간 관리로 행정효율 제고

6) '08년도 추진 사항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전자민원서비스 확충을 통해 주요 민원서식을 바로 작성·제출할 수 있었으나, 지원대상 서식이 출원서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웹출원 서비스 지원대상 서식을 등록서식, 심판서식 등 모든 민원서식으로 확대하고 각종 편의기능을 확충하여 '08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원인이 작성한 민원서식의 작성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콜센터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공공 I-PIN 적용, 장애인·노약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이용편의 및 다양한 PC 운영 환경을 지원하는 웹표준·웹접근성을 적용을 통해 특허고객의 홈페이지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출원·등록·심판 기본정보 위주의 특허정보 웹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이용 및 특허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제증명 발급정보, 수수료 납부정보 및 기간도래 정보 등으로 제공대상범위를 확대하여 특허정보 관리 및 활용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전자민원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개인출원인등의 웹출원 서비스 이용이 전년대비 76.7% 증가함으로써 전자출원율이 93.1%에서 94.1%로 증가되었다.

〈표 VII-1-9〉 '08년 주요 추진내용

추진분야	추진내용
웹출원서비스 확대	• 웹출원 지원대상서식 확대 - 출원서식 → 등록·심판서식 - 웹출원인 이용증가(전년대비 76.7% 증가)
특허정보 웹서비스 확대	• 특허정보 웹서비스 제공정보 확대 - 특허(출원, 등록, 심판) 기본정보 → 제증명·수수료·기간도래 정보 • 특허정보 웹서비스 확충방안 수립 - 특허검색 및 통계정보로 확대 - 특허정보 웹서비스 인프라 확충
민원서비스 개선	• 제출전 작성서식의 정합성 검증결과에 대한 콜센터 상담시스템 구축 • 서류철 이력조회를 통한 제증명 발급시스템 개선 • 전자출원 전용사이트(특허로) 확충 및 온라인 출원과정 위주로 『특허로』 메뉴체계 및 초기화면 개편
홈페이지 웹표준·웹접근성 적용	• 홈페이지 웹표준·웹접근성 강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 I-PIN 적용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그동안 전자출원 위주의 전자민원서비스 고도화로 특허고객의 전자출원 만족도 및 전자출원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이에따라, 향후에는 고객 맞춤형 전자민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특허정보 활용 극대화를 위해 특허정보 보급 인프라 확충 및 정보제공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특허고객이 나의 특허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허관리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며, 웹서비스의 성능향상을 위한 아키텍처 변경 및 정보제공범위 확대 등 특허정보 웹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인에게 익숙하고 안정성, 호환성 및 편집기능이 우수한 상용워드 기반의 특허문서작성기를 개발할 예정이며, 향후 글로벌 활용에 대비해 다국어, PCT 출원서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특허고객의 수수료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서비스, 다출원·다등록 특허고객을 위한 특허마일리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표 VII-1-10〉 '09년 주요 개선예정 사항

추진분야	추진내용
수요자 중심의 전자민원서비스 확충	• 맞춤형 특허관리 포털 구축 • 특허정보 웹서비스 확충 • 상용워드 기반의 전자문서작성기 개발 •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시스템 구축 • 특허마일리지 관리시스템 구축

2.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정보기획국 정보개발과 행정사무관 김진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청은 특허절차나 전자출원 S/W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출원인 등을 위하여 특허청 홈페이지(특허路)를 통해 바로 온라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자출원서비스(웹 출원서비스)를 2005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전자출원을 위해 제공되는 S/W는 서식작성기(KEAPS), 전자문서작성기, 첨부서류 입력기, 통지서 열람기 등 6종으로 소규모 출원을 하는 개인출원인 등 초보자가 전문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특허청은 2005년 11월부터 상표 출원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07년 11월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및 각종 중간서류까지 확대하였고, 2008년 12월에는 등록 및 심판서류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현재 거의 대부분의 특허관련서류를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웹 출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특허출원서 등 작성하고자 하는 서류를 절차별 서식 목록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출한 서류결과의 조회나 본인의 특허정보 화면에서도 후속 작업이 가능한 서식 목록을 제공하여 편리한 서식 선택 및 작성을 도와준다.

둘째, 작성하고자 하는 서식에 대해서는 성명, 주소, 출원번호 등 본인과 관련된 공통 기재사항을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여 나머지 필요한 기재사항만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작성된 서식에 대해서는 기재사항 오류나 중복제출 여부 등을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출원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여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홈페이지(특허路)를 통한 웹 출원건수는 2005년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1만 여건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표 VII-1-11〉 홈페이지(특허路)를 통한 웹 출원 현황('05.11~'08.12)

구 분	'05년도	'06년도	'07년도	'08년도
출원건수	476건	4,618건	5,743건	10,147건

지금까지는 웹 출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고객이 특허관련 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소규모 출원을 하는 개인출원인, 중소기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의 PC(클라이언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특허법인, 대기업 등 다출원 고객의 이용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개인출원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편의기능 확충은 물론, 이러한 다출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웹 출원서비스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路(온라인 특허출원)’ 또는 특허路(www.kiporo.go.kr)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CHAPTER

제7편 고객 및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

기업형 책임경영 시스템 정착

제1절 전략 중심의 조직 운영

기획조정관실 성과관리팀 행정사무관 김영배

1. 특허청의 전략체계

특허청의 전략체계는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라는 기관의 임무와 「특허행정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으로부터 도출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전략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인과관계를 통해 「성과관리계획⁶²⁾」,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로 구체화 되었다.

제1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전략적 토대 위에서 제20대 고정식 특허청장 취임과 함께 출범(2008.5.1)된 제2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실용정부의 국정원리인 「창조적 실용주의」와 「고객과 현장 중심의 지재권 정책」에 기초하여 「선진일류 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청의 운영방향·기능 및 사업을 재설계하여 「성과관리계획」을 일부 수정하였다.

62)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의 「성관관리전략계획」(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과 제6조의 「성관관리시행계획」(연도별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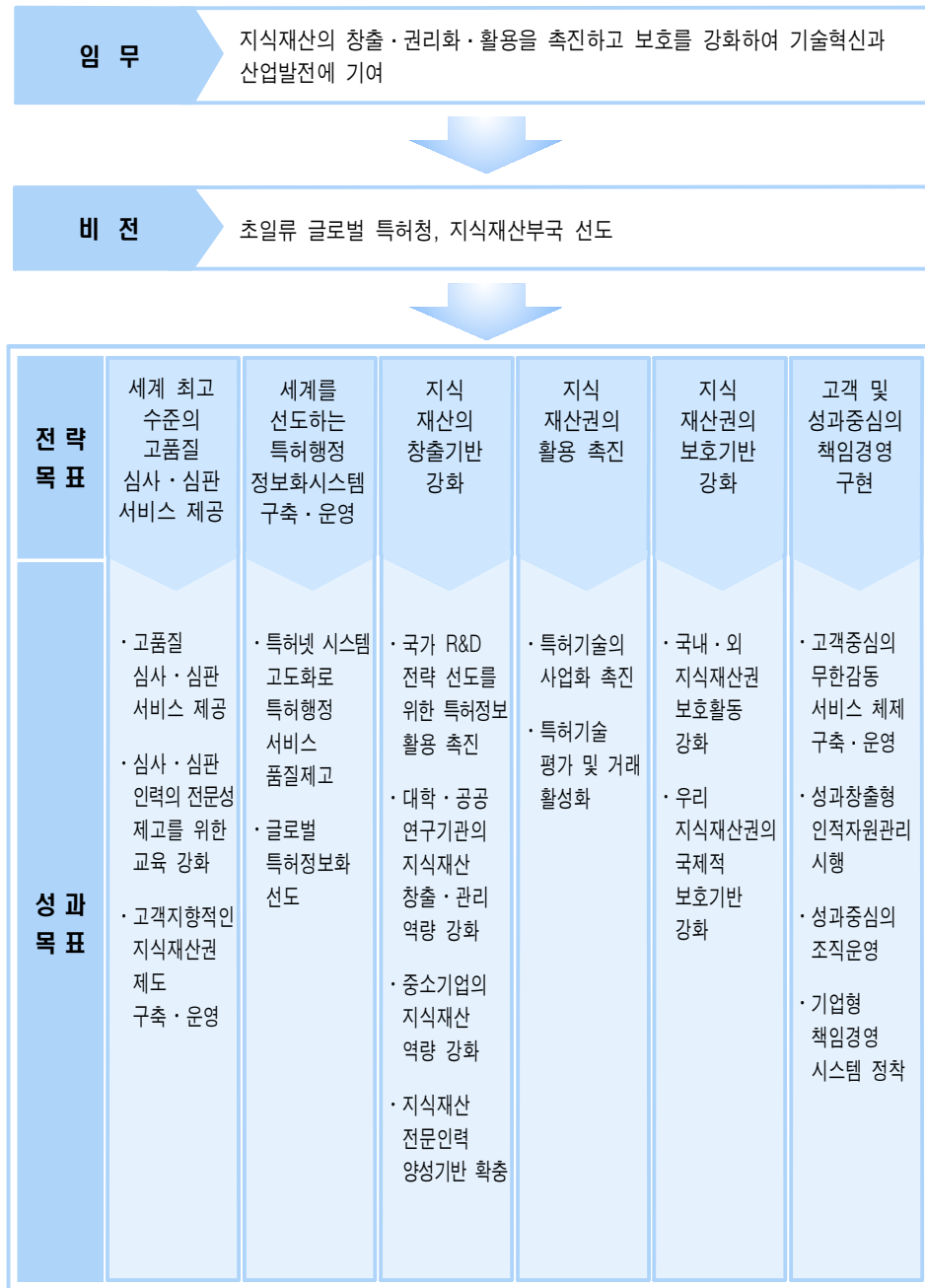
우선, 「임무와 비전」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워크숍과 공모과정을 거쳐 제시된 안에 대하여 국장급 이상의 성과관리운영위원회의 최종결정을 통해 「임무」는 제1기 중앙 책임운영기관의 것을 승계하는 한편, 「비전」은 세계 최고의 특허청으로 도약하기 위해 「특허행정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강국 실현」에서 「초일류 글로벌 특허청, 지식재산부국⁶³⁾ 선도」로 새롭게 설정하였다.

새로이 제시된 비전에 따라 국내·외 지재권 환경변화 및 고객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심사정책의 패러다임이 양(처리기간)에서 질(품질)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전략목표(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제공)와 성과목표(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제공)를 변경하였다. 아울러,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사적 「심사품질 쇄신전략」을 수립하여 심사 인프라 최적화 등 3개 분야 39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고객이 자유롭게 심사처리시점(빠른, 보통, 느은)을 선택·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3트랙(Track) 특허심사처리제도」를 도입('08.10)하였다.

또한, 국가 R&D 전략을 선도하기 위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지원을 통해 4개 기술분야(조선,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Happy CEO 창출 프로젝트,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용과 현장 중심의 지재권 정책지원을 위하여 일부과제의 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였다.

63) 사회 전반에 걸쳐 특허·브랜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창출·활용·보호를 바탕으로 산업 및 경제의 고생산성, 고부가가치를 이루어내는 국가

〈특허청의 전략 체계도〉



2. 전략 중심의 실행력 제고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06.5.1)하여 성과주의·6시그마·고객감동·지식 경영 등 민간경영 기법 도입 및 기업형 책임경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조직운영에 많은 변화를 꾀하였다.

제2기 중앙책임운영기관 출범('08.5.1)과 함께 전략 중심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력한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는 한편, 고객·현장 중심의 지식재산 행정을 구현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성과관리계획의 관리과제와 지표를 BSC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조직 및 개인의 성과지표를 개발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직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비전과 전략을 정책적 의사결정에 연계하여 조직과 개인의 역량이 전략 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청장주재 하의 성과관리전략회의를 통해 전략 및 성과지표 설정, 자원배분, 성과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전략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 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전략 중심의 경영과 성과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관리 수준을 단순한 성과측정 단계에서 성과향상추진 단계로 제고하는 한편, 고객감동 경영, 6시그마 경영 및 핵심가치 내재화 등의 민간경영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여 초일류 민간기업 수준의 경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그 외에 조직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조직성과와 개인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보상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전략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학계·민간기관의 성과관리 전문가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담당자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컨퍼런스를 개최('08.8.29, 국제지식재산연수원)하여 성과주의 경영기법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8년도 국무총리실의 「성과관리실태 점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 주관 「창의·실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행정 효율성 개선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제2절 성과주의 문화 내재화

1. 특허청 성과관리 제도 개요

기획조정관 성과관리팀 행정사무관 곽선미

가. 추진경과

특허청의 성과관리제도는 2004년 BSC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이래 2004년 말 직무성과계약제가 도입되고, 2005년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정착되기 시작했다. 또한 2006년 직무등급제가 도입되고 2007년 역량평가 모델 개발, 2008년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VOE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거쳐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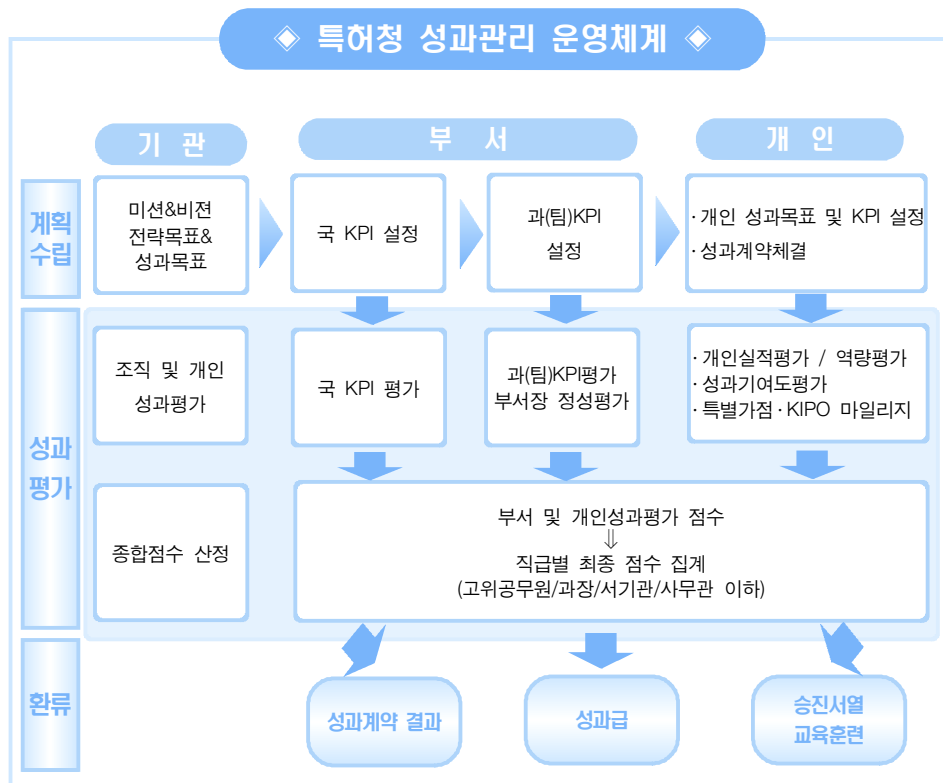
나. 특허청 성과관리제도 개요 및 2008년 주요성과

특허청의 성과관리제도는 성과전략회의를 통해 전 청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국·과 단위로 하부전개하여 국·과 조직KPI 및 개인 KPI를 설정하여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조직 성과평가는 조직KPI평가와 부서장 정성평가로 구성된다. 조직 KPI평가는 국·과 단위로 설정된 KPI에 대해 대표성 및 달성도 등의 평가로 이루어지며 이는 조직 성과평가의 80%를 차지한다. '08년 하반기 KPI 평가결과, 전체 KPI 중 87.5%가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부서장 정성평가는 2008년도에 도입된 항목으로 사전에 KPI로 설정하기 곤란한 업무에 대한 평가와 정량적인 KPI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부서장 정성평가는 소속부서(과단위) 실적에 대해 국장이 1차 평가하고 청장이 최종평가(S,A,B,C,D등급)하여 조직 성과평가

에 20%를 반영한다. 이러한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개인성과에 반영하여 조직성과와 개인성과를 연계시키고 있는데 고위직일수록 조직성과 비중을 높게 하여 조직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성과평가는 4·5급의 경우 개인실적평가와 역량평가로 구성되고, 5급 이하는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 역량평가로 이루어진다.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 5급 이하 성과급 평가에 “성과기여도”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경력에 관계없이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인실적평가에 반영되는 직무등급제도를 개선하여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거쳐 직무의 곤란도, 영향도 등에 따라 직무등급을 구분하고, 주요 직무수행자에 대해 직무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교화하였다.



다. 성과평가 결과 환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4·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및 성과계약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및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부터 보상제도와 강력히 연계하였는데 총액인건비제 운영기관으로서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하여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강력한 성과주의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인건비 재원을 활용한 지나친 성과급 격차는 직원 간 위화감 조성 및 근로의욕 저하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2008년 하반기부터는 부서단위 성과급과 개인단위 성과급을 병용하여 지급함으로써 지나친 성과급 격차를 완화하고 부서원간 팀워크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2. 성과주의 문화 정착

기획조정관 성과관리팀 행정사무관 곽선미

가. 성과주의로의 인식전환

2005년부터 시작된 특허청의 성과관리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기관장의 적극적 지지와 함께 직원들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외부컨설팅을 통해 성과주의 시스템이 도입될 당시 직원들의 불만과 거부감은 너무나 크게 작용했다. 정부기관으로서 특허청의 모든 업무가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없었고, 이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제도도입 이후 지금까지 전 청 차원의 의견수렴 및 워크숍 등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05년 직원들의 성과주의 수용도가 51.8점에서 2008년 60.35점으로 개선되어 성과주의 제도가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

실적 및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직급별로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성과평가 결과를 개인별로 피드백하고 성과목표 및 개인 KPI 설정을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분기별 성과면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누적적인 성과모니터링을 위해 면담결과를 온라인 성과평가노트에 작성하도록 하고, 온라인 평가노트 작성실적을 공통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다.

중간 관리자의 성과관리 리더십 제고를 위해 반기별로 평가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원들에 대한 코칭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08년에는 6시그마를 통해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해 관대화, 중심화, 연공서열 경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공정평가지수를 개발하여 평가성향을 모니터링 하고 실시간 피드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 결과가 그 자체로 종결되지 않고 지속적인 성과관리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과장급 이상 관리층 및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평가결과 분석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성과관리 제도에 대해 공유·학습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발굴하여 다음 연도 성과관리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한층 성숙된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절 변화관리 추진

1. 제안활동 활성화

기획조정관실 창의혁신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박양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 2기 출범('08.5)에 맞추어 '초일류 글로벌 특허청, 지식재산부국(富國) 선도'라는 새로운 비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MB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적 실용주의'를 적극적으로 특허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특허청은 전체직원 중 50%가 박사, 고시, 자격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다수 인력이 전문적인 심사·심판 업무에 종사한다는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특허청을 구성하고 있는 고급 인력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만 있다면 특허행정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특허청은 일상적으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제안된 아이디어가 진지하게 검토·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활동을 활성화하여 특허청의 새로운 조직문화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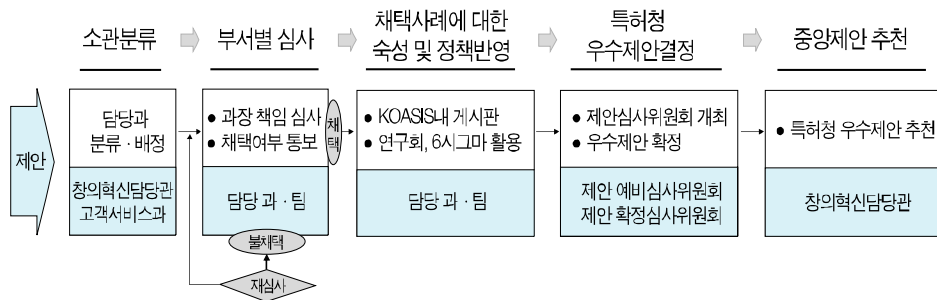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우선, 기존의 제안제도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검토·개선하기로 하였다. '07년도에 특허청 지식관리시스템(KOASIS)의 게시판에 등록된 제안 총 463건 중 180건(38.9%)이 무응답일 만큼 제안을 관리하는 체계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이는 제안자의 의지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우수제안이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런 무관심한 제안제도의 운영으로는 직원들의 냉소적 반응이 우

려되었으며, 품질 높은 제안과 높은 실행률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운영하여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 및 제도개선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총괄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시행하였다.

첫째, 제안에 대해 실무자가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담당과장 책임하에 심사(담당과장 결재)를 진행하도록 하고, 제안 등록일로부터 1개월내에 채택·불채택 여부를 확정하여 통보토록 하였다. 둘째, ‘제안 예비심사위원회’ 주관으로 불채택된 제안 중 실현가능성이 높은 제안을 선정하고 담당과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제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강화하였다. 셋째, 채택제안 중 우수한 제안에 대해 연구회·6시그마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숙성하도록 하였다. 넷째, 제안자와 숙성과정 참여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수제안 선정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그림 VII-2-1〉 제안 총괄관리 프로세스



‘제안심사위원회’ 기능 및 운영

- 제안 예비심사위원회(위원장 : 창의혁신담당관, 위원 : 창의촉진자)
 - － ‘특허청 우수제안’ 예비 심의를 통해 제안 확정심사 대상 선별
 - － 불채택된 제안 중에서 재심사 대상 선별
- 제안 확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기획조정관, 위원 : 과장급·외부전문가)
 - － ‘특허청 우수제안’ 확정 심의
 - － 반기별로 최소 1회 이상 운영

특허청은 개선된 제도의 시행을 통해 유효한 제안을 다수 발굴할 수 있었으며, 제안의 채택율도 28.9%로 '07년 대비 4배나 향상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의 국제적 보호기반 마련', '지식재산권 영문 e-러닝 콘텐츠 개발' 사례는 행안부 주관 「'08년 상반기 중앙부처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근정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만큼 큰 성과도 창출하였다.

〈그림 VII-2-2〉 상시제안 우수사례 1

(사례 1) 한국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의 국제적 보호기반 마련

▶ **현황 및 문제:** 21C 바이오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전통지식의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전통지식 해적행위 증가

* 미국에 등록된 천연물 기원 제약 관련 특허 49%가 인도 전통지식 도용

▶ **아이디어 제안:** '전통지식 관련 자료를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체계화하여 PCT 최소문헌에 포함시켜 보자!'

* PCT(국제특허조사) 최소문헌 :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시 필수검색 대상

▶ **제안실시 과정:** '최소문헌채택가능성' 등 내부반대와 예산처 등 외부 기관 반대도 설득(동 사업은 탱크 한대 값으로 독도를 지키는 것과 같다) → 전통지식 집약한 고급 DB 구축(전문가 활용: 특허, 연구, 정보화, 학술 전문가) → 한의학학 등 논문 저작권자 설득하여 전송 동의(방문, 설명회) → WIPO(국제지식재산권기구)에서 外交戰 → 만장일치로 PCT 최소문헌 채택('08.4)



'08년 중앙부처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근정포장 수상

〈제안 실시 성과〉

▶ 한의학·민간처방 등 **한국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기반 마련('08.4)**

▶ 한문으로 기재된 전통지식을 국·영문으로 체계화함으로써 **대체의약, 건강보조식품, 신약개발 등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 우리나라 학술지가 PCT 최소문헌으로 최초 선정, 전통지식 관련 학문발전 계기

* 고려인삼학회지, 대한복초학회지 등 47종의 학술지가 동시에 선정 쾌거



〈그림 VII-2-3〉 상시제안 우수사례 2

(사례 2) 지식재산권 e-러닝 영문교육 개발 및 보급		
▶ 현황 및 문제: 기업환경이 글로벌화되고, 국제 공동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기관과의 지식재산권 협상 중요성 증대 * 국내에는 국제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부재 ▶ 아이디어 제안: '지식재산 영문과정'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출시해보자! ▶ 제안실시 과정: 추진팀 구성, 변리사·기업인·교수로 구성된 사이버아카데미 운영위원회 자문 → 강사진 부족·교재 부재 문제를 e-러닝 도입으로 해결 → 교육수준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교육수준(수요층)	교재현황	해결과정
기초과정 (대학생용)	WIPO에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있음	WIPO와 협상 통해 한국인 전용과정 개설
중급과정 (기업담당자용)	원고는 있으나, e-러닝 콘텐츠로 개발 필요	시범개발모듈 시연 통해 WIPO신뢰 → 공동개발
고급과정 (연구개발자용)	없음	APEC 최대예산 확보 IP Xpedite 개발
'08년 중앙부처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 수상		

(제안 실시 성과)

- ▶ (초급과정) 14개 대학 2002명 수강 ('08)
- ▶ (중급과정)
 - POSCO 제공(2400만원 라이선스 비용), 삼성전자·LG·효성 등 협상중
 - UN공용어(프랑스어 등 5개국어) 버전, 포르투갈어, 몽골어, 태국어, 에스토니아어 4개언어 자국어 버전 개발 착수
- ▶ (고급과정) APEC 기금을 통해 APEC 회원국 중심으로 전세계 확산
- ▶ 사용자가 학습 중 자연스럽게 한국특허·기업과 친숙해지도록 교과과정 구성하여 한국기업·특허 홍보효과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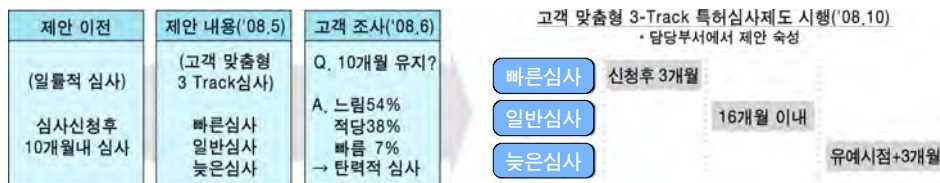
또한, 특허청은 '시의성 있는 공모'와 '동일주제 연속공모'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창의문화를 확산할 수 있었다. 첫째, 책임운영기관 2기 전환('08.5.1)에 따른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해 과장급 간부진을 대상으로 '창의정책 경진대회'를 진행하였다. 우수 제안자에게 승진인사시 우선 고려하는 인사상 특전이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 참여에도 불구하고 중간관리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청내 제안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책임감 있는 제안 및 평가를 통해 실용적인 정책 발굴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3-Track 심사처리방안'은 특허 심사신청 후 일률적으로 10개월내 심사를 착수하던 체계를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맞추어 빠른심사·일반심사·늦은심사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으며, 동 제도가 시행된 '08년 10월이후 불과 3개월만에 늦은심사 신청건이 817건(10월 8건, 11월 155건, 12월 654건 등 제도 이용 급속 확대)에 이를 정도로 고객호

응도가 높았으며, 심사부문 체감만족도는 ('06)66.8점→('07)68.9점→('08)71.6점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표 VII-2-1〉 제1차 창의정책 경진대회

명칭(시기)	대 상	주제	평가자 및 평가절차
제1차 창의정책 보고회 (’08.5~6)	부이사관 및 4년차 이상 과장급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특허청 정책제안 경진대회 * 정책 내용, 효과, 실행방안을 10쪽 분량 으로 구체 기술하여 제안 자체의 품질 수준 제고	• 청장주관 • 1차 평가 (사무관/국장평가) • 2차 평가 (외부위원)

〈그림 VII-2-4〉 수요자 중심의 3-Track 심사처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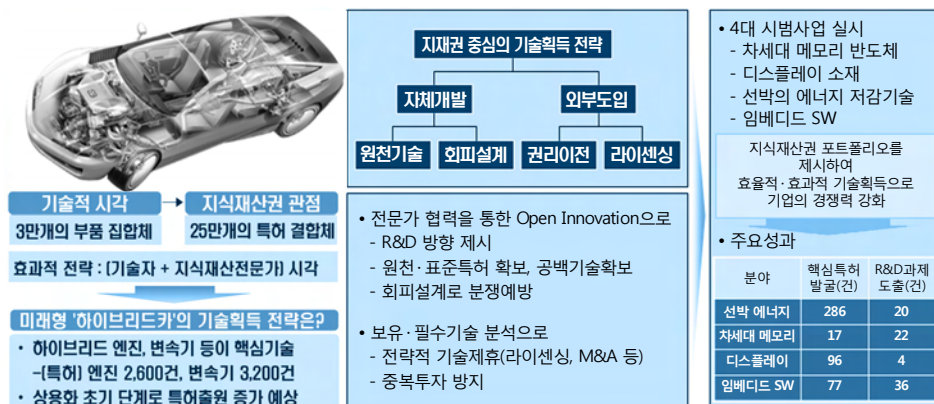
또한, 57명의 간부진이 제시한 정책제안은 특허청에서 논의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정책어젠다 및 이슈를 공론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이후 정책 기안자에게 품질 높은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VII-2-5〉 청내 모든 영역의 정책어젠다 공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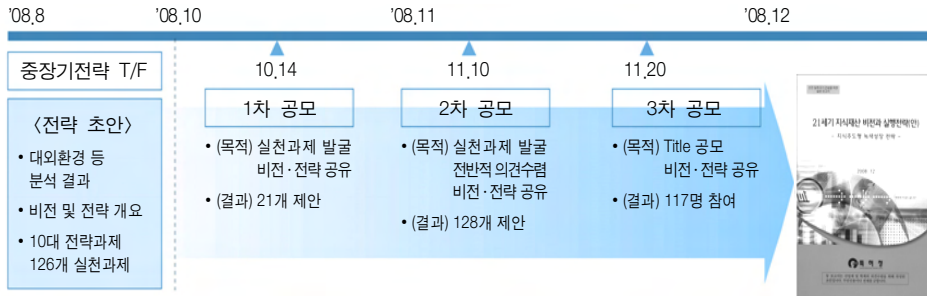
두 번째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등 4개의 청내 주요 현안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수립되지 못하고 표류하자, 청내 다양한 개선 제안을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서기관 이상을 대상으로 제2차 창의정책 경진대회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총 41건의 정책 제안이 발굴·반영됨으로써, 신청 간부진의 아이디어가 주요정책에 반영되었고, 담당과로 한정된 사고 범위가 보다 폭 넓은 시야에서 검토 및 실현되어 정책의 유효성을 증대할 수 있었다. 특히,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 4개 시범사업분야에서 미래 시장을 지배할 핵심특허 476개를 도출하고, 자체 개발·외부도입(권리이전, 라이선싱) 등을 조합한 최적의 기술획득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놀랍고 감동적인 분석결과”(국책사업단장), “R&D 전략의 바로미터”(기업임원) 등 고객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VII-2-6〉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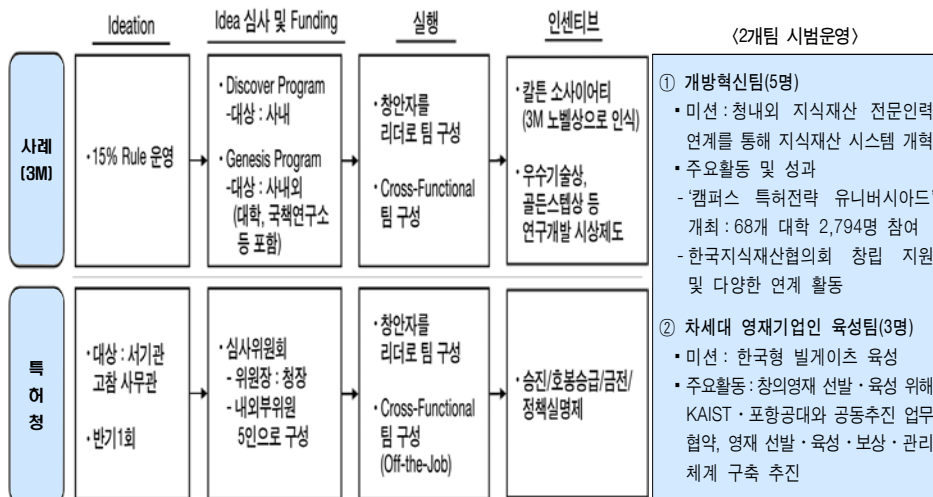
또한,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중·장기 비전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 정부 5년 및 그 이후 미래를 위한 ‘21세기 지식재산 중·장기 비전 및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중장기 전략 T/F에서 만든 전략초안(’08.8)에 대해 3차례의 연속공모를 통해 전략 보고서 자체의 품질도 향상할 수 있었으며, 전략의 실천 주체인 전 직원과 자연스럽게 비전 및 전략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새로 수립된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실행력을 배가할 수 있었다.

〈그림 VII-2-7〉 중장기 전략 및 실행에 대한 연속공모



마지막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부문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혁신적 기술이나 제품 솔루션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공공부문 맞춤형으로 전환한 ‘창의제안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였다. 본 제도는 창안자를 팀장으로 하여 제안을 추진함으로써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팀장을 과장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유효한 제안을 발굴하는 데에도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2개팀이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팀은 빌게이츠나 세르게이 브린(구글 창업자)과 같은 창의영재를 육성하기 위해 KAIST, 포항공대 등과 무시험 입학을 추진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림 VII-2-8〉 창의제안 인큐베이팅 시스템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특허청에서 지난 1년간 운영했던 상시제안과 공모제안 제도는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여러 사람의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쓸모가 있는 실용적인 특허행정을 제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창의정책 경진대회 등 간부진의 솔선수범과 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공모를 통해 청내 현안정책 및 비전에 대한 수직·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전 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업무 자세를 확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09년에는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등 현안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활성화하고, 변리사·법률가·교수·행정가·이공계 학자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공모로 공모제도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창의제안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여 유효한 제안을 발굴하고 실현함으로써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특허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2. 6시그마 경영의 효율화

기획조정관 창의혁신담당관실 공업사무관 신훈식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등 각 영역에서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특허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5년부터 6시그마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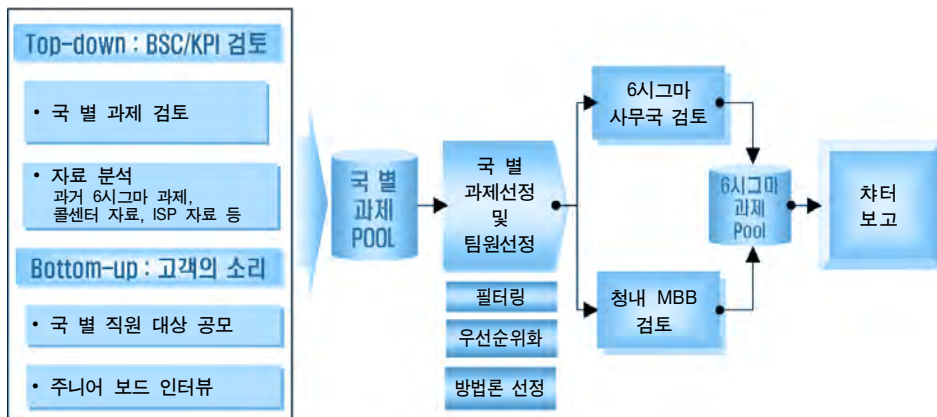
이후 활발한 6시그마 활동을 통해 2007년 말 기준 총 135개의 과제가 수행되고, 챔피언, PO, BB, GB, YB 등 총 1,082명의 혁신인력이 양성되는 등 6시그마는 외적인 성장을 통해 확산 되었다.

특히 2008년은 6시그마 정착기의 원년으로 보고, 6시그마 과제수행 및 실행 내용 고도화의 실질적 확산에 보다 집중하여 국별 장기 미해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 중심의 6시그마 활동 추진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특허청 6시그마 내실 경영을 기하고 혁업일치의 내재화를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8년부터는 모든 구성원이 6시그마 과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웨이브 시작 전 각 국이 주도적으로 과제분석, 국 KPI 분석 및 직원대상 과제공모 등 Top-down과 Bottom-up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자체 과제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그림 VII-2-9〉 2008년 6시그마 과제선정 개요



이때 과제도출 과정에서 사무국이 주관으로 과제도출방법에 관한 집합교육, 2차례의 과제도출 워크숍 등의 과제도출 프로그램 개최하여 각 국의 과제도출을 지원하였고, 각 국은 국장주재 Work-Out에서 과제 필터링과 우선순위화를 통해 과제를 선별하고 과제 리더를 포함한 과제수행팀을 구성하였다.

각 국이 선정한 과제는 사무국, 청내 MBB 및 외부전문위원이 중복성 및 6시그마 과제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6시그마 과제 pool을 형성하였고, 6시그마 과제 pool을

통해 선정된 과제의 과제리더는 해당 과제의 차터를 작성하여 CEO 및 챔피언이 참여하는 차터 보고회에서 승인받아 과제를 수행하였다.

각 과제는 유형에 따라 메가, 정통, 맞춤형, QSS(Quick Six Sigma), 타운미팅 등 다양한 수행방법론을 적용하도록 하고 각 과제 수행팀원 구성을 차별화하여 각각의 과제수행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실용적인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DREAM’과 ‘QSS’는 청에 처음 도입되는 방법론이었으나, 기존의 메가 및 정통 6시그마와 비교해도 과제진행에 필요한 지식과 틀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 교육 없이 과제를 수행하였고, 새롭게 도입한 타운미팅은 과제당 미팅을 주도할 촉진자(Facilitator)를 선정하여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후 과제를 수행하였다.

한편, 맞춤형 6시그마 방법론인 DREAM은 기존의 DMAIC와 DFSS 방법론이 타기관과 차별되는 심사/심판 업무부문과 새로운 정책 검토 및 개발과 같은 정책부문에 만족스럽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새로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서 6시그마 경영을 특허청에 정착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림 VII-2-10〉 특허청 맞춤형 6시그마 방법론 DREAM 개요

Phase	DEFINITION	Step
Define	비즈니스 및 고객 분석을 통한 Unmet Needs 파악	- 비즈니스분석 - 고객분석 - Unmet Needs 파악
Rank	정책 성과지표의 현수준 파악 및 목표설정	- 성과지표 정의 - 현수준 파악 - 목표설정
Explore	경쟁사기반 가치도출을 통한 정책안 수립	- 경쟁사기반 가치도출 - 가치전환 - 정책안 수립
Adjust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안 수정 및 확정	- 여론수렴 - 수정사항 도출 - 정책안 확정
Manage	홍보/실행 계획수립 및 최종 승인	- 홍보/실행계획 수립 - 문서화/공유 - 최종승인

2008년에는 7, 8차 웨이브를 통하여 288명의 참여하여 총 30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지금까지 8차에 걸쳐 웨이브를 진행하는 동안 165개의 6시그마 과제를 수행하여 630개의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MBB 10명, BB 127명, GB 357명 등 총 직원의 33%가 GB 이상의 6시그마 전문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표 VII-2-2〉 2008년도 6시그마 수행 과제

웨이브	번호	프로젝트명
7차	1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한 정규교육체계 구축
	2	지식재산 이러닝센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3	특허청 맞춤형 창의혁신 방법론 구축
	4	차세대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5	출원/등록 방식심사의 일관성 제고 방안
	6	심사품질 및 고객맞춤형 심사처리기간을 고려한 심사과간 심사물량 적정 관리방안
	7	도면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디자인 심사품질 제고 방안
	8	국가 R&D 세부연구과제의 효율적 기획을 위한 맞춤형 특허정보 제공방안
	9	심사국별/과별 담당 IPC 적합도 제고 방안
	10	특실심사분야 생산성 지수 개발
	11	특실 심결문 작성시스템 개선
8차	1	특허청 업무 아키텍처(BA) 정립
	2	특·실 심사접수 체계 개선방안
	3	IPC 세분화 분류체계 마련
	4	공정평가지수(FEI) 적용을 통한 성과면담 프로세스 개선
	5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방안
	6	첨단 부품소재 R&D IP 지원 방안
	7	변리사시험 제도개선 방안 개발
	8	정보관리협의를 제도 개선을 통한 청내 정보협력 체계 강화
	9	CSR 처리 프로세스 개선
	10	수수료 예납제도 도입 방안
	11	고객의 불만제로를 위한 소멸예고 안내서비스 개선 방안
	1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관련 판례분석을 통한 심사품질 제고방안
	13	상표권 남용 방지를 위한 권리불요구 제도 도입 검토
	14	PCT 국제단계 심사의 오류율 최소화 방안
	15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심사정보망 활성화 방안
	16	부가기간 지정 처리 프로세스 개선
	17	장기 미처리심판사건 관리 방안
	18	학생발명진흥사업 성과관리 체계구축
	19	온·오프라인 교육통합을 통한 지식재산 교육체계 개편

다. 평가 및 발전방향

6시그마를 도입한 지 4년을 맞이하여 특허청은 Top-down과 Bottom-up 방식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과제도출 방법을 도입하였고, 과제의 성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6시그마 방법론을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더 나아가 특허청의 업무 특성에 맞는 6시그마 방법론인 DREAM을 자체 개발하여 과제수행에 나서는 등 6시그마 경영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특허청은 6시그마 활동 경험이 있는 구성원이 1/3을 넘는 등 각 부서별로 6시그마를 자체 수행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갖추어 져 있는 수준이므로, 향후 각 부서가 독자적으로 6시그마 프로젝트를 관리·수행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6시그마 경영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핵심가치 내재화

기획조정관 창의혁신담당관실 공업사무관 신훈식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청은 2006년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면서 강력한 성과주의를 기본으로 한 기업경영체제에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팀워크 와해, 상호불신, 커뮤니케이션 단절 등 살벌한 조직분위기가 조성되어 무엇을 위한 혁신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로 왜 가야하는지에 대한 구성원이 공유하는 핵심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내재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해 졌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아래에서 조직의 정체성과 신념을 제시해 주고, 조직에 대한 일체감과 소속감을 부여하며 구성원을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이념적인 구심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청 고유의 핵심가치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핵심가치 수립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핵심가치체계 벤치마킹, 청장 이하 간부진의 인터뷰, 직원 워크숍을 통한 주요 키워드 도출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조직문화의 변화 방향성을 조사·검토하였다. 그 결과, 2006년에 특허청 직원이라면 누구나 공유하고 실천해야 할 핵심가치를 'KIPOway'로 명명하고, 그 내용을 '고객 최우선', '도전과 창의', '신뢰와 존중'으로 설정하였다.

KIPOway를 정립함에 따라 2007년에는 구성원에 대한 내재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추상적인 핵심가치를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표 및 실행 세부과제를 도출하였고, 이를 전 직원에게 교육 시키는 등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08년에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주요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KIPOway 전파가 필요함에 따라 조직 내 구성원간 상호 신뢰 구축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창의 제안 아이디어 제도, 경영진과의 간담회, 창의실용 교육 등의 활동에 역점을 두었다. 이와 동시에 구성원이 가정에서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과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제도(WLB⁶⁴⁾)를 도입하여 핵심가치가 구성원의 생활 속에 정착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8년은 KIPOway 정착단계로서 각 국별로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조직과 구성원 모두가 상호 보완하면서 2007년에 이어 KIPOway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가치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고객 최우선'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외부 고객 및 내부 직원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콜센터, 한국지식재산 협의회 설립, 특허행정체험단, 주니어 보드 등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였다.

64) WLB(Work & Life Balance) : 조직 구성원이 일과 생활을 모두 잘 해내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각종제도를 WLB 프로그램이라 하며, 가족친화적 제도(Family-friendly Policy)라고도 부름

〈표 VII-2-3〉 고객 최우선 관련 주요사례

활 동	내 용	08년 성과
특허고객 콜센터 VIP 간담회	지재권 관련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되어 향후 추진될 제도개선 과제의 방향에 대해 집중심의 및 추진여부 결정	6회 개최 25개 과제 논의
특허청 명예 ombudsman	매 분기별로 도출되는 신규과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및 고객으로 구성되어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문의 후 제도개선 사항 반영	4회 개최 26개 개선안 도출
민원제도 전담관	상표디자인에 대한 민원제도 개선 전담	디자인 도면제출의 간소화 등 7건 개선
특허행정체험단	청 직원이 고객입장에서 특허행정을 직접 체험해보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능동적인 제안제도 운영	105건 제안 발굴 36건 제도개선 추천
한국지식재산협의 회 설립	전업종 67개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간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특허청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정부정책 개선	12차례 간담회 38회 회의, 워크숍
국가 R&D 특허전 략전문가 파견	R&D 투자규모에 비해 특허창출 역량이 부족한 대학·공공(연)에 IP-R&D 특허전략 전문가를 파견하여 우수 특허 창출기반 조성	나노소재기술개발 사업단 등 4개 사업단에 파견
주니어 보드	조직 내 수직·수평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창의·실용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정책 아젠더 도출	103개 과제제안 4개 정책방안 수립
3-Track 고객맞춤 형 심사서비스	‘빠른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 중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심사서비스를 제공	세계최초로 도입

‘도전과 창의’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적 동기부여를 유발하고 새로운 업무에 대해 도전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및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창의제안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 능력 위주 주재관 선발, 성과 위주의 특별승급, 창의정책제안 경진대회를 통한 간부진 기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구성원들에게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취시켰고,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표 VII-2-4〉 도전과 창의 관련 주요사례

활 동	내 용	08년 성과
창의제안 인큐베이팅 시스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한 서기관 또는 고참 사무관에게 그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팀장으로 보고하고, 성과에 따라 승진시키는 제도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 팀 등 2개 팀 운영
능력 위주 주재관 선발	주재관 선발 시 현직어로 업무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는 외부 전문가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연공서열에 의한 선발 극소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재관 선발시 외부 전문가 평가 실시

활 동	내 용	08년 성과
성과 위주의 특별승급	도전적이면서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 대해 특별 승급을 실시하여 도전적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동기부여	IP5 진입을 위해 노력한 직원 등 5명 승급
창의정책제인 경진대회	과장급, 서기관을 대상으로 청장 주관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창의역량 발산의 기회 부여	2회 실시하여 98개 응모, 9건 우수제안 선정

‘신뢰와 존중’의 관점에서 보면, 전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각 부서의 여건에 적합한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체육·동호회 활동 등의 GWP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피로감을 없애고 구성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표 VII-2-5〉 신뢰와 존중 관련 주요사례

활 동	내 용	08년 성과
VOE 청취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담당부서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조직과 구성원간의 신뢰관계 구축	경영진과의 대화 등 3회 개최
직원대상 국과장 브리핑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상사가 브리핑을 하도록 하여 상하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	국과장 95명 중 91명 참여
WLB 프로그램	자녀 리더십 세미나, 부부 리더십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구성원이 직장에 대한 자부심 함양	자녀 30명 참여 부부 20쌍 참여
핵심가치 내재화교육	개인가치와 조직가치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신뢰와 존중을 위한 인간관계 원칙을 역할 실습을 통해 교육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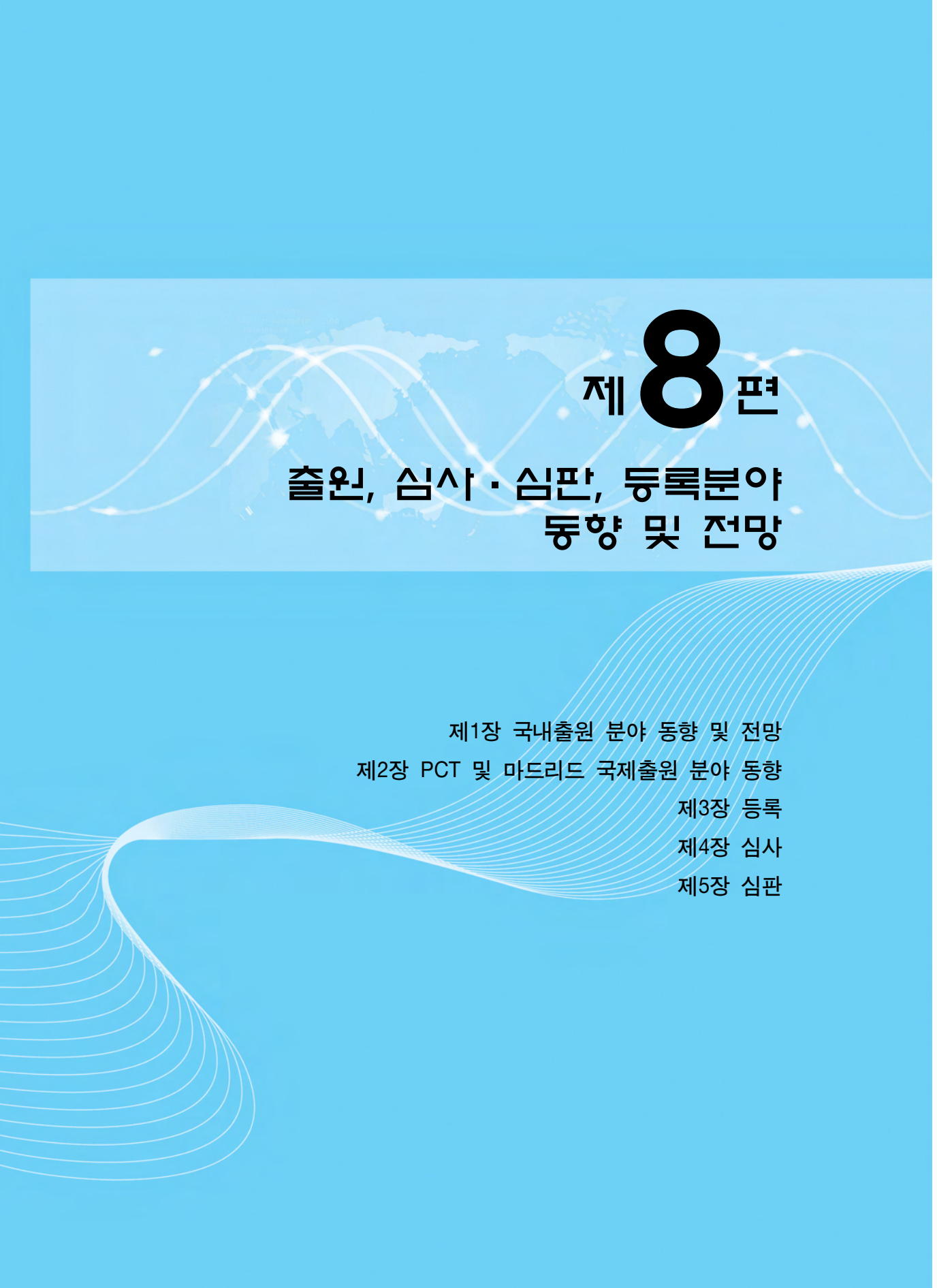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특허청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고객감동 경영, 성과주의 경영, 6시그마 경영 및 지식경영을 4대 혁신전략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수행 하였고, 조직 구성원이 핵심가치에 대해 이해하게 됨으로써 같은 방향의 기본적인 원칙 아래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듯 특허청의 핵심가치 내재화는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향후 각 부서를 중심으로 핵심가치를 기본으로 한 조직 문화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면, 특허청은 조직과 개인의 일체감 속에서 지식재산 주무부처의 위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지식재산부족 코리아
특허청이 함께 합니다





제 8 편

출원, 심사 · 심판, 등록분야 동향 및 전망

제1장 국내출원 분야 동향 및 전망

제2장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분야 동향

제3장 등록

제4장 심사

제5장 심판

국내출원 분야 동향 및 전망

제1절 산업재산권 전반

고객서비스국 출원서비스과 행정사무관 권도훈

1.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2008년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총 368,565건으로 2007년도의 380,203건에 비해 3.1%(11,638건)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권리별 출원을 변동은 특허출원 2.6% 감소, 실용신안등록출원 18.3% 감소, 디자인등록출원 3.6% 증가, 상표등록출원 3.9% 감소로 나타났다.

〈표 VIII-1-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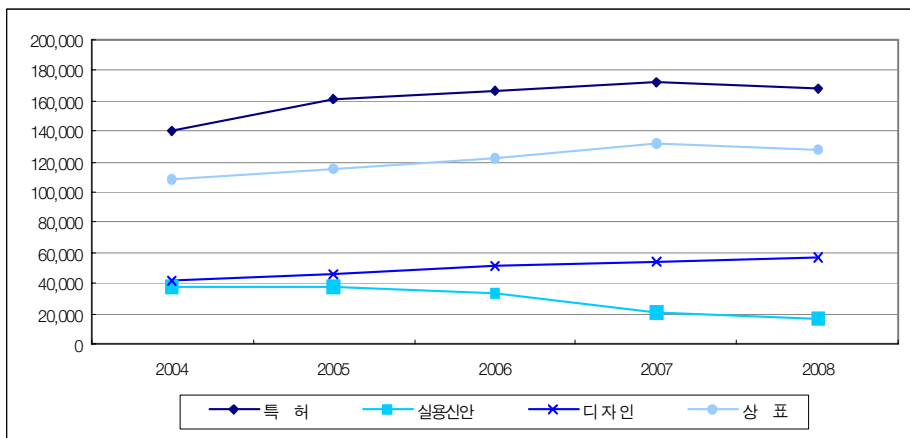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특 허	140,115	160,921	166,189	172,469	167,904
	(18.1)	(14.8)	(3.3)	(3.8)	(△2.6)
실용신안	37,753	37,175	32,908	21,084	17,226
	(△7.5)	(△1.5)	(△11.5)	(△35.9)	(△18.3)
디 자 인	41,184	45,222	51,039	54,362	56,296
	(9.5)	(9.8)	(12.9)	(6.5)	(3.6)
상 표	108,464	115,889	122,384	132,288	127,139
	(△0.4)	(6.8)	(5.6)	(8.1)	(△3.9)
계	327,516	359,207	372,520	380,203	368,565
	(7.0)	(9.7)	(3.7)	(2.1)	(△3.1)

- * 주 : 1. 출원수리기준임.
 2. ()는 전년대비 증감율임.
 3. 복수디자인, 다류상표출원의 경우 포함하지 아니함.
 4. '08년 잠정통계(이하 같음)

각 권리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디자인등록출원이 56,296건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하였으나 특허출원은 167,904건으로 전년대비 2.6%, 실용신안등록출원은 17,226건으로 전년대비 18.3%, 상표등록출원은 127,139건으로 전년대비 3.9% 각각 감소하였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연도별 출원추세는 2004년도 327천건, 2005년도 359천건, 2006년도 372천건, 2007년도 380천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8년도에는 368,565건이 출원되어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VIII-1-1〉 최근 5년간 출원추이



2. 외국인 출원현황

2008년도 외국인 총 출원은 66,058건으로 산업재산권 전체 출원 368,565건 대비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권리별로는 특허,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각각 5.2%, 5.5% 감소한 반면 디자인, 상표등록출원은 전년대비 각각 12.9%, 0.2%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출원은 전년대비 2.6% 감소하였다.

〈표 VIII-1-2〉 내·외국인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7		2008		전년대비 증감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특 허	내국인	128,701	74.6	126,397	75.3	△1.8
	외국인	43,768	25.4	41,507	24.7	△5.2
	계	172,469	100.0	167,904	100.0	△2.6
실용신안	내국인	20,632	97.9	16,799	97.5	△18.6
	외국인	452	2.1	427	2.5	△5.5
	계	21,084	100.0	17,226	100.0	△18.3
디 자 인	내국인	50,868	93.6	52,353	93.0	2.9
	외국인	3,494	6.4	3,943	7.0	12.9
	계	54,362	100.0	56,296	100.0	3.6
상 표	내국인	112,157	84.8	106,958	84.1	△4.6
	외국인	20,131	15.2	20,181	15.9	0.2
	계	132,288	100.0	127,139	100.0	△3.9
합 계	내국인	312,358	82.2	302,507	82.1	△3.2
	외국인	67,845	17.8	66,058	17.9	△2.6
	계	380,203	100.0	368,565	100.0	△3.1

3. 법인 및 개인 출원현황

2008년도 법인출원은 251,659으로 전년대비 2.9% 감소하였고, 개인출원은 116,906건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하였다.

법인의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이 전년대비 3.5% 증가한 반면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표출원은 전년대비 각각 4.0%, 14.6%, 2.2%가 감소하였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특허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이 전년대비 각각 3.2%, 3.6%가 증가한 반면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은 전년대비 각각 20.2%, 6.8% 감소하였다.

〈표 VIII-1-3〉 법인·개인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법 인			개 인			전 체		
	2007	2008	증가율	2007	2008	증가율	2007	2008	증가율
특 허	140,280 (81.3)	134,689 (80.2)	△4.0	32,189 (18.7)	33,215 (19.8)	3.2	172,469	167,904	△2.6
실 용 신 안	7,048 (33.4)	6,020 (34.9)	△14.6	14,036 (66.6)	11,206 (65.1)	△20.2	21,084	17,226	△18.3
디자인	27,446 (50.5)	28,406 (50.5)	3.5	26,916 (49.5)	27,890 (49.5)	3.6	54,362	56,296	3.6
상 표	84,443 (63.8)	82,544 (64.9)	△2.2	47,845 (36.2)	44,595 (35.1)	△6.8	132,288	127,139	△3.9
계	259,217 (68.2)	251,659 (68.3)	△2.9	120,986 (31.8)	116,906 (31.7)	△3.4	380,203	368,565	△3.1

* 주 : ()안은 법인·개인별 구성비임.

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2008년도 여성출원은 19,811건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하였고, 학생출원은 6,234건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하였다.

그동안 여성 및 학생 출원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여성출원의 경우 2007년도 이후 잠시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들의 사회진출 및 지위의 향상 등 환경 변화와 여성기업우수상품 및 발명품박람회, 전국순회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여성발명우수사례발표회 등 여성발명을 위한 특허청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여성출원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생출원은 학생발명 장려를 위한 출원료 등 각종 수수료의 감면, 우수발명 학생 대학특례입학, 학생발명활동을 위한 전국순회강연, 학생발명경진대회 등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식전환 및 발명기반조성을 통해 2008년도에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 VIII-1-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여 성	14,283 (3.1)	16,091 (12.6)	20,254 (25.9)	19,649 (△3.0)	19,811 (0.8)
학 생	2,900 (24.9)	3,753 (29.9)	4,858 (29.4)	5,637 (16.0)	6,234 (10.6)

- * 주 : 1.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학생출원은 감면 코드로 파악(상표 제외)

5. 대리인 유무별 출원현황

KIPO-Net에 의한 전자출원의 실시 및 인터넷을 통한 각종 민원서비스의 확충을 통하여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도 복잡한 출원절차를 보다 쉽고,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인을 통하지 않는 직접 출원의 비율이 2008년도에는 20.1%로 매년 미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출원시스템 기능개선, 콜센터 전문상담사를 통한 출원서류 작성 원격 지원 및 맞춤형 오류해결시스템을 포함한 출원 Expert System 구축 등 보다 내실있는 정책을 통해 향후 대리인을 통하지 않는 직접 출원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II-1-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단위 : 건,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대리인 출원	266,508 (81.4)	293,353 (81.7)	299,959 (80.5)	306,221 (80.5)	294,437 (79.9)
직접출원	61,008 (18.6)	65,854 (18.3)	72,561 (19.5)	73,982 (19.5)	74,128 (20.1)
계	327,516 (100)	359,207 (100)	372,520 (100)	380,203 (100)	368,565 (100)

- * 주 : ()안은 대리인 유무별 구성비임.

6.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EPO)의 특허출원 현황

산업재산권 주요 4개국의(소위 산업재산권의 3極 + 중국) 최근 5년간 출원동향을 특허 출원을 통하여 살펴보면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는 국가는 일본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출원건수가 413,643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중국, 유럽(EPO)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경우 개방화 및 산업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출원 증가를 보인 결과 2004년 이후 유럽(EPO)을 앞섰고, 일본의 출원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일본과도 대등한 출원현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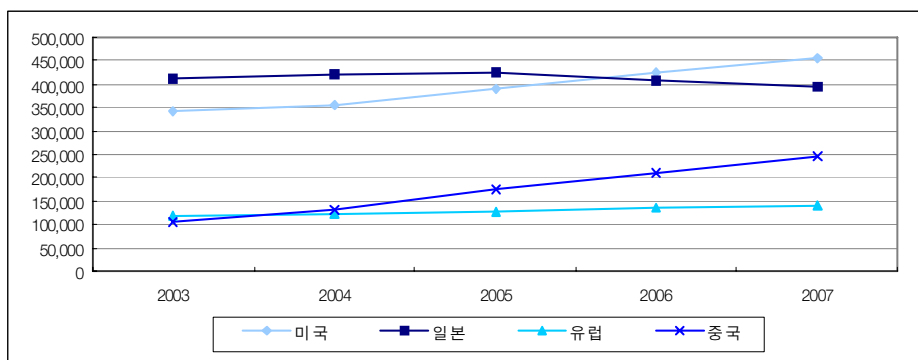
〈표 VIII-1-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미 국	342,441 (2.4)	356,943 (4.2)	390,733 (9.5)	425,966 (9.0)	456,154 (7.1)
일 본	413,093 (△2.1)	423,081 (2.4)	427,078 (0.9)	408,674 (△4.3)	396,291 (△3.0)
중 국	105,317 (31.3)	130,384 (23.8)	173,327 (32.9)	210,501 (21.4)	245,161 (16.5)
유 럽	116,604 (9.8)	123,701 (6.1)	128,713 (4.1)	135,231 (5.1)	140,763 (4.1)

- * 주 : 1. WIPO 홈페이지 참고
2. ()는 전년대비 증가율

〈그림 VIII-1-2〉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추이



7. 우리나라의 주요국(미국, 일본, EPO, 중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앞에서 산업재산권 주요 국가들의 출원동향을 특허 출원추이를 통하여 소개하였다. 여기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표VIII-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주요국에 대한 최근 5년간 특허 출원 추이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EPO)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증가율은 각각 24.1%, 17.2%, 25.4%로 자국내의 증가율인 6.4%, △1.2%, 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가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출원 증가율을 보인 것은 중국으로서 그 증가율이 39.5%에 달하고 있다.

〈표 VIII-1-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평 균 증가율
미국	한 국 인 출 원	10,411 (31.1)	13,646 (31.1)	17,217 (26.2)	21,685 (26.0)	22,976 (6.0)	(24.1)
	미 국 전 체 출원	342,441 (2.4)	356,943 (4.2)	390,733 (9.5)	425,966 (9.0)	456,154 (7.1)	(6.4)
일본	한 국 인 출 원	3,745 (19.7)	5,781 (54.4)	6,845 (18.4)	7,220 (5.5)	6,347 (△12.1)	(17.2)
	일 본 전 체 출원	413,093 (△2.1)	423,081 (2.4)	427,078 (0.9)	408,674 (△4.3)	396,291 (△3.0)	(△1.2)
유럽 (EPO)	한 국 인 출 원	4,328 (47.7)	5,858 (35.4)	8,131 (38.9)	9,187 (13.0)	8,467 (△7.8)	(25.4)
	유럽(EPO) 전 체 출원	116,604 (9.8)	123,701 (6.1)	128,713 (4.1)	135,231 (5.1)	140,763 (4.1)	(5.8)
중국	한 국 인 출 원	1,473 (41.9)	2,871 (94.9)	3,854 (34.2)	4,596 (19.3)	4,934 (7.4)	(39.5)
	중 국 전 체 출원	105,317 (31.3)	130,384 (23.8)	173,327 (32.9)	210,501 (21.4)	245,161 (16.5)	(25.0)

* 주 : 1. WIPO홈페이지 참고
2. ()는 전년대비 증가율

제2절 권리별·산업부문별 출원

고객서비스국 출원서비스과 행정사무관 권도훈

1.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특허출원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에서 내·외국인 모두 전기·통신 분야의 출원이 각 40.5%, 42.6%로서 전체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 기계분야의 출원비율이 15.6%로 외국인의 동 분야 출원비율 11.3%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화학분야의 출원비율이 18.5%로 내국인의 동 분야 출원비율 7.0%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점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실용신안출원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에서 내국인은 기계분야의 출원이 22.1%로 전기·통신분야 18.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통신분야의 출원이 38.4%로 기계분야의 출원비율 20.1%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VIII-1-8〉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현황

(단위 : 건, %)

권리	국적	기계	화학	섬유	전기	토목	채광	음료	사무	농림	잡화	기타	계
특 허	내국	19,663 (15.6)	8,795 (7.0)	1,913 (1.5)	51,131 (40.5)	8,139 (6.4)	2,848 (2.3)	8,300 (6.6)	814 (0.6)	1,689 (1.3)	5,020 (4.0)	18,085 (14.3)	126,397 (100)
	외국	4,683 (11.3)	7,682 (18.5)	435 (1.0)	17,699 (42.6)	528 (1.3)	1,297 (3.1)	3,517 (8.5)	263 (0.6)	137 (0.3)	574 (1.4)	4,692 (11.3)	41,507 (100)
	소계	24,346 (14.5)	16,477 (9.8)	2,348 (1.4)	68,830 (41.0)	8,667 (5.2)	4,145 (2.5)	11,817 (7.0)	1,077 (0.6)	1,826 (1.1)	5,594 (3.3)	22,777 (13.6)	167,904 (100)
실 용 신 안	내국	3,718 (22.1)	375 (2.2)	503 (3.0)	3,129 (18.6)	2,005 (11.9)	247 (1.5)	753 (4.5)	456 (2.7)	673 (4.0)	3,172 (18.9)	1,768 (10.5)	16,799 (100)
	외국	86 (20.1)	7 (1.6)	15 (3.5)	164 (38.4)	22 (5.2)	4 (0.9)	20 (4.7)	3 (0.7)	2 (0.5)	70 (16.4)	34 (8.0)	427 (100)
	소계	3,804 (22.1)	382 (2.2)	518 (3.0)	3,293 (19.1)	2,027 (11.8)	251 (1.5)	773 (4.5)	459 (2.7)	675 (3.9)	3,242 (18.8)	1,802 (10.5)	17,226 (100)
합 계	내국	23,381 (16.3)	9,170 (6.4)	2,416 (1.7)	54,260 (37.9)	10,144 (7.1)	3,095 (2.2)	9,053 (6.3)	1,270 (0.9)	2,362 (1.6)	8,192 (5.7)	19,853 (13.9)	143,196 (100)
	외국	4,769 (11.4)	7,689 (18.3)	450 (1.1)	17,863 (42.6)	550 (1.3)	1,301 (3.1)	3,537 (8.4)	266 (0.6)	139 (0.3)	644 (1.5)	4,726 (11.3)	41,934 (100)
	소계	28,150 (15.2)	16,859 (9.1)	2,866 (1.5)	72,123 (39.0)	10,694 (5.8)	4,396 (2.4)	12,590 (6.8)	1,536 (0.8)	2,501 (1.4)	8,836 (4.8)	24,579 (13.3)	185,130 (100)

* 주 : ()는 비율임.

2. 디자인등록출원

2008년도 디자인등록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주택설비용품이 15.1%, 토목 및 건축용품 14.1%,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이 10.2%로 비교적 높은 출원비율을 보였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기·전자·통신·기계기구분야의 출원비율이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산업기계분야가 9.4%, 생활용품 8.3%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출원율을 나타냈다.

〈표 VIII-1-9〉 산업부문별 디자인등록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내 국 인		외 국 인		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제조식품 및 기호품	115	0.2	3	0.1	118	0.2
의복 및 신변품	4,966	9.5	301	7.6	5,267	9.4
생활용품	4,823	9.2	326	8.3	5,149	9.1
주택설비용품	7,923	15.1	247	6.3	8,170	14.5
취미·오락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1,074	2.1	220	5.6	1,294	2.3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5,318	10.2	272	6.9	5,590	9.9
운수 및 운반기계	1,194	2.3	253	6.4	1,447	2.6
전기, 전자 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3,907	7.5	1,048	26.6	4,955	8.8
일반기계기구	1,212	2.3	306	7.8	1,518	2.7
산업용기계기구	1,737	3.3	370	9.4	2,107	3.7
토목, 건축용품	7,360	14.1	41	1.0	7,401	13.1
기타 기초제품	4,546	8.7	298	7.6	4,844	8.6
기 타	8,178	15.6	258	6.5	8,436	15.0
계	52,353	100	3,943	100	56,296	100

3. 상표등록출원

NICE분류에 따른 2008년도 산업부문별 상표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서비스업이 29.7%, 과자·식품·음료류가 11.5%, 화학품·약제·화장품류가 10.3%, 기계·전기기계·수송기계기구류가 9.6%로 비교적 높은 출원비율을 보였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화학품·약제·화장품류가 17.3%, 기계·전기기계·수송기계기구류가 17.0%, 서비스업이 9.7% 순으로 비교적 높은 출원율을 나타냈다.

〈표 VIII-1-10〉 NICE분류별 상표등록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화학품, 약제, 화장품	11,051	10.3	3,487	17.3	14,538	11.4
일반금속재, 건축재료, 수동이기류, 비금속제건축재료	2,147	2.0	336	1.7	2,483	2.0
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기구	10,318	9.6	3,433	17.0	13,751	10.8
섬유, 섬유제품, 의류	7,898	7.4	1,148	5.7	9,046	7.1
가구, 깔개류, 주방용품	3,025	2.8	310	1.5	3,335	2.6
귀금속, 시계, 피혁, 가방류	3,017	2.8	655	3.2	3,672	2.9
악기, 완구, 운동구류, 담배	2,272	2.1	772	3.8	3,044	2.4
종이, 문방구, 인쇄물	3,349	3.1	549	2.7	3,898	3.1
과자, 식품, 음료	12,337	11.5	1,392	6.9	13,729	10.8
고무, 플라스틱재료	347	0.3	131	0.6	478	0.4
서비스업	31,738	29.7	1,967	9.7	33,705	26.5
다류 지정	18,575	17.4	5,996	29.7	24,571	19.3
기타	884	0.8	5	0.0	889	0.7
계	106,958	100	20,181	100	127,139	100

* 주 : 다류 지정은 2개 이상의 NICE분류를 지정한 건

제3절 내·외국인별 출원

고객서비스국 출원서비스과 행정사무관 권도훈

1. 내국인 출원현황

가. 지역별 출원현황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내국인 출원비율은 2007년도 72.8%, 2008년도 72.3%로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중요성 인식, 전자출원의 실시 및 국토 균형발전 정책 등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출원집중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II-1-11〉 내국인 지역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점유율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서울	44,245	43,502	5,649	4,736	19,028	19,785	59,653	56,381	128,575	124,404	41.2	41.1
부산	3,238	3,377	1,205	884	2,288	2,200	3,999	3,732	10,730	10,193	3.4	3.4
대구	2,915	3,207	1,123	871	2,620	2,868	3,144	3,040	9,802	9,986	3.1	3.3
인천	4,911	5,024	1,517	1,232	2,777	3,040	4,073	3,890	13,278	13,186	4.3	4.4
광주	2,320	2,313	359	287	656	545	1,058	1,040	4,393	4,185	1.4	1.4
대전	9,109	9,096	1,146	940	671	1,034	2,312	2,256	13,238	13,326	4.2	4.4
울산	1,070	1,168	214	216	355	372	521	572	2,160	2,328	0.7	0.8
경기	41,598	38,574	5,876	4,789	15,950	16,359	21,966	21,448	85,390	81,170	27.3	26.8
강원	1,211	1,301	277	185	523	521	1,486	1,486	3,497	3,493	1.1	1.2
충북	1,843	2,148	431	387	808	876	1,870	2,004	4,952	5,415	1.6	1.8
충남	4,612	4,375	708	533	1,432	1,200	3,443	3,001	10,195	9,109	3.3	3.0
전북	1,634	1,722	376	333	669	664	1,467	1,485	4,146	4,204	1.3	1.4
전남	1,330	1,344	219	205	596	457	1,351	1,335	3,496	3,341	1.1	1.1
경북	4,678	4,738	620	493	1,041	961	2,578	2,280	8,917	8,472	2.9	2.8
경남	3,604	3,900	835	600	1,298	1,263	2,556	1,982	8,293	7,745	2.7	2.6
제주	271	402	57	49	129	106	431	524	888	1,081	0.3	0.4
기타	112	206	20	59	27	102	249	502	408	869	0.1	0.3
계	128,701	126,397	20,632	16,799	50,868	52,353	112,157	106,958	312,358	302,507	100	100

나. 다출원 업체별 출원현황

2008년도 국내 다출원 기업 중 상위 10대 업체의 출원건수는 총 33,314건으로 내국인 총 출원의 11.0%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10대 다출원 업체의 출원건수가 26,726건으로 21.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출원 업체를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삼성전자, 엘지전자,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자동차가 각각 1~4위를 차지하였다.

〈표 VIII-1-12〉 2008년도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현황

(단위 : 건)

순위	업 체 명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합계
1	삼성전자	7,294	59	958	482	8,793
2	엘지전자	5,683	-	654	487	6,824
3	하이닉스반도체	3,718	48	-	12	3,778
4	현대자동차	3,242	-	114	186	3,542
5	아모레퍼시픽	277	135	655	1,090	2,157
6	엘지화학	1,143	31	824	39	2,037
7	동부하이텍	1,573	-	-	112	1,685
8	삼성전기	1,608	-	36	6	1,650
9	에스케이텔레콤	851	1	13	646	1,511
10	엘지디스플레이	1,337	-	-	-	1,337
소 계 (내국인 출원중 점유율)		26,726 (21.1)	274 (1.6)	3,254 (6.2)	3,060 (2.9)	33,314 (11.0)
내국인 출원 합계		126,397	16,799	52,353	106,958	302,507

2. 외국인 출원현황

가. 출원인 국적별 출원현황

2008년도 다출원 국가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 이어 일본과 미국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고, 또한 점유율에 있어서도 일본과 미국이 외국인(법인포함) 전체출원의 절반 이상인 65.9%를 차지하여 여전히 강세를 보였으며, 주요 상위 다출원 국가의 순위에서 스위스가 5위로 진입하고, 네덜란드가 6위로 밀려났다.

권리별로는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부분에서는 일본이, 상표부분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미국·독일 등 상위 3개국이 외국인 전체 출원의 73.1%를 차지하고 있다.

〈표 VIII-1-13〉 외국인(법인)인 국적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순위	구 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계		2007 순위
							건수	점유율	
1	일본	2007	18,100	31	1,652	4,668	24,451	36.0	1
		2008	16,887	40	1,685	4,532	23,144	35.0	
2	미국	2007	12,103	37	691	7,459	20,290	29.9	2
		2008	11,830	27	1,063	7,512	20,432	30.9	
3	독일	2007	3,577	11	245	1,287	5,120	7.5	3
		2008	3,396	4	260	1,088	4,748	7.2	
4	프랑스	2007	1,371	1	136	842	2,350	3.5	4
		2008	1,387	1	117	922	2,427	3.7	
5	스위스	2007	1,226	-	105	775	2,106	3.1	6
		2008	1,159	-	99	843	2,101	3.2	
6	네덜란드	2007	1,549	-	95	435	2,079	3.1	5
		2008	1,217	2	94	466	1,779	2.7	
7	영국	2007	733	1	64	827	1,625	2.4	7
		2008	706	-	102	881	1,689	2.6	
소 계		2007	38,659	81	2,988	16,293	58,021	85.5	
		2008	36,582	74	3,420	16,244	56,320	85.3	
기타국		2007	5,109	371	506	3,838	9,823	14.5	
		2008	4,925	353	523	3,937	9,738	14.7	
계		2007	43,768	452	3,494	20,131	67,845	100.0	
		2008	41,507	427	3,943	20,181	66,058	100.0	

나.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

외국인 10대 다출원업체에는 일본회사가 7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2개사, 핀란드 1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다출원 순위를 보면 미국의 쉘컴이 1위, 일본의 소니가 2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3위, 일본의 파나소닉, 후지쯔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

〈표 VIII-1-14〉 외국인10대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

(단위 : 건)

순위	출원인	국적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합계
1	쉘컴인코포레이티드	미국	931	-	-	37	968
2	소니	일본	728	1	65	91	885
3	마이크로소프트코포레이션	미국	619	-	117	45	781
4	파나소닉	일본	506	1	46	25	578
5	후지쯔	일본	466	-	5	12	483
6	도요타지도샤	일본	378	-	79	15	472
7	도쿄엘렉트론	일본	433	1	19	-	453
8	노키아코포레이션	핀란드	386	-	64	-	450
9	캐논	일본	416	-	-	9	425
10	후지필름	일본	389	-	4	18	411

제4절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

고객서비스국 출원서비스과 행정사무관 권도훈

1. 공공기관 특허출원현황

가. 공공기관 특허출원현황

공공기관의 특허출원은 IMF 경제위기 이후 2001년부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에는 전년대비 0.1%로 소폭 상승하였다.

〈표 VIII-1-15〉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공공기관 특허출원	3,185	3,479	4,453	6,227	7,222	7,231
전년대비 증가율	19.9	9.2	28.0	39.8	16.0	0.1

나. 공공기관 다출원 순위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공공기관 중에서 다출원 1위 기관은 표〈VIII-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034건을 출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출원의 4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포항 산업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II-1-16〉 공공기관 다출원 순위

(단위 : 건,%)

순 위	기 관 명	1990~2008 출원건	특허점유율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034	40.7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169	7.4
3	한국과학기술원	3,477	6.1
4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3,179	5.6
5	한국화학연구원	2,383	4.2
기 타	기 타	20,364	36.0
합 계	-	56,606	100.0

2. 대학 특허출원현황

가. 대학 특허출원현황

대학의 특허출원은 매년 증가하여 2008년에는 7,319건으로 전년대비 20.7%가 증가하였으나, 아직 전체 특허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대학에서의 연구결과가 사업화로 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대학의 연구실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학술지 기고 논문에 치중하는 결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II-1-17〉 대학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대학 특허출원	1,692	1,962	2,905	4,131	6,063	7,319
전년대비증가율	76.8	16.0	48.1	42.2	46.8	20.7

나. 대학의 다출원 순위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대학에서 다출원 1위는 2,215건을 출원한 서울대학교로 전체 대학출원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위 5위까지의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29.0%를 보여주고 있어 일부 이공계 대학으로 지명도가 높은 대학에 특허출원이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VIII-1-18〉 대학 다출원 순위

(단위 : 건, %)

순 위	기관명	1990~2008 출원건	점유율
1	서울대학교	2,215	9.0
2	고려대학교	1,390	5.6
3	연세대학교	1,305	5.3
4	한양대학교	1,266	5.1
5	포항공과대학교	988	4.0
기 타	기타	17,522	71.0
합 계	-	24,686	100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분야 동향

제1절 세계 PCT 국제출원

고객서비스국 국제출원과 행정사무관 한상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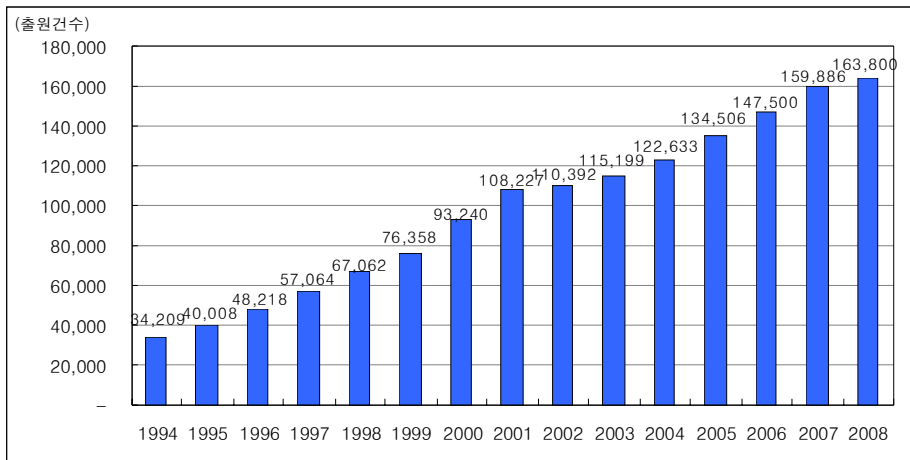
1. 2008년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WIPO에서 발표한 자료(잠정)에 따르면 2008년 세계 PCT 국제출원 총 건수는 163,800건으로 2007년(159,886건)에 비해 3,914건(2.4%)이 증가하였다. 이중 우리나라의 출원건수는 2007년(7,061건)에 비해 847건(12.0%)이 늘어난 7,908건으로 4.8%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7년과 같이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PCT 출원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세계 PCT 국제출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2008년 세계 PCT 국제출원의 32.7%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이 17.5%, 독일이 11.3%로 그 뒤를 이었다. PCT 국제출원 상위 10개국 중에서 2007년에 비해 출원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나라는 스웨덴으로 12.5%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이 우리나라 12.0%, 그리고 중국이 11.9%로 그 뒤를 이었다.

2008년 세계 PCT 다출원 기업별 순위에서는 중국의 화웨이(HUAWEI)가 1,737건으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2007년에 1위를 차지하였던 일본의 파나소닉이 1,729건으로 2위, 네덜란드의 필립스가 3위(1,551건)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의 LG전자가 8위(992건)를 차지하여 처음으로 10위권 내로 진입하였고, 삼성전자는 19위(639건)를 기록하였다.

〈그림 VIII-2-1〉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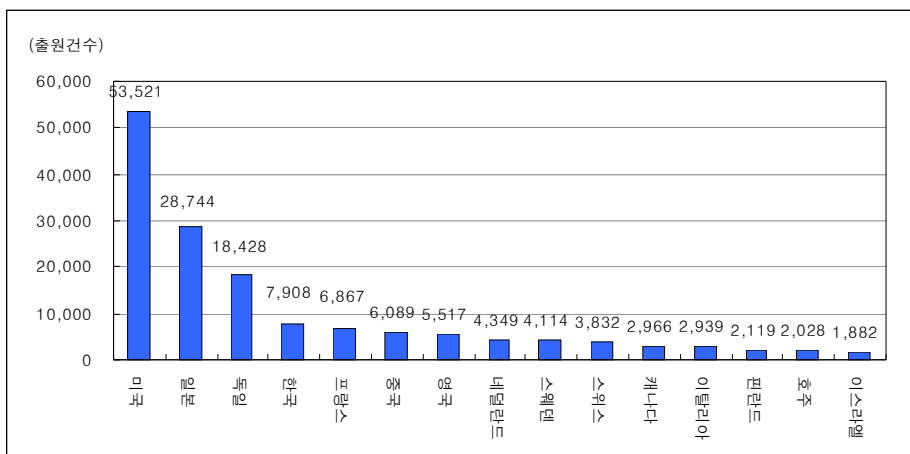


* 자료출처 : 2006년 이전은 특허청 발간 「2008 지식재산 백서」

2007년 이후는 2009. 01.27 WIPO 발표 「Latest News」

* WIPO 통계는 잠정적으로 발표한 통계이므로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사무국 접수 일 기준이므로 한국특허청 접수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VIII-2-2〉 2008년 세계 PCT 다출원국 순위



* 자료출처 : 2009. 1. 27 WIPO 발표 「Latest News」

* WIPO 통계는 잠정적으로 발표한 통계이므로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사무국 접수 일 기준이므로 한국특허청 접수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세계 PCT 국제출원 향후 전망

위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세계 PCT 국제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08년 말 현재 PCT 가입국도 139개국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WIPO에서도 인식하고 있듯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특허출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2008년 증가율을 보더라도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출원국인 미국이 2007년에 비해 오히려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최근의 경제상황이 PCT 국제출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9년 세계 PCT 국제출원은 증가추세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계속 확대되고, PCT 제도 또한 출원인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PCT를 이용한 국제출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한국특허청 PCT 국제출원

고객서비스국 국제출원과 행정사무관 한상규

1.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현황 및 전망

가. 내국인의 PCT를 통한 해외출원(수리관청)

2008년에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수리관청) PCT 국제출원은 7,913건으로 2007년의 7,063건에 비해 850건이 늘어난 12.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2008년 세계 PCT 국제출원 증가율 2.4%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세계 최고수준의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으며 2007년에 이어 세계 4위의 PCT 국제출원국의 지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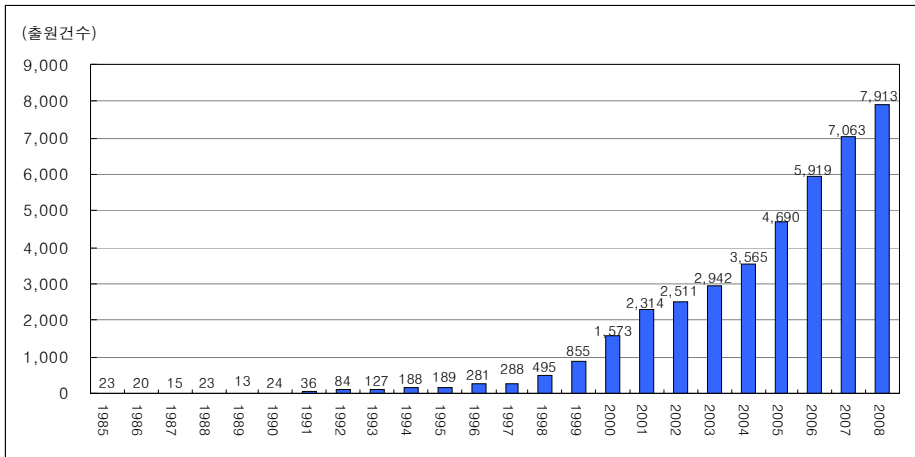
이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해외 특허권 획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PCT 제도가 가지는 장점에 대한 이해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 우리 특허청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수준 높은 역할 수행, PCT 국제출원 제도 설명회 개최 및 PCT 전용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등이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VIII-2-1〉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건수

(단위 : 건, %)

구분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원건수	855	1,573	2,314	2,511	2,942	3,565	4,690	5,919	7,063	7,913
증가율	72.7	84.0	47.1	8.5	17.2	21.2	31.6	26.2	19.3	12.0

〈그림 VIII-2-3〉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현황



* 자료출처 : 특허청 특허통계시스템

* 국제사무국 접수일 기준인 WIPO 통계와 우리나라 접수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나. 국내 10대 PCT 다출원 법인(기업) 현황

2008년 국내 PCT 다출원 법인(기업)별 현황을 보면, 상위 10대 다출원 법인의 출원건수가 2,935건으로 총 출원건수의 37.1%를 차지하여 2007년의 36.3%, 2006년의 35.4%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 총 출원건수(6,275건)에서도 상위 10대 다출원 법인의 출원건수 비율이 46.8%로 2007년의 46.5%, 2006년의 46.4%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위 10대 법인 중에는 일반 기업이 7개, 연구소(원)가 2개, 대학이 1개 속해 있고 LG전자는 2008년 1,173건을 출원하여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7년에 10위권 밖에 있었던 SK텔레콤이 새로 9위로 진입하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 2007년에도 10위권 내에 있었던 법인들이며 이중 1위부터 4위까지는 2007년 순위와 변동이 없다.

〈표 VIII-2-2〉 국내 다출원 법인(기업)별 PCT 국제출원 현황

(단위 : 건)

'08년 순위	'07년 순위	법인명	2004	2005	2006	2007	2008
1	1	(주)LG전자	322	432	691	895	1,173
2	2	삼성전자(주)	405	463	549	616	659
3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182	258	427	485
4	4	(주)LG화학	104	211	319	282	248
5	8	LG 이노텍	*	*	*	59	85
6	1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	46	63
7	7	제일모직(주)	19	32	58	60	59
8	5	서울대학교	*	*	*	68	57
9	6	포스코	*	*	44	62	53
9	*	(주)SK텔레콤	*	*	*	*	53
계						2,515	2,973

* 자료출처 : 2007년 이전은 특허청 발간 「2008 지식재산 백서」, 2008년은 특허청 특허 통계시스템

* 「*」 표시는 2007년 이전 10위 미진입 출원 법인

다. 개인 대 법인의 PCT 국제출원 현황

2004년 이후 개인의 PCT 국제출원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법인의 출원 비율은 계속하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PCT 제도가 아직 개인에게는 언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과, 비용 측면에서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9년 1월 1일부터는 한국어로도 모든 PCT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허청의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도 계속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개인도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PCT 제도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할 수가 있다.

〈표 VIII-2-3〉 개인 대 법인의 PCT 국제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개 인 (비율)	1,087 (30.5)	1,204 (25.7)	1,404 (23.7)	1,553 (22.0)	1,638 (20.7)
법 인 (비율)	2,478 (69.5)	3,486 (74.3)	4,515 (76.3)	5,510 (78.0)	6,275 (79.3)
계	3,565	4,690	5,919	7,063	7,913

* 자료출처 : 2007년 이전은 특허청 발간 「2008 지식재산 백서」, 2008년은 특허청 특허 통계시스템

라. 기술 분야별 PCT 국제출원 현황

2008년 IPC분류에 따른 기술분야별 PCT 국제출원 현황을 보면 전기통신기술 분야가 1,853건(23.4%)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산술논리연산·계산·계수 분야, 기본적인 전기소자 분야, 위생학·의학·수의학 분야, 측정·시험 분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II-2-4〉 2008년 기술 분야별 PCT 국제출원 현황

(단위 : 건, %)

순위	기 술 분 야	IPC	건수	점유율
1	전기통신기술	H04	1,853	23.4
2	산술논리연산, 계산, 계수	G06	660	8.3
3	기본적 전기소자	H01	625	7.9
4	위생학, 의학 또는 수의학	A61	484	6.1
5	측정, 시험	G01	242	3.1
6	유기화학	C07	217	2.7
7	생화학, 맥주, 주정, 포도주, 식초, 미생물학, 효소학, 돌연변이 또는 유전자공학	C12	187	2.4
8	광학	G02	181	2.3
9	유기 고분자 화합물, 그 제조 또는 화학적 처리, 그에 따른 조성물	C08	159	2.0
10	가구, 가정용품 또는 가정용 설비, 커피 뿜는 기구, 향신료 뿜는 기구, 진공청소기 일반	A47	117	1.5
	기 타		3,188	40.3
	합 계		7,913	100.0

* 자료출처 : 특허청 특허통계시스템

* IPC분류가 완료되지 않은 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동 가능성이 있음

마. PCT-EASY(FD출원) 및 E-filing(전자출원)에 의한 PCT 국제출원 현황

PCT-EASY에 의한 PCT 국제출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E-filing에 의한 온라인 출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IT 환경이나 온라인 출원시스템이 상당 수준 갖춰져 있어 출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PCT-EASY(Electronic Application System)로 출원할 경우에는 국제출원수수료 중 100 스위스프랑(약 121,000원)을, E-filing으로 출원할 경우에는 300스위스프랑(약 364,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우리나라 서면출원 비율은 전체 PCT 국제출원 중 2.3%로 2007년 세계 서면출원 비율 32.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출원 비중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VIII-2-5〉 매체별 PCT 국제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On-Line (비율)	- (-)	2,965 (63.2)	4,793 (81.0)	6,094 (86.3)	6,940 (87.7)
FD(PCT-EASY) (비율)	1,309 (36.7)	829 (17.7)	687 (11.6)	713 (10.1)	775 (9.8)
기타(서면 등) (비율)	2,256 (63.3)	896 (19.1)	439 (7.4)	256 (3.6)	198 (2.5)
계	3,565	4,690	5,919	7,063	7,913

* 자료출처 : 특허청 특허통계시스템

* 2005. 2월부터 온라인출원 시행

바.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2008년 PCT 국제출원 중 한국어출원은 4,982건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하였고 영어출원은 2,928건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어 출원은 3건을 기록

하였다. 최근 수년간 한국어출원은 60% 내외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200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한국어로 작성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우선일로부터 14개월 내에 영어번역문을 제출하던 절차도 사라지게 됨으로써 앞으로 한국어출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출원인은 영어로 출원하고 싶을 경우에는 계속 영어로 출원할 수 있으나, 영어로 출원한 경우에는 영어로 국제공개가 되고 한국어로 출원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국제공개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표 VIII-2-6〉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어 (비율)	2,088 (58.6)	2,856 (60.9)	3,714 (62.7)	4,558 (64.5)	4,982 (63.0)
영 어 (비율)	1,475 (41.4)	1,833 (39.1)	2,204 (37.2)	2,505 (35.5)	2,928 (37.0)
일본어 (비율)	2 (-)	1 (-)	1 (-)	- (-)	3 (-)
계	3,565	4,690	5,919	7,063	7,913

* 자료출처 : 특허청 특허통계시스템

사. 향후 전망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연평균 증가율은 28.0%였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2.1%였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PCT 국제출원이 평균 67.9%나 대폭 증가한 데 원인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에도 크게 못 미치는 12.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08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미국의 출원건수가 1.0% 감소하고, 다른 PCT 다출원국의 증가율도 크게 둔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고무적인 증가율을 기록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9년에는 지난 수년간의 증가추세를 이어가기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비록 한국어출원 시행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는 하나 PCT 특허출원이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재의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2009년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은 2008년 수준과 비슷한 8,000여 건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현황 및 전망

가. 한국특허청에 대한 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 청구 현황

우리 특허청은 1997년 PCT 총회에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1999년 12월부터 동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미국을 비롯한 9개국 특허청과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 출원인의 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 업무를 수행해 주고 있다.

※ 업무협정 체결국 : 필리핀(2001), 베트남(2002), 인도네시아(2004), 몽골(2005), 뉴질랜드(2005), 싱가포르(2006), 말레이시아(2006), 미국(2006), 스리랑카(2008), 호주(2009)

2008년에 한국특허청 또는 한국특허청과 국제조사기관 업무협정을 맺은 외국 수리관청(국제사무국 포함)에 출원한 PCT 국제출원 중 한국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출원은 총 18,822건으로, 이는 2007년의 8,924건에 비해 무려 110.9%나 증가한 수치이다. 주된 증가원인은 미국 출원인이 한국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건수가 2007년에 2,735건에서 2008년에 11,375건으로 315.9%나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조사가 비용 대비 높은 품질 수준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VIII-2-7〉 PCT 국제조사용사본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대한민국(KR) (비율)	3,098 (99.6)	3,850 (99.5)	5,163 (87.5)	6,071 (68.0)	7,165 (38.1)
기타국가 (비율)	11 (0.4)	20 (0.5)	735 (12.5)	2,853 (32.0)	11,657 (61.9)
계	3,109	3,870	5,898	8,924	18,822

* 자료출처 : 특허청 특허통계시스템

2008년 한국특허청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358건으로 2007년의 510건에 비해 29.8% 감소하였으나, 이는 2004년부터 국제조사기관에서도 특허성 여부에 대한 견해서를 발행함에 따라 출원인들이 이것으로 국제예비심사를 대신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최근 수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표 VIII-2-8〉 PCT 국제예비심사 청구 현황

(단위 : 건, %)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접수	928	655	599	510	358
증 가 율	△14.0	△29.4	△8.5	△14.9	△29.8

* 자료출처 : 특허청 특허통계시스템

나. 우리나라 출원인의 국제조사기관 지정 현황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한 출원인은 한국특허청(ISA/KR) 외에 오스트리아특허청(ISA/AT), 호주특허청(ISA/AU) 및 일본특허청(ISA/JP)을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지정하여 국제조사를 받을 수 있다.

2008년에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한 PCT 국제출원에서 한국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비율은 95.9%이고 외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비율은 4.1%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한국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언어적으로 한국특허청 심사관과는 의견교환이 편리하고, 국제조사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국제조사 품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VIII-2-9〉 PCT 국제조사기관 지정 현황

(단위 : 건, %)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대한민국(KR) (비율)	3,195 (89.6)	4,210 (89.8)	5,370 (90.7)	6,571 (93.0)	7,590 (95.9)
기타국가 (비율)	370 (10.4)	480 (10.2)	549 (9.3)	492 (7.0)	323 (4.1)
계	3,565	4,690	5,919	7,063	7,913

* 자료출처 : 특허청 특허통계시스템

다. 향후 전망

우리 특허청은 스리랑카 및 호주와 추가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2009년 3월 1일부터 이들 국가 출원인의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호주의 PCT 출원건수는 2008년도 기준으로 세계 14위이고 상대적으로 국제조사료도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많은 호주 출원인들이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부터 한국의 국제조사료가 인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미국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국제조사 품질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 출원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지정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한 PCT 국제출원에서 외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비율은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출원인들이 외국의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호했던 오스트리아의 경우 한국어출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조사료와 큰 차이가 없고 의사소통이나 절차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출원인들은 현재 처럼 대부분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3. PCT를 통한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동향

가. '08년도 외국인의 PCT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출원)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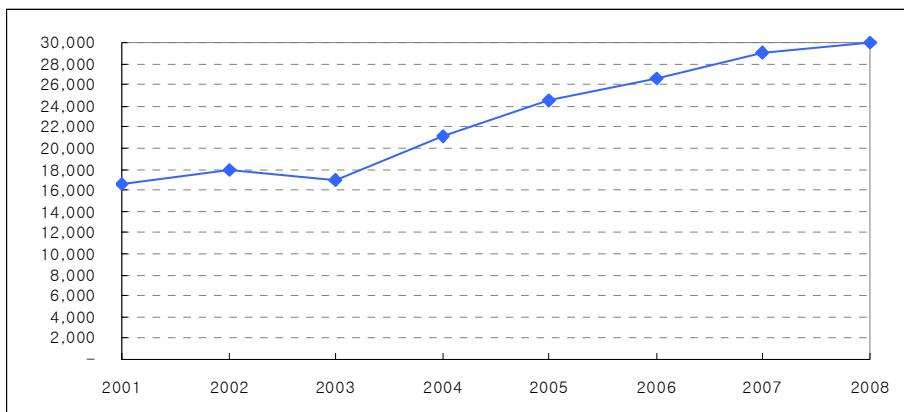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은 최근 8년간 9.3%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왔다. 2008년도의 국내단계 진입건수는 30,049건으로, 이는 국내 특허/실용신안출원건(188,609건)의 15.9%에 해당된다.

〈표 VIII-2-10〉 외국인의 PCT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 건수

(단위 : 건, %)

분석 \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출원건수	16,690	17,874	16,981	21,183	24,482	26,649	29,045	30,049
증감율(%)	10.3	7.1	△5.0	24.7	15.6	8.9	9.0	3.5

〈그림 VIII-2-4〉 외국인의 PCT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 현황



나. 최근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 추세 및 '09전망

2000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해 오던 PCT 지정관청 국내단계 진입 건수는 2003년에 $\Delta 5.0\%$ 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3.03.12부터 국내단계 진입기간이 우선일부터 30개월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우선일부터 20개월 이내에 국내단계를 진입해야 할 출원건들이 10개월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지연된 출원건들이 2004년 이후에 국내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2004년과 2005년에는 반대로 각각 24.7%와 15.6%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8.9%와 9.0%로 국내단계 진입 추세가 안정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3.5%로 평년수준보다 감소 되었다. 2008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화된 세계경제의 침체가 향후에도 지속 된다고 볼 때 2009년에는 전년도 3만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제3절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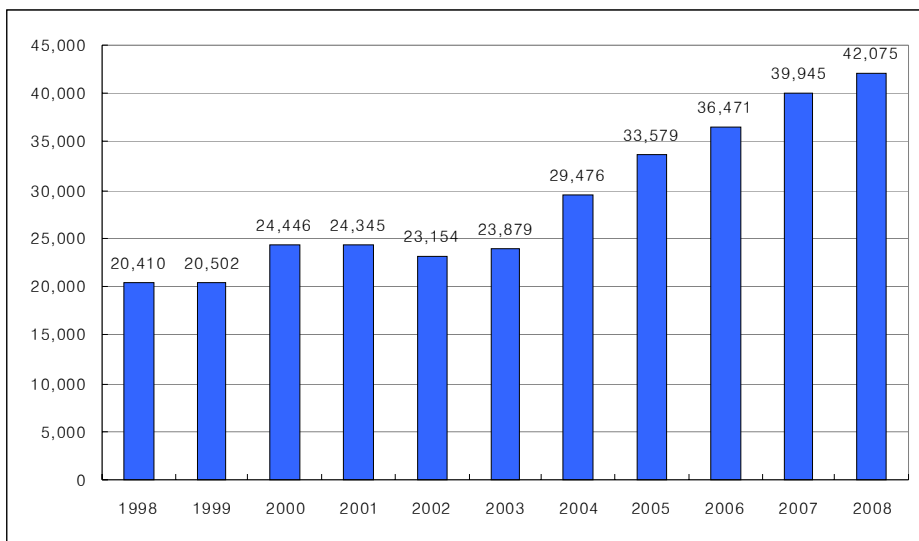
고객서비스국 국제출원과 5급 이기영

1. 2008년 세계 국제상표출원 현황

가. 세계 국제상표출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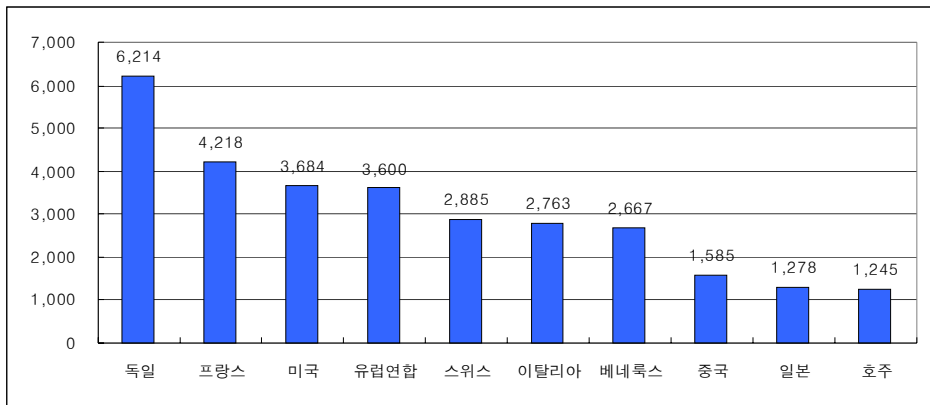
2008년 세계 총 국제상표출원 건수는 42,075건으로 2007년(39,945건)에 비해 2,130건(5.3%) 증가하였다.

〈그림 VIII-2-5〉 연도별 세계 국제상표출원 현황



2008년도 중 세계 10대 다출원국은 아래와 같으며, 한국의 경우 전년도 (330건) 대비 144건(43.6%) 감소한 186건으로 30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VIII-2-6〉 2008년도 10대 다출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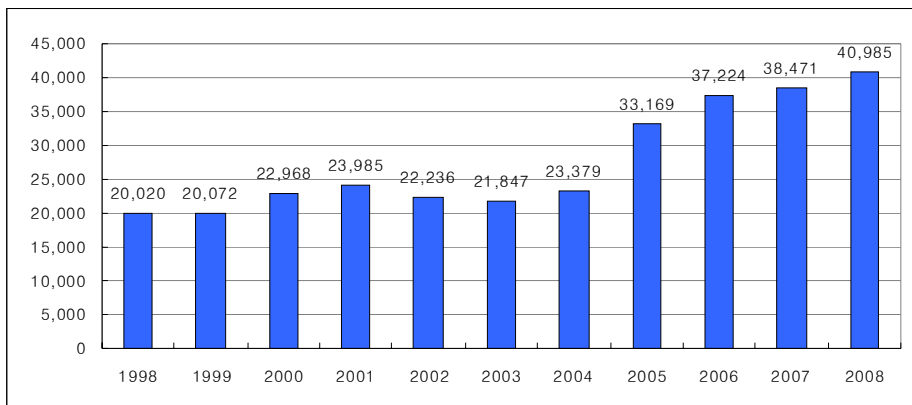


* WIPO통계('09. 3. 10. 보도자료 PR/2009/584)는 WIPO 자체 접수일 기준이므로 한국특허청 접수일 기준인 우리나라 통계와는 다소 건수 차이가 발생(WIPO 통계 : 186건, 한국특허청 통계 : 216건)

나. 세계 국제등록 현황

2008년도에 국제등록된 표장의 건수는 총 40,985건이며, 한국을 본국으로 한 국제출원은 총 204건이 등록되었다.

〈그림 VIII-2-7〉 연도별 세계 국제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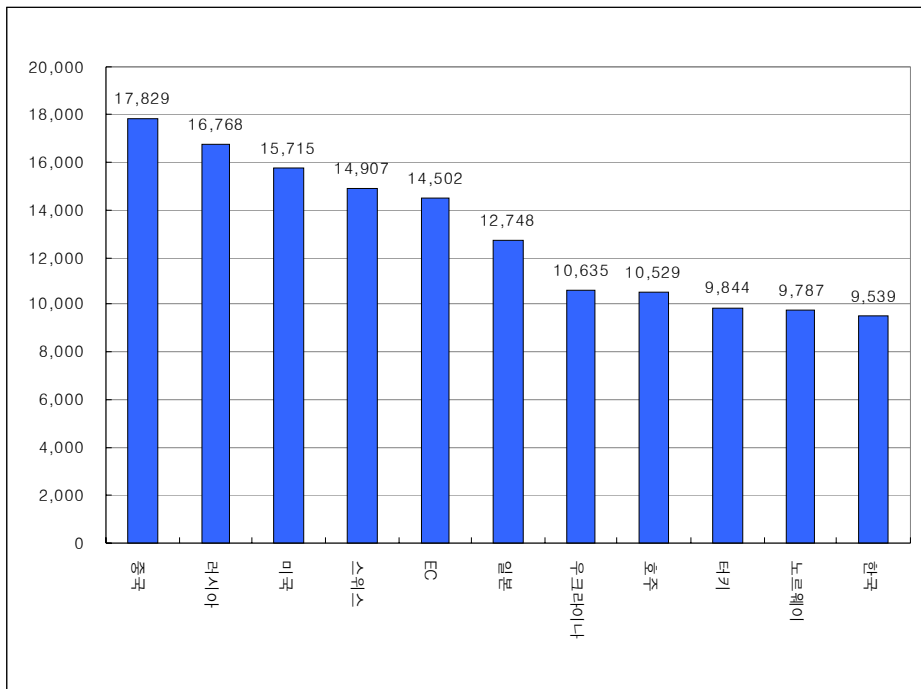


* 자료 : WIPO 통계기준

다. 세계 10대 지정국 현황

2008년도 세계 10대 지정국은 아래와 같은 순이며, 한국이 지정된 건수는 9,539건(국제등록 8,228건, 사후지정 1,311건)으로 세계 11위를 기록하였다.

〈그림 VIII-2-8〉 2008년도 세계 10대 지정국 현황



* 자료 : WIPO 통계기준

라. 10대 다 국제등록권자와 10대 다 국제출원인

2008년도 말 현재 세계 10대 다(多) 국제등록권자와 2008년도 중 10대 다(多) 국제출원인은 다음과 같다.

〈표 VIII-2-11〉 2008년도 세계 10대 多 국제등록권리자 및 多 국제출원인

(단위 : 건)

10대 多 국제등록권자			10대 多 국제출원인		
1	Henkel	독일	1	Lidl	독일
2	Janssen Pharmaceutica	벨기에	2	Nestlé	스위스
3	Novartis	스위스	3	Henkel	독일
4	L'Oréal	프랑스	4	Boehringer Ingelheim	독일
5	Nestlé	스위스	5	Novartis	스위스
6	Unilever	네델란드	6	Janssen Pharmaceutica	벨기에
7	Sanofi-Aventis	프랑스	7	BSH Bosch und Siemens	독일
8	ITM Enterprises	프랑스	8	Zhejiang Medicine Company	중국
9	Siemens	독일	9	L'Oréal	프랑스
10	BASF	독일	10	Deutsche Telekom	독일
10	ITM Enterprises	프랑스	10	Brillux	독일

* 자료 : WIPO 통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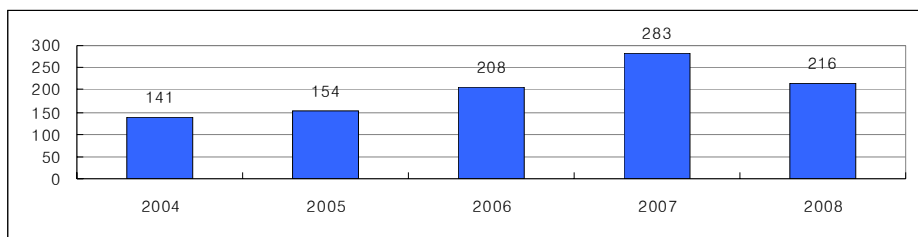
2. 2008년 국내 본국관청 국제상표출원 현황

가. 내국인의 국제상표출원 현황

2008년도 우리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하여 접수된 국제상표출원은 216건(사후 지정신청 25건 제외)으로, 2007년의 283건에 비하여 24% 감소하였다.

* WIPO통계는 WIPO 접수일 기준이므로 한국특허청 통계와 차이가 발생함
(WIPO 통계 : 186건, 한국특허청 통계 : 216건)

〈그림 VIII-2-9〉 연도별 우리나라의 국제상표 출원현황



* 자료 : KIPO 통계기준

나. 내국인의 국제상표 전자출원 현황

2003년 4월 마드리드시스템 제도시행 때부터 시행된 온라인 전자출원은 최근 3개년의 경우 전자출원율이 서면출원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 원인은 마드리드 서식작성기 및 전자출원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하고 있으며 서면출원보다 전자출원 수수료를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전자출원을 유도한데서 찾을 수 있다.

〈표 VIII-2-12〉 연도별 우리나라의 국제상표 전자출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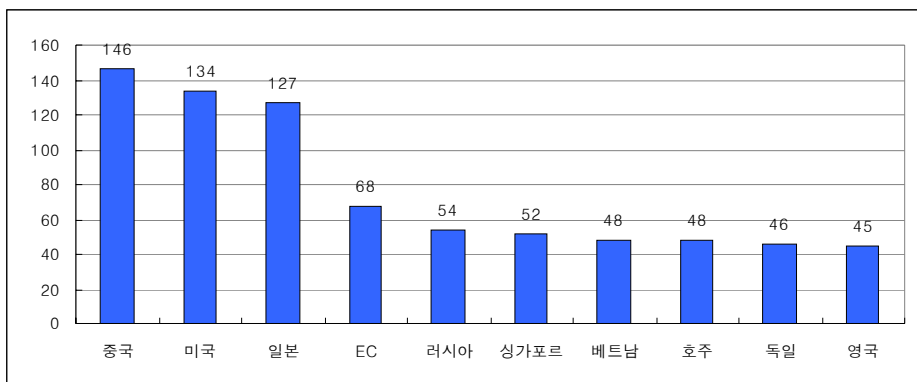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분 \ 연도	'03	'04	'05	'06	'07	'08
전자출원건수(비율)	37(34%)	44(31%)	39(25%)	154(74%)	200(71%)	180(83%)
서면출원건수(비율)	71(66%)	97(69%)	115(75%)	54(26%)	83(29%)	36(17%)
계	108	141	154	208	283	216

다. 내국인의 국제상표출원 10대 지정국 현황

2008년도 우리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하여 접수된 국제상표출원의 10대 지정국은 중국, 미국, 일본, EC,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독일, 영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VIII-2-10〉 2008년도 내국인의 국제상표 10대 지정국 현황



* 자료 : KIPO 통계기준

라. 국내 10대 국제상표 다출원인(업체)

2008년도 국내 10대 국제상표 다출원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VIII-2-13〉 2008년도 우리나라 10대 국제상표 다출원인 현황

(단위 : 건)

순위	출원인명	출원건수
1	삼성전자 주식회사	15
2	롯데쇼핑 주식회사	12
3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10
4	주식회사 드림스코	4
5	엘지	4
6	주식회사 에스앤티 홀딩스	4
7	주식회사 우영 메디칼	4
8	한국 야쿠르트	3
9	팅크웨어(주)	3
10	매일유업 주식회사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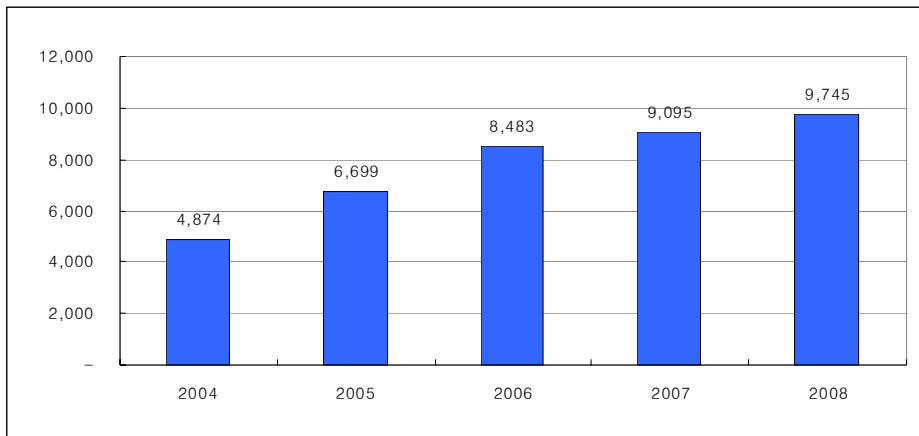
* 자료 : KIPO 통계기준

3. 2008년 국내 지정국관청 현황

가. 외국인의 우리나라 지정 국제상표등록출원 현황

2008년도에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9,745건(국제상표등록출원 8,349건, 사후 지정 1,321건, 출원 중 일부 명의변경 75건)으로 2007년도 9,095건 대비 7% 증가하였다. 한편 2008년도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 9,745건은 국내 상표등록출원건(121,651건)의 8%에 해당한다.

〈그림 VIII-2-11〉 연도별 외국인의 우리나라 지정 국제상표등록출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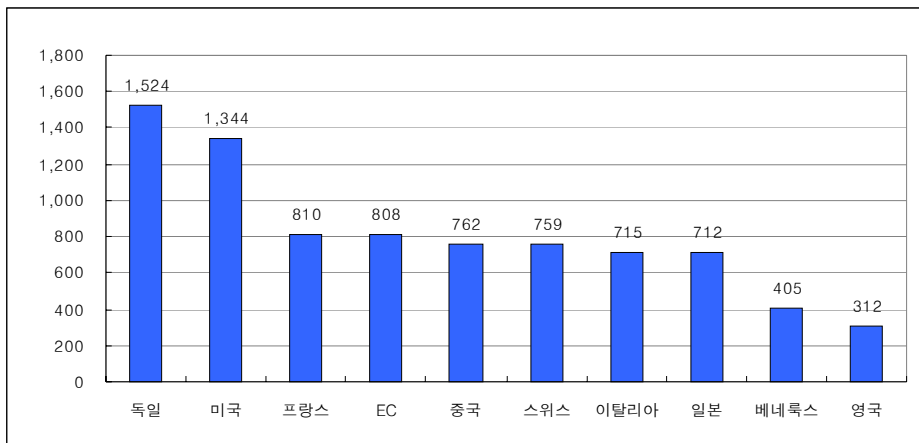


* 자료 : KIPO 통계기준

나. 우리나라 지정 10대 계약국

2008년도에 우리나라를 지정한 10대 계약국(외국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국적)은 독일, 미국, EC, 프랑스, 중국,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베네룩스, 영국 순이다.

〈그림 VIII-2-12〉 2008년도 연도별 외국인의 우리나라 지정 국제상표 현황



* 자료 : KIPO 통계기준

다. 한국 지정 10대 국제상표등록명의인

2008년도에 한국을 지정한 10대 국제등록명의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VIII-2-14〉 2008년도 우리나라 지정 10대 국제상표 다출원인

(단위 : 건)

순 위	출 원 인	국 적	건 수
1	Actavis Group PTC ehf.	아이슬란드	100
2	Boehringer Ingelheim International GmbH	독일	60
3	NOVARTIS AG	스위스	50
4	Laboratorios Almirall, S.A.	스페인	34
5	Henkel AG & Co. KGaA	독일	27
6	Callaway Golf Company	미국	26
7	MIGUEL TORRES S.A.	스페인	23
8	Deutsche Telekom AG	독일	22
9	Borealis AG	오스트리아	21
10	ABB Turbo Systems Ltd	스위스	20

* 자료 : KIPO 통계기준

4. 2009년 국제상표출원 전망

가. 내국인의 국제상표출원 예상건수

최근 1CHF 당 원화의 약세와 국내 불경기를 고려할 때 전년도 출원건수를 유지하거나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VIII-2-15〉 연도별 내국인의 국제상표출원 건수

(단위 : 건, %)

분석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예상)
출원건수	141	154	208	283	216	220
증감율(%)	30.6	9.2	35.1	36	△ 24	2

나. 외국인의 한국 지정 국제상표등록출원 예상건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영향에 따른 전세계적인 경기불황은 출원건수의 감소로 연결될 것이나 2009. 4. 1.부터 우리나라의 개별수수료가 인하(사후지정 포함 국제출원시 1개류의 개별수수료가 당초 297CHF에서 63CHF가 줄어든 233CHF로 인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년도 출원건수 증가율과 비슷한 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VIII-2-16〉 연도별 외국인의 국제상표 한국지정 건수

(단위 : 건, %)

분석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예상)
출원건수	4,874	6,699	8,483	9,072	9,745	10,427
증감율(%)	214.9	37.4	26.6	6.9	7.4	7.0

다. 국내 출원인의 국제상표출원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한국 특허청은 기존에 미번역된 영문상품 9,216개를 추가번역한 후 특허청 및 마드리드 홈페이지 공개('08.09)하였다. 동 번역자료는 마드리드 본국관청 출원인이 국문상품을 영문상품으로 번역하는 수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마드리드 기초출원의 효력소멸 사항을 WIPO에 통지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시스템 개선하였고('08.04.30), 마드리드 지정국 관청절차에서 보정서 제출시 연장을 불허하던 것을 각 1월씩 2회 연장하도록 개선('08.6.23)하는 등 출원인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해외상표 출원인을 위한 마드리드국제출원가이드」를 신규로 발간('08.12.)하여 국내출원인으로 하여금 해외출원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였다.

제1절 산업재산권 전반

고객서비스국 등록서비스과 행정사무관 전형곤

1. 2008년 산업재산권 동향

특허청은 2007년까지 심사 처리물량 증가에 따라 심사인력을 꾸준히 증원하여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규등록 건수는 과거 3년간('03~'05년) 연평균 신규등록건수(173,108건)에 비해 최근 3년간('06~'08년)의 연평균 등록건수(223,948건)는 29.4%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폐지('06.10.1)와 2008년부터 심사처리기간에서 심사품질 중심의 특허전략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8년은 전년 동기 대비 14.9%의 신규등록건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 연차등록건수는 전년대비 7.7% 증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2008년은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은 한국의 모든 산업부문에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특허신규등록에도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2008년도 등록 현황

가. 최근 5년간 설정등록현황

2008년 신규 설정등록은 193,681건으로 전년대비 14.9% 감소하였으며, 각 권리별로 보면 <표 VIII-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용신안, 상표의 경우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77.1%, 8.5%의 증가를 보였으나 특허, 디자인은 각각 32.6%, 2.1%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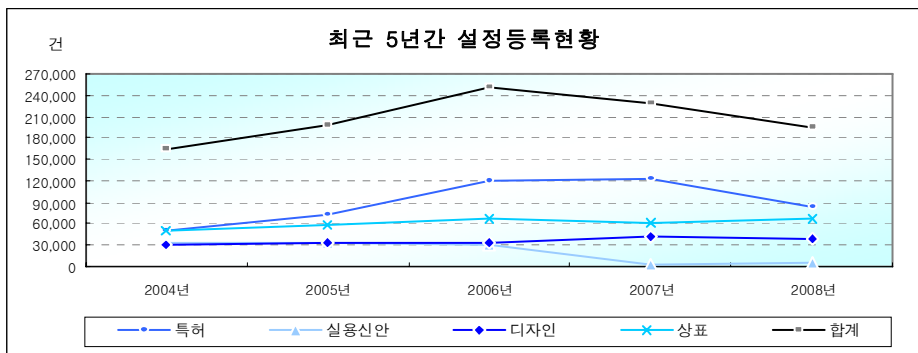
실용신안의 경우 2006.10. 1.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폐지로 정상적인 심사처리기간을 거쳐 등록됨에 따라 등록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올해 들어 정상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VIII-3-1〉 최근 5년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

권리별 연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특 허	49,068 (11.1)	73,512 (49.8)	120,790 (64.3)	123,705 (2.4)	83,370 (△32.6)
실용신안	34,182 (△8.3)	32,716 (△4.3)	29,736 (△9.1)	2,795 (△90.6)	4,951 (77.1)
디 자 인	31,021 (9.3)	33,993 (9.6)	34,206 (0.6)	40,745 (19.1)	39,881 (△2.1)
상 표	51,104 (11.0)	57,873 (13.3)	65,825 (13.7)	60,361 (△8.3)	65,479 (8.5)
합 계	165,375 (6.1)	198,094 (19.8)	250,557 (26.5)	227,606 (△9.2)	193,681 (△14.9)

* 주 : ()는 전년대비 증감률



나. 권리별 설정등록현황

1)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설정등록현황

2008년도 전체 신규 설정등록건수 중 국가기술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특허·실용신안 등록건수는 88,321건이다. <표 VIII-3-2>와 같이 산업부문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과 마찬가지로 전기통신분야 49.8%, 기계분야 16.1%로 나타나 이 두 분야의 점유율이 65.9%로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 11.1%, 음료위생 7.2%, 토목건설 5.1%,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부문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보면 2007년은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폐지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의 급감에 따라 전 분야에서 감소하였다면, 2008년은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이 한국의 모든 산업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목건설 74.3%, 섬유 73.5%, 사무용품인쇄 65.4%, 전기통신부문이 57.5% 등 전체적으로 43.2%가 감소하였다.

<표 VIII-3-2> 2008년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

구 분		기계	화학 일반	섬유	전기 통신	토목 건설	채광 금속	음료 위생	사무용 품인쇄	농림 수산	잡화	합 계
2008	건 수	14,234	9,773	1,275	44,018	4,485	3,214	6,379	488	1,224	3,231	88,321
	점유율	16.1	11.1	1.4	49.8	5.1	3.6	7.2	0.6	1.4	3.7	100
2007	건 수	17,456	12,591	2,212	69,307	7,817	3,710	7,275	807	1,402	3,923	126,500
	점유율	13.8	10.0	1.7	54.8	6.2	2.9	5.8	0.6	1.1	3.1	100
전년 대비 증감률		△22.6	△28.8	△73.5	△57.5	△74.3	△15.4	△14.0	△65.4	△14.5	△21.4	△43.2

2) 물품군별 디자인 등록현황

2008년도 디자인 신규 설정등록건수는 총 39,881건이다. <표 VIII-3-3>과 같이 물품군별 등록점유율을 보면, 주택설비용품 18.3%, 토목 및 건축용품 분야 15.1%, 생활용품 12.2%,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11.6%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감률을 보면, 제조기호식품 37.4, 생활용품 17.9%, 의복신변품이 15.3%으로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31.6%, 토목 및 건축용품이 14.8%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2% 감소하였다.

〈표 VIII-3-3〉 2008년 물품군별 디자인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 분		제조 기호 식품	의복 신변품	생활 용품	주택 설비 용품	취미 오락 및운동 경기 용품	사무 용품 및판매 용품	운수 또는 운반 기계	전기전 자기계 기구및 통신기 계기구	일반 기계 기구	산업용 기계 기구	토목 및 건축 용품	기타	계
2008	건 수	115	3,797	4,856	7,291	1,105	4,166	1,580	4,632	1,094	1,848	6,031	3,366	39,881
	점유율	0.3	9.5	12.2	18.3	2.8	10.4	4.0	11.6	2.7	4.6	15.1	8.4	100
2007	건 수	72	3,216	3,989	6,355	1,105	4,124	1,755	6,097	1,219	1,871	6,921	4,023	40,611
	점유율	0.2	7.9	9.8	15.6	2.7	10.1	4.3	14.9	3.0	4.6	17.0	9.9	100
전년대비 증감률		37.4	15.3	17.9	12.8	0.0	1.0	△11.1	△31.6	△11.4	△1.2	△14.8	△19.5	△2.2

3) 부문별 상표 등록현황(NICE 분류)

2008년도 상표 신규 설정등록건수는 65,479건이며(〈표 VIII-3-4〉 참조), 부문별 등록점유율을 보면, 서비스업 31.9%, 기계·전기기계 16.0%, 화학품·약제 부문이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보면, 일반금속제·건축재료 6.6%, 과자·식품·음료 부문이 2.1 감소하였고, 비스업 부문 20.3%, 섬유·의류 8.9%, 기계·전기기계 부문이 7.4% 등 전체적으로 8.2% 증가하였다.

〈표 VIII-3-4〉 2008년 부문별 상표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 분		화학품 약제	일반 금속제, 건축 재료	기계, 전기 기계	섬유, 의류	가구, 주방 용품	귀금속, 시계, 가방류	약기, 원구, 담배	종이, 문방구	과자, 식품, 음료	고무, 플라 스틱 재료	서비스 업	기타	계
2008	건 수	9,973	1,794	10,502	5,039	2,405	2,528	1,722	2,411	7,842	370	20,893	0	65,479
	점유율	15.2	2.7	16.0	7.7	3.7	3.9	2.6	3.7	12	0.6	31.9	0	100
2007	건 수	10,022	1,913	9,720	4,593	2,236	2,474	1,758	2,349	8,028	355	16,654	2	60,104
	점유율	16.7	3.2	16.2	7.6	3.7	4.1	2.9	3.9	13.4	0.6	27.7	0	100
전년대비 증감률		△0.5	△6.6	7.4	8.9	7.0	2.1	△2.1	2.6	△2.4	4.1	20.3	0.0	8.2

다. 개인·법인별 등록현황

2008년도 설정등록건수를 개인·법인으로 구분하면(〈표 VIII-3-5〉 참조), 개인 29.1%, 법인 70.9%의 비율을 보인다.

권리별로 구분하면, 특허의 경우 개인 13.9%, 법인 86.1%로 법인등록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의 고도화와 구조적인 변화·조정에 따라 자본력과 체계적인 연구기반이 갖추어진 대기업 연구소 등이 산업재산권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과 상표 역시 개발능력을 갖춘 법인 등록비율이 앞서지만 개인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개인 출원인에 대한 출원등록료 등 각종 수수료의 감면 확대 등으로 개인 등록도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실용신안의 경우 개인등록(56.7%)이 법인등록(43.3%)보다 크게 앞서는 것은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도하지 않은 발명에 따른 등록의 상대적 용이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VIII-3-5〉 2008년 개인·법인별 등록현황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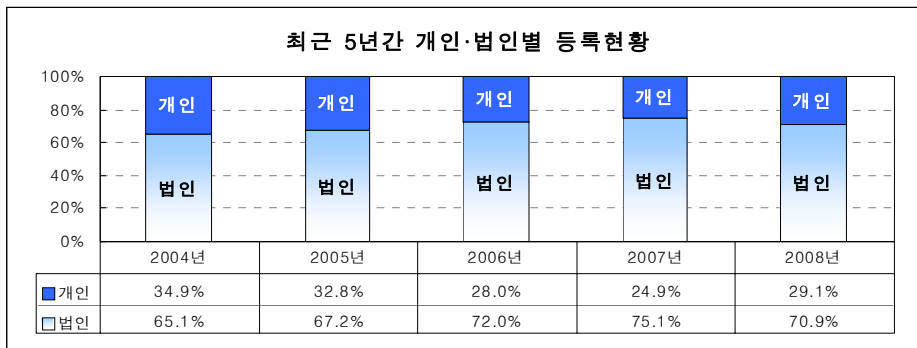
구 분	개 인		법 인		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특 허	11,627	13.9	71,743	86.1	83,370	100
실용신안	2,808	56.7	2,143	43.3	4,951	100
특·실 소계	14,435	16.3	73,886	83.7	88,321	100
디 자 인	16,474	41.3	23,407	58.7	39,881	100
상 표	25,483	38.9	39,996	61.1	65,479	100
계	56,392	29.1	137,289	70.9	193,681	100

최근 5년간의 개인·법인별 등록 추이를 보면 〈표 VIII-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등록은 등록건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법인등록비율은 2008년 들어 경기침체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VIII-3-6〉 최근 5년간 개인·법인별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년대비 증감률
개 인	57,635 (34.9)	64,936 (32.8)	70,070 (28.0)	56,715 (24.9)	56,392 (29.1)	△0.6
법 인	107,740 (65.1)	133,158 (67.2)	180,502 (72.0)	170,897 (75.1)	137,289 (70.9)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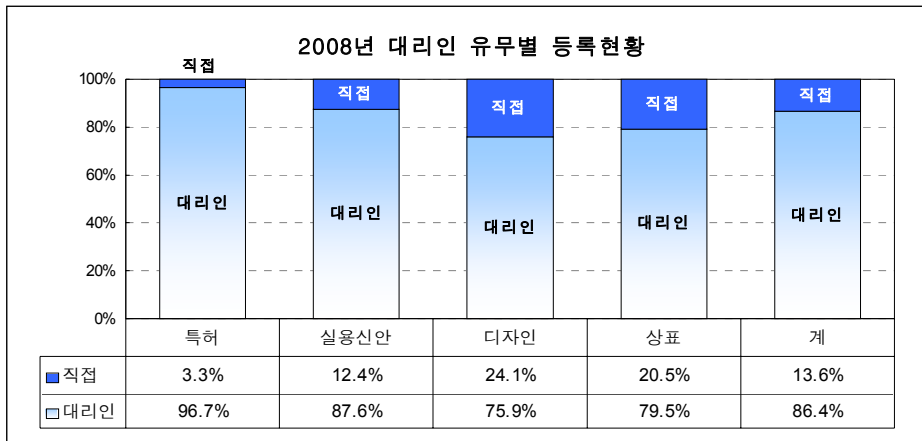
라. 대리인 유무별 등록현황

등록절차를 누가 진행했는지를 보면, 〈표 VIII-3-7〉과 같이 대리인 86.4%, 권리자가 직접 등록절차를 진행한 비율이 13.6%를 보이고 있다. 권리별로 보면 특허가 96.7%로 다른 권리에 비하여 대리인 선임을 통한 등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차 대리인 없이 직접 등록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

〈표 VIII-3-7〉 2008년 대리인 유무별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계	
		대리인 등 록	직 접 등 록	대리인 등 록	직 접 등 록	대리인 등 록	직 접 등 록	대리인 등 록	직 접 등 록	대리인 등 록	직 접 등 록
2008	건 수	80,594	2,776	4,336	615	30,273	9,608	52,043	13,436	167,246	26,435
	구성비	96.7	3.3	87.6	12.4	75.9	24.1	79.5	20.5	86.4	13.6
2007	건 수	120,199	3,506	2,164	631	30,645	10,100	48,456	11,905	201,464	26,142
	구성비	97.2	2.8	77.4	22.6	75.2	24.8	80.3	19.7	88.5	11.5
2006	건 수	118,002	2,788	23,681	6,055	26,588	7,618	53,695	12,130	238,427	28,591
	구성비	97.7	2.3	79.6	20.4	77.7	22.3	81.6	18.4	89.3	10.7



마. 내·외국인별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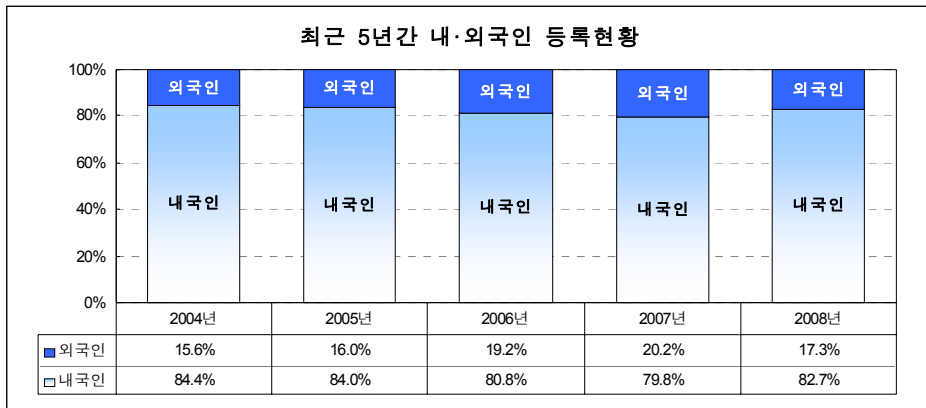
2008년 설정등록현황을 내·외국인별로 구분해보면 <표 VIII-3-8>과 같이 내국인 160,113건(82.7%), 외국인 33,568건(17.3%)을 보여 외국인의 등록비율이 감소하고, 내국인은 증가하였다. 내국인 등록건수는 전년 대비 13.5%, 외국인 등록건수는 전년 대비 37.0% 감소를 보여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17.5% 감소하였다.

<표 VIII-3-8> 최근 5년간 내·외국인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년대비 증감률
내국인	139,549 (84.4)	166,315 (84.0)	202,533 (80.8)	181,641 (79.8)	160,113 (82.7)	△13.5
외국인	25,826 (15.6)	31,779 (16.0)	48,039 (19.2)	45,971 (20.2)	33,568 (17.3)	△37.0
합 계	165,375 (100)	198,094 (100)	250,572 (100)	227,612 (100)	193,681 (100)	△17.5

* 주 : ()는 점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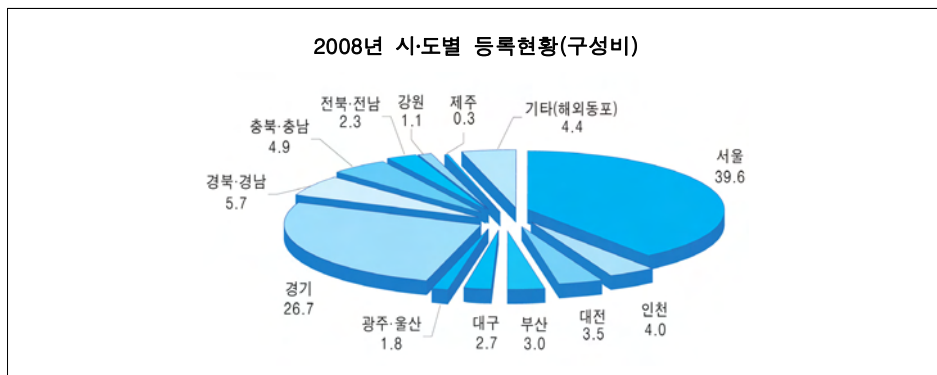
바. 내국인 지역별 등록현황

2008년 내국인등록현황을 <표 VIII-3-9>와 같이 시·도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경기지역 거주자가 66.3%,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자가 54.6%를 등록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는 서울·인천·부산·대전 거주자 순으로, 도별로는 경기도·경북·충남·경남 거주자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II-3-9> 2008년 시·도별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건 수	63,368	4,765	4,342	6,440	1,975	5,532	1,010	42,809	1,812	2,758	5,022	1,842	1,722	5,343	3,851	456	7,066	160,113
구성비	39.6	3	2.7	4	1.2	3.5	0.6	26.7	1.1	1.7	3.2	1.2	1.1	3.3	2.4	0.3	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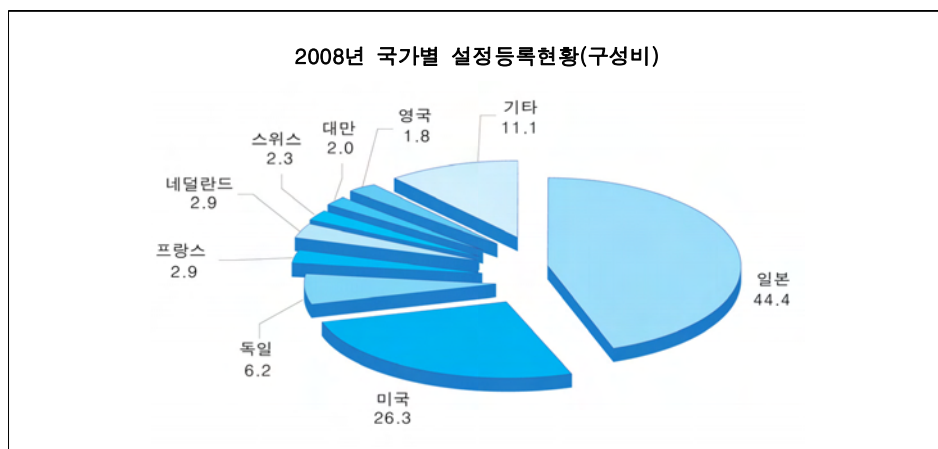
사.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 현황

2008년도 신규설정등록건수 중 외국인 등록을 <표 VIII-3-10>과 같이 국가별로 살펴보면 총 33,568건 중 일본이 14,905건(44.4%), 미국이 8,831건(26.3%)으로 이들 두 국가의 등록건수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술 선진국 일수록 디자인·상표권보다는 특허·실용신안의 등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VIII-3-10〉 2008년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

구 분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대만	영국	기타	합계
특 허	11,306	5,131	1,629	671	725	463	375	259	1,849	22,408
실용신안	8	12	1	0	0	0	62	0	17	100
특·실 소계	11,314	5,143	1,630	671	725	463	437	259	1,866	22,508
디자인	1,447	728	241	127	77	96	49	60	381	3,206
상 표	2,144	2,960	224	189	176	197	194	282	1,488	7,854
합 계	14,905	8,831	2,095	987	978	756	680	601	3,735	33,568
구성비	44.4	26.3	6.2	2.9	2.9	2.3	2.0	1.8	11.1	100



아. 다등록업체 현황

2008년 설정등록현황을 내국인 중 다등록 업체는 <표 VIII-3-11>와 같이 삼성전자(주), 엘지전자(주), 현대자동차(주) 등의 순서를 보인다. 다등록 순위 20위 내에 전자·전기·자동차·통신분야 회사는 주로 특허·실용신안권에, 화학·생활 밀착형 용품 분야 회사는 주로 디자인·상표권에 상대적으로 등록비율이 높다. 이는 기업이 주력하는 특허기술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II-3-11> 2008년 국내 다등록 업체 현황

(단위 : 건)

순위	업 체 명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계
1	삼성전자주식회사	4,773	3	904	146	5,826
2	엘지전자주식회사	2,651	0	735	336	3,722
3	현대자동차주식회사	1,856	0	208	29	2,093
4	주식회사포스코	1,787	0	1	37	1,825
5	주식회사하이닉스반도체	1,778	0	0	1	1,779
6	(주)아모레퍼시픽	89	51	464	866	1,470
7	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1,339	0	1	2	1,342
8	주식회사엘지화학	561	13	712	22	1,308
9	삼성전기주식회사	1,143	0	14	12	1,169
10	동부일렉트로닉스주식회사	1,110	0	0	0	1,110
11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539	1	19	257	816
12	주식회사엘지생활건강	101	0	261	369	731
13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	678	1	0	1	680
14	씨제이제일제당(주)	69	1	282	182	534
15	주식회사케이티	342	0	28	163	533
16	주식회사오리온	0	0	38	449	487
17	주식회사대우일렉트로닉스	314	0	159	7	480
18	주식회사케이티프리텔	376	2	31	60	469
19	기아자동차주식회사	304	0	126	7	437
20	만도기계주식회사	411	0	0	6	417

제2절 연 차 등 록

고객서비스국 등록서비스과 행정사무관 전형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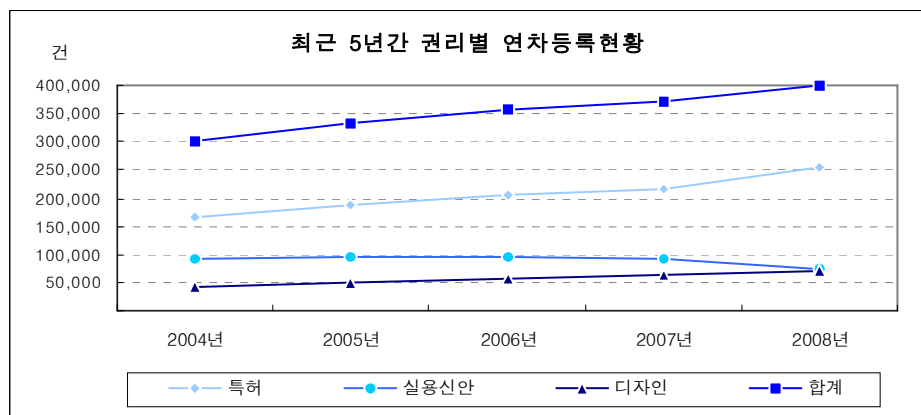
산업재산권은 신규 설정등록 이후에도 권리의 존속기간 동안 소정의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권리로 존속시킬 수 있다. 연차등록은 권리자의 산업재산권 보유·활용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2008년 401,422건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하였으며(〈표 VIII-3-12〉 참조), 권리별로는 특허, 디자인이 각각 18.1%, 11.9% 증가한 반면, 실용신안은 19.2% 감소하였다.

〈표 VIII-3-12〉 최근 5년간 권리별 연차등록현황

(단위 : 건, %)

권리별 \ 연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특 허	165,648 (7.2)	186,949 (12.9)	204,927 (9.6)	215,284 (5.1)	254,150 (18.1)
실용신안	92,952 (8.4)	96,077 (3.4)	97,006 (1.0)	93,373 (△3.7)	75,477 (△19.2)
디 자 인	43,741 (7.4)	50,149 (14.6)	56,460 (12.6)	64,146 (13.6)	71,795 (11.9)
합 계	302,341 (7.6)	333,175 (10.2)	358,393 (7.5)	372,803 (4.0)	401,422 (7.7)

* 주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제3절 존속권리 현황

고객서비스국 등록서비스과 행정사무관 전형곤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등록은 1948년 11건(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디자인 5건)을 시작으로 2008년 말 현재 총 2,705,480건이 등록되었고(〈표 VIII-3-13〉참조), 이 중 존속기간만료, 등록료미납, 권리포기,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된 권리는 1,069,808건으로 존속권리 건수는 1,635,672건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면, 내국인은 총 2,120,882건 중 1,256,170건, 외국인은 총 584,598건 중 379,502건을 유지하고 있다. 존속권리별 비중을 보면 특허·실용신안권은 내국인에게, 디자인·상표권은 외국인에게 권리존속 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VIII-3-13〉 2008년 현재 존속권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내국인		외국인		합 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특 허	등록	566,654	100	280,835	100	847,489	100
	소멸	123,370	21.8	99,739	35.5	223,109	26.3
	존속	443,284	78.2	181,096	64.5	624,380	73.7
실용신안	등록	402,401	100	14,093	100	416,494	100
	소멸	283,114	70.4	11,483	81.5	294,597	70.7
	존속	119,287	29.6	2,610	18.5	121,897	29.3
디자인	등록	458,703	100	40,698	100	499,401	100
	소멸	264,606	57.7	21,216	52.1	285,822	57.2
	존속	194,097	42.3	19,482	47.9	213,579	42.8
상 표	등록	693,124	100	248,972	100	942,096	100
	소멸	193,622	28.8	72,658	30.9	266,280	29.3
	존속	499,502	71.2	176,314	69.1	675,816	70.7
합 계	등록	2,120,882	100	584,598	100	2,705,480	100
	소멸	864,712	27.9	205,096	29.2	1,069,808	28.3
	존속	1,256,170	72.1	379,502	70.8	1,635,672	71.7

제4절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고객서비스국 등록서비스과 행정사무관 전형곤

우리나라가 2003. 4.10.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2004년 4월27일 처음으로 국제상표를 등록하였으며 2004년 652건, 2005년 3,070건, 2006년 4,307건, 2007년 4,362건, 2008년 6,701건으로 총 19,092건이 등록되었으며, OECD 회원국인 미국, 일본 및 유럽 주요국 등이 76.6%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VIII-3-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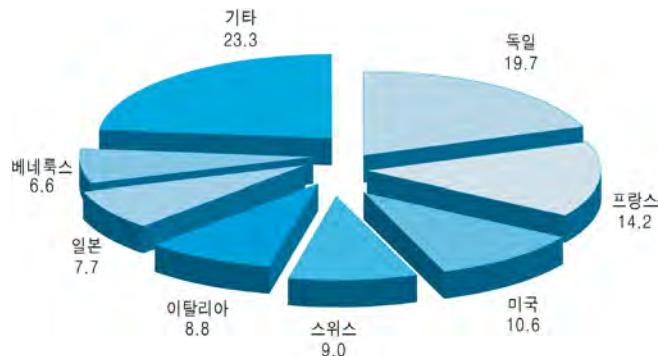
2004년도에는 신규설정 등록업무만 하였으나, 2005년 이후부터는 국제상표등록과 관련한 상표권의 이전, 변경, 포기 등 제반 등록업무도 병행하고 있으며 국제상표 등록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VIII-3-14〉 2008년 현재 국가별 국제상표(마드리드)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 분	독일	프랑스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베네룩스	기타	합계
등 록	3,758	2,710	2,030	1,724	1,683	1,476	1,257	4,454	19,092
구성비	19.7	14.2	10.6	9.0	8.8	7.7	6.6	23.3	100.0

2008년 국가별 국제상표 등록현황(구성비)



4

CHAPTER

심 사

제8편 출원, 심사·심판, 등록분야 동향 및 전망

제1절 총 괄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기술서기관 신상곤

2008년 산업재산권 1차 심사처리 총 건수는 27만 7,226건으로, 전년도 32만 7,847건보다 15.4% 감소하였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 9만 5,490건, 실용신안 1만 3,823건, 상표 11만 7,796건, 디자인은 5만 0,117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26.1%, 4.1%, 7.8%, 11.4%가 감소하였다. 감소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특허심사처리건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 특허에 비하여 업무부담이 큰 PCT 국제조사 처리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PCT 국제조사 신청건수 급증에 따라 PCT 국제조사 총 처리건수는 12,936건으로 전년도 8,280건보다 56.2% 증가하였다.

한편, 특허청은 특·실 12.1개월, 상표 6.5개월, 디자인 5.6개월의 1차 심사처리 기간을 달성함으로써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VIII-4-1〉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계
	특 허	실용신안	소 계			
2000	68,338	68,779	137,117	27,540 (29,446)	83,358 (110,181)	248,015 (276,744)
2001	55,766	54,550	110,316	32,276 (33,645)	87,078 (123,067)	229,670 (267,028)
2002	79,414	49,307	128,721	38,631 (40,618)	100,020 (136,041)	267,372 (305,380)
2003	93,433	48,578	142,011	40,094 (42,419)	118,796 (157,800)	300,901 (342,230)
2004	98,404	53,389	151,793	40,541 (42,080)	116,210 (156,147)	308,544 (350,020)
2005	131,115	49,317	180,432	40,820 (41,987)	124,892 (171,000)	346,144 (393,419)
2006	195,395	45,270	240,665	46,381 (48,369)	128,457 (172,045)	415,503 (461,079)
2007	129,147	14,407	143,554	56,584 (58,587)	127,709 (171,858)	327,847 (373,999)
2008	95,490	13,823	109,313	50,117 (51,492)	117,796 (162,697)	277,226 (323,502)

- * 주 : 1. 기타처분(심사청구前 취하, 포기, 무효 등) 포함
 2. 1차심사처리 기준임
 3. 디자인·상표의 경우 ()는 복수디자인·다류 기준임

제2절 특허 및 실용신안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시설사무관 이선우

가. 특허출원 심사

2008년 특허출원의 1차심사처리 건수는 9만 5,490건으로 2007 대비 26.1% 감소하였다. 이 중 12.8%에 해당하는 1만 2,190건이 1차 심사와 동시에 등록결정되었고, 83.7%에 해당하는 7만 9,966건에 대해서 의견제출 등이 통지되었다. 출원에서 1차 심사까지 소요된 특허 심사처리기간은 2007년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12.1개월을 유지하였다.

〈표 VIII-4-2〉 특허 1차심사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등록결정	의견제출 등 통지	취하·포기	심사처리기간
2004년	98,404 (100.0%)	19,952 (20.3%)	75,493 (76.7%)	2,959 (3.0%)	21.0개월
2005년	131,115 (100.0%)	21,860 (16.7%)	106,506 (81.2%)	2,749 (2.1%)	17.6개월
2006년	195,395 (100.0%)	39,440 (20.2%)	152,277 (77.9%)	3,678 (1.9%)	9.8개월
2007년	129,147 (100.0%)	26,801 (20.8%)	97,690 (75.6%)	4,656 (3.6%)	9.8개월
2008년	95,490 (100.0%)	12,190 (12.8%)	79,966 (83.7%)	3,334 (3.5%)	12.1개월

1차 심사처리 시 의견제출통지 없이 등록결정되는 비율이 2004년 이후 약 20%로 비슷하게 유지하다가 2008년 12.8%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심사품질 증시기조에 부응하여 심사품질 중심으로 특허심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08.6) 이후 다양한 심사품질제고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2008년 특허출원의 심사종결처리 건수는 총 10만 8,884건으로 2007년 대비 28.6% 감소하였다. 이 중 66.3%에 해당하는 7만 2,161건이 등록결정되고, 30.7%에 해당하는 3만 3,389건이 거절결정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등록결정 비율은 7.4%가 감소하고, 거절결정 비율은 7.5%가 증가한 것이다. 출원의 취하·포기·무효는 3,334건으로 전체 심사종결처리 건수의 3.0%에 해당하며 2007년에 비하여 0.1% 감소하였다.

〈표 VIII-4-3〉 특허 심사종결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포기·무효
2004년	90,397 (100.0%)	54,551 (60.3%)	31,424 (34.8%)	4,422 (4.9%)
2005년	118,092 (100.0%)	78,397 (66.4%)	36,946 (31.3%)	2,749 (2.3%)
2006년	174,631 (100.0%)	127,298 (72.9%)	43,655 (25.0%)	3,678 (2.1%)
2007년	152,417 (100.0%)	112,344 (73.7%)	35,417 (23.2%)	4,656 (3.1%)
2008년	108,884 (100.0%)	72,161 (66.3%)	33,389 (30.7%)	3,334 (3.0%)

2008년 특허출원의 1차심사처리 건수와 심사종결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외국 PCT 국제조사 의뢰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나. 실용신안출원 심사

실용신안출원 1차심사처리 건수는 1999년 7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시행 이전에 출원된 물량의 심사청구가 감소하면서 2004년 866건, 2005년 17건, 2006년 10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10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실용신안 심사주의로 전환되면서 2008년에는 12,707건으로 증가하였다.

〈표 VIII-4-4〉 실용신안 1차심사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등록결정	의견제출 등 통지	취하 · 포기
2004년	866 (100.0%)	238 (27.5%)	612 (70.7%)	16 (1.8%)
2005년	17 (100.0%)	2 (11.8%)	15 (88.2%)	-
2006년	10 (100.0%)	-	10 (100.0%)	-
2007년	7,342 (100.0%)	1,953 (26.6%)	5,389 (73.4%)	-
2008년	12,707 (100.0%)	1,713 (13.5%)	10,309 (81.1%)	685 (5.4%)

실용신안 심사종결처리 건수도 2004년 1,296건, 2005년 158건, 2006년 7건으로 계속 감소하였으나 2008년에는 12,265건을 기록하였다. 실용신안 등록결정 비율은 2004년 52.0%, 2005년 53.2%, 2006년 42.9%로 감소하다가 2007년에는 74.7%를 제외하고 2008년 42.9%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VIII-4-5〉 실용신안 심사종결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 · 포기
2004년	1,296 (100.0%)	674 (52.0%)	606 (46.8%)	16 (1.25%)
2005년	158 (100.0%)	84 (53.2%)	74 (46.8%)	-
2006년	7 (100.0%)	3 (42.9%)	4 (57.1%)	-
2007년	3,633 (100.0%)	2,714 (74.7%)	919 (25.3%)	-
2008년	12,265 (100.0%)	5,267 (42.9%)	6,313 (51.5%)	685 (5.6%)

1999년 7월부터 시행되어 온 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에 의한 실용신안 심사처리 건수는 2006년 10월 선등록 제도 폐지에 따라 2008년에 기초적 요건심사 48건, 기술평가 1,594건으로 감소하였다.

〈표 VIII-4-6〉 구 실용신안(선등록 제도) 심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기초적 요건 심사				기술평가		
	등록의뢰	보정명령 등	취하·무효	계	등록유지	등록취소	계
2004년	29,482 (78.2%)	7,502 (19.9%)	646 (1.7%)	37,694 (100.0%)	9,686 (67.2%)	4,730 (32.8%)	14,416 (100.0%)
2005년	27,717 (75.7%)	8,770 (24.0%)	105 (0.3%)	36,592 (100.0%)	8,868 (66.4%)	4,485 (33.6%)	13,353 (100.0%)
2006년	24,677 (72.7%)	9,256 (27.3%)	2 (0.0%)	33,935 (100.0%)	8,005 (70.9%)	3,285 (29.1%)	11,290 (100.0%)
2007년	169 (67.9%)	79 (31.7%)	1 (0.4%)	249 (100.0%)	5,389 (66.3%)	2,738 (33.7%)	8,127 (100.0%)
2008년	33 (68.8%)	15 (31.2%)	-	48 (100.0%)	852 (53.5%)	742 (46.5%)	1,594 (100.0%)

* 주 : 기술평가에서 등록유지는 일부 등록유지를 포함함

2008년 PCT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는 2007년 대비 56.2% 증가한 12,936건을 작성하였고, PCT 예비심사보고서는 2007년 대비 19.1% 감소한 474건을 작성하였으며 이중 4.6%인 22건에 대해서 견해서를 작성하였다.

〈표 VIII-4-7〉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현황

(단위 : 건)

구 분	PCT 국제조사			PCT 예비심사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선언서	견해서	예비심사보고서	견해서
2004년	2,932	19	1,927	1,035	448
2005년	3,649	14	3,663	842	237
2006년	4,753	35	4,788	639	99
2007년	8,280	51	8,330	586	26
2008년	12,936	84	13,020	474	22

제3절 상표 및 디자인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서기관 전현중

1. 상표등록출원 심사

상표등록출원의 1차 심사처리물량은 162,697건으로, 이 중 48.7%에 해당하는 79,197건은 공고결정, 51.0%에 해당하는 83,500건은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1차 심사처리기간은 '08년 말 기준 6.5개월로 '07년 말 기준 5.7개월보다 0.8개월 증가 하였으나 심사처리기간 8.0개월을 달성하였다.

〈표 VIII-4-8〉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공고	의견제출	기타	심사처리기간
2008년	162,697	79,197	83,007	493	6.5개월
(구성비)	(100)	(48.7)	(51.0)	(0.3)	
2007년	171,858	82,020	88,164	1,674	5.7개월
(구성비)	(100)	(47.7)	(51.3)	(1.0)	
2006년	172,045	88,931	81,126	1,988	5.9개월
(구성비)	(100)	(51.7)	(47.2)	(1.2)	

* 주 : 다류상표 기준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종결된 169,507건 중 78.6%인 133,297건이 등록결정되었고, 21.4%인 36,210건이 거절되었다.

1차 심사처리결과 51.0%에 해당하는 건에 대하여 의견제출통지를 하여 전년도 의견제출통지비율인 51.3%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상품별심사제도에 의하여 거절이유와 해소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통지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된 비율은 78.6%로 전년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VIII-4-9〉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2008년	169,507	133,297	36,210
(구성비)	(100)	(78.6)	(21.4)
2007년	155,357	118,528	36,829
(구성비)	(100)	(76.3)	(23.7)
2006년	170,526	130,175	40,351
(구성비)	(100)	(76.3)	(23.7)

* 주 : 다류상표 기준

2.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등록출원의 1차 심사처리물량은 51,492건으로, 이 중 52.1%에 해당하는 26,844건은 등록결정, 47.7%에 해당하는 24,549건은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1차 심사처리기간은, '08년 말 기준 5.6개월로 '07년 말 기준 5.5개월보다 0.1개월 증가하였으나 심사처리기간 목표인 8개월을 달성하게 되었다.

〈표 VIII-4-10〉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의견제출	기타	심사처리기간
2008년	51,492	26,844	24,549	99	5.6개월
(구성비)	(100)	(52.1)	(47.7)	0.2	
2007년	58,587	33,758	24,694	135	5.5개월
(구성비)	(100)	(57.6)	(42.1)	(0.2)	
2006년	48,369	31,335	16,910	124	5.9개월
(구성비)	(100)	(64.8)	(35.0)	(0.2)	

* 주 : 복수디자인 기준

심사를 종결한 물량은 55,514건으로 이 중 82.4%에 해당하는 42,466건은 등록결정되었고, 17.6%에 해당하는 9,048건은 거절결정되었다. '07년도 거절결정비율인 15.4%보다 거절결정비율이 2.2%p 높아졌지만 이는 종전의 심사처리기간 및 심사량 중심에서 심사품질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참증거절률 증가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VIII-4-11〉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2008년 (구성비)	55,514 (100)	42,466 (82.4)	9,048 (17.6)
2007년 (구성비)	54,999 (100)	46,539 (84.6)	8,460 (15.4)
2006년 (구성비)	47,211 (100)	42,183 (89.3)	5,028 (10.7)

* 주 : 복수디자인 기준

5

CHAPTER

심 판

제8편 출원, 심사·심판, 등록분야 동향 및 전망

제1절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행정주사 정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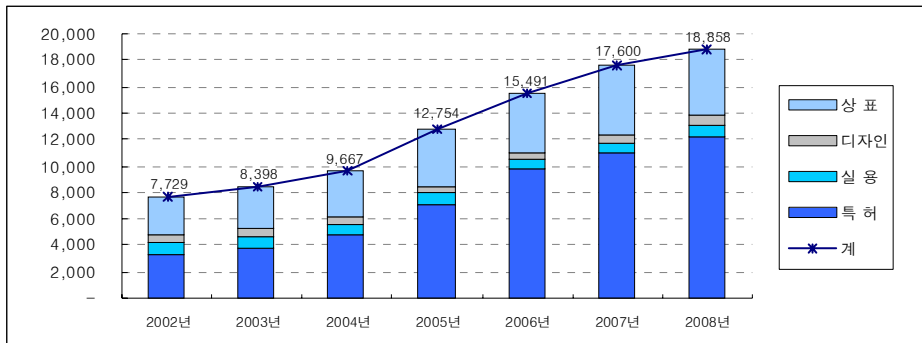
가. 권리별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

심판청구건수는 2008년 18,858건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권리별로 보면 특허 11.8%, 실용신안 20.3%, 디자인 27.5%, 상표 -6.6%의 증감율을 나타내고 있다. 심판청구건수의 증가 원인은 지식재산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자리매김 하면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경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II-5-1〉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청 구 (증가율)	특 허	3,376 (12.4)	3,821 (13.2)	4,798 (25.6)	7,142 (48.8)	9,725 (36.2)	10,950 (12.6)	12,237 (11.8)
	실 용	887 (△1.9)	788 (△11.2)	827 (4.9)	786 (△5.0)	765 (△2.7)	753 (△1.6)	906 (20.3)
	디자인	559 (6.3)	594 (6.3)	544 (△8.4)	480 (△11.8)	503 (4.8)	601 (19.5)	766 (27.5)
	상 표	2,907 (12.1)	3,195 (9.9)	3,498 (9.5)	4,346 (24.2)	4,498 (3.5)	5,296 (17.7)	4,949 (△6.6)
	계	7,729 (10.0)	8,398 (8.7)	9,667 (15.1)	12,754 (31.9)	15,491 (21.5)	17,600 (13.6)	18,858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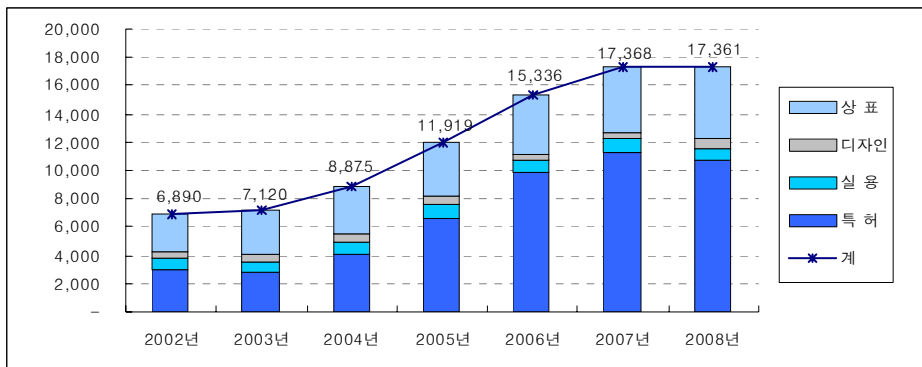


심판처리건수는 2008년 17,361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그 중 상표 분야 처리건수는 5,138건으로 전년 대비 10.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VIII-5-2〉 심판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처 리 (증가율)	특 허	3,022 (25.1)	2,836 (△6.2)	4,051 (42.8)	6,572 (61.9)	9,793 (49.0)	11,335 (15.7)	10,741 (△5.2)
	실 용	766 (26.0)	728 (△5.0)	876 (20.3)	1,041 (18.8)	857 (△17.7)	862 (0.6)	855 (△0.8)
	디자인	457 (△16.3)	570 (24.7)	585 (2.6)	518 (△11.5)	465 (△10.2)	531 (14.4)	627 (17.9)
	상 표	2,645 (9.0)	2,986 (12.9)	3,363 (12.6)	3,788 (12.6)	4,221 (11.4)	4,639 (9.9)	5,138 (10.8)
	계	6,890 (14.9)	7,120 (3.3)	8,875 (24.6)	11,919 (34.1)	15,336 (28.7)	17,368 (13.2)	17,361 (△0.04)



나.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청구인별 심판청구건수 비율은 국내기업이 41.5%, 외국기업이 34.8%, 개인이 19.5%를 점유하여 심판청구건수 대부분(95.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5-3〉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개 인 (내국인)	특 허	605	627	739	977	1,275	1,743	1,718
	실 용	492	435	453	415	413	388	449
	디자인	280	294	285	234	246	334	352
	상 표	671	790	1,050	1,257	1,007	1,163	1,007
	계	2,048 (24.1)	2,146 (23.5)	2,527 (23.4)	2,883 (20.2)	2,941 (19.0)	3,628 (20.6)	3,526 (18.7)
국내기업	특 허	1,274	1,601	2,230	3,127	4,510	4,771	5,200
	실 용	374	342	355	354	338	352	440
	디자인	240	252	253	221	226	235	365
	상 표	1,465	1,631	1,694	2,061	1,643	2,022	1,830
	계	3,353 (39.5)	3,826 (41.8)	4,532 (42.0)	5,763 (40.4)	6,717 (43.4)	7,380 (41.9)	7,835 (41.5%)
공 공 연구기관	특 허	50	66	83	131	132	230	358
	실 용	-	-	2	-	-	1	4
	디자인	-	-	-	-	-	1	6
	상 표	-	1	1	3	4	2	3
	계	50 (0.6)	67 (0.7)	86 (0.8)	134 (0.9)	136 (0.9)	234 (1.3)	371 (2.0)
대 학	특 허	18	34	49	90	62	200	325
	실 용	-	-	-	-	-	1	1
	디자인	-	-	-	-	-	-	-
	상 표	4	2	10	8	7	12	4
	계	22 (0.3)	36 (0.4)	59 (0.5)	98 (0.7)	69 (0.4)	213 (1.2)	330 (1.7)
외국법인	특 허	1,388	1,464	1,641	2,701	3,434	3,854	4,494
	실 용	13	7	12	15	6	7	6
	디자인	47	49	34	26	26	26	41
	상 표	1,475	1,405	1,648	2,377	1,687	1,975	2,016
	계	2,923 (34.4)	2,925 (32.0)	3,335 (30.9)	5,119 (35.8)	5,153 (33.3)	5,862 (33.3)	6,557 (34.8)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외국인	특 허	12	18	24	79	82	91	94
	실 용	3	1	3	-	1	2	-
	디자인	-	1	-	2	2	1	2
	상 표	21	20	44	61	47	70	56
	계	36 (0.4)	40 (0.4)	71 (0.7)	142 (1.0)	132 (0.8)	164 (0.9)	152 (0.8)
기 타	특 허	29	11	32	37	230	61	48
	실 용	5	3	2	2	7	2	6
	디자인	-	8	-	1	3	4	-
	상 표	32	87	135	102	103	50	33
	계	66 (0.8)	109 (1.2)	169 (1.6)	142 (1.0)	343 (2.2)	117 (0.7)	87 (0.5)

* 기타 : 국가, 자치단체 등, 괄호는 구성비(%)

다. 내국인·외국인간 심판청구

2008년도 당사자계 심판의 청구건수는 총 4,267건으로, 이 중 내국인과 내국인간의 심판청구건수는 3,023건(70.8%),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심판청구건수는 1,112건(26.1%), 외국인과 외국인간의 심판청구건수는 132건(3.1%)이다.

〈표 VIII-5-4〉 내국인·외국인간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내내국	특 허	377	421	509	651	790	939	1,026
	실 용	632	552	539	474	481	457	445
	디자인	395	436	410	319	396	420	495
	상 표	713	939	1,066	1,163	1,233	1,256	1,057
	계	2,117	2,348	2,524	2,607	2,900	3,072	3,023
내외국	특 허	52	60	89	87	90	101	107
	실 용	4	-	1	1	-	3	8
	디자인	-	3	2	3	7	2	6
	상 표	241	183	210	242	185	240	217
	계	297	246	302	333	282	346	338
외내국	특 허	37	35	4	20	18	35	43
	실 용	12	2	5	4	6	5	3
	디자인	33	36	14	9	24	10	17
	상 표	360	363	480	534	685	684	711
	계	442	436	503	567	733	734	774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외외국	특 허	8	5	13	19	6	5	7
	실 용	-	-	-	-	-	-	-
	디자인	-	-	-	-	-	-	1
	상 표	100	113	77	127	109	126	124
	계	108	118	90	146	115	131	132

* 내내국 : 청구인 내국인·피청구인 내국인

* 내외국 : 청구인 내국인·피청구인 외국인

* 외내국 : 청구인 외국인·피청구인 내국인

* 외외국 : 청구인 외국인·피청구인 외국인

라. 국내기업·외국기업간 심판청구

2008년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심판청구건수는 총 620건으로 그 중 상표에 대한 심판청구건수가 490건으로 79.0%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심판청구는 400건으로 64.5%를 차지하며 국내기업이 심판청구한 220건(35.5%)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허의 경우 외국기업의 심판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외국기업의 견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VIII-5-5〉 국내기업·외국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청구인	피청구인	권리별							
국내기업	외국기업	특 허	46	50	81	85	88	73	70
		실 용	5	1	2	1	-	-	8
		디자인	-	2	-	1	6	-	5
		상 표	171	115	131	126	107	147	137
		계	222	168	214	213	201	220	220
외국기업	국내기업	특 허	9	10	2	16	14	55	37
		실 용	6	1	2	6	5	5	3
		디자인	1	11	6	3	11	2	7
		상 표	201	163	226	258	281	300	353
		계	217	185	236	283	311	362	400

마. 중소기업·대기업간 심판청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심판청구건수는 2008년의 경우 총 262건으로 전년대비 1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권리별 심판청구건수를 보면 상표 65.5%, 특허 21.3%, 디자인 6.9%, 실용신안 6.3%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도 상표 관련 다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5-6〉 중소기업·대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권리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특 허	27	27	18	47	44	70	63
실 용	20	10	16	15	15	18	8
디자인	9	20	14	25	14	7	18
상 표	140	122	177	126	129	138	173
계	196	179	225	213	202	233	262

바. 심판처리기간

심판처리기간은 2008년말 기준으로 특허·실용신안 5.9개월, 상표·디자인 5.6개월로 전체적으로는 5.7개월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말 5.9개월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0.2개월 단축되었다.

〈표 VIII-5-7〉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

(단위 : 월)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특허·실용	11.1	14.0	12.0	9.6	8.1	5.9	5.9
상표·디자인	5.7	5.6	5.4	5.8	5.6	5.9	5.6
계	7.8	8.7	8.2	7.8	6.9	5.9	5.7

제2절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특허심판원 송무팀 전산주사 배혜정

1998년에 특허법원이 설립된 이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비율이 1999년 26.0%에서 2008년 18.8%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한편 심결취소율(특허법원의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비율)은 2008년 23.4%로 최근 5년간의 심결취소율 25.1%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소제기율이 감소한 것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전반적 수용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심결취소율이 감소한 것은 특허심판원 심결의 정확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VIII-5-8〉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심판처리	7,279	6,079	5,995	6,890	7,120	8,875	11,919	15,336	17,368	17,361
소제기 가능 심결	3,823	3,204	3,069	3,293	3,605	4,580	5,754	6,399	7,467	7,599
소 제 기	995	797	726	840	747	873	1,111	1,191	1,414	1,431
제소율(%)	26.0	24.9	23.7	25.5	20.7	19.1	19.3	18.6	18.9	18.8
판결건수	911	791	796	776	752	855	938	1,184	1,251	1,453
취소판결	235	188	217	236	206	219	246	328	293	340
취소율(%)	25.8	23.8	27.3	30.4	27.4	25.6	26.2	27.7	23.4	23.4

제3절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특허심판원 송무팀 전산주사 배혜정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은 2008년 38.5%로 최근 5년간의 상고율 39.2%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고심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비율은 2008년 10.9%로 최근 5년간의 파기율 10.8%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VIII-5-9〉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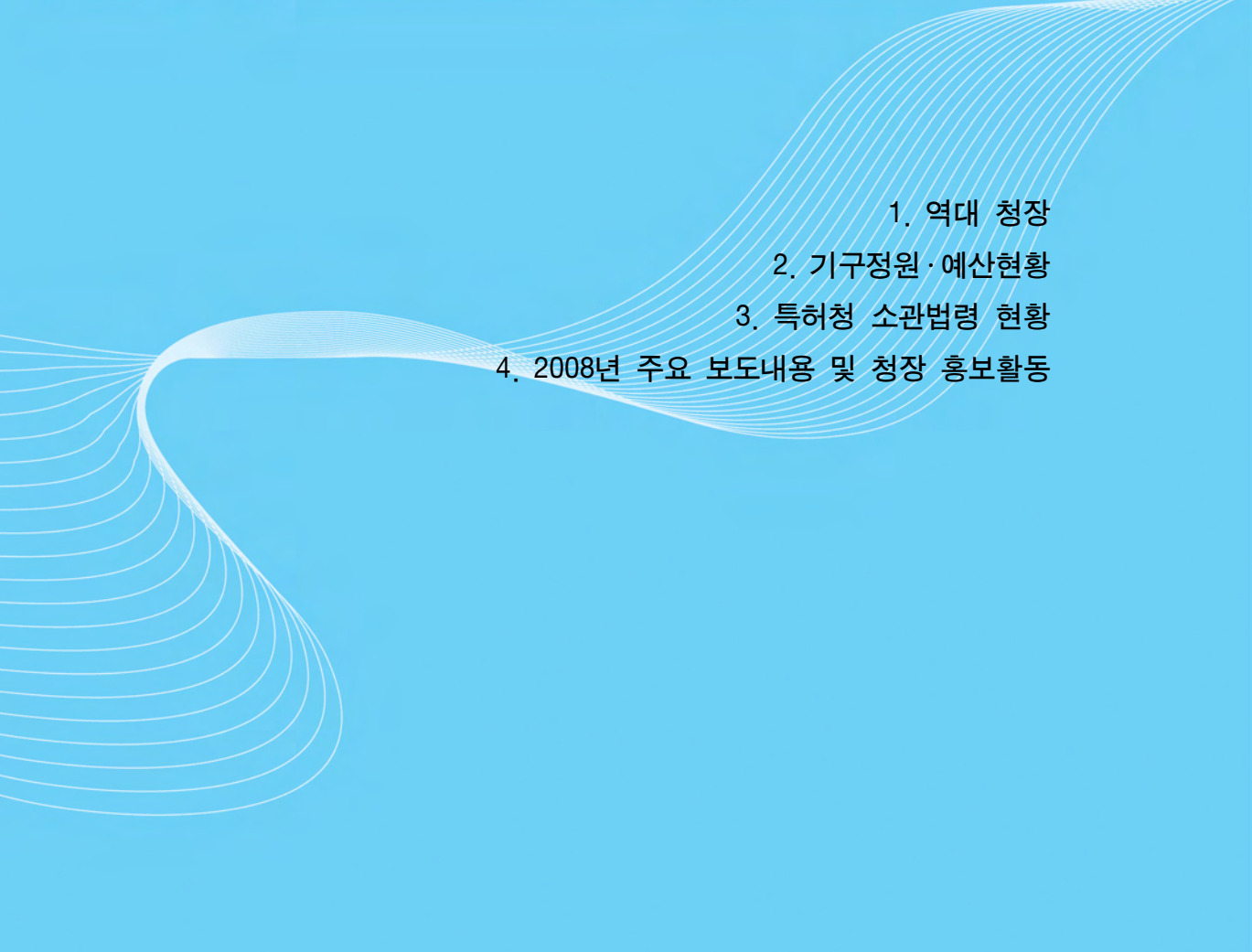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특허법원 판결		911	791	796	776	752	855	938	1,184	1,251	1,453
상 고	건 수	316	393	355	308	300	363	366	416	523	559
	상고율(%)	34.7	50.0	44.6	39.7	39.9	42.4	39.0	35.1	41.8	38.5
대법원 선고		241	365	461	368	283	383	294	473	520	580
파 기	건 수	24	27	66	61	32	41	45	44	51	63
	파기율(%)	10.0	7.4	14.3	16.6	11.3	10.7	14.9	9.3	9.8	10.9

지식재산부족 코리아
특허청이 함께 합니다





부 록

- 
1. 역대 청장
 2. 기구정원·예산현황
 3. 특허청 소관법령 현황
 4. 2008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 홍보활동

1. 역대 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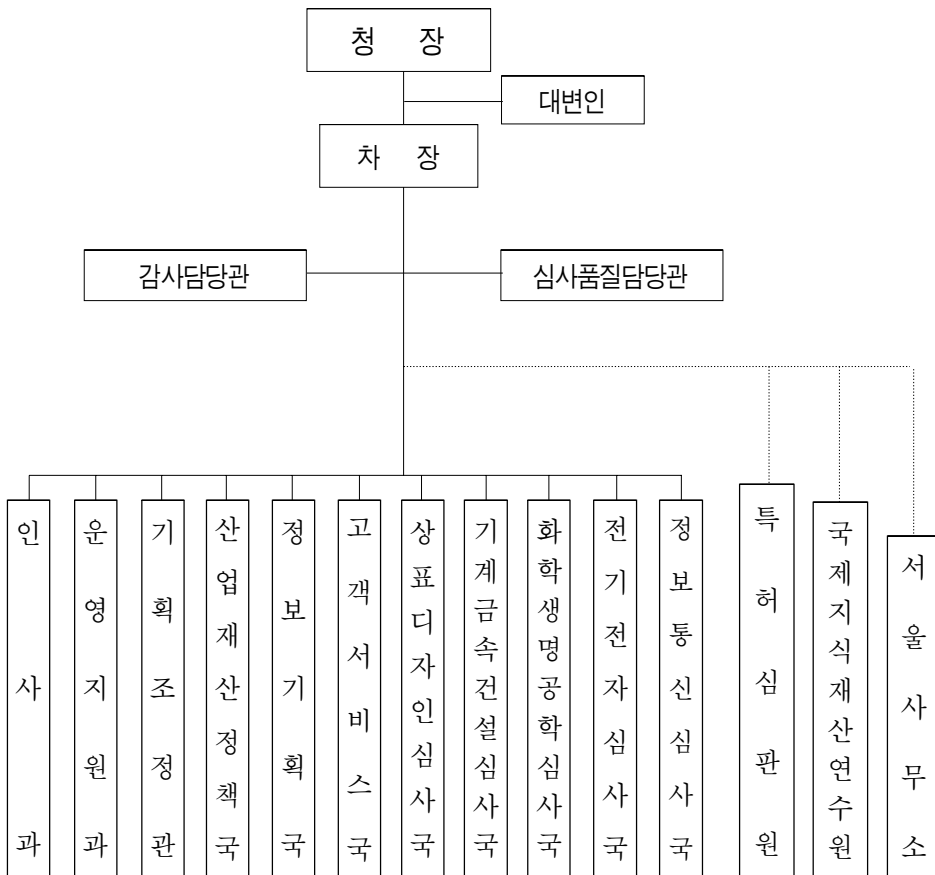
역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임 명 전 경 력
초대	배상옥(裵相穢)	'77.03.12~'77.12.22	공업단지관리청장
2 대	안영철(安永哲)	'77.12.23~'78.12.29	특허청 차장
3 대	이상섭(李相燮)	'78.12.30~'82.12.17	상공부 중공업차관보
4 대	홍성좌(洪性佐)	'82.12.28~'85.10.18	상공부 제1차관보
5 대	차수명(車秀明)	'85.10.19~'88.03.04	상공부 제1차관보
6 대	박홍식(朴洪植)	'88.03.05~'90.03.19	특허청 차장
7 대	김철수(金喆壽)	'90.03.20~'91.09.18	상공부 제1차관보
8 대	김태준(金泰俊)	'91.09.20~'93.03.03	상공부 제2차관보
9 대	안광구(安光谷)	'93.03.04~'95.12.25	상공부 제2차관보
10대	정해주(鄭海濟)	'95.12.26~'96.12.23	통상산업부 차관보
11대	한덕수(韓惠洙)	'96.12.24~'97.03.06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12대	최홍건(崔弘建)	'97.03.07~'98.03.08	통상산업부 기획관리실장
13대	김수동(金守東)	'98.03.09~'99.05.25	특허청 차장
14대	오강현(吳剛鉉)	'99.05.26~'00.08.10	산업자원부 차관보
15대	임내규(林來圭)	'00.08.11~'02.02.04	특허청 차장
16대	김광림(金光琳)	'02.02.05~'03.03.02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17대	하동만(河東萬)	'03.03.03~'04.09.02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18대	김종갑(金鍾甲)	'04.09.03~'06.01.31	산업자원부 차관보
19대	전상우(全湘雨)	'06.02.01~'08.04.30	특허청 차장
20대	고정식(高廷植)	'08.05.01 ~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2. 기구정원·예산현황

가. 기구

(2008. 12. 31 기준)

국(관)	과(팀)	소 속 기 관		
		심판원	연수원	사무소
1관 8국	51과 16팀	1과1팀	4과	3과



나. 정원

구 분	청장	고위 공무원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연구	기능	계
본청	1	10	12	40	163	782	143	44		1	83	1,279
소속 기관		13	4	42	53	43	32	12	7		26	232
계	1	23	16	82	216	825	175	56	7	1	109	1,511

다. 예산현황

1) 세입(순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예산	2009예산	증 감	
				%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269,153	293,375	24,222	9.0
기타 수입	44,585	78,465	33,880	76.0
합 계	313,738	372,042	58,304	18.6

2) 세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예산 (A)	2009예산 (B)	증 감 (B-A)	%
총 계	317,964	374,675	56,711	17.8
순계(=총계-계정간거래)	313,738	372,042	58,304	18.6
〈 손익계정 〉	313,738	371,840	58,102	18.5
□ 산업진흥고도화	151,553	234,126	82,573	54.5
○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37,541	38,763	1,222	3.3
○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38,299	55,297	16,998	44.4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4,356	9,111	4,755	109.2
○ 지식재산행정정보화	49,311	43,787	△5,524	△11.2
○ 지식재산권 활용촉진	22,047	87,167	65,120	295.4

구 분	2008예산 (A)	2009예산 (B)	증 감 (B-A)	%
□ 산업·중소기업 일반	162,185	137,714	△24,471	△15.1
○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01,376	106,622	5,246	5.2
○ 회계간 거래(전출금)	40,000	-	△40,000	순감
○ 회계기금간 거래	6,583	8,459	1,876	28.5
○ 회계기금간 거래(예탁금)	10,000	20,000	10,000	100.0
○ 계정간 거래	4,226	2,633	△1,593	△37.7
〈 자본계정 〉	4,226	2,835	△1,391	△32.9
□ 산업진흥고도화	3,279	2,398	△881	△26.9
○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1,485	880	△605	△40.8
○ 지식재산 창출·활용	21	21	-	-
○ 지식재산행정정보화	1,773	1,497	△276	△15.6
□ 산업·중소기업 일반	947	437	△510	△53.8
○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947	437	△510	△53.8
※ 별도통계				
1. 인건비	83,337	87,180	3,843	4.6
2. 기본경비	13,716	13,707	△9	△0.1
3. 예비비	1,987	3,408	△1,421	△71.6

3. 특허청 소관법령 현황

법 률(8)	대통령령(14)	부 령(12)	소관 부서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특허법시행규칙	특허심사정책과
	특허등록령	특허등록령시행규칙	고객서비스과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산업재산진흥과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 규정		
		특허료등의징수규칙	고객서비스과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실용신안법시행규칙	특허심사정책과
	실용신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고객서비스과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시행령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등록령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고객서비스과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상표법시행규칙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상표등록령	상표등록령시행규칙	고객서비스과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시행령		산업재산정책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 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 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산보호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관한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 에관한법률시행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반도체설계재산팀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리사법시행규칙	산업재산인력과

4. 2008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 홍보활동

가. 신문·방송 주요 보도내용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1.3	특허청 직원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진출 확대	중도일보, 대전일보 등	국제협력과
1.4	여성발명인의 고유한 활동 영역 넓혀	매일경제	섬유생활용품심사과
1.4	특허청, '짜퉁' 신고자에게 작년 한해 총 323백만원 포상금 지급	디지털타임스, 한겨레신문 등	산업재산보호팀
1.5	유선전화와 무선전화를 하나로	디지털타임스, 새충청일보 등	네트워크심사팀
1.8	청정 가상공간을 향하여! 스팸처리 기술의진화	디지털타임스, 대전일보 등	전자상거래심사과
1.9	국유특허권 라이선스 계약 안방에서 한다	서울신문, 대전일보 등	산업재산진흥과
1.10	친환경수로관, 도롱뇽을 살린다	중도일보	디자인2심사팀
1.11	특허심사처리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특허심사정책과
1.12	특허청, 개도국 지원사업 대폭 확대	대전일보	국제협력과
1.15	특허기술정보 검색이 편리해집니다.	대전일보, 새충청일보 등	정보관리과
1.15	맞춤형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신청하세요	새충청일보, 매일경제 등	산업재산정책과
1.16	특허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포괄적 업 무협약 체결	충청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디스플레이심사팀
1.17	특허서식 대폭 감축... 손쉬운 특허출원 기대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정보개발과
1.18	안정적인 송전(送電)의 해결사, 송전선용 섬유강화 복합재료!	매일경제	복합기술심사2팀
1.19	기업의 브랜드 관리에도 "건강" 바람이...	매일경제, 세계일보 등	서비스표심사과
1.22	특허청, 지식재산권 정보 확충으로 심사품질 제고!	대전일보, 충남일보 등	정보관리과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1.22	특허기술, “기술경매”로 산다	매일경제, 대전일보 등	산업재산진흥과
1.23	입체 방송시대의 도래, 가속화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1.24	섬유산업의 ‘재도약’ 특허청이 버팀목 되다!	매일경제, 충청신문 등	섬유생활용품심사과
1.24	자동차가 지능을 가지고 진화한다	새충청일보	자동차심사과
1.25	'06년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자신문, 서울신문 등	산업재산정책과
1.26	자동차도 이젠 물탄 페인트로 칠한다!	한국경제	정밀화학심사과
1.26	중앙행정기관 최초 ISO20000, ISO27001 인증 동시 획득	디지털타임스, 중도일보 등	정보기반과
1.29	“트랜지스터” 이제는 조립한다	뉴시스 등	반도체심사과
1.30	국내 고교에 발명창작과 첫 개설	한국경제, 동아일보 등	지식재산교육과
1.31	이젠 지역특산품으로 승부할 때!!	서울신문, 중도일보 등	산업재산정책과
1.31	특허민원서비스, 이젠 손쉽게 이용하세요	뉴스와이어 등	정보기획과
1.31	특허청 “온라인 기술경매” 개시	매일경제, 서울신문 등	산업재산진흥과
2.1	특허심판, ‘6개월’ 이내 종결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등	심판정책과
2.1	특허권 유지·관리 쉬워진다	연합뉴스 등	고객서비스과
2.2	웰빙시대의 필수품 ‘진공포장기’ 특허출원 동향	뉴스와이어 등	운반기계심사과
2.2	지역의 발명메카 홈페이지 오픈!!	뉴스와이어 등	산업재산정책과
2.5	깨끗한 과일과 야채를 원해요!	디지털타임스 등	식품생물자원심사과
2.6	특허청, 국유특허권 실시료 수입으로 6.4억 벌어	디지털타임스,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진흥과
2.7	황금돼지해, 유아 브랜드 상표출원 “붐물”	매일경제, 대전일보 등	서비스표심사과
2.8	승강기 안전장치 특허출원 증가	충청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운반기계심사과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2.9	옥수수를 입어요!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화학소재심사과
2.12	최근 2년간 UCC 특허출원 대폭 증가	디지털타임스, 한국경제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2.13	특허컨설팅을 통한 지역 유망기업 육성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산업재산정책과
2.14	헬리콥터 기술 특허출원 동향	뉴스와이어 등	운반기계심사과
2.14	우리나라 지식재산 교육시스템 동유럽까지 전파	충청신문	교육기획과
2.15	새해 금연결심, 휴대폰이 지켜드립니다!	충청투데이, 한국일보 등	네트워크심사팀
2.15	연구노트를 통한 체계적 연구성과 관리 문화 확산	뉴스와이어 등	정보기획과
2.16	『기업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경제, 서울신문 등	산업재산정책과
2.20	미래를 위한 선택 - 온실가스 감축	충청투데이, 충청신문 등	복합기술심사2팀
2.21	특허청, 2007년 발명의 평가 사업 시행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산업재산진흥과
2.22	대학의 지식재산 파수꾼,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정책과
2.23	상처, 흉터없이 다스린다	매일경제, 충청투데이 등	생명공학심사과
2.26	내시경 검진 우아하게 할 수 있을까?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컴퓨터심사과
2.27	기술평가를 통한 대학, 연구소의 우수 특허기술 발굴	한국경제,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진흥과
2.28	황사의 진원지 중국을 정확히 한다.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	공조기계심사과
3.2	차세대 디스플레이도 한국이 선도	한빛일보, 새충청일보 등	영상기기심사과
3.5	특허청 심사관, 주경야독으로 법률지식업그레이드	뉴스와이어 등	인사과
3.5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본격 개시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산업재산정책과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3.6	특허청, 학진과 대학 지식재산역량 강화에 나선다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정책과
3.7	위폐, 알고 보면 보여요!	머니투데이, 한빛일보 등	정밀화학심사과
3.8	특허청 『제8회 반도체설계 공모전』 개최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전기심사과
3.9	특허청 『개청 30주년 기념 직무발명세미나』 개최	매일경제 등	일반기계심사과
3.12	상표·디자인권의 축제 『2007 상표·디자인展』 개최	매일경제, 충청신문 등	상표디자인 심사정책과
3.12	대학 중점연구분야, 특허지도 그린다 !!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정보기획과
3.13	특허청이 걸어온 30년, 지식재산 강국을 열어갑니다.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재정기획담당관실
3.13	특허청 개청 30주년 기념 엠블럼 공개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디자인1심사과
3.14	국가R&D, 특허 경영 시대 열려	디지털타임스	정보기획과
3.15	특허심판원, 『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	뉴스와이어 등	송무팀
3.16	IPTV 본격 서비스 앞두고 특허출원 대폭 늘어	전자신문, 충청투데이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3.16	미국 특허소송 판례, 이제 한글로 본다 !!	매일경제 등	정보기획과
3.19	민원인이 작성하기 편리한 새로운 특허서식	뉴스와이어 등	고객서비스과
3.20	전국 주요대학으로 특허강좌 확산!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정보기획과
3.21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제도 시행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특허심사정책과
3.22	지역특산물 명성, 상표권으로 다시 태어나	한국경제, 경향신문 등	상표1심사과
3.23	지식재산 전문인력육성 추진기획단 발족	서울경제, 서울신문 등	산업재산정책과
3.23	이동통신 중계기도 이제는 '무선시대'	뉴스와이어 등	네트워크심사팀
3.26	발코니 확장, 화재 대책은 어떻게!	한빛일보 등	금속심사과
3.27	특허청, 기술사업화 중매 선다	디지털타임스, 서울경제 등	산업재산진흥과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3.28	조명등에도 반도체 바람	충청신문, 충청일보 등	전기심사과
3.29	고성능 전자제품에 활용되는 차세대 열유송 유체	충청일보 등	정밀기계심사과
3.30	특허심판 결과를 휴대폰, 이메일로 받아본다	중앙일보, 서울경제 등	심판정책과
3.30	국제특허 심사할 때, 한국특허문헌 반드시 찾아봐야	한국경제, 서울신문 등	정보기획과
3.31	2차 전지 안전장치, 핵심기술로 떠올라	충청투데이 등	환경화학심사과
4.2	자동차 급발진 사고, 특허로 막는다	충청투데이, 한국경제 등	복합기술심사1팀
4.2	온라인 기술경매 열기 후끈!	대전일보, 서울경제 등	산업재산진흥과
4.3	특허기술 사업화에 3,721 억원 지원	디지털타임스,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진흥과
4.4	짜통 방지 '홀로그래프', 브랜드 보호의 새 기술	뉴스와이어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4.5	"좋은 일터"를 넘어서서 "행복한 일터"로 !	서울신문, 매일경제 등	고객서비스과
4.6	과학기술 발전에서 여성 발명가의 기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 등	전자심사과
4.7	LCD용 외부전극형광램프(EEFL) 출원 상승세	뉴스와이어 등	디스플레이심사팀
4.9	'황의 법칙'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디지털타임스, 대전일보 등	반도체심사과
4.10	온라인 특허출원 더욱 간편해진다.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정보개발과
4.10	UCC,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	뉴시스 등	전자상거래심사과
4.10	해외진출 기업, 지식재산권부터 챙겨야	충청매일, 새충청일보 등	국제협력과
4.11	특허청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해설" 발간	뉴스와이어 등	컴퓨터심사과
4.11	특허청, 한미 FTA 산업재산권 분야 협상 결과 발표	서울신문, 한국경제 등	국제협력과
4.12	전국 발명교실 관계자 워크숍 개최	충청투데이, 충청신문 등	산업재산진흥과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4.13	졸음운전 퇴출시키는 재미있는 특허기술들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공조기계심사과
4.14	전통술의 새로운 변신	서울신문, 충청투데이 등	식품생물자원심사과
4.16	실감 재현으로 진화하는 휴대폰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통신심사과
4.16	국제상표 제도 개선을 위한 제1차 “한·일 마드리드 실무회의” 개최	뉴시스 등	국제상표심사과
4.17	“노·사 상생의 해법” 직무발명제도 !!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산업재산정책과
4.17	특허청의 성과주의 인사운영이 주목된다	서울신문, 중도일보 등	인사과
4.18	자동차, 유비쿼터스 공간으로 진화	디지털타임스, 충청신문 등	유비쿼터스심사팀
4.19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향 제시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국제협력과
4.20	담배, 이젠 끊을 수 있다	서울신문, 중도일보 등	약품화학심사과
4.20	특허청, 이론헤망 우수특허기술 조사 (2007년 상반기)	충청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진흥과
4.21	우리의 웰빙 문화, 화장실에서 찾는다.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등	건설기술심사과
4.23	비누도 웰빙 바람 탄다!	뉴시스 등	정밀화학심사과
4.23	지역브랜드 전략 컨설팅, 특산물에서 축제까지	충청신문 등	산업재산정책과
4.24	특허청, 글로벌기업의 특허 국제조사기관으로 본격 부상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국제출원과
4.24	‘국가 R&D IP포럼’ 본격 출범	전자신문 등	산업재산정책과
4.25	특허청 간부, 영어토론 1년으로 국제경쟁력 키워	서울신문, 매일경제 등	기획재정담당관실
4.26	역량 없으면, 승진 못한다	새충청일보 등	인사과
4.27	차세대 저장기술, 국내기업이 이끈다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심사과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4.27	UCC 세상에선 당신도 발명왕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정보개발과
4.28	쓰레기통에도 특허바람	매일경제, 충청투데이 등	운반기계심사과
4.30	교구와 완구의 구분이 사라진다!	중도일보, 대전일보 등	섬유생활용품심사과
4.30	올해도 어린이날 정부체험행사는 열린다	매일경제	대변인실
5.1	국내외 특허동향 미리 알고 대처하자!! - 245개 핵심기술 특허지도(Patent Map) 온라인 서비스 개시 -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정보기획과
5.1	특허료 감면 고객, 편히 모시겠습니다.	뉴스와이어	등록서비스과
5.1	고객과 성과중심의 기업형 조직으로 거듭나다	뉴스와이어	창의혁신담당관실
5.2	2007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 개최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진흥과
5.3	어린이날에 발명체험을 선물로	한국경제, 대전일보 등	지식재산교육과
5.3	5월 '발명의 달' 행사로 풍성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	산업재산진흥과
5.4	야생동물과 농민의 갈등을 디자인 한다	뉴시스	디자인2심사팀
5.4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침서' 발간 배포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정책과
5.5	사이버 안전 지킴이! 유해정보차단 기술의 특허 동향	디지털타임스 등	전자상거래심사과
5.5	퀴즈도 풀고 발명 끼도 마음껏 발산하세요!!	뉴시스 등	산업재산정책과
5.7	각국 특허청, 특허행정 혁신사례 배우러 한국 온다	매일경제, 대전일보 등	국제협력과
5.7	특허기술상에 도전하세요!	충청신문, 대전일보 등	특허심사정책과
5.8	제8차 한-호주 특허청장 회담 개최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국제협력과
5.8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업무협약 체결 밝혀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정보협력팀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5.9	우리나라 특허정보 활용 시스템 아·태지역 전파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교육기획과
5.9	고객중심의 One-Stop 서비스 환경조성	뉴시스 등	전산자료과
5.10	지식재산강국을 향한 도전 30년!!	디지털타임스, 중도일보 등	창의혁신담당관실 특허청 30년사 TF
5.10	특허청,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 마련 (송도 테크노파크 업무협약)	인천신문, 현대일보 등	자동차심사과
5.11	전산우 특허청장, 제1차 세계 5개국 특허청장 회담 참석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국제협력과
5.11	특허청, '영동지역 지재권 워크숍' 개최	뉴스와이어 등	복합기술심사2팀
5.11	직위분류제로 운영되는 특허청의 성과관리	서울신문 등	성과관리팀
5.12	DMB의 지능형 길안내(TPEG) 서비스, 출원 급증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5.14	이의신청, 모방상표 잡는 효자	한국경제, 충청투데이 등	상표2심사과
5.1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중국 내 지재권 침해 대응전략' 소개	뉴시스 등	교육기획과
5.12	2007년도 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중도일보	산업재산인력과
5.15	조류 독감 관련 특허 출원 동향	한국경제, 중부매일 등	약품화학심사과
5.16	일본 지식재산 인재양성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이투데이	산업재산인력과
5.16	급변하는 소방시장을 주목하라!!	뉴스와이어	금속심사과
5.16	특허청, 『2007 발명의 평가 세미나』 개최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진흥과
5.17	특허청, 「'07년 디자인맵 사업 설명회」 개최	시민일보, 새충청일보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5.17	지식재산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이 한자리에!!	뉴스와이어 등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5.17	지식재산 5강, 실직 협력 닷 올렸다 (세계 5개국 특허청장 회담 성과)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국제협력과
5.18	제42회 발명의 날, 발명 유공자 77명 훈·포장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산업재산진흥과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5.18	발명의 날, 우수발명품 11점 전시된다	서울경제, 중앙일보 등	일반기계심사과
5.18	과학자와 함께하는 발명체험	중도일보 등	일반기계심사과
5.19	발전소 파수꾼, 발전설비 진단시스템 특허출원 급증	충청투데이 등	유비쿼터스심사팀
5.21	열려가 만능키 (휴대폰으로 열리는 세상)	대전일보, 중도일보 등	통신심사과
5.22	특허수수료 휴대폰으로 낸다	매일경제, 중앙일보 등	정보개발과
5.23	비밀번호는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네트워크심사팀
5.23	상표 속에 살아있는 역사인물 캐릭터	매일경제 등	상표3심사팀
5.25	종이서류 이젠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디지털타임스, 충청투데이 등	전자상거래심사과
5.26	첨단기술로 차량의 뒤집힘을 막는다!	충청투데이, 매일경제 등	자동차심사과
5.28	2007년 1/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중앙일보, 디지털타임스 등	특허심사정책과
5.28	특허청, 제1회 차세대반도체연구회 포럼 개최	대전일보, 새충청일보 등	반도체심사과
5.29	국내 특허풀 결성을 위한 『IT 특허풀과 지재권 전략세미나』 개최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5.30	빛의 반사를 감소시킨다!	매일경제, 충청일보 등	정밀기계심사과
5.30	한-미 FTA시대, 국경없는 지재권 전쟁	디지털타임스, 충청매일 등	산업재산보호팀
5.31	세계는 지금 대체연료 자동차 개발에 주목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원동기계심사과
6.1	핵심기술 해외출원비용 확대 지원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진흥과
6.1	본부단위의 고객센터 조직, 그 성과도 눈부서	뉴스와이어 등	고객서비스과
6.2	일회용 기저귀는 진화 중!	뉴시스 등	생명공학심사과
6.4	'모노그램' 상표출원 급증	뉴시스 등	상표2심사과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6.4	특허넷(KIPOnet) 브랜드 세계로 간다	중도일보 등	정보개발과
6.5	태극기 상표를 보면 역사가 보인다!	서울경제, 대전일보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6.5	반도체에도 다이어트 열풍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반도체심사과
6.7	국제특허 출원접수시스템(PCT-ROAD), 스페인어 버전 보급 시작	중도일보, 매일경제 등	정보협력팀
6.8	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단 (T/F)』 출범	매일경제, 서울신문 등	산업재산정책과
6.8	특허심판 절차를 심판당사자의 거주지에서 실시한다	머니투데이 등	심판정책과
6.9	치열한 특허 분쟁이 예상되는 백색 LED 기술	디지털타임스 등	영상기기심사과
6.11	백색미인, 새하얀 치아로 마무리	충청투데이 등	생명공학심사과
6.12	특허청, 차세대반도체 특허전문정보 계간지 'Next Semicon' 창간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반도체심사과
6.12	홀로그램, 동작, 색채만의 상표 도입에 따른 상표 등록제도 개선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등	고객서비스과
6.13	토종 캐릭터 상표권, 외국산에 안방 내줘	한국경제, 서울신문 등	서비스표심사과
6.14	휴대전화 문자입력, 더 쉽고 빠르게!	디지털타임스 등	통신심사과
6.15	젊은 발명가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정보협력팀
6.16	단순 팬시용 스티커는 이제 그만	충청투데이 등	복합기술심사2과
6.18	젊은 디자이너들의 멋진 비상	충청투데이 등	디자인1심사과
6.19	젊은 지성의 지식재산 우수논문을 찾습니다.	디지털타임스,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정책과
6.19	개인 이름도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	상표1심사과
6.20	새집증후군의 온상 건축마감재의 대변신	충청투데이, 매일경제 등	건설기술심사과
6.21	7월부터 개선되는 디자인 제도	매일경제, 대전일보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6.21	특허청,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과 업무협약 체결	중도일보 등	정보기획과
6.22	차세대 정보저장기술 개발 경쟁 가속화	디지털타임스, 매일경제 등	정보심사와
6.23	하수처리로부터도 전력을 생산한다	뉴시스 등	환경화학심사와
6.25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은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특허출원하는 경향이 있어 ...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정보기획과
6.26	국제표준에 따른 특허행정정보화 서비스 정착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기반과
6.29	제도 개선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정비	뉴스와이어 등	기획행정담당관실
6.26	7월부터 개선되는 상표 및 디자인 제도 설명회	서울경제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6.27	전국 예비특허인재, 제주에서 자웅을 겨루다 -지식재산 Summer School 개설	매일경제 등	정보기획과
6.27	더욱 간편해진 전자출원시스템 개통	디지털타임스, 매일경제 등	정보개발과
6.28	생소한 북한말, 상표로 다가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국제상표심사와
6.28	특허수수료, One-Click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개발과
6.29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특허제도	디지털타임스, 중도일보 등	특허심사정책과
6.29	특허권자의 입장이 강화된 특허법 시행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개선)	충청투데이 등	심판정책과
6.30	눈 속에 무지개가 들어온다!	뉴스와이어	정밀화학심사와
7.2	에어컨에 예술을 입혀라!	대전일보 등	공조기계심사와
7.2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하러 특허청에 갈 필요 없어	뉴시스 등	정보협력팀
7.3	대학의 전기전자분야 특허출원 급증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유비쿼터스심사팀
7.4	골프공 알면 싱글도 금방	파이낸셜뉴스, 충청투데이 등	섬유생활용품심사와
7.5	12간지 띠동물 중 “호랑이” 가장 선호	매일경제, 경향신문 등	상표3심사팀
7.6	알뜰생활 백서 : 잊어버린 포인트는 없는지 살피고 따져보자	뉴스와이어 등	전자상거래심사와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7.6	고객을 감동시키는 천사의 전화	서울신문 등	고객서비스과
7.7	가스터빈 연소기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뉴스와이어 등	원동기계심사과
7.9	전자종이, 과연 우리 생활에 파고들 것인가	디지털타임스, 중도일보 등	영상기기심사과
7.10	특허청과 함께하는 신나는 발명여행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지식재산교육과
7.11	철강산업 특허출원, 경쟁체제로 발전	한국경제, 충청투데이 등	금속심사과
7.12	전력선으로도 초고속 인터넷을 즐긴다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심사과
7.13	오존파괴물질의 대체물질 관련기술을 확보하라!	충청투데이 등	화학소재심사과
7.14	반도체칩의 정전기 방지회로 관련 기술개발 활발	디지털타임스 등	복합기술심사3팀
7.16	차량 안전 책임지는 카메라, 특허출원 대폭 증가	매일경제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7.18	특허청, 2007 하반기 수요기술조사 실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등	산업재산진흥과
7.19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디지털타임스, 대전일보 등	통신심사과
7.19	고속열차 속도경쟁 신기술로 결판	충청투데이 등	운반기계심사과
7.20	섬유의 능력은 끝이 없다!	뉴스와이어 등	섬유생활용품심사과
7.21	형태변화가 가능한 조명등, OLED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전기심사과
7.23	2007년 2/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중앙일보, 디지털타임스 등	특허심사정책과
7.23	오르막길, 거침없이 하이 쿵!	뉴스와이어 등	환경화학심사과
7.24	첨단특허행정 실력으로 인정받아	충청투데이 등	교육기획과
7.25	특허청, 대학·공공(연) 지식재산전략 매뉴얼 발간 !!	서울경제 등	산업재산정책과
7.25	학교발명 순회교육 수강자 30만명 돌파	충청투데이 등	지식재산교육과
7.26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PCT) '꾸준한 증가세'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국제출원과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7.26	국내 대학생, 한국 대표로 지재권국제프로그램에 참가	충청투데이	정보협력팀
7.27	불타는 얼음을 선점하라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기술-	뉴시스 등	정밀화학심사과
7.28	육식 배수소음을 줄인다	충청투데이	일반기계심사과
7.30	인터넷 원격근무시대를 여는 가상사설망 기술	디지털타임스 등	네트워크심사팀
7.30	세탁기 세계 시장점유율 1위가 보인다	뉴스와이어 등	원동기계심사과
7.31	특허청, 정보보호마크(Eprivacy, I-Safe) 재인증 완료	파이낸셜뉴스 등	정보기반과
8.1	상표·디자인권의 축제 『2007 상표·디자인展』 개최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8.1	제20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8월 1일 개최	디지털타임스, 중앙일보 등	산업재산인력과
8.2	전상우 특허청장, 「올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세계 50인」에 선정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	대변인실
8.2	온라인 특허분석 통합사이트 “e-특허나라” 개통!!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기획과
8.2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본격 지원	매일경제 등	산업재산정책과
8.3	특허청, (주)YTN과 과학방송 업무협약 체결	뉴스와이어 등	대변인실
8.4	DRM, 불법복제와의 한판 승부	충청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컴퓨터심사과
8.6	고객맞춤형 감동서비스를 위한 소멸예고안내	한국경제, 대전일보 등	등록서비스과
8.6	얼음이 필요 없는 휴대용 냉장고도 있다	뉴시스 등	공조기계심사과
8.6	대학의 특허관리 어드바이저가 대학의 특허창출을 크게 촉진	대전일보, 중도일보 등	산업재산정책과
8.7	주방의 변신, 식탁이 어디 있지?	파이낸셜뉴스, 충청투데이 등	디자인2심사팀
8.8	특허관리 전문역량 향상, 기술이전성과 제고의 지름길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진흥과
8.9	주름과의 전쟁	중도일보 등	약품화학심사과
8.9	영상전화 대중화 성큼, 특허도 대폭 증가	디지털타임스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8.10	미국 특허출원 더욱 편리해지고 심사결과도 조기 파악 가능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국제협력과
8.10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서울경제 등	특허심사정책과
8.11	BT·IT·NT의 융합체, 혈당바이오센서	중도일보, 디지털타임스 등	생명공학심사과
8.13	프리젠테이션하는 휴대폰!	디지털타임스, 대전일보 등	통신심사과
8.13	공무원들의 참여를 통한 혁신이야기	뉴시스 등	창의혁신담당관실
8.14	코리올리 힘, 환경분야 특허기술에 접목	뉴스와이어 등	환경화학심사과
8.14	휴대폰의 슬림화를 좌우하는 패키징 기술	충청투데이 등	복합기술심사3팀
8.15	기술유출예방을 위한, 직무발명보상 활성화 시급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산업재산정책과
8.16	2007 여대생 발명캠프 개최	매일경제, 대전일보 등	산업재산진흥과
8.17	특허청, 「성과관리제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	성과관리팀
8.17	2007 대한민국학생창의력 올림피아드 개최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산업재산인력과
8.18	토너가 먼저나 프린터가 먼저나?	뉴스와이어	정밀화학심사과
8.20	은(銀) 분말이 TV 속으로	디지털타임스	금속심사과
8.21	특허괴물(Patent Troll) 국내에서도 활동중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복합기술심사3팀
8.22	시대적 Trend나 사물의 이름도 상표등록 가능하다	충청일보 등	상표1심사과
8.23	불에도 끄떡없는 친환경 플라스틱	뉴스와이어	화학소재심사과
8.23	문명과 문명을 이어주는 장대교량	충청투데이	건설기술심사과
8.24	한국나노기술의 미래, 특허가 지킨다.	디지털타임스, 충청투데이 등	복합기술심사2팀
8.25	와이브로, 서비스 영역만 확대되면 금상첨화!	충청투데이 등	네트워크심사팀
8.25	꿈틀대는 '제2의 용' 베트남, 특허강국 한국 배우기에 열성	중도일보, 매일경제 등	교육기획과
8.27	특허서비스도 이젠 초고속으로	뉴시스 등	전기심사과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8.27	특허청, '지식재산 u-Work 연구회' 창립	뉴스와이어 등	정보개발과
8.27	연세대 박승복君,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 대상 수상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산업재산인력과
8.28	국내 대학의 PDP 특허출원, 건수보다 실속!	충청투데이 등	영상기기심사과
8.28	"거울에 또 할거죠?" 특허청 직원 자녀 IT 교육 성료	뉴스와이어 등	정보기반과
8.29	PC의 진화, 그 끝은 어디인가?	뉴스와이어 등	전자심사과
8.30	GPL3 대비,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강화해야	뉴시스 등	컴퓨터심사과
8.31	인터넷을 통한 심판관 면담 신청	중도일보 등	심판정책과
8.31	브랜드 경영의 첫걸음, "상표 트렌드 분석"에서	충청투데이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9.1	치열해지는 LCD 광시야각 기술 개발 경쟁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디스플레이심사팀
9.3	장애인용 자동차 편의장치, 특허출원 증가 추세	뉴시스 등	자동차심사과
9.3	특허청, 이진희망 우수특허기술 조사 (2007년 하반기)	뉴시스 등	산업재산진흥과
9.3	인터넷 공보가 확~ 바뀌었어요	뉴스와이어 등	정보관리과
9.4	백색가전이 사라지고 있다	뉴시스 등	디자인1심사과
9.4	휘발유 3ℓ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하이브리드카용 전지)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	환경화학심사과
9.5	지식재산권 발전과 함께한 20년	전자신문, 충청투데이 등	교육기획과
9.5	해외에서 특허소송시 5천만원까지 지원받아	조선일보,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보호팀
9.6	다가오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도 국내 업계가 주도	디지털타임스, 한 국경제 등	디스플레이심사팀
9.7	전자레인지 [microwave] 의 무한 변신!	뉴스와이어 등	전자심사과
9.7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생활속의 음성기술	뉴스와이어 등	정보심사과
9.8	자동차 안전의 파수꾼, ABS	뉴스와이어 등	복합기술심사1팀
9.10	'한국형 특허시스템' 해외수출 급물상... 태국과 MOU 체결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협력팀
9.11	편리한 검침, 안전한 검침	충청투데이 등	유비쿼터스심사팀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9.12	사무용품, 알고 보면 특허용품	한국경제, 충청투데이 등	일반기계심사과
9.13	숨겨진 진주, 국유특허를 찾아라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진흥과
9.13	플렉시블기관, 유비쿼터스시대 앞당긴다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정밀화학심사과
9.13	전국 순회 지재산 포럼 개최	디지털타임스,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정책과
9.14	특허청, “재택근무중 이상무!”	대전일보, 매일경제 등	정보개발과
9.15	반도체 웨이퍼의 평탄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디지털타임스 등	반도체심사과
9.17	2007년 하반기 특허기술상 온라인 공모	충청투데이, 헤럴드경제 등	특허심사정책과
9.17	특허사업화 성공스토리의 한마당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진흥과
9.17	건설 폐기물 처리 기술개발 동향	뉴스와이어 등	환경화학심사과
9.18	한국에 출원되는 마드리드 국제상표 미국이 1위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국제출원과
9.19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현상모집」 행사 개최	서울경제,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인력과
9.19	지구 온난화 방지는 우리 기술로	뉴스와이어 등	원동기계심사과
9.20	특허청, 영문 뉴스레터 발행을 통한 지재산분야 대외 홍보 강화	매일경제 등	국제기구팀
9.20	이제는 특허관리전문역량을 키워야 할 때...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등	산업재산정책과
9.21	전상우 특허청장, 제43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총회 참석	전자신문, 서울경제 등	국제기구팀
9.21	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서비스 개시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자동차심사과
9.22	재난지역에서도 인터넷을!	뉴시스 등	통신심사과
9.27	국가 R&D 특허성과 양적으로 팽창중!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정보기획과
9.27	특허청, 대학·공공(연) 지식재산관리역량 강화방안 발표	디지털타임스, 서울경제 등	산업재산진흥과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9.27	'특허넷' 인도네시아 수출 가시화 (인도네시아와 MOU 체결)	전자신문, 매일경제 등	정보협력팀
9.28	건축 레이아웃과 특허	뉴시스 등	건설기술심사과
9.29	빛의 안내자, 렌즈	매일경제 등	유비쿼터스심사팀
9.29	한국어, 지식재산권분야의 국제적 공용어로 인정되다	매일경제, 중앙일보 등	국제기구팀
10.1	특허청, 금융부문 BM특허 설명회 개최	뉴시스 등	전자상거래심사과
10.2	컴퓨터 정전기 방지는 우리 기술로	충청일보 등	화학소재심사과
10.4	CAS(수신제한시스템) 분야 특허분쟁에 대비해야	디지털타임스, 충청투데이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10.5	"한지"에도 특허가 있네?	충청일보 등	공조기계심사과
10.5	병영에서 활짝 핀 발명의 꿈	한국경제,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정책과
10.6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스케이트보드	충청투데이 등	복합기술심사1팀
10.8	인류와 지구의 푸른 미래를 위한 선택, 수소!	디지털타임스 등	복합기술심사2팀
10.9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 경제효과 2조 4,464억원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	특허심사정책과
10.9	PCT 국제특허출원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한 특허청	뉴스와이어 등	교육기획과
10.10	보다 얇고 작게, 그리고 더욱 가볍게 -인쇄 회로 기술 출원 동향-	연합뉴스	전자심사과
10.10	재직중 사망 직원 자녀 대학까지 학비 지원 (특허가족 복지자금 조성)	서울신문, 대전일보 등	운영지원과
10.11	차세대 측정장치로 사용되는 레이저	뉴스와이어 등	정밀기계심사과
10.11	금보다 비싼 반도체 칩을 경호한다.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화학소재심사과
10.12	2007 여성발명경진대회 개최	뉴시스 등	산업재산진흥과
10.13	휴대폰과 함께 진화한 진동모터	충청투데이 등	전기심사과
10.15	PDP 특허 컨퍼런스 개최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영상기기심사과
10.16	국내 특허폴 결성을 위한 지재권 전략 세미나 개최	디지털타임스, 서울경제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10.17	고층 건축물의 숨은 주역, 타워크레인	아시아경제 등	금속심사과
10.18	전문의약품의 '카테일 붐'	뉴시스 등	약품화학심사과
10.18	"07년 특허행정체험단", 특허행정의 불편함을 찾아라!!	디지털타임스, 충청투데이 등	고객서비스과
10.19	특허가 거절되더라도 다시 심사받을 기회 부여 (고객 맞춤형 특허제도 기반 강화)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특허심사정책과
10.20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의 결합, '나노의약품'	디지털타임스 등	복합기술심사2팀
10.20	디스플레이 부문 IT 지재권 포럼 개최	뉴스와이어 등	디스플레이심사팀
10.22	특허청, 전자신청 도입으로 신청간소화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반도체설계재산팀
10.23	글자체도 디자인이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디자인1심사과
10.24	'김'도 웰빙 열풍!	충청투데이 등	식품생물자원심사과
10.25	발명교육으로 등근세상 만들기	뉴스와이어 등	지식재산교육과
10.26	휴대폰의 사용주파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충청일보 등	유비쿼터스심사팀
10.27	도시의 야경이 화려해진다	뉴시스 등	영상기기심사과
10.29	요통의 완치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뉴시스 등	생명공학심사과
10.30	세계 선진 기업의 특허전략을 한눈에 (국제특허정보 컨퍼런스)	전자신문, 한국일보 등	정보협력팀
10.31	특허청,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매일경제 등	국제출원과
10.31	조선산업 원천기술, 쇄빙선박이 기회	중앙일보 등	운반기계심사과
11.1	특허문서전자화센터 홈페이지로 초대합니다.	연합뉴스 등	정보관리과
11.1	대학, 연구소 우수특허기술 기업에 이전한다 -2007 특허유통 Festival-	디지털타임스, 대전일보 등	산업재산진흥과
11.2	버스승강장, 지역홍보역할 톡톡히!	뉴스와이어 등	디자인2심사팀
11.3	GPS의 진화 어디까지인가?	헤럴드경제 등	건설기술심사과
11.3	2007 KOICA-IIPTI 특허행정정보화 과정 개최	뉴스와이어 등	교육기획과
11.5	맞춤형 의약품 "세포치료제"	한국경제, 충청투데이 등	생명공학심사과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11.5	특허청, 반도체산업의 지재권보호전략에 관한 포럼 개최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반도체심사과
11.6	'07전국학생발명 상상화 및 캐릭터·디자인 그리기 대회 수상작품 선정 시상	뉴스와이어 등	산업재산인력과
11.6	한국특허정보, 해외 특허청에서 자유롭게 검색한다	머니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협력팀
11.7	특허청, 상표법 영문 해설집 발간 등을 통하여 국내 지재권 법과 제도에 대한 국외홍보 강화	뉴스와이어 등	국제기구팀
11.7	웹기반 전자출원 서비스 개통	매일경제 등	정보개발과
11.8	특허권 소멸이 예상되는 물질특허 본격적 증가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등	화학소재심사과
11.9	한번 신청으로 출원인 및 등록권자의 정보 일괄변경	충청투데이, 매일경제 등	고객서비스과
11.10	'한국특허영문초록' 국내특허기술의 해외보호 내게 맡겨라	파이낸셜뉴스 등	정보관리과
11.12	정부기관도 브랜드로 마케팅한다	한국경제, 경향신문 등	상표2심사과
11.12	특허청, KT와 「휴대인터넷 기술 및 특허동향 분석」 합동세미나 개최	디지털타임스 등	네트워크심사팀
11.13	이제는 운동헬스기구도 IT시대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섬유생활용품심사과
11.14	"소비자 시각을 잡아라" ... '상표'에 디자인 바람	머니투데이 등	서비스표심사과
11.15	콩으로 만든 보약 「청국장」	뉴시스 등	식품생물자원심사과
11.15	발명 퀴즈를 풀고 다양한 경품에 도전하세요!! -도전 발명 골든벨-	디지털타임스, 매일경제 등	산업재산정책과
11.16	돌돌돌 말아먹는 김밥, 변신으로 소비자 입맛을 유혹하다!	뉴시스 등	식품생물자원심사과
11.19	특허청 인사혁신, 그 두 번째 도약	서울신문 등	인사과
11.20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현상모집」 당선작 선정 시상	전자신문 등	산업재산인력과
11.21	유가 100\$ 시대의 냉·난방 에너지 지킴이!	뉴시스 등	복합기술심사2팀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11.22	원자력 관련 기술의 특허정보동향	충청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전기심사과
11.22	특허청, 올해 발명장학생 320명 선발	전자신문,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인력과
11.23	경매로 저렴하게 대기업 우수특허 사세요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산업재산진흥과
11.26	U-헬스케어 시대, 의료진단 기술의 특허보호 방향	뉴시스 등	생명공학심사과
11.27	제19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 개최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국제협력과
11.27	특허관리 어드바이저가 대학의 특허관리 효율화에 크게 기여	뉴스와이어 등	산업재산정책과
11.28	특허청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공모전 수상자 선정	뉴시스 등	산업재산정책과
11.28	특허청, 반도체 설계재산(IP) 무상배포	디지털타임스 등	반도체설계재산팀
11.29	특허청, 국가 R&D 전방위 특허정보 지원	전자신문, 충청일보 등	정보기획과
11.29	특허청, 반도체설계공모전 시상식 및 세미나 개최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반도체설계재산팀
11.30	특허청, 지식재산권 보고로 거듭납니다.	디지털타임스, 한국경제 등	정보관리과
12.3	"스포츠선수 이름", 브랜드로 인기짱!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상표3심사팀
12.3	특허청의 조직경쟁력은 초일류!	디지털타임스, 헤럴드경제 등	인사과
12.4	한국특허문헌, 유럽특허청을 통해 영문으로 서비스 개시	디지털타임스, 매일경제 등	정보협력팀
12.5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허경쟁 뜨겁다	머니투데이, 전자신문 등	일반기계심사과
12.6	특허·실용신안 등록료 대폭 인하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고객서비스과
12.6	국내 최고(最古)·최대(最大) 발명품 전시회 '2007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산업재산진흥과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12.6	한국 전통지식 포탈 개통	한국경제, 중앙일보 등	특허심사정책과
12.7	온라인상에 위조상품 더 이상 발 못붙인다	뉴시스 등	산업재산보호팀
12.7	변리사 2차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대전일보 등	산업재산인력과
12.10	제7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참석	한국경제, 중앙일보 등	국제협력과
12.11	편지봉투에 담긴 특허	뉴시스 등	운반기계심사과
12.12	특허청, 「디자인 맵 설명회」 개최	전자신문, 중도일보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12.12	2008년부터 발명·특허 특성화고 4개교 지원	파이낸셜뉴스, 중도일보 등	산업재산인력과
12.13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지식재산 국제세미나 개최	전자신문 등	정보협력과
12.14	한·중 지식재산권 전문가 상호 파견 합의	중앙일보 등	국제협력과
12.24	2007년 하반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중앙일보, 디지털타임스 등	특허심사정책과
12.17	서명만으로 특허출원서 등의 제출 가능	서울경제, 충청투데이 등	고객서비스과
12.18	데이터 전송, 인체를 이용하다	디지털타임스, 조선일보 등	정보심사과
12.18	선품기를 1년 내내 쓴다?	충청투데이 등	공조기계심사과
12.20	가열되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중앙일보, 디지털타임스 등	국제상표심사과
12.21	특허심판, 연내 6개월 이내로 단축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심판정책과
12.22	특허청, 정부기관 보안업무평가 대통령표창수상	디지털타임스 등	운영지원과
12.26	특허청, 상표분야 기술규격 국제표준으로 채택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등	정보협력팀
12.27	휴대폰 충전 이제는 무선으로!	충청투데이, 전자신문 등	통신심사과
12.27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자신문	산업재산정책과
12.31	숙취해소식품, 특허로 따져보기	뉴시스 등	식품생물자원심사과

나. 청장 언론사 인터뷰 및 대담

일 자	언 론 사	장 소	주 제
1,11	YTN	후생동 대강당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1,22	KTV	스튜디오	강지원의 정책데이트'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
3,14	KTV	스튜디오	국정와이드 '특허청 개청 30주년, 성과와 과제'
3,24	YTN	스튜디오	클로즈업 '특허청 개청 30년'
3,26	KBS	집무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급
5,01	KTV	스튜디오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선진화된 특허제도 지식재산강국 이끈다'
5,17	전자신문	집무실	세계 4대 특허 출원국 위상 확인
5,17	디지털 타임스	집무실	지식재산강국 협력 기틀 마련
5,18	MBN	COEX	제 42회 발명의 날 기념식
5,18	KTV	COEX	KTV 중계식 '제 42회 발명의 날 기념식'
5,27	KBS	KBS스튜디오	도전 발명골든벨
5,29	전자신문	플라자호텔	특허침해 공동소송대리제 도입 좌담회
7,31	DAEDEOK INNOPOLIS	서면 인터뷰	미래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창고 대덕특구
8,01	KTV,연합TV	COEX	제20회 대한민국학생발명 전시회
8,03	YTN	YTN 본사	특허청-YTN 업무협약
8,03	MBN,한경WOW, KTV,산업기술방송	COEX	상표-디자인전
8,06	경향신문	집무실	세계서 가장 빠른 '초고속 심사'
9,05	YTN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회의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개원20주년
9,24	YTN	집무실	세계는 지금 특허전쟁 중!
10,11	YTN	스튜디오	사이언스 포커스대담
10,15	국제상표협회(INTA) 뉴스레터10월호	서면 인터뷰	국제상표협회(INTA)뉴스레터 청장 인터뷰
10,22	YTN	집무실	고객맞춤형 특허 등장한다
10,30	MBN,KTV,연합TV	COEX	2007 특허정보 콘퍼런스
11,29	KTV	집무실	신에너지기술개발 지원단 발족

다. 청장기고

일 자	언 론 사	주 제
1.10	충청투데이	세계 제일의 특허청을 향한 도전
1.15	대전일보	지식재산강국 실현 끊임없는 혁신
1.25	서울경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2.07	충청투데이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3.07	충청투데이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조화
3.30	매일경제	당신은 T자형 인재입니까
4.04	충청투데이	지식재산 강국을 향해
5.02	충청투데이	특허분쟁을 예방하려면
5.19	한국일보	지식재산 '넛 크래커'
5.31	내일신문	변화와 혁신, 그리고 성공요인
6.27	충청투데이	지식인재 양성 대학에서 시작
7.06	전자신문	특허경영, 경제도약의 지름길
7.23	세계일보	지식재산 강국 실현하는 특허심사 하이웨이
8.09	한국경제	미니스커트와 디자인 스피드
10.17	서울경제	기술수출국으로 가자
11.05	서울경제	위조상품, 뿌리쳐야 할 유혹
11.06	동아일보	특허소송 변리사도 참여 가능하게
11.07	전자신문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11.12	서울경제	시장을 지배하는 힘, 브랜드
11.19	서울경제	블루오션 개척하는 특허정보
11.26	서울경제	구매욕구 자극하는 디자인 경영
12.03	서울경제	좋은 발명의 지름길, 직무발명 보상
12.06	한국일보	전통지식은 국가경쟁력 원천
12.10	서울경제	좋은 변리사 선임하려면
12.17	서울경제	빠르고 정확한 특허심사
12.24	서울경제	보상 차별화가 경쟁력 확보 지름길
12.31	서울경제	고객감동, 이 시대의 생존전략

지식재산백서 2009

발행일 : 2009년 4월

발행인 : 고 정 식

발행처 : 특 허 청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 2009 지식재산백서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재정담당관
(042-481-861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백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정보광장-간행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